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

2016. 8

성북구청  
성북문화원

성북구청

|     |           |
|-----|-----------|
| 장순봉 | 문화체육과장    |
| 이병곤 | 성북동역사문화팀장 |
| 김정희 | 주무담당관     |

연구책임

|     |                 |
|-----|-----------------|
| 조규태 |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
|-----|-----------------|

연구원

|     |                           |
|-----|---------------------------|
| 강성봉 |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
| 권기중 |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
| 정호섭 |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
| 이주은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 배경식 |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
| 박준범 |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 특임교수        |
| 한동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연구원 |
| 최호진 | 지음 연구소 대표 연구원             |
| 김준현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
| 박수진 | 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
| 백외준 | 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연구원          |

연구보조원

|     |                      |
|-----|----------------------|
| 민문기 | 성북문화원 문화교육예술팀        |
| 권영수 |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과정  |
| 권순홍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수료 |

제출문

성북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8월

연구책임자(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조규태 (인)



# 목 차

|       |                 |     |
|-------|-----------------|-----|
| 1장.   |                 |     |
| 연구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016 |
|       | 2. 연구의 목적       | 016 |
|       | 3. 연구의 범위       | 017 |
|       | 4. 연구의 내용       | 017 |
|       | 5. 연구의 방법과 추진체계 | 018 |

|               |                           |     |
|---------------|---------------------------|-----|
| 2장.           |                           |     |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개관 | 1.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 022 |
|               | 2.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 023 |
|               | 3. 성북동 개관                 | 024 |
|               | 4. 성북동 연표                 | 026 |
|               | 5.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 030 |
|               | 6. 기존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분석 | 032 |

|                       |                      |     |
|-----------------------|----------------------|-----|
| 3장.                   |                      |     |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성격과 활용 방안 | 1. 성북동 역사문화자원별 특징    | 042 |
|                       | 2. 성북동 역사문화자원별 활용 방안 | 045 |

|            |                           |     |
|------------|---------------------------|-----|
| 4장.        |                           |     |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 1. 성북동의 유래와 자연환경          | 052 |
|            | 2. 조선시대 역사 자원             | 056 |
|            | 3. 일제강점기 역사 자원            | 090 |
|            | 4. 현대 역사 자원               | 146 |
|            | 5. 성북동 문학 자원              | 172 |
|            | 6. 성북동 미술 자원              | 188 |
|            | 7. 성북동 건축 자원              | 222 |
|            | 8. 성북동의 주요 공간과 인물         | 242 |
|            | 9. 구술 자료                  | 260 |
|            | 10.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방안 | 284 |
|            | 11. 성북동 박물관 건립 방안         | 260 |

|         |                          |     |
|---------|--------------------------|-----|
| 5장.     |                          |     |
|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296 |
|         | 2.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을 포괄하는 키워드 | 296 |
|         | 3. 제언                    | 297 |

|    |                               |     |
|----|-------------------------------|-----|
| 부록 |                               |     |
|    | 1. 성북동의 문화재                   | 300 |
|    | 2. 성북동의 문화시설 및 단체             | 302 |
|    | 3. 일제강점기 성북동 기사(신문)           | 303 |
|    | 4. 일제강점기 성북동 기사(잡지)           | 306 |
|    | 5. 성북동 독립운동가 주소지              | 307 |
|    | 6. 성북동 문화예술인 주소지              | 309 |
|    | 7. 성북동 문학 관련 자료(신문/잡지/작품)     | 310 |
|    | 8. 성북동 박물관 및 미술관(갤러리) 등 현황 방안 | 313 |
|    | 9. 성북동 소재(관련) 서울시 미래유산        | 314 |
|    | 10. 구술자료 목록                   | 315 |
|    | 11. 참고문헌                      | 317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별 목록

| 연번 | 항목            | 자원명                       |
|----|---------------|---------------------------|
| 1  | 성북동의 유래와 자연환경 | 성북동의 마을 이름                |
| 2  |               | 성북동의 자연환경                 |
| 3  | 조선시대 역사 자원    | 한양도성                      |
| 4  |               | 숙정 · 흥덕 · 혜화문             |
| 5  |               | 각자성석                      |
| 6  |               | 선잠단                       |
| 7  |               | 영성단                       |
| 8  |               | 성북둔                       |
| 9  |               | 성북동포백훈조계                  |
| 10 |               | 상춘객들과 한시                  |
| 11 |               | 별서정원                      |
| 12 | 일제강점기 역사 자원   | 일제강점기 성북동의 변화             |
| 13 |               | 성북동의 독립운동가들               |
| 14 |               | 주민자치 운동                   |
| 15 |               | 삼산학교                      |
| 16 |               | 조선인 부호들의 별장               |
| 17 |               | 보화각(간송미술관)의 설립            |
| 18 |               | 문인촌의 형성                   |
| 19 |               | 근대 신문화운동의 거점, 성북동         |
| 20 | 현대 역사 자원      | 해방 이후 성북동의 시기별 변동과 공간의 변모 |
| 21 |               | 해방 이후 성북동의 좌우 갈등과 극복 노력   |
| 22 |               | 1950년대 전쟁의 아픔과 성북동        |
| 23 |               | 1960~70년대 성북동의 개발         |
| 24 |               | 1980~90년대 성북동의 재발견        |
| 25 | 성북동 문학 자원     | '성북동 문학' 의 범주 확장          |
| 26 |               | 새롭게 조명 받아야 할 성북동 작가들      |
| 27 |               | 성북동 관련 문학작품               |
| 28 |               | 문인 커뮤니티와 성북동              |
| 29 |               | 성북동(구) 문인의 교과서 수록 작품      |

| 연번 | 항목                       | 자원명                      |
|----|--------------------------|--------------------------|
| 30 | 성북동 미술 자원                | 아방가르드 미술인들의 동네, 성북       |
| 31 |                          | 성북의 동양화가들                |
| 32 |                          | 성북의 서양화가들                |
| 33 |                          | 성북의 조각가                  |
| 34 |                          | 성북의 서예가                  |
| 35 |                          | 성북의 공예/건축가               |
| 36 | 성북동 건축 자원                | 성북동의 형성과 변화              |
| 37 |                          | 성북동 건축의 형성               |
| 38 |                          | 성북동 건축 문화 자산             |
| 39 |                          | 성북동의 건축 문화와 그 활용         |
| 40 | 성북동의 주요 공간과 인물           | 해곡 최순우와 최순우 옛집           |
| 41 |                          | 한국 최초의 기업미술관 설립자 이흥근     |
| 42 |                          | 문화재 수장가 수정 박병래           |
| 43 |                          | 수연산방과 상허 이태준             |
| 44 |                          | 성북동 이종석 별장               |
| 45 |                          | 승설암과 승설암도                |
| 46 |                          | 근원 김용준과 노시산방             |
| 47 |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 48 |                          | 길상사                      |
| 49 |                          | 심우장과 만해 한용운              |
| 50 |                          | 성리암과 김일엽                 |
| 51 |                          | 김환기 · 김향안 부부의 집          |
| 52 | 구술 자료                    | 김황용(성북동주민자치위원장)          |
| 53 |                          | 김철우(성북동천대표)              |
| 54 |                          | 김순희(협동조합성아들이사장)          |
| 55 |                          | 최성수(시인)                  |
| 56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br>아카이브 구축 방안 | 성북구 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정의 |
| 57 |                          |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방안      |
| 58 |                          |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 활용 방안      |
| 59 | '성북동 박물관' 건립 방안          | '성북동박물관'건립 방안            |
| 60 |                          | 성북동 도보 관광 코스 운영          |

# 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내용
5. 연구의 방법과 추진체계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연구의 배경

-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수집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 이를 지역 브랜드 구축 및 정체성 확립과 연결짓고 있음
- 성북구의 대표적인 행정동인 성북동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조선시대 이래 오랜 역사와 근현대의 풍부한 문화예술 전통을 간직한 역사문화마을
- 2013년 10월, 서울시는 성북동을 역사문화지구로 선정하여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지성적, 학술적 토대 마련이 시급

### • 연구의 필요성

- 성북동은 조선시대 및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문화자원의 보고로서 시대별, 공간별, 주제별 자원을 발굴하여 적합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함
-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선정된 후 성북동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수행된 바 없음
- 향후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내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도 잘 분류된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을 비롯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구상해야 할 시점

## 2. 연구의 목적

###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수집

- 기존 성북동 관련 연구 성과의 수집과 검토
- 역사문화자원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 목록의 작성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추출과 정리

###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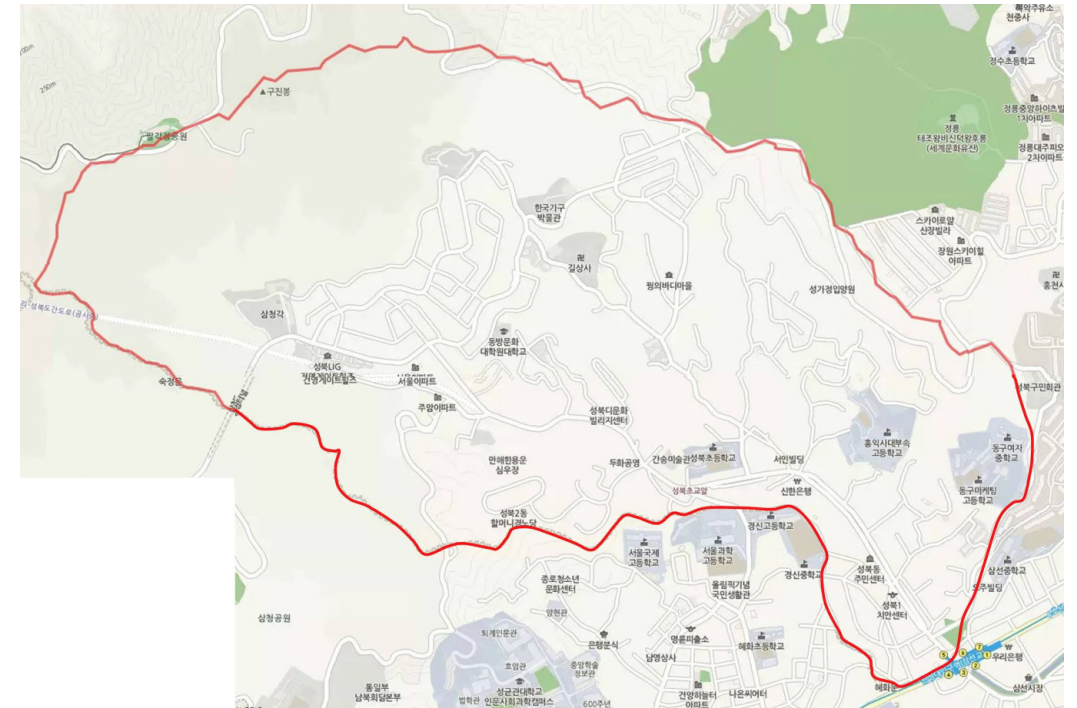
- 발굴·수집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분류 방식 도입
- 자료형태별, 주제별, 시기별, 인물별 등 다양한 분류 방식을 제시하여 향후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도움을 주도록 함

###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등 활용 방안 도출

- 분류된 역사문화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 상에 아카이브 구축 방안 마련
- 성북동을 가시적, 물리적인 공간에서 소개, 안내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3.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조선시대~일제강점기~현재(2016)
- 공간적 범위 : 성북동 일대와 인접 지역



[그림 1]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연구의 공간적 범위

## 4. 연구의 내용

###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수집

- 기존 조사되어 있는 성북동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 새로운 역사문화자원 발굴·수집을 위한 연구자별 조사 분야 분담

### • 주제별 연구 분담 내용

- 조선시대 성북동의 역사 : 동명의 유래/ 자연환경/ 한양도성의 축조와 수축/ 성북둔의 설치/ 성북동포백훈 조계/ 별서정원/ 한문학 작품 등
- 일제강점기 성북동의 역사 : 일제강점기 성북동의 공간 변화/ 성북동 주민들의 삶의 변화/ 교육기관/ 독립 운동과 독립운동가들/ 문화운동/ 성북동 거주 문화예술인물 등
- 현대 성북동의 역사 : 8.15해방 이후 성북동의 인구 및 공간 변화/ 해방 후 성북동의 좌우대립과 6.25전쟁/ 연대별 성북동의 주요 변동 사항 및 사건 등



- 성북동 관련 문학 : 성북동 문학의 개념과 범주/ 성북동 작가들/ 성북동 관련 문학작품/ 성북동 문학 관련 공간 등
- 성북동 관련 미술 : 근현대 한국미술의 흐름에 있어서 성북동의 의미/ 동양화가/ 서양화가/ 성북동의 미술 관련 공간 등
- 성북동 소재 문화재 : 국가지정 유·무형 문화재/ 시·도 지정 유·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 성북동 소재 건축문화 자원 : 공간의 형성과 변화/ 건축의 형성/ 건축 문화 자산/ 성북동의 건축 문화/ 활용 방안
- 구술 자료 : 기존 조사된 구술 자료의 목록 정리/ 신규 구술 인터뷰 자료
- 활용 방안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성북동 박물관 설립/ 도보여행 코스 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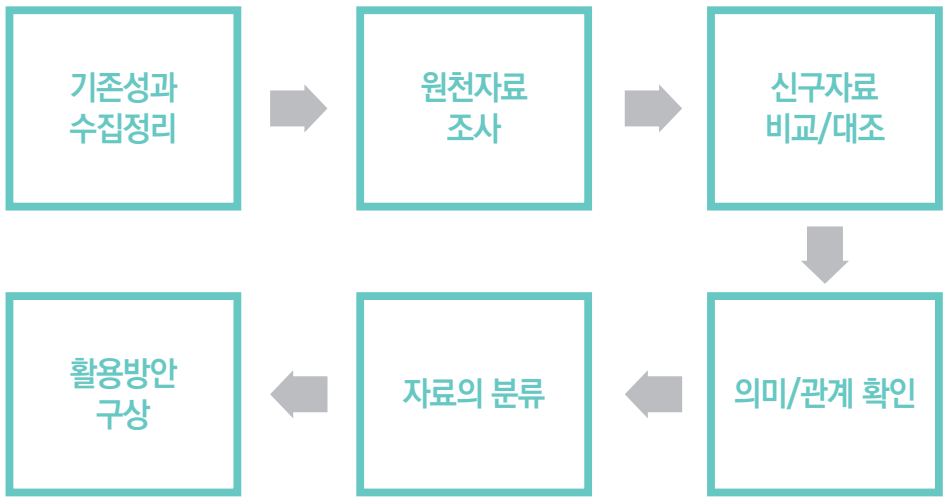
•발굴 · 수집한 역사문화자원의 분류

- 형태별 : 문헌기록/ 구전자료/ 구술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
- 시기별 :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대/ 최근(2010년대)
- 공간별 : 산/ 하천/ 도로/ 거주지/ 공공건축/ 공공공간 등
- 주제별 : 역사/ 문학/ 미술/ 문화재/ 건축/ 활용방안 등

5. 연구의 방법과 추진체계

•연구의 절차와 방법

- 기존 연구성과의 수집과 정리
-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을 위한 원천자료의 조사(문헌조사 · 현장조사)
- 기존 연구성과와 원천자료의 비교 · 대조를 통한 사실관계의 정리
-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의 의미 파악과 다른 자원과의 관계 규명
- 자료의 분류
- 활용 방안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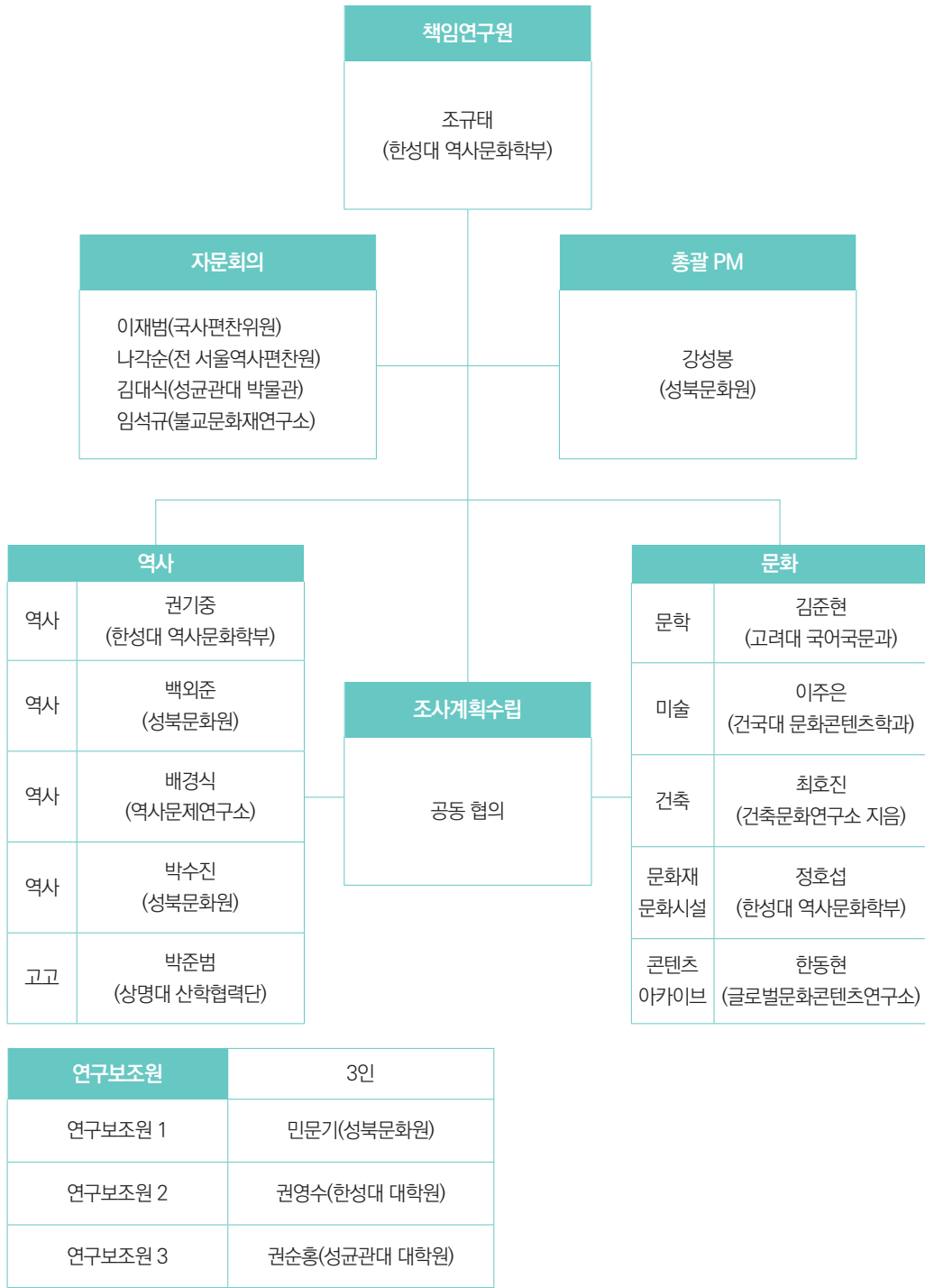


[그림2]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심층조사연구의 절차와 방법

•조사 형태별 원천자료

- 문헌조사 : 조선시대 편년사료(『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개인문집 및 일기(『흙영』, 『변암집』 등)/ 신문자료(『황성신문』,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 잡지(『삼천리』, 『문장』, 『자유문학』 등)/ 문학작품 (이태준 소설, 『근원수필』, 『성북동 비둘기』 등), 전기(『소설가 구보씨의 일생』 등)/ 학술 논문 및 단행본/ 지도 자료(조선~근현대 의 지도 자료), 각종 연구보고서 등
- 현장조사 : 문화재 및 건축물 답사, 주민 인터뷰 등

•연구 추진체계



[그림3]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심층·조사 연구 추진체계도



## 2장.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개관

1.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2.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3. 성북동 개관
4. 성북동 연표
5.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6. 기존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분석

## 1.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 ●자원(資源, resouces)의 사전적 정의

- 인간의 생활 및 경제생산에 이용되는 원천 자료로서 인간이 물질적·정신적 욕망을 만족하고 인류의 사회 생활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원천을 가리키며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그 범위는 자연·기술·경제·문화의 인적·물적 상호 관계에 의해 질적, 양적으로도 변화함

### ●역사문화자원(歷史文化資源,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의 정의

- 일정한 장소나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에 의하여 축적된 유·무형의 문화적 산물로서,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하나의 문화적 분위기로 감싸주며 공연, 관광, 출판,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 산업에 소용되는 원천 자료를 가리킴

### ●역사문화자원의 속성

- 진 정 성 : 해당 역사문화자원 스스로 그 기원이나 유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동반함
- 비대체성 :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고유성을 가짐으로써 일단 그것이 파손 또는 멸실되고 나면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지역성과 역사성을 상실한 결과가 되어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함
- 지 역 성 : 모든 역사문화자원은 그것이 소재하거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지님
- 연 속 성 : 역사문화자원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 축적되어 온 것으로 그 형태나 의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 속에서 수용-활용-전승됨
- 상 대 성 : 시대의 변천, 공간의 성격 변화, 인적·물적 상호관계의 변동에 따라 이전에 관심 밖에 있던 것들이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으로 발견됨

### ●역사문화자원의 종류

- 유형 자원 : 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 등), 예술작품(미술), 길, 건축물, 인물(현재 거주)
- 무형 자원 : 문화유산(무형문화재), 예술작품(문학·음악·연극·영화·무용), 구술자료, 인물(사망 혹은 이주)

## 2.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정의

- 성북동이라는 장소에서 또는 성북동과 연관을 가지면서 과거로부터 축적된 유·무형의 문화적 산물로서, 성북동 주민들을 하나의 문화적 분위기로 감싸주며 예술 창작활동을 비롯하여 관광·출판·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 산업에 소용되는 원천 자료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분류 기준과 내용

- 시대별 분류 : 역사문화자원을 생산된 시기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 역사관 또는 한국사의 시기 구분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집권세력의 교체에 따른 시기 구분 방식을 따름
  - 선사~고려시대 : 조선시대 이전
  - 조선시대 : 1392년 조선왕조 개창부터 1910년 대한제국 멸망까지
  - 일제강점기 : 1910년 한일강제병합부터 1945년 8·15해방 이전까지
  - 현대 : 8·15해방 이후 현재까지
- 주제별 분류 : 생활 양식, 학문·예술 분야 등 목적을 갖고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주제에 맞추어 분류하는 방법으로 세부 항목과 그 가짓수는 분류자의 관심, 자원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역 사 : 성북동의 시대상과 변화상을 알려주는 자료(공문서·편찬사료·신문·일기 등 모든 문헌기록, 문화재, 구술자료 등)
- 문 학 : 성북동에서 태어났거나 살았던 작가 또는 그들의 문학 작품/ 성북동에서 집필한 문학 작품/ 성북동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문학 작품
- 미 술 : 성북동에서 태어났거나 살았던 작가 또는 그들의 미술 작품/ 성북동에서 만들어진 미술 작품/ 성북동이 배경이나 소재로 쓰인 미술 작품
- 음 악 : 성북동에서 태어났거나 살았던 음악가 또는 연주자 또는 그들의 음악/ 성북동에서 만들어진 음악/ 성북동이 배경이나 소재로 쓰인 음악
- 연극·영화·무용 : 성북동에서 태어났거나 살았던 연극·영화·무용인 또는 그들의 작품/ 성북동에서 만들어진 연극·영화·무용/ 성북동이 배경이나 소재로 쓰인 연극·영화·무용
- 문화재 : 성북동에 소재한 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민속문화재, 기념물 등)/ 서울시에서 지정한 미래유산/ 그밖에 먼 과거부터 존재해오면서 성북동의 과거와 장소적 특징을 보여주는 보존 가치가 있는 사물 또는 자연환경
- 건 축 : 성북동의 오래된 건물(대체로 30년 이상)/ 성북동에 소재하며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중요한 기관·종교시설·사업체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
- 공간별 분류 : 성북동 및 주변 지역을 더 세부적인 공간으로 나누어 지리적 영역에 따라 분류
  - 통(統)별 : 행정 단위인 통(1~21통)을 기준으로 지역을 분할하여 역사문화자원을 배치
  - 마 을 별 : 선잠마을, 앵두마을, 선유마을, 북정마을 등 성북동 내 있는 작은 마을들을 기준으로 역사문화자원을 배치
  - 용도지역별 : 자연녹지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원, 학교
  - 주변지역 : 성북구 인근 동(삼선동, 동소문동, 돈암동, 정릉동)/ 종로구 인근 동(명륜동, 혜화동, 동숭동) 포함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 역사문화마을 성북동의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
- 문화유산과 경관 보존 및 문화친화적 공간구상을 위한 기본 자료
- 관광활성화 및 지역발전계획(역사문화지구) 수립시 활용
- 성북동 주민들의 생활 감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차별화된 문화적 분위기 조성
- 문학, 미술, 공연, 교육 분야에서 역사문화콘텐츠로 가공, 활용 가능

### 3. 성북동 개관

#### • 성북동의 형성과 변화

- 조선시대 이전 역사 검토
  - 선사시대 : 한강을 중심으로 취락을 형성되었으므로(암사동 유적지) 성북구를 포함한 성북동 지역에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삼국시대 : 서울 지역에 백제의 한성(漢城)이 있었음이 확실시되고 있으므로(풍납토성, 몽촌토성) 배후지인 성북지역에도 취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통일신라 : 2010년 성균관대학교 부근에서 신라 중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실분 2기가 발견되어 명륜동-성북동에 이르는 지역에 사람이 살았으며 신라 중대 북한산주의 주치(州治)였을 가능성도 보여줌
  - 고려시대 : 성북지역은 개성에서 남경으로 향하는 교통로를 끼고 있어 사람들이 취락을 이루고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문사, 미타사, 경국사 등 고려시대 조성 사찰이 이를 증명
- 조선시대
  - 한양도성의 북쪽 숙정문과 혜화문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골짜기 지형으로 태종 때 선잠단이 설치되었으나 조선 초 거주인구는 희박
  - 영조 연간 어영청의 성북둔 선잠단 부근에 설치되면서 인구가 모여들기 시작하고 주민 대부분은 마전과 메주 쫓기로 생활하는 서민층
  - 주민 대부분이 복숭아나무를 심어 울타리로 삼았으므로 봄철 경치가 좋아 빼어난 ‘복둔도화’라는 말과 함께 유흥지로 각광받게 되며 이와 함께 양반층의 별서정원 조성
- 일제강점기
  - 인접 지역에 경성제국대학, 보성고보 등 조선인 학교의 이전 및 설립과 경성부 시가지 확장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인구유입 발생
  - 의열단 등 1920년대 독립운동단체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으며 청년들을 중심으로 계몽운동과 주민자치운동 활발
  - 경성의 대표적 문인촌이자 부호들의 별장지대였으며 한용운, 이태준, 김용준, 김환기 등이 성북동으로 이주하여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침
- 1950~60년대
  - 한국전쟁 이후, 서울의 주택 부족률은 극에 달하여 성북동 남측 지역 일부와 낙산 일대를 중심으로 공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무허가 건축이 행해짐
  - 이 시기 신축주택 중 판자집, 가건물, 토막집 등 무허가건물이 상당부분을 차지
- 1970~80년대
  - 1960년대 후반 민간에 불하된 국유지에 고급주택(부촌)과 외교사택 형성
  - 1970년대 초 독일을 필두로 일본, 호주 등이 대사관지가 들어섰으며, 1980년대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합류하며 외교단지 형성
  - 당시 정계활동의 요람인 대원각, 삼청각 등 고급요정이 입지하는 등 정치활동의 근거지
  - 현재까지도 상당수의 정·재계 인사가 거주
- 1990~2000년대
  - 1908년 이후 폐지되었던 선잠제향이 주민들 손으로 재현되고 유명한 요정이었던 ‘대원각’이 길상사로 바뀜
  - 간송미술관, 최순우옛집, 심우장 등 성북동에 소재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도보관광 코스로 인기
  - 2013년 11월 서울시 최초 역사문화지구로 지정

#### • 성북동 일반 현황

- 자연환경 및 지리 현황
  - 성북동은 한양도성의 북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의 진산인 북악산 동측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도심에서의 거리는 약 3km 내외이고 도심의 명소인 북촌, 삼청동, 경복궁과는 1km 거리에 가깝게 위치
  - 성북동은 성북구의 서측 끝자락에 위치하며 동쪽은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성북구 돈암동, 동소문동과 면해 있고 서쪽으로는 종로구 삼청동, 부암동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은 종로구 혜화동, 명륜동과 접하고, 북쪽은 산능선과 북악스카이웨이를 경계로 정릉동과 종로구 평창동과 인접
- 인문사회 경제 현황
  - 성북동의 면적은 2.85㎢로 성북구 전체 면적의 12% 규모에 해당
  - 성북동의 내국인 인구는 2016년 11월 기준 17,874명으로 성북구내 인구(451,781명)의 3.96%를 차지함
  - 성북동은 서울 도심에 인접한 지역으로 도심으로의 접근 및 명동, 대학로, 삼청동 등 서울 시내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이 쉬움
  - 성북동은 남쪽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진입할 수 있으며, 이는 성북구 보문동, 종로구 혜화동 등과 연결되고, 서쪽 삼청터널을 통해 종로구 삼청동과 연결
  - 2016년 현재 성북동 곳곳에 주택재개발구역 존재

4. 성북동 연표

•조선시대

| 한국사의 주요 사건       | 연도(왕력)       | 성북동의 주요 사건                         |
|------------------|--------------|------------------------------------|
| 조선왕조 개창          | 1392년(태조 1)  |                                    |
| 한양도성 축조          | 1396년(태조 5)  | 홍화문(현 혜화문)과 숙청문(현 숙정문) 건립          |
|                  | 1413년(태종 13) | 선잠제와 선농제를 중사中祀로 규정                 |
| 도성 수축            | 1422년(세종 4)  |                                    |
|                  | 1424년(세종 6)  | 세종, 선잠제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함               |
|                  | 1511년(중종 6)  | 홍화문을 혜화문으로 개칭                      |
| 임진왜란             | 1592년(선조 25) |                                    |
| 병자호란             | 1636년(인조 14) |                                    |
| 도성 수축            | 1704년(숙종 30) |                                    |
|                  | 1744년(영조 20) | 임진왜란 때 파괴된 혜화문 문루를 중건              |
| 수성절목(守城節目) 반포    | 1751년(영조 27) |                                    |
|                  | 1766년(영조 42) | 어영청의 성북둔 설치                        |
|                  | 1767년(영조 43) | 포백업(마전) 시작                         |
|                  | 1768년(영조 44) | 훈조막 설치                             |
|                  | 1784년(정조 8)  | 체재공 일행, 성북동 유람                     |
|                  | 1805년(순조 5)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재발급                 |
| 경복궁 중건           | 1865년(고종 2)  |                                    |
|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체결 | 1876년(고종 13) |                                    |
|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 1894년(고종 31) | (행정구역 변동) 한성부 동서(東署) 송신방 동소문외계 성북동 |
| 을사늑약             | 1905년(광무 9)  |                                    |
|                  | 1908년(융희 2)  | 선잠단의 신위를 사직단으로 이전 삼산학교 설립          |

[표1] 조선시대 성북동 연표

•일제강점기

| 한국사의 주요 사건                          | 연도          | 성북동의 주요 사건                                                                       |
|-------------------------------------|-------------|----------------------------------------------------------------------------------|
| 한일강제병합                              | 1910년(융희 4) |                                                                                  |
|                                     | 1911년       | (행정구역 변동) 경기도 경성부 송신면 성북동                                                        |
|                                     | 1914년       | (행정구역 변동)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
| 3.1만세운동<br>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1919년       |                                                                                  |
|                                     | 1923년       | 성북구락부 조직                                                                         |
|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KAPF] 결성             | 1925년       | 성북구락부 임시총회 개최                                                                    |
| 6.10만세운동<br>한용운, 『님의 침묵』 발간         | 1926년       |                                                                                  |
| 신간회 설립                              | 1927년       | 성북소년회 조직                                                                         |
|                                     | 1928년       | 혜화문 문루 철거                                                                        |
| 신간회 해소<br>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KAPF] 해산   | 1931년       |                                                                                  |
| 이봉창·윤봉길 의거                          | 1932년       |                                                                                  |
| 구인회 결성                              | 1933년       |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짓고 이사음 소설가 이태준, 수연산방을 짓고 이사음 성북유치원 설립                               |
|                                     | 1934년       | 화가 김응준, 성북동으로 이사 전형필, 북단장 건립                                                     |
| 구인회 소멸                              | 1936년       | (행정구역 변동) 경성부 성북정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돈암지구에 성북정 포함 영명학교 설립 성북정회, 신규 요정 철폐·수도 부설 · 버스 연장 요구 |
| 중일전쟁 개시                             | 1937년       | 만해 한용운 일송 김동삼의 장례를 치름 (조현영, 조지훈 부자 참례)                                           |
|                                     | 1938년       | 성북정회, 전염병 설치 반대운동 전형필, 보화각(현 간송미술관) 건립                                           |
| 월간 문예잡지 『문장』 창간 (발행인: 김연만, 주간: 이태준) | 1939년       | 혜화문 석축 철거 선잠단, 보물 제17호 지정                                                        |
| 광복군 창건                              | 1940년       |                                                                                  |
| 일본, 진주만 기습                          | 1941년       | 성북동 산림지역, 풍치지구로 지정됨 혜화로터리-돈암동까지 전차 노선 연장                                         |
|                                     | 1942년       | 삼산학교, 공립국민학교로 전환                                                                 |
|                                     | 1943년       | (행정구역 변동)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
|                                     | 1944년       | (행정구역 변동) 경성부 동대문구 성북정 만해 한용운 심우장에서 입적(6.29) 김응준, 김환기·김향안 부부에게 노시산방을 팔           |

[표2] 일제강점기 성북동 연표

• 현대

| 한국사의 주요 사건            | 연도    | 성북동의 주요 사건                                                                              |
|-----------------------|-------|-----------------------------------------------------------------------------------------|
| 8.15 해방               | 1945년 |                                                                                         |
|                       | 1946년 | (행정구역 변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북동 삼산학교, 경성성북공립국민학교로 교명 변경<br>조지훈, 박목월·박두진과 함께 『청록집』 발간<br>이태준 월북 |
| 제주 4.3사건<br>대한민국정부 수립 | 1948년 |                                                                                         |
|                       | 1949년 | (행정구역 변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1, 2가 구분)                                                       |
| 한국전쟁 발발               | 1950년 | 인민군 서울 점령(6.28~9.28)                                                                    |
|                       | 1951년 | 김영한, 청암장을 인수하여 대원각 설립                                                                   |
| 휴전협정                  | 1953년 | 작곡가 채동선 별세(성북동 183-17)<br>작곡가 윤이상, 성북동 128-13으로 이사옴                                     |
|                       | 1954년 | 성북고등학교(현 홍익사대부고) 개교<br>김기창·박래현 화백 부부, 성북동 55-1로 이사옴<br>김수영 시인, 성북동으로 이사옴(이듬해 6월까지 생활)   |
|                       | 1955년 | (행정구역 변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1, 2동으로 분동<br>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본원 준공(성북동 90)                          |
| 4.19 민주혁명             | 1960년 | 정법사, 현재 위치(성북동 330)로 이전                                                                 |
| 5.16 군사정변             | 1961년 | 김광섭 시인, 성북동 168-34로 이사옴                                                                 |
|                       | 1962년 | 전형필 별세                                                                                  |
|                       | 1963년 | 소설가 염상섭 성북동 145-52에서 별세<br>한양도성, 사적 제10호로 지정<br>선잠단지, 사적 제83호로 지정                       |
|                       | 1966년 | 김광섭 시인, 동소문동으로 이사감                                                                      |
|                       | 1967년 | 성북동 산 25번지 일대, 외인택지 책정<br>성북천 복개공사 착공(삼선교~성북경찰서)                                        |
| 1.21사태                | 1968년 | 조지훈 시인 별세(성북동 60-44에서 발인)<br>북악스카이웨이 개통                                                 |
|                       | 1969년 | 김광섭, 시집 『성북동 비둘기』 발간                                                                    |
| 경부고속도로개통<br>전태일 분신    | 1970년 | 삼청터널 개통                                                                                 |
|                       | 1971년 | 간송미술관 특별전 시작<br>동원미술관(관장: 이흥근) 종로구에서 성북동으로 이전                                           |
| 7.4 남북공동성명<br>유신헌법 공포 | 1972년 | 삼청각 준공<br>삼청각에서 남북조절회의 만찬                                                               |
|                       | 1976년 | 최순우, 성북동 126-20으로 이사옴                                                                   |

| 한국사의 주요 사건       | 연도    | 성북동의 주요 사건                                                                                                                         |
|------------------|-------|------------------------------------------------------------------------------------------------------------------------------------|
|                  | 1977년 | 풍치지구 일부 해제<br>성북천 복개공사(삼선교 상류 180m)<br>이중석 별장,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0호로 지정<br>상허 이태준 가옥,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1호로 지정<br>김광균 시인, 성북동 330-365로 이사옴 |
| 5.18광주민주화운동      | 1980년 | 변종하 화백, 성북동 330-484로 이사옴                                                                                                           |
|                  | 1981년 | 이흥근, 유물 4,941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
|                  | 1984년 | 심우장, 서울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br>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장 별세                                                                                            |
| 6월 항쟁            | 1987년 |                                                                                                                                    |
| ’88서울올림픽 개최      | 1988년 |                                                                                                                                    |
|                  | 1993년 | 선잠제향, 85년 만에 재현                                                                                                                    |
|                  | 1996년 | 성북문화원 개원<br>한국가구박물관 개관                                                                                                             |
| IMF 구제금융 요청      | 1997년 | 길상사 개원                                                                                                                             |
|                  | 1998년 | 성북로 확장 공사                                                                                                                          |
|                  | 1999년 | 김영한 여사 별세                                                                                                                          |
| 6.15 남북정상회담      | 2000년 | 변종하 화백 별세                                                                                                                          |
|                  | 2001년 | 변종하미술관 개관                                                                                                                          |
|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 2002년 |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최순우 옛집 구입                                                                                                        |
|                  | 2004년 | 최순우 옛집 개관                                                                                                                          |
|                  | 2006년 | 최순우 옛집, ‘등록문화재 제268호’ 지정<br>숙정문 탐방로 개방<br>옛 미륵암(태고사) 자리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개교                                                             |
| 10.4 남북정상회담      | 2007년 | (행정구역 변동) 성북1동, 성북2동, 동소문1가, 동소문4가를<br>성북동으로 통합하여 관할                                                                               |
|                  | 2008년 | 성락원, 명승 제35호로 지정                                                                                                                   |
|                  | 2009년 | 북정마을 제1회 ‘월월축제’ 개최<br>성북구립미술관 개관                                                                                                   |
|                  | 2012년 | 서울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br>법정 스님, 길상사에서 입적                                                                                      |
|                  | 2013년 | 성북동, 서울시 최초 ‘역사문화지구’로 지정                                                                                                           |
|                  | 2014년 | 삼청각, ‘서울 미래유산’에 선정                                                                                                                 |
|                  | 2015년 | 우리옛돌박물관 개관<br>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등록문화재 제655호로 지정                                                                                    |

[표3] 현대 성북동 연표



## 5.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배경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면적이 1,337,938㎡로 서울한양도성, 북악산과 인접하고 역사문화자원과 우수한 자연경관을 갖추고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서울시 최초)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

- 용역착수(2012.7.13) → 주민설명회(2013.4.25) → 주민열람공고(2013.6.4~ 6.18) →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13.6.4~6.1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3.10.29)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2013.11.28.)

#### ○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수한 기준에 맞춰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임

#### ○ 성북동의 주요 역사문화자원

- 장소 : 한양도성, 선잠단지, 성락원, 이종석별장, 심우장, 이태준가옥, 최순우옛집 등
- 인물 : 만해 한용운, 소설가 이태준, 시인 김광섭, 작곡가 윤이상, 화백 김환기 등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구역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성북동1가, 동소문동1가) 일대
- 면적 : 1,476,495.5㎡
- ※ 주택재개발 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는 대신 구역 내부에 기 수립된 서울휴먼타운(선유골)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은 폐지 후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하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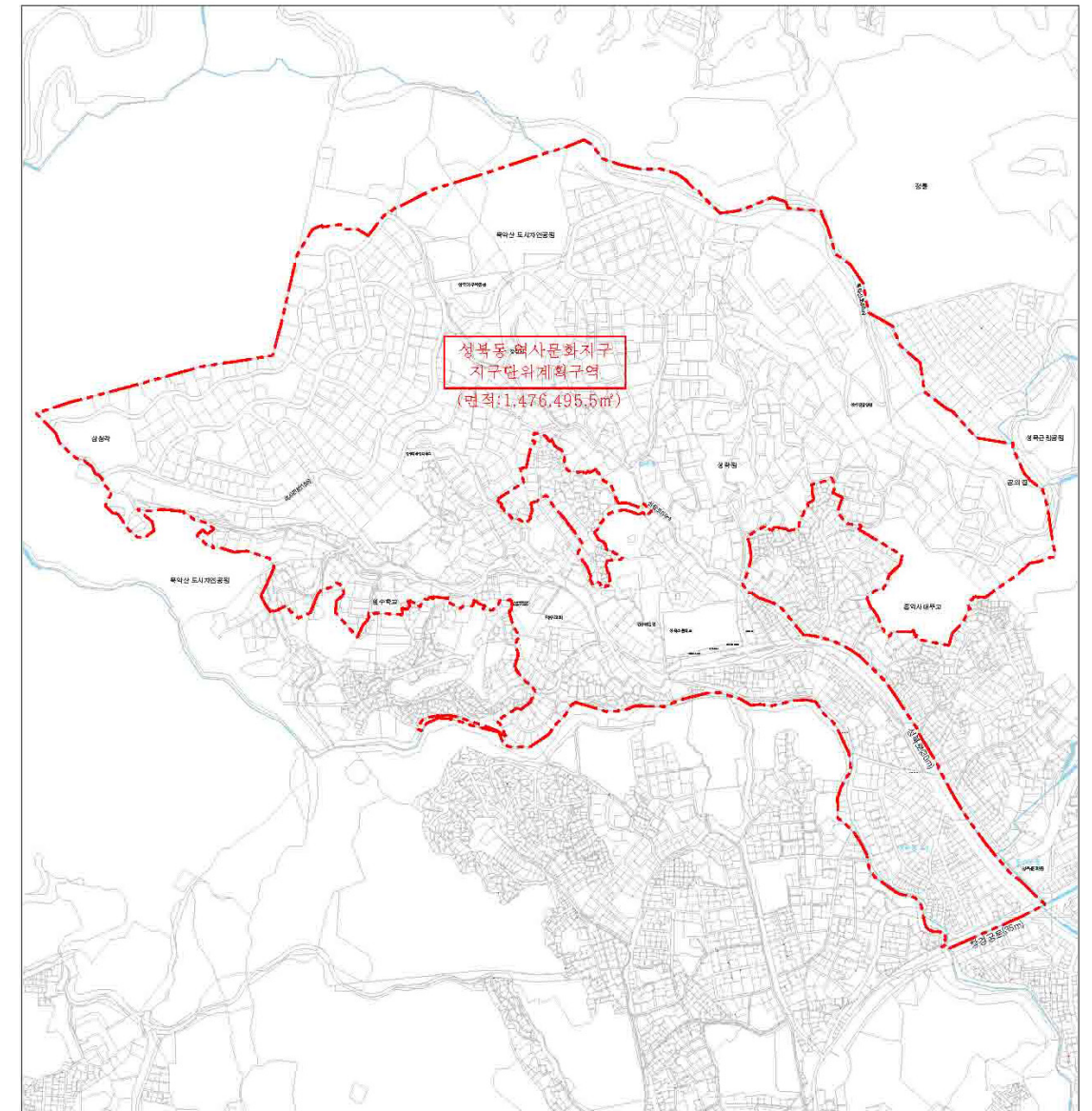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

-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성북동
- 고즈넉한 성북동의 정주환경 및 경관 보호
- 역사문화지구 품격에 맞는 가로분위기 조성
- 대규모 부지의 계획적 관리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 사항

- 전통·문화·역사가 공존하는 특화거리 조성
- 성락원 주변 : 전통한옥 상가거리 조성
- 선잠로 일대 : 고즈넉한 분위기의 탐방로 거리 조성
- 성북로 일대 : 성북동 대표 상업거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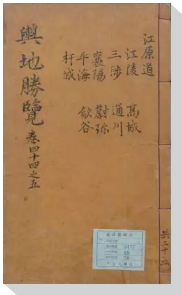
- 주제공원 및 역사문화 탐방코스 조성
- 성북쉼터 일대 거점 주제공원 조성
- 성북동 주요거점시설 탐방코스 조성(간송미술관 코스, 선잠단지 코스)



[그림4]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도

## 6. 기존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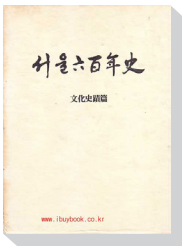
### • 1980년대 이전



- 『신증동국여지승람』제3권 비고편 (동국여지비고 제2편) (1530)
- 수록 내용 : 제3권 비고편에 “[명승] 북저동(北渚洞) : 해화문 밖 북쪽에 있는데, 동(洞) 가운데 복숭아나무를 벌여 심어서 봄철에 복사꽃이 한창 피면, 도성 사람들이 다투어 나가서 놀며 구경한다. 민간에서는 도화동(桃花洞)이라 부르며, 여영청의 성북둔(城北屯)이 있다. 북사동(北寺洞)이라고도 하며 옛날에 묵사(墨寺)가 있었기 때문에 묵사동(墨寺洞)이라고도 한다. 맑은 시내의 언덕을 따라 주민들이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생활을 한다. 늦은 봄철마다 노는 사람들과 거마(車馬)가 가득 찬다.”고 성북동(북저동)을 소개
  - 의의 : 18~19세기 성북동의 경관과 봄철 풍속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530년(중종25)에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한 조선 전기의 대표적 관찬 지리서로 1969년 국역할 때 중종조 이후의 변천된 사항을 증보하는 의미에서, 경도(京都)와 한성부(漢城府)편 말에 비고편으로 고종 초의 저자 미상의 『동국여지비고』의 경도편과 한성부편을 전문 역재함



- 『경성부사』(경성부, 1934)
- 수록 내용 :
    - 국역본 1권 112쪽 : 선잠단을 소개하면서 일제강점기의 사진 2장을 수록
    - 국역본 3권 905쪽 : 제5장 본청 구역 내에 편입된 북부 마을의 옛 모습에서 성북정을 소개
  - 의의 : 『경성부사』는 일제강점기 경성부에서 발간한 책으로 식민사학의 관점에서 경성을 중심으로 쓴 조선통사. 조선시대 관찬자료와 현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선잠단 주변 성북동의 모습을 간략히 묘사. 1930년대 당시 성북정은 경성부에 편입된 큰 마을 가운데 하나였으나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탓에 거주인구가 적지 않았음에도 매우 간략하게만 소개



- 『서울육백년사』(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77)
- 의의 :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재 서울 전 지역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망라하여 서술하였으므로 성북 지역의 행정구역의 변동, 명승, 인구 변화, 학교수의 증감, 도로와 교통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러나 성북동 관련 내용은 간략하므로 이 책의 내용을 길잡이로 삼아 더 많은 사실들을 수집, 확대해 나가야 함

### • 1980년대



- 『동명연혁고8-성북구편』(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3)
- 수록 내용 : 성북동 동명의 유래와 성북동 연혁/ 관련 문헌·詩文/ 작은 마을들(노구멧골, 운수동, 논골, 성락원, 평의바다마을, 대교단지)/ 마전터/ 숙정문/ 찰바위 전설/ 선잠단지/ 영성단/ 구준봉/ 보토현/ 심우장/ 이종석별장(이재준가)/ 이태준가옥(이태현가)/ 청룡암/ 비구니대학/ 수월암/ 약수터/ 홍대부중·고/ 서울명수학교/ 간송미술관과 소장 문화재/ 동원미술관/ 삼청각/ 대원각
  - 의의 : 성북동의 유래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와 문화재, 유서 깊은 장소 등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 전반을 조사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이후 발간되는 성북동 소개 도서의 밑그림이 되어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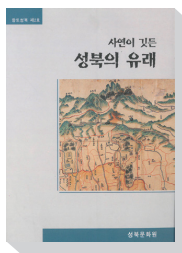
### • 1990년대



- 『성북구지』(손정목 외, 성북구청, 1993)
- 수록 내용 : 33쪽 행정구역 성북1동과 2동/ 37쪽 지질 : 대보화강암, 안암천 등 하천연안에 국지적으로 층적층 분포/ 52쪽 성북동이나 정릉동의 고지대는 성북구 중 가장 좋은 기후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88쪽 여영청 관계 서술, 성북동 260번지 수월암 남쪽 일대가 북창터로 알려짐. 1894년 폐지/ 91쪽 선잠단과 영성단 서술/ 101쪽 성북의 명승에 조선시대 성북동 풍경 소개/ 124쪽 성북지역 학교설립의 과정 - 사립 삼산학교/ 133쪽 시내버스 운행과 전차 돈암동선 개통, 자전거 대수(성북리 45대)/ 149쪽 혈거부족 이야기/ 회곡 혈맥/ 276쪽 성북구 관할구역(1970. 5. 18)/ 334쪽 성북동 지역 인구 집적 추이/ 357쪽 성북동길/ 383쪽 하천 - 성북천/ 488쪽 명수학교/ 497쪽 1963년 성북구 인구현황/ 550쪽 간송미술관/ 607쪽 태고사/ 613쪽 성북동 성당 1975년 5월 9일 인가/ 630쪽 찰바위 이야기/ 645쪽 문화유적 및 명승 소개/ 729쪽 인물(한용운, 전형필)/ 759쪽~770쪽 각동의 발자취와 현황 성북동 = 성북제1동, 성북제2동
  - 의의 : 이전에 발간된 성북동 관련 도서의 내용을 모두 수록한 동시에 성북동의 자연환경을 비롯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북동의 역사와 주민 생활상의 변화를 충실하게 다루고 있어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위한 기본 자료가 됨



- 『성북의 문화재』(박경룡, 성북문화원, 1997)
- 수록 내용 : 성북동 소재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서울시지정문화재(서울시 유형문화재, 서울시 무형문화재, 서울시 기념물, 서울시 민속자료, 비지정문화재 및 유적, 성북구 문화재 안내도)
  - 의의 : 성북문화원 창립 후 향토성북 제1호로 발간되었으며 1997년 현재 성북구 소재 지정 문화재 전반을 소개하는 도서로 성북동의 문화재 자원 조사에 참고가 됨



-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양보경, 성북문화원, 1998)
- 수록 내용 : 성북의 발자취/ 성북동(성북동의 발자취, 성북동의 이모저모)/ 운수동(논골)/ 노구멧골/ 구준봉/ 보토고개/ 삼형제우물/ 선잠단/ 성락원/ 평의바다마을/ 마전터/ 숙정문/ 찰바위(미암)/ 이재준가와 상허 이태준 고택/ 심우장/ 간송미술관/ 북악산길/ 성라암/ 비구니대학/ 삼각산 수월암/ 동원미술관/ 도자기생활박물관/ 성북동길과 성북천/ 길상사(구 대원각)/ 한국가구박물관
  - 의의 : 성북구의 자연환경, 역사, 감추어진 사연 등을 각 동별로 소개하는 책으로 이전의 문헌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성북동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맛깔나는 이야기체로 서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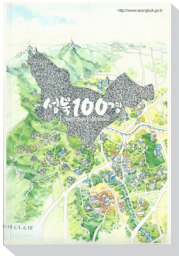


## • 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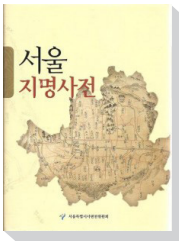
『선잠제의 역사와 의례』(장철수·김혜숙, 성북문화원, 2002)

- 수록 내용 : 선잠의례의 시대적 전개/ 선잠의례의 내용(선잠례, 친잠례)/ 맺음말/ 참고문헌
- 의의 : 성북동에 소재한 선잠단지(사적 제83호)에 깃든 역사와 선잠제향과 친잠례의 자세한 의례를 실증조사를 통하여 정리하여 놓은 책



『성북100경』(성북구청,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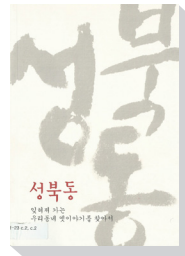
- 수록 내용 : 1. 선조의 숨결이 배어있는 문화유적(상허 이태준 가옥, 성북동 이종석 별장, 만해 한용운 심우장, 최순우 옛집, 성락원, 한국가구박물관)/ 2. 발길 닿는 곳마다 퍼지는 문화의 향기(성북문화원, 삼청각, 선잠단지, 간송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성북예술창작터)/ 3. 삶을 일깨우는 인생 교과서 ‘사찰’(길상사, 길상사 내 보호수, 정법사)/ 5. 현대인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사랑방(북악스카이웨이, 성북동저택가)/ 7.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성북구의 명소(한양도성, 숙정문, 외국인 대사관촌, 성북천)
- 의의 : 성북구의 문화관광 코스를 개발, 소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청에서 성북구의 100가지 명소를 골라 사진 및 간략한 설명, 교통편 등을 소개한 책으로 심우장, 최순우옛집, 한국가구박물관, 길상사, 성북동저택가 등 나들이나 방문하기 좋은 성북동의 장소들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음. 성북동을 문화관광 대상지로 처음 접근한 시도



『서울지명사전』(강병수 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 수록 내용 : 거수봉[자연]/ 구준봉[자연]/ 평의바다[마을]/ 노구멧골[마을]/ 논골[마을]/ 도둑골[마을]/ 도둑굴[자연]/ 도화동[마을]/ 동소문고개[자연]/ 동소문외계[조선시대 행정구역]/ 마전다리2[다리]/ 매봉[자연]/ 명랑약수[자연]/ 묵사동[마을]/ 미암[자연]/ 배밭길[가로]/ 보토고개[자연]/ 복사동[마을]/ 북둔[마을]/ 복사동[마을]/ 북저동[마을]/ 북절골[마을]/ 북창동[마을]/ 삼형제우물[자연]/ 선잠단지길[가로]/ 성락원[마을]/ 성북동[마을]/ 성북동[법정동]/ 성북동길[가로]/ 성북동1가[법정동]/ 성북동2가[법정동]/ 성북리[법정동]/ 성북정[법정동]/ 성북제1동[법정동]/ 성북제2동[법정동]/ 송신방[조선시대 행정구역]/ 쌀바위[자연]/ 안암천[자연]/ 운수교[다리]/ 운수동[마을]/ 응봉[자연]/ 청운교[다리]/ 혜화동고개[자연]/ 홍도동[마을]
- 의의 : 성북동과 관련된 지명, 자연환경, 구전설화 등을 총망라하였으며 지금은 사라진 마을, 교량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

## • 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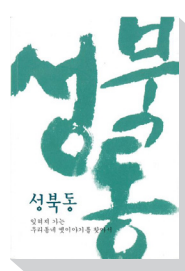
『성북동 :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1·2·3』

(송지영 외, 성북구청, 2009·2010·2011)

· 수록 내용 :

- 1권 : 성북동의 예술가 (한용운, 김용준, 이태준, 박태원, 김환기, 김광섭, 전형필, 김기창, 조지훈, 최순우)
- 2권 : 성북동의 예술가 (유치용, 변종하, 송영수, 윤중식, 서세옥, 전성우, 신영상, 송영방, 임송희, 김은영)
- 3권 : 성북동의 역사/ 별장과 나들이/ 성북동의 변화/ 마을과 생활/ 시설/ 마을사람들이 기억하는 성북동/ 성북동 문화유산

- 의의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하여 발간한 자료로, 성북동의 문화유산과 활동했던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 부록에서는 문화예술가 거주지 지도와 함께 책에서 미처 담지 못한 인물들에 대한 짧은 설명도 곁들여져 있으며 성북동에 소재한 문화재와 문화예술 관련 시설 등도 목록을 수록.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북동에 살며 활동하는 화가 서세옥의 자문을 받아 책을 완성하였음. 성북동에 관하여 이렇다할 이야기 책이 없던 시기에 발간되어, 이후 성북동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많은 조사와 활동, 탐방 교육 등에 기초자료로 다시 활용되고 있으며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의 기본 바탕이 더 튼튼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성북동을 이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중요한 자료임(서울NPO지원센터 홈페이지 책 소개 참고)



『선잠단과 길쌈이야기』(여성문화유산연구회, 성북문화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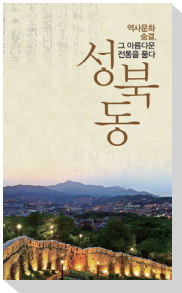
- 수록 내용 : 신화로 만나는 누에, 비단, 옷 이야기/ 조선시대 양잠업과 여성/ 친잠례와 선잠제 의례와 의의/ 18세기 이후 왕비의 친잠과 양잠산업의 변화/ 여성의 일, 길쌈의 역사와 축제/ 선잠에 관한 기억들
- 의의 : 성북동의 대표적 조선시대 문화유산 선잠단지 및 선잠제와 친잠례에 얽힌 이야기를 논문 형식으로 풀어냈으며 선잠단과 마전터에 관한 성북동 주민들의 구술 인터뷰를 채록하여 담은 책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재)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성북구청,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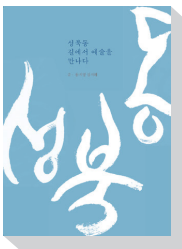
- 수록 내용 : 역사속의 성북동/ 문학작품 속의 성북동(백석과 김영한, 김환기와 아내 김향안, 간송 전형필, 만해 한용운, 수연산방, 구보 박태원 집터, 노시산방)/ 성북동 사람들-주민(정미숙, 김순기, 황선영, 이선화·노승화, 이은준, 현금동, 이효재, 최성수, 김현동·김경동, 김향규·이덕훈)/ 성북동 사람들-문화예술인(서준호, 나선화, 강성봉, 이해경, 김성희, 박준호, 최호진·송지영, 김보라, 이준희)/ 성북동 사람들-종교인(손인용, 안병노, 홍정근, 혜강)
- 의의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인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성북동 지역의 역사와 문학, 그리고 예술에 대한 내용을 두루 담고 있으며, 성북동 지역 주민과 예술가, 종교인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이 성북동에서 살아온 추억과 스토리, 현재 살아가는 모습, 지역에 대한 미래상을 담아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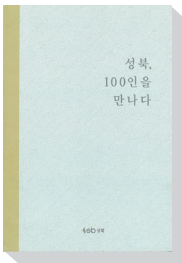
『역사문화지구 가이드북 - 역사문화 숨결, 그 아름다운 전통을 품다. 성북동』  
(성북구청, 2014)

- 수록 내용 : 성북동 들여다보기(성북동의 역사, 성북동 이모저모)/ 성북동 다시 보기(숨은 문화유산의 보고, 느릿느릿 성북동 산책)/ 성북동 지켜 가기(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 민간부문,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 공공부문)/ 역사와 전통의 성북동
- 의의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2013)를 바탕으로 하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의 현황 및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을 지도와 사진을 곁들여 소개한 책으로 성북동 도보 관광을 돕기 위한 코스맵을 작성하여 수록하였음.



『성북동, 길에서 예술을 만나다』(송지영·심지혜, 연두와파랑, 2015)

- 수록 내용 : 1. 잘생긴 아름다움/ 2. 숭굴숭굴한 맵시/ 3. 참다운 본새/ 4. 향기로운 인연/ 5. 그리운 정취
- 의의 : 최순우, 전형필, 김환기 등 성북동 문화예술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그윽한 정취의 이야기로 풀어낸 책. 『성북동 : 잊혀져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시리즈를 집필한 바 있는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혜곡 최순우기념관의 송지영·심지혜 학예사가 쓰고 연두와파랑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판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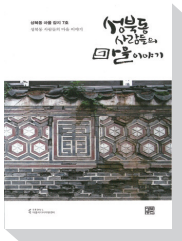
『성북, 100인을 만나다』(송지영·심지혜, 성북구청, 2015)

- 수록 내용 : 문학(한용운, 김일엽, 염상섭, 방인근, 서항석, 정지용, 주요섭, 박화성, 양주동, 이은상, 이태준, 김용준, 계용묵, 김광섭, 최정희, 윤오영, 김유정, 오영수, 박태원, 김내성, 안수길, 박계주, 김동리, 김광균, 김향안, 박연희, 전광용, 조영암, 조연현, 조지훈, 김중삼, 김수영, 김구용, 한운사, 정한숙, 정한모, 차범석, 박경리, 신동엽, 박완서, 이호철, 안동립, 고 은, 이어령, 신경림) 미술(장승업, 변관식, 장우성, 김기창, 박세원, 서세옥, 김성환, 신영상, 송영방, 정탁영, 임송희, 이규선, 윤중식, 김환기, 한 목, 이중섭, 박고석, 황염수, 김종하, 박래현, 변종하, 표승현, 전성우, 오 윤, 김종영, 권진규, 송영수, 최만린, 유치용, 김충현, 정환섭, 강창규, 김중업) 음악□무용(조택원, 김명환, 박봉술, 강선영, 김진걸, 김진진, 이생강, 채동선, 전수린, 한규동, 이인범, 윤이상, 김대현, 이봉수, 이관옥, 전봉초, 금수현), 문화(이흥근, 박병래, 임석재, 전형필, 최순우)
- 의의 : 성북구와 성북동을 무대로 활동했던 문화예술인 100인의 거주지와 간략한 활동상을 소개하는 책자로 근현대 성북 지역의 문화예술 지형도와 교유관계 등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자료



『성북동-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박수진 외, 성북문화원, 2015)

- 수록 내용 : 성북동의 역사(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대), 심우장, 노시산방, 수연산방, 간송미술관, 김광섭의 집에 얹힌 성북동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
- 의의 :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북동의 역사와 일제강점기와 현대 성북동에서 활동했던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이야기체로 풀어낸 책으로 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이 성북구 문화산책 시리즈 제 3권으로 펴냄. 일제강점기 삼산학교, 주민공동체의 활동과 8.15해방 이후 1950~60년대 성북동 주민들의 생활상을 잘 담아낸 책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1~7호 (성북동천 편집부, 성북동천, 2013~)  
온라인 <https://brunch.co.kr/@seongbukstory> (김성북의 브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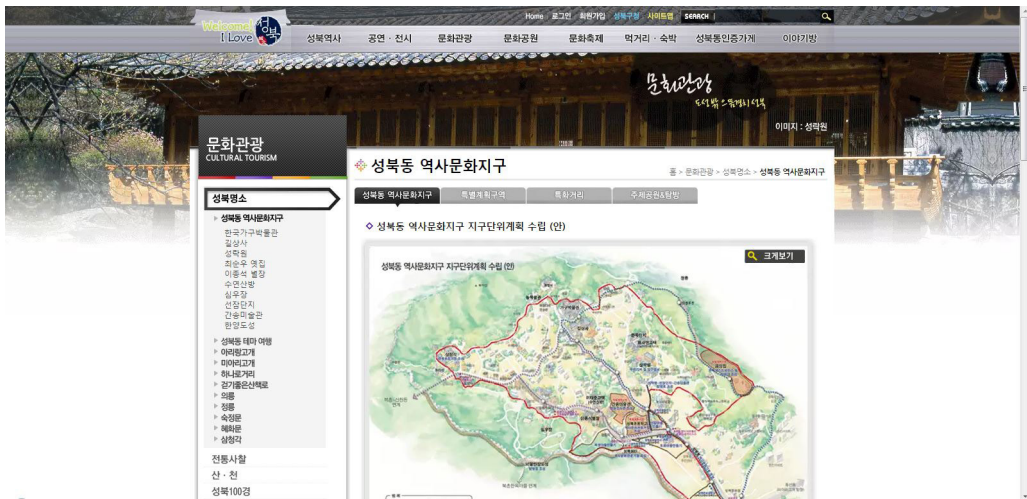
- 수록 내용 :
  - 1호 : 성북동 이야기, 한양도성, 명랑이발관, 티티카가 다이닝 클럽, 디미방, 이태준, 마을학교 등
  - 4호 : 한양도성 성북동 구간 답사기, 북정마을 이야기, 한농정육점, 심우장, 오디너리북샵, 성북동천, 성아들, 나마스페 코리아
  - 5호 : 길상사, 북악하늘길, 극단 서울괴담, 혜음한복, 성북초등학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6호 : 김광섭, 김환기, 선잠단지, 티차이차 등
  - 7호 : 주민 인터뷰 - 해동꽃농원 김은주 씨/ 성북동 문화 아지트 - 예술과 공간 그리고 이상과 현실/ 성북동 문화 아지트 - 벽 헤는 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꽃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다/ 성북동 마을여행 -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잡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성북동 문화재 답사기 - 현존하는 3대 요정, 삼청각을 찾아서/ 우리 동네 문화재 - 여유와 느림의 미학, 삼청각의 주련/ 우리 동네 문학 살롱 - 방우산장기/ 우리 동네 문학 살롱 - 조지훈의 〈절정〉/ 성북동의 한옥 - 한옥에 산다/ 성북동의 한옥 - 한옥! 낯선 익숙함/ 성북동의 한옥 - 한옥의 보존과 활용, 그 가치를 높이자/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 북정동 사람들
- 의의 : 성북동 주민공동체 ‘성북동천’이 2013년 11월에 창간한 마을잡지로 2016년 10월 현재 제7호까지 발행하였으며 성북동 주민들이 꾸려가는 나날의 생활과 골목골목에 담긴 역사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성북동을 더 나은 마을로 만들어 가려는 주민들의 고민이 담겨 있음

## • 기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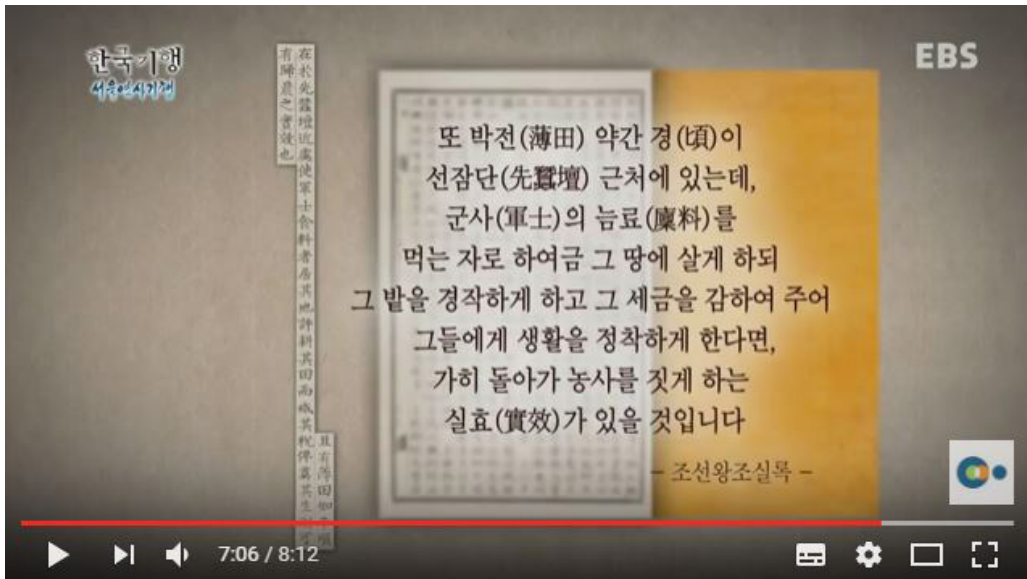
- 성북동 안내 팸플렛, 『성북동 예찬』(성북구청, 2014)



- 성북동 문화관광 홈페이지(성북구청)



- EBS 다큐멘터리 『한국기행』, 「서울 역사기행 4부 : 성북동 사람들」(2014년 7월 방영)



## 3장.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성격과 활용 방안

1. 성북동 역사문화자원별 특징
2. 성북동 역사문화자원별 활용 방안



## 1. 성북동 역사문화자원별 특징

### • 조선시대 역사 자원

- 성북동의 지리적 윤곽은 조선왕조의 개창에 이은 한양도성의 축조와 더불어 결정되었으며 태종대에 이루어진 선잠단의 축조 또한 마을 형성의 간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음
- 조선후기(1765년, 영조 41)에 와서 설치된 군사시설인 ‘성북둔(城北屯)’과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된 ‘성북동포백훈조계(城北洞曝白燠造契)’는 당시까지만 해도 인가가 거의 없던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주민이 모이고 ‘성북동(城北洞)’이라는 동명이 생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됨
- 이후 성북동은 도성과 가깝고 자연 풍광이 수려하다는 점 때문에 봄마다 상춘객들이 모여들어 ‘북둔도화(北屯桃花)’라는 명성을 갖게 되고 19세기 초 반 무렵이면 도성 양반들의 별서지로 주목을 받음
- 이와 같이 조선후기 도성 동북부 성저(城底)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 성북동은 포백(마전)과 훈조(메주 쭈기)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의 주거지와 양반들의 별서정원 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독특한 인문지리적 환경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북동의 주거환경적 특징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
- 더욱이 한양도성, 선잠단지, 마전터, 성락원 등 조선시대의 유적들은 오늘날 마을의 주요 경관요소로 자리 잡아 많은 탐방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 생산에 활용되고 있음

### • 일제강점기 역사 자원

- 국권을 일제에 빼앗기고 한성부가 경성부로 바뀌며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성북동은 안팎으로 큰 변화를 경험
- 경성부의 인구증가와 시가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성북동의 공간적 성격 또한 변화해 갔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현대적 교통수단이 신설됨으로 인해 도심과의 거리가 몰라보게 단축된 것임
- 이와 함께 1920년대에는 인근 지역에 경성제대, 중앙불전, 보성고보 등 조선인 대상 교육기관이 들어서게 되자 성북동은 이들 ‘학교촌’의 배후지로서 기능함
- 이와 같은 공간 변화는 성북동의 학생, 중류층 등 다양한 계층의 인구유입을 불러옴
- 서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비밀리에 성북동에 근거지를 두었으며 이 시기 뛰어난 문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데 이는 성북동이 일제강점기 신문화운동의 한 거점으로서 알려지는 계기가 됨
- 성북동의 주민 자치 조직 또한 볼 만한 것으로 1908년에 설립한 삼산의숙(삼산학교)은 성북구 지역 최초의 학교인 것이며 이들 설립에 참여한 주민들은 그 뒤에도 꾸준히 성북구락부, 성북정회 등 마을 자치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척박한 시대의 공동체적 삶을 조직해 나감
- 일제강점기 성북동의 변화는 오늘날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단순한 사실의 열거보다는 사실의 연결과 종합을 통하여 이 시대 성북동 사람들의 활동적 삶과 예술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나아 가야 할 것임

### • 현대 역사 자원

- 8.15해방 이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의 참화를 거치면서 성북동 주민들은 계층과 상관없이 상실, 피난, 이산의 아픔을 감내해야 했고 인구도 격감하였지만 마을의 공간적 틀은 큰 변화 없이 산업시대로 이어졌음
-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거대한 이촌향도의 물결 속에서 성북동도 다른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입 인구가 급증하여 주택난에 시달림
- 성북구의 다른 지역, 청량리 등지에 비해 전차, 버스가 운행하고 도심의 일터와 가깝다는 점은 여전히 좋은 입지 조건으로 작용하여 1970년에 이르면 인구 27,000명의(1949년의 2배) 인구를 품은 거대한 동네가 됨
- 1970년대 성북동은 공간구조 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삼청터널의 개통(1970)과 그에 따른 ‘부촌’의 형성이 그것으로 곧 성북동은 외부에 한국의 제일가는 부촌으로 알려지게 됨
- 1970년대 이후 성북동은 서민들의 주거지와 상류층의 주거지가 한양도성 성곽에 의해 구획된 하나의 공간 속에 마주보고 있는 독특한 경관을 가지게 됨
- 1980년대 후반에 마무리된 성북천의 복개 역시 성북동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된 복개에 이은 도로의 확장으로 주민들의 이동은 한결 편리해졌지만 예전의 느리고 조용했던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사라짐
- 1990년대는 성북동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로 선잠단지의 정비와 선잠제향의 재현, 심우장의 정비,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시작된 성북동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길상사의 개원과 최순우 옛집의 개방으로 한층 깊어지며 오늘에 이르고 있음

### • 성북동 문학 자원

- 기존의 ‘성북구와 문학/문인’ 조사는 주소지/거주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폭 넓은 문화허브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성북동을 무대로 하여 활동했던 작가들의 행적을 주소지만으로 재구하는 것은 한계를 안고 있음
- 성북동에는 작가들이 집필활동을 했던 암자 등이 존재했는데, 이곳에서 집필된 작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기록만으로는 파악 불가능함
- 작품에서 성북동을 주요 소재/배경으로 삼았던 작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거의 되지 않음
- 성북구와 성북구 주민의 이미지를 대중에 각인시키고 이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 문인들의 역할이 지대하며 이들을 ‘성북구 문인’의 명단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음
- 성북동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에게 ‘풍류를 아는 교양인들의 주거지’로서의 이미지를 수립하여 왔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성북동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문 학작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었음
- 이들 작품에서는 경제적 여유를 갖춘 교육자, 작가, 사회운동가들이 성북동 거주자로서 흔히 설정되었는데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성북동 문학’으로 적극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성북동 비둘기」가 표제 때문에 성북구 관련 대표 문학 작품으로 호명되는 것은 반성할 여지가 있으며 성북동이 갖고 있는 문화공간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표제가 아닌 실제 내용의 독해를 통해 성북동이 갖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재구할 필요가 있음

## • 미술 자원

- 미술동네 사람들에게 성북이라는 동네는 친정, 혹은 본가처럼 친근하기도 하고 고향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인데 이는 미술계 원로가 된 스승들이 아직도 많이 이웃해 거주하고 있고, 고인이 된 미술인들의 집이 미술관으로 문패를 바꿨던 곳들도 많기 때문임
- 지금은 너무 부자동네가 되어 버려서 진입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반세기전, 막 성북동이라는 동네가 생겨나기 시작하던 그 시절엔 젊은 미술인들이 창작의 푸른 꿈을 안고 이웃해 들어오던 곳임
- 물 좋고 산 좋아 작품의 영감이 저절로 떠오르고, 지가나 방세가 저렴한 편이어서 작품활동에 필요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기 쉬웠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
- 1950~60년대부터 성북의 이곳저곳에 자리 잡았던 젊은 미술인들은 아카데미즘적 미술전통을 순순히 따르기 보다는 새로운 변화와 저항의 예술을 표방하며 ‘아방가르드’의 맨 앞줄에서 활동함
- 그 시절 성북에 자리 잡은 ‘아방가르드 예술의 미래’였던 젊은 그들은 이제는 머리 희끗한 미술계의 원로로 후배 예술인들의 큰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음
- 조선후기부터 이어져 왔던 ‘마전’은 미술과 이 지역의 인연을 예고하는 듯 보이는데 화폭의 흰 천을 연상케 하는 2백년 전 성북 주민의 마전 일은 훗날 이 지역에 살게 되는 미술인들의 도래를 예고한 듯이 여겨지는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임

## • 건축 자원

- 성북동은 서울 한양도성의 바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의 건축은 성곽, 제단, 별서 정원의 정자와 별장이 남아 있음
- 일제강점기부터 오랜기간 풍치지구에 해당하여, 도성 밖의 중요한 자연 경관을 형성해왔고 근대기를 거치며, 문화예술인들이 성북동에 자리를 잡고 저마다의 거처를 짓거나 꾸며, 현재까지도 풍성한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성북동 초입의 삼선교를 횡단하는 전차가 다니고, 일제강점기 돈암지구가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계획된 필지에 대량의 한옥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성북동의 위쪽으로는 미치지 못하고 개발시기까지 유지됨
- 6.25 전쟁 전후 인구가 유입되며 성곽 아래쪽으로 판자촌이 등장하다가, 성북천의 복개와 도로 확장, 삼청터널의 개통과 함께 성북동의 높은 언덕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함
- 요정과 암자가 다수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 주거지역은 계속 확장되어 성북동길 양옆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
- 별장과 주거용 한옥이 대표적인 문화재로 남아있는 한편, 보화각 등 근대건축이 등장하기도 하는 성북동은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들의 작업이 펼쳐지는 장이 되기도 하였고, 언덕 위 고급 주택 지역에는 대사관 저가 대거 자리하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함
-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주거지역은 관리의 차원으로 넘어가, 대량으로 지어진 한옥의 군락이 제도적 보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곳곳에 자리한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형성되었음
- 통과도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북동의 남쪽과 북쪽 진입 지역 주변으로는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성북동은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2. 성북동 역사문화자원별 활용 방안

### • 성북동 아카이브 구축

- 문화자원 디지털화
  - 성북문화원이나 문화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류류, 포스터, 일반 사진, 음원 등의 디지털화
- 문화자원 분류 체계 확립
  - 문화자원을 공간, 시간, 주제, 형태별로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검색 및 활용에 용이하도록 구축
  - 문화자원 메타데이터 작성
  - 수집된 문화자원에 대한 상세한 메타데이터를 작성
  -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집 및 생성 시부터 관리표를 작성
  - 관리자/서비스 시스템 구축
  - 관리자 시스템에는 등록자별로 권한을 부여하여, 성북구 주민들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아카이빙에 대한 최종 등록은 성북문화원 관리 담당자가 수행
- 서비스 콘텐츠 개발
  - 아카이브의 주요 사용자를 정의하여 이용자별로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
  - 향후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고려하여 UI 등을 구축
- 문화 사업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는 현용자료와 비현용자료 모두를 관리하기 때문에, 성북구나 성북문화원이 새로운문화 사업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고 자료 제공
  - 주민들과 소통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아이디어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가능
  - 지역민이 주도하는 마을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 및 방식 제공 및 행사 홍보
- 성북구 내 다양한 문화행사 및 문화자원 홍보
  - 실시간으로 성북구 내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민들 및 타지역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며, 문화지도 및 지식맵을 통하여 성북구 내 다양한 문화자원을 알림으로써 관광객 및 문화행사 관람객 유치
  - VR 및 AR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박물관을 구축함으로써 성북구의 다양한 문화자원 홍보
- 학교 및 문화 강좌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
  - 성북동 문화자원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원자료 및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자료로 활용
  - 원자료 공개를 통하여 성북구 지역에 관한 전문 연구 활성화
  - 문화콘텐츠 기획자 및 스토리텔러 등에게 아이디어 제공
  - 문화콘텐츠 기획자 및 스토리텔러 등에게 다양한 스토리를 제공함으로써, 출판, 영화, 연극, 음악 공연 기획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활성화

### • ‘성북동 박물관’(가칭) 건립

- ‘성북동박물관’(가칭) 건립의 필요성
  - 성북동의 역사, 문학, 예술 조명 및 각종 기록, 자료의 보존 관리
  - 성북동의 역사문화 전통의 계승과 지역 정체성의 유지, 계발
  - 시민, 학생, 어린이 대상 역사교육의 장 마련
  - 성북구 내 역사문화공간의 확충
  - 성북동 도보관광 관리·활성화를 위한 관문 또는 센터 역할



- 성북동박물관의 개념과 내용

- 명칭 : 성북동박물관, 성북동뮤지움
  - ◆ ‘성북동’이라는 지명이 박물관 명칭에 명시되는 특성화 공간
- 내용 : 근·현대 진보적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 ‘성북동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인 근·현대 역사, 문학, 예술 망라
  - ◆ 역사 :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성북동의 역사 및 비전 제시
  - ◆ 문학 : 근현대 성북동 관련 문학 작품, 작가, 문학인 그룹
  - ◆ 예술 : 근현대 성북동 관련 예술, 예술인, 예술인 단체
  - ◆ 성북동 탐방의 홍보관 및 공연공간, 휴게공간 기능
  - ◆ 글로컬학(국제지역학), 아카비움 공간으로서의 센터 기능

- 건립 추진 방향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식물박물관, 문학관 등은 서울시와 협의해 예산을 성북동박물관으로 통합해 나가야 할 것임
- 훈민정음 등의 부분은 현재 국립 한글박물관, 세종이야기 등이 용산 박물관 단지, 세종로 등에 집중 전시되고 있어 성북동이 훈민정음에 큰 가치를 부여하여 구현하는 것은 효용성이 낮음
- 간송미술관은 기존의 전통 미술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성북구립미술관은 현대미술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성북동박물관은 역사관, 홍보관, 문학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별도 정립
- 향후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도 전시기획을 위해 역사, 문학, 예술 분야 학예사 채용 후에 추진되어야 바람직함
- 시민들의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 규모,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부지 확보가 필요
- 텍스트, 문서, 책 등의 자료 위주가 아니라 영상, 이미지, VR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입체적 전시공간 연출이 바람직함
- 성북동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성북동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언어적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역사문화자원별 활용 방안

- 조선시대 역사 자원

- 한양도성의 성북구 통과 구간(성북동 ~ 삼선동)의 각자성석 조사→ 해당 지점에 자그마한 안내 표식 설치
- 선잠단 복원과 선잠제의 고증과 복원 → 선잠제보존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성북둔터, 마전터 등 주요 유적지의 정확한 위치 확정 → 표석 설치
-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 중인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의 복제본 제작
- ‘성락원-이종석별장’을 한데 묶어 조선시대 별서정원의 모습과 문화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체험·답사 프로그램 구상
- 조선시대 성북동 관련 한문학 작품의 국역 및 작품집 발간 → 주요 장소에 문학비 설치

- 일제강점기 역사 자원

- 주요 독립운동가 활동 경로 파악
  - ◆ 한용운, 최용덕, 오세석, 서광훈, 문석준, 방용모, 정태식, 안복산
- 스토리텔링이 있는 성북역사문화유산
  - ◆ 기존에 알려진 한용운, 이태준, 김용준, 김환기, 백석 등 잘 알려진 이야기를 넘어 새로운 인물의 스토리텔링을 적극 개발해 ‘스토리텔링’이 있는 성북의 문화유산으로 이미지화하는 작업 필요
- 주요 독립운동가 출생지 및 거주지 안내 표석 설치
  - ◆ 성북동 전역을 하나의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접근, 주요 인물 출생지 및 거주지에 인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 표석 설치

· 다른 지자체와의 역사문화 M.O.U. 연계

- ◆ 성북(동, 구) 인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와의 연계 및 역사문화프로그램 개발
- ◆ 가능한 인물 : 한용운(충남 홍성, 강원 인제) 조소앙(경기 양주), 안재홍(경기 평택), 이태준(강원 철원), 윤이상(경남 통영), 채동선(전남 보성), 정지용(충북 옥천), 조지훈(경북 영양) 등
- ◆ 성북구에서 만든 뮤지컬 ‘심우’와 같은 작품은 인제의 만해축전이나 홍성의 만해기념제 등에 소개하여 교류
- 근대 문화재 및 명소의 상시 또는 계절별 개방과 활동사항 등 표기
  - ◆ 이종석별장(이태준, 정지용, 이은상, 이효석의 모임), 승설암(손재형, 김환기, 이태준, 조중현, 배정국의 모임), 최사영 가옥(인문학 강연 장소로 활용)

- 현대 역사 자원

- 8.15해방 ~ 한국전쟁 기간 성북동(구)의 월 · 남북 인사들과 종전평화운동에 대한 심층 조사, 연구
  - ◆ 이태준, 정지용, 조현영, 조소앙, 안재홍, 손진태, 최익환, 박진목 등
  - ◆ “성북동의 좌우대립과 중도파”라는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 성북천 북개로 없어진 옛 시설물의 위치 확인 및 안내 표지 설치
  - ◆ 운수교, 쌍다리, 삼선교, 그밖의 실개천 등
- 성북동 주민, 탐방객들의 도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 ◆ 성북동의 공간적 특징은 지하철, 간선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이란 점으로 도보로 이동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살린 활용 방안 논의
  - ◆ 공간적 장점을 더욱 잘 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 ◆ 성북동 도보탐방 코스별 지도참고

- 성북동 문학 자원

- 성북동 관련 문학 작품의 집성을 위한 팀 프로젝트
  - ◆ 본 연구는 자료 수집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두었으며, 방대한 문학 유산 중 성북동 관련 자료들을 모두 찾았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 자료수집과 집성을 위한 ‘성북동 문학 프로젝트’가 팀으로 꾸려져 진행되어야 함
- 작품 속 성북동의 ‘긍정적 이미지’ 파악을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
  - ◆ 기존 거주지 중심의 ‘성북동 문학’ 조사는 문학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 문에, 문학작품에 구현된 ‘성북동’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재구해내지 못함
  - ◆ 문학작품을 내용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성북동은 일반대중에게 ‘문화와 교양의 고장’으로 폭넓게 알려져 있었고, 그와 관련된 긍정적 이미지가 구축되어 왔음
  - ◆ 따라서 「성북동 비둘기」가 강화시킨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고, 문학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해 홍보 및 스토리텔링 구축 작업이 진행될 필요
- 원로 문인 인터뷰를 통한 성북동의 문인 커뮤니티 조사
  - ◆ 문인들의 교류 활동이 문서화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성북동에서 문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을 정황이 발견되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는 매우 제한적으로 남아 있는 문인 회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 성북동에서 문인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945~1960년대 중반까지 활동했던 문인들 중 다수 연로하지만 생존해 있으므로 이들에게 성북동과 성북구 관련 구술 조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

- 성북동 미술 자원

- 사라진 화가들의 집터를 확인하여 안내 표지 설치
  - ◆ 장승업, 김용준, 김환기, 김기창 · 박래현 등
- 성북동 뮤지엄/갤러리 탐방 코스 개발
  - ◆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을 주제별, 권역별로 묶는 미술 탐방 코스 개발
- 성북동(구)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들을 조사하여 목록화
  - ◆ 화폭 속 성북동의 옛 풍경을 지금의 사진과 대조하여 전시할 수도 있을 것
- 성북동 사진 · 영상자료 조사
  - ◆ 성북동이 배경이 된 사진을 응모 형식으로 수집하여 문헌이나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들과 함께 모아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 사진집 출판, 성북동 주민, 탐방객들의 도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성북동 건축 자원

- 건축물 보전을 위한 관련법제도 개선 및 연구
  - ◆ 지구단위계획의 보완을 통한 건축문화자산 멸실 방지
  -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의 연구 및 서울시와 적극 협의
  - ◆ 성북동 건축문화자산의 목록화 및 이력 관리
- 문화재 및 한옥 활용 사업
  - ◆ 문화재 가옥 공공성 확보
  - ◆ 한옥보전구역의 확대 및 한옥 보존 및 활용 사례 구축
- 미래유산 및 근현대건축 활용 사업
  - ◆ 서울시 미래유산 확보 및 활용
  - ◆ 윤중식 가옥 역사가옥 지정 추진
  - ◆ 건축가의 길 프로그램 구상 및 운영

## 4장.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1. 성북동의 유래와 자연환경
2. 조선시대 역사 자원
3. 일제강점기 역사 자원
4. 현대 역사 자원
5. 성북동 문학 자원
6. 성북동 미술 자원
7. 성북동 건축 자원
8. 성북동의 주요 공간과 인물
9. 구술 자료
10.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방안
11. 성북동 박물관 건립 방안

# 1. 성북동의 유래와 자연환경

## [ 1 ] 성북동의 마을 이름

### 1. ‘성북동’ 동명의 유래

- 조선후기 영조 때 도성 수비를 위한 어영청(御營廳)의 성북둔(城北屯)이 도성 북쪽에 설치되어 있던 데서 유래
- 단순하게는 ‘한양도성의 북쪽’이라는 뜻의 마을 이름

### 2. 행정구역의 변천

- 조선초기
  - 한성부 동부 승신방
- 조선후기
  - 한성부 동부 승신방 동소문외계 성북동
- 조선말기
  - 한성부 동서 승신방 동소문외계 성북동(1895)
- 일제강점기
  - 경기도 경성부 승신면 성북동(1911)
  - 경기도 고양군 승인면 성북리(1914)
  - 경성부 성북정(1936)
  -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1943)
  - 경성부 동대문구 성북정(1944)
- 8.15해방~현재
  - 서울특별자유시 동대문구 성북동(194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1949)

### 3. 다른 이름들

- 사한이(沙閑伊)
  - 조선 초기 “선잠단이 동소문 밖 사한이(沙閑伊)에 있다”<sup>1)</sup>는 기록에서 동소문 밖 일대를 ‘사한이’ 또는 ‘살한이’, ‘사을한리’ 등으로 불렀음을 확인
- ‘북(北)’자로 시작하는 이름
  - 북사동(北寺洞) : 조선 영조 연간보다 앞선 시대에 이 지역에 묵사(墨寺)라는 절(암자)이 있어 묵사동(墨寺洞)·북절골·북사동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이름
  - 북적동(北積洞) : 『일성록』정조 15년 기사와 일부 문집에 등장하며 ‘북적동(北笛洞)’으로 표기한 문헌도 있음
  - 북창동(北倉洞) : 성북동 260번지 일대에 도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먹을 곡식 보관을 위해 설치 관리했던 창고인 북창이 있던 데서 유래된 이름
  - 북둔(北屯) : 어영청 성북둔이 있었던 데서 붙여진 이름. 18세기말부터 ‘북둔도화’라는 조어가 유행함
  - 북저동(北渚洞) : ‘북쪽 물가’라는 뜻으로 봄철 복사꽃 구경을 나온 사람들이 지은 한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마을 이름. 고종 연간에 증보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한성부 ‘명승’조에 이 지명으로 소개
- 복사꽃과 관련된 이름
  - 도화동(桃花洞) : 마을에 복숭아나무를 많이 심어 봄이면 도성 사람들이 복숭아꽃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나선 곳인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 ‘복사동’이나 ‘홍도동’도 같은 유래를 가지나 널리 불리운 이름은 아님
- 구전되는 이름
  - 운수동(雲水洞) : 성북동 60번지에 있던 마을로, 이곳 바위에 ‘雲水洞’이라 새겨져 있던 데서 유래된 이름(논골·논굴)
  - 논골 : 성북동 60번지 일대에 있던 마을로서, 성북동이 원래 산골짜기이므로 논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1) 『세종실록』지리지 경도 한성부.

- 곳에 들어와서 습한 땅에 논다랑이를 조금 이루고 살았던 데서 유래된 이름(논굴)
- 도독골 : 성북동에 있던 마을로, 계곡이 깊고 지형이 험하여 도독이 숨어 살기 쉬웠기 때문에 붙은 이름(도덕굴)
- 노구멧골 : 성북동에 있던 마을로서, 옛날 이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집을 나간 남편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노구메(메밥)를 지어 놓고 산천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그 정성에 남편이 돌아와서 잘 살았다고 전해지는 데서 유래된 이름(노구멧굴)
- 북정마을 : 심우장 뒤편 한양도성 성곽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옛날 이곳에 ‘포백훈조계’가 있어서 당시 메주 쪄는 소리가 ‘북적북적’하고 났다고 하여 ‘북적’이 ‘북정’으로 바뀌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함

## 4. 참고 자료

-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 『서울특별시 동명연혁고 6』성북구 편(1983), 『서울지명사전』(2009)
- 『성북구지』(1993),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1998)

## [ 2 ] 성북동의 자연환경

### 1. 북악산 줄기

- 북악산(北岳山)
  - 종로구와 성북구에 걸쳐 있는 산으로서, 청와대 뒤편 주봉에서 동쪽 방면으로 뻗어내린 산자락이 성북동의 서~북~동쪽을 둘러싸고 있음
  - 서울의 주산(主山)으로 ‘북악’이란 이름은 한양도성의 북쪽 산인 데서 유래했으며 공극산·면악·백악이라고도 함(높이 342m)
  - 2009년 ‘서울 백악산 일원’이라는 명칭으로 명승 제67호 지정
- 구준봉(狗蹲峰)
  - 성북동 북쪽에 솟아오른 산봉우리로, 북악산 정상과 보토현 사이에 있음
  - 개가 쭈그리고 앉은 모양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도읍터의 지형을 모두 갖추었다는 뜻으로 구진봉(俱盡峰)이라고도 함(높이 337m)
- 보토현(補土峴)
  - 구준봉 뒤편 북악산과 북한산 사이에 있는 고개
  - 이곳이 서울 도읍터의 입수목이 되어 잘록하므로, 풍수지리설에 따라 그 약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마다 흙을 보태고 떼를 입혔으므로 ‘보토고개’ 또는 ‘보토현’이라고 함
  - 『동국여지비고』 권2에 “보현봉 결가지 산줄기가 곧 도성의 주맥이므로 충융청에서 보토소(補土所)를 설치하고 주관해서 보축하였다.”는 기록이 있음
- 성북근린공원
  - 1940년부터 일제가 성북동과 돈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한 공원으로 1990년 8월 25일 시민근린공원으로 지정
  - 가까이에 북악산길과 성북구민회관·성북여성회관·한신아파트 등이 있고 정상부에 서면 남쪽으로는 서울 시내 전체, 북동쪽으로는 정릉과 도봉산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음.
  - 주요 시설로 다목적광장·휴식광장·휴게소·테니스장·배드민턴장·다이나트랙·문화회관·전망휴게소·매점·음식점·관리사무소 등이 있음(면적 13만 7,759㎡)
- 북악산로
  - 1968년 ‘북악스카이웨이’라는 이름으로 개통. 종로구 부암동 257번지(창의문)에서 미아리고개를 거쳐 성북구 종암동 29-14번지(종암로)에 이르는 폭 10~15m, 길이 7,150m의 2차선 도로
  - 1968년 1월 21일 북한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사건 이후 수도권 경비 강화와 산책로를 위해 개통된 것으로



- 동년 2월 21일에 착공하여 9월 28일에 완공
- 1972년 11월 26일 한양천도 578주년 기념일에 '북악로'라 이름 붙임
- 북악하늘길[북악산 산책로]
- 2007년 북악산 일원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성북구에서 걷기 편한 산책로를 조성, 2010년 2월 27일 개방. 40여 년간 사람들의 발길이 단지 않아 생태적 가치가 높고 자연경관이 우수해 일명 '서울 속의 비무장지대(DMZ)'라고 불릴 정도로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음
- 산책 코스
  - [북악하늘길 1산책로] : 북악팔각정~말바위쉼터(1.40km)
  - [북악하늘길 2산책로] : 하늘교~성북천발원지(1.95km)
  - [북악하늘길 3산책로] : 북카페~숲속다리(0.64km)



[그림5] 『해동지도』(1750년대 초)에 표시된 백악과 구준봉



[그림6] 한양도성 낙산 구간에서 내려다본 성북동 (2016). 멀리 마을 뒤로 보이는 봉우리가 구준봉. 그 뒤편 암봉이 북한산 보현봉



[그림7] 북악 하늘길 산책 코스



[그림8] 호경암. 1968년 1·21 사태 당시 총격전의 흔적을 품고 있는 바위

## 2. 성북천 주변

- 성북천(城北川)
- 성북구 북악 줄기 구준봉 기슭에서 발원하여 청계천과 합류하여 중랑천으로 흐르는 하천. 지방 2급 하천 (길이 5.11km)
- 하류지역은 잘 정비되어 있고 상류 지역은 복개되어 있으나 점차 자연하천으로 복원되고 있음. 안암동을 거쳐 흘러가므로 안암천·안감내·안암내라고도 함

- 성북천의 복개와 복원
- 1968년 : 삼선교~성북경찰서 뒤편 총 1,300m를 민간자본 3억원을 투입하여 복개하고 주상복합아파트(삼선상가, 성북상가) 건립
- 1978년 : 삼선교 상류 180m 복개공사 완공. 주차장으로 활용
- 1993년 : 청계천 합류지역에서부터 보문동 1가 성암교회까지의 구간을 제외한 상류지역이 모두 복개되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
- 2002년 : 성북천 복원·정비공사 착공
- 2010년 : 성북천 복원·정비공사 완공(한성대입구역~대광초등학교 2.5km)
  - ※ 주상복합상가 7개동 철거
- 2011년 : 대광고~청계천 합류부 1km 구간 복원 공사 완료(동대문구)
- 2016년 : 성북동 성북아파트~한성대입구역 구간(약 2km)만 복개된 채로 남아 있음
- 성북천의 교량
- 쌍다리(雙一) : 덕수교회와 하나은행 성북동지점 사이 성북천을 가로질러 놓여져 있던 두 다리를 합쳐 부른 말로 상류쪽은 목교, 하류쪽은 석교였음. 1980년대 성북천 복개로 철거되었으나 현재 이곳의 버스정류장 이름은 '성북구립미술관·쌍다리앞'으로 되어 있으며 '쌍다리 기사식당'이 남아 영업 중
- 청운교(淸雲橋) : 북청동(北淸洞)과 운수동(雲水洞) 사이에 놓인 다리이므로 북청동의 '청(淸)'자와 운수동의 '운(雲)'자를 따서 이름 지음. 달리 마전터에 놓은 다리라 하여 마전다리라고도 함. 1966년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에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은 남아있지 않음. 현 성북초등학교 앞 마전터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운수교(雲水橋) : 성북동 60번지 부근에 놓였던 다리로, 운수동(雲水洞) 앞에 놓인 다리라 하여 운수교라고 하였음. 1966년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개공사로 인해 없어짐. 1970년 이 다리를 기준으로 하류 쪽을 성북 제1동, 상류 쪽을 성북 제2동으로 구분하여 관할
- 삼선교(三仙橋)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위 성북천을 가로 질러 놓였던 다리. 혜화문과 돈암동을 이어주는 간선 도로가 다리를 지나갔으며 삼선평에서 이름을 따옴



[그림9] 성북천의 다리들(1973년에 촬영한 항공사진, 지금의 홍대부고 앞 성북로)



[그림10] 성기전, 쌍다리 풍경(1961)

## 3. 참고 자료

- 『서울의 산』(1997), 『서울의 하천』(2000), 『서울지명사전』(2009)
- 인터넷 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



## 2. 조선시대 역사 자원

### [3] 한양도성

#### 1. 태조 때의 도성 축조

○ 한양 천도와 도성축조 계획의 수립

- 1394년(태조 3) : 8월, 한양 천도 결정 9월, 신도궁궐조성도감 설치
- 1395년(태조 4) : 6월,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 9월, 종묘와 경복궁 완성(12월 移御) 윤9월, 도성조축도감 설치 → 성벽 터를 측량, 확정

○ 태조 때의 도성 축조 공사

- 1396년(태조 5) : 1월 9일~2월 28일(49일간), 전국의 민정을 동원하여 1차 도성 축조 공사  
※ 평안도 안주 이남, 함길도 함주 이남, 강원, 경상, 전라도에서 총 11만 8,000여 명 동원
- 1396년(태조 5) : 8월 6일~9월 24일(49일간), 2차 도성 축조 공사  
※ 경상·전라·강원도의 민정 7만 9,400명을 징발하여 동대문 근처 미완성 구간, 장마로 무너진 곳 개축, 낮은 석축 성벽 보강, 성문의 월단(홍예)과 문루 설치
- 1397년(태조 6) : 1월, 황해도의 장정들을 동원하여 도성을 쌓게 함 2월, 남대문 문루 완성 8월, 경기의 장정을 동원하여 도성 수축
- 1398년(태조 7) : 1월, 경상·전라·충청·황해도 군인들을 징발하여 도성 수축

○ 태조 때 도성 축조 공사의 특징

- 성터 전체의 규모는 영조척(營造尺)<sup>2)</sup>으로 재어 5만 9,500척이 되므로, 백악 동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600자(약 180m)씩 97개 구간으로 분할
-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자호로 구간 이름을 차례로 정하고, 각지에서 징발한 장정들에게 축성 책임 구간을 균등하게 배정
- 토성과 석성의 혼재
- 지반이 경사지고 험한 곳에는 돌로 축조 : 1만 9,200자(약 5.7~5.8km)
- 기초가 낮고 평탄한 곳은 흙으로 판축 성벽을 축조 : 4만 300자(약 12.1km)

2)영조척 : 주로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던 단위자로 약 30cm 길이가 조금 넘었다.

| 지역                   | 말은 구간                                                                                                                                                                                                         |
|----------------------|---------------------------------------------------------------------------------------------------------------------------------------------------------------------------------------------------------------|
| 동북면 함주 이남<br>10,953명 | 백악 정상에서 동쪽으로 숙정문까지<br>〈01天·02地·03玄·04黃·05宇·06宙·07洪·08荒·09目〉까지 9개 구간으로 말은 길이 5,400자                                                                                                                            |
| 강원도<br>9,736명        | 숙정문에서 혜화문까지<br>〈10月·11窟·12辰·13辰·14宿·15列·16張·17寒〉까지 8개 구간으로 말은 길이 4,800자                                                                                                                                       |
| 경상도<br>49,897명       | 혜화문에서 송례문까지<br>〈18來·19暑·20往·21秋·22收·23冬·24藏·25閏·26餘·27成·28歲·29律·30呂·31調·32陽·33雲·34騰·35致·36雨·37露·38結·39爲·40霜·41金·42生·43麗·44水·45玉·46出·47崑·48崗·49劍·50號·51巨·52關·53珠·54稱·55夜·56光·57果·58珍〉까지 41개 구간으로 말은 길이 24,600자 |
| 전라도<br>18,255명       | 송례문에서 돈의문까지<br>〈59李·60奈·61菜·62重·63芥·64薑·65海 66醎 67河 68淡 69鱗 70潛 71羽 72翔 73龍〉까지 15개 구간으로 말은 길이 9,000자                                                                                                          |
| 서북면 안주 이남<br>29,208명 | 돈의문에서 백악 정상까지<br>〈74師·75火·76帝·77鳥·78官·79人·80皇·81始·82制·83文·84字·85乃·86服·87衣·88裳·89推·90位·91讓·92國·93有·94虞·95陶·96唐·97吊〉까지 24개 구간.<br>말은 길이 14,400자                                                                 |
| 합계<br>118,049명       | 97개 구간, 600자씩 둘레 58,200자로 1인당 평균 0.493자씩으로 일정                                                                                                                                                                 |

[표4] 태조 4년(1395) 1차 도청 축조 공사 구간별 분담 내역표

○ 관련 자료

- 정도전, 신도팔경시(新都八景詩) 중 제8수

여덟제는 북교(北郊)의 목마(牧馬)였다. “바라보면 저 북교(北郊) 숫돌과 같은데, 봄이 오면 풀은 무성하고 샘은 달구나. 만마(萬馬)가 구름처럼 모이고 까치처럼 날뛰는데, 목인(牧人)은 멋대로 서(西)로 갔다 남(南)으로 갔다 하도다.” (八曰北郊牧馬 瞻彼北郊如砥 春來草茂泉甘 萬馬雲屯鵲鴈 牧人隨意西南)

—『태조실록』 태조 7년(1398) 4월 26일

#### 2. 세종 때의 도성 개축

○ 세종 4년 도성 개축 공사

- 1421년(세종 3) : 10월, 도성수축도감 설치  
※ 영의정 유정현, 우의정 이원 등을 도제조로 삼고 박자청 등 5명의 제조를 임명
- 1422년(세종 4) : 1월 14일~2월 15일(38일간) 도성의 남북에 있는 백악과 목멱산의 신에게 고유제를 올리고 이튿날 공사 시작  
※ 32만 2,400여 명의 장정을 팔도에 배정하여 동원(경기·함길도·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평안도·황해도) 97개 구간 개축

○ 세종 4년 도성 개축 공사의 특징

- 신축 공사에 준하는 규모의 대대적인 도성 개축 공사로 전국 팔도 32만여 명의 민정을 동원하여 38일 간의

- 공역으로 종래의 석성 가운데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약 4만여 자 이상의 토성 외측 벽면을 전부 석성으로 고쳐 쌓음
  - 도성 주위 성의 안과 밖에 모두 15자 너비의 길을 새로 내었는데 이는 평상시 순찰과 유사시의 대비를 위한 것임 → “순성길”의 탄생
- 관련 자료
- 세종 때 도성의 규모와 성문의 이름

도성의 둘레가 9천 9백 75보인데, 북쪽 백악사(白嶽祠)로부터 남쪽 목목사(木覓祠)에 이르는 지름이 6천 63보요, 동쪽 흥인문(興仁門)으로부터 서쪽 돈의문(敦義門)에 이른 지름이 4천 3백 86보가 되며, 정동(正東)을 흥인문, 정서(正西)를 돈의문, 정북(正北)을 숙청문(肅淸門), 동북(東北)을 홍화문(弘化門) 【곧 동소문(東小門)】, 동남(東南)을 광희문(光熙門) 【곧 수구문(水口門)】, 서남(西南)을 숭례문(崇禮門) 【곧 남대문】, 소북(小北)을 소덕문(昭德門) 【곧 서소문】, 서북(西北)을 창의문(彰義門)이라 하였다. 【태조 5년 병자 봄에 각도의 민정 11만 8천 76명을 모아 도성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정월 15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2월 그믐날에 역사를 파하니, 빈와(甃瓦) 및 석회군(石灰軍)이 또 1천 7백 59명이었다. 가을에 이르러 또 민정 7만 9천 4백 31명을 모아서 8월 13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9월 그믐날에 역사를 파하였으며, 금상 4년 임인에 태종의 명으로 성을 수축하여 토성을 모두 돌로 바꾸었는데, 8도의 군사 총 32만 2천 4백 명을 모아, 정월 15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2월에 마치었다. 성 동쪽에, 처음에 수문(水門) 세 곳을 열었는데, 장마를 만나면 〈문이〉 막히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2문을 더 만들었다.】

— 『세종실록』「지리지」 중 “경도 한성부”

- 조선 초기 한성부의 행정 구역(5부 49방)

동부(東部) 12방(坊)  
【승신(崇信)·연화(蓮花)·서운(瑞雲)·덕성(德成)·숭교(崇敎)·연희(燕喜)·관덕(觀德)·천달(泉達)·흥성(興盛)·창선(彰善)·건덕(建德)·인창(仁昌)】

남부(南部) 11방(坊)  
【광통(廣通)·호현(好賢)·명례(明禮)·대평(大平)·훈도(薰陶)·성명(誠明)·낙선(樂善)·정심(貞心)·명철(明哲)·성신(誠身)·예성(禮成)】

서부(西部) 8방(坊)  
【인달(仁達)·적선(積善)·여경(餘慶)·황화(皇華)·양생(養生)·신화(神化)·반석(盤石)·반송(盤松)】

북부(北部) 10방(坊)  
【광화(廣化)·양덕(陽德)·가회(嘉會)·안국(安國)·관광(觀光)·진장(鎭長)·명통(明通)·준수(俊秀)·순화(順化)·의통(義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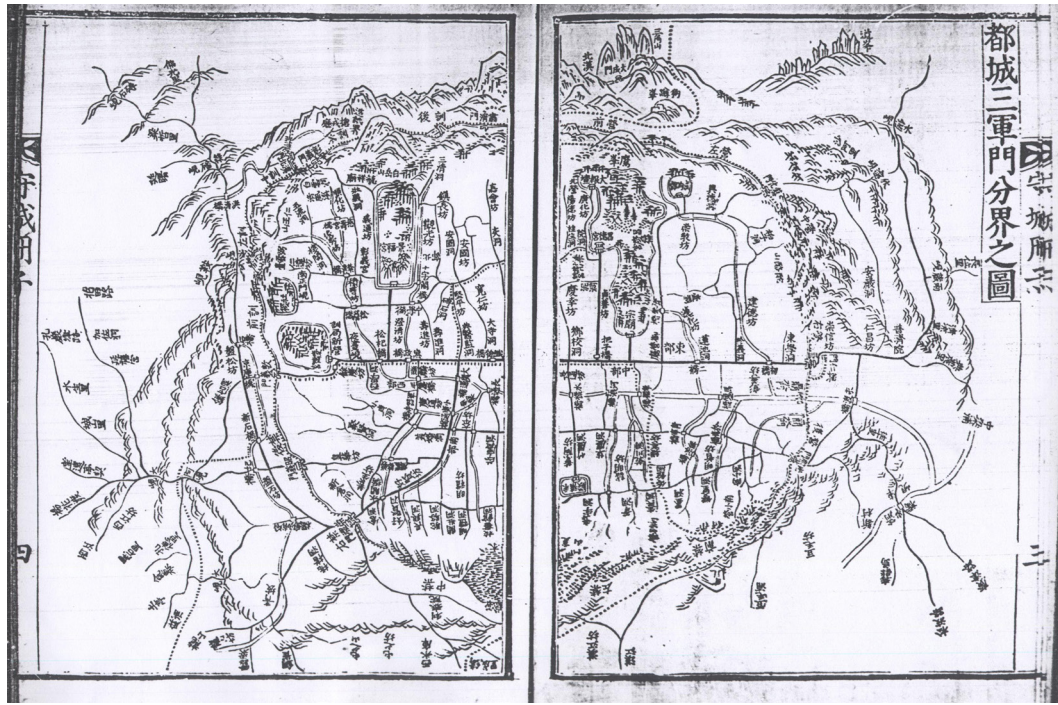
중부(中部) 8방(坊)  
【징청(澄淸)·서린(瑞麟)·수진(壽進)·견평(堅平)·관인(寬仁)·경행(慶幸)·정선(貞善)·장통(長通)】

5부(五部)의 호수(戶數)는 1만 7천 15호, 성저십리(城底十里)의 【동쪽은 양주(楊州) 송계원(松溪院) 및 대현(大峴)에 이르고, 서쪽은 양화도(楊花渡) 및 고양(高陽) 덕수원(德水院)에 이르고, 남쪽은 한강 및 노도(露渡)에 이른다】 호수는 1천 7백 79호이다.

— 『세종실록』「지리지」 중 “경도 한성부”

### 3. 조선후기의 도성 수축

- 숙종 때의 수축 공사
  - 1704년(숙종 30)~1712년(숙종 38) : 대대적인 도성 수축 공사
    - ※ 중앙군인 5군문(훈련도감,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금위영)이 분담하고, 책임구역의 장교와 석공의 이름을 그가 쌓은 성벽의 면석에 새김<sup>3)</sup>
  - 규모 : 둘레 9,975보, 여장 7,081척
  - 특징
    - 가로·세로 약 2자씩 정사각형의 규격화된 성석으로 쌓았으며 여장 축조시 벽돌 사용
    - 1712년(숙종 38) : 북한산성(둘레 12.7km) 수축 공사 시작
      - ※ 북한산성은 한양도성의 배후에 마련된 입보용 산성으로 남한산성과 마찬가지로 행궁과 사찰 등 유사시를 대비한 시설을 갖춘, 이로써 한양도성은 기존 나성(羅城)으로 둘러싸인 단순한 구조에서 배후에 험준한 산성을 거느린 복합적인 구조로 변화
- 영조 연간 이후 수축 공사
  - 1745년(영조 21) : 방어의 취약 지구에 치성 축조, 40여 곳의 무너진 곳과 성벽 위에 여장 수리 공사(3군문)
    - ※ 군영별 공사 구간
      - 훈련도감 : 숙정문 동변의 무사석에서 돈의문 북변까지 4,850보<sup>4)</sup>
      - 금위영 : 돈의문에서 광희문 남쪽 마을 집의 뒤까지 5,042.5보
      - 어영청 :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 5,042.5보
  - 1751년(영조 27) : “수성윤음(守城綸音)” 반포<sup>5)</sup>
  - 1769년(영조 45) : 3군문에서 체성과 여장 등 여러 시설을 구역 배정을 배정하여 보수·관리를 정례화
  - 1844년(헌종 10) : 여장과 성랑(城廊) 수축 공사 시행
  - 1869년(고종 6) : 흥인지문의 기반을 높여 개축



〔그림11〕〈도성삼군문분계지도〉(1751). 영조 27년 9월에 반포된 『수성윤음』에 수록되어 있음. 해화문 좌측 성벽의 ‘좌영(左營)’이란 표기는 어영청 소속의 좌군(左軍)이 책임지고 수성한다는 뜻

3) 5군문의 군인들이 대개 서울이나 경기도의 사람들로써 동원하기 용이하였고 또 여기에 소속된 군인들은 평시에는 번갈아 교대 근무를 하는 농민 정병을 제외하고는 거의 군인을 업으로 하는 모병된 직업군인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처우를 도우려는 이유도 있었음.

4) 6자=1보(周尺 사용)

5) 『영조실록』, 영조 27년(1751) 9월 11일.



[ 4 ] 숙정·흥덕·혜화문

1. 숙정문

- 연혁
  - 1396년(태조 5) : 도성의 북문으로서 숙청문(肅淸門) 건립
  - 1413년(태종 13) : 풍수학생 최양선의 건의를 받아들여 백성의 통행을 금함
  - 1416년(태종 16) : 가뭄이 심해지자 숭례문을 닫고 숙청문을 열어둠
  - 1504년(연산군 10) : 원래 위치에서 약간 동쪽으로 옮겨 세웠는데 이때 홍예문만 세우고 문루는 없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
  - 1523년(중종 18) : ‘숙청문(肅淸門)’ 대신 ‘숙정문(肅靖門)’이란 명칭이 처음 『실록』에 등장
  - 1968년 : 1·21사태 이후 청와대 경비를 위해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
  - 1976년 : 문을 복원하고 편액을 걸 (글씨: 박정희 대통령)
  - 2006년 : 4월, 일반에 개방
- 주요 사항
  - 【풍속】조선왕조에서는 가뭄이 심할 때에 숙정문을 열고 숭례문을 닫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것은 음양오행 사상에 기원을 둔 것으로 북은 음(陰)이며 남은 양(陽)인 까닭에 가뭄이 심할 때 양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음
  - 【설화】쌀바위[米巖] 전설 : 숙정문 밖에 있던 바위로서 일정량의 쌀이 나왔는데 이것을 발견한 나뭇꾼 노인 이 쌀을 가져가 걱정 없이 지내다가 어느날은 욕심이 생겨 자루에 가득 채워 돌아왔는데 그 후 쌀 대신 물만 흘러나왔다는 이야기
- 관련 자료
  - 가뭄이 심할 때 숙정문을 열어두는 풍속

날이 가문다고 하여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청문(肅淸門)을 열고, 저자를 옮겼다. (以早閉崇禮門開肅淸門徙市)

— 『세종실록』세종 10년(1428) 윤4월 23일

2. 흥덕문

- 연혁
  - 조선 초 성균관 동북쪽 산록 아래에 흥덕사(興德寺)가 있었던 데서 이 부근 마을을 흥덕동(興德洞, 현 명륜동1가)이라 부름
  - 흥덕동과 선잠단이 있는 도성 북쪽을 연결하는 문으로 흥덕문(興德門) 설치
    - ※ 현 ‘성북동 쉼터’ 부근으로 추정되며 건립 및 철폐 연대, 문루와 홍예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 관련 자료
  - 【지도】광여도(廣輿圖, 19세기 전반 제작) 중 <도성도>에 ‘흥덕문구기(興德門舊基)’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적인 위치만 확인 가능



[그림12] 『광여도』(廣輿圖, 서울대 규장각 古4790-58) 중 <도성도> 부분. 숙정문, 흥덕문구기, 혜화문, 선잠단 표기

3. 혜화문

- 연혁
  - 1396년(태조 5) 홍화문(弘化門) 건립
  - 1511년(중종 6) 혜화문(惠化門)으로 개칭
  -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문루 소실
  - 1744년(영조 25) 어영청으로 하여금 문루를 세우게 하고 편액을 걸 (글씨:趙江履)
  - 1816년(순조 16) 중수
  - 1928년 문루 헐림
    - ※조선시대 현판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복원한 혜화문 현판 글씨는 제27대 서울특별시장 이원종의 글씨
  - 1939년 혜화동-돈암동간 전차노선 연장을 이유로 홍예문 철거
  - 1994년 본래 자리의 북편 언덕에 홍예문과 문루 복원
- 주요 사항
  - 【외교】여진(女眞)의 사신이 조정에 토산물을 위하여 한양에 입성할 때 혜화문을 통과했으며 이 문으로 들어온 여진인들은 성 안 북평관(北平館)에서 숙박
  - 【명칭】1483년(성종 14)에 새로 창건한 창경궁의 동문을 ‘홍화’로 정함에 따라 1511년(중종 6) ‘혜화’로 개칭
  - 【역사】연산군 동소문 인가 철거 및 동소문 폐쇄 조치 단행
  - 【회화】겸재 정선(1676~1759), <동소문도>그림 (1750년경, 고려대 박물관 소장)
  - 【건축】도성의 다른 홍예 천정에는 모두 용을 그렸는데 이곳만 봉황을 그린 것이 특징으로 문밖의 새의 피해가 많으므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새의 왕인 봉황을 그렸다 전함
  - 【경제】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등 동북 방면의 건어물과 포목 중 상당수가 혜화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옴



[그림13] 영조 때 건립한 문루에 달았던 혜화문 현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14] 복원한 혜화문의 현판

- 관련 자료
  - 조선전기 여진족 사신의 혜화문 왕래 기록

정원에 전교하였다.  
“야인(野人)은 늘 동소문(東小門)으로 왕래하거나와, 왜인(倭人)은 이제 비로소 보건대 여역 사이의 작은 길로 데리고 다녀서는 안되겠으니, 홍화문(弘化門) 앞의 큰길로 내보내야 하겠다.”  
(傳于政院曰 野人則常以東小門往來也 倭人則今始見之 不可以小路 閭閻之間率去 宜以弘化門前大路 出送可也)  
— 『중종실록』중종 23년(1528) 9월 21일

- 조선후기 ‘혜화문(惠化門)’ 또는 ‘동소문(東小門)’을 소재로 지은 한시 다수

철원으로 귀양살이 떠나는 윤무구를 보내며[送尹无咎謫鐵原]  
첫 번째 쇠북소리에 혜화문이 열리더니 / 惠化門開第一鍾  
산 넘고 물을 건너 북으로 가는 길 겹겹이로세 / 關河北去路重重  
산이 대신 일산을 퍼 외로운 말을 맞고 / 山張寶蓋迎孤馬  
얼음발을 안개가 내려 구룡을 숨겨주리 / 霧鎖冰簾祕九龍  
다행히도 잠시나마 청새달에서 놀았지만 / 試幸暫游青瑣闥  
우리 함께 백운봉을 오를 때만 같겠는가 / 何如同上白雲峯  
듣자하니 신진 속에 뛰어난 인물 많아 / 傳聞新進多才俊  
검은 머리 붉은 얼굴에 감정 자태 다 좋다네 / 玄鬢紅顏意態濃

— 정약용, 『다산시문집』 3권



## [5] 각자성석

### 1. 각자성석(刻字城石)의 유래와 가치

- 한양도성은 태조대 축조 이후 세종~숙종~순조대에 걸쳐 수축을 거듭하면서 성벽 각 구간마다 공사를 책임졌던 지역민, 관리, 관청의 이름을 새겨두었는데 이는 성벽의 해당구간이 파손, 붕괴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두기 위함이었음.
- 한양도성의 축조와 수축에 동원되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당시 상황과 애환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이들 각자성석은 현장 답사를 통한 역사 교육에 활용가치가 높음.
- 많은 각자들이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인해 소멸되고 말았으나 일부 희미하게 흔적이 남아 있는 각자성석은 그동안 조사·연구를 통해 정확한 위치와 글자가 확인된 바 있음.

### 2. 성북동 구간에서 발견된 각자성석 현황<sup>6)</sup>

| 연번 | 사이즈(가로×세로)      | 판독원문(음독)            | 개축 기록상 위치(현재 위치)                                                 | 완료시기 개축기록             |
|----|-----------------|---------------------|------------------------------------------------------------------|-----------------------|
| 39 | 84×44cm (1단)    | 歙谷 (흡곡)             | 성북동 쉼터(과학교 뒤) 성벽끝 지점에서 7.4m (안목거리 7m)                            | 세종 4년 (1422년)         |
| 40 | 60×55cm (4단)    | 江陵 (강릉)             | 경신고 서쪽 성곽시작 부분에서 10.35m 지점. 41번 각자성석(江陵) 서쪽으로 63.2m 지점           | 세종 4년 (1422년)         |
| 41 | 127×43.5cm (2단) | 江陵 (강릉)             | 〈신규 21, 40번 각자(江陵)에서 남동쪽으로 63.2m지점〉                              | 세종 4년 (1422년)         |
| 42 | 131×42cm (1단)   | 第二表[璫]琦 (제이표[려]기)   | 두산빌라 동측 성벽외부 45번 각자 “第三 金仁[珊]”와 30.57m(100尺)거리                   | 태조 5년 (1396년)         |
| 43 | 101×76cm (2단)   | 守 (수)               | 두산빌라와 서울시장공원 사이 단독주택 동북쪽 외부 성벽                                   | 숙종 35년 (1709.10.5.이전) |
| 44 | 128×73cm (2단)   | 五戒 (오용)             | 두산빌라와 서울시장 공관 사이, 단독주택 동북쪽 외부 성벽                                 | 숙종 35년 (1709.10.5.이전) |
| 45 | 84×53cm (1단)    | 第三 金仁[珊] (제삼 김인[산]) | 두산빌라와 서울시장 공관 간 단독주택 동북쪽 외부 성벽 42번 각자 “第二表[璫]琦”와 30.57m(100尺) 거리 | 태조 5년 (1396년)         |

[표5] 성북동 구간 각자성석 현황

6) 민덕식, 『서울城郭의 築城關聯 金石文』, 『郷土서울』제71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8. 서울역사박물관 편, 『한양도성 각자성석 조사 결과보고』, 『도성 발굴의 기록 II』, 2012.

### 3. 각자성석의 모습과 위치



歙谷(흡곡)



江陵(江陵)



오용(五戒)



제삼 김인[산](第三 金仁[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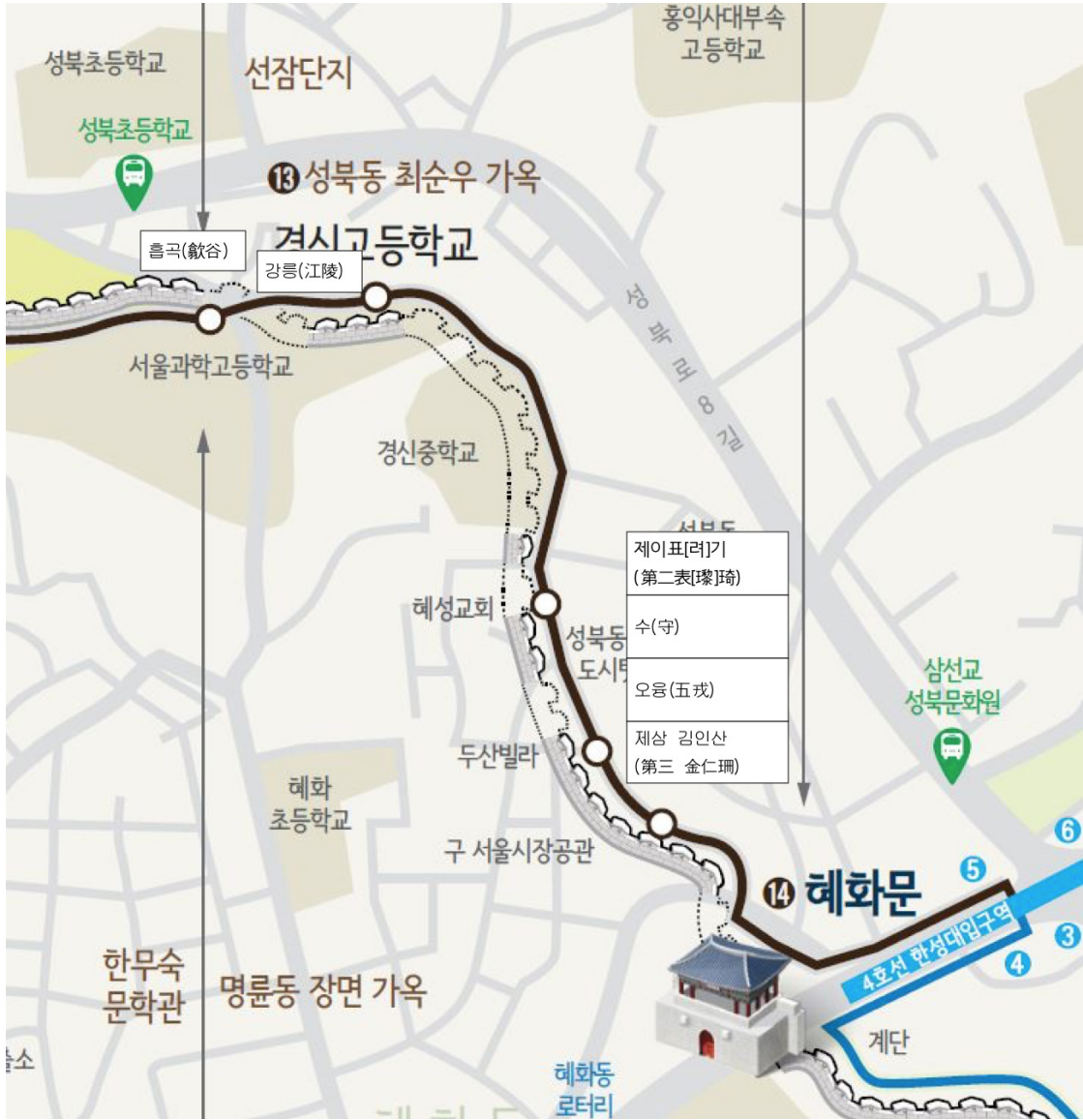
오용(五戒)



제삼 김인[산](第三 金仁[珊])

[그림15] 성북동의 각자성석





[그림16] 성북동 각자성석의 위치

## [6] 선잠단

### 1. 선잠단의 위치와 연혁

- 위치 : 성북동 64-1번지와 63-31번지 해당하는 구역
- 연혁
  - 태종 5년(1405)과 태종 13년(1413) 사이 어느 해에 처음 이곳(당시 지명은 동소문 밖 사한이)에 축조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수축을 거침
  - 1908년 단과 제향이 철폐되고 폐허로 남겨져 일제강점기에 원형을 상실
  - 1963년 선잠단지가 사적 제83호로 지정하여 관리
  - 2016년 성북구가 용역사업으로 <선잠단지 복원화 및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초학술연구>(서울학연구소)를 실시하여 선잠단의 본래 영역과 원형을 고증

### 2. 선잠제의 봉행과 계승

- 선잠제의 의의
  - 선잠제는 고대의 전설적인 여인 서릉씨(西陵氏)를 모시는 제사로 양잠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국가제사
- 조선왕조의 선잠제 봉행
  - 고려의 전례를 이어받아 선잠제를 선농제와 함께 중사(中祀)로 규정하고 정종 2년(1400)에 처음 선잠제를 치름
  - 제향 기록은 주로 조선전기의 문헌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선후기에는 그 횟수가 격감
  - 영조 43년(1767) 3월,『조선왕조실록』을 상고하여 선잠제와 친잠례를 각각 선잠단과 경복궁에서 봉행하고 선잠단에는 친잠례에 앞서 예관(禮官)들을 보내 섭사(攝祀)로 제향을 봉행토록 하였음
- 선잠제의 중단
  - 1908년 반포된 칙령에 의해 선잠단과 선농단의 신위가 사직단으로 옮겨지고 해당 제단의 터가 국유로 이속되면서 공식적인 제향 중단
- 선잠제의 재현과 계승
  - 1993년부터 선잠단지에서 성북구와 선잠제보존위원회, 대한잠사회가 공동으로 재현행사를 치르기 시작해 이후 성북구의 대표적 전통문화축제로 정착
  - 성북문화원은 2002년『선잠제의 역사와 의례』, 2010년『선잠단과 길쌈이야기』등의 도서를 간행하고 2014년 11월에는 <선잠제향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어 선잠제향의 원형 복원과 계승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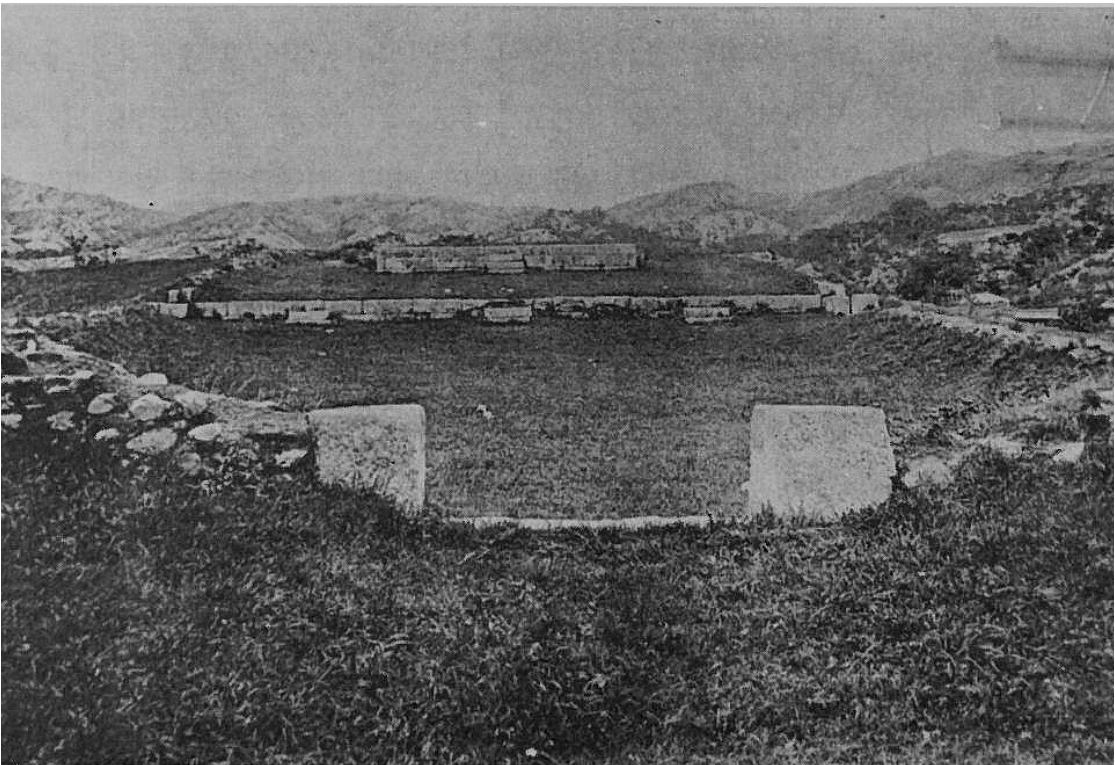
3. 선잠단·선잠제의 자세한 연혁

| 연도(왕력)        | 내용                                               |
|---------------|--------------------------------------------------|
| 1400년(정종 2)   | 조선왕조의 첫 선잠제 봉행                                   |
| 1413년(태종 13)  | 예조에서 선잠제의 제도를 정리하여 올림                            |
| 1414년(태종 14)  | 예조에서 이미 축조한 선잠단의 규모를 아뢰                          |
| 1424년(세종 6)   | 세종, 선잠제에 쓸 향축(香祝)을 전함                            |
| 1437년(세종 19)  | 선잠단에 사묘와 관사를 두고 간수하는 사람을 둠                       |
| 1438년(세종 20)  | 선잠단 보수                                           |
| 1456년(세조 2)   | 세조, 선잠제에 쓸 향축을 전함                                |
| 1472년(성종 3)   | 성종, 선잠제에 쓸 향축을 전함                                |
| 1473년(성종 4)   | 예조에서 선잠단을 선농단 곁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시행되지 않음)             |
| 1504년(연산군 10) | 연산군, 선잠단 보축과 뽕나무 식재를 명함                          |
| 1544년(중종 39)  | 중종, 선잠제의 음복하는 예를 살필 것을 명함                        |
| 1550년(명종 5)   | 명종, 선잠제에 쓸 향축을 전함                                |
| 1620년(광해군 12) | 선잠제의 헌관에게 술을 내리고 잔치를 베풀어 줌                       |
| 1669년(현종 10)  | 관리를 보내어 선잠제 봉행                                   |
| 1752년(영조 28)  | 3월 20일(仲巳日)에 선잠제를 봉행                             |
| 1767년(영조 43)  | 실록을 상고하여 선잠제와 친잠례의 절차를 정리하여 각각 선잠단과 경복궁 채상단에서 설행 |
| 1771년(영조 47)  | 영조, 연화문에 나가 선잠제에 쓸 향축을 지영(祗迎)                    |
| 1796년(정조 20)  | 정조, 안창군(安昌君)을 헌관으로 보내 선잠제를 받들게 함                 |
| 1908년(융희 2)   | 선잠단의 신위를 사직단에 배향하고 제단 터는 국유로 이속                  |
| 1939년         | 조선총독부, 보물 제17호로 지정                               |
| 1963년         | 사적 제83호로 지정                                      |
| 1993년         | 성북구, 제1회 선잠제향 제현행사 개최                            |
| 2016년         | 성북구, 제23회 선잠제향 재현행사 개최                           |

[표6] 선잠단·선잠제의 연혁(1400~2016)



[그림17] 『해동지도』(1750년대 제작, 서울대 규장각 古大4709-41)중 〈경도(京都)〉부분의 ‘선잠단’ 표기



[그림18] 1910년대의 선잠단지 (『경성부사』제1권 (경성부, 1934))





[그림19] 1930년대의 선잠단지 사진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전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20] 2016년의 선잠단지 (백강빌딩 옥상에서 촬영)

## [7] 영성단

### 1. 영성단의 축조

- 축조 시기
  - 고려 때 처음 개경에 설치
  - 조선에서는 고려의 유제(遺制)에 따라 한양 천도 후 남교<sup>7)</sup>에 제단을 축조
  - 함흥에도 영성단을 축조하고 해마다 제관을 파견해 제사를 지냄
  - 광무 원년(1897) 폐지
- 제단 규모
  - 사방 21척, 높이 2척 5촌
  - 사방에 섬돌이 나와 있는 즉 승강구를 두었으며, 축대 하나가 25보(步)

### 2. 영성제

- 제의의 기원
  - 영성제(靈星祭)는 입추 후 진일(辰日)에 영성(靈星)에게 한해의 농사가 잘 된 것을 감사하며 지내는 제사
  - 중국 주나라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음
  - 영성은 세성(歲星) 또는 방성(房星)으로 간주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천전성(天田星)을 가리키며 천전성은 28수 가운데 동방 창룡(蒼龍)의 원편에 있는 각수(角宿)로서 농사일을 주관하는 신이라 믿어 농상(農祥)이라 부르기도 함
- 조선시대의 영성제
  - 조선시대 영성제에 대한 의절과 규식은 태종대에 만들어져 『세종실록』 「오례의」에 실리고 다시 성종대 『국조오례의』에 등재됨
  - 영성제는 소사(小巳)로서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제품(祭品)은 8변(籩) 8두(豆), 2보(簠) 2궤(簋), 1조(俎)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관은 3품관임<sup>8)</sup>
- 관련 자료
  - 1797년(정조 21), 영성제의 규례를 정리하여 『성단향의(星壇享儀)』 완성

『성단향의(星壇享儀)』가 완성되었다. 상이 영성(靈星)과 수성(壽星)에 대한 제사를 회복하려 하면서 무릇 역대의 전례(典禮)로서 두 별의 사전(祀典)을 언급한 것을 널리 채집하여 한 책으로 엮어 책상 위에 비치하고서 때때로 살펴보았다. 마침 예조 판서가 『오례의(五禮儀)』에 기재된 의절(儀節)을 따라 두 별에 대한 제사를 일찍 거행할 것을 청하니, 상이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에게 헌의(獻議)하도록 명한 뒤 다시 전일에 편집한 책을 가져다 그 의절 가운데서 오늘날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을 고르고 또 악가(樂歌)와 악무(樂舞)를 붙여서 『성단향의』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하여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 시행하려다가 마침내 일이 많아서 행하지 못하였다.

(星壇享儀成 上擬復靈星壽星之祀 凡歷代典禮之及於二星祀典者 廣蒐博采 編爲一冊 而置諸几上 以時審繹 會宗伯之臣 請遵五禮儀所載儀節 早舉兩星之祀 上既命大臣儒臣獻議 更取前日所編之書 撮其儀節之可行於今者 且附以樂歌樂舞 名曰 星壇享儀 將按而行之 竟鄭重未果)

— 『정조실록』 정조 21년(1797) 윤6월 16일

7)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UN빌리지 내, 한남리버빌 앞(용산구 한남동 390, 390-10, 390-11)에 표석이 설치되어 있음.  
8) 축판에는 “삼가 생각건대 말없이 자연의 조화를 관리하시어 삼농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정갈한 제사에 감통하시어 온갖 복을 많이 내려주셨기에 삼가 생폐, 예제, 자성 등의 조출한 제품으로 정갈히 차려 올리는 바입니다. 굶어 흠향하소서.”라고 써서 가을걷이가 끝난 후 감사의 뜻을 담았다.



3. 성북동의 영성단

- 위치 : 성북동 75번지 (선잠로 9-6, 성북동 작은형제회수도원 경내)
- 축조 시기 : 1865년(고종 2) 11월경
  - ※ 1897년(광 무 1) 12월(양력) 폐지
- 관련 자료
  - 1865년(고종 2), 혜화문 밖 어창계에 ‘성단(星壇)’ 축조

예조(禮曹)에서 ‘제단(祭壇)의 이름은 성단(星壇)으로 정하고, 제단을 쌓을 곳은 혜화문 밖의 승신방 어창계(御倉契)에서 자좌오향(子坐午向 : 정북은 등지고 정남으로 향함)으로 정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禮曹以 壇號星壇爲定 壇處所惠化門外崇信坊御倉契 子坐午向之地爲定 啓)  
— 『고종실록』 고종 2년(1865) 11월 15일

- ‘성단(星壇)’에서 지내는 제향의 규례와 치제

전교하기를, “성단(星壇)의 제향은 매년 정월 상인(上寅)에 지내는 것으로 행사의 규례를 정하라.” 하였다.  
(敎曰 星壇祭享 以每年正月上寅 行事定式)  
— 『고종실록』 고종 2년(1865) 11월 25일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성단(星壇)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初五日 詣勤政殿 親傳星壇香祝)  
— 『고종실록』 고종 30년(1893) 1월 5일

[ 8 ] 성북둔

1. 정의

- 어영청(御營廳)
  - 조선후기 새로 편성한 중앙군인 5군영(五軍營)<sup>9)</sup> 중 왕을 호위하는 3군문(三軍門)의 하나
  - 인조반정 이후 후금(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후금의 침공에 대비할 목적으로 창설된 어영군을 모체로 하여 창설
  - 1704년(숙종 30), 훈련도감, 금위영 등과 함께 도성삼군문으로 편제되는 과정에서 한차례 개편
  - 1751년(영조 27), ‘수성윤음’ 반포시 작성한 <도성삼군문분계지도>에 어영청이 담당한 구간 표시
  - 순조 이후 장어영(壯禦營)·총어영(摠禦營) 등으로 바뀌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폐지<sup>10)</sup>
- 성북둔(城北屯)
  - 둔(屯) : 조선시대 각 지방 주둔병의 군량을 자급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반급(頒給)하는 전답
  - 어영청의 재정보충과 도성 동북쪽 방위를 위해 성북둔 설치 논의
  - 1765년(영조 41) 영조의 명을 받아 어영청이 혜화문 밖 선잠단 옆에다 ‘성북둔(城北屯)’을 설치하고 둔사와 창고를 건립
  -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기 어영청과 함께 폐지되었으며 1901년(광무 5)년 둔사를 훼손

2. 성북둔의 설치 목적

- 어영청의 재정 조달
  - 영조 때 균역법(均役法)<sup>11)</sup>의 시행으로 어영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역가(役價) 수입이 줄어든 대신 급대(給代)를 지급받게 됨
  - 그러나 줄어든 역가 수입분에 비해 지급 받은 급대의 수입이 적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둔전을 늘려 어영청의 수입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 성북둔 역시 균역법 실시 이후 어영청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에서 신설
- 도성 방어 체제 강화
  - 성북동 지역은 도성과 그 안의 궁궐과 인접해 있으면서 인가가 거의 없는 넓은 계곡 지형이므로 늘 도성 방에 취약한 구간으로 지적되었음
  - 위와 같은 취약점을 염려하여 숙종 연간 처음 성북동 지역의 군사시설 설치 논의가 있었는데 시행되지 않았음
  - 1765년(영조 41), 영조가 영의정 홍봉한의 건의를 받아들여 혜화문 밖 선잠단에 둔을 설치하도록 명함

9) 임진왜란을 계기로 서울과 그 외곽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5개의 군영. 훈련도감(訓練都監)·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금위영(禁衛營)·수어청(守禦廳)으로, 5영문(五營門)이라고도 함. 이중 3군문이라고 부르는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은 도성을 직접 방어하는 중앙군영이며, 총융청·수어청은 서울의 외곽을 방어하였음.  
10) 종로구 인의동 112-2에 <어영청 터> 표석이 있음.  
11) 균역(軍役)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든 세법으로 종래 인정(人丁)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던 군포를 1필로 감하는 한편,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어전세(漁箭稅)·염세(鹽稅)·선세(船稅) 등을 균역청에서 관장, 징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함. 1751년(영조 27) 9월에 공포됨.

3. 성북동의 운영

○ 근무 인원

- 감관(監官) 1명, 서원(書員) 1명, 고직(庫直) 1명, 사환(使喚) 3명(총 6명)
- 감관 : 성북동의 책임자. 어영청 교련관 중에 1명을 임명(임기 1년)
- 서원 : 서무 담당
- 고직 : 창고지기
- 사환 : 업무 보조

○ 규모

- 전과 답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미아리에도 별도의 둔전을 두었음
-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어영청으로의 상납액은 30냥 가량(납부처는 군색)

| 연번   | 사이즈(가로×세로) | 판독원문(음독) | 완료시기 개축기록 |
|------|------------|----------|-----------|
| 성북둔  | 전          | 10일경 반   | 49냥       |
|      | 답          | 4석 10두락  | 50석       |
|      | 둔우(屯牛)     | 33마리(隻)  | 15두(원세입)  |
| 미아리둔 | 전          | 3일경 반    | 14냥 5전    |
|      | 답          | 1석 5두락   | 5석 2두     |

[표기] 성북둔의 규모(순조 10년, 1810)

4. 관련 자료

○ 1765년(영조 41), 영조와 영의정 홍봉한의 성북둔 설치 논의

영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북성(北城, 북한산성) 주맥의 동북쪽에 빈 골짜기가 하나 있어 지면이 매우 평평하고 넓은데, 나무꾼들이 함부로 들어가 벌채하여 민둥산이 되어 나무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수십 호의 인가를 두어 살게 한다면, 가히 도성을 수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박전(薄田) 약간 경(頃)이 선잠단 근처에 있는데, 군사(軍士)의 늪료(廩料)를 먹는 자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되 그 밭을 경작하게 하고 그 세금을 감하여 주어 그들에게 생활을 정착하게 한다면, 가히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는 실효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지형을 그려 진달하라고 명하였다. 홍봉한이 손가락으로 지점(指點)하며 조목조목 아뢰기를 자못 자세히 하매, 임금이 어영청에 창고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하라고 명하였으니, 곧 오늘날 성북창(城北倉)이었다. 창고가 성외에 있어서 한갓 도독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으며, 거민들은 땀나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다가 창고의 저축미로 먹여 주기를 바라니, 소모되는 비용이 도리어 심하였다.

— 『영조실록』 영조 41년(1765) 4월 17일

乙酉四月十七日申時，上御資政殿。(중략) 鳳漢曰，北城主脈補土之役，今已了當，鍊戎臺一局，若使摠使，一向盡心，則別無可虞者。而以地勢言之，戎臺在於北山之西北，故肅靖門北東，無以照管，東村無賴樵採之類，任意往來，童濯無餘，已不勝其痛駭。況其一帶長谷，介在城外，虛曠無廢，所見可悶。自前已有募民入居之議，而尙今未遑者，全由於忽於遠慮，視若餘事也。此是御廳分授處，故御將爲之深憂，常加料度，昨日則親往而遍審，方欲略略設施。此不過募聚民居於回抱之平地，買給近處屯田，設置若干倉穀，使之資生而安接，不欲煩諸朝家，但自營門經紀，而事係新創，難於獨決，往復於臣，臣果力贊之。是不但環守都城之計，實有與戎臺，表裏聲勢之益，使之及時措置，以爲緩急相須之道，何如？上曰，卿其取紙而指陳，此誠好矣。使御廳卽爲舉行，可也。所置之田，爲營屯，而居民將爲屯軍耶？鳳漢曰，自當如此，而御廳有本牙兵，而自廟堂定額，今不必加其軍額，就其元摠中移定，則自可依其事目，除雜役矣。上曰，依爲之。(하략)

— 『승정원일기』 영조 41년(1765) 4월 17일

○ 1779년(정조 3), 성북둔 근처에 잡은 호랑이 1마리

또한 어영청의 말로 아뢰기를 “혜화문 밖 성북둔 근처에서 중호 한 마리를 잡았으므로 이를 봉진하고자 하여 감히 아뢰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 영문에서 범을 잡은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도록 하여라.” 하였다. (又以御營廳言啓曰 惠化門外城北屯近處 中虎一頭捉得 封進之意 敢啓 傳曰 令本營門施賞)

— 『승정원일기』 정조 3년(1779) 11월 3일

○ 1791년(정조 15), 성북둔에 별입직한 초계문신들의 활쏘기 성적

어영청이, 초계 문신이 습사(習射) 때 과녁을 맞힌 것에 대해 아뢰었다.

어영청이 아뢰기를,

“성북둔(城北屯)에 별입직(別入直)한 초계 문신 서유문(徐有聞)은 오늘 습사 때 20순에 과녁을 맞힌 것이 35발이고, 김달순은 20순에 과녁을 맞힌 것이 51발이고, 한상신(韓商新)은 10순에 과녁을 맞힌 것이 15발이니, 모두 직소(直所)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여, 전교하기를,

“김달순이 20순에 51발을 맞힌 것은 충분히 무변(武弁)보다 낫다고 할 만하다. 현재 문겸의 빈자리에 이 미 김달순을 처분하여 활 쏘는 곳에는 서유구(徐有槩)만 남았다. 서유구는 변화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조각할 수 없는 썩은 나무처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할 만하니, 오늘 또한 내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국역 일성록』 정조 15년(1791) 10월 27일

○ 성북창을 그려 넣은 고지도



[그림21] 「한양도성도」부분(18세기 후반,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북사창(北寺倉)이라고 표기한 기와집이 성북둔이다. 그 위로 북적동(北赤洞)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 [ 9 ] 성북동포백훈조계

### 1. 정의

#### ○ 계(契)

- 조선후기 한성부의 말단 행정단위<sup>12)</sup>

#### ○ 포백(曝白)

- '마전'이라고도 하며 생베나 무명을 삶거나 빨아 별에 말려서 희게 하는 일
- 옷감의 품질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정으로 중요성이 큼
- 성북천은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양안의 바위와 토양이 깨끗해 마전일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였음

#### ○ 훈조(燠造)

- 콩을 삶아 메주를 쑨는 일
- 성북동에서 제조한 메주는 궁궐에 납품했음

### 2. 성북동포백훈조계의 조직 경위

#### ○ 성북동의 토지 생산성 저조

- 성북동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농지의 생산성이 없는데다 땅은 외지고 시장은 멀어서 주민들이 살아갈 방도가 곤란했으므로 새로이 성북동에 소속된 주민들은 땔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음

#### ○ 어영청 재정의 부족

- 여의치 않은 생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성북둔 창고에 둔 저축미를 이들 주민(군인)들에게 출급해 줄 수 밖에 없어 어영청의 재정고갈 현상이 오히려 심화

#### ○ 농업 기반 → 수공업 기반 둔전으로 전환 추세

- 기존의 둔전은 주로 농업에서 수익을 취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조선후기 도시인구의 증가와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라 도성 부근에 신설한 둔전은 농업 외에 수익 형태를 다양화를 꾀함
- 성북둔의 경우 포백과 훈조, 즉 도성과 궁궐에 납품하는 물자의 공급을 담당하는 일을 맡음으로써 농사의 풍흉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적인 수익 형태를 창출하여 주민들의 자생과 어영청의 재정 안정을 도모함

### 3. 성북동포백훈조계의 조직과 운영

#### ○ 자료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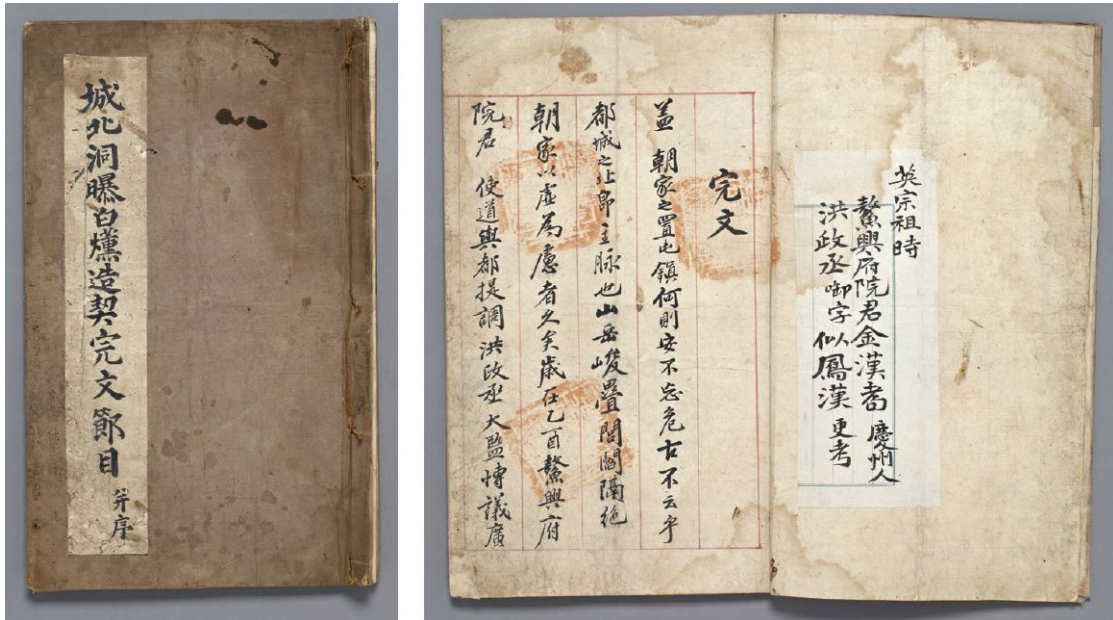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燠造契完文節目)<sup>13)</sup>에는 성북둔 및 성북동포백훈조계를 조직하게 된 경위와 운영방식, 노동 조건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 ○ 포백 규정

- 포백(마전)할 포목은 도성 안에 있는 목면(무명), 포(베), 저(모시) 세 가지 점포의 물건과 송도(개성)의 모시 전부에 해당함
- 이 일은 영조 43년(1767) 가을부터 성북동 주민들에게 할당되었으며 매 동(50필)마다 무명은 4냥, 베는 6냥 5전, 모시는 10냥씩 노임을 주게 하였음

#### ○ 훈조 규정

- 포백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하므로 연용대(鍊戎臺) 훈조계 주민들이 맡아 하던 일감을 일부 떼어 성북동 주민에게 할당
- 마전일을 시작한 이듬해인 1768년(영조 44) 겨울부터는 성북동에 훈조막을 설치하고 숙련자를 보내 콩을 삶아 메주 담그는 법을 주민들에게 가르치게 하였음
- 훈조막 1개소마다 술 2개씩 걸고 일꾼 5명을 두어 교대로 콩을 삶게 함
- 콩 1석당 노임은 6전으로 쳤으나 돈 대신 쌀 2말씩을 지급



[그림22]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1805, 가로 : 27.4cm 세로 : 44cm 두께 : 1cm,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82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성북동 강운봉의 집에 보관해 둔 원본을 유실한 관계로 1805년 새로 작성한 것이다.

1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2호(지정일 2003. 12. 30). 1책. 조선 후기 도성 밖에 있던 성북동에 둔진(屯鎭)을 설치하고 그곳 주민의 생계를 위해 포역(曝役:옷감을 썬서 햇볕에 말리는 일)과 훈업(燠業:메주를 만들어 상납하는 일)을 시킨 사실을 적은 비변사의 문안과 훈련도감의 문적(文蹟)을 1805년(순조 5) 6월 재작성하여 발급한 완문(完文:관청이 발급한 승인문서) 및 절목(節目). 원래의 문안과 문적은 총융청 연용대(總戎廳鍊戎臺) 강운봉이 보관하였으나 분실하였고, 이에 성북동 주민들이 과거사실을 인증해 줄 것을 청하자 1805년 6월 옛일을 돌이켜 발급한 것임. 18세기 후반~19세기 초 성북둔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그 일대 거주민의 생활 및 산업 실태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로 현재 서울시 소유, 서울역사박물관이 관리하고 있음.



4. 관련 자료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1805년 재작성) 중 완문

대개 조정에서 둔진을 두는 것은 어찌서인가? 편안한 때에도 늘 위험을 잊지 않는다고 옛 사람은 말하지 않았던가? 도성의 북쪽은 주맥이라 산악이 높아 첩첩이고 여염집들은 떨어져 있어서 조정에서는 빈 것을 우려한지 오래되었다.

지난 을유년(1765년, 영조 41)에 오흥부원군 김한구 사포와 도제조 홍정승 대감 흥봉한께서 널리 의논을 구하고 물어보아서 도성 안팎 경계 지역의 언덕에 둔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으는 취지를 경연에서 임금께 아뢰어 병술년(1766년, 영조 42) 봄에 본 동리에 행차하여 적절한 땅인지를 살펴서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워서 고치고 수리해서 둔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거주하게 했다. 둔진을 둔 곳은 혜화문의 왼쪽이자 숙정문의 오른쪽이다. 대체로 본 성북동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주민의 생계가 형편없으며 땅은 외지고 시장은 멀어서 살아갈 방도가 곤란하다.

정해년(1767년, 영조 43) 가을에 조정에서 특별히 거주민들의 생계를 헤아려서 묵면(무명), 포(베), 저(모시) 세 가지 점포에서 포백할 물건과 송도의 모시 전부를 본 동리의 거주민에게 주어서 삶아서 익히게 하였다.

무자년(1768년, 영조 44) 겨울에는 훈조막을 설치해서 비변사에서 총융청에 관문(關文, 공문서)을 보내어 연용대 훈조막에 있는 숙련자 한 사람을 본 막으로 보내어 가르치게 하고 동리의 거주민으로 하여금 배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임금께 재가를 받았으니 옳은 일이었다. 두 상국 합하께서 군영을 통솔하시니 국가를 위해 성취해야 할 방법과 주민을 보호하는 덕을 아울러 행하셨다.

나라에서는 미리 위험을 방지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끼니를 때울 근심을 잊었으며, 귀신처럼 헤아리고 때맞춰 보우하심이 이에 이르렀다. 주역에 이르기를 “왕공이 시설을 험하게 만들어서 미리 방비하여 근심이 없게 하였다.”고 했고, 서경에 이르길 “백성을 잘 보호함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한다.” 라고 했다.

그러니 둔진을 설치하여 백성을 거주하게 한 것은 어찌 우연의 일이겠는가? 둔진이란 것은 나라의 방패막이며 백성이 거주하는 것은 둔진의 근본이다. 둔진은 백성을 믿고 백성은 둔진에 의지해서 상호 보호한다면 하나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를 특별히 헤아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포역과 훈업을 하게 해서 생활하는 길에 보태도록 하였으니 백성을 어루만지는 정치가 깊고 두텁게 된 것이다. 비변사의 문안과 군영의 문적은 차례대로 붙여 족자로 만들어 연용대에서 옮겨 온 강운봉의 집에 두었다.

강운봉이 사망하자 여러 문적을 잃어버려 찾을 길이 없으니 통탄스럽고 애석하다. 이미 잃어버린 물건은 형편상 어찌겠는가. 그러므로 이번에는 분실한 사정과 연유를 갖추어 사또께 소장을 올려 앞드려 시행되는 은택을 바라오며 이를 입증하는 완문과 절목을 만들어 주셔서 뒷날 증빙 자료로 삼고자합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마음을 다하여 준수하여 둔진의 흥망과 함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릇 비변사와 군영이 결정해 문서를 발급해 줄 즈음에 저희들이 아래와 같이 추록하여 뒷날 상고할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가경 10년 을축(1805년, 순조 5) 늦여름에 추가함

盖朝家之置屯鎮何則 安不忘危 古不云乎 都城之北 卽主脉也 山岳峻疊閭閻隔絕 朝家以虛爲慮者久矣 歲在乙酉鰲興府院君使道 與都提調洪政丞大監 博議廣詢後 字內原處 以設屯募民之意 筵中仰達 丙戌春 行次本洞 相地之宜 削高填低 修之葺之 設屯居民 鎮之實之 卽惠化門之左 肅靖門之右也 大抵 本洞山高谷深 生計零落 地僻市遠 利路艱難 丁亥秋 朝家特軫居民之生計 木布苧三廩曝白之物 松苧並盡數 付之於本洞居民以爲練熟 戊子冬 又設燠造幕 而自廟堂 發關於摠戎廳鍊戎臺 燠造幕所在熟手者一人 移付於本幕 使之教訓使洞中居民 演學成就 以爲賴活之意榻前定奪 躋乎高哉 兩相國閣下 統轄營門 爲國成就之道 方略保護之德 並行國有陰雨之備 民無桂玉之愁 神運籌劃 爲時保佑 於斯至矣 易曰 王公設險 以備不虞 書曰 能使斯民 如保赤子 然則設屯鎮以居民 豈偶然者哉 屯鎮者 國之保障 居民者 屯之根本 屯恃於民 民依於屯 互相保護 固非無一者 故朝家特軫保民之政 使斯民使之曝役燠業 以日成出 以爲憑後之跡 伏願儕僚 奉承成意 悉心遵行 與屯興廢 是所望也 夫廟堂及營門決給之時 行者追錄于左 以爲日後可考之地 云爾 補資生之路 其字恤之政 深且厚矣 廟堂文案 營門文蹟 次第連付 作成卷軸 置之於鍊戎臺移來人姜雲峯家矣 雲峯身死許多文蹟 隨而闕失 無處可推可勝痛哉 可勝惜哉 已失之物 勢無奈何 故今番 以此闕失之意 具由呈訴于使道前 伏蒙許施之澤 立旨完文節

嘉慶十年 歲在乙丑季夏迫成

한글번역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도성과 마을1』, 2014, 38쪽.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1805년 재작성) 중 절목

일. 무명·베·모시 삼전에서 삶아서 익힐 것들은 송도의 모시와 함께 비변사에서 결정해준 예에 따라 묶음 단위로 포백하여 해당 전으로 수송하며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일. 무명·베·모시를 포백하는 수공은, 무명은 매동 50필마다 임금이 4량이고, 베는 매 동마다 노임이 6량 5전이며, 모시는 매 동마다 노임이 10량씩이다. 아울러 비변사에서 결정해준 예에 따라 받되 감히 위반하지 않는다.

일. 호조의 차일에 쓰일 포는 매 동마다 삶아서 익히는 노임은 호조에서 정하는 규식에 의거하여 백미 20두를 내준다.

일. 군영에서 우선 제공해준 짐팔로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게 하며 본 계가 형편이 좋아지면 곧바로 돌려준다. 짐팔을 되돌려 주어서 지금은 없다.

일.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인을 1소를 만들어 두 개의 술을 걸고 교대로 콩을 삶는다. 5인 외에 감히 증가시키지 말 것이다.

일. 길을 닦을 때에는 의정부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명의 역군을 징발하여 삼태기, 팽이를 가지고 내계와 더 붙여 함께 부역한다.

일. 술에 대한 세금은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매년 35량을 내계로 수송하여 도로 닦는 비용에 보태도록 한다.

일. 군영에서 콩을 삶는 것은 매 석당 노임은 6전인데, 이는 쌀로 대체하여 2두씩으로 한다.

일. 이자가 없는 돈은 본 막이 형편이 좋아지면 즉시 갚는다. 다 갚고 지금은 없다.

대장(수결)

一. 木布苧三廩 練熟之物 松都苧 並依廟堂 決給例 從束曝白 輸送于各其廩 毋至遲滯之廢爲白齊

一. 木布苧曝白工錢 木每同雇價四兩 布每同雇價六兩五錢 苧每同雇價十兩貳 並依廟堂決給例 捧上爲乎矣 無敢違越爲白齊

一. 戶曹遮障布每同練熟雇價 依本曹定式例 白米二十斗 受出爲白齊

一. 營門姑給卜馬 使之物種載來 而本契蘇醒後 卽爲還納爲白齊 卜馬畢納今無

一 依廟堂決給例 五人作爲一所 掛設兩釜 交遞蒸太爲乎矣 五人外無敢增加爲白齊

一. 治道時 依廟堂決給例 出軍五名 三台廣耳持是遣 與內契 同爲赴役爲白齊

一. 釜稅段 依廟堂決給例 每年三十五兩 輸送于內契 以補治道之需爲白齊

一. 營門燠太 每石工錢六錢 代米二斗貳爲白齊

一. 無邊錢段 本幕蘇醒後 卽爲還納爲白齊 畢納今無

大將(手決)

한글번역 : 서울역사박물관 편,『도성과 마을1』, 2014, 39쪽.

## [ 10 ] 상춘객들과 한시

### 1. 18~19세기 서울의 유상공간과 성북동

#### ○ 서울의 유상공간 확대

- 18~19세기 서울에서는 사대부나 중인(여항)의 심미 취향이 확산되고 일반 서민들까지도 여가를 즐기는 풍조가 확대
- 특히 봄, 가을에는 도성 안팎의 승지(勝地)에서 부시(賦詩)와 유상(遊賞)을 즐기는 일이 많았으며, 개인별로 집안에 동산[園]을 가꾸는 풍속이 성행하여 도성 내에 여러 명원(名園)들이 생겨났음
- 조선후기 서울(한양)이라는 근대적 도시의 생성이 자연의 파괴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적 풍경을 형성하는 위에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사실

#### ○ 서울의 대표적 유상공간과 명물<sup>14)</sup>

- 필운대(弼雲臺)의 행화(杏花, 살구꽃)
- 북둔(北屯, 성북둔)의 도화(桃花, 복사꽃)
- 흥인문 밖의 양류(楊柳, 버드나무)
- 천연정(天然亭, 서대문 밖)의 하화(荷花, 연꽃)
- 삼청동과 탕춘대(蕩春臺, 세검정 일대)

#### ○ ‘북둔도화(北屯桃花)’의 명성

- 성북동포백혼조계의 조직으로 안정된 생업을 갖게 된 성북동 주민들은 집 주변 공지에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등 유실수를 심어 가꾸기 시작했는데 이는 성 안 시장에 내다팔기 위함이었음
- 4월(양력) 곡우를 전후해서 집 안팎에서 복숭아나무를 비롯한 여러 유실수들이 개화하였으므로 성북동은 영조 재위 말년~정조 즉위 초에 이르러서 도성 사람들의 대표적인 봄꽃 구경 장소로 널리 알려짐 → ‘북둔도화(北屯桃花)’라는 신조어 탄생

### 2. 관련 자료

#### ○ 북저동\_신증동국여지승람

북저동(北渚洞) : 혜화문 밖 북쪽에 있는데, 동(洞) 가운데 복숭아나무를 벌여 심어서 봄철에 복사꽃이 한창 피면, 도성 사람들이 다투어 나가서 놀며 구경한다. 민간에서는 도화동(桃花洞)이라 부르며, 어영청의 성북둔(城北屯)이 있다. 복사동(北寺洞)이라고도 하며 옛날에 묵사(墨寺)가 있었기 때문에 묵사동(墨寺洞)이라고도 한다. 맑은 시내의 언덕을 따라 주민들이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생활을 한다. 늦은 봄철마다 노는 사람들과 거마(車馬)가 가득 찬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비고편〉

#### ○ 서울의 유상지\_경도잡지

필운대 행화(杏花), 북둔의 복사꽃, 흥인문밖 버들(楊柳), 천연정(天然亭) 연꽃, 삼청동 탕춘대(蕩春臺)의 수석(水石)이 술과 노래를 즐기려는 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도성의 둘레는 40리인데 이를 하루 만에 두루 돌면서 성 내외의 꽃과 버들을 감상하는 것을 좋은 구경거리로 여겼다. 이른 새벽에 오르기 시작하면 해질 무렵에 다 마치게 되는데 산길이 험하여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弼雲臺杏花 北屯桃花 興仁門外楊柳 天然亭荷花 三清洞蕩春臺水石 觴詠者多集于此 都城周四十里一日遍巡周覽 城內外花柳者爲勝 凌晨始登昏鍾可畢 山路絕險有委頓而返者

- 유득공,『경도잡지』〈풍속〉

14) 유득공,『경도잡지(京都雜志)』

#### ○ 북사동\_한경지략

북사동은 혜화문 밖에 있으며 옛날 묵사(墨寺)가 있었으므로 ‘묵사동’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어영청의 북창이 여기에 있어서 ‘북둔’이라고도 한다. 맑은 계곡물이 방죽을 끼고 흐르는 곳에 거민들은 복숭아를 심어 기르는 것을 업으로 삼았으니 늦은 봄마다 놀러온 사람들, 수레와 말들이 산과 계곡 사이에 가득 차서 움직인다. 또한 맑고 깨끗한 초가들이 많은데 정유 박제가의 「성시전도시」에 “가장 불쌍하기는 성북둔 주변의 풍속이라. 복숭아를 심지 않은 것을 수치로 여긴다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北寺洞 在惠化門外 古有墨寺 故亦稱墨寺洞 又御營廳之北倉 在此 亦稱北屯 清溪挾岸 居人 種桃爲業 每於晚春 遊人車馬 駢闐山谷間 亦多精灑之茅屋 朴貞蕤齊家城市全圖詩 最憐城北屯邊俗 不種桃花以爲恥者 是也

- 유본예,『한경지략』〈명승〉

#### ○ 1785년 봄, 성북동\_흙염

이윽고 성북동에 놀러 가기로 약속한 이가 와서 나란히 나귀를 타고 동쪽으로 나갔다. 동쪽 성곽의 소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면서 동춘의 꽃들을 굽어보았다.

혜화문을 걸어 나가서 왼쪽으로 돌아 북동에 들어가니 복사꽃이 눈에 가득 들어온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노니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역시 작년 윤달처럼 흥성스럽지는 못했다. 굽이굽이 정처 없이 계곡을 따라가며 꽃을 보다가 바위 위에 앉아 개울물을 굽어보며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김성탄이 비평을 한 당시(唐詩)를 읽고 품평했다.

조금 올라가니 고운 풀들이 돌아난 언덕이 있기에 앉아 보았다. 개울물이 굽이쳐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오른쪽에는 우거진 푸른 숲이 짙은 그늘을 드리운 가운데, 한 그루 홍도의 어여쁜 빛이 더욱 도드라졌다. 버드나무가 서 있는 바깥에는 짙막한 다리가 있어 노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복사꽃 만발한 사이에 이어진 시골의 초가집에서 간혹 밥 짓는 연기가 일어나니, 그 구도에서 느껴지는 품격이 완전히 그림 속이라 하겠다. 한참을 앉아서 보다가 이런 말을 했다.

“산언덕에 올라가 굽어보면 온 골짜기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죄다 눈에 들어온다네. 그래서 노을 깔고 눈송이 같은 꽃들이 눈이 어릿하도록 어울려 피어 있는 걸 모두 볼 수 있네. 이 또한 꽃을 보는 방식 중 하나겠지.”

언덕에서 내려와 다시 짙막한 다리를 건너가서 성북둔을 봤다. 성북둔이라는 것은 군영에 속한 창둔(倉屯)의 이름이다. 성북둔 뒤쪽으로 돌아 올라가서 계곡을 따라 걸었다. 이따금 암벽을 마주치기도 했고 촌락을 만나기도 했다. 노니는 사람들은 곳곳에 모여 있었는데 어떤 이는 조용히 있는 것을 편히 여겼고 어떤 이는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농사로 여겼으니 대체로 노는 법도 하나같지 않다.

북사(北寺)로 찾아가려던 도중에 절이 이미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결국에는 다시 계곡을 따라 내려왔다. 날이 저물고 갑자기 흐려져서 비가 올 것 같았다. 다리를 건너고 꽃길을 지나 혜화문에 이르니 해는 벌써 반이나 기울었다. 혜화문의 성루에 올라 해질녘의 꽃들을 보고 성루 왼쪽으로 가 보니 푸른 언덕에 돋은 정결한 초록 풀들이 사랑스러웠다. (하략)

- 유만주(1755~1788)의 일기, 『흙염』1785년 3월 26일 (김하라 역, 돌베개, 2015)

3. 성북동 관련 한문학 작품

○ 조선시대 문헌에 전하는 성북동 방문객과 한문학 작품 - 한시 (총 32명 70여 편)

| 연번 | 방문자 (생몰년)          | 작품                                                                                                           | 출처     |
|----|--------------------|--------------------------------------------------------------------------------------------------------------|--------|
| 1  | 김구주<br>(1740~1786) | 「다시 성북둔을 방문하고 (再訪城北屯)」                                                                                       | 가암유고   |
| 2  | 이복원<br>(1719~1792) | 「박문경, 윤여대, 이사경, 조계화와 함께 북적동 싯구를 잇다 (與朴文卿, 尹汝大, 李士擎, 趙季和 北積洞聯句)」                                              | 쌍계유고   |
| 3  | 채제공<br>(1720~1799) | 「갑진년 봄 유선, 공희, 계수 및 여러 아이들과 함께 북저동에서 꽃구경을 하고 둔사에 묵다 (甲辰春 同幼選, 公會, 季受及諸兒輩賞花北渚洞仍宿屯舍)」                          | 번암집    |
| 4  | 목만중<br>(1727~1801) | 「번암, 공희와 함께 북둔에서 놀다 (與樊巖, 公會 游北屯)」                                                                           | 여와선생문집 |
|    |                    | 「북둔의 달밤 못가에 짓다 (北屯月夜沼上作)」                                                                                    |        |
|    |                    | 「동소문을 나서며 (出東小門有述)」                                                                                          |        |
| 5  | 오재순<br>(1727~1792) | 「북적동에 복사꽃이 한창 피어 놀러온 사람들이 북적대었다. 극경 또한 막내 연(淵)과 더불어 늘 가서 구경을 하므로 절구 한수를 짓는다. (北寂洞桃花盛開 遊客填咽 克卿亦與季兒淵常往賞 爲賦一絕)」 | 순암집    |
| 6  | 성대중<br>(1732~1809) | 「태호에 부쳐 (奉寄太湖)」                                                                                              | 청성집    |
| 7  | 박준원<br>(1739~1807) | 「북사동에서 여러 사람에게 차운하여 (北寺洞次諸人韻)」                                                                               | 금석집    |
| 8  | 윤 기<br>(1741~1826) | 「상사일에 북저동에서 놀다 (上巳遊北渚洞)」                                                                                     | 무명자집   |
|    |                    | 「북저동 (北渚洞)」                                                                                                  |        |
|    |                    | 「친구 이경질의 시 <봄날 북저에서 놀다>에 화운하여 (和李友景質春日遊北渚詩韻)」                                                                |        |
| 9  | 이덕무<br>(1741~1793) | 「성시전도 (城市全圖)」                                                                                                | 청장관전서  |
| 10 | 유득공<br>(1748~1807) | 「북둔도화 (北屯桃花)」2수                                                                                              | 영재집    |
|    |                    | 「북둔도화-학동이 지은 시에 차운하여 (北屯看花 學兒有作 次其韻)」                                                                        |        |
|    |                    | 「북둔초당-두실학사의 시에 차운하여 (北屯草堂 次斗室學士韻)」                                                                           |        |

|    |                    |                                                                                                                                                                                                                                                   |      |
|----|--------------------|---------------------------------------------------------------------------------------------------------------------------------------------------------------------------------------------------------------------------------------------------|------|
| 11 | 박제가<br>(1750~1805) | 「혜화문을 나와 성을 따라 서쪽으로 2리를 가면 창고가 하나 나오는데 북둔이라 한다. 주민들이 모두 복송아나무를 심어 붉은 안개가 피어오른다. 언덕 너머에 무너진 절이 있으므로 북사동이라 부르는 것이다. (出惠化門 循城而鹵二里有倉曰城北屯 居民皆種桃 紅霧蒸成 隔岡有破寺 所謂北寺洞者)」                                                                                    | 정유각집 |
| 12 | 이만수<br>(1752~1820) | 「북적동으로 염운하다 (北積洞拈韻)」                                                                                                                                                                                                                              | 극원유고 |
| 13 | 이이순<br>(1754~1832) | 「정릉에서 북저동에 이르러 돌아오다. (自貞陵轉至北渚洞而還)」                                                                                                                                                                                                                | 후계집  |
| 14 | 장 훈<br>(1759~1828) | 「북저동에서 놀다 (遊北渚洞)」                                                                                                                                                                                                                                 | 이이엄집 |
|    |                    | 「북저동에서 놀다 - 마을 서북쪽 성벽 아래 그늘에 기대어 정자가 있는데 새로 엮은 것이다. '오로'라는 편액을 달았는데 매우 맑고 깨끗하다. 벽에 쓰다. (遊北渚洞 洞西北附城陰 有亭新構 扁曰吾老 甚精灑 走題壁上)」                                                                                                                          |      |
|    |                    | 「아이들이 지은 시 '북저동에서 놀다'에 차운하여 (次兒輩遊北渚洞韻)」                                                                                                                                                                                                           |      |
| 15 | 조수삼<br>(1762~1849) | 「북저동 (北渚洞)」                                                                                                                                                                                                                                       | 추재집  |
| 16 | 박시원<br>(1764~1842) | 「정묘일 봄날 저녁 '경령제승' 14인이 북저동에 모여 복사꽃을 감상하였다. 당나라 시 <현도관 안의 복송아나무 일천 그루는, 모두가 유량이 떠난 뒤에 심은 거라오>를 가지고 분운하여 승경을 기록했다. 이날 나는 내성에서 숙직하였으므로 홀로 모임에 참가하지 못했다. 마침내 여러 운에 맞추어 따라 화답한다. (丁卯暮春 京嶺諸勝十四人 會北渚賞桃花 拈唐人詩玄都觀裏桃千樹盡是劉郎去後栽 分韻以記勝 余於是日 滯直內省 獨未參會 遂合諸韻追和)」 | 일포집  |
| 17 | 김조순<br>(1765~1832) | 「죽리, 강우, 창빈, 이회, 삼숙, 신중립, 아들 와근과 함께 북저의 복사꽃을 구경하였다. 나는 처음 도착하였고 연천숙이 갑자기 뒤따라왔으므로 함께 창사에서 묵었다. (同竹里, 江右, 滄濱, 履會, 三叔, 申仲立, 兒子迢根 賞北渚桃花 僕實初至 淵泉叔忽追躡 共宿倉舍)」                                                                                            | 풍고집  |
|    |                    | 「영야와 함께 북저동에 나와 읊다 (與寧野出北渚同吟)」                                                                                                                                                                                                                    |      |
| 18 | 김 려<br>(1766~1822) | 「만춘유람 절구 12수 (晩春游覽絕句 十二首)」                                                                                                                                                                                                                        | 담정유고 |
| 19 | 강이천<br>(1768~1801) | 「북저에서 취해 돌아오다 (北渚醉歸)」                                                                                                                                                                                                                             | 중암고  |
| 20 | 강준흠<br>(1768~1833) | 「북저에서 꽃을 보다 (北渚看花)」                                                                                                                                                                                                                               | 삼명시집 |
|    |                    | 「북저동-성 동쪽 혜화문 밖으로 5리를 가면 있는데 주민들이 복송아를 심어 업으로 삼는다 (北渚洞-在城東惠化門外五里 居人種桃爲業)」                                                                                                                                                                         |      |



|    |                    |                                                                                                       |        |
|----|--------------------|-------------------------------------------------------------------------------------------------------|--------|
| 21 | 박윤묵<br>(1771~1849) | 「죽리학사와 북저에서 복사꽃을 구경하고 함께 짓다 (陪竹里學士賞桃北渚共賦)」                                                            | 존재집    |
| 22 | 이지수<br>(1779~1842) | 「안동(安洞)의 여러 친구들과 함께 경모궁 연지를 구경하고 북동에 가서 종일 놀고 돌아와 백주집 운에 맞추어 서로 화답하였다 (與安洞諸友賞景慕宮蓮池往遊北寺洞終日而歸抽次白洲集韻相和)」 | 중산재집   |
| 23 | 김정희<br>(1786~1856) | 「북둔에서 도화를 구경하다 (北屯看桃花)」                                                                               | 완당전집   |
|    |                    | 「북둔에서 꽃을 구경하고 성을 벗어나 구호하다 (北屯賞花 出郭口號)」                                                                |        |
| 24 | 변종운<br>(1790~1866) | 「북저동 (北渚洞)」                                                                                           | 소재집    |
| 25 | 조병현<br>(1791~1849) | 「묘군과 함께 밤에 북저동에 들러 (共卯君夜訪北渚洞)」                                                                        | 성재집    |
| 26 | 윤정현<br>(1793~1874) | 「성북둔에 복사꽃이 피다 (城北屯放桃花)」                                                                               | 침계선생유고 |
| 27 | 조극승<br>(1803~1877) | 「반촌에 머무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북저동에서 놀다 (偕泮留諸友遊北渚洞)」                                                             | 구애선생문집 |
| 28 | 이상적<br>(1804~1865) | 「아이들과 성북둔으로 나가 꽃을 보다 (兒輩出城北屯看花)」                                                                      | 은송당집   |
| 29 | 강 진<br>(1807~1858) | 「박사고에게 가서 북저동에 놀러가기로 약속하고 오는 길에서 읊다 (赴朴社臯 約遊北渚洞路上口吟)」                                                 | 대산집    |
| 30 | 장석륜<br>(1823~1908) | 「사우들과 함께 북저동에 들어가다 (與社友入北渚洞)」                                                                         | 유현집    |
| 31 | 이건창<br>(1852~1898) | 「성북정 (城北亭)」                                                                                           | 명미당집   |
| 32 | 황수연<br>(1844~1915) | 「북저유경 (北渚幽景)」외 30여 편                                                                                  | 춘파유고   |

[표8] 조선시대 문헌에 전하는 성북동 방문객과 한시 작품 목록

○ 조선시대 문헌에 전하는 성북동 방문객과 한문학 작품 - 산문 (3명 3편)

| 연번 | 방문자 (생몰년)          | 작품                                  | 출처   |
|----|--------------------|-------------------------------------|------|
| 1  | 채제공<br>(1720~1799) | 「유북저동기 (遊北渚洞記)」                     | 번암집  |
| 2  | 서형수<br>(1749~1824) | 「유북적동기 (遊北笛洞記)」                     | 명고전집 |
| 3  | 유만주<br>(1755~1788) | 일기 1785년 3월 26일자,<br>1786년 4월 5일자 등 | 흙영   |

[표9] 조선시대 문헌에 전하는 성북동 방문객과 한문 산문 작품 목록

○ 성북동 관련 한문학 작품의 가치

- 조선 후기 성북동의 여러 지명, 이칭들을 성북동을 배경 또는 소재로 한 한문학 작품들 속에서 확인  
⇒ 성북둔(城北屯), 북둔(北屯), 북저동(北渚洞), 북적동(北笛洞), 북사동(北寺洞) 등.
- 한문학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배열하여 18~19세기 성북둔 설치 이후 봄철 경관과 변화상 확인 가능  
⇒ 성북동은 봄철 도성 양반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벼운 차림으로 놀러나와 꽃구경 했던 장소였다. 그러나 성북둔 설치(1766) 이전은 황량한 계곡 지대로 인가는 물론 방문객이 거의 없던 장소였음을 한시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음(김구주)
- 성북동 주민들이 복숭아 재배와 판매를 생업의 하나로 삼고 있었음을 확인(유득공)  
⇒ 그러나 '마전'이나 '매주 쭈기'와 같은 성북동 주민들의 주된 생업은 한시 작품의 소재로 나타나지 않은 특기할 만함(유만주 예외)
- 성북둔의 대략적인 위치와 내부 구조 추측  
⇒ 혜화문을 나와 성벽을 따라 2리를 가서 성북천 다리를 건너면 성북둔의 둔사와 창고가 나왔으며 입구에 는 연못이 있어 군사 업무를 보는 관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뭇 운치를 자아냈음. 이 때문에 전현직 관료들이 객사로 활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박제가, 채제공, 김조순)

○ 주요 한시 번역

북저동(北渚洞)

골짜크 안에 복사꽃 흐드러지고 / 洞裏桃花滿  
마을 지나 시냇물 급히 흐르네 / 村中澗水馳  
꽃가지를 헤치면 소매에 향기 배고 / 拂枝香襲袂  
바위에 올라서면 물에 그림자 비치네 / 臨石影搖池  
눈이 벌써 취했는데 술이 필요하랴 / 眼醉何須酒  
멍하니 마음 뗫겨 시 지을 짬도 없네 / 神癡未暇詩  
구경 나온 사람들 밤낮으로 시끌벅적 / 遊人喧日夕  
모두가 태평 시절 즐기고 있네 / 俱是樂平時

- 윤기(1741~1826), 『무명자집』

성시전도(城市全圖)

혜화문 밖에서는 무엇을 보았는가 / 惠化門外何所見  
푸른 숲이 흰 모래밭에 연하였네 / 點綴靑林白沙嘴  
북둔의 복사꽃 천하에서 가장 붉고 / 北屯桃花天下紅  
푸른 시냇가엔 울타리 짧은 집들 / 短籬家家碧溪沚

- 이덕무(1741~1793), 『청장관전서』

북둔에서 꽃을 구경하고 성을 벗어나 구호하다[北屯賞花 出郭口號]

두서너 집 산곽에 아지랑이 갓 걷히니 / 數家山郭翠微開  
눈부시게 타올라라 시내 낀 붉은 노을 / 炙眼蒸紅夾礪栽  
낫에 부는 번풍이 술 기운을 올리는 듯 / 吹面番風如被酒  
곱게 개인 하늘 기운 회대에 가까우이 / 嫩晴天氣近恢台

- 김정희(1786~1856), 『완당전집』

## [ 11 ] 별서정원

### 1. 조선시대의 별서(別墅)정원

- 별서의 정의
  - 주택에서 떨어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두루 섭렵하면서 승경과 우주의 삼라만상을 포근히 느낄 수 있는 경승지와 전원지에 조성한 별장으로 은일개념의 원유공간
- 별서의 구성
  - 정침(正寢)인 본제(本第)가 있어야 하고, 거리는 정침으로부터 대개 0.2~2km 정도 떨어져 위치한 곳으로서 도보권에 있어야 함
  - 건물은 누(樓)와 정(亭)으로 대표되고 건물 내부에 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음
  - 대부분 담장과 문을 두지 않거나 낮게 설치하여 사방의 산수 경관을 조망할 수 있게 함
  - 은일형, 별장형, 별업형으로 구분됨
- 별서의 형성배경
  - 조선시대 양반 위주의 정치체제 및 토지소유로 인한 튼튼한 경제적 기반
  - 당쟁과 학문적 대립에 따른 사대부들의 현실 도피적 은일관, 도교·유교적 자연관
  - 우리나라는 험준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형으로 산수가 좋고 경승지가 많아 은둔, 은일하기가 용이했으며,
  - 기후적으로 온난하고 식생이 자라는데 유리한 점 등의 지리적 여건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우주를 논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독특한 별서문화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음

### 2. 성북동의 별서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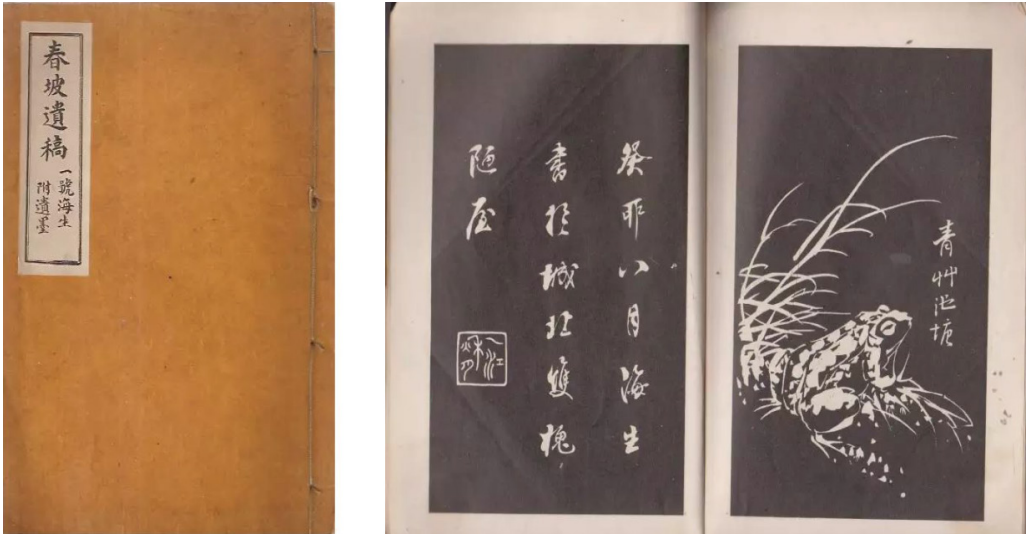
- 성북동의 입지 조건
  - 산, 계곡, 하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맑고 수려한 자연환경
  - 도성 및 궁궐과 가까워 혜화문을 통해 언제든지 도보로 왕래 가능
- 성락원(城樂園)
  - 소재지 : 서울 성북구 선잠로2길 47 (성북동)
  - 소유자(소유단체) / 관리자(관리단체) : ㈜제남기업 / 성북구
  - 1992년 사적 제378호로 지정 → 2008년 명승 제35호로 변경
  -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沈相應)이 조성
  - 고종 때 내관을 지낸 춘파(春坡) 황수연(黃壽延, 1844~1916)이 1916년까지 별장으로 사용
  - 황수연 사후 의친왕 이강(李攬, 1877~1955)이 1916년부터 1950년까지, 35년 동안 별궁으로 사용<sup>15)</sup>
  - 1950년 심상응의 4대손 심상준(1991년 작고)이 매입한 후 ‘성 안의 낙원’이라는 뜻의 ‘성락원(城樂園)’이란 이름을 붙임. 현재 ㈜제남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음.
  - 명승 지정면적 1만 4,407㎡로 조선시대 민가의 조원(造苑)으로는 서울에 남은 유일한 것임을 높게 평가
- 이종석 별장(李鍾奭 別莊)
  - 소재지 : 서울 성북구 성북로 지하 131 (성북동)
  - 관리자(관리단체) : 대한예수교장로회 덕수교회
  -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0호(지정일 1977.3.17.)
  - 조선 말기의 상인 이종석이 1900년경에 지은 별장으로 추정(면적 : 183평)
  - 우물이 있는 바깥마당의 동북쪽에는 안채가 있고, 북쪽에는 행랑채가 자리 잡고 있음
  - 건평 29.8평으로 사랑채 비슷한 별채의 안채와 이에 부속된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북쪽에는 안채가 있고, 북쪽에는 행랑채가 있음
  -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3칸인 ‘ㄱ’자 모양의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남향집
  - 대청 옆 누마루에 일관정이라고 쓴 편액을 걸고, 추녀에는 풍경을 달았으며 회색 벽돌로 영롱담을 쌓아 집터 주위를 둘러막아 놓았음
  - 살림집이라기보다 별장 건축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집

15) “1916년 4월 7일 이강공(李攬公)에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소재 국유임야 1정(町) 3반(反) 6무(畝) 20보(步)를 양여하다.” (『조선총독부관보』1916. 4. 13.)

- 그밖의 별서정원
  - 유득공(1748~1807)의 ‘북둔초당(北屯草堂)’ (위치 불명)
  - 민영환(1861~1905)의 ‘음벽정(飲碧亭)’(현 연화사 자리)
  - 김병시(1832~1898), 윤용선(1829~1904), 이근택(1865~1919)의 별장 (명칭, 위치 불명)
  - ‘오로정(吾老亭)’, ‘성북정(城北亭)’, ‘백운정사(白雲精舍)’ (소유주, 위치 불명)
- 성북동 별서정원의 가치
  - 서울 근교에서 조선시대 별서정원과 별서문화를 살필 수 있는 드문 자료
  - 조선시대 서울 양반층의 자연관, 주거관을 비롯해 자연친화적 유상문화와 풍류문화의 실상을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당시에 남긴 문학작품들과 연계시켜 파악할 수 있게 해줌
  - 철저한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되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서울 시민들이 찾아가서 심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적 유연성이 요청됨

### 3. 성락원과 춘파 황수연

- 춘파 황수연의 생애
  - 생몰연대 : 1844년(헌종 10)~1916년 2월 15일(양력)
    - ※ 본관 : 평해
    - 이름 : 윤명(允明, 초명), 수연(壽延, 어사명)
    - 자 : 집중(執中)
    - 호 : 춘파(春坡), 해생(海生)
  - 1857년(14세) :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와서 양봉협(楊鳳協)의 양자가 됨
  - 1863년(20세) : 내관(內官) 시험에 합격
  - 1867년(24세) : 장번(長番)에 입사
  - 1873년(30세) : 원자궁(元子宮) 전언색(傳言色), 종1품 명례궁 대차지(大次知)에 임명
  - 1893년(50세) : 조정의 문란을 통석히 여겨 병을 청탁하고 물러난 후, 동소문 밖 별장(성락원)에 머무름
  - 1908년(65세) : 성북동에 삼산의숙(三山義塾)을 설립, 제반 경비를 자담 항일의병활동 지원
  - 1916년(73세) : 별세
  - 1937년 : 양차손(養次孫) 안호영(安鎬瑩)이 유고를 모으고 심농(心農) 홍택주(洪宅株)가 교정을 맡아 문집 『춘파유고(春坡遺稿)』발행



[그림23] 황수연의 문집 『춘파유고(春坡遺稿)』의 표지와 내지 (1938)

○ 황수연의 성락원 조성과 한시

- 동소문 밖 별장(현 성락원) 내에 ‘추성각(秋聲閣)’을 지어 수집한 고서·고화·고적을 수장
  - ※ 1893년 조정의 문란을 통석히 여겨 병을 청탁하고 동소문 밖 별장으로 물러난 후 정원 조성과 한시 창작에 열심
- 『춘파유고』에 수록된 한시 90편 가량이 대부분 성북동 별장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
- 1903년경 계곡물을 끌어와 연못을 만든 후 바위에 각자(刻字)하고 연못 가운데에 괴석을 두어 작은 석가산(石假山)을 조성

○ 성락원의 암각 글씨

- 쌍류동천(雙流洞天)
  - 성락원 입구 석가산 앞쪽 개울 바위 벽에 행서체로 음각한 것으로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 있는 빼어난 경관”이라는 뜻
- 장빙가 완당(樵氷家 阮堂)
  - 완당 김정희의 글씨를 음각한 것으로 “고드름이 달리는 집”이라는 뜻
- 청산일조(靑山壹條)
  - 폭포 옆 바위 옆 전서체 각자. “푸른 산, 한 가닥 물줄기”라는 뜻
- 백천회불류(百泉會不流) …

“影碧池 海生 / 百泉會不流 爲沼碧蘭頭 自吾得此水 小作江湖遊 / 癸卯 五月 孫 文鶴 書”

- 장빙가 각자 위 암벽 위 있는 각자
- 영벽지(影碧池) : “푸른 그림자의 못”으로 성락원 중앙에 있는 이 연못의 이름을 알려줌(초서체)
- 해생(海生): 황수연의 호
- 백천회불류 ~ 소작강호유

황수연이 지은 오언시로 번역하면 “온갖 샘물을 모아 고이게 하니, 푸른 난간머리에 소(沼)가 되었네. 내가 이 물을 얻은 뒤부터 약간의 강호놀이를 하네.”란 뜻 (『춘파유고』에 수록)

- 계묘(癸卯) 오월(五月) 손(孫) 문학(文鶴) 서(書) : 계묘 5월, 즉 1903년(광무 7) 5월에 그의 양손(養孫) 문학(文鶴)이 황수연의 시문을 해서체로 옮겨 적었다.

- 명월송간조(明月松間照) …

“明月松間照 靑泉石上流 靑山數疊 吾愛吾廬”

- 영벽지 각자 위의 바위에 전서체로 내리쓴 또 하나의 각자
-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에 비치고 맑은 샘물은 돌 위에 흐른다. 청산은 겹겹, 나는 내 농막을 사랑한다”는 뜻 (중국 왕유의 시 ‘山居秋暝’에서 따온 시구)

- 송석(松石)

- 송석정 앞 연못에서 나와 떨어지며 흐르는 계류가에 있는 각자로 못가 바위 사이에 큰 소나무들이 울창했음을 알 수 있음. 1950년대 송석정 건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 황수연의 문집 『춘파유고』의 목차

- 序

- 春坡遺稿序/金文演 [序]
- 春坡遺稿序/洪宅柱 [序]

- 詩

- 北渚幽景(二首)
- 雨餘登樓
- 書情
- 喜友見訪
- 留客
- 送友
- 有感(二首)
- 睡餘
- 感懷
- 述懷
- 撥憫
- 與友得無字
- [附]與友得無字/石農
- [附]與友得無字/黃鎬瑩
- 幽懷
- 憶城內繁華
- 苦炎
- 與秋棠共吟(二首)
- [附]與秋棠共吟/秋棠
- [附]與秋棠共吟/黃鎬瑩
- 卽事
- 遣興
- 靜夜
- 閒居賦懷(三首)
- 對友(三首)
- 愁
- 聞城內社友詩會感而有作(三首)
- 戲贈貧僧(二首)
- 新秋(二首)
- 自述(三首)
- 課孫兒(二首)
- [附]課孫兒/黃鎬瑩
- [附]課孫兒/朱小滄
- 閒卧口占(二首)
- 感懸
- 驚秋
- 秋懷
- 喜逢酒友(二首)
- 望長安
- 清夜吟(二首)
- 對老友

- 登樓
- 戒友人有事不寐
- 寂餘客至(二首)
- 山人卽事
- 喚酒
- 戲名利客
- 月夜
- 嘆老病
- 愛酒
- 詠三可樓
- 逢舊友夜飲(二首)
- 愛山
- 與友拈韻(三首)
- [附]與友拈韻/石農
- [附]與友拈韻/滄山
- [附]與友拈韻/蕙山
- [附]與友拈韻/黃鎬瑩
- [附]與友拈韻/石蘭
- 題退官友人壁
- 我泉石(二首)
- 待友
- 次第思舊友
- 夢餘有懷(二首)
- 雙流洞(二首)
- 懷友
- 喜朱少滄來訪(二首)
- [附]喜朱少滄來訪/金基澤
- [附]喜朱少滄來訪/黃鎬瑩
- 遣興(二首)
- 聽子規
- 獨坐
- 謾吟
- 夢入朝班
- 山房聽蟬
- 見孫兒詩咲而試吟
- [附]見孫兒詩咲而試吟/黃鎬瑩
- 夢脩門有感
- 自愛閑過
- 咲諸詩友爭雄
- 有感
- 納涼
- 惜別
- 有懷口號(二首)
- 有會而作
- [附]有會而作/蕙山



- 〔附〕有會而作/秋棠
- 〔附〕有會而作/黃鎬瑩
- 贈人
- 步月
- 慰友人有感
- 登三可樓暢然有作(二首)
- 聽泉
- 涼棚閑卧
- 秋七月望後
- 月下開酌
- 〔附〕月下開酌/秋棠
- 〔附〕月下開酌/滄山
- 〔附〕月下開酌/蕙山
- 〔附〕月下開酌/黃鎬瑩
- 所思
- 秋日有感
- 靜夜有懷
- 引水為小池
- 池中石假山
- 〔附〕池中石假山/宋穉圭
- 夏日山家
- 見南山有感
- 遊鶴到菴
- 〔附〕遊鶴到菴/李東雨
- 佛岩寺
- 〔附〕佛岩寺/金基澤
- 自佛岩至興國寺
- 〔附〕自佛岩至興國寺/南坡
- 內院菴洞口口占
- 〔附〕內院菴洞口口占/夢坡
- 至內院菴
- 〔附〕至內院菴/禹成圭
- 至內院菴
- 〔附〕至內院菴/紀史
- 至內院菴
- 〔附〕至內院菴/櫟南
- 至內院菴
- 〔附〕至內院菴/沙月
- 至內院菴(二首)
- 發內院庵
- 望月寺(二首)
- 天竺寺(二首)
- 道峰日千亭
- 六旬自壽
- 〔附〕六旬自壽/黃鎬瑩
- 病吟

- 附原韻
- 和鎮川李知樞隱於詞伯壽韻
- 附原韻/李知樞
- 文
- 楊州廣巖里俞公翠菴觀稼樓記
- 垢外諸家序
- 海巖遊記
- 〔海巖遊記跋〕/黃鎬瑩
- 遺墨

### 3. 일제강점기 역사 자원

#### [ 12 ] 일제강점기 성북동의 변화

##### 1. 일제강점기 성북동의 행정구역 변동

○ 행정 관할과 동명의 변천

| 시기        | 행정구역 명칭                                               | 계기/사유                       |
|-----------|-------------------------------------------------------|-----------------------------|
| 1895.     | 한성부(漢城府) 동서(東署) 송신방(崇信坊) 동소문외계(東小門外界) 성북동(城北洞)        | 제2차 갑오개혁                    |
| 1911. 4.  | 경기도 경성부 동부 송신면 성북동                                    | 일제, 한성부를 경성부로 바꾸고 경기도에 예속시킴 |
| 1914. 4.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 경성부 축소                      |
| 1936. 4.  | 경성부 성북정(城北町)<br>※ 동부출장소(신설정)에서 관할하다 4월 이후 경성부 본청에서 관할 | 경성부 확장                      |
| 1943. 6.  |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 구제(區制) 실시                   |
| 1944. 11. | 경성부 동대문구 성북정                                          | 동대문구에 편입                    |
| 1946. 10. | 서울특별시자유시 동대문구 성북동                                     | 해방 후, 일본식 동명 변경             |

[표10] 일제강점기 성북동의 행정관할과 동명의 변천

##### 2. 성북동의 인구와 특성 변화

○ 성북동의 인구 증가

- 1910~20년대 궁벽한 곳(산촌)
- 1912년 경 성북동은 궁벽한 곳에 있어 그 동리인민의 생활 정도는 빨래하기와 지신을 삼아 영업하는데 지 나지 아니함으로 백여호 민가가 호구하기에 분주하여 아동의 교육을 돌아볼 여지가 없었음<sup>16)</sup>
- 1915년: 810명<sup>17)</sup>
- 1920년: 805명
- 1925년: 성북리 거주자 소방도구 및 상여 구입을 위해 기연한 주민

김영근 10원, 안덕진 5원, 윤호영 김창옥 각3원, 서상준 정경환 민향호 김일상 정명수 2원, 성주복 1원 50전, 김봉팔 안덕현 이진경 박순만 이윤일 이준환 이창배 최중항 차정환 이흥수 정영근 김동준 각1원, 김창오, 윤진영 황종수 김남산 안덕일 김사영 김수성 무수인 전종환 신호영 전인식 왕희순 정태운 김용 성 김순기 송재현 김학민 ○치준 오흥열 김정환 노희준 신태원 김인엽 김덕명 김덕재 김명운 송주○ 김 ○원 오성원 김평○ 맹호선 김수문 이경수 차희명 김진상 홍경준 이종수 김성옥 홍희운 김철준 홍영섭 송완근 각 50전, 성북구락부원 일동 54원<sup>18)</sup>

- 1930년 이후 신흥주택가
  - 1929년: 조선총독부 관유 산림을 민간에 불하하여 주택지로 활용<sup>19)</sup>
  - 1930년: 1,666명
- 양관과 개량형 한옥이 들어섬

“성북동에 별장이 많다. 그것은 예전날 일이려니와 요새는 없든 집이 들어서고 또 들어선다. 늙은 鬱松 밑에 洋館이 있는가 하면 좌청룡이오 우백호를 서로 應하고 和해서 네 귀를 든 조선식 건물이 있다. 그 뒤로 빠근히 내다뵈는 아담한 모던빌딩이 보인다. 성북동은 이렇게 기를 피우고 있다. 어떤이는 십년뒤 평값까지 구구를 치기도 한다. 집거간이란 새 직업이 마전으로 먹고 사는 이 동리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 다.”<sup>20)</sup>

- 1936년: 신축가옥 사태가 날 만큼 새집이 굉장히 많이 들어섬<sup>21)</sup>
  - 1938년: 호수 1,000호 인구 6,000명의 큰 마을이 됨<sup>22)</sup>
  - 1949년: 13,372명
- 도로의 변화
- 1933년: 10월 성북동과 돈암리 주민의 건의로 동소문(혜화동)에서 돈암리(성신여대앞) 간 버스 운행<sup>23)</sup> (경성전기회사)
  - 1936년: 5월 성북정 하천 개수. 제방을 축조하고 교량도 가설. 도지방비로 충당.<sup>24)</sup>
  - 1937년: 가을 성북동에 수도확장. 1938년 내 완공<sup>25)</sup>
- 성북동 거주자의 사회·문화적 특성
- 지식인촌: “1938년 경 물 맑고 소나무 우거진 경치 좋은 동네로서 주민의 거의 전부가 교원, 문사, 교역자 이렇게 지식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동네. 전문대학 정도의 학력쯤은 거의 전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음악가 채동선, 불전교수 김두현, 소설가 이태준 등 제씨이다.”<sup>26)</sup>
  - 문 인 촌: “오늘까지 벌써 그곳 나가서 집 짓고 영주하는 이에 시인에 김안서(金岸曙), 여류문사에 김일엽(金一葉), 평론가에 김기진(金基鎭), 소설가에 이태준(李泰俊), 평론가에 홍효민(洪曉民), 노논객(老論客) 이종린(李鍾麟) 등의 제씨가 있다.”<sup>27)</sup>

##### 3. 성북동의 명승지와 주요 시설

○ 명승지

- 마전터: 선잠단 앞 성북천 일대
- 살구꽃, 복숭아꽃, 진달래꽃이 피는 봄소풍 장소
- 북둔도화(北屯桃花): 혜화문을 나와 성벽을 끼고 서북쪽으로 2리쯤 서북쪽으로 나오는 곳으로 간송미술관 과 성북초등학교 일대
- 행화만발(杏花滿發): 성북정의 봄의 모습. 살구꽃 만발
- 샌드위치피크닉 장소

“처마 저쪽엔 앵두나무가 몇 그루 있는가 하면 진달래 나무의 꽃매듭과 복사나무의 꽃매듭은 그만 봉우 리가 피려는 듯이 불록불록하고 있다. … 이리하여 성북동엔 꿀벌도 모이고 나비는 날고 노고지리 운작 은 잔디밭 위 상공에서 한껏 울고 노래를 부를 때가 온 것이다. … 그러나 벌써 ‘샌드위치피크닉’이 시작 된다. 일본 여자의 능청거리는 걸음과 그녀 옆에 병정 같은 사나이의 두 볼엔 샌드위치를 미어질 듯이 씹는다.”<sup>28)</sup>

20) 『동아일보』 1930.4.2., 〈성북의 향기3〉.  
21) 『조선중앙일보』 1936.3.10., 2면 1단, 〈4월1일부터 대경성될 신구역 차진순례(이)〉.  
22) 『조선일보』 1938.10.14., 〈경치 좋고 살기 좋은 지식인의 이상촌〉.  
23) 『조선중앙일보』 1933.10.6., 2면 1단, 〈동소문 돈암리간 버스운전 遂實現〉.  
24) 『조선중앙일보』 1936.5.24., 2면 8단.  
25) 『동아일보』 1937.6.5., 2면 1단, 〈경성부수도확장 급추에 착공 예정〉.  
26) 『조선일보』 1938.10.14., 조간 3면. 〈새정회 새기염 순청기, 성북정정회〉.  
27) 『삼천리』 5권 10호, 1933.10.  
28) 『동아일보』 1930.4.2., 〈성북의 향기3〉.

16) 『매일신보』 1912.3.29.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지』 1993, 334쪽.  
18) 『조선일보』 1925.7.15., 〈성북구락부활동〉.  
19) 『중앙일보』 1929.10.26., 3면 11단.

- 고요한 산, 태고의 산

“산이 고요해서 太古와 같아!”란 말은 성북동을 두고 이름이 아닐런지.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저녁밥을 먹으면 산상 와서 이 세상에 돌도없이 가장 친한 벗과 오붓이 밥 사먹는 느낌이 난다. 그 고요함. 그 어둠. 그 바람. 그 정취. … 그믐밤이 되면 절벽과 같이 캄캄하고 그와 반대로 달밤이 되면 塵世가 아니라 는 듯이 皎皎하다. 멀리 개짓는 소리만이 들린다할까. 성북동은 그렇다. … 봄이 행진하면 할수록 성북 동은 천재를 발휘하리라. 자신은 분장한 교태를 자랑하리라. 그리고 한없는 예찬과 끝없는 감탄을 받으리라.<sup>29)</sup>

#### ○ 주요 시설

- 관공서

· 성북동사무소: 별도의 관공서 없이 동부출장소(신설동) 혹은 경성부 본청에서 관할하였으며 1938년 경 총대 이신구의 노력으로 차치기구인 ‘성북정회사무소’를 두고 町의 발전에 기여<sup>30)</sup>

· 경찰관주재소: 1939년 9월 동대문경찰서 산하 성북정경찰관파출소로 준공하였으며 성북정민의 자발적 기부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마련<sup>31)</sup>

- 교육시설

· 삼산학교(三山學校)

◆1907년 (5월 18일) 봉시(奉侍) 황수연(黃壽延)이 삼산의숙(三山義塾) 설립. 근대적인 학교라기보다 서당과 같은 성격을 띠었을 것으로 사료됨<sup>32)</sup>

◆1908년 5월 28일 황수연, 김수영(金洙瑩), 김기택(金基宅) 외 여러 사람의 발기로 삼산의숙 창립.<sup>33)</sup> 근대적인 학교로 삼산의숙이 재창립되었을 것

◆1908년 10월 22일 삼선평에서 추기운동회 개최<sup>34)</sup>

◆1908년 10월 삼산학교 학생 단발<sup>35)</sup>

◆1908년경 손 安壽瑩(김수영?)에게 학감을 맡겼는데 무리하게 학생을 학대한 고로 타인을 연방<sup>36)</sup>

◆1909년 3월 4일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음<sup>37)</sup>,

◆1912년 3월 제1회 졸업식을 거행<sup>38)</sup>

◆1923년 4월 의친왕 이강이 삼산학교에 350원 사금(賜金)<sup>39)</sup>하였고 교실이 협착하여 비상히 곤란 중에 있었는데 시내 북익동에 거주하는 김수영(金洙瑩)이 1,000원, 청년친목회원 일동이 한 사람당 오전씩, 포백회사 매필에 5전씩 기연<sup>40)</sup>

◆1923년 5월 21일 삼선평에서 춘기운동회 개최<sup>41)</sup>

◆1923년 6월 경 학생 190명을 수용하기가 협착하여 유감이던 바 본면장 정규상씨는 1,500원을 대차하여 학교유직에 진력하던 중 3학년생 교실 5칸을 운동장편에 신건축하기 위하여 목하 공사에 분망 중<sup>42)</sup>

◆1923년 10월 21일 삼선평에서 남녀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회 개최하였는데 종목은 순보경주(鵝步競走) 등 50종목<sup>43)</sup>

29) 『동아일보』 1930.4.2., 〈성북의 향기3〉.

30) 『조선일보』 1938.10.14., 조간 3면. 〈새정치 새기업 순청기, 성북정정치〉.

31) 『동아일보』 1939.7.1., 2면 8단, 〈성북정 순사파출소 9월말에 준공〉.

32) 『매일신보』 1916.2.22. 자료상 삼산의숙의 설립일은 ‘1907년 봄’ 혹은 ‘1908년 봄’으로 다르게 나온다. 먼저 1907년 봄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종교학교 제외)」(1910년 10월 말)(『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2 소수)와 「삼산학교 창립 17주년 기념 운동회」(『동아일보』 1924.5.25.)이다.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종교학교 제외)」에서는 삼산의숙이 1907년 설립되어 1909년 3월 4일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삼산학교 창립 17주년 기념 운동회」 기사에 “삼산학교에서 지난 18일(1924년 5월 18일: 필자)에 창립 제17주년 기념식을 마친 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산의숙의 초기 운영진들은 이것이 1907년 5월 18일에 창립된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다음으로 1908년 봄 창립설이다. 『황성신문』 1908.7.18.자 기사에는 “삼산창립. 성북동 김수영씨가 해동 청년자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사립삼산의숙을 창설한 취지가 여좌하니”라고 되어 있다. 『매일신보』 1916.2.22.자 기사에는 “黃壽延이 (중략) 1908年 春 三山義塾을 設立 諸般 經費를 自擔 經營하다.”라고 되어 있다. 『동아일보』 1927.2.5.일자 기사에는 “삼산학교: 송인면 성북동에 있는 용희 2년 5월 28일 지역 유지 金洙榮, 金基宅 외 수씨의 발기로 창립했다는 바”라고 되어 있다.

33) 『동아일보』 1927.2.5.

34) 『황성신문』 1908.10.24., 잡보.

35) 『대한매일신보』 1908.10.7.

36) 기호총학회월보 3, 학계취문.

37)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종교학교 제외)」(1910년 10월 말),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2 교육통계.

38) 『매일신보』 1912.3.29.

39) 『조선일보』 1923.4.6., 석간 3면, 〈삼산학교에 사금, 이강공전하께서, 350원을 하사〉.

40) 『조선일보』 1923.5.6., 석간 3면, 〈삼산학교의 서관, 여러 유지의 동정으로〉.

41) 『조선일보』 1923.10.30., 석간 4면, 〈삼산학교 운동〉.

42) 『조선일보』 1923.6.3., 석간 4면, 〈삼산학교 성황〉.

43) 『조선일보』 1923.10.30., 석간 4면, 〈삼산학교 추계운동〉.

◆1923년 11월 6일 일반부형과 유지 제인의 위안회 개최<sup>44)</sup>

◆1928년 12월 삼산학교 200명 생도 경비가 없어서 난로를 못 피워<sup>45)</sup>

◆1929년 시내 황금정에 사는 이원우씨는 삼산학교의 경비관란을 듣고 과동할 석탄 전부를 기부<sup>46)</sup>

◆1929년 2월 초 5일 삼산학교에서 삼산학교의 아동과 성북소년회원들이 신춘가극회 개최<sup>47)</sup>

◆1931년 2월 삼산학교 보통학교로 승격. 인구가 늘고 학령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보통학교 승격(교장은 김일엽의 남편 하윤실)<sup>48)</sup>

◆1938년 12월 삼산학교 분규 폭발. 교무주임 이상봉(李相鳳)이 빈약한 현재의 예산으로는 자격 있는 학교로 승격 되기가 곤란하니 학교를 경성부에 기부하여 돈암정에 설립되는 대표적 학교로 만들자고 건의하매 12월 4일 동교에서 학부형회를 개최하였는데 갑론을박, 그리고 설립자와 정회측의 의견이 갈리어 결국 설립자와 후원회측의 의견대로 경성부에 기부하지 않기로 결의함<sup>49)</sup>

◆1939년 2월 5일 한시부터 삼산학교에서 국민정신충동원성북정연맹 결성식을 거행<sup>50)</sup>

◆1940년 5월 삼산교에서 시국영화회 개최<sup>51)</sup> 1940년 5월 23일 밤 7시에 삼산학교에서 조선군보도부 주최와 사상보국연맹 국민훈련후원회 후원으로 시국영화회를 개최

· 영명학원(永明學院)

◆1936년 성북동 유지의 발기로 학령초과아동을 위해 신설. 50명의 입학지원자가 있어, 개원식을 하고 직원을 뽑았다. 원장 이의석(李義錫), 이춘길, 유일, 이희철, 김상옥 등을 직원으로 뽑았다. 무보수로 학생들을 교육하였다.<sup>52)</sup>

· 외국어학원

◆1939년: 수은정 111번지에 위치한 외국어학원(1932년 설립)이 학생을 수용하기에 부족하여 성북정 50번지의 땅 1,300평을 매수하여 외국어학원 설립. 길전(吉田)공무소에서 설계<sup>53)</sup>

· 성북유치원

◆1933년 7월 1일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예배당 안에 성북유치원 설립. 교장은 유양호(柳養浩)<sup>54)</sup>

1934년 1월 성북유치원후원회. 이사 李鍾麟, 朴性根, 李信龜. 원감은 張惠子. 후원자 씨명: 금 50원 李珣金季洙, 금 30원 白寅基, 금 5원 南相踐 李基潤 盧子泳 金世沅 金石崇, 금 3원 張○根 文大根 金映遂 金賢準, 금2원 金教胄 成周復 安德奎, 李獻春 金漢俊 金斗憲 蔡東善 河允實 徐丙台 金路俊 鞠奎一 徐長信 李常雨 李相鳳, 금 1원 姜永澤 權寧○ 吉暎羲 金東進 鞠琦烈 崔柄基 朴錦, 金泰龍, 趙中顯, 金聖注, 申學均, 金正默, 李善浩, 李甲得, 安奎文, 徐長山, 安德鎭, 李癸龍, 金東俊, 李雲學, 林昌善, 金成濬, 금 50전 金東赫.<sup>55)</sup>

· 성북야학원

◆1927년 7월 성북소년회에서 야학원 설립

◆성북소년회에서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무산어린이를 위해 야학원을 설립하고 보통학교의 일, 이, 삼, 사학년의 아동을 모집한다고 함<sup>56)</sup>

◆1928년 3월 25일 성북소년회 야학부에서 진급식을 거행하였는데 여자부 우등은 金阿只 외 2인, 남자부 우등은 배의기<sup>57)</sup>

- 종교시설

· 성북동 미륵암<sup>58)</sup>: 1929년 성북동에 존재함

· 성북동교회

44) 『조선일보』 1923.11.19., 〈삼산학교학부형회〉.

45) 『동아일보』 1928.12.13., 7면 2단, 〈교실에 난로 없서 이백생도고경〉.

46) 『조선일보』 1929.1.30., 석간 5면, 〈이원우씨의 미거, 삼산학교에 기부〉.

47) 중의일보 1929.2.14., 3면 7단, 〈삼산교에서 신춘가극회〉.

48) 『동아일보』 1931.2.22.

49) 『조선일보』 1938.12.6., 조간 3면 〈삼산학교 분규폭발〉. 1938.12.12., 석간 2면, 〈삼산학교 문제 원만 해결, 부에 기부안기로 결의〉. 연합회 회의 장면 사진.

50) 『조선일보』 1939.2.5., 석간 2면, 〈성북정연맹 결성식〉.

51) 『동아일보』 1940.5.24., 2면 8단, 〈성북정 삼산교서 시국영화회〉.

52) 『동아일보』 1936.4.12., 2면 8단, 〈학령초과아동위해 영명학교신설〉.

53) 『동아일보』 1939.3.16., 2면 8단., 〈외국어학원의 약진 성북정에 신교사작공〉.

54) 『동아일보』 1933.7.1., 〈성북유치원설립 동민유지가〉.

55) 『동아일보』 1934.1.14., 〈성북유치원 동정금 遷至〉.

56) 『동아일보』 1927.7.6., 〈성북야학원 설립〉.

57) 『중외일보』 1928.3.27., 〈성북 소년 야학부〉.

58) 金道賢, 「술·계집」, 『별건곤』 22, 1929.8, 75쪽.



- ◆1920년대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 모임, 1935년 여자기청학생연합회 모임
- ◆1937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11시 金昌俊 목사가 ‘경제의 성화’로 성북정교회에서 강연
- ◆1940년 성북정에 기독교조선감리회 성북정교회가 설립(존재)<sup>59)</sup>

- 주택과 별장

-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양옥 별장, 성북동 월부주택<sup>60)</sup> 들어서기 시작
- 의친왕(李攭公) 별저: 현 성락원 자리
- 만해 한용운 심우장: 현 위치
- 이태준 수연산방: 현 위치
- 민영찬 별장: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3번지, 1929년 3월 23일 조선남녀학생기독교하령회 개최<sup>61)</sup>
- 구장회 별장: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3번지, 1929년 3월 23일 조선남녀학생기독교하령회 개최<sup>62)</sup>
- 민영환 별장: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13번지
- 이신구 별장: 세송원(洗松園)

- 병원

- 성북동 피병원: 사립피병원기성회에서 1920년이래로 피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의연금을 모집. 5만원이 모금되자 1921년 우선 성북동에 100여평의 벽돌집과 15간의 조선집을 건축하고 보통병실도 증설하기로 함<sup>63)</sup>
- 성북동의 요양원 설치: 1938년 폐결핵병원 설치 → 6천 주민이 반대운동 전개

- 음식점, 요정

- 음벽정(飲碧亭)
  - ◆민충정공 민영환(閔泳煥)의 별장, 성북정 113번지. 정사(亭榭, 정자이면서 무술을 익히던 곳)
  - ◆1906년 4월 22일 흥화학교 학생 음벽정에서 춘기운동회 개최<sup>64)</sup>
  - ◆1907년 4월 30일 음벽정에서 춘기운동회를 개최<sup>65)</sup>
  - ◆1908년 4월 흥화학교 운동회 개최<sup>66)</sup>
  - ◆1909년 9, 22 영친왕 이은 음벽정에서 소창<sup>67)</sup>
  - ◆1915년 7석일에 偶成三句片談<sup>68)</sup>
  - ◆1935년 9월 26일 요정 개업

계곡을 다름질치는 물결! 청청한 수목 바야흐로 가을빛치 깃드려 청지홍사로 수를 노은 佳境! 이런 곳이 서울 장안에서 그다지 멀지 안흔 성북동을 말함이니 문명의 雜沓과 黃塵에 시달이는 우리 도회인에게는 유일한 위안지이며 환락경이올시다.

금반 소생이 생각한 바가 있서 좀더 새로운 포부와 여러분의 기대가 비저내인 형식으로 이 가정에다가 요정을 신설하고 사계권위 있는 요리인을 초빙하여 미각을 자극식히는 이 가을에 마\_\_치맛는 준비가 완비되어 9월 26일부터 개점케 되엿사오니 하로에 피로를 위안식히기 위하여 산책겸래정하시어 유쾌한 하로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소화 10년 9월, 시외 송인면 성북리 13번지. 조선요리 음벽정 백. 전화 광화문 186호.<sup>69)</sup>

- ◆1936년 8월 6일 성북동 주민이 음벽정의 개설 운영에 대하여 진정 제기

- ◆1937년 7월 음벽정 입구에서 자동차 전복. 2명 중상<sup>70)</sup>

- ◆1938년 2월 음벽정에 화재 1동 전소<sup>71)</sup>

59) 『조선총독부관보』 1940.6.19.

60) 「신랑후보자전람회」, 『별건곤』 33, 1930.10, 127쪽.

61) 「조선남녀학생기독교학생회 하령회 준비 및 회장 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1929.3.26.),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자료 6』.

62) 「조선남녀학생기독교학생회 하령회 준비 및 회장 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1929.3.26.),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자료 6』.

63) 『동아일보』 1921.10.1., 3면 9단, 〈민립피병원 건축 착수, 동수문밖 성북동에 방금 병실을 건축중〉.

64) 『황성신문』 1906.4.23., 잡보 〈흥교춘책〉.

65) 『황성신문』 1907.5.2., 잡보 〈흥교운동〉.

66) 『대한매일신보』 1908.4.22., 잡보 〈흥교운동〉.

67) 『대한매일신보』 1909.9.24., 잡보의방통신 〈친왕소창〉. 『황성신문』 1909.10.15., 잡보 〈친왕관풍〉.

68) 『매일신보』 1915.8.22., 〈칠석일 제성북동 음벽정 우성삼구편답〉.

69) 『조선일보』 1935.9.23., 3면, 광고.

70) 『조선일보』 1937.4.27., 석간 2면, 〈음벽정입구에서 자동차 전복〉.

71) 『조선일보』 1938.2.8., 조간 3면, 〈음벽정에 화재 1동 전소〉.

- 기업

- 화성사(華星社, 合名회사): 경성부 성북정 323번지. 1936년 8월 1일 설립. 자본금 50만원. 농사의 경영 및 개량, 토지 가옥의 매매 및 임대차, 전 각 호의 업무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 대표 백인기(白寅基)<sup>72)</sup>

#### 4. 성북동 내의 단체

○ 성북소년회

- 1927년 9월 23일 삼산학교에서 성북소년회 창립<sup>73)</sup>
- 1927년 7월 성북소년회에서 야학원을 설립하여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무산어린이를 위해 보통 학교의 일, 이, 삼, 사학년의 아동을 모집<sup>74)</sup>
- 1928년 3월 25일 성북소년회 야학부에서 진급식을 거행<sup>75)</sup>
- 1928년 5월 초일요일, 수송보통학교에서 경성소년단체, 어린이날 행사 거행시 성북소년회 참가<sup>76)</sup>
- 1929년 4월 27일 경성소년연맹 사무실에서 개최된 경성소년단 대표자 회의 성북소년회 대표 이경재(李慶在) 참가<sup>77)</sup>

○ 성북구락부

- 1923년 창립. 삼산학교 교사였던 서광훈 등이 창립
- 1925년 5월 27일 하오 7시 삼산학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서광훈의 사회 하에 신흥적 강령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선정
- 성북구락부 임원 : 부장 김동근(金東瑾, 삼산학교 교사), 총무 서광훈(삼산학교 교사), 재무 박성근(朴性根) 서기 고덕룡(高德龍), 간사 김윤식(金潤植), 서광진(徐光鎭)<sup>78)</sup>
- 1925년 6월 15일 임시총회에서 리(里)에 소방도구를 구비하고, 연전에 도난당한 상비상여를 구입하기로 결의<sup>79)</sup>
- 1925년 8월 8일 성북구락부원 임용이(林龍伊) 등은 만장일치로 허정숙, 권오설 등이 주도하는 사회주의계 청년단체인 한양청년연맹에 가입<sup>80)</sup>
- 1925 8월 13일 임시총회에서 회장제를 위원제로 변경하고 임원을 선정하였다. 서무부 서광훈 고덕룡, 재무부 박성근 서광진, 지육부 김동근, 체육부 서병태(徐丙泰)<sup>81)</sup>
- 1926년 4월 25일 경성부 견지동 시천교회당에서 개최된 형평사 창립 3주년 기념식에 성북구락부에서 축전 발송

○ 성북정회

- 1936년 4월 성북동이 경성부에 편입되어 성북정이 되면서 성북동의 마을운영 조직이 성북정회로 됨<sup>82)</sup>
- 1936년 6월부터 8월 사이 구장인 이신구 등이 주민진정운동 전개<sup>83)</sup>
- 신규 요정의 허가 취소 요구, 요정 출입의 차량통제 요구, 음벽정 외의 요정 신설 불허하겠다는 답변을 얻음
- 수도부설 촉진 진정운동(이신구, 김창학, 윤병철 등)
- 버스 운행시간 연장 요구
- 전염병원 설치 반대 운동
- 1936년 10월 성북정 184번지 오경환(吳慶煥, 29)은 일본대학 중의 학생인데 부친 오한근(吳漢根)의 뜻을 받들어 성북정회에 200원을 기부<sup>84)</sup>

72)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73) 『조선일보』 1927.6.25., 〈성북소년창립〉.

74) 『동아일보』 1927.7.6., 〈성북야학원 설립〉.

75) 『중외일보』 1928.3.27., 〈성북 소년 야학부〉.

76) 『중외일보』 1928.5.7., 〈성대한 이 날의 의식〉.

77) 「경성소년단 대표자회의에 관한 건」(1929.4.30.),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자료 7』.

78) 『조선일보』 1925.5.30., 〈성북구락부혁신〉.

79) 『조선일보』 1925.6.20., 〈성북구락부총회〉.

80) 『동아일보』 1925.8.12., 〈한양청년연맹에 가입〉. 「청년단체 조직증가에 관한 건」(1925.9.10.),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 1』.

81) 『조선일보』 1925.8.18., 〈성북구락부 회장제를 위원제로〉.

82) 김영미, 「일제시기 도시문제와 지역주민운동 -경성지역 성북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28, 2007, 58쪽.

83) 앞의 책, 59-61쪽.

84) 『조선일보』 1936.10.6., 조간 2면, 〈성북정회에 200원 기부 吳慶煥씨 미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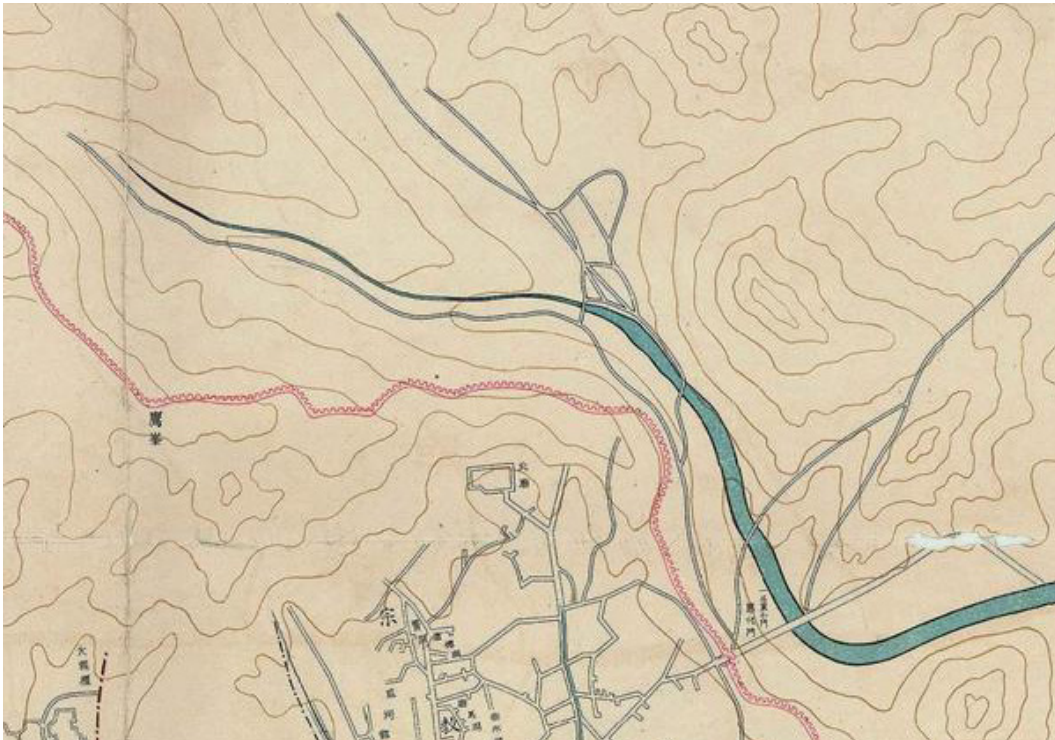
- 1938년 경 10여년간 성북동과 성북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은 정회 사무를 맡아온 현 총대 이신구(李信龜)로 그는 오산과 협성실업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아왔고 정회사무소를 차려놓고 성북정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서 전기도 들어왔고, 버스도 통하였고, 1937년에는 수도마져 들어오는 등 성북정민이 호화로운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함<sup>85)</sup>

○ 문화 관련 단체와 회사

- 진단학회(震檀學會): 학술지『진단학보』의 발행처. 사학자 이병도의 자택
- 청조사(靑鳥社): 『신인문학』 발행, 1935년 6월호, 8월호, 1935년 11월호, 1936년 1월 호<sup>86)</sup>
- 신동방사(新東方社): 1935, 1936년. 잡지 『신동방』 발행
- 공묵재(恭默齋): 성북정 183-17. 채동선 독창곡집 발행

5. 지도와 사진으로 본 시기별 공간변화

○ 1900년대 : 성곽과 도로 등 조선시대의 모습을 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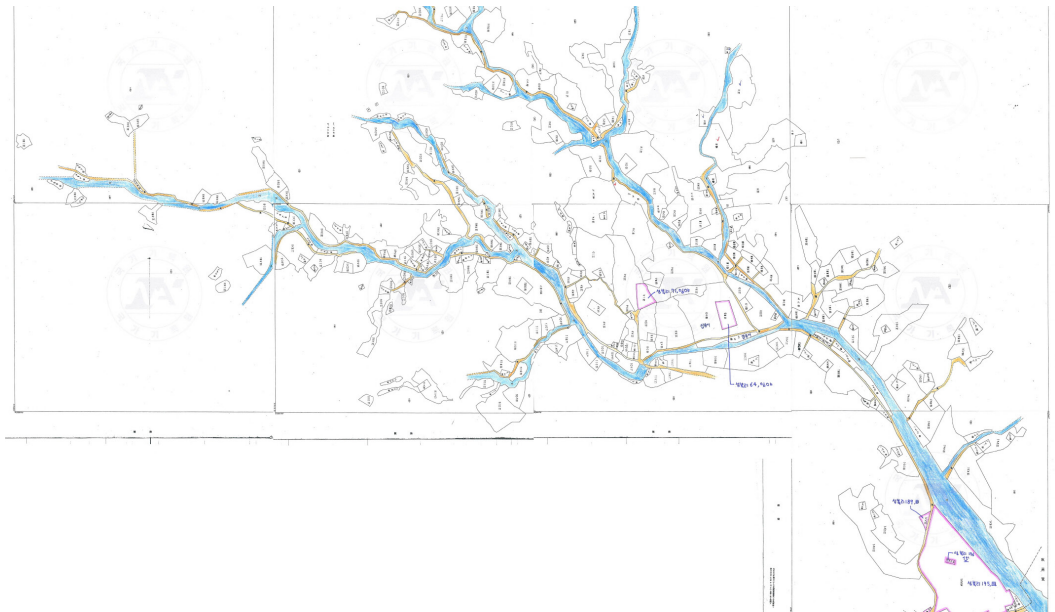
[그림24] 《최신경성전도 最新京城全圖》1907년, 1:10,000, 74.8×52.9cm, 서15439

- 1907년에 일한서방(日韓書房)에서 간행한 1:10,000 지도로 1905년(광무 9) 을사늑약 체결 이후 서울의 모습을 보여줌
  - 한양도성 성곽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며, 동소문을 나와 성곽을 따라 선잠단 앞까지 이르는 도로를 볼 수 있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경관 요소를 그대로 유지
  - 선잠단과 마전터를 중심으로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추정
  - 동소문과 가까운 성북천 주변은 아직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개간되지 않은 산간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
- ※ 1910년경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촬영한 다음 사진과 상통



[그림25] 1910년경 혜화문 일대(성 베네딕토 수도원 촬영)

○ 1910년대 : 허물어진 한양도성, 한층 복잡해진 골목길



[그림26] 《경성부 지적원도》,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 1912.

- 일제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 당시 토지조사부와 함께 제작된 도면으로 지목이 대지, 전답, 임야로 구분되어 있음
  - 1907년에 비해 선잠단과 마전터 위쪽의 주거지역이 다소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고 여전히 성북천 하류 양안으로는 주택이 적고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붉은 색으로 두른 토지는 성북동에 딸려 있던 국유지로 민간에 미불하된 상태
  - 한일강제병합으로 관리 주체가 없어진 방치된 성벽의 붕괴 및 훼손 가속화 → 성문 외 지역에서 성벽 양측 왕래 가능
- 1920년대 : 교통수단의 다양화, 인근 지역에 고등교육기관 설립
- 혜화문 북쪽, 성곽 터진 곳에 혜화동과 왕래하는 큰길 개통
  - 인력거, 자전거, 자동차 등으로 왕래 가능, 도심과의 이동 시간 단축
  - 인근 명륜동, 혜화동, 동숭동 지역에 고등교육기관 설립 또는 이전
- ※ 공업전습소가 경성고등공업학교로 승격(1916, 동숭동), 중앙불전(1922, 명륜동), 경성제국대학(1926, 동숭동), 보성고보(1929, 혜화동), 동성상업학교(1929, 혜화동)

85) 『조선일보』 1938.10.14., 조간 3면. <새정회 새기업 순청기, 성북정정회>.  
86) 동아일보 1928.6.7.,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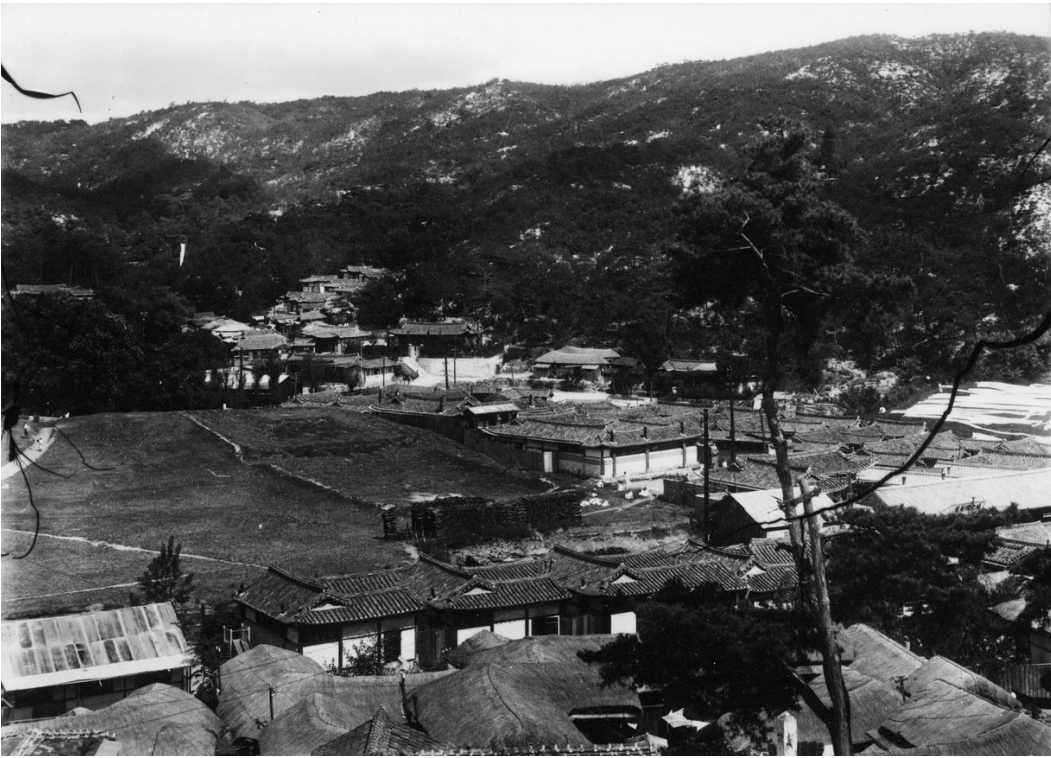


○ 1930년대 : '학교촌'의 배후 주택지 겸 '대경성' 후보지



[그림27] 《지번구획입)대경성정도》, 경성부, 1936.

- 교통로의 확대
  - 1939년 해화문 석축 완전 철거
  - 버스 노선 신설 : 경성부내 ~ 돈암동간(일 2회)
  - 전차 선로 완공 : 을지로 ~ 돈암동네거리(1941) → 출퇴근 인구 대거 유입, 이동 시간 대폭 단축
- 행락공간의 확대
  - 성북포도원~미륵암~청룡암 간 산책로(청춘남녀들의 데이트 장소)
  - 고급음식점[料亭] '음벽정' 등 개업
  - 이강공별저, 음벽정 주변 별장 지대 형성
- 택지조성사업 실시
  -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성북동 지역 포함(근대적 택지조성사업으로 대경성계획의 일환)
  - 현 성북동 1가(옛 운수교 남동쪽) 지역 바둑판식 골목 구조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짐
- 풍치지구 지정
  - 1941년 풍치지구 고시(성북동 자연경관 보존)



[그림28] 1930년대 선잠단지 주변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 일제강점기에도 변하지 않은 성북동의 경관요소

1. 성북동 가로지르는 성북천과 마을을 둘러싼 산림(풍치지구 지정)
2. 전차나 버스가 삼선교를 거쳐가므로 성북동 내의 주요 교통수단은 '도보'가 유일
3. 마전터는 그대로 유지되며 주변에 전문 세탁, 표백 공장이 생기며 평창동, 삼청동 지역의 세탁업자와 조합 결성으로까지 나아감 → 마을 자치 활동, 삼산학교, 성북유치원의 설립 재원



## [ 13 ] 성북동의 독립운동가들

### 1.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전개

-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전개
  - 일제의 이른바 ‘문화통치’로 독립운동의 합법적 활동공간 확대
  - 민립대학설립운동, 국산품애용운동, 문맹퇴치운동, 농촌계몽운동 등 실력양성운동 전개
- 의열단 투쟁 활발
  - 국내에서 일제·매국노에 대한 암살·파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
  -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전개
  - 조선공산당 조직(1925)
  - 6.10만세운동(1926)
  - 민족주의 세력과 갈등과 대립 초래
- 신간회, 근우회 조직
  -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통일전선제

### 2. 독립운동가들의 근거지, 성북동

- 시골의 경관을 띠고 있으면서도 경성부내와 통신이 비교적 편리
  - 독립운동가들의 은거, 피신 용이(의열단)
- 삼산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 자치조직 운영
  - 기존 마을 조직이나 학교를 기반으로 계몽, 사회운동 전개(서광훈)
- 인접 혜화동, 동숭동에 형성된 ‘학교촌’의 배후지 역할
  - 학생들끼리의 비밀 모임 장소 제공 가능성

### 3. 민족주의 계열

- 의병운동
  - 황윤명(황수연)
    - 일제의 정보문서에 의하면, 1908년 10월 20일 오전 의병 약 20명이 성북동의 황윤명(황수연) 집에 출몰하여 총기의 제공을 강박하고, 그 손자 김수영(36세) 외 가복 2인을 납거
    - 이것은 실제로는 황윤명이 의병활동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황윤명은 삼산학교 설립자 황수연과 동일인물
- 3·1만세운동
  - 1919년 3월 24일, 성북리에서 약 60명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
  - 근거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7 (국사편찬위원회)
- 박홍식(朴弘植)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5번지 (구두 직공)
  - 1919년 3월 23일 밤 종로5정목에서 150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9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구류 30일 통산)을 받음.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21일 출옥.
- 김수룡(金壽龍)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5-8 (중앙학교 학생)
  - 1919년 중앙학교 재학 중 현상윤의 권고로 독립선언서를 배부할 책임을 맡아 파고다에서 단성사까지의 연 도의 일반인 및 상인에게 선언서를 배포함. 1919년 3월 5일 태극기를 제작하여 제2차 시위운동을 전개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 의열단

- 1924년 의열단의 통신기관이 동소문 밖 성북동에 위치
- 기독교청년회회원 박봉래(朴鳳來), 유정택(柳正澤) 활동
  - ※ 근거 :『시대일보』 1924.5.4., 〈성북동에 둔 의열단 근거〉
- 오세덕(吳世惠)
  - 1897년 안암동 127번지 출생(거주)
  - 1922년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주비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독립운동 선상에 불화가 일어나자, 오세덕은 노령(露嶺)으로 가서 문창범·오창환과 같이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하는 데 협조
  - 1923년 한성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의열단(義烈團)에서 파견된 구여순(具汝淳)의 방문을 받고 군자금 모집에 협조할 것을 약속, 오세덕은 한성은행 각 지점에서 본점으로 연달 송금이 있음을 알고 이를 습격하여 탈취할 계획을 세웠으나, 구여순이 사전에 체포되어 이러한 사실이 탄로됨으로써 그도 일본 경찰에게 체포
  - 1923년 2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름
  - 1980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 ○ 형평사 운동 / 고려혁명당

- 서광훈(徐光勳)
  - 성북소년회, 형평사 운동, 고려혁명당 활동
  - 1903년 10월 17일생
  - 고양군 송인면 성북동 173번지
  - 1922년 성북리 삼산학교 교사로 활동
  - 1924년 형평사 서기, 1926년 형평사 집행위원에 선정되어 활동하는 한편 한양청년연맹 집행위원, 正衛團 총무로 활동
  - 1927년 1월 19일 고려혁명당사건으로 체포, 1928년 무죄로 석방
  - 1932년 형평사 내에서 『농민』이란 잡지를 발간
  - 1933년 형평사 내에 공산주의적 전위동맹을 설립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년간 신문을 받으면서 옥고를 치렀으나 1936년 무죄로 석방

#### ○ 대한민국 임시정부 / 광복군

- 최용덕(崔用德)
  - 1898년 성북동 출생
  -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중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 중국군 입대
  - 1920년 중국공군군관학교에서 수학, 졸업 후 공군군관학교 교관, 수상비행대장, 공군지휘부 참모장, 공군기 지사령관 등을 지냄
  - 1922년 김원봉(金元鳳)이 조직한 의열단(義烈團)에 참여, 조선무산자동지회장 김한(金翰)과 만나 폭탄 운반 및 투척 계획을 협의하는 등 상하이[上海]·톈진[天津]·베이징[北京]·안둥[安東] 등지에서 의열활동을 지원
  - 1932년 조선혁명당과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에 참여
  - 194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 항공건설위원회 주임,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참모처장·사령관 역임
  - 같은 해 8월, 대일독립전쟁에 한국인 비행사를 참전시키기 위해 공군설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군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
  - 1948년 대한민국 초대 국방부차관
  - 1950년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거쳐 공군후방사령관·항공기지사령관·공군본부작전참모부장·공군참모총장 등을 역임
  -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 민족주의 학생운동

- 조병호(趙秉浩)
  -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조시위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60번지(휘문고보 5학년)
- 김성룡(金聖龍)
  - 낙서사건
  - 경성부 성북정 176-4번지 배성룡(裴成龍)방 (경성전기학교 2학년)
- 박노태(朴魯胎)
  - 1944년 2월 상순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189번지 1호 피고인의 기속사 선배 권정숙 방에서 휘문중학교 학생들에게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 가능성을 지도계몽하다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형
  - 종로구 성북정 189-2
- 이완기(李完基)
  - 이완기는 1940년 7월 초순 경성부 성북정 133번지에서 동숙 중이던 손용우에 대하여 말하기를 “조선인은 조선을 잊지 말고 학업중에는 학우를 지도하고, 졸업 후에는 농촌청년을 지도하여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 고 아 민족의 행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동인의 동의를 구함
  - 1940년 10월 경 중등학교와 문화학원 학생의 민족의식 고취 사건으로 체포
  - 가혹한 신문과 조사를 받던 이완기는 1942년 5월 23일 사망
  - 경성부 성북정 133번지-60 (중등학교 생도)
- 손용우(孫龍祐)
  - 1940년 9월 초순 문화학원 중등과 1학년(갑조) 교실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동료 학생들에게 일본패전을 기회로 조선독립을 목표로 매진하자고 협의
  - 성북정 133번지-60호 (문화학원 중등과 1학년)

○ 기타 민족주의 항일운동

- 성봉진(成奉眞)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 1928년 서울에서 경성출판노동조합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조사 중 장티푸스가 발병하여 성북동 순화원에서 치료중 순국
  - 2008년 건국포장 추서
- 이근창(李根昌)
  - 경성부 성북정 177-25번지
  - 조선방송협회 사업부 보수과 기술원. 1942~43년 수신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송된 조선어 방송 등을 듣고 전시상황 등을 유포함.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고 옥고 중 1944년 1월 21일 옥중에서 사망
  -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이종린(李鍾麟)
  -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75번지
  - 1919년 3·1운동 후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3년간 투옥
  - 1923년 조선물산장려회 창립위원, 1929년 조선물산장려회 이사장, 1927년 신간회 참여, 1930년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신간회경성지회위원장, 1944년 천도교 교령, 1948년 제헌국회의원,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1950년 남북 중 사망
  -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인명사전 등재)

○ 만해 한용운

- 생애
  -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 출생
  - 1905년 인제의 백담사에 가서 연곡(漣谷)을 스승으로 승려가 되고 만화(萬化)에게서 법을 받음
  -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
  - 1927년 신간회(新幹會) 중앙집행위원이 되어 경성지회장 역임
  -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청년동맹으로 개칭,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이해 월간지 『불교』를 인수
  - 1937년 불교관계 항일단체인 만당사건(卍黨事件)의 배후자로 검거
  - 1944년 6월 29일 성북동 심우장에서 입적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 만해 한용운 심우장(서울시 기념물 제7호)
- 1933년, 김벽산(金碧山)이 초당을 지으려고 사둔 땅을 기증받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 사장 등 몇몇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 건립
  - 조선총독부가 위치하던 남쪽을 등진 곳을 택하여 북향의 집을 짓고 심우장(尋牛莊)이라고 편액
  - 한용운은 만해(萬海)라는 호(號) 외에 필명으로 오세인(五歲人), 성북학인(城北學人), 목부(牧夫), 실우(失牛) 등의 이름을 가끔 썼는데 목부란 ‘소를 키운다’는 뜻으로, 곧 내 마음 속의 소를 키우는 왕생의 길을 멈출 수 없음을 나타냄
  - 심우장이란 불교의 무상대도(無常大道)를 깨우치기 위해 공부하는 집, 공부하는 인생을 의미 (한용운, 〈심우장설〉 참고)

한용운, 「심우장설」(1937. 6.)

필자는 성북동의 일우(一隅)에 소거(所居)를 복(卜)하고 심우장(尋牛莊)이라 명명하였다. 심우(尋牛)라는 뜻은 일반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어서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심우장」이라는 문패를 보고서 “심우장? 심우장? 아마 이것이 목장인가 보다”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도 그다지 괴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소(牛)는 비유로서 불교 중에 많이 쓰이는 것이거니와, 그 유래를 간단히 들자면 … (이하 생략)

○ 대동단의 의친왕 망명 시도 사건

- 대동단(大同團)
  - ‘조선민족대동단’이라고도 하며 전 일진회 회원이었던 전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전 민족의 대동단결을 표방하며 1919년 3월말 서울에서 결성한 독립운동단체
  - 제2의 독립만세시위를 목적으로 사회각층의 인사들을 포섭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김가진(金嘉鎭)을 총재로 추대함.
  - 본부를 상하이[上海]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제 1단계로 1919년 10월 10일 총재 김가진의 상하이 망명을 단행함.
  - 제2단계로 11월 10일 의친왕 이강을 포섭하여 상하이 망명을 추진하였으나 일경에 발각되어 의친왕 일행이 체포됨으로써 많은 지도부 이하 많은 단원이 투옥되고 조직이 해산 지경에 이름.
  - 1920년 3월 상하이에서 김가진·나창현 등이 대동단본부를 재건하여 무장투쟁으로의 전환을 표명해 선전활동을 펴기도 했으나, 이후 큰 활동은 없었음.
- 의친왕 망명 시도 사건
  - 대동단 총재 김가진은 의친왕 이강과 사돈 관계로 상해임시정부 특파원 이종욱으로 하여금 의친왕의 서울 탈출을 위한 공작을 추진케 함.
  - 1919년 11월 10일 의친왕 등 5명의 일행이 변장을 하고 수색역에서 안동행 열차 탑승했으나 신의주를 출발하여 안동역에 도착할 무렵 일경에 적발되어 체포됨.
  - 이 사건으로 대동단 조직이 일망타진되었으며 이후 의친왕은 일제에 의하여 성북동 별장에서 유배 생활을 함.
  - 의친왕이 상해임시정부에 보낸 편지가 『민국일보』 1919년 12월 4일자에 ‘한국 태자의 일본에 대한 반감’이란 제목으로 게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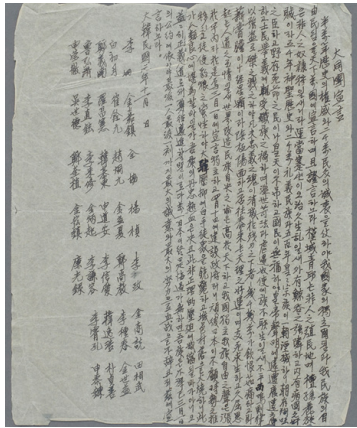
- 이 편지에서 의친왕은 “나는 차라리 자유 한국의 한 백성이 될지언정 일본 정부의 한 친왕(親王)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인들에게 표시하고, 아울러 한국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몸바치기를 원한다”며 자신의 심경을 고백함.



[그림29] 의친왕 이강(1877~1955)



[그림30] 의친왕의 탈출 시도 경로



[그림31] 대동단 선언서(1919.11.28)

○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의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

- 이길용(李吉用, 1899~1950)

- 경남 마산 출생(호 : 波荷, 月江)
- 성북동 56번지 거주
- 1916년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지사대학(同志社大學)에서 공부하였으나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1918년에 귀국함.
- 귀국 후 철도국에서 근무하던 중 1919년 3·1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의 기밀문서를 철도편으로 운송하는 책임을 맡아 활동하다 발각되어 3년간 복역함.
- 출감 후 동아일보 사장이던 송진우의 권고로 동아일보 체육기자로 활약
- 192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전조선여자장구대회를 전담, 주관
- 1932년 『신동아』에 「여자장구 10년사」를 연재
- 1936년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투옥
- 성북동 거주 시절 이태준, 전형필, 한용운 등과 교류
- 광복 후 조선체육동지회 결성에 참여, 조선체육회(현 대한체육회)를 부활시키는 데 공헌
- 6·25전쟁 때 납북되어 사망
-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으며, 1989년 한국체육기자연맹에서는 이길용체육기자상을 제정, 매년 수여함.

-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1936)

- 193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의 지방판 조간 2면 및 조선중앙일보의 4면, 다시 동아일보의 8월 25일자 2면에 1936년 하계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우승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장기를 삭제한 사건
- 『동아일보』는 다시 8월 25일자에 손기정의 사진을 실으면서 일장기를 지우자 조선총독부 당국이 문제 삼음.
-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최장기 무기정간(279일간)을 당했고 이 신문사가 발행하던 잡지들도 모두 발행 정지되었음.
- 사건의 핵심이었던 동아일보 체육담당기자 이길용과 사회부장 현진건, 『신동아』 편집부장 최승만, 사진 과장 신낙균과 사진부의 유영호 등 5명이 구속됨.



-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언론탄압이 심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선 기자들의 잠재되어 있던 항일의지가 표출된 중요한 사건임.

[그림32] 193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좌)의 지방판 조간 2면 기사와 『조선중앙일보』(우) 4면 기사

4. 사회주의 계열

○ 조선공산당

- 배성룡(裴成龍)

- 성북정 176-4번지
- 1924년 화요회, 1926년 제2차 조선공산당 참여
- 1928년 체포되어 징역 1년 복역
- 해방 후 1월 이극로 권오익과 통일정권촉성회를 결성하여 비상국민회의와 민전의 통합을 위해 활동
- 1946년 7월 좌우합작촉진회 결성
- 1947년 김규식과 민족자주연맹 활동
- 1948년 김구의 남북협상지지

- 문석준(文錫俊)

- 성북정 195-23
- 1928년 초 일본에서 귀국하여 경성사립보성고등보통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신간회 경성지회에 소속되어 민족의 권익을 신장하고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 1931년 8월 경 김찬(金燦) 등의 조선공산당 재건사건 관련으로 체포되어 이후 약 2년 간 복역
- 1933년 2월부터 1937년 7월까지 조선일보사 영업국장으로 활동
- 1944년 1월 22일 오전 5시 경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에서 협심·각기의 증세로 사망

- 정태식(鄭泰植)

- 성북정 184-32
- 1929년 4월 경성제국대학 입학
- 1933년 4월 독서회를 조직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였고 용곡여학교에 독서회를 조직
- 1934년 5월 적색노동자그룹, 공산주의자그룹 결성에 참여하여 식료품부 책임자, 공청부 책임자로 선정되어 활동
- 1934년 5월 체포되어 1936년 11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미결구류 180 일 산입)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 1940년 12월 5일 출옥 후 경성콤그룹에 참여하여 인민전선부에 소속



- 1945년 9월 조선인민공화국 경제부원, 1946년 2월 민전 중앙위원, 1946년 11월 남노동 중앙위원·조사부장 등으로 활동
  - 1950년 4월 체포되어 5월 육군본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한국전쟁 때 풀려나 서울에서 『해방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북한에서 농림성 기획처 부처장을 지냄. 그후 남로당 숙청 당시 숙청 당함.
  - 박용선(朴容善)
    - 성북정 175-8
    - 1931년 10월 조선공산당재건공작사건으로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 성북리 세탁노동자 20명
    - 1922년 3월 17일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세탁노동자 20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 인상 요구 관철
  - 안복산(安福山)
    - 송인면 성북리 170-5(洗布業)
    - 1931년 2월부터 『조선일보』 급사로 근무
    - 1931년 5월 권우성(權又成) 등과 독서회를 조직한 후 동년 6월 이를 적우회로 변경
    - 1931년 7월 노동반(적색출판노동조합) 책임
    - 1931년 9월 만주사변 발발 후 반전격문과 적우회 기관지 『적우』를 발간한 후 배포하려다가 체포되어 1932년 징역 2년 6월 선고받음
    - 출옥 후 과 함께 적색노동조합 조직에 참여하였다가 1935년 5월 경 메이데이 시위를 앞두고 일경에 체포
  - 장동옥(張同玉)
    - 성북동 191번지
    - 김한(金翰)과 무산자동맹회 활동
  - 현학손(玄學孫)
    - 성북정 185-2(양복 직공)
    - 1934년 5월 상순부터 1936년 8월까지 가등양복점(加藤洋服店) 등에서 일을 하던 중 양복직공 윤재호(尹載鎬), 윤봉재(尹鳳載), 김봉수(金鳳洙) 등에 대하여 공산주의를 선전하였고, 유인술·유창여(柳昌興)·박기복(朴基福)과 1937년 3월까지 좌익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 전개
    - 1937년 9월 하순 경 경성에서 유창여와 만나 “지나사변에 의하여 용공국 대 반공국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혹은 세계대전으로 진전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던지 장기전으로 될 것은 명확하니 결국은 전비가 높아지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여 패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사변에 관하여 이른바 ‘조언비어(造言飛語)’를 유포. 이 사건으로 체포된 현학손은 1939년 3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육군형법 해군형
    - 법 위반으로 징역 1월(미결구류 90일 산입)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39년 10월 8일 출옥
  - 최차옥(崔次玉)
    -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88(실천여학교 생도)
    - 1930년 7월 포홀(飽迄)교장의 행위를 비난하며 동맹휴교를 전개하였다가 체포
    - 1932년 3월 흥원농민조합사건으로 체포
    - 1934년 권영태(權榮台) 등이 주도한 프로핀테른 태평양노동조합 서기국의 선내공작사건에 관련하여 검거
- 사회주의 학생운동
- 국순만(鞠淳萬)
    -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83-10
    - 1930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서에 수감
  - 김하경(金河景)
    -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60-49

- 1936년 4월 1일 경성제국대학 예과(豫科) 이과(理科)에 합격
  - 1944년 9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법인 장넉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음. 상고하였으나 1945년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 방용모(方容模)
    - 종로구 성북정 195-28
    - 1939년 4월 경성고등공업학교 응용화학과에 입학
    - 1939년 어느 저녁 무렵 경성부 명륜정 하숙에서 고등보통학교 시대의 동급생인 金川相俊, 牙山軫榮(모두 창씨명)과 회합하였을 때, 牙山軫榮으로부터 유물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공산주의에 공명함
    - 1940년 10월 경 앞서 1939년 경 牙山軫榮의 소개로 알게 된 공산주의운동가 이종갑(경성콤그룹)에게 설유되어 경성부 양주군 도봉산에 올랐을 즈음 동인에게서 경성고등공업학교내의 정세를 조사한 후, 공산주의는 이론 에서 실천의 시기라는 취지의 교양을 받음
    - 1941년 4월 7일 경 학교의 봄방학 때 성북정의 성벽에서 이종갑과 회견하고 동인에게 귀성중의 농촌상황에 대 해서, 전사(田畝)에서는 군면당국에서 세금부과 등을 취하여 빈핍한 생활을 하고 있고 농민에게는 하나도 향상 이 없다는 취지를 보고
    - 1941년 7월 초순 경성부 명륜정 3정목 방용모의 하숙에서 동년 6월부터 친교가 있던 경성고등공업학교 생도인 조동준이 내방하자 동인과 함께 성북정의 산속으로 산보해 가면서 동인에게 독소전은 소련의 승리로 귀결되었 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제 사회과학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하는 데는 동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함.
    - 1941년 7월 16일 오후 8시 경 버스정류장에서 목산과 회견하고 그 부근의 동성상업학교의 내산에서 동인으로 부터 지금은 이론에서 실천의 시대라면 동지 획득에 노력하려고 도모하여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 동지 획득의 책임자로 활동하라는 권유를 승낙함
    - 1941년 7월 23일 오후 8시 동소문버스정류장에서 회견하겠다는 취지로 합의 → 체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 이성학(李成學)
    - 1935년 8월 성북동에서 경성제대 중심의 반제동맹에 간여
- 기타 사회주의 항일운동
- 김복진(金復鎭) · 김기진(金基鎭) 형제
    - 성북동 175번지
    - 1934년 12월 13일 새벽 김복진, 김기진 외 수 명을 신건설사 사건으로 검거
  - 노현중(盧鉉重)
    - 성북 177번지 25호 松山高吉방(조선방송협회 사업부 보수과 기술원)
    - 1942년 11월 중순 경 조선방송협회 사업부 보수과에서 동파에 보관중인 경성정유사 소유 전파수신기로 山田國男, 高山得濟, 洪瑾鎬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일본어로써 방송된 내용을 청취하고 일본이 패전할 것을 선전
  - 박원장(朴源璋)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83번지
    - 1931년 6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용산서에 수감
  - 유진희(兪鎭熙)
    - 해방 전 성북정에서 병원 경영
    - 1923년 신생활사 사건으로 복역.
    - 『조선지광』, 『신계단』 주관

5.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자

- 문석준(文錫俊, 1894~1944)
  - 공훈
    - 1928년 초 일본에서 귀국하여 보성고보 교사로 활동하면서 신간회 경성지회에 소속되어 민족의 권익을 신 장하고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활동 전개
    - 1931년 8월 경 김찬(金燦) 등의 조선공산당 재건사건 관련으로 체포되어 이후 약 2년 간 복역
- 이완기(李完基, 1922~1942)
  - 공훈
    - 1940년 10월 경 중등학교와 문화학원 학생의 민족의식 고취 사건으로 체포
    - 가혹한 신문과 조사를 받던 이완기는 1942년 5월 23일 사망
- 박노태(朴魯胎, 1915~미상)
  - 공훈
    -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으로 1943년 일본의 전시상황과 연해주 등지의 독립군의 활동 상황을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
- 박홍식(朴弘植, 1902~미상)
  - 공훈
    - 1919년 3월 23일 밤 종로5가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여 징역 6월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 정진숙(鄭鎭肅, 1910~미상)
  - 공훈
    - 전시 상황을 전파하다 1945년 육해군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8월형을 받고 수감

6. 일제강점기 성북동에서의 조언비어(造言蜚語)

1940년대 초 성북동은 경성제국대학, 보성전문, 중등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 및 교사, 방송사 직원 등이 거주하는 청년 지식인과 민족 지도자의 거주지였다. 이곳에서 이들은 독립운동의 방략을 모색하고, 조국 해방의 길을 찾고자 하였다.

청년 지식인과 화이트칼라의 민족 지도자들은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송출된 단파방송을 듣고 전쟁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이들은 성북동과 삼청동의 은밀한 곳 등지에서 전쟁 상황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민족의 진로와 독립의 방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완기(李完基, 石村完基)는 1940년 경 18세로, 본적이 경성부 수송정 83번지-6호, 주소가 경성부 성북정 133번지-60호인 중등학교 학생이었다. 이완기는 1940년 7월 초순 경성부 성북정 133번지 전태현(全泰賢)의 집에서 동숙 중이던 손룡우에 대하여 “조선인은 조선을 잊지 말고 학업 중에는 학우를 지도하고, 졸업 후에는 농촌청년을 지도하여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민족의 행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 1940년 7월 중순 성북정 133번지 동소에서 전태현과 손룡우에게 “금차 구주대전은 독일의 승리로 귀결됨이 명확하여 독일은 구주통일 후 세력을 동양에 연장하고 일본과 충돌하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은 지나사변으로 경제가 피폐하였기 때문에 독일에 저항하지 못하고 패전할 것이므로 금후 그 기회를 잃지 말도록 준비하여 둬야 요망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두 사람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1940년 9월, 교실에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4학년 갑조생 대부분의 학생에게 “장개석이 일본에 대하여 화평조건을 제출하였는데, 이 화평조항 중 조선독립을 인정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기에 조선독립은 지나사변을 계기로 실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이완기는 손룡우를 민족적으로 지도하여 “사립 학교 생도는 자못 조선혼을 망각하지 말라.”고 설유하였다. 또 그는 1940년 9월 중순 경 중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일한병합에 탄식하고 “조선이 독립되어 있다면 조국을 위한 원정에 용감히 도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는 일본의 식민지이므로 일본병을 지원하여 일본을 위하여 희생하고 전쟁을 행하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며 지원병제도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지원병을 보낼 즈음에도 조선혼을 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민족적으로 격려하고, 지나사변은 인구의 다과, 식량문제, 외국협조문제 등에 의해 결과는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고 조언비어(造言蜚語)를 하였다. 이 결과 1940년 9월 17일 중등학교생이 휘문중학교 교정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즈음 고의로 결석한 사람이 다수였고, 올해 여름 중등학교에서 군사강연할 때 지원병 희망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1940년 10월 경 ‘중등학교와 문화학원 학생의 민족의식 고취 사건’으로 체포되어 가혹한 신문과 조사를 받다가 1942년 5월 23일 사망하였다.

문석준(文錫俊)은 본적이 함남 함주군 삼평면 원상리 259번지이었으나 성북정 195-23번지에 거주하였다. 그는 경성고등보통학교(현재의 경기고등학교) 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함경남도에서 보통학교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1923년 8월 4일 오후 8시 함흥천도교구에서 열린 일본유학생강연회에서 「이상과 실현의 모순」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1924년 4월부터 1928년 3월까지 동경 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이 즈음 그는 일본에서 학우회, 재일조선교육연구회 등에 소속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8년 초 귀국하여 경성사립보성고등보통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그는 신간회 경성지회에 소속되어 민족의 권익을 신장하고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33년 2월부터 1937년 7월까지 조선일보사 영업국장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광산 등을 경영하였다.

그는 1943년 4월 중순 경부터 동월 말일까지 함흥에서 친구들에게 “미국으로부터의 방송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이승만 등이 미국정부의 원조 하에 조선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이승만이 그 대통령이 되어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금차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때에는 반드시 조선독립은 실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선 조선동포는 그 준비를 하여야 한다. 금차 전쟁이 이 같이 장기화됨에 미쳐서는 물질이 풍부한 미국의 승리는 필연이다. 그 때에 조선독립은 실현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소위 “육해군사에 관한 조언비어를 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육군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받았다. 그 후 상고 중 1944년 1월 22일

오전 5시 경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에서 협심·각기의 증세로 사망하였다.

노현중은 1920년 9월 29일 생으로 본적이 충남 천안을 남산정 139번지, 주거가 서울 성북 177번지 25호였다. 그는 23살 때인 1942년 조선방송협회 사업부 보수와 기술원이었다. 그는 1942년 11월 중순 경 조선방송협회 사업부 보수과에서 동파에 보관중인 경성정유사 소유 전파수신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전파된 일본어와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였다. 그 내용은 “솔로몬군도 방면에서 미국군이 대승하여 일본군은 패퇴되었다는 선전”, “서태평양 솔로몬군도의 가다카날섬에서 일본군은 전멸되었고, 미영 연합군은 반격해 온 일본군함을 격퇴하여 일본군을 완전히 제압하였다.”는 내용과 “연합국은 모두 대국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진보된 과학의 힘과 우수한 기술에 의하여 선함, 비행기, 기타 우수한 병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음은 물론 총후국민의 생활도 자못 유복한 반면 일독이의 추축국은 선함 기타의 병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일선 장병의 식량도 궁핍한 상태이므로 장기전이 되어서는 최후의 승리는 영미연합국 측이다. 조선동포는 그에 협력하여 일본군을 격멸하여 조선독립을 단행하고, 일한합병 30년의 쌓인 원한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는 충칭(重慶)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송출한 일본어 방송에서 “일본군항공병은 대륙적 고등비행에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량이 열악하지만 연합국 측의 항공병은 대륙의 고등비행에 경험이 있어서 자못 우세하다.”는 선전 등을 청취하였다.

이후 노현중은 1943년 2월 하순 경 경성부 삼청정 65번지 신촌민수(新村旻洙)의 집에서 동인 및 두 명과 함께 음주하면서 동인들에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임시정부에서 조선어로써 방송된 내용에 의하면 “금차 대동아전쟁은 서전에서는 미영연합군에 대하여 일본군이 우세한 것 같이 보였지만 일본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차차 전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에 반하여 미영연합국은 대국으로 경제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되면 최후의 승리는 미영연합 측에 있다. 미영연합국이 승리하면 조선은 당연히 독립국으로 될 것이다.”라고 선전하였다. 이렇게 소위 조연비어를 한 혐의로 체포된 그는 수년의 옥고를 치렀다.

## [ 14 ] 주민자치 운동

### 1. 1920년대 성북구락부(城北俱樂部)의 활동

- 1923년 창립 후 192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 시작
  - 1925년 7월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부장 및 임원진 선출

· 성북구락부 임원 (1925. 7)  
부장 : 김동근(金東瑾), 총무 : 서광훈(徐光勳), 재무 : 박성근(朴性根)  
서기 : 고덕룡(高德龍), 간사 : 김윤식(金潤植)

※ 1925년 구락부의 활동에서는 총무 서광훈의 역할이 컸음.

- 1925년 8월 8일 총회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조직인 한양청년동맹 가입 결의
- 마을 공공사업의 추진
  - 마을 공용 소방구 구입
  - 도난 당한 상비상여(常備喪輿) 재구입
  - 운동구 및 ‘팜프레트’ 구비
  - 여름철 밤늦게 물놀이를 하거나 술에 취한 피서객을 단속
  - 성북리 거주 유지로부터 의연금 모집
- 교육운동의 전개
  - 삼산학교의 유지를 위한 자금 모집
  - 성북소년회 창립(1927. 6. 23)
    - 경성소년연맹 가입
    - 혜화문 주변 지역 소년단체나 관련 행사를 주관
  - 성북야학원 설립(1927. 7)
    -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무산 어린이를 위한 교육 시설
    - 성북구락부 총무 서광훈의 어머니 김아지(金阿只)도 재학 → 일반 주민에게 교육 기회 제공

### 2. 1930년대 성북정회(城北町會)의 활동

- 메이지대학 출신 인텔리 이신구(李信龜), 1930년대 성북동 지역사회운동 주도
  - 성북리 구장(區長) : 1931년~1934년
  - 송인면협의회 회원 : 1835년~1936년
  - 성북정 총대(總代) : 1936년~1939년 (성북정회 출범)
  - 경성부회 의원 당선 : 1939년
- 학교의 유지와 설립 삼산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 삼산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성북유치원 설립(1933. 7)
    - 성북리 유지들의 지원으로 설립(원장: 유양호)
    - 성북유치원 후원회 조직 및 의연금 모집
  - 영명학교(永明學校)의 설립
    -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령초과아동 교육 기관(원장: 이의석)
- 성북정 주민들의 일제 식민지 당국에 대한 요구 사항
  - 신규 요정의 철폐 요구(1936. 8)
    - 이신구를 포함한 주민 5명이 성북정회를 대표하여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규 요정 허가의 부당함을 진정 → 동대문경찰서의 답변 : 현재 음벽정을 제외한 신규 요정은 허가하지 않겠으며 불편한 도로는 수리해 줄 것.



- 성북정회의 음벽정에 대한 요구사항

1. 도로진애(道路塵埃)를 방지할 것.
2. 도로파작(道路罷鑿)을 수시 보수할 것.
3. 업무시간을 준수하여 정민(町民)의 안면(安眠)을 도(圖)할 것.
4. 요정에 오는 거마(車馬)를 서행(徐行)케 하여 통행인의 위험을 방지할 것.
5. 도로 협착처에 가교(架橋)를 완전히 설치할 것.
6. 요정에 오는 자동차가 정내 통과시 주의사항을 요정 구내에 게시함을 용인할 것.
7. 요정 소속인원이 정내에서 후주행악(酗酒行惡)하여 정민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동시에 극해(極害)를 끼치는 때에는 요정주(料亭主)가 절대책임을 질 것.

- 주민들의 적극적인 진정과 요구로 성북정의 요정춘화를 막아냄.

- 수도 부설 진정(1936. 6)

- 1936년 현재 성북정에 약 800호에 4,000여 명 거주하고 있었으나 수도 부설이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물 개수도 태부족 → 여름철에도 해화문 안의 수돗물을 사다 먹어야 하고 신속한 화재 진압도 어려운 형편
- 1936년 (고양군에서) 경성부로 편입된 이후 수도 부설을 기대했으나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신구, 김창학, 윤병철 등 지역 유력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경성부 수도과에 수도 부설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 경성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37년 우선적으로 수도가 부설할 지역에 성북정을 포함

- 버스 운행 시간의 연장(1936. 6)

- 1936년경 경성부에 새로이 편입된 성북정과 돈암정의 인구 증가 및 교통 수요 증가로 이 지역과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했으나,
- 부영버스의 소유 회사인 경성전기회사는 종로5정목을 거쳐 해화정 정류소까지 도착하는 버스 운행을 매우 빠르게 종료했기 때문에 늦은 밤 성북정 주민들의 불편 초래

“비와 눈이 내리는 밤 전차에서 내려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의 불평은 발자국마다 커졌다”  
—『동아일보』 1936. 6. 4.

- 1936년 6월 3일, 성북정 주민들 동대문경찰서를 거쳐 경성전기회사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전차 운행 시간에 맞추어 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

- 전염병원 설치 반대(1938. 2)

- 1938년 2월 성북정에 전염병자를 위한 요양원이 설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 성북정 주민들,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성북동에 전염병 환자를 위한 요양원이 들어선다면 주민 건강에 많은 위험이 있게 될 것이라며 병원 설립 반대 운동을 추진
- 병원경영자 정홍섭은 ‘경성보건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열자 성북정 주민 630여 명이 공동으로 병원 경영에 반대하는 진정서 제출

### 3. 1930년대 성북정회(城北町會)의 활동

○ 일제강점기 성북동 주민 관련 신문기사

- 성북구락부, 한양청년연맹에 가맹  
경성부근에 있는 청년단체를 망라하여 한양청년연맹(漢陽靑年聯盟)을 조직하고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은 성북동에 있는 성북구락부(城北俱樂部)에서는 지난 8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 『동아일보』 1925. 8. 12.

- 성북야학원 설립

성북소년회에서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무산어린이를 위해 야학원을 설립하고 보통학교의 일, 이, 삼, 사학년의 아동을 모집한다고 한다.

— 『동아일보』 1927. 7. 6.

- 교실에 난로 없어 200 생도 고생

경성 근방 삼각산을 배경 삼고 경계절승한 성북동에 있는 삼산학교는 옛날 융희 2년 고 황수연 씨의 설립으로 그간 이십년 동안에 수백명의 졸업생을 내어서 사회에 다대한 공헌이 많았는데 그간 춘풍추우 역경속에서 겨우 유지하다가 고 황수연씨 애손(愛孫) 김수영 씨가 맡아 경영하던 중 6년 전에는 교육협성회(教育協成會)의 윤갑병(尹甲炳) 씨와 김동근(金東瑾) 씨가 많이 활동하다가 그들도 역시 감당키 어려워서 지난 오월 경에 사직하매 그 동리 유력 청년 수명이 침식을 잊어 가면서 눈물 섞인 열성으로 유지하는 중이라는데 요사이 혹독한 추위에도 경비가 없어서 2백 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선생이 불도 피우지 못한 교실에서 목불인견의 현상이라 하며 성북동에는 시내 부호별장이 20여 곳이나 있으나 삼산학교의 비운에는 세상이 모두 냉정할 뿐이라 하여 그곳 주민들은 매우 근심중에 있다고 한다.

— 『동아일보』 1928.12.13.

- 삼산교에 서광

시외 성북동에 있는 삼산학교는 그간 비운에 빠졌든 바 그곳 유력 청년의 희생 덕으로 활동한 결과 항상 사회사업에 유의하던 동리유지 이신구(李信龜)씨가 그 정경을 보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다대한 찬동과 활동을 하여 제구 불비를 착착 준비중이라는 바 이 소문을 들은 동소문의 일대 인사와 이백 명 되는 학부형들은 이씨의 열(성)을 칭송하며 따라서 삼산학교는 사립학교로서는 앞으로 상당한 학교가 되리라고 칭송한다고 한다.

— 『동아일보』 1928.12.17.

- 이원우 씨의 독지

시내 황금정에 사는 이원우(李元雨)씨는 항상 공익 사업에 공헌이 많은 바 이번 시외 성북리에 있는 삼산학교의 경비 곤란함을 듣고 동교의 과동할 석탄 전부를 담당하였음으로 동교 직원 및 학부형 간에서는 이씨의 독지(篤志)에 감사함을 말지 않는다고 한다.

— 『동아일보』 1929. 1. 30.

- 성왕히 거행할 경성 어린이날

20여 개 세포를 가진 경성소년연맹(京城少年聯盟)에서 경성어린이날 거행에 대한 재경 소년단체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구역을 정했는데 성북소년회 담당 구역은 동소내외(東小内外) 일대였다.

— 『동아일보』 1929. 4. 30.

- 하윤실씨가 지난 20일에 삼산교장으로 취임

이십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시외 성북동에 있는 삼산학교는 수 년래로 경제적 타격을 받아

오든 바 이번 조도전(早稻田)대학 고등사범과를 졸업하고 현재 보성고보에 교편을 잡고 있던 하윤실씨가 지난 20일에 교장으로 취임하는 한편 자진하여 교편을 잡고 동분서주한 결과 시의 성의에 감복한 몇몇 인사도 적극적으로 후원키로 되어 신학기를 이용하여 더 한층 사회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터이라 하며 우선 제일계획으로 지금까지는 4년제 이던 것을 6년제로 연장하고 교사도 급년도 안에는 기어히 증축할 터라는 바 더욱이 하씨는 학창시대부터 특히 무산 아동의 동심에 착안하여 전공으로 연구하였다하며 여류작가로 동씨의 부인인 김일엽(金一葉)씨도 자진하여 교편을 잡기로 하였다더라.

— 『동아일보』 1930. 3. 29.

● 성북유치원 설립

유지 몇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했다. 그 준비가 끝나서 7월 1일 동리에배당에서 개원식을 했다. 이름은 성북유치원이고 원장은 유양호(柳養浩)이다.

— 『동아일보』 1933. 7. 1.

● 성북유치원에 내는 의견금

성북유치원후원회에서 이사 이종린(李鍾麟), 박성근(朴性根), 이신구(李信龜)씨 등의 활동으로 의견금이 들어왔음. 원감 장혜자(張惠子)는 원아들을 친자식 같이 친절히 훈육한다. 이 유치원의 앞날을 기대하고 있음.

— 『동아일보』 1934. 1. 14.

● 전차구역제를 철폐하라

“경성부는 인접 1읍 8개면을 합쳐 면적 9방리(方里) 인구 육십삼만의 대도시가 되었다. … 부의 확장은 부의 울타리를 넓힌 것으로 제일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부내의 교통문제일 것이다. … 행정구역의 담판 헐고 교통구역의 담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확장된 새 경성부의 제일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살림이 한 살림 되는대는 무엇보다도 교통의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긴급한 일이니. … 경전(京電)은 구역철폐에 대하여 성의가 없고 부당국 역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새로 편입된 곳은 세민(細民)이 많이 사는 곳으로 요금구역제에 가장 큰 손실을 받는 이들이다. 또한 행정구역이 통일됨에 따라 부내출입이 빈번해지는 데서 생기는 교통비의 손실이 덧붙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그들이 구역철폐를 열망하고 있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경성부는 새로운 경성부의 빈곤한 부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보고만 있을 것인지 … 새로운 경성부의 구역을 보자. 동으로는 청량리·왕십리 방면, 서로는 마포·서강 방면, 북으로는 성북·부암·홍제 방면이요. 남으로는 노량·영등포 방면이니 거기에는 무수한 빈민이 주접(住接)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대부분은 도시자유노동자요, 행상이요, 공장노동자들인 만큼 그들은 경성부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생활군이다. 그들이 열망하고 있는 전차, 버스구역 철폐에 등한한 태도를 가진다면 이는 새 경성부의 새로운 실태가 아니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전(京電)이 부의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폭리를 탐하여 그 ‘시빌 서비스’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패심한 일인가”

— 『동아일보』 1936. 4. 2.

● 학령초과아동 위해 영명학교 신설

“부내 성북정의 유지들은 동리에 학령초과아동이 많이 있으나 그들은 배울 길이 없어 가두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든 나머지 학령초과아동의 교육을 본위로 하는 영명학원(永

明學院)을 창설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미 50여 명의 입학지원자도 있게 되었으므로 10일에는 동학원 개원식을 거행하는 동시에 직원까지 선거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 이의석(李義錫)씨는 원장에 취임하게 되고 이춘길(李春吉), 유일(劉鎰), 이희철(李熙哲), 김상욱(金湘旭) 등 제씨는 직원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바 전기 제씨는 전부가 무보수로 동학원을 위하여 힘쓰기로 되었다 한다.”

— 『동아일보』 1936. 4. 12.

● 버스 운전시간 연장을 진정

송인정, 혜화정, 성북정 등 수만 주민의 경전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기어코 폭발되어 3일 조정환(曹正煥), 이근영(李根榮)씨 외에 5인의 주민대표들이 동대문서를 거쳐 경전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창경원과 종로5정목에서 혜화정 정류소까지는 버스는 전부터 전차 운전 시간에 비하여 분수 없이 빨리 걷어가므로 참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수차 직접 간접 항의 교섭하여 밤 9시에 걷어가는 것은 9시45분까지는 연장시켰으나 전차에 비하면 두시간반이나 빠르니 더구나 비눈 뿌리는 밤 같은 때 전차에서 내려 터덕터덕 걸어가는 사람들의 불평은 발자욱마다 커졌다 한다. 만일 이번에 운전시간을 연장치 않으면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성공하여 보려고 대표 제씨는 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1936. 6. 4.

● 성북정 요정춘화에 주민이 쫓기진정

성북정은 이상적 주택지라고 하여서 너도 나도 하고 많이 나가 살게 되었는데 최근에 요리점이 생긴 이후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마침내 정회에서 쫓기하였다. 성북정에 음병정이 생긴 이후 도로는 좁은데 자동차의 왕래가 심하여 통행상뿐만 아니라 학교, 유치원, 예배당, 약학 등이 있고 그 외에 1,500여 명의 학생이 머물고 있다. 선생, 연구가등 80여 명이 사는데 주야로 풍기상 자미롭지 못한 일이 많이 우려되며 위생상 견지에서도 영향이 적지 않아 은근히 불만이 많던 중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또 요정이 설치된다는 풍설을 듣고 성북정 정회(町會)를 열고 다음과 같은 대표를 선정하여 지난 6일 동대문서에 진정을 하는 동시에 음병정 측에도 다음과 같은 요구를 5일에 제출하였다 한다.

— 『동아일보』 1936. 8. 9.

● 폐병원의 설치반대 성북정민 재진정, 동서의 태도 주목

성북정 상류지대에는 의사 정홍섭씨가 폐병요양원을 경영하려는 데 대하여 성북정 주민 일동은 주민보건상 중대 문제라고 하여 그간 수차 주민대회를 열고 반대운동을 하는 관계로 당국과 정씨에게 중지를 권고하였으나 수 일전부터 정씨는 예정지에는 경성보건의원(京城保健醫院)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한다. 간판은 보건의원이나 내용은 전염병을 치료하는 병원에 다름이 없음으로 이에 분개한 주민들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우선 19일 주민 630명의 연명날인의 진정서를 가지고 대표 성북정총대 이신구(李信龜), 부총대 김창학(金昌學), 윤병철(尹炳哲) 외 8씨가 소관 동대문서로 찾아가 강경히 반대를 진정한 바 있었는데 경찰의 처지가 매우 주목된다고 한다.

— 『동아일보』 1938. 4. 20.

## [ 15 ] 삼산학교

### 1. 1908년 삼산의숙(三山義塾)의 설립과 황수연

- 성북구 지역에 최초로 설립한 근대적 사립학교(현 성북초등학교의 기원)
- 일체 수업료를 받지 않는 무상교육
- 1908년 6월, 춘파 황수연의 양손 김수영의 발의로 설립
  - ※ 1904년~1910년까지 전국에서 3,000여개 사립학교가 설립됨(황성신문, 매천야록 기사 참고)
- 교사(校舍) : 성북동에 있는 충정공 민영환의 별장 건물을 교사로 사용하다가 동년 7월 새 교사 착공(16칸 규모)
- 교직원(5명)
  - 교장(校長) 김수영(金洙瑩), 부교장(副校長) 황수연(黃壽延)
  - 산술교사(算術教師) 방한정(方漢鼎), 한문교사(漢文教師) 장기협(張基協), 일어교사(日語教師) 이윤희(李允熙)
- 입학생 수 : 97명
- 운영
  - 황수연(당시 성북동 별장에 거주)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포백업자 등 성북동에 거주하는 유력자들의 지원으로 운영
  - 주학과/야학과(야학과는 운영상 어려움으로 동년 12월 폐지)

### 2. 1910년대 삼산의숙 : ‘각종사립학교’ 인가

- 1912년 4월 첫 졸업생 배출
- 1911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시행, 삼산의숙을 ‘각종사립학교’로 인가
  - ※ 4년제 비정규학교이며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정시험을 거쳐야 함. 보통학교에 비해 진학 불리
- 황수연은 삼산의숙을 정식 공립보통학교와 동일한 설비와 제도를 갖추고 운영하고자 노력
- 1916년 황수연이 별세하면서 운영난에 직면하자 홍태운(洪泰潤) 등 성북리의 세탁업자들을 중심으로 운영자금을 스스로 모아 삼산의숙 운영 경비 담당

### 3. 1920년대 삼산학교 : 운영난 극복을 위한 노력

- 1927년 현재 삼산학교 총 재학생 수 145명
  - ※ 일제는 1920년에서 1925년 사이 3면마다 보통학교 1개를 건설한다는 ‘3면1교’ 정책을 표방하고 이러한 원칙을 따라 승인면에 보통학교가 만들어졌으나 삼산학교에 대한 보통학교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교육협성회 윤갑병, 김동근이 학교 운영을 주도했으나 역부족
- 이후 서광훈 등이 주축이 된 성북구락부 회원들이 학교를 유지해 나간 것으로 보임
- 계속되는 운영난 타개를 위해 신문지면에 학교의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
  - 『동아일보』 1925. 3. 9, 「자유중」에 게재한 ‘성북적천(城北赤泉)’의 투고문
  - 『동아일보』 1928. 12. 13, 「교실에 난로 없어 200생도 고생」(기사)
  - 황금정의 부호 이원우(李元雨)는 경비가 부족해서 겨울철 불도 피우지 못한 삼산학교의 소식을 듣고 겨울철에 필요한 석탄을 제공
- 성북정회장 이신구의 노력과 학부형 및 지역 사람들의 조력으로 점차 운영상 어려움을 조금씩 타개

### 4. 1930년대 삼산학교 : 6년제 승격운동, 보통학교로 변경 추진

- 하윤실(河允實)이 삼산학교 교장으로 취임 후 6년제 보통학교로 승격시키고자 조선총독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1933년 4월 현재 삼산학교는 4년제 보통학교로 1학년 1학급, 2학년 1학급, 3·4학년 합반 1개 학급에 총 재학생 수 48명(1927년 학생수의 1/3)
  - ※ 4년제 각종사립학교였기 때문에 상급학교로 진학에 불리
- 1938년 12월, 삼산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문제를 두고 구성원들 간 갈등 발생

- 학교 당국자측의 주장 : 학교를 경성부에 기증하여 경성부가 발표한 공립심상소학교의 모체로 만들어야 함(교장 김홍규, 교무주임 이상봉)
- 학교설립자·삼산학교유지후원회·성북정회 사람들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지만 모두가 힘을 다해 지원하여 키워간다면 학교를 현 위치에 두고 수 년 내에 심상소학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측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삼산학교유지후원회 이사장 하윤실)
- 삼산학교 교주 강진구(姜振九)가 12월 11일 삼산학교유지후원회와 학부형을 초대하여 삼산학교는 선조의 유업으로 설립된 곳으로, 학교를 경성부에 기부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의 장소를 옮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장래 훌륭한 학교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갈등 일단락

### 5. 공립학교 승격방법을 둘러싼 논란 이후의 삼산학교

- 1939년 1월, 6년제 사립심상소학교로 승격
  - 교주 강진구, 1939년 1월 경성부 학무과를 방문하여 자신이 학교 운영 자금 연 3,000원씩을 부담하고, 삼산학교유지후원회에서는 교사를 책임지고 건축하기로 했음을 통보
- 1942년 3월, 공립국민학교로 전환
- 1943년 삼산학교의 토지가 경성부의 소유로 이전
- 1946년 2월, 공립학교로 승격(교장: 하윤실)
- 1946년 9월, 교명을 경성성북공립국민학교로 변경 → 현 서울성북초등학교



## [ 16 ] 조선인 부호들의 별장

### 1. 경성부 안팎 부호들의 별장

- 조선시대 서울 근교의 별장(별서정원) 대부분이 양반 세도거나 고위 관료들의 소유였다고 한다면 일제강점기에는 지주나 대금업자 등 새로운 시대 환경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서울의 신흥 부호들이 근교의 별장들을 소유
- 종래의 조선식 기와집뿐 아니라 양식, 일본식, 절충 양식 등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지은 별장 등장
- 서울 근방 부호들의 별장 지대
  - 죽첨정(竹添町) 3정목(현 서대문구 충정로3가)의 고대(高台)
  - 장충단(獎忠壇) 너머 학구(鶴丘) 일대
  - 용산 너머 명수태(明水台) 일대
  - 성북동 일대

### 2. 성북동, 조선인 부호들의 별장 지대

- 1935년, 성북동 내 개인 별장 14개소 확인
- 백인기(白寅基)의 별장
  - 별장주 백인기(1882~1942)
    - 일제강점기의 금융인·사업가. 전북 임실 출생으로 다른 이름은 백연기(白演基)
    - 무관이었던 아버지 백남신을 따라 1903년 대한제국의 육군 참위로 임관
    - 대한제국 군대 해산 후에는 금융인으로 변신, 조흥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을 설립해 전무 취체역을 지냈으며, 한성농공은행 감사와 조선식산은행 상담역으로 근무
    - 1927년부터 3년간 조선총독부 증추원 참의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감사 역임
    -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인명사전에 아버지 백남신과 함께 수록
    - 부인 이운성, 익산에 남성고등학교 설립
  - 위치와 규모
    - 성북동 중앙 골목 막바지에 제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집(현 길상사)
    - 후원 산림의 넓이 10만여 평 → 시가 14만원
    - 입구는 화강석으로 꾸며져 있고 원내(園內)에는 수백년 묵은 노송과 암반 계곡, 돌다리, 조선식 기와집 수채가 있음
- 백상규(白象圭)의 2층 양옥 별장
  - 별장주 백상규(1880~1957)
    -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활동한 경제학자·정치가. 경기도 장단군 출생
    - 미국 브라운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1924년부터 보성전문학교에서 영어영문학·경제학·상학·논리학 등을 강의
    - 8·15 광복 후 여운형(呂運亨) 중심의 조선인민당에 가입하고, 이듬해 서울 천주교회에서 열린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여운형과 함께 최고정무위원으로 선출
    - 경기 장단에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6·25 전쟁 때 서린동 자택에서 만아들 남진(南鎭)과 함께 납북되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회의 발기인 겸 중앙위원을 지냄
    - 1957년경에 북한에서 병사, 평양시 용성구역의 ‘재북인사들의 묘’에 안치됨
    - 부인 한기주(韓琦柱)는 피아니스트로 활동
  - 위치와 규모
    - 위치, 주소 불명
    - 하얀 양식 2층집이 나무와 바위 속에 싸여 있었음(시가 몇 만원 가량)
- 한양호(韓亮鎬)의 신식 별장
  - 별장주 한양호

- 대한제국기 총리대신을 지낸 한규설(韓圭謫, 1856~1930)의 아들
- 1926년 시천교에서 운영하던 경성 청석동(현 견지동)의 동아학교 교사 일부를 빌려 경성여자상업학교(현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
- 충청공 민영환의 성북동 별장 음벽정을 매입하여 고급요릿집 ‘음벽정’ 개업
- 위치와 규모
  - 위치, 주소 불명
- 부지 수만평이며 별장 건축이 뛰어나게 풍치가 있다고 전함
- 충청공 민영환의 별장이 고급 요릿집으로 : 음벽정(飲碧亭)

음벽정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요정이다. 성북정 13번지(현 연화사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잡지 『삼천리』에 게재된 음벽정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음벽정의 경영주는 한양호와 그의 아들 한택수(韓澤洙)였다. 조선토지조사사업 결과 작성된 토지대장을 보면 한택수는 1934년 7월 4일 성북정 13번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음벽정은 1934년부터 영업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음벽정은 당시 손꼽히는 요정이었다. 이상적인 주택거주지라고 평가를 받았던 성북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1938년 총독부는 오전 1시 이후에는 전국에 있는 요리집은 영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음벽정은 철야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또한 풍기문란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음벽정의 이러한 행동은 성북정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왔다. 음벽정은 원래 요정이 아니었던 곳이었다. 음벽정은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자결한 민영환의 별장이었다. 민영환 사후 그의 동생 민영찬(閔泳瓚)의 소유였으나 1931년 가옥 임대업을 하던 일본인 오미안테랑(五味安太郎)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34년에 한택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간송(澗松) 전형필(全鑾弼)의 별장
  - 별장주 간송 전형필(1906~1962)
    - 당시 30세 전후의 청년으로 일찍이 일본대학을 졸업하고 종로 4정목에 본택이 있는 대지주·대금업자
    - 교육가이자 문화재 수집가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수집하는 데 힘썼으며 성북동에 보화각(현 간송미술관) 건립(1938)
    - 보성고보를 인수하였고 광복 후, 보성중학교 교장과 문화재 보존위원 역임
  - 위치와 규모
    - 현 간송미술관 일대
    - 1933년 프랑스인 무역상 플레장(Plaisant, 富來祥)으로부터 5만원에 구입한 양옥
    - 별장을 두른 돌담 축조 비용만 5천원으로 알려짐
- 대금업자 임종상(林宗相)의 별장
  - 별장주 임종상(1885~1962)
    - 대금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
    - 재산을 일본 황실에 기부하고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방호단비와 국방비 등 고액의 현금을 헌납했으며 조선 임전보국단 등 전쟁 지원 단체에도 참가
    - 동대문 밖 창신동에 ‘안남국왕’의 저택 같이 하늘을 막을 듯이 올려 쌓은 담장집을 소유
    -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
  - 위치와 규모
    - 위치 및 주소지 불명
    - 창신동 저택과 비견될 만한 별장을 성북동에 소유
    - 일본과 서양의 건축양식을 결합한 ‘화양(和洋)’ 절충 양식의 저택
- 지주 이종석(李種奭)의 별장
  - 별장주 이종석
    - 서울 장교동 부자로 알려진 부호
    - 1932년 9월 1일, 보인학원(현 보인중고등학교) 교주로 취임(사재기부)
    - 1935년 조선총독부 시정 25주년 기념표창

- 위치와 규모
- 현 덕수교회 내 이중석 별장(1977년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 10호 지정)
- 1900~1910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
- 왕공(王公)이 사는 집 같이 호거장려(豪舉壯麗)한 저택
- “아들 딸 없는 분으로 너무 많은 재산을 처리할 길 없어 집에다가 이렇게 대금(大金)을 던짐인가” (『삼천리』 필자의 평)
- 기타 성북동의 별장
  - 황금정(黃金町)에서 약종상(藥種商)하는 이유선(李有善)의 별장
  - 해동은행 김계수(金季洙)의 별장 : 이강공 별저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다고 알려짐
  - 서울 부자 김동규(金東圭)의 별장
  - 의친왕 이강의 별저 : 순조선식 늪은 건물(현 성락원)

3. 관련 자료

- 「부호의 별장지대 풍경, 성북동 일대」, 『삼천리』제7권 제5호(1935. 6. 1)

서울에는 부자양반이 만히 산다. 그러기에 서울 근방에는 부호의 別莊이 수두룩하다. 위선 눈에 띄이는 곳이 竹添町 三丁目の 高台와, 獎忠壇너머 鶴丘 一帶와 龍山너머 明水台 一帶가 모다 十萬長者, 百萬長者의 別莊地帶이라 그러나 조선인 부자가 가장 만히 사는 곳으로는 水石이 조흔 城北洞 一帶를 가르치리라. 이제 별장지대를 巡禮하는 첫길로 城北洞 一帶를 爲先 보기로 하자.

· 時價十餘萬圓의 白寅基邸

가튼 城北洞이라 하여도 山水조흔 幽閑한 深谷이 세가달 있다. 그 中央골목 막바지에 第一 조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집이 白寅基 氏 別莊이다. 後園山林만 十餘萬坪이라 전하며 들니는 말에 十四萬圓을 바드란 것을 아니 팔고 있다든가. 某銀行에 七萬圓인가 저당이 되어 드러가 있느니 만치 넓고 깊고 큰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드러가는 山門은 花剛石으로 하여 싸헛고 園內에는 數百年 묵은 老松이 길을 막엿고 泉流가 흐르고 石橋가 있고 그 속에다가 좀 낡엇지만 대규모의 여러 채의 朝鮮式 크다란 집이 드러안져다. 여름이 되면 바람소리 새소리와 물소리가 人間苦를 닛게 하는 仙境이 다 거기서 조금 나오다가

· 洋製의 白象圭別莊

하얀 洋製 2層 집이 樹石속에 싸인 것은 白象圭 別莊이라. 이도 時價로 치면 몇萬圓이면 몇萬圓이지 그 이하는 안들 洋式別莊이다. 내가 그 近傍을 지날때에 피아노소리 들ն은 그의 愛人으로 東京音樂學校出身의 韓琦柱 女史가 食后 한국조 타심인가.

· 新式의 韓養浩別莊

그 부근에 저 韓末의 總理大臣 韓圭高 씨의 令息인 韓養浩 氏 別莊이 또 있다. 그의 아드님인 韓昌洙 氏는 韓靑蜚딩의 所有者로 鍾路和信 건너편에 큰蜚딩을 짓고 있느니만치 建築에는 자신이 잇는 듯 누구의 設計인지 모르나 이 別莊의 建築도 뛰어나게 風致가 있다. 基他도 여러 萬坪일 듯

· 日大卒業한 全營弼別莊

石돌담을 싹키만에 五千圓을 던져다하면 그 規模의 豪大를 알니라. 몇해전에 西洋사람인 富來商會主人으로부터 五萬圓에 산 純洋式집으로 요지음 十萬圓에 팔나해도 아니판다는 消息이 있다. 이 別莊主人 全瑩弼 氏는 아직 30세 전후의 靑年으로 일즉 東京드러가 日本大學을 마춘 鍾路四丁目에 本宅이 잇는 大地主로 貸金業하는 분이다.

· 貸金業의 林宗相別邸

東大門맛 昌信洞에 安南國王의 邸宅가치 한울을 막을 듯이 올니싸흔 그 담장 집의 所有者 林宗相 氏는 城北洞의 그 本宅보다 더 클 듯한 別莊을 가지고 있다. 넓고 크고 和洋圻衷의 그 仰視케 하는 邸宅은 보는 이의 눈을 휘황케한다. 이 富豪는 亦貸金業을 주로 한다든가.

· 地主의 李種奭氏 別莊

서울 長橋富者 李種奭 이라면 모르는 이가 업스리라. 이 富者의 別莊은 꼭 王公이 사는 집가치 豪舉壯麗하다. 아들 딸 업는 분으로 너무 만흔 財産을 處理할 길업서 집에다가 이러케 大金을 던짐인가.

· 其外諸氏의 것

이 밧게도 여러 집이 있다. 엇져든 城北洞안에는 十萬長者의 別莊이 14個所가 있다느니 만치 간 곳 온곳이 모다 눈을 부시게 하는 別莊이다. 黃金町서 藥種商하는 李有善 氏 別莊도 여기 잇고 海東銀行의 金季洙氏 또 서울 부자 金東圭氏의 別莊도 다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긔 적는 것이 올홀는지 엇덜년지는 모르겟스나 李綱 殿下 別莊도 城北洞의 金季洙氏 別莊을 지나 한참 드러가면 있다. 그러나 그집 洋屋은 아니고 純朝鮮式 늪은 建物인 듯이 인상되엿다.

[ 17 ] 보화각(간송미술관)의 설립

1. 간송 전형필과 보화각(간송미술관)

- 1906년 : 간송 전형필 출생 (1962년 사망)
  - 휘문고보에서 최초의 한국인 서양화가인 고희동을 스승으로 모심
  - 고희동의 소개로 위창 오세창을 만남(정신적인 스승)
- 1933년 : 1933년부터 성북동 초입의 대규모 부지 매입시작
  - 이곳이 선잠단의 북쪽에 위치하여 북단장(北壇莊)이라 명명
  - 프랑스 출신의 석유상(장작상) 플레장(Plaisant, 한국이름 부래상富來祥)이 거주하였던 집
  - 무악재 인근에서 나무장수들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장사, 커피는 “양탕국”이라 불리우며 인기를 끌며 장작을 구입 판매
  - 플레장은 우리나라에서 커피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고양 부씨 “부래상”이라며 장작 장사로 거부가 됨
- 1938년 : 보화각 건립
  - 한국 최초의 근대건축가 박길용에게 설계 의뢰
  - 1934년 시공에 돌입하여 1938년에 준공한 서구식 미술관
  - 3·1운동 민족 33인 위창 오세창이 “보화각”이라는 이름 선사
- 1940년 : 보성고보(보성고등학교) 인수
- 1955년 : 한국조형문화연구소(성북동 가마, 1955~1962) 설립
  - 조선백자의 전통을 현대에 계승 목적(현대도자공예의 시작)
  - 정식명칭은 “Klin of Korean Art Society”이나 속칭 “성북동 가마”나 “간송요”로 불림
  - 미국 록펠러재단의 후원으로 현실화
  - 시험요로서는 크고 제품요로서는 작은 내면적 6척입방의 각요로서 성북동 보화각 뒤 산골짜기에 위치
- 1962년 : 간송 전형필 사망
- 1966년 :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설립
  - 민족 미술의 연도별·장르별 분류 상세분류 시작
- 1971년 : 간송미술관으로 명칭 변경
  - 1962년 간송의 사망 후 보화각 기능 일시 정지
  - 1971년부터 간송미술관으로 명칭변경 후 유물 일반에 공개
- 2014년 : 간송미술문화재단 설립

2. 관련 인물

- 월탄 박종화 : 소설가이며 전형필의 외종사촌
- 춘곡 고희동 : 최초의 한국인 서양화가로 휘문고보 스승
- 위창 오세창 : 춘곡의 소개로 알게 된 정신적 은사
  - 3·1운동 민족 33인 중 한 분으로 문화재 등의 감식방법 등을 전수받음
- 박길용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건축가
  - 보화각과 화신백화점, 프랑스대사관 등을 설계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사무소인 “박길용 건축사무소” 설립
- 혜곡 최순우 : 6·25때 보화각의 문화재가 북으로 송출되는 것을 막아줌
  - 간송 전형필이 필명 ‘순우’와 호인 ‘혜곡’을 지어줌 (본명 희순熙淳)
  - 혜곡이 프랑스 출장시 전형필이 차고 있던 시계를 줌
- 여천 김중업 : 현대건축의 선구자, 전성우의 성북동 집 설계
- 우두 김광균 : 간송 전형필의 사돈(송리 김은영의 아버지)
  - 정지용·김기림 등과 함께 한국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 (대표작품 : 와사등, 설야)
- 우송 전성우 : 전형필의 큰아들 (화가)
  - 간송 미술문화재단 이사장

- 우두 김광균과 간송 전형필의 호에서 한자씩 발췌 호를 지음

- 송리 김은영 : 우두 김광균의 딸이자 전성우의 처
  -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 13호 매듭장
- 전영우 : 전형필의 둘째 아들, 간송미술관장 (화가)

3. 간송미술관 소재 지정문화재

| 구분  | 분야    | 간송미술관 소재 지정문화재 |                                                                                                                      |
|-----|-------|----------------|----------------------------------------------------------------------------------------------------------------------|
|     |       | 구분             | 지정문화재                                                                                                                |
| 계   | 2     | 5              | 28                                                                                                                   |
| 문화재 | 국가 지정 | 국보 (12)        | 청자기린유개항로, 청자상감유죽연로원앙문정병, 청자상감운학문매병, 훈민정음혜례본, 동국정운 권1·6, 금동계미명심존불입상, 금동심존불감, 청가압형수적, 혜원풍속도, 동래선생교정복사상절 권4·5, 청자모자원형연적 |
|     |       | 보물 (10)        | 백자박산향로, 금보, 금동여래입상, 금동보살입상, 청자상감포도동자문매병, 분청박지화문병, 분청사기모란문반합, 청가상감모자합, 괴산외사리석조부도, 전문경오충석탑                             |
|     |       | 등록 문화재 (1)     | 김선희 혼례복<br>※ 우두 김광균과 처 김선희의 혼례시 김선희가 입었던 혼례복                                                                         |
|     | 시지정   | 유형 문화재 (4)     | 삼층석탑, 석조팔각부도, 석조미륵불입상, 석조비로자니불좌상                                                                                     |
|     |       | 무형 문화재 (1)     | 매듭장 김은영                                                                                                              |

[표11] 간송미술관 소재 지정문화재 목록



## [ 18 ] 문인촌의 형성

### 1. 1930년대 성북동 문인촌 형성의 배경

- 동소문 밖 성북리는 산자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하여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 성안 사람들 가운데 이 곳으로 이주하는 인구 증가(창의문 밖 세검정 부근도 문인촌으로 유명)
- 일제강점기 중반 서울의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본정통(현 명동, 충무로)을 중심으로 남대문, 서대문 안팎 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한적하고 일본인 거주민이 거의 없는 동소문 밖이 새로운 주 거지로 부상
- 1920년대 중반부터 인접한 명륜동, 혜화동, 동숭동에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이 다수 설립되 면서 거대한 조선인 학교촌이 형성되고, 성북동은 그 배후지로 기능하게 됨→ 조선인 문인, 화가 등 문화예술 인들의 이주 증가

### 2. 일제강점기 성북동 거주 문화예술인

- 문학
  - 한용운(韓龍雲, 1879~1944)
    - 불교승려·독립운동가(민족대표 33인)·시인
    - 1933년부터 1944년 입적할 때까지 심우장 거주(222-1번지)
  - 이종린(李鍾麟, 1883~1950)
    - 언론인·정치가·종교인(천도교·친일반민족행위자
    - 충남 서산 출생. 아호는 봉산(鳳山), 자는 영일(靈一), 필명은 봉황산인(鳳凰山人)·황산자(鳳山子)·황사산인(鳳士散人)·우련(又蓮) 등
    - 1930년대 성북리 175번지에 거주
  - 김억(金億, 1896~?)
    - 시인·문학평론가
    - 필명 : 안서(岸曙), 안서생(岸曙生), A.S., 석천(石泉), 돌샘
    - 최초로 근대 번역시집과 창작시집을 발간한 한국 근대시의 선구자
    - 김소월의 오산학교 스승
    - 1930년대 성북리 거주(주소지 불명)
    - 친일반민족행위자
  - 김일엽(金一葉, 1896~1971)
    - 문인·승려
    - 본명은 원주(元周), 일엽(一葉)은 아호. 평안남도 용강 출신
    - 1920년에 잡지 『신여자』를 창간하고 여성해방 주장
    - 중년에 수덕사 만공선사 문하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됨
    - 삼산학교 교사이자 재가승려인 하운실과 짧은 결혼생활(1929~1931) 동안 성북동에 거주하며 동 학교에 서 교사로 활동
    - 말년에 성북동 성라암(현 성라원)을 오가며 지냄
  - 김기진(金基鎭, 1903~1985)
    - 문학평론가·소설가, 조각가 김복진의 동생
    - 호 팔봉(八峰). 충북 청원(현 청주시) 출생
    - 1925년 파스큘라와 염군사를 합쳐 ‘카프(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를 만들었으며, 영화사 등에서 활 약하였고 문학평론가로서의 집필 활발
    - 조선문인부국회 상무이사 등 가장 강력한 친일문예조직의 중추적 인사로 활동
    - 형 김복진과 함께 성북리 175번지 거주

- ※ 1934년 12월 13일 새벽 김복진, 김기진 외 수 명이 신건설사 사건으로 검거
- 1989년 『김팔봉 문학전집』(전7권) 발간
- 친일반민족행위자

- 이태준(李泰俊, 1904~?)
  - 소설가
  - 호 상허(尙虛)·상허당주인(尙虛堂主人). 강원도 철원 출생
  - 1933년 성북리 248번지에 수연산방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1946년 월북 전까지)
- 홍효민(洪曉民, 1904~1976)
  - 문학평론가·소설가
  - 본명은 순준(淳俊). 경기도 연천 출생
  - 도쿄 세이소쿠[正則]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초기에는 주로 평론활동을 벌여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인조반정』 등의 역사소설 집필
  - 1930년대에 성북리 거주하며 ‘성북동인(城北洞人)’이라는 필명 사용

- 김내성(金來成, 1909~1957)
  - 소설가
  - 호 아인(雅人). 평남 대동 출생
  - 1939년 『마인(魔人)』을 조선일보에 연재하고 이어 『가상범인(假想犯人)』, 『백가면(白假面)』, 『살인예술가(殺人藝術家)』 등을 발표하여 탐정소설 작가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굳힘
  - 1936년 소설 『태풍』의 인세로 성북동에 집을 장만하여 이사(1948년 돈암동으로 이사)

- 김향안(金鄉岸, 1914~2004)
  - 수필가·미술평론가, 김환기의 아내
  - 본명 변동림(卞東琳), 서울 출생
  - 1930년대부터 문학활동을 하였고 1936년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상과 결혼
  - 이상이 폐결핵으로 사망한 이후 1944년 서양화가 김환기와 재혼하였으며 김환기 사후 남편의 유작을 돌보 며 환기미술관을 설립
  - 1944년 결혼과 함께 성북리 274-1번지의 김용준의 집 ‘노시산방’을 물려받아 신혼 생활 시작

- 조지훈(趙芝薰, 1920~1968)
  - 시인·교수
  - 본명은 동탁(東卓). 경북 영양 출생
  - 1936년경 혜화전문 입학을 위해 상경 후 명륜동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 1941년경 성북리 60-44번지로 이사

- 미술
  - 김용준(金溶俊, 1904~1967)
    - 화가·미술평론가·미술사학자·수필가
    - 호 근원(近園)·선부(善夫)·검려(黔驢)·우산(牛山)·노시산방주인(老柿山房主人), 경북 선산 출생
    - 1934년부터 1944년까지 성북리 274-1번지에서 가족과 함께 지냄(노시산방)

- 김복진(金復鎭, 1901~1940)
  - 조각가, 평론가 김기진의 형
  - 호 정관(井觀). 충북 청원(현 청주시) 출생
  - 제1세대에 속하는 우리나라 근대조각의 효시로서, 처음으로 서구식 조소 기법을 도입
  - 형 김복진과 함께 성북리 175번지 거주
  - ※ 1934년 12월 13일 새벽 김복진, 김기진 외 수 명이 신건설사 사건으로 검거

- 김환기(金煥基, 1913~1974)
- 서양화가, 김향안의 남편
- 호 수화(樹話). 전남 신안군 안좌도 출생
- 일본대학 재학 시절인 1934년 아방가르드미술연구소를 만들고 추상미술운동 참여
- 1937년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길진섭(吉鎭燮) 등과 백만회(白蠻會)를 조직하고 개인전을 통하여 신미술 운동에 적극 참여
- 광복 후 1946년에서 1949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사실파(新寫實派)를 조직, 새로운 모더니즘 운동을 전개
- 1944년 김향안과 결혼 후 결혼과 함께 성북리 274-1번지의 김용준의 집 ‘노시산방’을 물려받아 신혼생활 시작(1948년 종로구 원서동으로 잠시 이사하였다가 성북동 31-2번지로 이사)

- 음악
  - 채동선(蔡東鮮, 1901~1953)
  - 전남 보성 출생
  - 일본 와세다대학 영문과 졸업 후 베를린에 유학, 바이올린과 작곡을 배운 뒤 1929년 귀국
  - 1932년부터 작곡을 시작하여 1932년 〈고향〉, 〈내 마음은〉, 〈바다〉 등을 작곡
  - 피아니스트 이소란과 결혼 후 성북동 언덕에 양옥집을 짓고 생활
    - ※ 성북동 183-17번지(현재 당시 가옥 보존)
  - 6.25전쟁 때 피난지 부산에서 병사

### 3. 관련 자료

- 「성북동의 문인촌」·「세검정의 문인촌」, 『삼천리』제5권 제10호(1933. 10. 1)

#### 城北洞의 文人村

서울 부근은 모다 山紫水麗하여 냇날 이곳을 수도로 잡은 無學大師의 선견지명에 누구나 경탄하거니와 그 중에도 東小門 맞 城北里는 泉石의 미관, 공기의 청정으로 유명하야 근래에 城안 사람들이 이주함이 만다. 그런데 이러케 한적한 근교인데다가 오리 동주리가치 지형이 아름다워 예술을 벗삼는 문인들이 만히 나가 사라서 一種 文人村인 듯한 광경을 이루고 있다. 오늘까지 벌써 그곳 나가서 집 짓고 永住하는 이에 시인에 金岸曙 女流文士에 金一葉 평론가에 金基鎭 소설가에 李泰俊 평론가에 洪曉民 老論客 李鍾麟 등의 諸氏가 있다.

#### 洗劍亭의 文人村

東에 城北洞이 있다면 西에 또한 洗劍亭이 잇노라 하리만치 장구의 랑쪽 모양으로 東西에 벌너서 文人村을 다투는 곳이 洗劍亭이다. 紫霞門 맞 洗劍亭이 山水 조왓든 것은 역사에 昭然한 사실이다. 이곳에 永住하려고 터전을 잡은 이에 소설가 玄鎭健氏가 잇고 최근에 또 평론가 金瓊載氏가 이주하였스며 政客 徐廷禧翁도 나가서 산다. 아마 자차로도 文人論客이 洗劍亭 부근으로 만히 나가 살니라 함이 필연의 勢일 것 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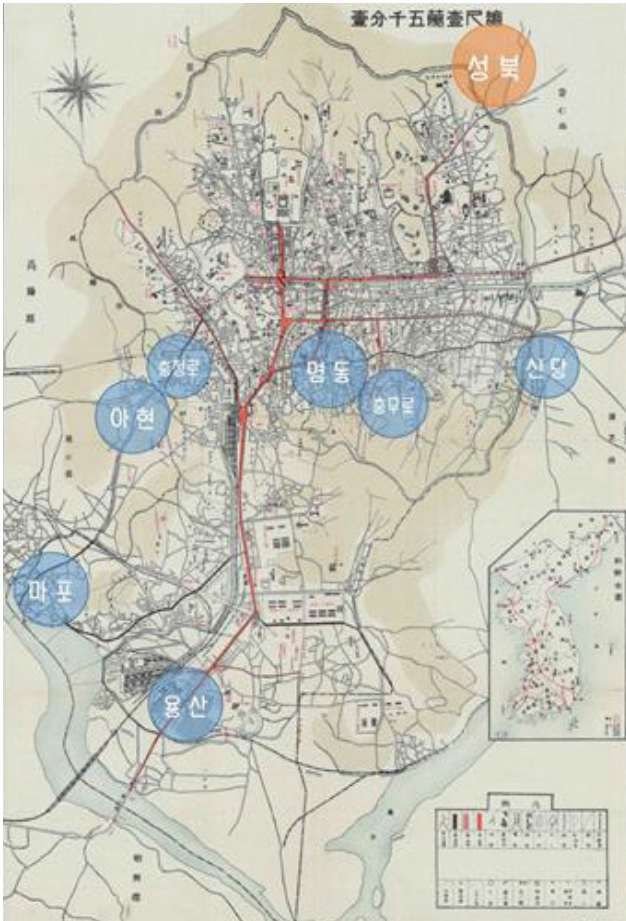
- 「문단왕래」, 『개벽』신간 제3호 (1935. 1. 1)

한동안 城北洞이 文士村이라고 하드니 近間에는 彰義門外가 文士村이 되어간다. 城北洞에는 金億, 李泰俊, 盧子泳, 金基鎭氏等이고 彰義門外에는 李光洙, 玄鎭健, 嚴興燮, 宋影氏等이다. 말하자면, 東部의 文士村, 西部의 文士村 옛날같으면 『편썸』이라도 한번해볼만한 일이지만 人物이 文士들이라 武氣는 大禁物이나 文筆競爭은 한번쯤 해볼만한일이다 西部文士村에는 詩人이 없는 것이 遺憾이고 東部文士村에는 詩人이 꼭한사람만이 잇는 것이 孤獨하다.

## [ 19] 근대 신문화운동의 거점, 성북동

### 1. 성북동의 입지조건

- 민족운동 공간의 이동
  -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 신간회 해소, 좌익운동 탄압 등의 북촌 중심의 합법적 민족운동 공간의 상실로 북촌 중심의 민족운동의 쇠퇴
  - 민족운동의 중심 세력과 문화 예술인들의 사대문 밖, 특히 성북동으로 이동
- 조선인 거주 개발 공간
  - 성북동 일대는 일본인이 주도한 식민지사회에서 한국인이 집단적으로 주거하면서 한국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서울의 주거공간으로 부상
    - ※ 용산, 신당동, 충정로, 아현동, 마포 등지에는 일본인 중심의 신시가지 건설
- 교육 인프라 풍부 : 주변에 조선인 고등교육기관 밀집
  - 주변에 경성제대(동승동), 혜화전문(혜화동), 보성전문(안암동), 경성고등상업학교(종암동), 경성제대예과(청량리) 등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대학 수준 교육기관 밀집
  - 고등교육기관 중앙고보(계동), 보성고보(혜화동), 동성상업학교(혜화동) 설립·이전



[그림33] 일제강점기 경성부 내 일본인 다수 거주 지역(파란색 원)과 조선인 거주 지역(주황색 원)의 구분



2. 조선학(한국학)의 용광로 『문장』지

- 연혁
  - 1939년 2월 1일 창간되어 1941년 4월 통권 26호에서 일제의 강압으로 폐간된 일제강점기 말기에 한글로 발간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예종합지
  - 발행인은 이태준의 친구이자 갑부로 알려진 김연만(성북동 거주)
  - 잡지의 운영과 편집을 이태준, 정지용 등 구인회 그룹이 주도
- 특징
  - 표지의 제자를 추사 김정희 필적의 집자(集字)로 할 정도로 『문장』은 일제의 한글과 문화탄압이 강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좌우파의 이념을 넘어 한국적 정신문화 유산을 지켜내고자 한 당대 최고의 ‘조선학(문화) 매거진’
  - 이광수, 김동인, 이효석, 박태원, 김영랑, 김유정, 나도향, 김기림, 김광균, 안희남, 유진오, 이기영, 임화, 김남천 등 좌우파를 막론한 당대 최고의 소설가와 시인의 작품 수록
  - ‘청록파’와 같은 신인들이 『문장』 추천을 통해 등단
  - 이육사 「절정」,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등 발표
  - 이병기, 이희승, 양주동, 조운제, 손진태, 최현배, 송석하 등 고전, 한글, 민속학, 어문학 등 한국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학술 연구 논문을 꾸준히 소개
  - 소설 182편, 국문학 35편, 시 172편, 시조 25편, 평론·학예 129편, 수필 187편, 기타 172편이 이 잡지를 통해 발표됨
- 당대 최고 화가들이 참여한 동양화적 전통을 구현한 표지디자인
  - ‘김용준을 책임자로 하여 길진섭, 김환기, 정현웅, 구본웅, 이상범 등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표지디자인과 속지 삽화, 그림 등에 참여



[그림34] 『문장』 1939년 5월호 표지와 후기. 이태준(李泰俊), 정지용(鄭芝溶), 이병기(李秉岐), 김연만(金鍊萬), 길진섭(吉鎭燮), 이희승(李熙昇), 정인택(鄭人澤)의 이름이 보인다.

3. ‘출판미술’(단행본 장정)을 통한 문학과 예술의 만남

- 단행본 장정
  - 성북동 거주 화가들이 성북동 동료 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행본의 장정에 참여
  - 단행본 장정에 한국전통 이미지와 동양화법을 적용해 한국적 출판디자인 양식을 개척
- 사례
  - 김용준
    - 이태준 등 문인들과 활발한 교류
    - 전통적인 문양과 한국적 회화 전통을 근대적인 단행본의 표지 이미지와 결합
    - 주요 장정
      - ▶ 이태준의 작품집 : 『달밤』, 『무서록』, 『돌다리』, 『복덕방』
      - ▶ 기타 : 『문장』, 『청록집』, 『지용시선』 등



[그림35] 『무서록』과 『문장』 표지

- 김환기
  - 서양화의 추상, 반추상적 기법을 표지 디자인에 적용
  - 주요 장정
    - ▶ 『해방문학선집』(1948, 종로서원)
    - ▶ 이태준, 염상섭, 김동리 등 9인의 단편소설집.
    - ▶ 표지 그림(김환기), 본문 삽화(김용준)
    - ▶ 윤동주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55년 증보판)



[그림36] 『해방문학선집』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표지



- 배정국
- 문살, 떡살 문양 등 한국의 미술 전통을 응용한 표지 디자인
- 주요 장정
  - ▶ 이태준, 『상허문학독본』(1946, 백양당) (우)
  - ▶ 이병기, 『가람시조집』(1947, 백양당) (좌)



[그림37]  
『가람시조집』과 『상허문학독본』 표지

- 기타
- 김기창, 변중하, 서세옥

#### 4. 출판인 배정국과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허브) 승설암

- 승설암
  - 성북동 270번지(現 국화정원 식당)
  - 서예가이자 출판인 배정국의 성북동 집
  -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허브) 역할
- 승설암도(손재형, 1945)
  - 이태준의 요청으로 승설암 사랑채에서 손재형이 그린 그림
  - 집주인 배정국을 비롯하여 소설가 이태준, 서양화가 김환기, 서예가 손재형, 동양화가 조중현, 치과의사 함석태 등 성북동을 중심으로 교류했던 소설가, 화가, 서예가들이 등장해 당시 승설암이 문화예술인들의 교류공간이었음을 증언
  - 화제(畫題)
    - 원문 : 乙酉 清明日夜 來遊於勝雪齋閒庭 尙虛仁兄索余畫寫此 卽景圖以誌一時盛會同集者 土禪·仁谷·毛庵·心園·樹話·素荃
    - 국역 : 을유년(1945년) 청명날 밤에 승설암의 한가한 뜰에 와서 놀았다. 상허(이태준) 인형이 나에게 이를 그려 달라 하므로 즉시 눈앞의 광경을 그려 일시의 성회(盛會)에 함께 모인 자가 토선(함석태), 인곡(배정국), 모암(성명 미상), 심원(조중현), 수화(김환기), 소전(손재형)임을 기록하여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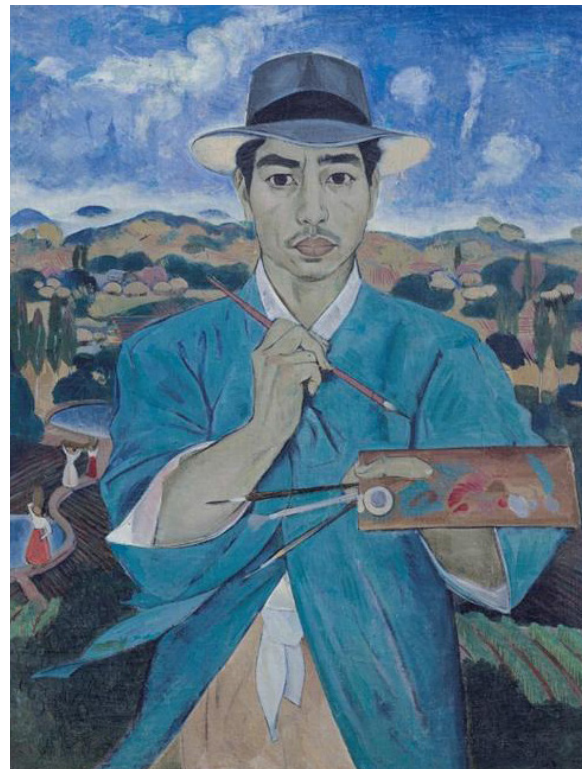
[그림38] 손재형, 〈승설암도〉(1945)



[그림39] 국화정원 식당(옛 승설암 자리)

#### 5. 이쾌대와 성북회화연구소

- 이쾌대
  - 한국적 전통(가치)을 서양화풍에 담으려고 시도한 화가로 한국적 서양화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한 화가로 평가 받음
  - 해방 직후 활발한 작품을 발표하여 역사의 목격자이자 기록자로서 분단과 좌우 이념갈등으로 치닫던 해방 공간의 비극적 민족현실을 화폭에 담은 여러 작품을 남김
  - 신미술가협회 조직(1941)
  - 1941년 3월, 이중섭, 최재덕, 김종찬, 김준, 진환, 김학수 등과 함께 조직
  - 일제에 굴하지 않고 민족적 미의식에 바탕을 둔 향토적 서정을 담아내고자 노력
  - 김은호, 김기창, 이상범 등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들이 일제의 전쟁 전선 미술에 동원된 것에 대항
- 성북회화연구소의 설립
  - 해방 후 1947년 이전에 설립(돈암동 458-1, 현 동소문동 3가 태화장모텔 자리)
  - 이쾌대, 이곳에서 〈군상 I - 해방고지〉, 〈조난〉 등 해방 후 대형 문제작 완성
  - 성북회화연구소 출신 화가들
    - 【회화】조덕환, 신영현, 김숙진, 이용환, 김서봉, 심죽자, 이영은, 남경숙, 장성순, 김창열, 나혜균
    - 【조각】권진규, 전뢰진
    - 【공예】정정희, 황종례
    - 【사진】이완섭
-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
  - 한국식 푸른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쓰고,
  - 서양 팔레트를 한손에 바쳐 들고 한 손에는 동양식 모필을 든 모습
  - 한국적 전통을 서양화기법으로 재현하고자 한 그의 작품 세계의 지향과 의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림



[그림40] 이쾌대,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1948)



[그림41] 성북회화연구소에서 데생을 하고 있는 화가들



[그림42] 성북회화연구소에서 이쾌대



6. 관련 자료

- 『문장』호수별 목차(총 26호 발행)
  - 제 1권 제 1호(1939. 2)
    - 편집부, 時局과 文筆人
    - 이광수, 無明
    - 현 민, 離婚
    - 이효석, 山精
    - 이태준, 寧越令監
    - 혜경궁 홍씨, 恨中錄(이병기 역)
    - 라옥스, 一九三八年度 노벨賞受賞者 펄벅 女史 (문단 동정)
    - 박종화, 石窟庵
    - 金尙鎔, 어미소
    - 毛允淑, 잠든 눈
    - 임 화, 失題：벗이 나는 이즈음 자꾸만 하나의 運命이란 것을 생각코 있다
    - 이양하, 松田風景
    - 이원조, 敎養論：知性論의 發展으로서의
    - 梁柱東, 文章論
    - 안희남, 作家朴泰遠論
    - 李熙昇, [朝鮮文學研究Ⅰ(一)]歌詞「토끼화상」의 解說
    - 金鎔俊, 李朝時代의 人物畵：主로 申潤福·金弘道를 論함
    - 金東仁, 身邊雜感
    - 金普燮, 文章私談
    - 崔貞熙, 소리
    - 高裕燮, 靑瓷瓦와 養怡亭
    - 朴允進, 盂蘭盆
    - 宋錫夏, 蒐集斷想
    - 金眞火, 從軍畵展覽會를 보고
    - 이태준, 文章講話 (一)
    - 편집부, 餘墨

- 제 1권 제 2호(1939. 3)
  - 金東仁, 金妍實傳
  - 李 箱, 失花
  - 金남천, 綠星堂
  - 안희남, 愁心
  - 朴魯甲, 거울
  - 이태준, 寧越令監 (完)
  - 정지용, 長壽山 1
  - 정지용, 長壽山 2
  - 이병기, 梅花：古木된 野梅를 數年기르다 얻어 죽이고

- 변영로, 微想
- 金敎煥, 第五運命頌
- 박종화, 毘盧峯
- 金斗憲, 노다지
- 毛允淑, 右心室
- 徐斗銖, 山上迷想
- 오장환, 愛書趣味
- 崔貞熙, 달밤
- 蔡善葉, 朝鮮時와 聲樂
- 길진섭, 寫生과 感情
- 洪鍾仁, 꿈과 民衆
- 白 鐵, 文學과 映畵：文藝作品을 映畵化하는 問題
- 金文輯, 數意識의 直感的 樣相：藝術哲學의 根本問題로서
- 梁柱東, 近古文選
- 火野葦平, 「흙과 兵隊」에서
- 火野葦平, 「담배와 兵隊」에서
- 林芙美子, 「戰線」에서：(가) 젊은 少尉의 死
- 林芙美子, 「戰線」에서：(나) 눈물의 漢口入城
- 편집부, 雜記帳\_訥史
- 趙潤濟, [讀書餘墨 (1)] 申象村의 「詩餘」에 對하야
- 李熙昇, [朝鮮文學研究鈔 (二)] 「새타령」解說
- 惠慶宮洪氏, 恨中錄(이병기 역)
- 이태준, [文章講話 (二)] 第二講 文章과 言語의 諸問題
- 편집부, 餘墨

- 제 1권 제 3호(1939. 4)
  - 이기영, 少婦
  - 蔡萬植, 敗北者의 무덤
  - 정인택, 蠶動
  - 최태웅, [推薦小說] 바보 용칠이
  - 예일스, [戯曲]窓살에 남은 詩句
  - 정지용, 春雪
  - 정지용, 白鹿潭
  - 이병기, 蘭草
  - 金永鎭, 樂浪古鏡賦
  - 金東煥, 情怨集
  - 柳致環, 日月
  - 白 石, 넘언집 범같은 노큰마니
  - 임학수, 曠野에 서서
  - 趙芝薰, [推薦詩] 古風衣裳
  - 金鍾漢, [推薦詩] 歸路

- 黃民 ?, [推薦詩] 鶴
- 정지용, 詩選後에
- 이태준, 小說選後에
- 金普燮, 忘却의 辯
- 金東仁, 古物
- 田榮澤, 聖書와 文章
- 高裕燮, 畵金靑瓷와 香閣
- 孫晋泰, 檀君壇君
- 이태준, 模倣
- 泰長燮, 自然으로 도라가는 마음
- 李甲洙, 不汗黨
- 徐斗銖, 妄論「春香歌·春香傳」
- 朱永涉, 朝鮮映畵 展望
- 梁柱東, 近古文選(二)
- 金용준, 李朝의 山水畵家
- 李熙昇, [朝鮮文學研究鈔] 歌詞「瀟湘八景」解說
- 편집부, 戰線文學選
- 惠慶宮洪氏, 恨中錄(이병기 역)
- 이태준, 文章講話 (三)
- 편집부, 餘墨

- 제 1권 제 4호(1939. 5)
  - 한설야, 泥濘
  - 金東仁, 先驅女 (上)
  - 玄 民, 가을：또는 杞壺의 散步
  - 金東里, 黃土記
  - 鄭鎭業, [推薦小說] 카추-샤에게
  - 이태준, 小說選後
  - 박종화, 靈鍾 I
  - 박종화, 靈鍾 II
  - 毛允淑, 너를 생각할 때는
  - 이희승, 海棠
  - 임학수, 불
  - 李漢稷, [推薦詩] 風葬
  - 李漢稷, [推薦詩] 北極圈
  - 趙貞順, [推薦詩] 아미의 그늘
  - 金洙敦, [推薦詩] 召燕歌
  - 金洙敦, [推薦詩] 故鄉
  - 李 箱, 東京(遺稿)
  - 이원조, 常識文學論
  - 李秉岐, 典故眞實論：恨中錄에 대하여
  - 정지용, 詩選後
  - 金文輯, 再生이광수論 (上)
  - 박태원, 畜犬無用의 辯
  - 方鍾鉉, 言語片感

- 김동인, 뜬어낸 글
- 高永煥, 그 女子
- 異河潤, 메모狂
- 정인택, 淡淡記
- 李善熙, 作亂
- 金鎔俊, 去俗
- 朱耀翰, 나의 愛誦詩
- 梁柱東, 近古文選(三)\_東西奇文譯鈔
- 편집부, 上空一五〇〇米
- 편집부, 特務兵隊
- 편집부, 戰場의 道德
- 惠慶宮洪氏, 恨中錄(이병기 역)
- 편집부, 文章講話(四)
- 편집부, 餘默

- 제 1권 제 5호(1939. 6)
  - 崔明珣, 心紋
  - 金남천, 장날
  - 이태준, 蒼空
  - 이태준, 阿蓮
  - 韓炳珏, 少女
  - 아더스추링거, 魔術師
  - 김기림, 에노시마
  - 辛夕汀, 들길에 서서
  - 白 石, 童尿賦
  - 柳致環, 頌歌
  - 金玼燮, 마음
  - 金東鳴, 하늘
  - 金鍾漢, 故園의 詩
  - 金鍾漢, 그늘
  - 朴斗鎭, 香峴
  - 朴斗鎭, 墓地頌
  - 李漢稷, 羈旅
  - 정지용, 詩의 擁護
  - 柳子厚, 文章論
  - 金文輯, 再生이광수論
  - 李熙昇, 歌詞「江湖別曲」解說
  - 金鎔俊, 崔北과 林熙之
  - 안희남, 病苦
  - 金煥基, 線
  - 高亨坤, 안해와 집
  - 金 管, 토오키 音樂
  - 玄 德, 살구꽃
  - 金兌鎭, 沐浴
  - 鄭槿陽, 봄移徙

- 李雲谷, 滿洲의 印象
- 梁柱東, 近古文選
- 李秉岐, 靑丘永言
- 李源朝, 少年行
- 孫晉泰, 震檀學報
- 趙潤濟, 하멜漂流記
- 혜경궁홍씨, 恨中錄(이병기 역)
- 편집부, 文章講話
- 편집부, 餘墨

-----

- 제 1권 제 6호(1939. 7)
- 박태원, 골목안
- 이기영, 古物哲學
- 정인택, 迷路
- 郭夏信, 마냥모
- 박종화, 孀婦歎
- 김영랑, 五月
- 김기림, 瀨戶內海
- 金東鳴, 하늘
- 曹南嶺, 窓 : 어느 스승님께
- 曹南嶺, 金山寺
- 吳信惠, 수양버들
- 이병기, 時調를 뽑고
- 이광수, 山居記
- 崔載瑞, [文藝時評] 現代小說과 主題
- 金煥泰, 詩人金尙鎔論
- 임학수, 北支見聞錄(一)
- 朴允進, 역성
- 丁來東, 蟾津江上流
- 朱慶 ?, 畫家自我認識
- 朴魯甲, 借家難
- 오장환, 讀書餘談
- 崔文鎭, 금부처
- 盧子泳, 靑燈小記
- 韓黑鷗, 灰燼
- 梁柱東, 近古文選 (五)\_東西奇文譯鈔
- 嚴興燮, 韓仁澤君 : 그의 人間과 藝術의 一面
- 李源朝, [金尙鎔 著] 望鄉
- 金文輯, 二心
- 崔貞熙, [金東仁 著] 金東仁短篇選
- 惠慶宮洪氏, 恨中錄(이병기 역)
- 이태준, 文章講話 (六)\_第三講
- 편집부, 餘墨

-----

- 제 1권 증간호 창작 32인집 (1939. 7)
- 李孝石, 皇帝
- 田榮澤, 첫 미음
- 張德祚, 黃昏
- 한설야, 술집
- 玄卿駿, 少年錄
- 金東里, 짚레꽃
- 朴魯甲, 春顏
- 方仁根, 가슴에 심은 花草
- 嚴興燮, 黎明
- 金永壽, 喪章
- 蔡萬植, 斑點
- 朴榮濬, 義手
- 宋 影, 女僧
- 郭夏信, 나그네
- 桂鎔默, 夫婦
- 玄 民, 나비
- 이태준, 農軍
- 김남천, 길우에서
- 李 薰, 晩秋 (全一幕)
- 鄭飛石, 祕密
- 金沼葉, 破綻
- 안희남, 鬪鷄
- 李根榮, 理髮師
- 咸大勳, 聖愛
- 金承久, 배꼽쟁이 朴書房의 歸鄉
- 李揆元, 슬픈 點景
- 정인택, 動搖
- 이기영, 野生花
- 박태원, 崔老人傳 抄錄
- 이광수, 꿈
- 金來成, [探偵小說] 屍琉璃
- 安夕影, [映畫小說] 허무러진 花園
- 편집부, 餘墨

-----

- 제 1권 제 7호 (1939. 8)
- 한설야, 種痘
- 李 薰, 라일락 時節
- 송 영, 尹氏一家
- 林玉仁, [推薦小說] 鳳仙花
- 이태준, 小說選後
- 李陸史, 靑葡萄
- 金教煥, 벗이옵니다
- 辛夕汀, 작은 짐승
- 李秉珪, 期約

- 金東鳴, 하늘 : 其三
- 李漢稷, [推薦詩] 溫室
- 李漢稷, [推薦詩] 駱駝
- 金鍾漢, [推薦詩] 할아버지
- 金鍾漢, [推薦詩] 系圖
- 편집부, 駐屯記
- 편집부, 非戰鬥員
- 편집부, 匪賊
- 편집부, 病院船
- 이광수, 山居記(續)
- 尹圭涉, 現代小說讀者論
- 金東里, 「純粹」異議
- 方鍾鉉, 「正音說明」所感
- 李熙昇, 朝鮮文學研究鈔 (五)「遊山歌」解說
- 李秉岐, 西湖의 밤
- 徐斗銖, 오페라백과 K教授
- 梁在廈, 文化遺産의 相續
- 高永煥, 可憐한 人生!
- 金용준, 孤獨
- 蔡萬植, 「말」 몇 個
- 金晩炯, 幸福
- 高裕燮, 八方金剛座
- 異河潤, [나의 愛誦 詩] 抒情의 精髓
- 임학수, 北支見聞錄 (二)
- 梁柱東, [近古文選 (六)] 東西奇文譯鈔
- 惠慶宮洪氏, 閑中錄 (第七回)
- 이태준, [連載] 文章講話 (七)
- 편집부, 餘墨

-----

- 제 1권 제 8호 (1939. 9)
- 이광수, 靄庄記
- 崔貞熙, 地脈
- 최태응, [推薦小說] 봄
- 이태준, 小說選後
- 에이·혁슬리, [海外小說] 肖像畫
- 변영로, 땅거미길때
- 劉道順, 百合花 피던 날
- 劉道順, 寂寞
- 임학수, 娘子關
- 金永鎭, 吊荊軻
- 朴斗鎭, [推薦詩] 落葉松
- 朴木月, [推薦詩] 길처럼
- 朴木月, [推薦詩] 그것은 年輪이다
- 정지용, 詩選後
- 金鍾漢, 나의 作詩設計圖 : 詩에 要求할 思想性

- 李漢稷, 한
- 文章社, 두 新人의 뒤에서
- 편집부, 1 東洋의 南端
- 편집부, 2 蘇聯機空襲
- 印貞植, 「大地」에 反映된 亞細亞의 社會
- 徐寅植, 歷史와 文學
- 편집부, [文藝時評] 最近小說의 主人公
- 金용준, [畫壇春秋] 靑田李象範論
- 김기림, 東洋의 美德
- 金廷漢, 섬색시
- 文仁柱, 濟州島
- 李孝石, 上下의 倫理
- 朱永涉, 歸鄉記
- 박태원, 雜誌
- 咸錫泰, 工藝美
- 이태준, 木手들
- 임학수, 北支見聞錄(三)
- 박태원, 이광수短篇選
- 정인택, 보리와 兵丁
- 金光均, 獻詞
- 梁柱東, 近古文選(七)
- 惠慶宮洪氏, 恨中錄(第八回)
- 이태준, 文章講話(八)

-----

- 제 1권 제 9호 (1939. 10)
- 崔貞熙, 肖像
- 李無影, 挑戰
- 안희남, 謙虛
- 蔡萬植, 摸索
- 박태원, 陰雨
- 宣鎭秀, [推薦小說] 失人記
- J. Joyce, [海外小說] 셸러리맨
- 李軒求, 戰爭과 文學
- 朴英熙, 學生과 文學
- 안희남, 女性과 文學
- 이원조, 市民과 文學
- 임 화, 農民과 文學
- 박종화, 十一面觀音菩薩
- 변영로, 失題
- 白 石, 咸南 道安
- 임학수, 北京의 新婦
- 金洙敦, [推薦詩] 冬眠, 駱駝
- 朴南秀, [推薦詩] 深夜, 마을
- 金相沃, [推薦時調] 鳳仙花
- 이병기, 時調를 뽑고



- 편집부, 戰線文學選
- 이원조, 戰線文學選
- 정지용, 詩와 發表
- 韓植?, 詩의 現代性: 或은 現代와 詩精神
- 金鍾漢, 詩文學의 正道: 참된「詩壇의 新世代」에 게
- 吳泳鎭, 映畫와 文學의 交流
- 李熙昇, [學藝] 朝鮮文學研究鈔(六)「梅花歌」解 說
- 朴允進, [學藝] 佛所行讚私記
- 金瑑俊, [學藝] 畫壇春秋 - 繪畫的苦惱과 藝術的 良心
- 柳光烈, 圍碁漫筆
- 高裕燮, 朴淵說話
- 李陸史, 橫厄
- 金來成, 文字의 幻影
- 金時昌, 密航
- 李允熙, 秋裝
- 洪蘭坡, 指揮者의 感銘
- 金煥泰, 讀書餘錄: 文法上의 「時形」에 對하여
- 金남전, 同時代人의 距離感
- 박종화, 金南天 新刊評
- 梁柱東, 近古文選(八)
- 惠慶宮洪氏, 恨中錄(第九回)
- 편집부, 文章講話(九)
- 편집부, 餘墨

-----

- 제 1권 제 10호 (1939. 11)
- 田榮澤, 男妹: 병든 누이와 그
- 金東里, 玩味說
- 박태원, 陰雨(續)
- 金幽影, [시나리오] 處女湖
- 柳雲卿, [推薦小說] 조갯살
- 이태준, 小說選後
- 嚴良才, [中國小說] 最後의 慰安
- 편집부, 戰線文學選
- 편집부, 沈默의 巨匠 玄鎭健의 文學從橫談
- 이광수, 卽興
- 김영랑, 毒을 차고
- 毛允淑, 殘影
- 李漢稷, 家庭
- 申辰淳, [推薦詩] 다듬질
- 朴南秀, [推薦詩] 酒幕
- 鄭寅燮, 動亂의 歐洲를 생각함
- 정지용, 詩의 威儀

- 金煥泰, [文藝詩評] 純粹是非
- 安英一, 演劇의 根源性
- 정지용, 詩選後
- 金文輯, 性生의 藝術論: 無名女流作家Y嬢에게
- 알렉산더·피스콜, 波蘭의 現代文學
- 金瑑俊, [畫壇春秋] 翰墨餘談
- 이기영, 國境의 圖們: 滿洲所感
- 安自山, 鄉歌와 武士
- 李河潤, 집없는 故鄕
- 金煥基, 自畫像其一
- 朴魯甲, 小聞抄
- 印貞植, 農民과 言語
- 玄卿駿, 中毒者들의 말
- 柳光烈, 圍碁漫筆(續)
- 이태준, 讀者의 편지
- 편집부, 新刊評
- 梁柱東, 近古文選(九)
- 惠慶宮洪氏, 恨中錄(第十回)
- 朴趾源(李允宰 역), 渡江錄
- 편집부, 餘墨

-----

- 제 1권 제 11호 (1939. 12)
- 李孝石, (戲曲) 歷史
- 李無影, 어떤 안해
- 金裕貞, 애기
- 郭夏信, (推薦小說) 沙工
- 이태준, 小說選後
- 惠慶宮洪氏, 恨中錄(第十一回)
- 편집부, 戰線文學選
- 辛夕汀, 슬픈 傳說을 지니고
- 李秉珏, 가을밤
- 편집부, 비오는 거리
- 김기림, 겨울의 노래
- 金鍾漢, 길
- 趙芝薰, (推薦詩) 僧舞
- 朴木月, (推薦詩) 산그늘
- 曹南嶺, (推薦時調) 鄉愁
- 이병기, 時調를 뽑고
- 玄鎭健, 歷史小說 問題
- 정지용, 詩와 言語
- 鄭寅燮, 動亂의 歐洲를 생각하며
- 이원조, [文藝時評] 純粹는 무엇인가
- 金瑑俊, [學藝] 吾園軼事
- 정지용, 詩選後
- 尹圭涉, 文學의 根本問題: 十一月創作評

- 李秉岐, 書卷氣
- 金來成, 蒼白한 腦髓
- 吳宗植, 味學小考
- 박태원, 雜說
- 이태준, 文房雜記
- 金晩炯, 옥어지국
- 李 薰, 쇠당나귀「通勤記」
- 桂鎔默, 放書恨
- 朴允進, 蝾龍窟과 普賢寺
- 印貞植, 時局과 文化
- 梁柱東, 近古文選(完)
- 朴趾源, 渡江錄
- 편집부, 朝鮮文人協會 結成
- 편집부, 노벨文學賞受賞者「실란과 아」의 業績
- 편집부, 新刊評
- 임 화, 創作界의 一年
- 李軒求, 評壇一年의 回顧
- 金幽影, 映畫界의 一年
- 金承久, 己卯年 劇壇 回顧
- 길진섭, 畫壇의 一年
- 異河潤, 己卯詩壇 메모
- 편집부, 餘墨

-----

- 제 2권 제 1호 (1940. 1)
- 朴英熙, 明暗
- 李善熙, 蕩子
- 金廷漢, 月光恨
- 朴魯甲, 三人行
- 박태원, [長篇小說] 愛經(第一回)
- 앙드레·유르망, 포을·니장會見記
- 우라지밀·웨드레, 小說과 歷史
- 柳致環, 내 너를 내세우노니
- 申石艸, 劒舞娘
- 李陸史, 絶頂
- 朴南秀, [推薦詩] 距離
- 朴南秀, [推薦詩] 蟻
- 朴斗鎭, [推薦詩] 들菊花
- 金煥泰, 文學의 性格과 時代
- 印貞植, 內鮮一體의 新課題: 近衛·汪兩聲明과 南『레짐』
- 尹圭涉, [文藝時評] 批評과 作品의 多樣性
- 安自山, 時調詩와 西洋詩
- 李如星, 갓
- 김용준, 머리
- 咸錫泰, 淸福半日

- 安英一, 孤獨
- 金來成, 白哥姓
- 李根榮, 解産과 抽籤
- 金正革, 映畫의 精神
- 柳光烈, 碁局의 智識
- 편집부, 興亞展望
- 편집부, 戰場의 正月
- 편집부, 銃後報國
- 崔貞熙, 病室記
- 김기림, [新春座談會] 文學의 諸問題
- 鄭芝溶, 詩選后
- 玄卿駿, 나의 小說履歷
- 李軒求, 波濤없는 水準
- 惠慶宮洪氏, 恨中錄(第十二回)
- 朴趾源(李允宰 역), 渡江錄
- 편집부, 餘墨

-----

- 제 2권 제 2호 (1940. 2)
- 俞鎭午, 나의 文靑時代
- 박태원, 春香傳 耽讀은 이미 就學以前
- 이기영, 文學을 하게 된 動機
- 蔡萬植, 文學을 나처럼 해서는
- 李孝石, 驚馬의 十年
- 한설야, 나의 生命의 燃燒
- 안희남, 自己凝視十年
- 李無影, 回顧도 憂鬱한가
- 片石村, 文壇不參記
- 이태준, 小說의 어려움 이제 깨닫는듯
- 편집부, 어떤 青年의 懺悔
- 이광수, 亂啼鳥
- 金東里, 洞口앞길
- 박태원, [長篇小說] 愛經(第二回)
- 朴英鎬, (戲曲) 燈盞불(全三幕)
- 피요도르·솔로구브, 微笑
- 李人植, 血의淚
- 편집부, 戰線文學選
- 金鍾漢, 連峯霽雪
- 白 石, 木具
- 金瑑燮, 詩人의 倫理
- 임학수, 山
- 趙芝薰, [推薦詩] 鳳凰愁
- 이병기, 古書
- 朴斗鎭, 詩와 詩의 樣式
- 朴南秀, 朝鮮詩의 出發點
- 정지용, 愁離語

- E·M 포오스터, 戰爭과 讀書
- 세실·코놀티, 文學者は 무엇을 써야할까
- 정지용, 詩選后
- 朴英熙, 文學의 理論과 實際(一)
- 김기림, 科學으로서의 詩學
- 安含光, 文學上의 諸問題
- 정지용, 觀劇小記：「高協」第一回公演「정어리」에 對한것
- 이태준, 作家志望人을 爲하야
- 玄 民, 나의 pensées
- 蔡萬植, 南行記
- 尹圭涉, 完板
- 金 管, 風土와 音樂
- 朴魯甲, 金剛火
- 李秉珪, 외투記
- 金素雲, 失眠閑話
- 柳光烈, 圍碁漫筆(四)：碁戰의 原理
- 桂鎔默, 나의 小說修業
- 李秉岐, 仁顯王后傳(一)
- 이병기, 仁顯王后傳解說
- 朴趾源(李允宰 역), 渡江錄
- 편집부, 餘墨

-----

- 제 2권 제 3호 (1940. 3)
- 毛允淑, 未明
- 鄭飛石, 孤高
- 박태원, (長篇小說) 愛經 (第三回)
- 최태응, [推薦小說] 港口
- F. E. 실란페에, [노벨賞小說] 실리아
- 김동환, 春愁
- 오장환, 구름과 눈물의 노래
- 이희승, 칼렌더
- 柳致環, 편지
- 李漢稷, 늙새가 불면
- 말감·카우리아, 一九三〇年代의 文學
- 말감·카우리아, 理性人
- 이태준, 文章의 古典, 現代, 言文一致：「文章講話」노트에서
- 安英一, 轉向期の 朝鮮新劇
- 印貞植, 朝鮮文化의 特殊相
- 金煥泰, 主題의 選擇과 凝視：二月創作評
- 趙芝薰, 略歷과 느낌 두셋
- 임학수, 손
- 方鍾鉉, 식냥
- 林東爍, 茶房과 音樂

- 洪曉民, 一去三十年
- 崔泳柱, 隨筆
- 金昶濟, 古典과 誤謬
- 정인택, 鈍感錄
- 古鎭燮, 貧困
- 편집부, 戰線文學選
- 金東里, 나의 小說修業：「리알리즘」으로 본 當代作家의 運命
- 李秉岐, 仁顯王后傳
- 朴趾源, 渡江錄
- 편집부, 新刊評
- 편집부, 新刊
- 이병기, 古時調選
- 편집부, 推薦作品募集

-----

- 제 2권 제 4호 (1940. 4)
- 崔貞熙, 人脈
- 이기영, 왜가리
- 蔡萬植, 巡公 있는 日曜日
- 박태원, [長篇小說] 愛經
- 이태준, 新作家 최태응君
- 최태응, 饒舌錄
- 毛允淑, 河水로 간다
- 朴南秀, 寂境
- 金泰午, 田園風景
- 張應斗, [推薦時調] 寒夜譜
- 이병기, 時調選後
- 편집부, (文壇三十年紀念出版) 春園 이광수詩歌集
- 하인리히·만, 니이체
- 朴英熙, 文學의 理論과 實際(二)
- 金午星, 文學에 있어서의 彫刻性：現代美의 文學의構成
- 정지용, 愁誰語：봄
- 張赫宙, 文學雜感
- 尹圭涉, 三月創作評 其他
- 權相老, 黑風이 白風에게
- 李在郁, 寺刹과 版木
- 金聖泰, 直觀像과 作品
- 金煥基, 군담
- 오장환, 旅情
- 金昶濟, 古典과 誤謬
- 朴英鎬, 두루마기의 悲劇
- 盧聖錫, 美人薄命
- 편집부, 戰線文學選

- 정지용, 詩選後
- 李秉岐, 仁顯王后傳
- 朴趾源, 渡江錄
- 편집부, 新刊
- 편집부, 鼠大州傳
- 편집부, 餘墨

-----

- 제 2권 제 5호 (1940. 5)
- 李 薰, 負債：「모나리자」의 微笑
- 金永壽, 海面：小說家 Q氏와 그의 안해
- 이태준, 밤길
- 박태원, [長篇小說] 愛經(第五回)
- 林玉仁, [推薦小說] 孤影
- 李陸史, 日蝕
- 임학수, 捕縛된 독수리
- 柳致環, 夏日哀傷
- 趙芝薰, 霽月之曲
- 趙芝薰, 編磬
- 白樂天, 長恨歌
- 曹南嶺, 推薦時調\_봄
- 편집부, 時調選後\_가람 이병기
- 편집부, 戰線文學選
- 金東里, 新世代의 精神：文壇「新生面」의 性格, 使命, 其他
- 鄭寅燮, 「와이마르」紀行：「괴테」의 집을 찾아서
- 朴基采, 小說의 映畫化問題
- 편집부, 文化와 鬭爭：東亞의 新理念
- 朴英熙, 文學의 理論과 實際(三)
- 金 管, 音樂時評
- 高裕燮, 汲月堂雜識(1) 申世霖의 墓誌銘
- 이태준, 小說選後
- 金沼葉, 나의 小說修業
- 앙드레 모오로와, 戰線에 나가면서
- 피에르 마골랑, 感傷文化
- 白 鐵, 文學의 饒舌：四月創作을 읽고 나서
- 金永壽, 演劇 時評
- 李甲燮, 「便乘」의 心理
- 金泰洽, 交通地獄
- 金聖泰, 靈感：續作曲餘話
- 李秉珪, 五月의 마음
- 尹圭涉, 春愁
- 金晟鎭, 딸과 딸
- 趙東秀, 주검과 醫師
- 김기림, 斷念

- 李秉岐, 仁顯王后傳(四)
- 朴趾源, 渡江錄：熱河日記局一(7)
- 이병기, 兔鰲歌와 申五衛將
- 편집부, 歌劇本\_兔鰲歌：申五衛將 編

-----

- 제 2권 제 6호 (1940. 7)
- 편집부, 事變第三週年을 마지하며
- 최태응, 趣味와 딸과
- 趙容萬, 初終記
- 이광수, 金氏夫人傳
- 안희남, 어둠속에서
- 玄 民, 酒朋
- 玄 民, 노고지리우지진다：靑年의 日記과 作者의 數衍으로된이야기
- 崔仁俊, 帝高陽之苗裔兮
- 정인택, 業苦
- 이태준, 밤길(完)
- 朴泰遠, [長篇小說] 愛經 (第六回)
- 치초 마르, [海外小說] 秋夜
- 김동환, 抒情詩抄
- 白 石, 北方에서：鄭玄雄에게
- 毛允淑, 달 없는 밤에도
- 金珖燮, 날어난 눈물
- 오장환,江을 건너
- 이희승, 靜夜
- 爾豪愚, [推薦時調] 달밤
- 편집부, 가람 이병기
- 알 랭, 사람의 얼굴에 對하야
- 林語堂, 歸國해서
- 장 캣수우, 文學과「히로이즘」
- 金永壽, 演劇時評
- 尹圭涉, 現實主義의 傾向
- 曹南嶺, 내가 본 時調型
- 이원조, 昂星派와 佛語擁護論
- 이원조, 音樂時評
- 高裕燮, 居祖庵佛幀
- 편집부, 作家의 政治의 關心
- 편집부, 日支文化提携에의 길
- 李軒求, 朝鮮映畫人에게：素朴한 啓蒙的 數言
- 김남천, 映畫人에게 보내는 글
- 安夕影, 朝鮮文壇人에게
- 金 管, 散漫한 放言
- 朴榮濬, 孤獨：나의 小說修業
- 任英彬, 예전日記에서
- 韓稚振, 나의 허수아비 征服

- 鄭飛石, 移徙記：책을 팔다
  - 李歙河, 나의 所願
  - 張萬榮, 紅疫
  - 崔明翊, 手形과 原稿期日
  - 尹喜淳, 繪事閑想
  - 愼兌範, 初夏脚談
  - 李秉岐, 仁顯王后傳 (五)
  - 朴趾源, 渡江錄
  - 吉鎮燮, 美術時評
  - 宋錫夏, 鳳山假面劇脚本
  - 편집부, 外來語表記法
  - 편집부, 餘墨
  - 이병기, 新人曹南嶺君
- 
- 제 2권 제 7호 (1940. 9)
  - 任英彬, 閔氏와 土曜午後
  - 崔貞熙, 寂夜
  - 金東里, 다음 港口
  - 玄卿駿, 첫사랑：少年錄第二章
  - 朴魯甲, 먼동이 트기 전에
  - 박태원, [長篇小說] 愛經(第七回)
  - 趙容萬, 別莊：一幕喜劇
  - 이태준, 通俗性：其他
  - 김영랑, 春香
  - 朴斗鎭, 나의 하늘은 푸른대로 두시라
  - 柳致環, 蜀葵있는 漁村
  - 金光均, 荒涼
  - 朴木月, 가을 어스름
  - 朴木月, 年輪
  - 高裕燮, 仁王霽色
  - 편집부, 文藝銃後運動 半島各都에서 盛況
  - 한설야, 北京通信\_萬壽山紀行
  - 이광수, 中日文化合作論
  - 印貞植, 朝鮮農村의 現實과 文化導入의 좁은 門
  - 金鎮元, 支那詩文學의 性格
  - 大佛次郎, 襄東作戰從軍記
  - 高亨坤, 支離
  - 吳宗植, 白銅舌盒
  - 李陸史, 靑蘭夢
  - 崔泳柱, 校正
  - 趙宇植, 古典과 가치：抽象作家의 말
  - 李漢稷, 二十世紀의 野蠻
  - 李秉岐, 仁顯王后傳\_六
  - 趙潤濟, 朝鮮小說史概要
  - 편집부, 音樂時評

- 孫晋泰, 巫覡의 神歌
- 
- 제 2권 제 8호 (1940. 10)
  - 李孝石, 哈爾濱
  - 이태준, 文章講和
  - 金남천, 經營
  - 이태준, 딸삼형제
  - 李根榮, 孤獨의辯
  - 金廷漢, 秋山堂과 결사람들
  - 박태원, 小說家 박태원氏의 一日
  - 桂鎔默, 戲畵
  - 마아틴 · 아암스즈롱, [海外小說] 낭만적氣質
  - 편집부, 理研비타민
  - 편집부, 新體制에의 文化團體
  - 朱耀翰, 松田서
  - 朱耀翰, 故宮
  - 朱耀翰, 金剛山火
  - 편집부, 獨坐
  - 편집부, 長吟
  - 편집부, 海門의아침
  - 曹南嶺, 時調 蘆湖：箱根紀行
  - 曹南嶺, 駒岳：箱根紀行
  - 毛允淑, 음성
  - 申石艸, 翡翠斷章
  - 徐廷柱, 西風賦
  - 佐藤春夫, 文化開發의 길：文學者로서의 對支方策
  - 田 原, 興亞建國의 特殊性和 普遍性
  - 朴鍾和, 歷史小說과 考證
  - 편집부, 新推薦制
  - 曹南嶺, 現代時調論
  - 高裕燮, 仁齋 姜希顔 小考
  - 金嵐人, 金海剛 詩集 靑色馬
  - 韓 植, 詩와 批評과
  - 金尙鎔, 望鄉
  - 金 管, 午前十一詩의 토오키이美學論：토오키이音樂에關한프라아그멘트로서
  - 편집부, 明治紅茶
  - 白 鐵, 現實과意味, 그리고 作者의私世界：九月 創作讀後感
  - 편집부, 榮光寫眞館
  - 朴木月, 餘白
  - 이병기, 古歌詞二篇
  - 金正革, 映畵時評
  - 李丙燾, 朝鮮水田 起源考

- 丁來東, 讀書와 默想
- 異河潤, 버스와 短杖
- 桂鎔默, 손
- 印貞植, 懷古之念
- 趙宇植, 古典과 가치(續)
- 咸大勳, 十年記
- 이원조, 債鬼說
- 金永壽, 演劇時評
- 이태준, 古畵品과 生活
- 金珞俊, 金晩炯君의 藝術 (그의 個人展을보고)
- 任東爌, 音樂時評
- 李秉岐, 朝鮮語文學名著解題
- 편집부, 餘墨

- 
- 제 2권 제 9호 (1940. 11)
  - 柳致眞, 夫婦 (一幕)
  - 金永壽, 銃 (一幕)
  - 咸世德, 서글픈 才能 (一幕)
  - 朱永涉, 曠野
  - 박태원, [長篇小說] 愛經 (第八回)
  - 林玉仁, [推薦小說] 後妻記
  - 金鍾漢, 살구꽃처럼
  - 편집부, 最近國際時報
  - 金尙鎔, 旅愁
  - 朴斗鎭, 雪岳賦
  - 白 石, 許俊
  - 李庸岳, 슬픈 일 많으면
  - 柳 葉, [四行詩百朵] 業華
  - 許 民, [推薦詩 (柳葉推薦)] 夜山路
  - 편집부, 文壇消息
  - 鈴木庫三, 日獨伊同盟의 意義
  - 今日出海, 文藝의 新體制
  - 이태준, 志願兵訓練소의 一日
  - 黃義敦, 最高의 文字
  - 高在然, 語源學
  - 鄭玄雄, 壓力
  - 崔泳柱, 獨白
  - 崔鉉培, 「사주오」 두부장수
  - 洪以燮, 「얘기」의 얘기
  - 洪鍾仁, 芙蓉花
  - 方鍾鉉, 龍飛御天歌
  - 金南天, 秋收記의 作壇
  - 안희남, 通俗小說의 理論의檢討
  - 金鍾漢, 詩壇時評
  - 高裕燮, 仁齋 姜希顔傳 小考 (完)

- 吉鎮燮, 美術時評
- 曹南嶺, 現代時調論
- 이태준, 딸삼형제
- 安鍾和, 映畵時評
- 李軒求, 湖畔에서
- 金永壽, 演劇時評
- 趙芝薰, 西窗集
- 朴趾源, 渡江錄
- 편집부, 春城 盧子泳氏 逝去
- 이원조, 『일리아-드』讀後感
- 李秉岐, 要路院夜話記
- 편집부, 餘墨

- 
- 제 2권 제 10호 (1940. 12)
  - 羅稻香, 未定稿\_長篇(遺稿)
  - 박중화, 稻香의 人物과 作品：遺稿에 對하여
  - 朴鍾和, 아랑의 貞操
  - 鄭飛石, 菊花陳列
  - 池河連, [推薦小說](白鐵推薦) 訣別
  - 伊藤整, 國民文學의 基礎
  - 清水幾太郎, 新體制와 文化人
  - 金泰雲, 朝鮮傳說資料
  - 盧子泳, 沙工의 노래(遺稿)
  - 盧子泳, 街路樹
  - 임학수, 秋風嶺에 올라 北方을 바라며
  - 趙芝薰, 아츰
  - 오장환, 고향이 있어서
  - 朴木月, 보리누름때
  - 柳致環, 喬木
  - 柳致環, 나비인 양
  - 朴南秀, 돌아가는 길
  - 曹? , 時調：故鄉하늘
  - 柳葉?, 四行詩百朵：業華(完)
  - 金永起, 推薦時調(이병기推薦) 바람
  - 金永起, 推薦時調(이병기推薦) 길
  - 金思燁, 松江의 嗜酒癖
  - 金素雲, 畵餅 中國音樂論
  - 李漢稷, 翰
  - 李秉岐, 大隱岩
  - 洪曉民, 金봉어 挿話
  - 韓稚振, 生의 餘裕
  - 양주동, 詞腦歌釋注序說
  - 鄭寅承, 古本 訓民正音의 研究
  - 이태준, 文詩와 生妓
  - 曹南嶺, 現代時調論



|                             |                              |
|-----------------------------|------------------------------|
| · 林玉仁, 失題                   | -----                        |
| · 朴趾源, 渡江錄                  |                              |
| · 안회남, 沈滯의 一年               | - 제 3권 제 2호 (1941. 2)        |
| · 임학수, 恥辱의 一年：詩壇            | · 金東仁, 집주름(未定稿)              |
| · 金煥基, 求하던 一年：畫壇            | · 편집부, 祝 文章二周年               |
| · 李軒求, 萎縮의 一年：映畵            | · 任英彬, 어느 聖誕祭                |
| · 金永壽, 轉換期の 一年：演劇           | · 편집부, 理研비타민                 |
| · 편집부, 古寫本 春香傳：卷之上          | · 李圭燾, 車窓                    |
| · 李明善, 이 古寫本에 對하야           | · 蔡萬植, 『四號一段』                |
|                             | · 안회남, 老人                    |
| -----                       | · 林玉仁, 前妻記                   |
| - 제 3권 제 1호 (1941. 1)       | · 咸世德, 心園의 插畵(一幕)            |
| · 편집부, 大東亞共榮圈確立의 新春을 맞이하며   | · 李根榮, 故郷사람들                 |
| · 정인택, 旅愁                   | · 朴魯甲, 未完說                   |
| · 任英彬, 사랑의 모험               | · 石仁海, 海愁                    |
| · 朴魯甲, 白年合日                 | · 桂鎔默, 離叛                    |
| · 趙容萬, 北京의 記憶               | · 정인택, 短章                    |
| · 金永壽, 範疇                   | · 李 薰, 再出發                   |
| · 許 民, [推薦小說](李泰俊推薦) 魚山琴    | · 편집부, 榮養報國                  |
| · 裨山潤, 國民文學이란 무엇인가          | · 朴榮濬, 無花地                   |
| · 松岡浩一, 對外文化宣傳의 政治性         | · 편집부, 山口恒太郎商店               |
| · 李能和, 文藝의 系統과 變遷           | · 편집부, 戰線文學選『보리와 兵丁』에서       |
| · 李允鍾, 公益                   | · 편집부, 大政翼贊臣道實踐              |
| · 高永煥, 失友恨                  | · 朴英鎬, 수류 一幕                 |
| · 尹石重, 東京通信                 | · 李孝石, 라오코윈의 後裔              |
| · 李圭煥, 社交의 正邪               | · 편집부, 榮光寫眞館                 |
| · 李克魯, 公衆道德                 | · 玄卿駿, 寫生帖 第三章               |
| · 李燦 ?, 逢古友                 | · 편집부, 春秋                    |
| · 徐光霽, 집打鈴                  | · 金永錫, 兄弟                    |
| · 정지용, 朝餐                   | · 金남천, 그림                    |
| · 정지용, 忍冬草                  | · 郭夏信, 新作路                   |
| · 정지용, 붉은 손                 | · 김사량, 留置場에서 만난 사나이          |
| · 정지용, 꽃과 벚                 | · 金東里, 少年                    |
| · 정지용, 盜掘                   | · 최태응, 山사람들                  |
| · 정지용, 禮裝                   | · 兪恒林, 弄談                    |
| · 정지용, 나비                   | · 이기영, 鍾                     |
| · 정지용, 호랑나비                 | · 廉尙燮, 二心                    |
| · 정지용, 진달래                  | · 方仁根, 銀杏나무                  |
| · 李陸史, 中國文學 五十年史            | · 金永壽, 崔基成 氏                 |
| · 朴南秀, 現代詩의 性格              | · 趙容萬, 旅程                    |
| · 이태준, 許氏君의「魚山琴」을 推薦함       | · 兪鎭午, 馬車                    |
| · 金鍾漢, 詩壇時評                 | · 박태원, 小說家 박태원氏의 一日 [박태원短篇集] |
| · 李秉岐, 新春座談會: 文學의 諸問題       | · 金尙鎔, 望郷 金尙鎔詩集              |
| · 편집부, 春香傳集(其二)_古本 春香傳(卷之上) | · 金沼葉, 閑郊記                   |
| · 편집부, 謹賀新年                 | · 姜鸞郷, 제비                    |

|                              |  |
|------------------------------|--|
| -----                        |  |
| - 제 3권 제 2호 (1941. 2)        |  |
| · 金東仁, 집주름(未定稿)              |  |
| · 편집부, 祝 文章二周年               |  |
| · 任英彬, 어느 聖誕祭                |  |
| · 편집부, 理研비타민                 |  |
| · 李圭燾, 車窓                    |  |
| · 蔡萬植, 『四號一段』                |  |
| · 안회남, 老人                    |  |
| · 林玉仁, 前妻記                   |  |
| · 咸世德, 心園의 插畵(一幕)            |  |
| · 李根榮, 故郷사람들                 |  |
| · 朴魯甲, 未完說                   |  |
| · 石仁海, 海愁                    |  |
| · 桂鎔默, 離叛                    |  |
| · 정인택, 短章                    |  |
| · 李 薰, 再出發                   |  |
| · 편집부, 榮養報國                  |  |
| · 朴榮濬, 無花地                   |  |
| · 편집부, 山口恒太郎商店               |  |
| · 편집부, 戰線文學選『보리와 兵丁』에서       |  |
| · 편집부, 大政翼贊臣道實踐              |  |
| · 朴英鎬, 수류 一幕                 |  |
| · 李孝石, 라오코윈의 後裔              |  |
| · 편집부, 榮光寫眞館                 |  |
| · 玄卿駿, 寫生帖 第三章               |  |
| · 편집부, 春秋                    |  |
| · 金永錫, 兄弟                    |  |
| · 金남천, 그림                    |  |
| · 郭夏信, 新作路                   |  |
| · 김사량, 留置場에서 만난 사나이          |  |
| · 金東里, 少年                    |  |
| · 최태응, 山사람들                  |  |
| · 兪恒林, 弄談                    |  |
| · 이기영, 鍾                     |  |
| · 廉尙燮, 二心                    |  |
| · 方仁根, 銀杏나무                  |  |
| · 金永壽, 崔基成 氏                 |  |
| · 李無影, 누이의 집들：어느 해 旅行記       |  |
| · 趙容萬, 旅程                    |  |
| · 兪鎭午, 馬車                    |  |
| · 박태원, 小說家 박태원氏의 一日 [박태원短篇集] |  |
| · 金尙鎔, 望郷 金尙鎔詩集              |  |
| · 金沼葉, 閑郊記                   |  |
| · 姜鸞郷, 제비                    |  |

|                                      |       |
|--------------------------------------|-------|
| · 편집부, 習作室에서                         |       |
| · 이태준, 토끼 이야기                        |       |
| · 편집부, 餘墨                            |       |
|                                      | ----- |
| - 제 3권 제 3호 (1941. 3)                |       |
| · 池河連, [創作] 滯郷抄                      |       |
| · 朴贊謨, [創作] 果樹園                      |       |
| · 林玉仁, [創作] 産                        |       |
| · 任西河, [推薦小說](白鐵推薦) 德性               |       |
| · 卞榮魯, 굴쪽을 씹으며                       |       |
| · 李根昌, 楓林記                           |       |
| · 高亨坤, 郊外線                           |       |
| · 朴允進, 夫婦供養                          |       |
| · 尹日善, 疾病의 數                         |       |
| · 劉昌宣, 殉節碑                           |       |
| · 尹石重, 東京通信 (二)                      |       |
| · 洪以燮, 朝鮮音樂史의 몇 個 文獻                 |       |
| · 辛夕汀, 어느 支流에 서서                     |       |
| · 金光均, 長谷川町에 오는 눈                    |       |
| · 尹崑岡, 밤 車                           |       |
| · 朴一淵, 推薦詩(李源朝推薦) 城壁길                |       |
| · 崔嵐嶺, 推薦詩(金岸曙推薦) 落郷消息               |       |
| · 白 鐵, 內鮮由緣이 깊은 扶蘇山城：이희승一瓦에 옛날이 髣髴하다 |       |
| · 岡田順一, 朝鮮映畵令概說                      |       |
| · 趙潤濟, 說話文學考                         |       |
| · 任東燮, 音樂時評_二種의 葡萄                   |       |
| · 李敷河, 제임스·조이스                       |       |
| · 李鳳鎬, TUTTO E SCIOLTO               |       |
| · T. E. 홈, 『양리·베르그송』의 藝術理論 (抄)       |       |
| · 申石艸, 몇 說                           |       |
| · 朴英鎬, 演劇時評_아마추어精神                   |       |
| · 이태준, 小說                            |       |
| · 李源朝, 林和 著『文學의 論理』에 對하야             |       |
| · 임학수, 兪鎭午 創作集 『봄』을 읽고               |       |
| · 편집부, 春香傳集(其二) 古本 春香傳(卷之上)          |       |
| · 白 鐵, 『德性』을 推薦함                     |       |
| · 편집부, 餘墨                            |       |

|                       |  |
|-----------------------|--|
| -----                 |  |
| - 제 3권 제 4호 (1941. 4) |  |
| · 韓雪野, 流轉             |  |
| · 崔明翊, 張三李四           |  |
| · 石仁海, 文身             |  |
| · 朴魯甲, 墓地             |  |

|                                  |  |
|----------------------------------|--|
| · 박태원, 債家                        |  |
| · 金남천, 오디(桑椹)                    |  |
| · 李 薰, 泗泚樓의 달밤 (一幕)              |  |
| · 터머스·하-디, 안해를 위하여               |  |
| · 申石艸, 바라춤                       |  |
| · 申石艸, 弓矢                        |  |
| · 李相和, 서러운 諧調                    |  |
| · 金尙鎔, 손없는 饗宴                    |  |
| · 白 石, 국수                        |  |
| · 白 石, 힌 바람벽이 있어                 |  |
| · 白 石, 촌에서 온 아이                  |  |
| · 李陸史, 娥眉：구름의 伯爵夫人               |  |
| · 李陸史, 子夜曲                       |  |
| · 李陸史, 서울                        |  |
| · 柳致環, 歸故                        |  |
| · 金鍾漢, 航空哀歌 (歸還抄)                |  |
| · 趙芝薰, 靜夜                        |  |
| · 徐廷柱, 살구꽃 필때                    |  |
| · 오장환, 旅程                        |  |
| · 朴斗鎭, 꽃구름 속에                    |  |
| · 변영로, 昆蟲九題                      |  |
| · 李秉岐, 그 방                       |  |
| · 이원조, 詩의 故郷：片石村에게 붙이는 斷信        |  |
| · 申應植, 파레리-研究 斷片                 |  |
| · 朴英鎬, 藝術性과 國民劇：「새로운危險」과 「새로운依賴」 |  |
| · 정인택, 「新人選」小感                   |  |
| · 김기림, 『東洋』에 關한 斷章               |  |
| · 高裕燮, 「游於藝」                     |  |
| · 丁來東, 손톱                        |  |
| · 尹行重, 「말다스」의 人口法則               |  |
| · 金남천, 大理石                       |  |
| · 高永煥, 女性과 喫煙                    |  |
| · 吉鎭燮, 미운 故郷                     |  |
| · 朴啓周, 死亡通告書                     |  |
| · 崔泳柱, 近郊                        |  |
| · 이태준, 두 淸詩人 故事                  |  |
| · 편집부, 觀篆餘記                      |  |
| · 崔鉉培, 한글의 比較研究                  |  |
| · 矢鍋永三郎, 扶餘回想曲에 대하여              |  |
| · 任西河, 胚胎期                       |  |
| · 池河連, 인사                        |  |
| · 朱耀翰, 향기 없는 꽃                   |  |
| · 蔡萬植, 왕치와 소새와 개미와               |  |
| · 李陸史, 中國文學 五十年史                 |  |
| -----                            |  |

○ 함석태 수필, 『晴福半日』(『문장』 1940년 1월호)

一年四季의 景物에 對한 感興을 나더러 考第하라면 四景의 風致가 각기 좋지 않은바 아니로되 그 래도 嚴寒과 苦熱은 冬裘夏葛로도 오히려 괴로운 때이니 春秋兩節을 居中의 上上이라 하겠다.

其中에 아무리 보아도 가을은 男性的이다. 春風이 麗人의 溫情이라 하면 秋月은 文士의 襟度라 할까. 봄은 爭艷에 흐르기 쉬우나 가을은 獨淸에 빠낸다 하겠다. 一塵에도 染치 아니하는 長江의 찬 빛은 澄澈을 天光으로 다투고 秋林의 맑은 맛은 指端에 微雪을 드러다 보는 것 같다.

벼 누르고 魚蟹 살지고 棗柿 붉고 달 밝고 日白霜靑에 楓丹菊黃하여 口味와 睡眠과 清興을 돈을 대로 돈우는 一年 中에 가장 좋은 때이니 이른바 得意秋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自古로 文章, 英雄, 佳人, 才子 들은 悲傷을 恨하였다. 宋玉의 悲秋賦로부터 李太白의 悲情秋나 濟淵의 秋傷賦 등은 그 뜻을 모르겠다. 넘치는 人生觀을 秋來木葉黃에 부쳐 紅顏이 漸暮하고 白髮이 將至함을 情恨한 觸物의 寓詞가 아닐까 歲去에 人頭白을 奚但秋日 만에 恨 하리오. 늙은 것을 恨하려면 一日一時가 새롭고 또 搖落蕭瑟한 것을 悲傷하려면 風雪深冬을 어찌 할까.

그러므로 潘岳의 秋興賦나 梁元帝의 秋德賦나 表淑의 秋晴賦도 없는 바는 아니다. 人生一世를 어찌 草生一秋에 비치워 恨하리오. 더욱 朝鮮은 沃野千里의 天府廣野는 없다하더라도 錦繡江山을 자랑하는 農村國의 秋景으로써 一籌를 아니 둘 수 없다.

요즘과 같이 日白風淸한 때에 한번 발걸음을 郊外에 내놓으면 山紫水明만이 秋景일뿐 아니라 鷄黍 향기로운 農村의 여기저기 唐紅苦草 말리는 붉은 지붕과 雜草는 야위어도 홀로 살지고 香氣 높은 野菊을 야윈 풀과 함께 묶어 걸머지고 가는 樵童들의 風情이나 山寺에 尼僧이 野菊의 뗏가 지를 함부로 모아잡아 佛壇에 고여 놓은 모양은 아무리 보아도 가을 朝鮮의 一幅畫題이다.

朝鮮의 가을 氣候는 四時 中에 特別히 오랜 것도 우리가 가진 淸福이라 하겠다. 都市生活의 疲勞를 풀 겸 每日曜日에 竹杖芒鞋로 訪山尋水에 一日의 消暢을 얻기로는 一年 中에 第一 絶好한 氣候 이다.

바로 지난 十月二十九日은 大空一碧한 日曜日이었다. 이 날의 好晴을 타서 素荃 孫在馨氏와 같이 옛날은 高陽郡 城北里 上城北屯이오, 지금은 京城府 城北町에 新精舍를 落成한 尙虛 李泰俊氏의 幽居를 叩하였다.

尙虛는 所幹이 있어서 外出할 터이니 午後 五時에 찾아달라는 前날의 約束이었으나 景趣에 바 른 두 사람의 일이라 두 時間 前에 城北洞 재를 넘어 개울을 끼고 물풀 길을 찾았다.

稀罕한 旱災에 溪流가 涸渴된 것은 無怪한 일이나 없던 高層建物이 點出하는 것만은 舊時容이 아니다. 물 없는 내는 秋景에 加하여 郊外情趣로 볼 수 있으나 벌진 벽돌 풀은 페인트와 鐵條網을 얹어 막은 것은 風致를 돈는 所爲가 아니다. 그러므로 建物이 늘어 갈수록 自然이란 破壞되는 것 을 알겠다.

前 날은 上城北屯於口로부터 淸流를 거슬러 半淸門을 올라 三清洞으로 넘는 길에 兩三茅屋의 村 家風情과 아울러 蒼石老苔에 筇履의 痕迹을 찾던 것이 이곳을 가는 風致이었다던 말은 素荃보고 다시금 뇌이며 三人台 옛 터에 怡然이 걸음을 멈추었다.

台後一隅에 朱實이 方濃한 數株老柿 사이로 羊腸石遙이 알맞게 굽어진 곳에 閑寂히 닫혀있는 一 閣門이 보였다. 主人 牛山 金瑢俊氏의 山莊이다. 古拙한 門만 보아도 누구든지 지나던 사람은 門 札이라도 한번 보고 가려 할 것이어늘 더욱 黃葉朱實에 맑은 山陰에 萬朵花紅을 이룬 風霜한 맛 은 아무리 보아도 紅柿山莊이라고 불러보고 싶었다.

## 4. 현대 역사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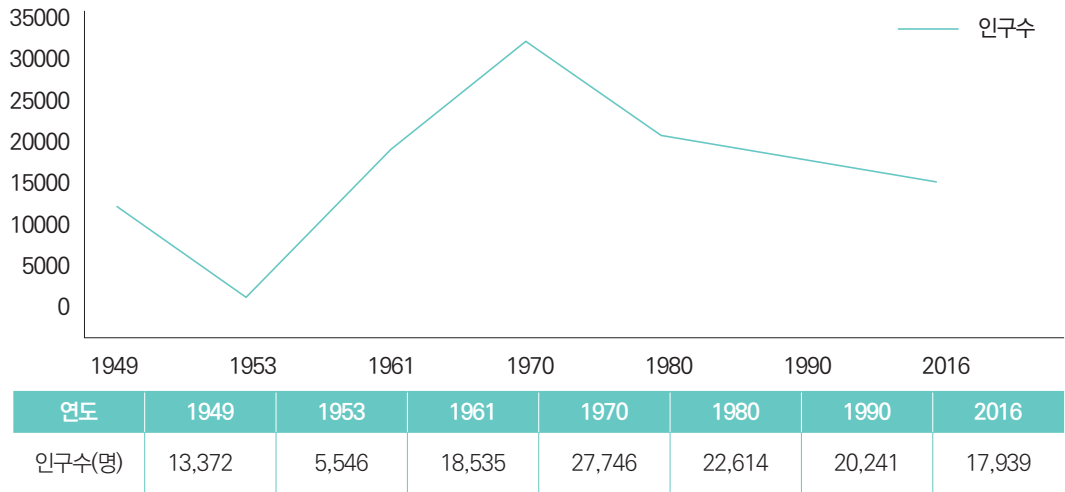
### [ 20 ] 해방 이후 성북동의 시기별 변동과 공간의 변모

#### 1. 동명의 개정

| 시기        | 행정구역 명칭                                                                           | 계기/사유                      |
|-----------|-----------------------------------------------------------------------------------|----------------------------|
| 1946. 10. | 서울특별시자유시 동대문구 성북동                                                                 | 일제식 동명 변경                  |
| 1947. 6.  | 행정동을 성북제1동과 성북제2동으로 분할                                                            | 서울시, 동회제도 시작               |
| 1949. 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성북구 신설                     |
| 1963. 1.  | 성북동 1가, 성북동 2가 분리                                                                 | 토지구획정리사업 (1936~1961) 환지 완료 |
| 1970. 5.  | 행정동 관할지역 변경<br>※【성북제1동】성북동1가 일원 및 운수교 동남지역<br>【성북제2동】성북동 중 성북제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성북동 전역 |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              |
| 1975. 10. | 성북동 2가를 성북동으로 환원                                                                  |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완료               |
| 2007. 12. | 행정동 통합<br>※성북제1동, 성북제2동, 동소문1가, 동소문4가를 성북동으로 통합 관할                                |                            |

[표12] 해방 이후 성북동 행정관할과 동명의 변천

#### 2. 인구의 변동



[표13] 해방 이후 성북동 인구변화

#### 3. 공간의 변모

- 도로
  - 성북천 복개
    - 1968년 동소문로 하류, 돈암시장까지 구간이 민자에 의해 복개(삼선상가, 성북상가)
    - 1977년과 1985년 2차에 걸쳐 삼선교 상류를 1억원을 들여 복개
  - 북악산길
    - 1968년 1월 21일 북한무장공비 침입 이후 수도권의 경비강화와 산책로의 확보를 위해 개설 (북악스카이웨이)
    - 1968년 2월 21일 기공, 동년 9월 28일 완공

- 성북동길
  - 삼청터널을 기점으로 하여 성북동을 서북방향으로 뻗어 동소문로와 교차하는 삼선교까지에 이르는 지선도로
  - 1961~1962년 공사
  - 1998년 도로 확장 공사

##### ○ 교량

- 운수교(雲水橋)
  - 성북동 60번지 부근에 놓였던 다리로 운수동(雲水洞) 앞에 놓인 다리라 하여 ‘운수교’라고 명명
  - 1966년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개공사로 인해 없어짐
  - 이 다리를 기준으로 성북제1동(동남)과 성북제2동(서북)을 나누었음
- 쌍다리(雙—)
  - 1980년초까지도 있었으나 성북로 복개공사로 철거
- 삼청터널
  - 1970년 삼청터널 개통으로 도심과의 이동시간 단축
- 교통 수단
  - 1968년 11월 30일 서울시, 전차 노선 전면 철거 단행 → 종로4가~돈암동사거리 구간 노선 폐지
  - 서울 사대문안 ~ 미아리간 버스 노선(삼선교 통과) 대폭 증가
  - 1985년 10월 18일 지하철 4호선 개통(한성대입구역)

### [ 21 ] 해방 이후 성북동의 좌우 갈등과 극복 노력

#### 1. 해방공간 좌우의 소용돌이

- 해방공간(1945~1948) 한국정치의 중심지 역할
  - 청암장(1951년 이후 대원각) : 고급 음식점. 1948년 1월에 방문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인도대표 ‘싱’ 씨에 대한 환영회가 열린 장소
  - 돈암장(인근 동소문동) : 이승만 박사가 1945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2년간 거처한 곳으로 근대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현장
- 해방공간 중도파의 희망과 아픔이 서려 있는 장소
  - 독립운동가 조소앙의 중도 노선 (돈암동 거주)
    - 독립운동가이자 제2대 성북구 국회의원.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게 조병옥과 대결한 조소앙은 전국최다득표로 당선
    - 1950년 당시 중도파, 남북협상파들이 지지를 얻게 된 정치적 격변의 현장의 중심이 성북구(동)임을 보여줌
  - 배성룡의 좌우이념대립 극복을 위한 노력 (성북동 176-4 거주)
    - 배성룡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민족운동이 이념 대립으로 분열되었을 때 이에 매몰되지 않고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이론개발과 실천활동에 심혈을 기울인 비판적 지식인
    - 해방 후 배성룡은 전국정치운동자후원회, 각당통일기성회, 좌우합작촉성회, 민족자주연맹, 통일독립촉진회 등에 참여하여 좌우연합을 통한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 건설 운동에 매진
    -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문화인 108인 성명’에 참여하고, 민족자주연맹 주석 김규식의 특사로 권태양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협상을 위한 교섭을 담당
    - 남북협상 후 그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을 초래한 선거라는 이유로 남한의 단독선거에도 반대
    - 이후 통일독립촉진회 조직에 참여해 상무집행위원, 조직국장 등을 지내면서 남북통일운동을 전개
    - 신문기자, 평론가, 저술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9권의 저서(미발표 초고본 1권 포함)와 250여 편에 달하는 글(논설, 설문, 좌담, 기타)을 남긴 당대 최고의 이론가
    - ‘신형민주주의론’ :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를 거부하고 다당제에 바탕을 둔 의회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주의의 평등성을 조화를 지향 → 급격한 사회혁명의 방법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개혁을 전망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성을 지닌 정치이념



## 2. 성북동회(城北洞會)와 동회를 이끈 인물들

-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자치조직(성북정회, 성북구락부 등)의 전통을 해방 후에도 계승
  - 1946년 성북동회 설치 및 동회장 임명
    - ※ 1933년 설치된 성북정회가 그 기원으로 1955년까지 유지
- 한국전쟁 이후 동회는 행정조직 산하에 속하지 않은 채 반관반민적 성격 유지
  - 1947년 동회 산하에 향보단 결성 및 대한독립촉성국민회청년단(국청) 성북동 제1분회, 제 2분회 활동 시작
    - 이들 우익 청년당의 활동은 1948년 1월 유엔조선임시위원단 방문을 계기로 격화
  - 자성회 조직 → 동민단합과 문화적 계몽활동
  - 김일(金一) : 1951년 당시 성북제2동 동회장
    - 1954년 제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서울시 국회의원 16인 중 1인으로 9,838표로 당선되기도 했으며 만주 봉천 삼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남경 금릉대학을 중퇴한 이후 국회의원회 선전부장, 자유당 성북구 당위원장 등을 역임했었던 인물
- 일제시대 이래 주민조직의 핵심을 담당했던 동회의 위상이 1950년대 중반까지 여전했음을 보여 주는 인물

## [ 22 ] 1950년대 전쟁의 아픔과 성북동

### 1. 전쟁 기간 월·납북

- 한국전쟁 당시 서울 시민 2~4천 명가량 납북되었으며(성북구 약 225명) 이 가운데는 정치계, 학계, 문화계 인사뿐 아니라 이름없는 청년, 여학생들도 다수 포함
- 성북구의 월·납북 인사
  - 조소앙(趙素昂, 1887~1958, 돈암동 거주)
    - 1950년 5월 30일 제2회 총선거에 서울 성북구에 출마하여 전국 최고득표(34,035표)로 당선
    - 한국전쟁으로 서울에서 강제납북
    - 납북된 후 전시하에서 가혹한 생활을 견뎌야 했고, 전후에는 박헌영(朴憲永)의 숙청 등 정치적 사건 때마다 번통(翻弄)됨
    - 김일성(金日成)의 요구를 거부하고 납북인사들과 함께 독자적인 ‘중립화통일운동’을 전개
    - 1958년 9월 10일 비극적인 임종에 즈음하여 “삼균주의 노선의 계승자도 보지 못하고 갈 것 같아 못내 아쉽구나”, “독립과 통일의 제단에 나를 바쳤다고 후세에 전해다오”라고 말하였다고 전함
    - 평양 남쪽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 안재홍(安在鴻, 1891~1965, 돈암동 거주)
    - 1950년 평택군에서 무소속으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
    - 1950년 9월 21일 납북
    - 1965년 3월 1일 평양에서 사망
  - 손진태(孫晉泰, 1900~?, 안암동 거주)
    - 1934년 보성전문학교 강사, 1945년 서울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
    - 1949년부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을 거쳐 문리과대학장에 재직
    - 한국전쟁시 납북
  - 조헌영(趙憲泳, 1900~1988, 성북동 거주)
    - 조지훈 시인(1920~1968)의 아버지, 한의학자·민족운동가·1, 2대 국회의원
    - 1927년 신간회 동경지회장
    - 1929년 신간회 중앙검사위원회 상무위원
    - 명륜동과 성북동에 동양의약사(東洋醫藥社)를 개설 → 근대 한의학의 기초 수립
    - 1935년 조선어표준말사정위원회 위원
    - 1936년 인사동에 일월서방(日月書房) 설립
    - 1945년 8월 18일 원세훈(元世勳) 등과 조선민족당을 결성(홍명희 계열)

- 1948년 제헌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뒤 한국민주당을 탈당
- 제헌의회에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약
- 1950년 5·30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김동성과 함께 무소속구락부 주도
- 한국전쟁 기간 성북동에서 강제 납북
- 북한에서 주로 한의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
- 1956년 7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
- 1980년 7월 서기장
- 1988년 5월 23일 평양에서 사망
- 이태준(李泰俊, 1904~?, 성북동 거주)
  -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돌연 홍명희와 함께 월북
  - 월북 초기에 평양조선문화협회 방문사절단 1호로 소련에 다녀오는 등 특별대우를 받음
  - 이후 문예총 부위원장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나고 점차 한설야 등의 극좌파에 의해 소외 당함
  - 1956년 무렵 지난날 카프(KAPF)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모여 결성한 구인회에 가담해 다수의 우경적이고 친일적인 작품을 썼다는 죄목으로 혹독한 규탄을 받고 함흥으로 쫓겨남
  - 〈함흥로동신문〉의 교정원과 콘크리트 블록 공장의 노동자로 전락
  - 같은 해 문학예술출판부 열성자회의에서 비판을 받고 숙청
- 정지용(鄭芝潑, 1902~1950, 돈암동 거주)
  - 해방 이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한국어와 라틴어를 강의하고 경향신문의 편집주간으로 활동
  - 1946년 2월에 사회주의 계열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문학가동맹의 아동분과 위원장으로 추대되고 그해에 시집 『지용시선』 발간
  - 1947년 서울대학교에서 『시경(詩經)』 강의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화여대 교수를 사임하고, 지금의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초당을 짓고 은거하며 『문학독본』 출간
  - 1949년 2월 『산문(散文)』 출간
  - 1949년 6월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된 뒤에는 조선문학가동맹에 참여했던 다른 문인들과 함께 강제로 가입되어 강연 등에 동원
  -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김기림(金起林), 박영희(朴英熙) 등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 납북, 도중 사망

### 2. 한국전쟁 중의 종전평화운동

- 최익환(1889~1959, 성북동 260번지)과 박진목(1918~2010)
  - 한국전쟁 중에 최익환과 박진목이 민간인 신분으로 비공식적으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 조속한 전쟁 종결과 평화를 촉구
  - 이 운동의 주역인 최익환은 전쟁 당시 피난을 가지 않고 성북동 자택에 머물고 있었고, 박진목이 그의 집을 찾아와 상의하면서 시작
  - 한국전쟁 중 최익환과 박진목은 성북동 최익환의 집에 묵으면서 더 이상 전쟁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말려보는 일을 해보기로 함
  - 1951년 1월 최익환은 박진목과 함께 서울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승엽을 만나 동족 상잔의 전쟁을 당장 종식시키자고 호소했고, 이승엽이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
  - 북한군이 퇴각하고 난 뒤 최익환은 부산으로 내려가 이승만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군의 주선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종전을 호소
  - 1951년 11월 미군의 안내로 평양을 방문한 최익환은 이승엽이나 북측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평양 근교에 억류되어 있다가 휴전협정 직전인 1953년 초에 남쪽으로 돌아옴
  - 남으로 돌아온 박진목은 간첩죄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최익환은 독립투쟁의 경력이 고려되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이승만 정권의 핍박 속에 불우한 일생을 마침
  - 최익환과 박진목의 종전평화운동은 남과 북 그 어느 쪽에서도 주목받지 못했지만, 목숨을 걸고 분단선을 넘어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그 고귀한 노력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

- 최익환과 박진목이 활동한 종전평화운동의 중심 공간으로서 성북동의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그림43] 최익환(위)과 박진목(아래)

### 3. 전후의 살림살이와 ‘판자촌’

- 전쟁으로 인해 주민수 일시적으로 급감(1949년 13,372명 → 1953년 5,546명)했으나 곧바로 피난민, 상경민이 더해지면서 인구가 급증하므로 주택난 초래
  - 성북동은 타지역보다는 피해가 적어 “일부 피해 및 건재동”으로 분류
  - 성북제2동은 전쟁 전에 비해 15% 정도의 손실
  - 인구가 급증하면서 성북천, 정릉천변에 피난민들이 정착했고, 공원개발로 예정된 청암장 부근, 즉 배밭골과 이어진 골짜기에 사람들이 정착
- 오늘날 북정마을 역시 당시 서울로 일을 찾아 들어왔던 사람들이 모여 정착하면서 형성
  - 이 시기에 함경도 함청 사람들 역시 성북동에 정착
- ‘불량건물’들 혹은 판자촌들이 1960년대 후반까지 이곳 성북동에서 그 모습을 유지
  - 1958년 보건사회부 주택조사보고서의 내용(대상 : 성북동 가구 403개호)
  - 성북동 주민들 중 전전(戰前)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주택의 대체적인 규모는 11~30평 사이가 많았고,
  - 온돌처리가 되어 있는 집(227호)
  - 주택 건축 재료는 콘크리트 바닥(138개호), 흙 바닥(113개호), 마루 바닥(152개호)
  - 전용 수도 사용(309개호), 공용 수도 사용(34개호)

### 4. 관련 자료

- 조정래 대하소설 『한강』에서 묘사한 1959년 성북동 풍경

“싼 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멀고 불편한 것은 각오해야 돼. 우리가 갈 곳은 이 골짜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전에 여기가 어딘지부터 대충 알아두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말야, 이 지역 전부가 옛날로 치면 성 밖으로, 산짐승들이나 살고 호랑이가 오가던 산골이었지. 저기 오른쪽에 돌출대 보이지? 저게 바로 한양성의 성터야.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산이 그 유명한 삼각산 백운대와 북악산이 이어지는 산줄기고. 그래서 성북동엔 이 지점까지도 아직 수도가 없어. 수도는 삼선교와 여기의 중간 지점쯤 와 있지, 아마. 언제쯤 수도가 여기까지 뻗을지, 그걸 누가 알겠어. 한마디로, 너나 나나 수돗물 못 먹고 서울 사는 서울 촌놈인 거야. 곧 알게 되겠지만, 사실 이 성북동 골짜기마다 시골서 몰려온 사람들로 만원사레지. 신설동 산동네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날마다 서울역에 내리지, 어디다 움막이라도 쳐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 더 변두리인 미아리나 종암동, 청량리 같은 데로 밀려가는 수밖에. 나라나 서울시에서 속수무책인 채로 무허가 판자촌이 생겨나고 있는 판이지. 그런 곳에 비하면 여긴 천국인 셈이야. 시내 가깝잖다. 전차 탈 수 있잖다, 버스에 비해 값싼 전차를 탈 수 있다는 건 가난뱅이들한테는 큰 혜택이야 아닐 수 없거든. 그런 건 차차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거고, 그럼 슬슬 움직여볼까.”

— 조정래, 『한강』1권 1부 중에서

## [ 23 ] 1960~70년대 성북동의 개발

### 1. 1960년대 : 거주 공간의 변모

- ‘판자촌’의 철거와 재배치 (1967~1971년)
  - 서울의 도심부의 형태적 재개발을 위해 정릉 등 기존의 도심 반경에서 5~10km내외의 무허가 정착지들이 철거 대상
  - 정릉과 등을 맞대고 있었고, 또 그 골짜기에 많은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었던 성북동도 포함.
  - 1968년 12월 현재 성북동에는 여전히 2백동의 불량건물 존재
- 풍치지구가 대규모 외국인 주택단지로 책정
  - 1967년 6월 성북동 산 25번지 일대의 숲속 풍치지구 약 10만평이 대규모 외국인 주택단지로 책정 → 성북동 부촌 형성의 전조
  - 1968년 북악스카이웨이 건설
  - 김광섭, 시집 『성북동 비둘기』 출간 (1969)

### 2. 1970년대 : 부촌의 형성과 한양도성 복원 시작

- 부촌의 형성
  - 일제강점기에 구획된 풍치지구의 대거 해제
  - 서울시의 북악스카이웨이 공사로 인해 성북동 산18과 25일대의 필연적 철거로 인해 일부 무허가 판자집의 양성화 계획에서 예외로 상정되는 주민들 발생
  - 성북동 산 14~26번지 일대의 1백호 가량의 무허가 건물들, 성북동 산 1번지 일대의 3백여 동의 무허가 건물들이 강제적 철거의 대상
  - 1977년 12월 8일 서울시 풍치지구 총 34곳 중 25개 지구로 축소되면서 성북동 330 일대 등을 추가로 해제
- 삼청터널의 개통
  - 1970년 12월 30일, 삼청터널 준공
  - 민자 1억 9,900만원, 시비 5,000만원, 계 2억 4,900만원이 투입
  - 터널의 건설로 종전 양 지역간의 교통은 울곡로와 창경궁 우암로를 거쳐서 연락되던 것을 외곽으로 우회하여 연락됨으로써 도심에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절반 이하의 단축된 시간 내에 교통이 가능하게 됨 → 성북동 부촌 형성 및 확대의 기폭제
- 한양도성(서울성곽) 복원 공사
  - 1976년, 서울시 성북지구 성곽 2,060m 복원공사
  - 성북동 113의 1, 3, 4, 5, 8, 11의 무허 건물 80동과 성북동 123의 2~5까지의 유휴 건물 18동, 사유지 3백평 (성북동 113의 76, 123의 3) 등 보상 철거
  - 서울성곽 안팎 20m를 성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녹지대를 조성, 산책로로 활용
    - ◆ 성북동(보성고 뒤쪽~성북동·혜화동·와룡동 일부)=길이 1천3백m, 폭4~8m.
    - ◆ 숙정문 복원(홍예석 위 문루 신축)
- 주한 외국대사관저 준공·입주시작
  - 1976년 10월 12일, 주한 서독대사관저 준공식(성북동 330-198)을 시작으로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저 입주
  - 2016년 현재 45개국 주한 대사관저가 있음
    - ◆ 주한 네팔 대사관(저)을 비롯해 주한 브라질,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연합, 터키, 폴란드, 앙골라, 스웨덴,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카자흐스탄, 독일, 방글라데시, 핀란드, 일본, 그리스, 세네갈,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중국, 캄보디아, 콜롬비아, 수단, 베네수엘라, 캐나다, 몽골, 폴란드, 스리랑카, 싱가포르,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포르투갈, 아제르바이잔, 파푸아뉴기니, 페루 대사관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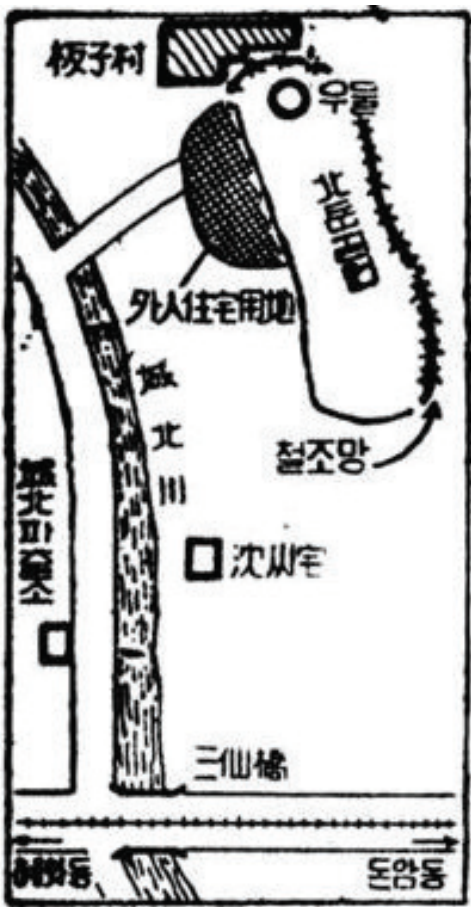


3. 관련자료

○ 북악스카이웨이 건설과 성북동 판자촌 신문기사



[그림44] 1968년 공사 중인 북악스카이웨이 (『경향신문』 1968. 6. 26.)



[그림45] 1967년 당시 성북동 판자촌의 위치 (『경향신문』 1967. 12. 20.)

○ 1960~70년대 성북동 관련 신문기사(중앙일보)

· 대한교육보험, 외국인 주택 건설

외국인 주택 건설에 보험사서 6억 출자. 재무부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 6억원을 외국인 전용 주택과 대규모 「아파트」건설에 투자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11일 관계당국은 이 외국인 주택 건설 사업은 서울시내 성북동에 이미 확보된 9만평의 대지에 단독주택 1백90동(8천8백평) 「아파트」2동(3천6백평) 부속건물3동(3백평)을 세우도록 했다. (1967.03.11.)

· ‘동베를린 사건’과 작곡가 윤이상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공작단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29일 상오 제3차 수사결과로 음악가 윤이상(50·서울 성북구 성북동 128의13) 씨 등 18명을 구속기소, 전국외기노조 오산지부 상무 어원(51)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2명을 기소하고 서독 「켈른」대학 대학원 학생 배준상(32) 씨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중앙정보부에서 송치된 66명의 관련자 가운데서 31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 6명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하고 오는 8월 2일 제4차 수사결과를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기소된 관련자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이 적용되었는데 모두 자격정지까지 병과되었다. 불기소 처분된 5명의 관련자 가운데 배씨는 북괴를 찬양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 무혐의 불기소되었으며 「캘리포니아」대학강사 하태길(31), 「노트르담」대학 화학과연구원 강성종(31)씨 등은 26세부터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들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으며 강빈구 씨의 처 강·하이드론 게란드(31·서강대학 강사)씨는 정을 모르고 부부의 정에 끌렸다는 이유로 서독에 귀국시키기로 했으며 임석진 씨의 여동생 임애자(29)씨도 오빠에게 추종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키로 했다. (1967.07.29.)

· 명수학교의 개교

정신박약어린이학교 명수학원 개교 6세~10세까지의 정신박약아중 IQ50이상의 아동을 맡아 가르칠 서울 명수학원(설립자 최경순) 이 올해부터 개교한다. 성북구 성북동 226의 91에 자리잡은 이 학교는 학급당 정원 20명씩 2학급을 모집, 6년간 특수지도를 할 것인데 앞으로는 불구자도 모집하리라 한다. 전형시험은 오는 2월25일. (1968.01.30.)

· 성북동 무허가주택 철거의 진통

11일 상오 11시 30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87 무허가주택 4백여 가구 2천여명의 주민들은 철거에 나선 구청 철거반 2백여 명과 기동경찰 1천여 명과 충돌, 주민 김일봉 씨(33)등 10여 명과 구청 녹지계 직원 민병두 씨(32) 성북서 근무 윤성섭 순경(41) 등 철거반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날 철거반원들이 철거에 착수하자 주민들과 투석전이 벌어졌는데 오물통과 몽둥이를 가진 주민들은 『양성화해주겠다던 약속을 어긴 철거는 못한다』고 팽과리를 치면서 아우성쳤다. 이들은 작년 선거전에 통·반장을 통해 양성화신고 용지대값조로 30원씩을 거뒀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사나운 기세로 철거반원은 일단 후퇴했다가 하오 2시부터 다시 철거에 나섰다. (1968.05.11.)

· 조지훈 시인 별세(1)

청록파 시인이며 고대 교수인 조지훈씨가 17일 상오6시 「메디컬센터」에서 기관지 확장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고전적 소재와 전아한 시풍으로 시단에 많은 영향을 끼친 조교수는 근년 민족문화연구소를 개설, 국학의 분류사 간행에 분주했고 우리나라 민속학사를 집필중이었다. 시집으로 「풀잎단장」「지훈시선」「역사 앞에서」외에 「시의 원리」「시와인생」「창에 기대어」등이 있다. 유족은 미망인 김난희여사와 3남1녀. 장례식은 21일 문단장으로 거행할 예정이다. 호상소는 서울 성북동 60의44 자택. 92-1053 (1968.05.17.)

· 조지훈 시인 별세(2)

조지훈 씨가 17일 세상을 떠났다. 10여년내의 숙환이던 기관지 천식이 끝내 그를 앓아갔다.그분은 최근엔 불과 몇 마디의 말도 잊지 못하고 쿨룩거렸다.전화 받는 일조차 호흡이 가빠 사양



했다. 『오늘날 주사엘 가도 시인은 옷자락을 스치기 힘들다. 터분히 마주앉아 막걸리잔 조차 나누기 힘들어졌다. 시인들의 소외는 시인들끼리만은 아니다. 오늘날 시를 읽으려는 독자는 아무도 없다.』작년 7월 「한국신시60년기념사업회」를 발기하는 자리에서 그는 펍 「페이소스」에 넘쳐 있었다. 시인들의 적적함과 외로움은 비단 시인들 전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심경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의 만년은 이처럼 쓸쓸했다. 한국신시의 면면한 맥박을 이어주었던 1930 연대의 청록파 시절은 그의 황금기였는지도 모른다. 그 당시의 세 문학청년(목월·두진 등)은 지금 고인의 자택인 성북동 개울가의 그 기와집 사랑채에 모여, 밤이 늦도록 민족정신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고유한 전통에 탐닉해 있었으며, 잊혀져가는 우리의 고전적 풍습에 연연해 있었다. 『자연은 청록파의 마지막 구원을 희구한 신이었다』는 말을 고인은 최근에 한 적이 있었다.

그가 한때 자연에 몰입해 있었던 것은 암담한 현실을 비판하고 탄식하고 있을 수 없었던 일종의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다. 1930년대의 그 암흑을 내면에서 밝혀준 것은 웅변가도 애국지사도 아닌 그 당시 몇몇 시인들의 조용하고 눈물겨운 음성이었다. 『비록 이 시대와 사회, 그 민족과 국가가 시와 시인을 버린다 해도, 시인은 언제나 이 시대와 사회를 지키고 제 민족과 조국의 정의를 드높인다. 이것은 그의 깊은 신념이었으며 언젠가 이 살벌하고 건조한 세상에 「시의 중흥」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오늘의 침체에서 떨치고 일어나 잃어진 시의 권위를 탈환하며 미래의 빛나는 설계를 이룩함으로써...』 그러나 그분의 가슴에서 우리나라오는 이 숨 가쁜 소망도 이루어지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젠 그분의 기침소리조차 사라지고, 낭랑한 시들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다. (1968.05.17.)

#### · 보화각에서 국보급 고서 발견

고 전형필(간송)씨의 개인 박물관인 보화각(보화각·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서 세계적인 진본인 이조 초기의 용감수감을 비롯한 국보 또는 보물 급의 210권의 고서가 발견되어 새 봄을 맞은 학계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보화각은 5년 전인 62년에 56세로 작고한 전씨가 평생 두고 수집한 수많은 고서화 및 도자기 등을 간직한 우리나라 유일의 개인 박물관으로만 알려지고 있었다. 6·25이래 문을 닫고 있던 동 박물관을 금년 봄에 새로 개관코자 유족 및 관계자들이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2만여 권의 방대한 한적장서 가운데서 새로 희귀한 책들을 가려대게 된 것이다. 금년 들어 보화각 장서 정리작업에 참가했던 문화재 총 위원장 김상기 박사를 비롯한 이흥직, 김원룡, 최순우, 진홍섭씨 등 사계의 권위자들은 장서 속에 간직된 우리나라 유일본과 또는 출판 문화 연구나 국학 연구에 무거운 비중을 지닌 책들이 너무나 많아 흥분과 기쁨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24일 현재 2만여 권의 장서 중 약 절반인 1만여 권에 대한 정리를 끝낸 관계자들은 고인인 전씨가 고 미술품 수집가로서 뿐만 아니라 장서가로서도 으뜸이라고 놀라움을 말하면서 나머지 장서 속에서도 어떤 귀중본이 새로 발견될지 모르겠다고 기대에 부풀고 있다. 즉 전씨 소장본으로 기왕에 「훈민정음」「동국정운」「안향금보」 등은 모두 국보로 지정된바 있기는 하였으나 그밖에 이와 같은 방대한 장서와 귀중본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새로 햇별을 보게 된 용감수감 7책 한 질만 하더라도 그 본 고장인 중국에서조차 완질이 없어 일본에 전래된 것과 합쳐서 영인을 해야 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전씨 소장본의 그것은 보기에 아름다운 송설체의 순천판본으로서 책의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출판 문학사는 물론 서지학상의 중요한 발견으로서 세계적인 진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유일의 귀중 도서인 갑인자 주자본인「본초」권7, 「여사서 언해」, 「속오체의」 및 목판본인 「삼한시귀감」, 「몽산화상법어 언해」초판본 등 이조 전기의 것 10여 종과 서지학상 희귀본으로 지목되는 책들은 별 향의 것들이다. (1967.01.24.)

#### · 시인 천상병이 살아 있다

5개월 동안 행방을 감춰 가까운 문단 동료들까지 타계한 줄로 믿고 있었던 시인 천상병씨(41)가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에 있는 시립 정신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임이 밝혀졌다. 그의 병명은 『알콜에 의한 정신적 황폐증』으로 나와 있다. 지난달 성춘복 송영택 이형기 박재삼 등 평소 천씨와 가깝게 지내던 시인들이 여러 곳에 실린 그의 시들을 모아 시집 『새』를 출판하면서 그의 행방은 모든 사람들을 궁금케 했다. 『언제 어디선가 죽어간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었으나 한편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천씨를 찾는 작업은 계속되었다. 최근 천씨를 치료하고 있는 담당 의사 김종해씨가 천씨의 생존을 알려줌으로써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문단 동료들은 뿔 듯이 기뻐했으나 그가 이미 많은 기억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천씨는 작년 8월 서울 성북동에서 기진맥진한 행려병자로 경찰에 발견돼 경찰의 주선으로 시립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나 아무도 그가 시인 천상병씨인줄을 몰랐다. 시집 『새』의 출판으로 그가 천씨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의 병세가 호전되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천씨는 53년 마산중학 재학 시절 『강물』로 문단 시 추천을 받아 문단에 데뷔, 수많은 문제시들을 발표했으며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한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72.01.13.)

#### · 말뿐인 호화주택 증과세

개정지방세법에서 증과세를 부과기로 한 이른바 호화주택의 기준 (2천만원이상)이 너무 높게 정해지고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해당주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정지방세법의 사치성 주택을 규제키로 한 입법취지는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내무부는 개정지방세법에서 호화주택의 기준을 땅값을 제외한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현행국세청의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은 최고액이 평당 9만원 안팎으로 건물값만 2천만원 이상이 되려면 건평이 최하 2백20평은 넘어야 된다. 더우기 호화주택을 가리게 될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내부시설 및 장식은 따지지 않고 골조(철근·벽돌·목조 등)와 지붕(슬라브·함석·기와등) 등 객관적인 구조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돼있다. 따라서「에스컬레이터」등 호화시설과 대리석 등 고급 내부재료를 사용한 사실상의 호화주택도 건평이 2백평 이하면 세법상의 호화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증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돼있다. 내무부 당국자는 호화주택의 기준이 너무 높게 정해진 것을 인정하나 서울의 동빙고동·서교동·성북동 일대에 대상주택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적으로 건평 2백평이 넘는 주택은 10여 채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에 대해 초과 누진세제를 적용, 건물가액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0.4%, 3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는 0.5%, 5천만원 이상일때는 0.6%를 초과 누진토록 돼있다. (1973.04.23.)

#### · 검도복 차림 일본 대학생 성북동 활보

9일 하오 7시45분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한 일본 대사관저에 『일본 대학생들이 검도복 차림으로 죽검을 들고 「조오리」를 신은 채 서울 고교 앞을 활보하는데 이를 못하도록 하라, 내일 또 거리를 활보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 일본 대동문화대학 검도부 학생 45명은 친선경기를 위해 지난 7일 내한, 서울 종로2가 영일 여관에 투숙 중인데 8일 하오2시쯤 검도 연습을 위해 YMCA회관 앞에서 서울 고교까지 검도복 차림에 「조오리」를 신고 걸어가 시민들의 시선을 모으게 했다. (1973.08.10.)

#### · 홍익북초등학교의 폐교 결정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학부모들과는 한마디의 사전협의도 없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56 홍익북국민학교 (교장 신영우)를 폐교키로 결정하고 서울시교위로부터 폐교 승인 결의를 받아 75학년도부터 돌연 신입생 모집을 중지키로 했다. 홍익북국민학교는 같은 구내의 홍익 중·고교 평준화 계획에 따라 시설을 확장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홍익북국민학교를 폐교할 수밖에 없다고 폐교 신청. 서울시교위는『경영자가 못 하겠다는데는 도리 없다』고 이를 승인해 준 것이다. 이 조치로 학부모들은 『학교 재단이 학부모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폐교한 것은 재단육심만 내세운 사학의 횡포』라고 주장, 23일 하오 1시 5백여 명이 동교에 몰려가 폐교조치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그중 1백여 학부모들은 24일 하오 1시까지 철야농성을 벌였다. 학부모들은 폐교 신청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학교 측의 약속을 받고 해산했다. 홍익북국민교는 63년 성암국민교로 설립돼 70년에 홍익재단이 인수했는데 현재 18학급 1천22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문교 당국이 한때 국민학교 수용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립 국민학교의 설립을 마구 인가, 최근에 와서는 중·고교 평준화 계획에만 열을 올려 같은 구내의 학교들에

대해 시설 확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으로 사학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서울시 교위 당국자는 25일 학교 측으로부터 폐교 철회를 위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1974.11.25.)

· 성북동 고지대 주민들의 식수난

시내에 부설되어있는 송·배수관 시설이 낡고 모자라 변두리 관말지역과 고지대 주민 20여만 명 이 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내에 부설되어 있는 송·배수관은 모두 8천4백30km이며 10년 이상 된 낡은 관이 40%인 3천2백71km나 되고, 10~35년 된 노후관 2백10km까지 합치면 노후관이 50%선을 넘는다는 것.이 때문에 평당 km당 10kg의 수압(통상압력)에도 견디지 못해 송·배수관의 파열사고가 잦아 생산된 물을 제대로 공급치 못하고 있으며 누수율이 30%선을 넘어서 수도물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식수난이 풀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연희동 245, 294일대의 경우 2년 전부터 신흥주택가로 발전해 상수도사용량이 부족 늘어났는데도 직경 1백50mm의 기존 송수관을 개량치 않아 수요량을 제대로 공급치 못해 상오 2시부터 3시간 동안 조금씩 나오는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영등포구 오류동 1백여 가구 주민들은 지난해 4월 가구당 7만~8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상수도 시설을 했으나 근처 개봉「아파트」「팜프」장에서 물줄기를 끌어 수압이 낮기 때문에 올 들어 수도물을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식수난을 겪고 있는 변두리 관말 지구는 관악구 상도동 2백30가구 등 7개 동 1천6백90가구를 비롯, 영등포구 오류동 등 12개 동 1천9백80가구, 서대문구 갈현동 등 9개 동 1천90가구, 성동구 천호동 등 6개 동 9백90가구, 성북구 성북동 등 4개 동 2백40가구 등 총 5천9백90가구 6만여 명이다. 또 고지대는 서대문구 갈현동(70가구)를 비롯, 불광동(90가구) 응암동(70가구) 평창동(40가구) 홍은동(50가구) 홍제동(40가구) 연희동(30가구) 성동구 옥수동(1백20가구) 성북구 돈암동(30가구) 정릉동(60가구) 등 6백 가구(6천여명) 이다. (1975.05.19.)

· 화가 박래현 별세

동양화가 우향 박래현 여사가 2일 상오 11시 서울 성북동 55의1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55세. 경성여자사범과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를 나온 박 여사는 56년에 국전 대통령상, 74년에 신사임당상을 받았다. 그는 64년 이래 3차례에 걸쳐 해외에 체류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뉴욕」에서 그림 제작 중 건강을 해친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부군 김기창 씨와 1남3녀. 영결식은 6일 상오 11시 자택, 장지 파주군 금촌읍 낙원공원 묘원. (1976.01.05.)

· 서울성곽의 복원에 따른 주택 철거

문공부의 국방 유적 복원 시책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시비 5억2천만원을 들여 서울 성북지구 성곽 2천60m를 복원한다. 복원에 걸리는 건물들을 보상 철거하고 산책 도로, 녹지 시설 등의 주변 정화 사업도 병행하게 될 성북지구 성곽 복원 공사는 오는 8월초 착공 예정- . 성곽 복원 공사로 보상 철거될 건물은 성곽에 접해 있는 성북동 113의 1, 3, 4, 5, 8, 11의 무허 건물 80동과 성북동 123의 2~5까지의 유허 건물 18동, 사유지 3백평 (성북동 113의 76, 123의 3) 등이다. 감사원 뒷산에서부터 혜화국민학교 뒷산을 지나 보성고교 후문 (종로구 혜화동 산 6의 1)까지 이어질 성북지구 성곽 복원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문공부 문화재 관리국이 고증 등을 후원하고 서울시가 총 4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년계획 (74년~79년)으로 추진중인 서울 성곽 복원 공사 총 목표 길이는 성곽 1만1천4백24m와 광희문·숙정문 등 2개의 성문. 문헌 기록에 나타나 있는 서울 성곽의 총 연장 길이는 1만8천1백27m. 서울시는 이중에서 성곽의 흔적이 현존하고 있는 부분만을 복원한다. 현재까지 복원된 것은 지난해 11월 4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한 광희문뿐이다. 현재 45%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삼청 지구 성곽 1천9백94m와 목조 12평의 숙정문은 오는 7월31일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올해 착공되는 성북지구 성곽과 광희문 옆 성곽 50m가 완성되면 76년까지 복원되는 서울성곽은 약 4km. 광희지구 성곽 복원에는 광희동 109의 1, 5동의 무허 건물 10동과 신당동 229의 46, 40동 유허 건물 20동, 사유지 2백50평이 보상 철거된다. (1976.02.11.)

· 서울성곽 안팎 20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서울시는 23일 복원중인 서울성곽안팎 20m를 성곽보호구역으로 정해 이곳에 녹지대를 조성, 산책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80년까지 5년 동안 조성될 녹지 조성대상지역은 성북·장충·광희·청운·동송지구등 5개지구 3천6백60m. 녹지는 성곽주변에 들어선 불량주택의 재개발사업과 함께 추진, 주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녹지조성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성북구(보성고 뒤쪽~성북동·혜화동·와룡동 일부)=길이 1천3백m, 폭4~8 m.▲장충지구(장충동 2가일부)= 길이 9백40m 폭4m.▲광희지구(광희문~신당동일부)=길이 1백20m, 폭8~16m.▲옥운지구(사직「터널」~행촌·부암·서운동 일부) 길이4백50m, 폭4~8m.▲동송지구(동송시민「아파트」~이대부속병원)=길이 8백50m, 폭4~8m (1976.02.11.)

· 주한 서독대사관저 준공

주한 서독대사관저 준공식이 12일 상오 11시30분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의198 현장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카를 로이테리츠」주한 서독대사 등 1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축된 서독 대사관저는 총 공사비 6억 원을 들여대지 2천60평에 건평 6백 평의 2층 건물로 독일 연방 정부가 한국에 세우게 되는 최초의 건물이다. 본 건물 외에 대사관 직원들이 거주하는 4개의「아파트」식 부속 건물이 있다. (1976.10.12.)

· 숙정문의 복원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사업의 하나로 벌이고 있는 서울 성곽복원 계획의 1차 구간인 삼청지구(창의문~숙정문~성북동 뒷산)와 숙정문 복원공사가 21일 준공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15일 공사비 3억4천8백26만원을 들여 착공, 13개월 만에 완공된 삼청 지구 성곽은 총 길이 1천9백94m로 성곽복원과 함께 홍예석만 남아 있던 서울의 정북문인 숙정문도 완전 복원됐다. (1976.10.21.)

· 김광섭 시인 별세

40여년 간의 시작활동을 통해 민족정신의 고뇌를 대변해왔던 원로시인 이산 김광섭 씨가 23일 작고했다. 72년여에 걸친 이산의 생애는 한편 다채로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파란만장한 것이었다.

1905년 9월 22일 함북 경성군 어대진 읍에서 출생한 그는 32년 일본「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졸업 후 그 이듬해 중등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하면서 시작에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 무렵의 다른 시인들이 신춘문예나 문예지의 추천을 받아 「데뷔」했던 것과는 달리 37년 시집『동경』을 출판함으로써 시인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이산은 그 후부터 저항적인 그의 시 정신 때문에 일제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 무렵 그의 시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그 자신의 말로 요약된다. 『내 생애의 시발은 바로 우리 민족수난의 시발이었다. 성장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하여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내 가슴속깊이에서 움터 나왔다. 이것이 내시의 뿌리였다.』

이 같은 그의 강렬한 민족정신은 마침내 41년 그로 하여금 3년8개월에 걸친 형무소생활을 시작하게 한다. 죄목도 조선어 과목폐지반대·동아일보 폐간반대 등을 학생들에게 선동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맞은 8·15해방은 더할 수 없이 감격적인 것이었으나 그것이 곧 민족분단의 비극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문학·사회운동은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45년9월 중앙문화협회를 결성, 좌익문인에 정면으로 맞선 이산은 그후 언론인(민중일보 편집국장)관리(군정청공보국장·대통령공보비서)교수(신홍대학·이화여대)등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도 시에 대한 강한 집념을 버리지 못해 주목받은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의 제2시집『마음』(48년)에서 나타나는데 이 무렵 그의 시 세계는 초기의 그것보다 한결 원숙해져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취가 깊이 담겨져 있었다.

65년4월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졸도로 화생이 불가능한 듯 보였던 그는 삶에 의 의지, 시에의 의지로 죽음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빛을 찾았다. 그 후 10여년 동안 발표한 그의 작품들은 원로시인답게 부드러우면서도 다른 한편 강인하고 날카로움을 지닌 문제



작들이었던 것이다.

그 자신『대표작이며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말한바 있는 『성북동 비둘기』(69년)는 그의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긋는 대단한 작품이었다.

외유내강의 전형인 이산은 최근까지도 시작의 정열을 식히지 않았다. 가볍게 산책하는 일 외에는 원고지와 씨름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 얼마 전『나의 시작태도에 대한 후회는 없지만 문학 외적인 일에 너무 치우치다보니 시를 깎고 다듬는데 다소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 이산-. 그러나 그가 이룩한 문학의 업적은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정규용 기사> (1977.05.24.)

#### · 성북천변 모운숙의 집(박화성 회고담)

동글납작한 얼굴에 안경을 쓰고 시종 웃음을 띤 겸손한 자세의 그 청년을 춘원은 우리에게 독일에서 철학박사의 학위를 얻고 어제 귀국한 안호상씨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깡마른 체구에 어울리는 굵지 않은 음성으로 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답게 세련된 인사를 치른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주로 춘원과 주고받으며 식사와 환담을 끝내고 돌아갈 때는 안박사와 모양이 동반하여 무슨 음악회인가를 간다고 하였다. 이날밤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그들 사이에는 우정과 애정이 급하게 진전되었던 모양으로 끝내 그들은 결혼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춘원선생이 중매한 셈이 된 것 같아 훗날 내가 그에게 물어본 일이 있다.『선생님께서 그렇게 되길 희망하시구 소개하셨던가요?』『누가 저희들더러 결혼하라구만나게 해줬나? 그냥 알구 지내는게 좋을거 같아서 소개한거지.』두털대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작가들에겐 참 솔직하고 순진한 일면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어쨌든 모운숙은 성북동 천로에 있는 자그마한 한옥집에 신접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들은 몇사람을 저녁만찬에 초대하였다. 팔봉이 그 집을 알고 있어서 그와 동행하였더니 안 박사가 새신랑답게 한복차림을 하고 주인노릇을 하느라고 상냥한 웃음으로 대청에서 손님을 맞아들이고 주부인 모여사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뛰쳐나와 그의 독특한 응석조의 어투와 신듯한(요새말로는 「허스키」) 음성으로 기름묻은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아이 형님 어서 오세요. 나 이젠 이런 꼴이 되어버렸다우』하는데 어찌된 일일까, 결혼 후에 처음 만나는 감회 탓일까, 콧잔등이 시큰하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던 기억이 지금도 새로운 것이다. 방안에는 개벽사의 사장인 청오 차상찬씨와 이태준씨가 아랫목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였고 맨나중에 상허 이태준보다 훨씬 다듬어진 미남이 들어왔는데 그를 심훈씨라고 하였다.상허는 『오몽녀』때문에 성명도 생소하지 않았고 『천사의 분노』『실락원의 얘기』『구원의 여인상』등의 소설에서 그의 탁월한 재능에 호감이 갔을뿐더러 어떤 기회에서인지 이미 지면이 되어 있었다. 차씨도 두어번인가 만난 적이 있는 숙면이지만 심씨만이 초대면이어서 누군가의 소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심씨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발견하고 안경테를 한번 만지더니 이내 방바닥에 두손을 잡고 꾸벅 고개를 숙이고 나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나를 쳐다보며 엄숙한 표정을 지어 말했다. 『나 심대섭입니다. 글로는 숙면인데 처음 뵈게 되어 죄송합니다.』나는 얼떨떨해서 자리를 고쳐 앉으며 답례하는데 누군가가 심씨에게 소리쳤다. 『이 사람이 덮어놓고 자전을 하다니. 그 버릇 여전하군.』『척 보면 몰라서 덮어놓고야? 자네들처럼 둔감한 줄 아나? 안 그래요?』심씨는 내게 동의를 구하며, 처음부터 익살을 떨었고 남의 말끝마다에서 꼬리와 티를 잡아 묘한 말을 만들어내면 모두들 와하고 웃음을 터뜨려서 시종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웃기만 하였다. 당시에 심씨는 「조선일보」에 『동방의 애인』이니 『불사조』니를 심대섭이라는 본명으로 발표하였으나 1935년엔가 「동아일보」에 당선소설 『상록수』가 연재되면서떨쳤던 것이다.어쨌거나 그날 밤의 향연은 흐뭇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모운숙은 시만 잘 쓰는게 아니라 음식 만드는 솜씨까지가 훌륭하여서 모든 게 겸비한 여성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 무렵 서해는 조운의 누이 분려와 (1927년쯤결혼) 「매일신보」의 학예부장인 성해 이탄감씨집 사랑채에서 살고 있었는데 「매일신보」의 기자인 서해는 내가 갔을때에도 병석에 있었다. 파란만장의 그의 일생이나마 길지 않을 듯 싶어 비참해지는 심경으로 있는 내게 성해는 「매일신보」에 집필을 강권하였다. 매월 8원씩 주겠다고 역설(그때 판신문은 2원)하는 것을 내가 끝내 거절하니까『후생이 가외로군』하고 비꼬았으나 총독부의 기관지임을 꺼려 훗날까지 기고

하지 않는 지조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1977.12.26.)

#### · 성북동 성곽 주변 102채 건물 철거 방침

표고 70m이상 고지대 건물철거가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철거될 고지대 건물은 동승·옥인 「아파트」주변등 총30개 지구 5천7백27채 16만4천3백67평이다. 이 가운데 5천3백57채의 무허가 건물에는 20만원씩의 철거보조비가 지급되고 유허가건물 3백90채에는 보상비로 모두 9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구별 철거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승 왕인 「아파트」주=집74 ▲면목1, 2, 3동=1백46채 ▲답십리동산12=1백63채 ▲신당동산34, 37, 432일대=5백86채 ▲옥수동산5의102=1백16채 ▲하왕십리동890=21채 ▲행당동388의395, 산30=3백채 ▲정릉동산1=2백50채 ▲동소문동552=61채 ▲돈암동산11의209일대=1백40채 ▲안암동5가152일대=1백54채 ▲인수동산65=1백5채 ▲성북동성곽주변=1백2채 ▲동소문동616일대=2백채 ▲돈암동산80의 83일대=50채 ▲쌍문1동산2714일대=21채 ▲미아동산100, 108일대=4백67채 ▲수색동산28, 30일대=6백81채 ▲연희동산117일대=2백채 ▲홍은동산1일대=63채 ▲홍제동=1백17채 ▲사당동산17, 22일대=2백39채 ▲봉천동 산101일대=4백58채 ▲상도동 산75일대=87채 ▲시흥동산91, 100일대=5백48채 ▲치암동산1일대=1백17채 ▲녹번동산1일대=1백83채 ▲신사동산93, 105일대=27채 ▲응암동산7일대=50채 (1978.03.27.)

#### · 성북동 도로포장공사 준공

성북구 성북동75 주변 도로포장공사가 13일 준공됐다.이 공사는 폭5.5m, 길이 1백20m의 마을 안 길을 포장한 것으로 지난 7월25일 착공됐으며 공사비는 9백80만원. (1978.10.13.)

#### · 전 성북구청 사회과장 오일용 씨(오세창의 3남) 정년퇴직

서울시내 일선 구청에서만 37년2개월 동안 근무해온 오일용씨(61·전 성북구청 사회과장·사진)가 지난6월말 정년퇴직 했다. 25세가 되던 해인 42년5월6일 고원(서기보)으로 경성부에 들어간 오씨는 재임 37년여 가운데 33년간을 일선 구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해왔다. 이른바 서정쇄신의 찬바람이 몰아치기 전까지만 해도「마음만 먹으면 팔자 고치는 노른자위」에서 줄곧 근무해왔지만 오씨는 시말서 한 장 쓰지 않은 청백리(청백리). 지금도 이렇다 할 집 한칸 제대로 장만하지 못했다. 오씨는 33인중의 한 분인 위창 오세창 선생의 3남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성북동 집 안방에는 위창의 휘호 10여 점이 걸려있다. 오씨가 37년여 동안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은 1천2백만 원. 앞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조금은 걱정되지만「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것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1979.07.04.)

#### · 형제강도 수배

서울 성북경찰서는 2일 김태환(24 주거부정 전과4범) 승환(21 주거부정 전과4범)씨등 형제를 붙잡아 상습강도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임모씨(22)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상오 1시30분쯤 서울 성북동 330의209 차영조 변호사(56)집에 들어가 길이 25㎝의 과도로 가죽 5명을 위협, 반항하는 차씨의 2남 도윤씨(25)의 배를 찔러 중상을 입힌 후 현금·자기앞 수표·「다이어」반지 등 모두 1천4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었다.

이들은 또 지난 8월31일 상오 2시15분쯤에도 차씨집에서 2백m쯤 떨어진 미국인 「엘릭스·허치슨」씨(33·한국 「웨스팅·하우스」 재무담당이사)집에 들어가 가정부 김인순씨 (33)와 「허치슨」씨를 전화줄로 묶은 뒤 한화 12만5천원·일화 3만 「엔」등 모두 6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갔었다. (1979.10.02.)



[ 24 ] 1980~90년대 성북동의 재발견

1. 1980년대

- 심우장과 간송미술관의 재발견
  - 만해 한용운 심우장 서울시기념물 제7호로 지정(1984)
  - 태고종 중앙불교회관 낙성(1985)
  - 간송미술관, 추사 김정희 탄생 2백돌 기념 기획전 개최(1986)

2. 1990년대

- 성북동 전통문화의 재발견
  - 성북구, 선잠제향 재현 행사 개최(1993)
    - 성북구, 선잠제보존위원회, 대한잡사회 주관
  - 성북문화원 개원(1996)
    - 성북동 대교단지에 사는 대기업 총수들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원 설립 을 추진
    - 성북구의 행정지원 아래 설립되는 「성북문화원(가칭)」의 발기인은 이동찬(李東燦) 코오롱그룹 회장, 조석래(趙錫來) 효성그룹 회장 등 모두 12명
    - 초대원장 : 구두회(LG창업고문)
  - 성북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1998)
    - 성북로를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사업
    - 성북로 주변의 문화공간들을 연결한 탐방 코스 운영과 성북동 주민센터 맞은편 벽화거리 조성
  - 1999년 6월 인근 한성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그린 벽화는 가로 55미터, 세로 2.2미터의 크기로 성북동의 역사와 인물들을 담음
- 고급 음식점의 변모
  - 삼청각의 변신(1996)
    - 1996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해 '예향'이란 이름으로 영업
    - 1999년 예향이 폐업하자 2000년 서울시가 삼청각 부지와 건물을 도시계획시설상 문화시설로 지정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2001년 전통문화공연장으로 개장
  - 대원각의 폐업과 길상사 개원(1997)
    - 대원각의 소유주 김영한(1916~1999) 여사가 법정(1932~2010) 스님의 책 『무소유』를 읽고 감명을 받아 스님에게 7천여 평의 땅과 건물을 모두 시주하겠다고 간청
    - 1995년 송광사의 분원으로 등록하고 2년여 동안 예전 음식점과 유흥장으로 쓰던 건물을 법당, 선원, 요사채 등으로 개조, 단장한 끝에 길상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개원
    - 개원법회(1997. 12. 14)에서 김수환 추기경 축사

3. 관련 자료

- 성북동 문학유산 탐방 기사(염상섭, 김광섭)



[그림46] 『경향신문』 1996. 7. 28. “형보 염상섭 말년 보낸 성북동 자택”



[그림47] 『경향신문』 1996. 9. 8. “김광섭 시인의 서울 성북동 옛집”

- 1980~90년대 성북동 관련 신문기사(중앙일보)

· 고 박정희 전 대통령 4주기 제사

고 박정희 대통령의 4주기 기제사가 26일 저녁 서울 성북동 유족의 사저에서 친척·친지 등 약 1백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수됐다. 4주기 제사에는 근혜·근영·지만 씨등 유자녀와 김종필 전총리·박재홍의원·한병기·육인수·장덕진씨등 친척들과 김정엽·박광규·신직수·김치열·구자춘·김용환·최각규·김성진·임방현·유철인·조상호·신동배·이광노 씨 등 고인의 측근이 참석해 분향.

이날 제사참례자는 작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숫자인데 참석자들은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인 지 음복을 하면서 고 박대통령의 회고담과 요즘의 근황 등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한편 25, 26일 국립묘지 고 박대통령 묘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했는데 남덕면, 이후락, 윤치영, 김용태, 신병창, 서금철, 구태희, 문병관, 우재현, 이조일, 박동진, 태두완, 성태우, 손수철, 최석채, 이병설, 문태갑, 구상, 유승국, 김일환, 황성지, 박경원, 문형태, 김유탁, 고재일 씨 등이 보였다. (1983.10.27.)

· 채동선음악상 제정한 이소란 여사

부군을 기념하기 위해 채동선음악상을 만든 이소란 여사. 신앙과 남편에 대한 책임감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한다.『저도 세상을 뜨면 영계에서 그분부터 만날 텐데 빛진 죄인으로야, 어찌 대하나, 그동안 걱정이 많았습니다. 상 애기는 벌써 7, 8년된 것이라 헛된 품문만 남기는것 같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 아내로서 큰 빛을 가린 것 같습니다』 30~50년대에 일찌기 독일유학을 끝내고 귀국하여 바이얼리니스트로, 작곡가로 활약했던 고 채동선씨 53년 부산 피난지에서서 52세로 작고한 부군을 기념하기 위해 부인 이소란여사(76)가 이번에 2천만원의 기금으로 채동선음악상을 제정, 8일 제1회수상자 김원복씨(72) 에 대한시상식을 갖는다.

가곡 『그리워], 합창곡 『새야새야 파랑새야], 교풍곡 『조국』등 1백여편의 작품을 남긴작곡가 채동선씨. 부인 이여사가 눈물로 회상하는 남편은 『말은 별로 없었지만 사랑이 깊은 사람』이다. 충북 진천 태생인 이여사가 채씨를 첫 상봉한 것은 이화여전 졸업반때. 여학교때부터의 단짝 친구 채선섭씨(성악가·전리대음대학장)의 오빠로였다. 독일 유학후 귀국길의 채씨를 서울역에서 그의 동생과 함께 만났으나 긴 여행에 지친 탓인지 8년 연상의 그는 초라하고 아파보였다. 그후 채씨는 동생면회를 빙자(?)해 자주 기숙사를 찾아왔고, 서울집(고향은 전남 보성)에 초대하여 피아노쑈씨가 능했던 이여사에게 반주를 부탁하기도 했다. 31년 이전졸업 직후 결혼했고, 연이어 2남4녀를 낳아 키우는 정신없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종일토록 아이들에게 시달리다 아내가 정신없이 잠에 꿀아떨어지면 채씨는 밤늦도록 2층방에서 휘파람을 불며 작곡에 몰두했다. 아이들의 기저귀는 도맡아 갈아주었다. 그동안 채씨는 고려작곡가협회회장·서울시 문화위원·숙명여대교수를 지냈다. 피난지 부산에서 느닷없는 북막염으로 작고한 것은 53년. 맞이가 22살, 막내가 4살인 6명의 졸망졸망한 아이들과 함께 이여사는 46세때 혼자가 된 것이다. 고등교육은

받았지만, 남편의 뜻을 좇아 쪽머리를 하고 집안에만 있었던 그에게 눈앞이 캄캄하고 괴로운지, 슬픈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때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당시 기독교 세계봉사회 총무였던 정동교회 정대성 장로였다.

70년대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부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이여사는 6남매를 훌륭히 키워 영철(52)·영규(47) 두 아들과 두딸은 미국에서, 다른 두딸은 한국에서 산다. 이여사는 결혼직후 부군이 설계해 지은 대지 2백평 남짓, 건평 30평 정도인 서울 성북동 183의17 자택에서 50년 넘게 살고 있다. 언젠가 이 집을 부군의 기념관으로 만들 것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64, 80, 83년에 부군의 유고로 3권의 작곡집을 냈다. (1984.02.07.)

· 김광균 시인, 신작시 발표

원로 시인 김광균 씨(71)가 최근 시작을 활발히 하고 있다. 『와사동』의 시인으로 알려진 김씨는 30년대 서정주 씨 등과 「시인 부락」 등 동인을 함께 하면서 초기 모더니즘 시인으로 각광을 받았었다. 김씨가 최근에 발표한 작품은 현대문학 3월호에 실린 「노시육편」이란 큰 제목이 붙은 시들이다. 『야반』 『안성에서』 『성북동』 『소곡』 『목상』 『한려수도』란 제목의 이6편의 시로 그의 모더니즘적 특성이 아직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4.03.20.)

· 심우장 서울시 기념물 지정

서울시는 20일 3·1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사람인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살았던 심우장(서울 성북동 222의1)을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기념물로 지정, 보존키로 했다. (1984.06.20.)

·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장 별세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장(67)이 15일 하오 7시10분 서울 성북구 성북동126의20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최관장은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 송도고보를 졸업한 후 개성박물관 근무를 시작했다.

8·15광복 후부터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속 근무하면서 국립박물관을 확장·발전시켜온 우리나라 근대박물관사의 증인 역할을 해왔다. 유족은 부인과 결혼한 외동딸이 있다. 장례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치러지며 17일 상오 9시 자택서 발인, 상오 9시 국립극장 광장에서 영결식을 갖는다. 장지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광주공원묘지. 연락처(782)1218. (1984.12.17.)

· 성북천 복개공사장 사고

11일 하오 4시35분쯤 서울 성북동1가 184의 84 성북천 삼선교 상류 복개공사장 옆 축대(높이 5m)가 무너지면서 축대 위에 있던 신영옥씨(57)집이 붕괴, 안방에서 잠자던 신씨의 만딸 혜경양(24)과 부인 이동원씨(55)가 흙더미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혜경 양은 숨졌다. 이 사고로 신씨집 이웃 서복순씨(61·여)집이 반쯤 부서지고 황세열씨(57)집은 심하게 금이 갔으나 집안에 있던 7~8명은 재빨리 피해 화를 면했다. 사고는 공사를 맡은 석락산업 소속 서울 02-8209호(운전사 이동철·25)포클레인이 하천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신씨집 축대 밑부분을 깊게 파내 높이5m, 길이 30여m의 축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일어났다. (1985.07.12.)

· 불교 태고종 「중앙회관」 낙성식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기슭에 건립된 불교 태고종 중앙불교회관이 8일 상오 11시 낙성된다. 근래 보기 드문 한국불교 대불사의 하나인 이 회관은 전통적인 사찰건물의 외형에 현대식 내부시설을 갖추었고 일명 태고사로 명명돼 사찰 겸 청사·교육시설로 활용토록 했다.

회관 규모는 대지 7백10평, 연건평 6백11평의 3층 건물 2동. 본관은 삼간불전(3층), 설법전(2층), 총무원 사무실(1층)등 불·법·승 3정재로, 별관은 종립 동방불교대학 강의실, 승려연수원 기숙사로 각각 사용한다. (1985.11.07.)

· 간송미술관 추사 탄생 200돌 기념특별전

추사 김정희 (1786년 음력 6월3일생) 탄생 2백돌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기획전이 25일부터 6월8일까지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추사의 글씨, 사군자, 산수화 등 1백여 점이 출품되었다. 이 중 30여점은 처음으로 선보이는 미공개 작품.

간송미술관의 최완수씨 (한국민족미술연구소장)는『추사가 30대 후반에 쓴 글씨로부터 71세로 작고할 때 쓴 것까지 연대순으로 진열, 추사체가 성립되는 과정과 추사의 학문적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 가운데는「경전은 날줄로 하고 역사를 씨줄로 한다」는 뜻을 담은 『경경위사』(113×32cm)를 비롯, 추사의 서예이론·화론·경학관 등이 피력된 원고본(16×42cm) 10장도 포함돼 있다. 간송미술관은 올해 안에 추사전집을 발간하고 그 일대기를 담은 『추사실록』(최완수저)도 펴낼 예정이다. (1986.05.26.)

· 성북1동 가압장 시설 확장공사

성북1동 가압장 시설 확장공사가 8월 말 착공, 연말까지 완공돼 성북1동과 돈암2동 고지대의 물 사정이 좋아지게 된다. 사업비 5억4천만 원으로 1천t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고 가압장 내 2백마력짜리 모터펌프 2대를 추가 설치한다. (1988.08.20.)

· 선잠단 정비

조선 때 임금이 농사장려를 위해 선농단(선농단)에서 제를 올리고 친히 소를 몰았던 것처럼 왕비도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선잠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뽕나무를 심어 매년3월 이곳에서 뽕나무를 돌보던 전통이 있었다. 성종 2년때부터 시작된 이같은 의식은 한말 때까지 계속됐으며 왕비들이 이곳의 뽕잎을 따다가 창덕궁내에서 직접 누에를 치기도 했다.

당시 선잠단에는 양잠을 처음 시작했다는 중국황후 서릉씨의 신위를 배향하기도 했는데 1908년 신위가 사직단으로 옮겨지고 일제를 거치면서 선잠단이 사라졌다. 해방후 선잠단이 있던 성북동 64의1에 덧돌과 함께 표석을 설치하고 3백여평의 뽕밭도 조성해 놓았지만 주춧돌 속에 있다보니 아는 이가 별로 없다. 휴일 아이들에게 뽕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면 좋을 듯하다. 단체로 갈 경우 성북구청 문화공보실(927-6864)에 미리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교통편은 지하철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내려 5분정도 걸어가거나 좌석버스 16·712·113번이나 시내버스 2·3·12·20번등을 이용하면 된다. (1990.06.16.)

· 요정 三清閣, 혼례식장 변신

정계, 재계의 상류층 인사들이 즐겨찾던 고급요정인 성북구 성북동 삼청각(三清閣)이「예향(禮香)」이라는 전통혼례식장으로 변모해 시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개업 22년만인 지난 4월 간판을 내린 삼청각은 대지 1천여평 규모의 대연회장인 「일화당」을 대대적으로 개축해 지난10월1일부터 결혼식을 위한 뷔페 및 대규모 모임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화당 앞마당 3백평 규모의 잔디에는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10쌍의 신혼부부가 이 야외예식장을 이용, 혼례를 치렀다. 가마, 사모관대 등 전통혼례 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성균관 유생이 직접 나와 전통혼례 예법대로 예식을 치러준다. 결혼식 장소이용료는 무료. 대신 일화당에서 피로연을 치러야 한다. 양식뷔페인 식사가격은 1인당 2만~3만5천원으로 특급호텔 수준. 일화당에서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각종 모임이나 돌, 회갑잔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하정(幽霞亭), 청천당(淸泉堂), 천추당(千秋堂), 동백헌(東白軒), 취한당(翠寒堂) 등 5개의 별채에서는 일반인들의 각종 모임이 하루 평균 5~6차례씩 치러지고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삼청각은 장안 최고급 요정으로 남북비밀협상이나 한일협상의 막후협상 무대(?)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여야 정치인들의 사고계 밀실로 각광을 받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어 룸살롱 등이 번성하면서 그 명성이 퇴색하기 시작했고 문민정부 출범후 사정바람으로 고위층인사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경영난이 악화돼 고급요정으로서의 22년 역사를 마감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전통혼례식을 치른 崔모(30)씨는「옛날



같으면 일반인들은 접근도 어려웠던 곳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돼 세월의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며『결혼식이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12.11.)

· 한국화가 서세옥의 집

대자연의 푸름과 싱그러움을 대할 기회가 늘상 부족한 현대 생활에서 정원이나 실내에서 곁에 두고 즐기는 꽃 한송이, 나무 한그루가 삶의 청량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손길로 화초를 가꾸고 이를 완상(玩賞)하는 각계 인사들의 화초 가꾸기에 얽힌 이야기를 시리즈로 엮는다. 『서울에서 대나무를 기른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30여년 전부터 마당에 대나무를 심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비로소 6~7년전야야 그 비법을 알아냈습니다. 요즘은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 가까운 친구나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대나무 기르는 법을 전해 이제는 대나무를 키우는 집이 꽤 늘었습니다.』한국화 분야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산정(山丁)서세옥(徐世鈺.66)서울대 명예교수.徐교수는 성북동 자택의 잔설(殘雪)이 흩어진 뜰에서 의연한 푸름을 과시하는 충절과 고고(孤高)함의 상징 대나무와 벗하는 감동을 이렇게 설명한다.『거리에 나가면 부딪치는게 사람이지만 가까이 하고 존경할만한 대상은 드물잖습니까. 비록 대나무는 일개 식물이지만, 눈앞의 잇속이나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일쑤인 현대인들에게 지조와 강직을 말없이 훈도합니다.』徐교수가 20여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터득한 대나무 기르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향일다습(向日多濕),이 네 글자로 요약됩니다. 추운 게 문제가 아니라 햇볕만 잘 들고 물만 충분히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서울에서 대나무가 안 되는 이유는 땅에 모래 성분이 많아 비가 와도 곧장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대나무 뿌리는 5~10cm 정도 얇은 땅속에서 옆으로 뻗어 나가는 속성상 수분이 부족하기 십상이며,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20일 가량에 한번씩 물을 충분히 준 후 뿌리 근처에 짚이나 왕겨를 덮어두면 수분증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한다. (하략) (1995.01.28.)

· 卍海 일대기 연극으로 본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일제치하 독립운동가인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1879~1944)선생의 일대기가 연극으로 공연된다. 성북구는 8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만해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상을 재조명하고 시민에게 애국애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만해선생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공연하기로 했다.성북구의 이 같은 공연계획은 만해선생이 성북구 성북동222「심우장(壽牛莊.서울시기념물제7호)」에서 거주하다 마지막 생애를 보낸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관내 공연단체인 신명예술단(단장朴인배)과 공연협의를 마쳤다. 연극은 8일에는 한차례, 9일과 10일에는 하루 두차례씩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춤과 노래, 무용 등이 합쳐진 총체극으로 공연되며 관람은 무료다. (1995.02.08.)

· 매듭장 김은영 여사 인터뷰

『이 베갯싸개에 놓인 수(繡)를 좀 보세요. 꽃마다 다 뿌리가 달렸죠? 조선왕조의 공주들은 이상하게 명(命)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주 옷에는 꼭 뿌리까지 수를 뵈대요.』꽃수도 고왔지만 수놓은 천에 매듭을 달아 베갯싸개를 만든 장본인 역시 나이를 짐작하기 힘들게 고운 모습이었다. 전영우(全映雨.61) 보성고등학교장겸 간송미술관장 부인 김은영(金銀映.53)씨.『이건 연봉매듭, 저건 가지방석매듭』하고 설명에 열을 올리는 김씨는 지난 달 가나화랑에서 30년 가까운 매듭작업 동안 첫 개인전을 연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다.『강남주부들에게 이런 우리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김씨의 매듭작품은 유난히 예스럽고 은은한 멋을 풍기는 것이 특징.서울성북동 간송미술관과 한 율타리 안에 자리잡은 단층집 거실도 그런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벽난로 곁에 걸린 남편의 동양화 한 점, 빗바랜 형짚소파 옆에 놓인 오래된 토기 한 점.꾸민 데 없이 자연스레 일상에 젖어든 전통미를 느끼게 했다. 金

씨는 그런 안목을 일제때 우리 문화재를 모으는 데 돈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시아버지(澗松 全濤弼)뿐 아니라 「모던한」시세계와는 달리 골동품 보는 눈이 높았던 친정아버지(詩人 金光均)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워낙 따랐어요. 아버지 따라 인사동에 자주 가곤 했는데 이런 저런 구경을 하다 보면 매듭술 달린 노리개 같은 것도 사주시곤 했지요.』시인과 화가는 잘 통한다고 했던가. 남편은 『장인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로 서화를 보는 안목이 통했다고 한다.

친척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서울대와 이대에서 각각 미술을 전공한 데다 이런 집안 분위기까지 비슷해 더 쉽게 가까워졌다. 1년 남짓한 약혼시절 동안 TV에서 매듭을 보고 매료된 김씨에게 무형문화재 매듭선생님을 소개시켜 준 것도 남편이었다. 『실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만며느리이자 2남2녀의 어머니인 김씨는 번번이 남편의 반대에 부딪쳤다.『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매듭밖에 없었다』는 말에는 그런 남편에 대한 원망도 은근히 묻어난 다. 김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마흔 일곱의 나이여야 서울여대공예과 대학원에 진학, 뒤늦게 공부욕심을 채웠다. 서울대 미대에서 강의를 하다 학교형편 때문에 교장자리를 맡은 남편도 작년에 회갑기념전을 열었으니 돌아보면 두 내외는 바라던 것을 꾸준히 이룬 셈.『서로의 작업에 영감을 주는 동반자』라는 김씨부부는 몇 해 전부터는 이집트, 러시아로 함께 여행을 떠났던 동반자이기도 하다. 결혼 초 『가장 소질이 있는 한 아이는 그림을 시키자』던 두 사람의 약속은 서울대 서양화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둘째 딸 덕분에 지켜졌다. 경영학을 하는 막내를 빼고 다른 두 자녀는 집안내력을 대물림이라도 하듯 각각 한국미술사, 중국사를 전공하고 있다. (1995.07.12.)

· 성북동에 고급빌라 속속 들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성북구 성북동 풍치지구에 고급빌라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 빌라들은 고급주택가란 명성에 걸맞게 나름대로 독특한 설계에 따라 건설되다보니 성북동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

대부분 90평형대의 대형빌라며 분양가도 최고 평당 1천2백만원선을 호가하고 있다. 남경건설은 동구여상 아래쪽에 45~1백1평형 「남경그린 빌리지」 68가구를 13일부터 분양중이다.45~60평형 20가구,61~80평형 42가구.80~1백1평형 4가구로 평당분양가는 7백50만원선.동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에는 10평규모의 전용 정원이 딸려 있다. 대원각 맞은편에 민설계(대표 민영백)가 시공중인 「성북 빌하우스」는 길다란 경사지의 특성에 맞게 원형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도입했다. 단일평수 90평형 15가구중 6가구가 남아있으며 분양가는 평당 1천2백만원선. 입주는 내년 4월 예정이다. 신원건설이 성북2동사무소 인근에 건축한 「신원빌라」 80평형18가구도 Y자(字)형에다 1층 로비를 갖춘 이색적인 설계로 이미 완공됐다.현재 8가구가 남아있으며 평당분양가는 최고 1천만원이다. 미덕건설은 성북동 천주교성당 옆에 90평형 「성락원 하이츠빌라」 17가구를 완공해 입주가 진행중이며 현재 일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1996.02.14.)

· 성북동 거주 財界총수들 지역문화원 설립 나서

「성북동 부자마을」로 불리는 대교단지에 사는 대기업체 총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문화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의 행정지원 아래 설립되는 「성북문화원(가칭)」의 발기인은 이동찬(李東燦) 코오롱그룹 회장, 조석래(趙錫來) 효성그룹 회장 등 모두 12명.

이들 외에도 변종하(卞鍾夏) 전 이대교수, 전성우(全晟雨) 간송미술관장 등 학계, 예술계 인사들도 발기인으로 참가해 5월중 첫 발기인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설립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이 성북구에 오랫동안 살아온 반토박이들이지만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 때문에 문화원 설립을 계기로 「동네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발기인으로 참여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

이 사업의 산파역인 진영호 성북구청장은 『대교단지에는 대기업 창업자만 50여명이 살고 있

으며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화원은 미술제, 사진전, 지역축제 등을 주관하고 지역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펼칠 계획. 성북구측은 문화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기증으로 적립된 3억원도 기탁할 계획이다. 성북문화원은 순수민간조직의 비영리단체로 출발해 회원 모금 등을 통해 각종 문화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성북문화원 발기인으로 참가하는 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재계=이동찬, 조석래, 안병균(安秉鈞. 나산그룹회장), 천신일(千信一. 세중대표), 김진형(金鎭炯. 부국물산대표), 정관현(鄭寬鉉. 삼화양행사장), 조동식(趙東植. 인켈명예회장), 김해룡(金海龍. 삼미화학대표), 허남각(許南珩. 삼양통상회장), 박희택(朴喜宅. 범양건영대표), 박정수(朴貞守. 선스타미싱사장), 백성학(白聖鶴. 영안모자사장) ◇학계·예술계=변종하, 서세옥(徐世鈺. 서울대명예교수), 이규호(李圭皓. 고려대명예교수), 조용범(趙容範. 전 고대교수), 주근원(朱槿源. 서울대명예교수), 최만린(崔萬麟. 서울대교수), 전성우(간송미술관장), 정미숙(鄭美淑. 한국가구박물관장) (1996.05.03.)

· 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실장 인터뷰  
유가(儒家)에서는 문(文), 사(史), 철(哲)에 두루 능통하며 서화(書畵). 풍류까지 겸비한 사람을 「통유(通儒)」라 했다. 반면 특정 분야에 빠져있는 사람을 「궁유(窮儒)」라 했다. 바야흐로 궁유가 행세하는 세상이다. 궁유의 시대에 통유의 길을 고집해온 인물이 최완수(崔完秀. 54) 간송미술관(한국민족미술연구소) 학예실장이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로 꼽히는 인물중 한 사람이다. 스포츠형의 짧은 머리와 일견 고집스러움이 엿보이는 동그란 동안(童顏). 50대중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술사 연구를 통해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에 생을 바쳐온 그를 그가 심혈을 바쳐 준비한 「간송미술관 개관 25주년기념 진경시대전」(2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 연구실에서 만났다. 『나에게 역사연구는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 초등학교를 마친뒤 서울로 올라와 경북중에 입학, 고등학교 1학년때 한문반에서 백아(白牙) 김창현(金彰顯)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운명의 시작이랄까요. 그분에게서 한학과 보학(譜學), 선비로서 지녀야 할 마음과 몸가짐을 자상하게 배우게 됐죠. 대학졸업후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혜곡(兮谷) 최순우(崔淳雨) 선생의 권유로 이곳에 와 먼지 쌓인 서가에 있던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 완질을 본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이 책을 본 순간 한 10년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말않고 이곳에 문힐 생각을 굳혔고 만30년의 세월이 흘렀군요.』 서울대 입학식날 한복을 차려입고 등교, 학생과 교수들 사이에 문리대 명물이 된崔씨(그는 요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복을 고집한다)는 곧 크게 실망하게 된다. 한학과 조선문화 전반에 대해 이미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던 그에게 대학은 『총체적인 이해 없이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논문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비춰졌고 논문 수준도 그에겐 『일본학자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 『여기서는 내 뜻을 펴지 못하겠다』는 생각에서 2학년이 된 그는 강의실 대신 동양사연구실을 찾았다. 동빈(東濱) 김상기(金庠基) 선생의 아꼴을 받으며 연구실 한쪽에서 불교사 공부로 대학시절을 마칠 수 있었다. 미술사학자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문화재에 대한 감식안을 전수해준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선생. 『서양식 교육이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끊었다는 생각을 가졌으므로 처음부터 학위를 위한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국립박물관에서 연구원을 모집한다기에 응모했지요. 65년 4월부터 국립박물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현장경험을 쌓기 위해 경주, 부여, 공주 등 주요 지방박물관 근무를 자원했어요. 경주에 내려간 뒤 새벽부터 유물을 찾아 지역 일대를 헤매며 현장조사에 몰두하다가 저를 찾아온 혜곡선생을 처음 뵈게 됐어요.』 당시 혜곡은 감은사지 해체복원공사 때문에 내려온 김에 학계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사학도崔씨의 재목을 가늠하기 위해 일부러 찾았던 것. 밤새워 얘기를 나눈 혜곡은 주요 발굴현장에는崔씨를 동행시켜 현장경험을 쌓게 하고 자신의 학문적 지식 을 전수해 준다. 후에 혜곡이 임종을 앞두고崔씨를 불러 평생 자신의 학문적 업적과 소장한 자료가 쌓여있는 방의 열쇠를 손에 쥐어준 것은 혜곡의崔씨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짚어보게 하는 일화다. (1996.06.02.)

· 서울 성북동 '대원각' 도심속 山寺로 탈바꿈  
서울 도심에서 경복궁을 끼고 삼청터널을 지나 성북동으로 향하는 길목에 나타나는 대원각(大苑閣). 3공시절 '밀실 정치' 의 산실로 일컬어졌던 요정 대원각이 송광사(松廣寺) 의 서울분원 길상사(吉祥寺)로 거듭나 청정도량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불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대원각'이란 간판을 달고 대중음식점 영업도 계속되고 있지만 오는 10월말까지 이사를 완료하기로 약속한 상태고 현재 주지 청학(淸鶴) 스님은 건물 입구 직원숙소에 길상사라는 임시현판을 걸고 불사를 점검하고 있다. 길상사 개원을 위한 백일 기도를 올리고 있는 청학스님은 “현재 자문위원들이 매달 한번씩 모임을 갖고 가람배치와 조형작업등을 논의하고 있다” 며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수행도량의 면모를 갖추고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원각은 대지 7천여평, 연건평 3천여평의 대규모 음식점. 독실한 불교신자인 김영한(金英韓. 여. 81) 씨가 법정(法頂) 스님에게 불교 발전을 위해 활용해 달라며 기증했고 지난달 법정스님이 위촉한 자문위원회가 가람배치와 운영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현 대원각 건물은 물론 주위의 경관과 조형도 그대로 살리기로 했다. 계곡과 연못, 산책로에 늘어서 있는 나무 그리고 현 대원각을 에워싸고 있는 울창한 숲들도 자연 그대로 남겨둔다. 현판만 바꾸고 현재 출입문을 일주문으로 개축하는 한편 대원각 중앙의 신관(금실. 은실)을 법당(극락전)으로 사용하고 우측 모퉁이의 송실을 설법전, 특실을 스님선방으로 활용할 예정. 시기는 미정이지만 출입문 남동쪽으로 지금의 주차장, 테니스장 자리에 연건평 2백50평 규모의 대웅전도 짓기로 했다. 40여동의 건물 중 10개 안팎의 건물만 사찰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가족, 청소년단체 등의 수련공간으로 꾸미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1997.08.17.)

· 만해 한용운 심우장 정비  
만해(卍海) 한용운 선생이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33년 출옥한 뒤 4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물렀던 심우장(尋牛莊)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된다.  
성북구 성북동222의1, 222의2번지 대지 1백13평에 달하는 심우장은 만해를 기리는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지만 현재 만해의 딸 영숙(63) 씨의 사유지로 돼있어 일반시민이 관람하려면 관람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서울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돼 있는 심우장을 한씨로부터 매입한 뒤 99년말까지 대대적으로 정비, 시민들에게 개방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구는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주변 건물의 땅 일부를 함께 매입, 폭 6m의 진입로와 11대 규모의 주차장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1997.11.04.)

· 김수환 추기경 길상사 개원법회 참석  
고급요정 대원각(大苑閣)에서 사찰로 탈바꿈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길상사(吉祥寺, 주지 淸鶴스님)가 14일 개원법회를 가졌다.  
천주교 김수환(金壽煥) 추기경은 불상이 내려다 보는 가운데 “길상사가 도시인들의 영혼의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날 행사엔 대원각을 시주한 김영한(金英韓. 81. 여) 씨와 회주 법정(法頂) 스님, 천주교 장익(張益) 주교, 원불교 박청수(朴淸秀) 교무 등과 일반신도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1997.12.15.)

· 법정스님 명동성당서 강연  
법정(法頂) 스님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회주(會主)로 있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吉祥寺)의 개원법회에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 축사를 해준데 대한 보답으로 오는 2월 24일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개최하는 특별강연에 나선다.  
명동성당측은 오는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 강연회'를 기획, 법정 스님 외에 이정우(경북대, 경제학) 교수, 김종일 목사, 최창무 주교 등의 강연을 듣는다. (1998.01.17.)



· 성북동 배경의 연극 ‘혈맥’ 공연

연극계 복고 바람이 토속적인 사실주의극의 당당한 부활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립극단의 '한국 연극의 재발견' 시리즈 첫번째 작품인 '혈맥' 이 그것. 김영수 작, 임영웅 연출로 12~21일 평일 오후7시30분, 토.일요일 오후4시 국립극장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작가 김영수 (1911~1979)는 이해랑·김동원 등과 함께 한국신극사를 개척한 1세대 연극인중 한 사람이다.

이 작품은 해방직후 서울 성북동의 달동네를 배경으로 기층민과 자본가의 갈등을 그린 그의 대표작이다. 희곡문학의 백미로 평가받는 이 작품이 국립극단에 의해 연극으로 새롭게 조명되는 것은 실로 50년만의 일. 작품발표 이듬해인 48년 제1회 전국연극대회 (극단 신청년)에서 작품상·연출상, 남녀 주연상을 휩쓴 명작이지만 그동안 공연기회가 없었다. 당시 김영수는 신청년의 전속작가였고, 연출가는 한때 동양극장의 간판이었던 박진이었다. 주인공 털보 역에 국립극단장 정상철을 비롯, 백성희, 김재건, 최상설, 전국환 등이 출연한다. 무대 박동우, 의상 최보경. 02 - 274 - 1151 (1998.06.08.)

· 간송미술관 설립 60주년

간송 (澗松) 전형필 (全鉉弼.1906 - 1962) 이 세운 한국 최초의 개인박물관인 보화각 (보華閣.現 간송미술관) 이 설립 60주년을 맞았다.간송미술관은 98년 가을 정기전시로 이를 기념하는 '보화각 설립 60주년 기념특별전' 을 지난 18일부터 11월1일까지 열고 있다. 02 - 762 - 0442. 간송은 잘 알려진대로 일제 치하에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 간송은 보화각 설립에 앞서 1934년 수집과 연구·보존을 할만한 장소로 서울성북동 소재 땅을 사들여 북단장 (北壇莊) 을 개설하고 서화를 보수하는 표구소까지 차려 박물관 준비작업을 벌였다.마땅한 장소가 없어 미처 손대지 못하던 석물 (石物) 구입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때다.지금도 간송미술관을 지키고 있는 석호 (石虎) 한쌍 역시 35년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사들인 작품. 이후 38년에 들어선 보화각은 지난 66년 한국민족미술연구소 부설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간송의 문화재 수집은 24세 때 조선 제일의 갑부였던 아버지 형제의 10만석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시작됐지만 이번 전시는 보화각 설립 전후에 간송이 수집한 문화재 가운데 수집내력이 분명한 작품들 위주로 골랐다.지난 91년 간송 30주기 특별전과 96년 문화인물 특별전을 통해 소개된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집인 국보 135호 '혜원전신첩 (蕙園傳神帖)' 과 현재 심사정의 '축잔도권 (蜀棧圖卷)' , 추사 김정희의 '완당 행서대련 (阮堂 行書對聯)' 등 명품들이 한자리에 소개되고 있다. '혜원전신첩' 은 일본의 거상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사들인 작품이고, 거의 손상된 상태였던 현재의 일생일대의 대작인 길이 8m가 넘는 산수화 두루마리 '축잔도권' 은 당시 5천원에 사들여 6천원을 들여 수리하기도 했다.자식 공부시키고도 평생 편안히 먹고사는데 1만원도 안되는 전답 백석만 있으면 되던 시절임을 생각하면 그의 문화재 보존 열의를 짐작할만 하다.도자기로는 37년 5천석 전답을 처분하면서까지 도쿄에 머물던 영국인 변호사 갯스비가 소유하던 세계최고 수준의 고려청자 컬렉션을 일괄 인수하면서 손에 넣은 국보 65호 청자기린형향로 (靑瓷麒麟形香爐) 등이 이번 특별전에 등장하고 있다.비록 그가 갑부였다고는 하나 명품들은 어느것 하나 쉽게 얻은 것이 없다.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를 알고 내주기를 꺼려한 일본 수장가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 쟁취된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1998.10.19.)

· 전 대원각 주인 김영한 씨 별세

시가 1천억원대의 고급 요정 대원각(大苑閣)을 시주해 97년 도심 속의 수행사찰 길상사(吉祥寺)로 탈바꿈시킨 김영한(金英韓)씨가 14일 오전 서울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83세.

일제 때 가무(歌舞)의 명인으로 유명 시인 백석(白石)의 연인이기도 했던 김씨는 51년 서울 성북동 청암장을 인수해 3공 시절 삼청각과 함께 '밀실정치' 의 요람이었던 대원각을 운영해오다 87년 법정스님의 수필집 '무소유' 를 읽고 시주를 결심했다. 빈소는 서울 중앙대부속용산병원, 발인은 16일 오전. 02-794-7499. (1999.11.15.)

○ 2000년대 성북동 관련 신문기사(중앙일보)

· 윤보 김기창의 삶과 작품세계

23일 타계한 윤보 김기창 화백은 왕성한 실험정신으로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뛰어난 작품들을 선보인 한국화단의 거목이다.그는 7세때 장티푸스로 인한 고열로 후천성 귀머거리가 됐다. 17세때 이당 김은호 화백 문하에 들어가 그림을 배운 지 6개월만에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판상도무(板上跳舞)'로 입선해 일찍이 대가의 소질을 보였다.1937년 선전에서는 '고담'으로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광복 이듬해 동료화가 우향 박래현과 결혼,아내로부터 입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 말문을 트었다.그 뒤 수차례에 걸쳐 부부전을 개최하는 등 금슬을 과시했지만 76년 아내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만년을 외롭게 지냈다.윤보는 타계한 최순우 전국립박물관장이 "의지의 작가요, 정열의 문치"라고 불렀듯 다양한 작품을 섭렵하며 1만5천여점(삽화·대생 포함)의 작품을 남겼다.인물, 산수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초기의 동양화에서부터 한국 산하의 정기를 힘차고 대담하게 그린 청록산수, 조선시대 민화의 정취와 익살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바보산수, 예술정신을 자유롭게 펼친 추상작품 등 그가 다룬 주제와 표현방식에는 한계가 없었다.특히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활짝 핀 '바보산수'에서 그는 과감한 생략과 강조를 통해 우리의 민화를 계승한 자유롭고 해학적인 화풍을 보여주었다.윤보는 바보산수에 대해 “나는 작가 정신이 어린이가 되지 못하면 그 예술은 결국 죽은 것이라는 예술관을 가지고 있어요.바보란 바로 덜 된 것이지요.예술도 끝이 없는 것이어서 언제나 덜돼있을 수 밖에 없지요.”라고 말했다.대표작으로는 '정청' '군마도' '군작도' '가을' '갓 쓴 예수' '홍락도' '문자도' '점과 선 시리즈'등이 꼽힌다.윤보는 농아복지에 특히 관심이 많아 80년 8월 사단법인 한국농아복지회를 발족시켰으며 83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농아연맹에 최초의 한국대표로 참석해 한국을 가입시켰다.“화가가 예술만을 위해 살다보면 환경이로 전락하지만 봉사가 곁들여지면 정말 예술가가 되지요”라던 그는 장애인들에 용기와 신념을 심는 일에 무엇보다 힘썼다. 80년대 중반에 외가가 있던 충북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에 '윤보의 집' 을 세우고 그 옆에 운향미술관과 도예전시관, 윤보공방 등 문화공간을 조성한 그는 이 곳에서 농아들에게 도자기 기술을 가르쳐 자립기반을 닦도록 했다.그러면서도 노르웨이 방문시 웅장한 자연과 폭포들을 보며 ”저 신의 소리를 한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인간적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한국전쟁 때 동생들과 헤어진 그는 지난해 11월 제2차 남북이산가족상봉 때 북에서 온 동생 기만(基萬·72·공훈화가)씨를 50년만에 병상에서 만나 그간의 그리움을 아쉽게 달래야했다.96년 5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래 긴 투병생활을 하면서 “우향이 오라고 한다”는 말을 자주 하던 그는 이제 그리던 아내 곁으로 갔다. (2001.01.26.)

· 요정정치 산실 삼청각 문화공간 탈바꿈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청산해야 할 요정 건물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삼청각(사진)이 외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통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5일 “삼청각 본관격인 일화당(9백70여평)을 전통예술 공연장 겸 전통 음식점으로 개조해 10월말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겠다” 고 밝혔다. 나머지 5개 건물 중 유하정과 청천당.천추당은 연내에 내부를 개조해 다도(茶道)체험장.판소리 전문학교 등으로 활용한다. 한옥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취한당과 동백헌은 외국 귀빈들이 전통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숙박시설로 운영된다. 이로써 이미 종교시설로 변한 대운각·선운각 등 과거 서울의 3대 고급 요정 모두가 면모를 달리한 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북한산 자락 5천8백여평에 위치한 삼청각은 1972년 건립돼 74년 남북 적십자 대표단 만찬장으로 사용됐고 한·일협상 막후협상이 이뤄졌던 곳이기도 하다. 70~80년대 정치인들이 즐겨 찾아 '밀실정치의 산실'이란 애기를 들었고 한때는 일본인들이 이곳에서 기생관광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한창일 때는 외국 주요 바이어들의 단골 접대장소이기도 했다. (2001.03.26.)

· 한국 최초 카톨릭 순교자상 발견

한국 조각가 손으로 빚은 최초의 한국 순교자 성상이 발견됐다. 조각가 최종태(71.서울대 명예교수)씨는 최근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 옆 골목에 있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의 '피정의 집' 외벽에서 열두 명의 순교 성인들 성상을 찾아냈다. 1956년 이 건물이 세워질 때부터 들어서 있던 성상들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지난 7일 수도원을 찾은 최씨는 "평소 이 동네를 지날 때마다 건물벽에 조각품 여러 개가 붙어있는 이 집에 저절로 눈길이 갔는데 들어와 보니 역시 한국 사람 손으로 조각한 한국인의 모습이 틀림없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인 최씨는 장익 주교와 이야기를 나누다 "성북동에 참한 조각들이 있는데 오래된 것은 분명하고 자꾸 마음이 쓰인다"는 말을 듣고 찾아나선 길이었다.열두 성상은 벽돌 건물 3층 바깥 벽에 좌우 대칭으로 구성된 아치 모양 틀에 열 개, 2층 베란다 기둥에 두 개가 서 있었다. '79위 복자'로 받들어지는 한국 성인·성녀들 중 김대건 신부.조신철 가롤로.유진걸 아우구스티노.정하상 바오로.유대철 베드로.김효임 골롬바 등 열두 분을 뽑아 조각했다. 흙시멘트를 재료로 한 성상들은 보존 상태도 좋아 바로 어제 세운 듯 선명하다. 수도회를 창설한 방유룡 신부가 이 건물을 지을 당시를 지켜본 방학길 신부는 "유명한 조각가는 아니었지만 방 신부님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젊은 조각가가 자원해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최종태씨는 "덩어리(매스)를 둥글둥글하게 처리한 솜씨나 겹겹의 옷주름 매무새, 단순하면서도 힘있는 표현 등 첫 눈에 서울대 조소과 출신 선배가 만든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고 말했다.서울대 조소과 7회로 58년에 졸업한 최씨는 김종영 선생의 지도를 받던 50년대 초 선배들이 대부분 일찍 죽어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점을 안타까워했다.하지만 몇 가지 단서는 남았다. 이 성상들을 제작해 납품한 '찬미사'의 대표 최찬정씨는 "서울대 김세중씨가 관여하는 등 서울대 조소과 졸업생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고 확인해줬다. 최종태씨의 서울대 조소과 선배인 최의순씨는 "조각 작품들이 명동성당 안에 있는 장발 전 서울대 교수의 '십사 사도' 그림의 동작과 유사한 점이 많은 걸 볼 때 서울대 조소과 출신의 장기는 선배 등 두 사람 이상이 만든 작품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 열두 순교자 성상이 한국천주교회사의 역사유물로 보존돼야 할 가치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한국 조각사에서도 귀중한 작품이라고 반가워 했다. 미술평론가 김중근씨는 "윤호중·김경승의 기념비성 조각 외에는 별 작품이 없는 1950년대에 이만한 작품성을 지닌 인물상이 제작돼 이렇게 잘 보존돼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작품을 만든 조각가를 발굴하는 일은 미술사 연구자들의 몫"이라고 했다.최종태씨는 "한국 순교 성인들을 조각한 작품들이 한국의 조각가들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점 외에 최초로 건축물에 설치된 점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003.03.10.)

· 최순우 옛집에서 열린 전시회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사장 김인회)은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 성북동 최순우 옛집에서 '최순우가 보았던 세계의 미술-해국 최순우 선생 소장 엽서'전을 연다. 미술사학자이자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해국 최순우(1916~84) 선생이 소장했던 엽서 200여 장과 관련 사진이 나온다. 02-3675-3401. (2005.11.16.)

· ‘바람의 화원’ 전시장을 휘감다

19일 오후 1시,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부터 도로변까지 100m 넘는 줄이 늘어섰다. ‘보화각(간송미술관의 전신) 설립 70주년 기념전’을 보러 온 관객들이다.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1시간 30분 대기는 기본일 정도다. 박규택(40·회사원) 씨네도 인천광역시 부개동 집에서 일찌감치 나섰다. “가끔 혼자서만 전시를 보러 오다가 이번에는 초등생 두 자녀 등 온 가족이 오기로 하고 어제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그림을 점찍게 했다.” 전시장 진열장 앞은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1층 전시장 벽에 걸여둔 단원의 ‘마상청앵’, 혜원의 ‘미인도’ 앞에서는 인파가 떠날 줄을 몰랐다. 김재은(29·여)씨 역시 “SBS 인기 드라마 ‘바람의 화원’이 시작된 후 원작 소설

을 찾아 읽었는데, 소설 속의 그림 대부분의 소장처가 간송미술관이어서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미술관 측은 이날 하루 1만 5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했다. 개막일인 12월 2만여 명이 몰린 데 이어 평일에도 6000~7000명씩 왔으니 8일 만에 8만여명이 간송 소장 조선 서화의 보배들을 보고 간 셈이다. 전시가 끝나는 26일까지 20만 명쯤이 찾아올 걸로 예상된다. 2006년 봄 ‘간송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대전’ 때와 비슷한 인파다. ‘공짜 눈호사’지만 불만과 우려의 소리도 많다. ‘드물게 나온 귀한 명작들을 보기는커녕 인파에 숨조차 쉴 수 없다’ ‘수천 명이 몰리는 미술관에 단칸 화장실이 웬 말이나’ ‘낮은 진열장 속 국보급 서화들이 몰려든 관람객들 때문에 훼손될까 우려된다’ 등이다. “70년된 미술관 건물은 간송기념관으로 활용하고, 별도의 제대로 된 상설전시공간을 마련해 개방하는 것은 어땠겠느냐”(경원대 윤범모 교수)는 제안도 나온다.

미술관도 고민이다. 봄·가을 보름간의 정기전 기간 중에는 미술관 산하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연구원 5명 뿐 아니라 전시장 정비를 위한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써 7명이 달라붙지만 역부족이다. 입장료나 후원금을 받아 관람 여건을 개선할 수는 없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간송 전형필(1906~62) 선생의 삼남인 전영우 관장은 “후손이 간송의 소장품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돈벌이를 하려 든다는 비난을 받게 되면 간송의 뜻을 훼손하는 일 아닌가. 당분간은 어렵지만 지금의 방식을 고수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2008.10.20.)

· 국내 최초 외교관 사택단지

서울 성북동에 외교관 사택단지가 들어선다. 주한 외국 경제인·외교관 등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곳에 전 세대가 복층으로 설계된 유럽식 타운하우스가 처음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분양을 시작했다. 시행사인 서머셋빌더스의 강형석 본부장은 “이미 50~60% 정도 계약을 마쳤다”면서 “외교관 사택단지는 비교적 작은 규모여서 성북동에서 중간 규모의 주거지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사교장소 '커뮤니티 홀' 운영=국내 최초의 외교관 사택단지인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최고의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중앙에 24시간 운영되는 '커뮤니티 홀'은 국내 거주 외교관들에게 비즈니스와 사교 장소의 공간으로 이용된다. 소규모 공연 시설과 파티장, 피트니스 클럽, 스쿼시장이 함께 들어온다. 시공사측은 “외교관들과 내국인 입주민 모두 문화예술을 즐기며 관심분야를 나누게 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광·환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실벽 전체를 유리로 마감했으며 주방가구와 욕실, 거실바닥에 이탈리아 본템피와 조르다노, 스페인 로카사 등 최고급 외국산 마감재를 적용했다.이밖에 유명 호텔이나 백화점 등과 협의해 음식 및 백화점 VIP 서비스, 커뮤니티 관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벽한 보안을 위해 에스원의 '세콤' 서비스를 도입, 61세대 전 거주자 대상의 '1대1 안전서비스'도 운영한다. (2009.09.15.)

· 법정스님 입적

산문집 ‘무소유’로 널리 알려진 법정(法頂)스님이 11일 오후 1시 52분쯤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입적했다. 향년 78세. 법정 스님은 지난달 하순 지병이 악화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자신이 창건한 사찰인 길상사로 몸을 옮긴 뒤 열반에 들었다.

법정 스님은 지난 3~4년 간 폐암으로 투병해왔다. 산문집 ‘무소유’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법정 스님은 1997년 12월 길상사를 세웠다. 2003년까지 길상사 회주를 맡으며 대중 법문을 해왔다. (2010.03.11.)



## 5. 성북동 문학 자원

### [ 25 ] ‘성북동 문학’의 범주 확장

#### 1. 기존 성북동 관련 문학 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연구의 방향

##### ○ 기존 연구의 한계

-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 중심으로 인물 파악, 조명
- 폭넓은 문화허브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성북동을 무대로 하여 활동했던 작가들의 행정을 주소지만으로 재구하는 것은 한계
- 소설가 안수길, 이호철은 성북동의 암자에서 집필하였는데, 이 경우 주소지 기록만 가지고 보면 이 사실은 누락

- 기존 주목 받은 성북동의 문학인
  - 한용운, 이태준, 김광섭, 조지훈

- 새롭게 조명 받는 성북동의 문학인
  - 염상섭, 박태원, 박태원, 김내성, 김광균, 김향안, 김수영, 전광용, 김종삼, 김구용, 한운사, 정한숙, 정한모, 이어령

참고자료 : 『성북, 100인을 만나다』 (2015)

##### ○ 새로운 연구의 방향

- 작품에서 성북동을 주요 소재나 배경으로 삼았던 작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 이들 작가들을 ‘성북동 문학인’ 명단에 적극 편입시킬 필요
- 성북동이 표제뿐 아니라 내용에서 등장하는 문학 작품들을 조사하고, 문인들의 회고나 당대의 ‘문단가십’ 등 소식란을 살피는 작업 필요

#### 기존연구

- 주소지·거주지 중심의 인물 탐색
- 일제강점기의 문인 위주 부각
- 작가, 작품 자체의 존재에 주목

#### 앞으로의 연구방향

- ‘집필’ 장소로서의 성북동에 주목
- ‘성북동’을 표제나 소재, 배경으로 사용한 작품 탐색
- ‘성북동 문학(인)’의 범주 확대
- 작품의 시대적, 예술적 의미의 이해

#### 2. 문학 작품 속 ‘성북동’의 이미지

##### ○ 기존 성북동의 이미지

- ‘풍류를 아는 교양인들의 주거지’로서의 이미지
- 성북동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문학작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흔히 경제적 여유를 갖춘 교육자, 작가, 사회운동가들이 성북동 거주자로 설정
-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성북동 문학’으로 적극 재조명해야 함.
- 김광섭의 시 ‘성북동 비둘기’의 이미지
- 이 시가 꾸준히 성북구 관련 대표 문학 작품으로 호명되는 것은 반성할 여지가 있음
- 성북동이 갖고 있는 문화공간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표제가 아닌 실제 내용의 독해를 통해 성북동이 갖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재구해야 함

##### ○ 문인들에게 비친 성북동의 이미지

- 일제강점기
  - 사대문 밖이면서도 접근성이 뛰어난 휴양지
  - 당일치기로 나설 수 있는 거리로서, 가깝지만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휴양지
  - 암자 등에서 칩거하여 글을 쓰려는 문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
- 8.15해방 이후~1960년대 초반
  - 교양과 경제적 여유를 겸비한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여 고급주택가의 대명사로 각인되는 시기
  - 단순히 호화주택이 늘어선 것이 아니라, 교양을 갖춘 이들이 입주해 있다는 이미지도 함께 보급
  - 성공한 작가가 되어 성북동에 이사한 사연이 인구에 회자된 바 있는 김내성 스스로가 ‘성북동인’의 한 전형으로서 받아들여진 면이 있음
  - 김내성 등 유명 작가에 의해 가장 자주 소설의 배경으로 소환된 때가 이 시기로 고급스런 주택 뿐 아니라 명승고적에 못지않은 자연경관도 유지하고 있는 최고급 주택가로서 알려짐
  - 근처의 돈암동·종암동과 대비되어 형상화
- 1960년대 이후
  - 부자들과 특권층이 유입되고,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기 시작
  -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김지하의 『오적』, 정한숙의 『성북동』
  - 특권층의 비밀회동 장소로서의 요정에 대한 형상화가 이루어짐
  - 산업화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그려지면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만들어짐
  - 장편소설의 배경이 되는 빈도는 극적으로 낮아짐

##### ○ 이미지의 각축과 공존

- 긍정적인 이미지로서의 성북동과 부정적 이미지로서의 성북동은 1960년대 이후 서로 각축하며 공존
- 역사문화지구로서 성북동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 3. 문인 커뮤니티의 장(場), 성북동

##### ○ 일제강점기

- ‘구인회’, 『문장』 동인, ‘청록파’

##### ○ 8.15해방~1960년대

- 자유문학가협회/해의문화파의 수장이었던 김광섭,
- 청년문화파협회 혹은 『현대문학』 계열의 주요 인사였던 조지훈과 조연현이 성북동에 거주
- 해방 이후 발간한 문학잡지 『백민』, 『현대문학』, 『자유문학』, 『문학예술』 동인들의 교류가 성북동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성북동은 문인들 간의 활발한 공적/사적 회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 시인 고은을 사칭하다 체포되었던 이가 성북동을 주무대로 삼아 활동했던 것을 보면, 이 일대가 문인들, 혹은 문인 지망생들의 교류 장소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음



〈현대문학〉(1955)



〈문학예술〉(1954)



〈자유문학〉(1956)



〈백민〉(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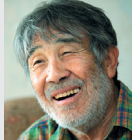
[그림48] 성북동 문학 관련 잡지들의 창간호 표지

## [ 26 ] 새롭게 조명 받아야 할 성북동 작가들

### 1. 성북동 작가들

#### ○ 새로운 성북동 작가군의 발굴

- 한용운, 이태준, 김광섭, 조지훈 등 성북동 거주 문인으로서 기존에 활발히 논의되었던 작가들 외에,
- 성북동 거주 문인이면서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거나, 성북동 거주 문인이 아니더라도 성북동에서 활동하였거나, 성북동을 소재/배경으로 삼았던 문인들에게도 주목해야 할 시점

|                    |                                                           |                                                                                                                                                                                                                                                        |
|--------------------|-----------------------------------------------------------|--------------------------------------------------------------------------------------------------------------------------------------------------------------------------------------------------------------------------------------------------------|
| 1 성북동거주문인          | 이 태 준 박 태 원 김 기 진<br>한 용 운 김 일 엽 김 역<br>김 광 섭 염 상 섭 조 지 훈 |    |
| 2 성북동에서 집필활동을 한 문인 | 김 래 성 이 광 수 이 길 룡<br>안 수 길 이 효 석 이 산<br>이 호 철             |    |
| 3 성북동을 배경으로 한 문학   | 박 완 서 김 동 리 조 정 래<br>김 광 균 고 은 윤 대 녕<br>윤 백 남 마 해 송       |    |

[그림49] 성북동 문학의 범주 확장 개념도

#### ○ 김내성(金來成)<sup>87)</sup>

- 작가의 삶
- 평남 대동 출생(1909~1957), “탐정소설의 개척자”
- 1943년 성북동 208-12로 이주해 와서 요양차 함경도에서 잠깐 지낸 시기를 제외하면 계속 성북구에서 거주
- 대중소설 작가로서 그동안 학계에서 저평가된 경향이 있으나, 사실 한국문학사상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작가 중 한 명
- 성북동과 주변을 자신의 소설의 배경으로 애용했으며, 작가 자신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모은 돈으로 성북동에 이사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김→ ‘성북동은 성공한 교양인이 이주하는 동네’라는 이미지를 각인
- 성북동에 거주했던 어떤 작가보다도 성북동을 대표할 만한 자질을 가진 문인

#### - 주목할 작품

- 김내성, 「쌍무지개 뜨는 언덕」, 『소년』, 1950.

◆부잣집과 가난한 집에 각각 입양된 일란성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 부잣집은 성북동, 가난한 집은 돈암동으로 주소가 설정되어 있음. 당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알려진 성북동의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강화하고 있는 작품

- 김내성, 「애인」, 경향신문, 1955. 6. 15.

◆“그 때의 법률이 결투를 허용했으니까 입회인을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중략) / “산으로 가요.” / “그렇지요. 깊은 산골짜기 같은 데가 좋겠지요.” / 이리 하여 차는 창경원 앞을 그대로 지나 동소문 고개를 넘었다. / “성북동으로 들어가!”

87) 김내성(1909~1957) : 평남 대동 출생. 1936년 가회동, 명륜동, 돈암동 셋방을 전전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태풍』의 인세로 성북동 집을 장만했다. 1948년에는 돈암동 69-10번지에 다시 집을 마련하였다. (『성북, 100인을 만나다』, 24쪽.)

#### ○ 안수길(安壽吉)<sup>88)</sup>

- 작가의 삶
- 함남 함흥 출생(1911~1977), “『북간도』의 작가”
- 주소지가 안암동, 종암동 등으로 되어 있어 기존에 ‘성북동 문인’으로 분류되지 않았음
- 회고를 통해 자신의 대표작 『북간도』가 성북동에 위치한 암자에서 집필되었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힘.  
(※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문인 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예)

#### - 주목할 작품

- 안수길, 「창을 남으로」, 동아일보, 1967. 11. 6.

◆“절이라고 조그만 암자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에 신심이 두터운 할머니가 영감이 돌아간 뒤에, 정리한 재산으로, 성북동 막바지 골짜기에 지은 아담하고 정결한 암자였다.”

- [신문기사] 「『북간도』의 안수길 씨」, 동아일보, 1967. 10. 31

◆“그리하여 지난봄부터 반년을 성북동 한사에서 씨름, 나머지 4, 5부를 완성했다.”

#### ○ 홍효민(洪曉民)

- 작가의 삶
- 경기 연천 출생(1904~1976),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평론가 겸 소설가”
- 성북동 거주 문인으로서 ‘성북동인’이라는 필명을 사용
- 주목할 작품
- 홍효민, 「나의 아호 나의 이명」, 동아일보, 1934. 4. 11.

#### ○ 고은(高銀)<sup>89)</sup>

- 시인의 삶
- 전북 군산 출생(1933~), “『만인보』의 시인”
- 주목할 작품
- 고은은 1990년대 『동아일보』에 장기연재한 자전적 장편소설 「나의 산하, 나의 삶」에서 성북동과 관련된 일화들을 매우 많이, 자세히 소개
- 「나의 산하, 나의 삶」은 성북구 문인들에 대한 회고를 가장 폭넓게 소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성북동의 문학을 재구하면서 이 작품에 소개·수록된 고은과 주변 문인들의 행적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고은, 「나의 산하, 나의 삶」, 『동아일보』, 1992~1995.

◆성북동의 문인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다루고 있고 이태준, 김광섭, 이호철, 조지훈 등과의 성북동 교류생활이 그려져 있음. 이호철의 성북동 암자 생활 소개 (1992.12.27.)

#### ○ 김동리(金東里)<sup>90)</sup>

- 작가의 삶
- 경북 경주 출생(1913~1995), “해방 후 한국 현대문학의 거목”
- 성북구 거주 문인은 아니었으나, 「지연기」, 「해방」, 「혈거부족」 등에서 성북동을 적극적으로 배경으로 사용
- 김동리가 한국문단에서 갖고 있었던 영향력으로 볼 때 성북동의 문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88) 안수길(1911~1977) : 함남 함흥 출생. 서라벌예대 교수를 지냈으며 종암동 123-71번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앞의 책, 25쪽) 대표작 『북간도』를 성북동 어느 암자의 방을 빌려 집필했다.

89) 고은(1933~) : 전북 군산 출생. 고은(본명 : 고은테, 별명 : 一超)은 1952년 출간한 뒤 불교정화운동이 거세지던 1957년 북한산 일선사에서 집을 풀고 공부했다. 고은은 자신의 범명인 일초(一超)의 ‘일’과 이 절을 창건한 도선국사의 ‘선(諡)’을 따 절 이름을 ‘일선사(一諡寺)’라 했다. 이 무렵 정릉에 사는 예술인들, 화가 한묵·박고석, 소설가 박경리 등과 교유했다. 1962년 환속한 고은은 이후 전국을 떠돌아 다니다 1967년부터 윤호영의 도움으로 정릉에 기거했으며 1970년 정릉 골짜기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하였으나 다행히 예비군 훈련 때문에 의식불명의 신체가 발각되어 입원, 의식을 회복한 뒤 장기간 치료와 휴양을 하고 1971년 연희동으로 이사하였다. 상경 후 많은 문인, 화가들과 교류가 있었으며 성북동도 중요한 만남 장소 가운데 하나였다.

90) 김동리(1913~1995) : 경북 경주 출생. 1945년 서울로 올라와 돈암동에 작은 한옥을 마련하여 살았다. 서라벌예대 교수와 문학 관련 협회를 이끌며 박경리를 포함해 수많은 문인들을 문단에 추천하고, 양성하였다. (앞의 책, 27쪽) 소설 「혈거부족」(1947)에서 해방 직후 성북동과 돈암동 등지의 풍경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 주목할 작품
- 김동리, 「지연기」, 『동아일보』1946.
- 김동리, 「혈거부족」, 『백민』, 1947.
- 김동리, 「해방」, 『동아일보』1949.10.9.

○ 박태원(朴泰遠)<sup>91)</sup>

- 작가의 삶
- 서울 출생(1908~1987),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박태원은 성북동 문인으로서 충분히 조명 받지 못했으나, 「천변풍경」 등 대표작을 성북동 거주시에 집필하였으며, 구인회의 중심 멤버로도 활동
- 성북동 문인들의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호명할 필요
- 근거 자료
- 「해금작가 박태원 아들 재영씨」, 『동아일보』1988.7.23.
- 박일영, 『소설가 구보씨의 일생』, 문학과지성사, 2016.

[ 27 ] 성북동 관련 문학작품

1. 성북동 관련 문학작품의 분류

- ‘성북동’이 표제에 포함된 작품,
- 성북동을 주요 소재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작품
- 거주/비거주 문인들에 의해 성북동에서 집필되었다고 밝혀진 작품

2. ‘성북동’이 표제에 포함된 작품

- 작품 경향
  - 성북동을 표제로 삼고 있는 세 편의 시·소설(김광섭, 강은교, 정한숙)에 드러나는 성북동의 이미지는 대체로 도시개발에 의한 음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어두운 편임
  - 이번에 발굴한 수필 2편(김동섭, 이운재)은 훌륭한 자연경관으로 작가나 지식인들이 휴양을 위해서, 또 작업을 위해서 즐겨 찾던 고장으로 성북동을 묘사함
- 작품 목록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시), 『월간문학』, 1968.
  - 강은교, 「성북동」(시), 『현대시학』, 1969.
  - 정한숙, 「성북구 성북동」(소설), 『한국문학』, 1982.
  - 김동섭, 「성북의 향기」(수필), 『동아일보』 1930.3.27~4.6.
    - ◆ 성북동의 일제강점기 발전 과정을 소상히 담은 중요한 초기 성북구 관련 문학 자료
    - ◆ “성북동엔 별장이 많다. 그것은 예전 일리려니와 요새는 없든 집이 들어서곤 또 들어선다.”
  - 이운재, 「성북 청룡암에서」(수필), 『동아일보』 1934.8.30.

3. 성북동을 내용이나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

- 긍정적인 이미지
  - 1930년대
    - 이길용<sup>92)</sup>, 「신록의 대경성 부감기」(수필), 『동아일보』1933.6.10.
      - ◆ ‘학도의 마을’이라는 성북동의 이미지를 강조
      - ◆ “평지에서 보아 언덕인 듯 만 듯한 저쪽으로 문화촌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북동, 해화공보와 보성공보도 형제처럼 이웃했는데 중앙불전은 좀 더 높은 곳에 지었으면… 할 만큼 이름에 알맞지 않아 보인다. 어쨌든 완연 학도의 마을이다.”

91) 박태원(1909~1986) : 서울 중구 다동 출생. 1940년 돈암동 487-22번지에 대지를 마련하고 직접 설계한 집을 지어 살다가 1948년 『약산과 의열단』의 인쇄 대신 성북동 230번지 집을 받아 이사하였으며 1950년에 월북했다. 시인 이상, 소설가 이태준과 절친했다. (앞의 책, 23쪽)

92) 이길용(1899~?) : 독립운동가·언론인. 성북동 56번지 거주.

- 이효석, 「단상의 가을」(수필), 『동아일보』1933.9.20.
  - ◆ 성북동의 자연 경관 묘사
- 김안서(김억)<sup>93)</sup>, 「가을, 바람, 다드미」(수필), 『동아일보』1933.9.20.
  - ◆ 시 말미에 ‘성북동서’라는 표기가 있어서 배경이 성북동임을 알 수 있음

- 이무영, 「먼동이 틀 때」, 『동아일보』1935.
- 엄홍섭, 「춘일수상」(수필), 『동아일보』1936.3.31.
- 윤백남, 「백연유전기」(수필), 『동아일보』1936.8.23.
  - ◆ 성북동 유람기. 성북동 마전터에 대한 설명
  - ◆ “시내의 먼지를 피하여 공기 맑은 성북동으로…”

- 김영석, 「비둘기의 유혹」, 『동아일보』1938.12.1.
  - ◆ 작품 중 교장선생의 주거지가 성북동으로 설정

- 이태준, 「딸 삼형제」, 『동아일보』1939.6.27.
- 이규희, 「여화교사」, 『동아일보』1939.9.19.
  - ◆ “서울 교회 하고도 어디를 주어치나 성북동이야말로 수석이 정갈하기로 으뜸일 것이다. 뒤로는 줄기 찬 뒤편리가 담을 두르고 골은 아늑하고 시내는 아름다웠다. 그 중에도 그럴 듯한 터전을 잡아서 남작의 별장이 있었다.”

- 1940년대
  - 김희창, 「臭」(수필), 『동아일보』1949.4.16.
    - ◆ 풍류인 정수동과 성북동을 연결
    - ◆ “이리 가는 사람은 다 성북동이야.” / “바로 여기가 정수동이 지나다니던 길이지요.”

- 김동리, 「해방」, 『동아일보』1949.10.9.
  - ◆ “하윤철의 집은 성북동에 있었는데, 때가 이른 여름이라 맑게 개인 하늘 파랗게 돋는 나뭇잎, 우지짚은 새 소리- 이런 것이 모두 이날따라 이장우에게는 별천지같이 느껴졌다.”

- 1950년대
  - 김내성, 「쌍무지개 뜨는 언덕」, 『소년』, 1950.
    - ◆ 부잣집과 가난한 집에 각각 입양된 일란성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 부잣집은 성북동, 가난한 집은 돈암동으로 주소가 설정되어 있으며 당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알려진 성북동의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강화하고 있는 작품

- 김내성, 「애인」, 『경향신문』 1955.6.15.
  - ◆ “그 때의 법률이 결투를 허용했으니까 입회인을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종락)/“산으로 가요.”/“그렇지요. 김숙한 산골짜기 같은 데가 좋겠지요.”/ 이리 하여 차는 창경원 앞을 그대로 지나 동소문 고개를 넘었다. / “성북동으로 들어가!”

- 장덕조, 「격량」, 『경향신문』 1957.12.4.
  - ◆ “차는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넓은 길 한 옆에 개천 같은 것이 흐르고 먼 나그넷길에 오른 듯 은주는 마음이 서글퍼졌다. / 드디어 흰 돌문이 지나고 긴 정원길을 굴러 들어가 차는 높은 지붕에, 창문이 많은 어떤 건물 앞에 머물렀다. / “여기가 어데야.”하고 물으니 성북동이라는 대답이었다. / 그곳이 추련의 ‘아뜨리에’인지 넓은 홀 안에서는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전축이 즐거운 곡조를 울리고 있었다.”

- 박화성, 「내일의 태양」, 『경향신문』 1958.6.10.
  - ◆ “해경은 전교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소녀라는 지명을 받았었다. 해경의 집이 성북동이어서 늘 길동무가 되었다는 조건보다도 …”

93) 김억(1895~) : 평북 정주 출생. 1930년대 초반 성북동 거주.

- 1960년대
  - 안수길, 「창을 남으로」, 『동아일보』 1967.11.6.
    - ◆ “절이라고 조그만 암자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에 신심이 두터운 할머니가 영감이 돌아간 뒤에, 정리한 재산으로, 성북동 막바지 골짜기에 지은 아담하고 정결한 암자였다.”
- 1970년대
  - 최남백, 「식민지」, 『동아일보』, 1971. 2. 19.
    - ◆ “성북동 울창한 송림, 옛 성터를 뒤에 짙어지고 동향으로 별장이 앉아 있었다.”
  - 박기원, 「여자의 계단」, 『경향신문』, 1978. 9. 7.
    - ◆ 이 이유 없는 반발은 아마도 골목길까지 차를 댈 수 없는 자기집의 초라함과 성북동의 건평이 1백여 평이 넘는다는 경환이 하고의 현실에서 오는 격차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 1980년대
  - 김광균<sup>94)</sup>, 「한철이」(수필), 『경향신문』, 1980. 4. 29.
    - ◆ 작가가 성북동 자택에서 사색한 내용임을 밝힘.
  - 조선작, 「굴레」, 〈매일경제〉, 1987. 11. 5.
    - ◆ “집안에 이십 평 정도의 넓은 화실이 있는 호화주택이었으며, 마침 김정숙이 살고 있는 성북동에 그런 집이 나온 게 있어 함께 구경하고 왔다는 것이다.”
- 1990년대
  - 고은, 「나의 산하, 나의 삶」, 『동아일보』(연재 1992~1995)
- 2000년대
  - 박완서<sup>95)</sup>, 「그 남자네 집」, 『문학과 사회』, 2002.

○ 부정적인 이미지 및 기타

- 1930년대
  - 이무영, 「산장일기」(수필), 『동아일보』1934.11.3.
- 1940년대
  - 김동리, 「지연기」, 『동아일보』1946.
    - ◆ 당시 미군들의 물자를 훔쳐서 팔던 광경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음. DDT를 탈취해가는 아이들을 성북동, 삼선교를 지나는 전차길에서 목격. 사대문 밖의 성북동인들의 삶의 편린을 보여주는 작품.
  - 김동리, 「혈거부족」, 『백민』, 1947.
    - ◆ 성북동 빈민촌이 소설의 배경
- 1950년대
  - 윤백남, 「야화」, 『동아일보』1952.12.30.
    - ◆ 역사소설에서 성북동이 등장한 드문 예로 내용과 음모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음
    - ◆ “서울서 전해온 보고에 의하면 그대가 수양대군의 부인 윤씨와 어느 절에서 알게 되어서부터 수차의 비밀 내왕이 있었고 또 최근에 서울 성북동 어느 암자 별당에서 하루를 함께 있었으며(후략)”
  - 오영수<sup>96)</sup>, 「염초네」, 『현대문학』, 1956.
  - 이철주, 「야맹」(시), 『동아일보』1958.4.30.
    - ◆ “지금쯤 미아리나 삼청동 막바지 성북동 어느 모퉁이에는 내일이 어려워 울고 신음하는 꽃과는 아랑곳없는 꽃을 잊은 인생들…”

94) 김광균(1914~1993) : 경기 개성 출생. 1980년대 성북동에 살았으며, 부암동에서 세상을 떠났다. (앞의 책, 28쪽)

95) 박완서(1931~2011) : 경기 개성 출생. 한국전쟁 후 성북구 돈암동에 살았고 1960년대 초부터 결혼 후 1981년까지 보문동의 한옥에서 살았다.

96) 오영수(1909~1979) : 경남 울산 출생. 1954년 서울로 올라와 돈암동 250번지에 집을 마련하였고 1963년 우이동으로 이사하였다가 1977년 낙향하였다. (앞의 책, 23쪽)

- 마해송<sup>97)</sup>, 「모래알 고금」, 『경향신문』1959.1.28.
  - ◆ “저 신사는 정말 성북동까지 불일이 있어서 가나보다. 나를 꺾어 가려고 하는 나쁜 사람은 아닌가보다’ 하였다.”
- 1960년대
  - 이석봉, 「삼화」, 『동아일보』1967. 8. 19.
    - ◆ 성북동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단편소설
- 1970년대
  - 김지하, 「오적」, 『사상계』, 1970.
    - ◆ 성북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작품. 당시 정치인들을 비롯한 유력자들의 유흥 장소로 이용되었던 성북동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음. 문학사적 중요성이 높은 작품으로, 이 작품으로 인해 잡지 『사상계』가 폐간 당함.
  - 「새 문화 풍속도5」, 『경향신문』1976.10.14.
    - ◆ “400만원입니다.” / “여기 성북동 xx번지인데요, 지금 좀 갖다줄 수 있습니까?” / 마치 중국음식주 문하듯 그림을 주문하는 예가 흔한 게 이즈음의 풍토다.
- 1990년대
  - 황석영, 「흐르지 않는 강」, 1990.5.14.
  - 조정래<sup>98)</sup>, 「한강」, 1999.4.1.
    - ◆ 성북동을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채택



[그림50] 문학작품에서 성북동의 이미지 변화

4. 성북동에서 집필된 작품

- 이산, 「한 낮의 꿈꾸는 사람들」(희곡) 『동아일보』1932.1.1.
- 김안서(김억), 「가을, 바람, 다드미」(수필), 『동아일보』1933.9.20.
- 안수길, 「북간도」, 『사상계』, 1960.
- 김광균, 「한철이」(수필), 『경향신문』1980.4.29.

97) 마해송(1905~1966) : 경기 개성 출생. 1966년 정릉 자택에서 타계하였다.

98) 조정래(1943~ ) : 전남 순천 출생. 1959년 보성고에 진학하며 상경하였으며 1970년 동구여상 재직시 소설가로 등단하였다. 아내는 김초혜 시인.



5. 관련 자료

○ 성북동 관련 문학작품(김광섭·강은교·정한숙·안수길·최인훈)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비둘기』, 범우사, 1968.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올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쿡알 하나 짝어 먹을  
넒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강은교, 「성북동」, 『허무집』, 칠십년대동인회, 1971.

거기서 무엇이 보이느냐  
저문 뒤  
바람도 보이느냐  
맞은편 하늘로 길은 사라지고  
모든 지붕은 멀리 사라지고  
어디서 흐린 마치 소리가  
진종일  
뼈의 집을 짓고 있다  
햇빛은 등뒤에서 한결 뚜렷하다  
몇 사람은 흙 속에서  
구름과 함께 서성이고  
뒤뜰에는 자주 기침하지 않는 하느님

한겨울 쉬었다가 내리는 눈  
때없이  
죽은 아버의 혼도 날아다닌다  
불치의 병을 기다리는  
나의 새벽이  
순라꾼의 맨발을 기웃거리고  
누군가 저 산그늘 밑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있다

· 정한숙, 「성북구 성북동」, 『한국문학』, 1982. 2.

“성 밑으로 완만한 구릉을 이룬 삼선동 일대는 자두와 복숭아 나무로 가득 찬 과수원과 목장이 있었다. 이 목장이 폐쇄되면서 별장과 주택이 들어섰다. 〈…〉 거리는 새로 닦은 신작로 주변을 따라 개발되어 갔다. 이 무렵부터 기계 문명이 시작되었다. 신작로 위에 쇠길이가 생겼으니 전차 선로다. 돈암동 종점에서 종로 4가로 나가는 전차 소리에 알을 품던 산평과 삐꾸기의 울음소리는 멀어졌다.”

· 안수길, 「『통로』 연재 무렵」, 『안수길 전집』16권.

그래서 어디 교외로 나가기로 했는데 얼핏 생각한 것이 작년 여름에 『북간도』 4, 5부를 쓴 일 이 있는 성북동 골짜기의 약사암으로 가서 그 근처를 배경으로 몇 컷 찍기로 했다. 그때에는 아 직 현대문학사에 자가용이 없었으므로 택시였던가 사장차였던가 어쨌든, 사에서 골목에 대령시 켜 놓은 차로 성북동 골짜기로 달렸다. 그러나 1년 사이에 언덕 위의 약사암은 험려 자취도 남지 않았고 입구였던 곳의 바위에 ‘약사암 입구’라고 쓰여 있는 것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내가 기거하고 있던 3, 4개월간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대지(垓地) 소유권 문제에 암자측이 불 리해 혈어 가지고 광나루엔가에 옮겨갔다는 간단한 소식을 근처의 구멍가게에서 들려주었다. 암자 앞에서 찍으려던 것이 그만 허탕이 되고 말아, 입구 바위에 걸터앉아 한 컷, 포즈를 취했다.

그 외에도 근처의 팔정사, 청룡암 등에서 여러 장 찍었으나 예고에 쓴 것은 약사암 입구 바위 에 걸터앉은 장면이었다.

예고 때의 『통로』는 가제였다. 물론 내가 작명했다. 그러나 어쩐지 미흡한 생각이 들어 김 편 집장과의 전화에서 그것을 우선 가제라고 표시해 주도록 부탁했다.

·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72.

구보씨는 5시 반에 성북동에 있는 ‘유정’이라는 술집에 닿았다. 거기가 『성남동 까치』 출판 기 념회 자리였다. 여느 술집과 마찬가지로, 가로가 긴 아크릴 간판을 단 한옥이었다. 이 집의 위치 를 초청장 뒤에 그린 지도를 보고 찾아왔던 것인데 쉽게 찾았다. 쉽게 못 찾을 만하면 하긴 술집 도 아닐 것이었다. 별써 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구보씨는 앉은 사람 모두에 대하여 막연히 인사하고 빈자리에 가 앉았다. 대청마루와 건넌방 사이의 문을 걸어 내고 상을 여러 개 붙여놓 은 자리에 앉아서 살펴보니, 둘러앉은 얼굴은 모두 선배들이었다. 사람들이 이어 들어왔다. 새 로 온 사람들이 자리에 앉다가 말고 김광섭 씨에게 인사하러 가는 것을 보고서야 구보씨는 김광 섭 씨가 아까부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공교롭게 그가 앉은 줄 몇 사람 건너에 앉아 있 어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인사하러 가야 했으나 이미 사람이 들어찬 자리가 몹시 좁아져 있었으므로 그는 그만뒀다.

(중략)

(김광섭) 씨의 지금 얼굴은 사실은 없어도 좋은 여러 선들을 지우개로 모두 지워버린 다음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는 『성남동 까치』에 실린 시들을 생각하였다. 그 시들에게는 말로만 듣던, 삶의 겨울의 그 무서움이 있었다. 닳아빠지도록 징징 운 적이 없는 사람이 나 정말 봤소, 하고 보고하는 그 삶의 겨울의 얼굴이 있었다.

(중략)

“‘성남동 까치’ 좋지?”

“응.”

‘성남동 까치’는 이번에 나온 시집의 이름이자 그 속에 실린 한 편의 이름이었다. 김광섭 씨의 앓기 전의 시는 존 턴을 연상케 하는, ‘形而上學의 騎士’가 투구를 쓰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기생방 병풍 냄새 같은 것이라든지, 청상의 안쓰러움 같은 것이 대체로 주류를 이룬 시단에서 그의 시풍은 쇠소리가 울리는 특이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시집에서 그는 그 투구를 벗고 있었다. 그리고 구보가 놀란 것은 투구를 벗은 그의 머리가 그사이에 세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투구 안에서 그는 다른 싸움을 싸웠던 모양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투병하는 동안 그에게 씌우고 있었던 옛날의 그의 시풍의 투구를 그는 스스로 벗고, 지금도 그러리라고 생각해 온 그와는 너무 다른 얼굴을 드러냈던 것이다. 투구보다는 더 튼튼한 그러나 가벼운, 싸움을 치른 그의 체력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함과 무게 사이의 비례 관계를 벗어난 그런 옷을 입고 그는 서 있었다. 아니 저기 앉아 있다.

· 최인훈, 『화두』, 문학과지성사, 1994. (제6회 이산문학상 수상)

우연하게 이루어진 방문이었다. 나는 삼선교에서 택시를 내려보니 참 오랜만에 이 동네에 오는구나 하는 느낌이 일었다. 삼선교 길을 흐르던 냇물이 있던 자리는 포장이 되어 있었다. 다리 저 편과 이 편의 지형을 간직하고 있던 기억 속의 풍경에 순식간에 그림 한 장이 추가되는 운동이 생생하게 실감된다.

(중략)

그녀가 사는 동네에 상허 이태준이 살던 집이 있다는 말은 지난해에 듣고 있었다. 그 말을 하던 그때 우연히 알게 됐다는 얘기였다. 그때는 그렇게만 들었다가 그 후에 만났을 때 또 그 얘기가 나온 끝에 관심이 있으시면 방문하실 수 있게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이 올해 정월이었는데, 방문 교섭이 되었다는 것이다. 〈해방전후〉에서 상허는 적고 있었다. 〈…현은 정말 살고 싶었다. 살고 싶다기보다는 견디어내고 싶었다. 조국의 적일 뿐 아니라 인류의 적이요, 문화의 적인 나치스의 타도를 오직 사회주의에 기대하던 독일의 한 시인은 몰로토프가 히틀러와 악수를 하고 독소 중립조약이 성립되는 것을 보고는 그만 단순한 생각에 절망하고 자살하였다 한다. 그 시인의 판단은 경솔하였던 것이다. 지금 독소는 싸우며 있지 않은가? 미영중도 일본과 싸우며 있다. 연합군의 승리를 믿자. 정의와 역사의 법칙을 믿자! 정의와 역사의 법칙이 인류를 배반한다면 그때는 절망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은 집을 팔지는 않았다. 구라파에서 에이전선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고 태평양에서 일본군이 아직 라바울을 지킨다고는 하나 멀어야 이삼 년이겠지 하는 심산으로 집을 최대한도로 잡혀만 가지고 서울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떠났다가 해방이 되자 〈해방전후〉를 집필한 그 집으로 가고 있다.

(중략)

그 골목에 들어서자 한 집 건너서 오른쪽으로 돌로 쌓은 기초 위에 조금 높게, 흰 석회 바탕에 돌이 박힌 기와 얹은 담이 있었다. 담의 온 길이의 중간쯤 되는 곳에 담이 휘어져 들어갔다다 다시 저쪽으로 이어지는 곳에 돌 기초 높이만큼 계단이 있고 계단을 올라선 곳에 기와지붕이 얹힌 두쪽 나무 대문이 보였다. 강양이 대문 기둥에 붙은 벨을 눌렀다. 곧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 주었다.

(중략)

이렇게 집을 다 살펴본다. 그의 몇 단편들에 묘사된 집이 이 집이다. 그는 이 집을 짓는 이야기를 수필로 쓰기도 했다. 그의 수필도 모두 읽을 만 하지만 그중에서도 훈훈한 이야기였다. 이제 집안을 다 둘러보고 장독대 앞에 있는 의자에 와 앉아서 집을 바라본다. 집은 그 시절의 규모로도 결코 큰 것이라 할 수 없으나, 그가 수필에서 구식 목수들의 인품을 칭송한 끝에 "이들의 손에서 제작되는 우리 집은 아모리 요새 시체 집이라도 얼마쯤 날림 끼는 적을 것을 은근히 기뻐하며 바란다."고 한 그 바람을 잘 이루고 있어 보인다. 작아서 아담하고 구석구석 알뜰해 보인다. 이것이 상허 선생의 집이었다. 여기서 그는 그 구슬 같은 단편들을 다듬어 냈고 격동하는 시기의 숨결을 귀중하게 증언한 〈해방전후〉를 썼고, 일본 패망 직전에 시골로 가면서도 팔지 않은 이 집을 뒤로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것이다.



## [ 28 ] 문인 커뮤니티와 성북동

### 1. 성북동 문인 커뮤니티의 구성

- 성북동은 많은 문인들의 거주지였고, 그 중에는 <문예>의 주축이었던 이태준, <자유문학>의 주축이었던 김광섭, <현대문학>의 주축이었던 조연현 등 문인 커뮤니티의 중심역할을 맡았던 문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문예> 동인, <청록집> 동인, ‘구인회’ 동인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 이번 조사에서는 성북동에서의 문인 활동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의 서지를 제공하며,
- 성북동이 갖고 있는 문인/문학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좀 더 활발하게 찾아 정리해야 함.

### 2. 문인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여러 갈피

- ‘시인군’ 동인 활동
  - “시내 성북동 180-8 시인군사에서 그동안 발간 준비 중이던 시잡지 「시인군」을 9월 초순에 내놓으리라 한다. (『문화소식』, 『동아일보』1947.9.2.)
- 조지훈과 김기창의 필담
  - “필담을 주고 받던 기억은 성북동 골짜기에 이웃해 사는 오늘날까지 생생한 회고담으로 떠오르기도 한다.”(조지훈, 김기창 저 『화방여적』, 『경향신문』1962.12.11.)
- 『자유문학』 관련
  - 「회원소식」, 『자유문학』, 1957.7.
  - 「회원동정」, 『자유문학』, 1957.9.
  - 「문단75인의 지상발언」, 『자유문학』, 1959.1.
- 안수길과 남정현, 최인훈 교류
  - 「작가 안수길 씨 별세」, 『동아일보』, 1977.4.18.
  - 「북간도의 안수길 씨」, 『동아일보』, 1967.10.31.
- 1950년대 문인 총람
  - 「현존 한국문학인 총람」, 『문화세계』, 1953. 9.
- 김광섭과 문인교류
  - 「내가 겪은 20세기(22)」, 『경향신문』, 1972.6.2.
  - 「나래 접은 성북동 비둘기」, 『경향신문』, 1977.5.24.
  - 「우리 문학유산을 찾아(20)」, 『경향신문』, 1996.9.8.
- 조연현과 문인교류
  - 「조연현 씨 日 호텔에서 별세」, 『경향신문』, 1981.11.24.
  - 「조연현씨 유해 도착 28일에 장례」, 『동아일보』, 1981.11.25.
- 이태준과 『문장』
  - 「문단이면사 31」, 『경향신문』, 1983.9.3.
  - 「월북작가 상허 이태준 문학비 제막」, 『경향신문』, 1998.7.28.
  - 「나의 산하 나의 삶113」, 『경향신문』, 1992.12.27.
  - 「나의 산하 나의 삶151」, 『경향신문』, 1995.4.30.
- 김내성과 성북동
  - 「흘러간 만인의 사조 베스트셀러」, 『경향신문』, 1973.2.10.
- 조지훈 및 청록파
  - 「문단이면사 21」, 『경향신문』, 1983.6.25.

- 「이호철의 문단골 60년 이야기」, 『한국일보』, 2011.6.7.
- 「나의 산하 나의 삶 114」, 『경향신문』, 1993.1.10.
- 「나의 산하 나의 삶 184」, 『경향신문』, 1994.5.22.
- 「청록의 시혼 속에 짧은 인생」, 『경향신문』, 1968.5.18.

#### ○ 심우장 문학 행사

- 「만해의 충절 살아숨쉬는 심우장」, 『경향신문』, 1983.2.28.
- 「인물동정」, 『매일경제』, 1995.6.29.
- 「심우장에 만해 표징 세워」, 『경향신문』, 1995.7.2.
- 「우리 문학 유산을 찾아(1)」, 『경향신문』, 1996.1.29.
- 「3월은 만해 한용운의 달」, 『동아일보』, 1991.2.25.
- 「한용운 유고에 비친 시세계」, 『동아일보』, 1970.10.5.

#### ○ 성북동 고서집

- 「여적」, 『경향신문』, 1964.8.19.
- 「나의 젊음 나의 사랑1」, 『경향신문』, 1997.9.1.

#### ○ ‘아마추어 문학가의 고장’ 성북

- 「글쓰는 즐거움 여성 축제 장원」, 『동아일보』, 1984.6.8.
- 「문학소년 음독자살」, 『동아일보』, 1958.8.24.
- 「문학소녀 자살」, 『동아일보』, 1966.8.29.
- 「휴지통」, 『동아일보』, 1968.10.2. (고은 사칭범의 성북동 활동)

#### ○ 백석과 김영한

- 「백석과 자야」, 『한겨레신문』, 1999.11.2.

[ 29 ] 성북동(구) 문인의 교과서 수록 작품

1. 성북동(구) 출신 문인의 교과서 수록 작품 현황

| 거주지   | 문인    |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작품(수) |      |      |     |
|-------|-------|--------------------|------|------|-----|
|       |       | 계                  | 시    | 소설   | 수필  |
| 성북구   | 26명   | 105                | 77   | 12   | 6   |
| (성북동) | (19명) | (77)               | (62) | (11) | (5) |

[표14] 성북동(구) 출신 문인의 교과서 수록 작품 현황

2.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과 소설

| 연번 | 구분 | 문인  | 거주지          | 작품수 | 작품명                                                                                    |
|----|----|-----|--------------|-----|----------------------------------------------------------------------------------------|
| 1  | 소설 | 이태준 | 성북동          | 2   | 돌다리, 달밤                                                                                |
| 2  | 수필 | 이태준 | 성북동          | 1   | 바다                                                                                     |
| 3  | 소설 | 박태원 | 돈암동<br>(동선동) | 1   | 천변풍경                                                                                   |
| 4  | 소설 | 이 상 | 성북동          | 1   | 산촌여정                                                                                   |
| 5  | 소설 | 김유정 | 성북동<br>(정릉동) | 4   | 봄봄, 동백꽃, 금 따는 공발, 만무방                                                                  |
| 6  | 소설 | 이효석 | 성북동          | 1   | 메밀꽃 필 무렵                                                                               |
| 7  | 소설 | 염상섭 | 성북동          | 2   | 만세전, 삼대                                                                                |
| 8  | 소설 | 전광용 | 성북동          | 1   | 까베딤리                                                                                   |
| 9  | 수필 | 법 정 | 성북동          | 2   | 먹어서 죽는다, 무소유                                                                           |
| 10 | 수필 | 조지훈 | 성북동          | 1   | 책이 놓는 다리                                                                               |
| 11 | 소설 | 박완서 | 돈암동<br>(동선동) | 7   | 아빠의 선생님이 오시는 날,<br>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br>옥상의 민들레꽃, 자전거 도둑,<br>시인의 꿈, 겨울 나들이<br>배반의 여름 |
| 12 | 수필 | 박완서 | 돈암동<br>(동선동) | 3   | 나의 이중 언어시설의 이중성,<br>사랑의 입김, 운수 안 좋은 날                                                  |
| 13 | 소설 | 박경리 | 돈암동<br>(동선동) | 1   | 토지                                                                                     |
| 14 | 수필 | 양주동 | 돈암동<br>(동선동) | 1   | 몇 어찌                                                                                   |
| 계  |    | 12명 |              | 28편 |                                                                                        |

[표15]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성북동(구) 출신 문인의 소설·수필

3.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시

| 연번 | 구분 | 문인  | 거주지          | 작품수 | 작품명                                                                 |
|----|----|-----|--------------|-----|---------------------------------------------------------------------|
| 1  | 시  | 한용운 | 성북동          | 8   | 사랑하는 까닭, 복종, 나룻배와 행인, 남의 침<br>묵, 당신을 보았습니다, 수의 비밀, 알 수 없어<br>요, 오셔요 |
| 2  | 시  | 정지용 | 성북동<br>(돈암동) | 12  | 해바라기씨, 고향, 호수, 말, 향수, 유리창1, 비,<br>그의 반, 난초, 말, 유리창, 유리창2            |
| 3  | 시  | 김기림 | 성북동<br>(구인회) | 2   | 유리창, 바다와 나비                                                         |
| 4  | 시  | 이 상 | 성북동<br>(구인회) | 2   | 겨울, 오감도                                                             |
| 5  | 시  | 김수영 | 성북동          | 3   | 눈, 폭포, 풀                                                            |
| 6  | 시  | 백 석 | 성북동          | 9   | 백화, 수라, 뗏새소리, 팔원, 여승, 고향, 석양,<br>여우난골죽,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                  |
| 7  | 시  | 김광섭 | 성북동          | 4   | 저녁에, 나의 사랑하는 나라,<br>성북동 비둘기, 산                                      |
| 8  | 시  | 허영자 | 성북동          | 2   | 겨울햇볕, 행복                                                            |
| 9  | 시  | 김종삼 | 성북동          | 2   | 목화, 민간인                                                             |
| 10 | 시  | 조지훈 | 성북동          | 5   | 고풍의상, 민들레꽃, 봉황수, 승무, 풀잎단장                                           |
| 11 | 시  | 정한모 | 성북동          | 2   | 가을에, 나비의 여행-아가의 방5                                                  |
| 12 | 시  | 김광균 | 성북동          | 4   | 뗏상, 와사등, 외인촌, 추일여정                                                  |
| 13 | 시  | 신동엽 | 돈암동          | 6   | 붉은 겹데기는 가라, 금강, 산에 언덕에, 행복을<br>기도드리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 14 | 시  | 이육사 | 종암동          | 5   | 절정, 청포도, 광야, 꽃, 교목                                                  |
| 15 | 시  | 신경림 | 정릉동          | 8   | 나무1, 동해바다, 파장, 가난한 사랑노래, 갈대,<br>눈 온 아침, 농무, 목계장터                    |
| 16 | 시  | 고 은 | 정릉동          | 3   | 그 꽃, 열매 몇 개, 화살                                                     |
| 계  |    | 16명 |              | 77편 |                                                                     |

[표16]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성북동(구) 출신 문인의 시



## 6. 성북동 미술 자원

### [ 30 ] 아방가르드 미술인들의 동네, 성북

#### 1. ‘아방가르드 미술인들의 동네’ 성북, 미술과의 인연

- 젊은 아방가르드 미술인들의 창작동네 성북
  - 한국의 미술계에서 성북은 친정이나 본가, 고향처럼 친근한 느낌을 주는 장소
  - 미술계의 원로들이 다수 거주
  - 작고한 화가들의 자택이 미술관으로 문패를 바꾼다는 경우도 많음
- 50년 전 성북동은 젊은 미술인들에게 창작의 푸른 터전
  - 도심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수려한 산수를 간직한 성북동의 지리적 특성이 미술인들의 예술적 영감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침
  - 도심에 비해 지가나 집값이 저렴해서 창작활동을 위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기에 용이함
- 성북은 아방가르드 미술인들의 집합소
  - 성북에 자리잡은 젊은 미술인들은 아카데미즘적 미술전통을 단순히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변화와 저항의 예술을 표방
  -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의 맨 앞줄에 서서 한국 미술의 변화를 이끌어 감
- 성북동 마전터가 주는 예술적 영감
  - 마전 : 조선시대 성북둔을 중심으로 존재한 성북동의 주민들의 생업 중 하나로 생포목을 잣물에 빨아서 벌에 말린 후 표백하는 일
  - 화폭의 흰 천(캔버스)을 연상케 하는 지난날 성북 주민의 마전 일은 훗날 이 지역에 살게 되는 미술인들의 도래를 예고한 듯이 여겨지는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

#### ○ 아방가르드[전위예술(前衛藝術), avant-garde]

아방가르드는 전위(前衛), 선두, 선구 등의 뜻으로 프랑스의 군사 용어인 ‘전위(부대의 전초로서 선발된 소수 정예부대)’에서 나온 말. 정치적 의미로 오늘날에는 좌익(左翼)과 같은 말로, 특히 예술 상으로는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대한 반항, 혁명적인 예술 정신의 기치를 내걸고 행동하는 예술 운동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의 주이나 형식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신시대의 급진적인 예술 정신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말이지만,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추상주의와 초현실주의를 중심으로 한 조형활동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들 활동의 배후에는 기계 문명의 발달과 무의식 세계의 규명, 원시 예술의 발굴, 사회 의식의 확대 등 신시대적인 여러가지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이 말은 반자연주의라는 점에서 동시대의 문학, 연극, 영화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그 실험적, 혁명적인 행위에 대해서 쓰여진다. (출처 :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 2. 동양화단의 흐름

- 오원 장승업은 이후 성북 미술인들의 선배격
  - 타고난 천재성으로 조선 화단을 호령했던 오원 장승업의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 성북동 지역 출입
  - 장승업의 직계제자 조석진, 안중식을 뒤를 이은 근원 김용준은 ‘노시산방’이라고 불리던 자신의 성북동 집을 나중 후배이자 서양화가인 수화 김환기에게 넘김
- ‘묵림회(墨林會)’와 ‘한국화회(韓國畫會)’, 한국전쟁 이후 동양화의 전위를 형성
  - 서울대(동송동 소재) 미대 동양학과 출신 화가들, 가까운 성북에 이웃하며 모여 살기 시작

- 동양화단의 ‘앙팡테리블’ 박세원, 서세옥, 정탁영, 송영방, 임송희, 신영상, 이규선 등은 ‘수묵추상’이라는 동양화의 전위(가보지 않은 길) 개척
-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왜색 짙은 채색화 중심의 일본풍 동양화가 대세로 자리 잡았던 시기에 한국전쟁 이후 발표한 이들의 ‘수묵추상’은 화단의 거센 아방가르드적 충격파

#### ○ 대표 화가

- 장승업(1843~1897), 변관식(1899~1976), 장우성(1912~2005), 박세원(1922~1999), 서세옥(1929~ ), 신영상(1935~ ), 임송희(1938~ ), 송영방(1936~ ), 정탁영(1937~2012), 이규선(1938~2014), 김기창(1913~2001), 박래현(1920~1976)

#### ○ ‘성북동 청괴(靑怪)’ 모임

돌을 너무나도 사랑한 서울대 출신의 동양화가 몇몇은 ‘성북동 청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성북동 푸른도깨비’란 뜻인데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돌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 수집한 돌에 대해 자랑을 했다.

서세옥은 창덕궁 연경당을 본 따 지은 자신의 집 무송재에 근원 김용준이 노시사방에 두고 즐겼다는 수석부터 여러 수석과 석물을 모아놓고 감상했다. 제자인 송영방, 임송희, 신영상 등도 스승을 따라 성북동으로 들어왔다. 근처에 있었던 동송동 서울대 미술대학까지 멀지 않았고, 형제만큼이나 가까웠던 선후배들과 모여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송영방은 돌과 매화를 미치도록 좋아한다는 뜻의 매석취호(梅石醉豪)를, 임송희는 돌에 취했다는 뜻의 ‘취석현(醉石軒)’을 각각 당호로 삼았다. 제2의 자아를 표현하는 호에도 돌에 대한 사랑은 여실히 드러난다. 신영상은 오래된 돌이라는 뜻의 노석(老石)을, 임송희는 ‘돌로써’라는 뜻의 ‘이석(以石)’을 호로 쓰면서 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했다.

#### 3. 서양화단의 흐름

#### ○ 성북동과 서양화단의 아방가르드 움직임

- 성북의 노시산방이 수향산방이 되면서 수향산방의 새 주인장 수화 김환기를 시작으로 아방가르드적 정신을 지닌 서양화가들도 하나 둘씩 성북 주변으로 이사들어와 이웃하기 시작
- 일본에서 추상미술을 표방했던 자유미술가협회를 통해 추상미술에 입문했던 이들은 신사실파, 모던아트 협회 등을 통해 추상미술의 세계를 국내에 소개
- 이들은 구상과 추상을 아우르며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방가르드적 활동을 펼쳐나갔다.

#### ○ 일본 자유미술가협회 출신 화가들과 신사실파의 창립

- 일본 자유미술가협회 출신 화가들의 신경향
  - 김환기는 자유미술가협회와 신사실파를 모두 아우르며 아방가르드의 선봉에 서며 유영국, 이중섭과 함께 일본에서 자유미술가협회 회원으로 작품활동을 펼쳐나감
  - 보수적 아카데미즘에 반기를 들고 추상적 미술을 표방한 아방가르드 미술운동 단체였던 자유미술가협회의 1937년 창립전에는 한국화가로는 김환기와 문학수, 유영국, 주현 등이 출품
  - 1943년 자유미술가협회는 미술창작가협회전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이때 열린 제 7회전에서 이중섭이 태양상을 수상
  - 김환기와 유영국은 기하학적 추상양식을 보여주었고 문학수와 이중섭은 초현실주의 경향이 강한 작품들을 제작
- 해방 후 화단의 아방가르드적 움직임 ‘신사실파’의 창립
  - 일본에서 자유미술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이들은 귀국이후인 1947년 즈음 ‘신사실파’를 발기하고 창립전을 개최

·조형이념으로 결성된 최초의 그룹이라고 평가받는 신사실파는 김환기, 유영국, 이규성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전쟁이후 열린 1953년 5월의 전시회에는 이규상이 빠지고 백영수와 이중섭, 장욱진 등이 가담

#### ○ 이북 출신 화가들의 모던아트협회, 그리고 기조전

- 한국전쟁기 피난지 부산에서의 움직임
- 한국전쟁은 막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새로운 예술을 모색하던 화단에 큰 재앙이었으나 젊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피난지인 부산에서도 작품활동 계속
- 수화 김환기를 중심으로 했던 신사실파가 부산에서 전시를 가졌고, 박고석, 한묵, 이봉상, 정규, 황염수 등 훗날 모던아트협회를 결성한 이들도 전시회 개최
- 주로 월남한 이북출신 예술가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덕분에 이들은 서로를 예술적으로뿐 아니라 동지이자 형제처럼 의지하고 지냄

#### ○ 대표 화가

- 김환기(1913~1974), 변종하(1926~2000), 윤중식(1913~2012), 한 묵 (1914~ ), 박고석(1917~2002), 이중섭(1916~1956), 황염수(1917~2008), 김종하(1918~2011), 표승현(1929~2004), 전성우(1934~ ), 오 윤(1946~1986), 김성환(1932~ )

## [ 31 ] 성북의 동양화가들

### 1. 장승업(1843~1897)

훗날 성북에 깃들어 살게 된 미술인들의 선배적인 오원 장승업. 그는 영화 <취화선>(2002)에서 술을 마신 취흥으로 일필휘지, 번득이는 영감을 화폭에 옮기는 천재적 조선말기의 화가로 관객들에게 각인됐다. 말 그대로 ‘취화선’이었다. 그의 호방한 아방가르드적 화풍이 후배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된 것이 아닐까.

영화에서 보여준 생사 경계를 초월한 듯한 신선과도 같은 장승업의 신화는 근원 김용준의 ‘근원수필’의 ‘오원일사’를 바탕으로 한다.

“...오원은 생전 생사란 뜬구름과 같은 것이니 경계 좋은 곳을 찾아 숨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와 친했다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 종군기자 고 우미우라 아즈야의 말로는 매일같이 만나던 오원이 수년래로 거처가 불명하게 되었으니, 그는 필연코 신선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sup>16)</sup>

‘나도 화원이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오원(吾園)이라는 호를 붙인 장승업은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과 함께 조선시대 3원 중 하나로 손꼽히는 조선말엽 최고의 화가다. 성북1동 치안센터 옆에는 그가 살았다는 초가집 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산정 서세옥이 20대였던 50여 년전 그곳을 찾았을 때는 그 초가집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한다.<sup>17)</sup>

분방한 열정과 탁월한 기량으로 ‘오원양식’을 일군 장승업은 지금의 광교부근에 육교화방을 마련하고 북경 역관들을 비롯한 서화애호가들의 후원을 받았다. 문인산수화풍과 관학화된 남종화풍, 참신한 일격화풍을 모두 계승하는 한편, 이를 보다 호방하게 구사하면서 기이하고도 환상적 경향을 새롭게 수용했다.

오원양식은 심한 변형으로 기괴한 느낌을 주는 고사산수화와 인물화 및 도석화를 비롯해, 당분법에 의해 호분과 농묵을 덧칠하거나 수묵과 담채의 번지기 또는 몰골법으로 활달하게 나타낸 감각적 화조동물화에서 각광받았다. 특히 그가 유행시킨 ‘기명절지화’는 문아(文雅)한 취향과 세속(世俗)적 기복이 공존하는 그림이다. 수묵을 위주로 하면서 연하게 바림하여 먹빛을 부드럽게 하고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격조있는 문인화풍과 화원화풍

16) 노형석, 「장승업은 생활인이었네」, 『한겨레21』, 2008년 제712호.

17) 당시 사랑채 한쪽 벽이 밀려 있었는데 키 큰 장승업이 자면서 벽을 밀어낸 것이라고 한다. 산정이 1995년 미술의 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 자리에 집 표지석을 세워놓았으나 주책가로 개발이 되면서 성북동 74-1번지에 있는 성북전시관 외벽에 붙여놓았다. (산정 서세옥 인터뷰, 2009~2010, 『우리동네 잊혀져가는 옛이야기를 찾아서-성북동』, 31쪽.)

이 교묘하게 복잡한 화풍이다. 기명절지화의 유행은 그를 후원했던 중인 역관 계층의 취미 때문이었다. 이들은 직업상 중국을 자주 왕래하며 청말의 금석탁본, 서화고동 애완 문화를 직접 접했고, 이에 동참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고 감상과 수집을 할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신흥 엘리트 계층이었다.<sup>18)</sup>

기명절지화의 표본인 <백물도권>은 지식인들의 문화적 아취, 통속적 기복성, 그리고 유유자적한 일상의 향유 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고대 청동기와 난분, 백모란, 백목련, 수선화 등의 화훼류, 사군자에 속하는 국화와 난초 채소류인 배, 토란, 연밥, 가지, 무와 함께 계와 조개, 수석과 인삼, 주전자 등이 그려져 있다.

살아 꿈틀거리는 듯 호방한 그의 화풍은 화훼, 영모, 인물을 가리지 않는다. <녹수선경>은 사슴에게 경전을 가르치는 신선을 묘사한 것으로 자화상이라는 설이 있는 작품이다. 이같은 오원양식은 개화기 서화계를 주도한 조석진(1853~1920)과 안중식(1861~1919) 등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림51] 장승업, <녹수선경>



[그림52] 장승업, <백물도권>

### 2. 변관식(1899~1976)

황해도 옹진 출신으로 호는 소정(小亭).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전통을 계승하면서 ‘소정양식’을 완성했다. 한의사 정연(鼎淵)과 조선 왕조의 마지막 화원이었던 조석진(趙錫晉)의 딸인 함안 조씨(咸安趙氏)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장승업의 수제자 중 하나였던 조석진을 외조부로 둔 덕분에 11살 되던 1910년 서울에 올라와 외조부가 교수로 있는 서화미술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림인생이 시작됐다. 1923년 서화미술원 출신의 이용우, 노수현, 이상범 등과 동연사(同研社)라는 서화단체를 조직하고 전통회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였으나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해체되고 말았다. 1925년 이당 김은호와 함께 일본 도쿄로 건너가 새로운 동양화풍에 대해 익혔고 귀국 후에는 서화협회의 간사 일을 맡아보았다. 1937년부터는 금강산을 비롯한 전국을 돌아다니며 실경을 직접 사생하면서 새로운 화풍을 모색했다. 1953년 정부 위탁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에 <외금강 옥류천>을 제작하여 보냈다.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관여하고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으나 강직한 성격 탓에 1957년 이를 박차고 떠났으며, 나머지 여생의 대부분을 화가로서 작품활동에만 몰두했다. 1954년 새로 터를 잡았던 ㄷ자형 돈암동 한옥 당호를 ‘돈암산방’이라 이름짓고 한편에 위치한 화실에서 ‘소정양식’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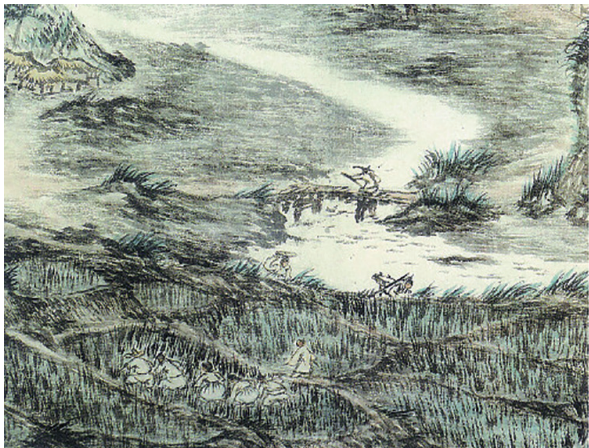
18) 이인숙, 「석재 서병오(石齋 徐丙五, 1862~1936)의 기명절지화 연구」, 『민족문화는총』 제55집, 2013.12, 375~406(32 pages).



갈필(渴筆)의 적묵법과 파선법 위에 갈색으로 응결시켜 질고 거친 분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소정의 화풍은 대체로 3기로 나누어 변천하였다. 1917~1936년까지의 초기는 주로 서화미술원이나 일본 유학 등을 통하여 그림수업을 받으며 자신의 화풍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던 시기였다. 남북종(南北宗) 절충 화풍과 서구적 기법이 가미된 일본의 신남화풍이 근간을 이루었으나 1920년대 후반부터 이미 거친 화면 처리와 시선의 다각적인 전개 등으로 그의 독자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37년 서울을 떠나 전국을 여행하면서 실경사생을 통하여 자신의 화풍을 다졌던 중기는, 그가 해방이후 참여하였던 국전을 떠나기 직전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누각정경도(樓閣情景圖)」(1939년)와 「산수춘경도(山水春景圖)」(1944년), 「해금강삼선암추색도(海金剛三仙巖秋色圖)」(1955년)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향토색 짙은 실경을 소재로 적묵법과 파선법이 밀도 있게 다루어졌다.

1957년부터 그가 타계하기까지의 후기는, 적묵법과 파선법과 더불어 분방한 호초점(胡椒點)<sup>19)</sup>을 즐겨 다루었던 원숙기이다. 특히 구도에 있어서 황금 분할식 공간을 시도하기도 하고, 정물의 일부분을 대담하게 부각시키는 등 다양함을 보여 주었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의 「농가도」(1957년), 동아일보사 소장의 「무창춘색도(武昌春色圖)」, 「외금강삼선암도(外金剛三仙巖圖)」(1970년) 등이 있다. 말년에는 정릉골짜기에 있는 대성사에 머물며 그림을 그려 1975년 회고전을 개최했고, 이듬해 돈암동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림53] 변관식, 〈촌락풍일〉, 1957



[그림54] 변관식, 〈외금강삼선암추색〉

### 3. 장우성(1912~2005)

한국전통 문인화의 맥을 잇는 화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연구단체인 ‘후소회’를 1936년 김기창, 장덕과 함께 발족했다. 1937년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서 입선한 이후 1941~1943년 연속 특선해 화단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1946년 서울대 미술대학이 설립되며 동양화 교수를 맡아 박노수, 박세원 등 해방 후 1세대 작가를 양성했다. 월전은 특히 이순신, 김유신, 권율, 강감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인 초상화를 가장 많이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 삼선교 언덕배기 집에서 셋방을 살다가 서울대 관사에서 생활했다.

1963년 미국에 동양예술학교를 설립하고 1964년에는 미국 국무성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한국화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1966년 귀국한 이후에 한국미술가협회 부이사장(1969),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사(1970)에 취임하고 그해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또 같은 해에 국전 운영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미술단체의 중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주요작품으로는 아산 현충사와 정읍 충렬사에 봉안된 ‘이충무공 영정’, 바티칸궁전 소장 ‘성모자상’, 경주 통일전 ‘김유신장군 초상화’, 국회의사당 벽화 ‘백두산 천지’, 예산 충의사 ‘윤봉길의사 영정’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또한 현대화단의 마지막 문인화가로 평가받는 장우성 화백은 시(詩), 서(書), 화(畵)를 온전히 갖춘 전통문인화의 깊이 있는 세계를 일치시킨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화동원(書畵同源 · 서예와 회화의 뿌리가 같다)’의 인식에 기반한 월전의 작품들은 높은 문인화의 경지를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다.

19) 동양회화에서 나뭇잎을 그리는 기법. 후추알 같이 작고 동그스름한 묵점(墨點)을 조밀하게 찍는 수법으로, 가령 산봉우리 부근의 멀리 보이는 나무를 표현할 때 흔히 쓰인다. 바위나 낮은 언덕에 찍는 점태를 일컫는 경우도 있다.

1966년 귀국한 이후 삼선동의 ㅁ자 구조 단층집에 거주하다가 1971년 지역개발로 인해 삼선동을 떠났고, 1990년 팔판동에 월전미술관을 짓고 말년을 보냈다.



[그림55] 장우성, 〈이순신 표준영정〉



[그림56] 장우성, 〈광란시대〉

### 4. 박세원(1922~1999)

전통산수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산수화의 새로운 표현방법을 모색한 화가이다. 서울대 미술대학교에서 근대화단의 발판을 마련한 심산 노수현을 사사, 화맥을 계승하였다. 노수현은 자신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심경(心耕)이란 호를 제자인 박세원 화백에게 주었다.

급격한 서양식의 화법이 동양화단에도 불어 닥치면서 다양한 서양화법과 추상적 주제를 따르는 추세였으나 박세원 화백은 전통에 뿌리를 두고 동양화의 현대화를 묵묵히 모색했다. 중국 남종화와 북종화를 절충한 양식의 산수화의 세계를 표현한 그는 실경산수와 이상경산수화의 특징을 종합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원근법과 산뜻한 채색법, 안개를 이용한 합리적인 공간을 표현해 전통을 따르면서도 모던한 현대적 느낌의 산수화를 그려냈다.

1970년에는 장발을 중심으로 한 서울가톨릭미술가회가 창립되면서 성(聖)미술 연구발표 활동에 참여한다. 로마 교황청에 설악기봉, 미국 백악관에 만장대 대승폭포가 소장되어 있다. 1954년부터 30여년간 모교에서 교수를 지내며 미술행정가로 해방이후 화단의 중추역할을 했다. 정릉 206-31번지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림57] 박세원, 〈산수화〉

### 5. 서세옥(1929 ~)

해방이 되자 미술계의 제1과제는 ‘왜색미술의 탈피와 민족미술의 건설’이었다. 동양화, 즉 한국화 분야가 그 문체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했다. 일제강점기 36년간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일본화 특유의 화풍이 동양화에서 광범위하게 침투되고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한국전쟁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동양화풍의 모색은 몇 년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었다.

정전이후 이러한 이슈가 다시 제기되자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필선 위주의 수묵 담채 방법이 김용준, 장우성 등에 의해 추진되었고 해방후 1세대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다. 서세옥 박노수 장운상 권영우 등이 대표적 1세대



작가들로서, 신문인화풍의 필선과 담채로 현실적 소재를 담은 새로운 화풍을 모색해갔다.<sup>20)</sup> 대학졸업 전인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화단에 등단한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한국 화단을 이끌어온 그에 대해 미술사가들은 “전통 화단에서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고 문인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독자적 수묵추상의 화풍을 이루어냈다”고 평하고 있다.

한학자이자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부친의 영향으로 민족의식 깃든 문인화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었고 대학스승이었던 근원 김용준을 통해서 묵법 중심의 간결한 선묘와 담채에 의한 담백한 공간 처리를 중시하게 되었다. 진채를 사용한 일본화가 선묘를 단순한 윤곽선 정도로 격하시킨 것이라면, 김용준으로부터 서세옥에게로 이어진 조선 고유의 문인화풍의 선묘는 그 자체가 생동감 넘치는 입체적 요소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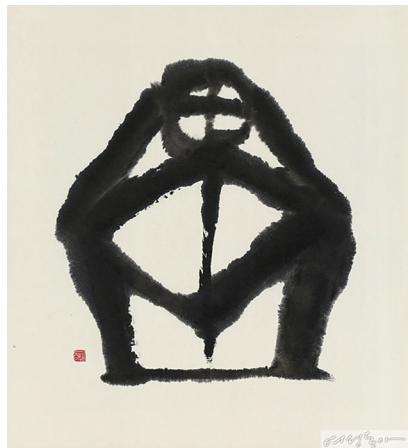
1949년 국전 창설 직후 대학 4학년의 신분으로 국무총리상을, 1954년 3회 국전에서는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했지만 한동안 국전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친일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등한시되고 한동안 왜색 화풍이 국전에서 득세했기 때문이다.

1960년 산정을 비롯한 서울대 동양학과 출신들이 조직한 ‘묵림회’의 전시는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서양화단에서 뜨거운 추상표현이라는 앵포르멜에 자극을 받아 동양화에서도 추상표현의 길을 개척한 것이다. 산정은 송영방, 정탁영, 신영상, 민경갑, 남궁훈 등과 함께 묵림회를 통해 동양화의 비구상이라는 아방가르드적 실험을 성공적으로 일궈나간다. 이들은 ‘전위적 청년들의 집결체’임을 주장하며 국전으로 대표되던 화단의 보수성에 항거했다.

이들의 작품활동은 서양화단에 비해 담보상태에 있던 동양화단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온다. 동양화의 추상이라는 새로운 작품세계 뿐 아니라 기법 면에서도 혁신적이었다. 석고를 바른 패널을 나이프로 긁어내거나, 솜방망이에 먹을 흡수시켜 형迹에 두들기는 등의 새로운 시도들은 붓으로 그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동양화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산정은 묵선과 여백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형상 속 기운생동을 표현하는 ‘사람들’ 시리즈에 천착하고 있다.

1973년 소나무숲 우거진 성북동 언덕에 창덕궁 연경당을 본 뜬 14칸 사랑채를 지어 ‘무송재’, 즉 소나무를 어루만지는 집이라 이름 짓고 여러 가지 석물들을 모아두었다. 한 미술계 인사는 “산정 선생이 한 여름이면 찾았을 연못 연꽃잎 속에 두어 밤새 향기를 스미게 해서 아침에 거두어 차를 만들어 내어주시곤 하는데, 그 향취가 가히 비할 데가 없다”며 “무송재의 고아한 분위기와 어우러진 연꽃차를 마셔봐야 성북동의 진정한 예향을 맡았다 할 수 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여전히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이며 동양화단의 큰 어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정의 두 아들, 설치미술가 서도호와 건축가 서을호도 각자의 분야에서 부친의 예술혼을 잇고 있다.



[그림58] 서세옥, 〈사람〉, 1980.



[그림59] 서세옥, 〈춤추는 사람들〉

## 6. 신영상(1935 ~ )

노석(老石) 신영상은 스승 서세옥, 박세원 등과 함께 묵림회를 통해 1960년대 중반부터 동양화의 현대화 작업에 매진해 왔다. 1960년대에는 인물, 소, 말, 조류 등을 소재로 전통적 동양화의 길을 걷는 듯 했으나 이미 이

20) 윤수 외, 『한국미술 100년』,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한길사, 565~581쪽

시기에도 수묵담채의 과감한 생략적 필치와 발묵기법이 시도되고 있었다.

이러한 표현기법들은 묵림회의 방향성과 일맥 상통하여 더욱 심화되면서 70년대 들어 점점 비구상적 추상화를 표방하게 된다. 해, 달, 별, 구름과 같이 우주와 자연의 질서와 흐름을 담은 〈조(潮)〉, 〈문살〉, 〈율(律)〉 시리즈가 70년대 이후 그의 작품세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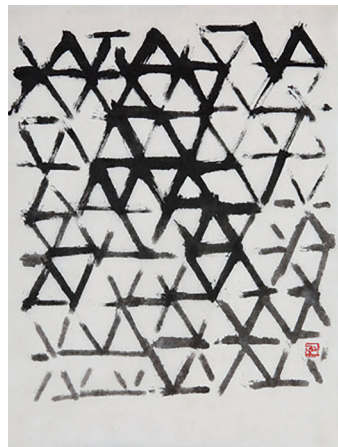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직선을 근간으로 한 기하학적이면서도 미니멀한 그의 작품세계는 수평, 수직, 대각선 방향으로 그어진 수묵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수묵이 주는 담백한 맛은 미니멀한 추상의 기하학 세계와 어울려 한국적 선비정신을 불러내는 듯 하다. 창호지 문살이 주는 기하학적이면서도 담백한 아름다움이 바로 그러한 맛을 풍긴다고 하면 어떨까.

신영상은 문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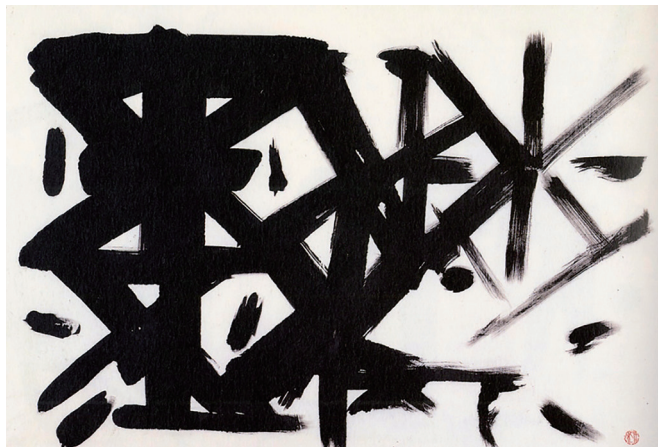
“문의 세계는 삼라만상의 존재를 주관적 심상으로 투영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 닫힌 세계를 위한 표상이 아니라 열린 세계의 상징이며 자연공간과 내적 공간, 개체와 주체와의 만남을 이루게 함으로써 철저한 부정의 그 어느 쪽에도 서지 않고 양자를 공유하려는 동양적 슬기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며 문살이라는 소재를 통한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sup>21)</sup>

미술사가인 정형민 교수(서울대)는 신영상의 작품세계에 대해 “문인정신을 구심점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파격을 시도한 한국 현대작가의 고뇌와 실험정신의 표상”이라고 평가했다. 스승 서세옥과 서울대 동료들과 함께 1970년대 성북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마당에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기념으로 목련과 후박나무를 심었다. 모교에서 후학을 길러냈고, 퇴임이후에는 성북동 자택의 화실에서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림60]신영상, 〈울〉



[그림61]신영상, 〈울〉

## 7. 임송희(1938 ~ )

산수와 화조, 인물 등 동양화의 전통적 주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추상에 이르기까지 그 작품세계가 넓고도 깊다. 서울대 동양학과에서 심산 노수현과 월전 장우성, 심경(心耕) 박세원을 사사했다.

이석(以石)이라는 호와 더불어 그의 또다른 호인 심정(心井)은 스승인 박세원이 그에게 심산 노수현, 심경 박세원으로 이어지는 동양화단의 적자임을 인정하는 증표에 다름 아니었다. “심정경작(心田耕作), 즉 바른 마음으로 밭을 일궈야 좋은 농사가 되듯이 그림도 마음(心)이 곧아야 필(筆)이 곧고, 심이 깨끗하면 묵(墨)이 맑다”고 예술에 대한 마음가짐을 밝히고 있다.

바닥까지 흰히 비치는 깨끗한 물이 흘러 길을 가다가도 맑은 물에 입을 대고 마시고, 찜뽕 들어가 먹을 감을 정도로 물 좋고 산 좋은 충북 괴산군 증평이 이석의 고향이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임창무 선생의 8번째이자 막내아들로 태어났는데, 부친은 그림과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그런 부친은 이석이 5살 때 일제에 의

21) 신영상, 「문살을 주제로 한 작품 연구」, 『조형』, 제9호, 1986.



해 투옥되어 후유증으로 세상을 등져버렸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성직자의 꿈을 가진 이석은 아버지의 부재에도 형과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라났다. 학창시절 미술시간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미술에 소질이 있었지만 성직자의 꿈을 접지는 않았다고 한다. 어느날 그가 잡지의 간디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은 인생을 바꾼다. 신방을 온 목사님이 그 그림을 보고는 미술대학에 가라고 권유한 것이다. 창덕여고 미술교사였던 형의 친구에게 지도를 받고 서울대 미대에 진학해 목림회 활동에 참여했다. 전통회화의 통념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시대적 성격을 반영하려는 목림회의 활동과 그의 작품경향이 맞았기 때문이다. 목림회가 해체된 이후에는 새로운 동양화를 추구하고자 한국화회가 출범했다. 창립멤버였던 이석은 ‘한국화회’라는 명칭을 직접 짓고, 3차례에 걸쳐 한국화회 회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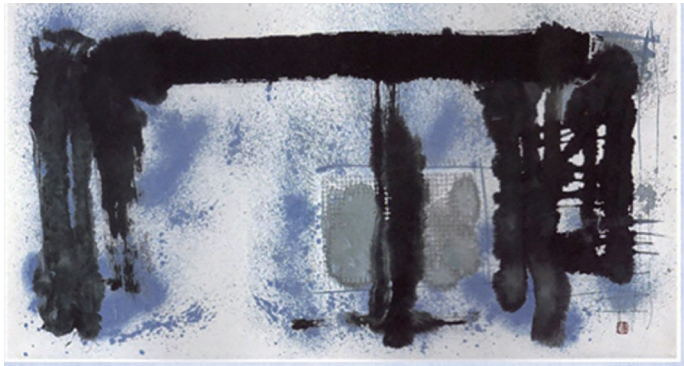
국전 등의 공모전에 나서기 보다는 전업작가의 길에 뛰어들어 인사동에 화실을 마련하고 인기 동양화가로 이름을 날리던 중 1980년대 40대 들어서 뒤늦게 덕성여대에서 교수의 길에 들어선다.

이석은 붓을 쉬는 만큼 운필하는데 지장이 생긴다고 강조하곤 한다. 작품활동이 부족했던 교수시절에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그림을 그렸다.

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지한 탐구야말로 자신의 조형어법으로 산수를 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수가 산수 그 자체의 온당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 주는 조형의 중핵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무렵 나의 실경산수 작업은 주로 실제의 산청에 맞는 준법을 찾아 조형화시키는 준법의 탐구로 이어져갔다. 거기서 나는 강원도 설악산의 준법이 다르고, 서울 북한산의 준법이 다르며, 충청도 단양 화양동의 준법이 다시 다름을 실증적으로 체험하였다. (작가의 말)

이석은 자연의 기, 자연과 마주쳤을 때 두근거리는 즐거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형태를 기억해 그 기운을 그림에 담는다. 요즘에도 ‘파묵산수(破墨山水)’의 새 장르를 개척해 선(禪)사상의 직관적 정신을 표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1978년 성북동에 집을 짓고 당호를 ‘취석헌(醉石軒)’이라 붙였다. 돌이 좋아 그 기운에 취했다는 의미이다. 마당에는 수집한 석물들이 놓여있다. 젊은 시절 돌을 찾아다니며 얻은 괴석, 석함, 석등 등은 운반 장비가 없던 시절 8명이 사흘에 걸쳐 옮긴 것이다. 마당 끝에 커다랗게 누워있는 자연석에는 취석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있다. 이곳에서 이석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생활습관처럼 새벽이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 바위와 폭포, 비 온 뒤 운무가 드리운 계곡을 파묵으로 그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그림62] 임송희, 무제, 2011



[그림63] 임송희, 〈싱가포르 해변에서〉, 1997

## 8. 송영방(1936 ~ )

우현(牛玄) 송영방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옮기기 보다는 한번 마음 속에 품은 후 걸러내어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흉중구학’(胸中丘壑·마음속에 언덕과 골짜기의 심상이 있다는 뜻)을 자신의 예술자세로 표현한다. 그렇게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비록 구상화라고 하더라도 작가의 마음 속에서 그의 뜻과 감흥에 따라 한번 걸러진 ‘흉중구학도’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그림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쓴다는 집안 어른들의 칭찬으로 제사 때마다 붓글씨로 지방을 쓴 덕분에 붓, 먹이 낫설지 않았던 우현은 자연스레 서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심산 노수현, 월전 장우성, 산정 서세옥의 지도를 받았고 1961년 스승, 동료들과 함께 목림회(墨林會)를 창립하는데 일조했고, 이후 ‘한국화회’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추상수묵을 동양화에 도입하려는 고민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수화, 인물화, 화조도를 포함해 불화와 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작가는 대학 때부터 학비를 벌어 고학했던 탓에 아동잡지와 신문 연재소설의 삽화, 법정스님과 신경림 시인의 책 표지화를 그리기도 했다. 조지훈의 시 ‘승무’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가장 잘 알려진 삽화이다.

1960년대 중반, 일찌감치 그가 성북동에 터를 잡은 이후로 스승인 산정 서세옥을 비롯해 이석 임송희, 노석 신영상, 백계 정탁영 등 여러 지인들이 성북동으로 들어왔다. 돌 모으는 취미로 맺어진 벗들과 사는 것을 행운으로 여기는 우현은 돌과 매화를 미치도록 좋아한다는 뜻으로 당호를 ‘매석취호’로 정했다.

우현은 성북동에 살면서 법정스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다양한 매체에 삽화를 그리던 시절이었는데, 법정스님이 전화를 해서 한 잡지의 표지가 마음에 드니 팔라는 것이었다. 출판사에서 간수를 잘 하지 못해 그림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한 장을 그려 선물해 법정스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로 자신의 책에는 우현의 표지그림을 늘 넣었다.

우현은 “동양화의 전통을 이으면서 법고창신(法古創新), 즉 자기다움의 길을 찾아가라는 말을 깊이 새긴다”고 작품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잘 알려진 ‘승무’나 산수화, 많이 발표되지 않은 추상화에서도 드러나는 심상은 먹과 색의 농담만으로 표현한 담담한 아름다움과 평안함이다. 작가의 느낌이 단숨에 드러나는 스케치나 추상화에도 꾸미지 않은 직관과 형태를 구하되 형태를 구하지 않는다는 동양화의 정신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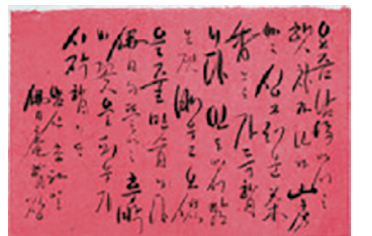
1984년 이후 동국대 교수로 강단에 서서 퇴임 때까지 후학을 길러냈다.



[그림64] 송영방, 〈춤추는 산과 물〉, 1997



[그림66] 송영방, 〈귀동〉



[그림65] 송영방, 〈법정스님 초상〉





## 9. 정탁영(1937~2012)

1960년대부터 독립회 활동을 하면서 수묵추상을 판화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한 작가이다. 1990년대 ‘잊혀진 것들’과 2000년대 ‘영겁 속에서’ 시리즈를 통해 수묵 판화의 번짐 기법과 투명함이 더해진 먹그림을 소화해 냈다. 2000년대 시도한 칼 그림 드로잉 작품은 두꺼운 마분지를 칼로 섬세하게 오려내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담아낸 것이다. 2006년 심장병으로 큰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한시, 작곡, 드로잉, 칼그림 등 여러 분야를 개척하며 창작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정탁영은 1960년대부터 50여 년간 수묵추상의 세계를 판화의 영역까지 확장해 독자적 화법을 창출해내었던 작가로 평가받는다. 1980년대 이후 판화기법을 수묵화에 도입해 독특한 마티에르를 창조했다. 1990년대 ‘잊혀진 것들’ 시리즈, 2000년대 ‘영겁 속에서’ 시리즈는 ‘번짐의 유희’를 찍어내는 기법을 통해 만들어 내고 투명함이 더해진 독특한 수묵의 세계로 나아가게 했다. 1970년대 성북동으로 이사한 화가의 집에는 늘 30여종의 야생화가 수를 놓았고, 마당의 큰 매화나무에서 열린 매실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화가의 또 다른 즐거움 일거리였다.



[그림67] 정탁영, 〈만동〉, 1961



[그림68] 정탁영, 〈영겁속에서〉, 2000

## 10. 이규선(1938~2014)

먹물이 번져나가는 발목효과를 이용해 자연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추상화작업을 한 동양화가이다. 서울대 미술대학의 동인들이 중심이 된 독립회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동양화의 기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작품초기에는 강렬한 색채와 기하학적 구조를 보였으나, 후기에는 추상수묵화를 그린다. 1960~70년대 수묵 담채의 아름다움을 살린 아동 그림으로 화단을 풍미했으며 1970년대 이후 기하학적 구조와 절제된 선, 강렬한 색채 등으로 한국화에서의 조형적 실험을 본격화했다. 성북동은 젊은 시절을 보낸 공간이다. 서울대학교 화우들이 모여 있는 성북동에서 서세욱, 송영방, 신영상, 임송희와 함께 이웃하며 지내다가 갑작스레 걸린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 한적한 경기도 양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죽음을 경험하며 얻은 영감으로 마음의 창문이란 〈시창청공〉, 서재의 창문이란 〈서창청공〉 시리즈를 발표했다. 이화여대 미술대학장을 역임했다.



[그림69] 이규선, 〈서창청공〉



[그림70] 이규선, 〈서창청공〉

## 11. 김기창(1913~2001)

운보 김기창(1913~2001)은 미인도로 유명했던 이당 김은호의 제자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정청’(1934)을 비롯해 몇 작품이 상을 받으면서 널리 이름을 알렸고 작고시까지 수십년간 ‘바보산수’, ‘청록산수’ 등의 작품세계를 선보이며 최고의 동양화가로 일세를 풍미했다. 8살이 되던 해, 장티푸스에 걸린 후유증으로 청각을 잃었으나 천재적 소질로 인해 2만 여점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고, 아내인 우당 박래현의 내조는 그의 미술인생에 있어서 천군만마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몇 년 간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미술계의 시대적 요구 때문에 외면 받는 시기도 있었다. 그 시절 국립민속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민화와 민속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옛 명성을 서서히 되찾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후에 성북동 55-1번지에 집을 짓고 아내인 우당 박래현과 공동 전시를 열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당의 제자답게 미인도를 포함한 인물, 풍경, 동물, 화조 등의 구상화 뿐 아니라 추상화, 수묵, 채색 등 소재와 주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30년대 초기 작품들은 사실적이면서도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며, 50년대에는 힘찬 구도와 필력으로 싸우는 소, 달리는 군마, 수백 마리의 참새 떼 그림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의 나이 50대 후반부터 청록산수를 선보이기 시작해 1976년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 박래현이 세상을 뜨자, 민화에 바탕을 둔 ‘바보산수’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천진하고 해학적이면서도 소박한 자연속의 삶을 표현했다. 1만원권 세종대왕 초상의 도안자이기도 한 그는 말년에는 고향인 청주의 ‘운보의 집’에 머물며 작품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림71] 김기창, 〈정청〉, 1934



[그림72] 김기창, 〈태양을 먹는 새〉, 1968

## 12. 박래현(1920~1976)

운보의 아내로 알려진 우향 박래현은 1944년 동경여자미술학교 일본화과를 졸업한 이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여러차례 수상하고 1956년 국전에서는 〈노점〉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받는 등 운보만큼이나 훌륭한 화가다. 일본으로 그림유학까지 떠날 정도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우향은 친정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6년 운보와 결혼해 내조하면서도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펼쳐나갔다. 청력을 상실한 탓에 말을 하지 못했던 남편에게 구화법을 끈질기게 가르쳐서 어눌하게나마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도 우향의 눈물 어린 내조 덕분이었다. 서로의 예술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존중하면서 각자의 독창적 작품활동을 해나갔다. 해방 이후 전통 동양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형적 실험을 거듭하면서 추상적 모색을 하는 등 한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미국으로 판화공부를 위해 떠나 7년여간 머무르면서 판화의 새로운 세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성신여대 교수를 역임하고 국전심사위원을 거쳤으며(1961~1963) 신사임당상을 수상했다(1974). 운보는 〈등나무 그늘진 곳에〉라는 글에서 성북동 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면서 애정을 표했다.

“우리 집을 찾아오는 친구마다 정원이 좋다 한다....크고 작은 종류의 나무들의 좁은 마당에 가득이 들어차있어 여름이 되면 푸른 향기가 시원한 촉감과 아울러 코 속에 스며드는 곳이기도 하다. 성북동 꼭대기라 교통이 불편하지만 오류년 지내오면서도 궁둥이를 툭툭 털고 좀 드나들기 수월한 곳으로 떠나가지 못하는 것도 상록수 우거진 우리 집 정원의 탓인지도 모른다.”

두 사람이 함께 머물렀던 성북동 집은 운보가 1984년 충북 청원으로 떠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예술혼을 기리는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림73] 박래현, 〈노집〉, 1956



[그림74] 박래현, 〈아이들〉, 1956



[그림75] 성북동 집 뜰에서 우향 박래현과 운보 김기창

## [ 32 ] 성북의 서양화가들

### 1. 김환기(1913~1974)

호는 수화(樹話). 김환기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커다란 화면을 한가득 점들이 채우고 있는 추상화나 간단한 선들로 표현된 백자 항아리와 매화, 날개를 펼친 학 같은 것이다. 추상이건 구상이건 간에 모두 세련된 색감과 화면 구성으로 단번에 수화의 그림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수화가 떠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의 그림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직후의 힘들고 우울했던 한국의 어느 화가가 그랬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은, 앞서간 아방가르드 그 자체였다.

아마 그의 세련된 미감은 전남 신안의 부갯집 아들로 태어나 별로 어려움 없이 자란 환경 덕분이 클 것이다. 그는 프랑스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한국의 하늘은 지독히 푸릅니다. 하늘 뿐이 아니라, 동해바다 또한 푸르고 맑아서, 흰수건을 적시면 푸른 물이 들 것만 같은 그런 바다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눈 부시게 푸른 하늘과 흰수건에 푸른 물이 들 것만 같은 바다를 보며 자라났다. 푸른 색 못지 않게 흰 색을 사랑한 그는 백자를 늘 끼고 완상하며 영감을 떠올렸다. 그래서인지 푸른 배경에 흰 달항아리를 그린 작품이 유독 많다.

일본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1930년대 후반부터 추상미술을 시도했다. 1937년 일본 자유미술협회 회원으로 유영국 이중섭 등과 함께 한국화가로서 참여한 그는 귀국한 이후에는 조형이념으로 결성된 최초의 화파인 ‘신사실파’를 결성하고 유영국 이규상 이중섭 장욱진 등과 함께 새로운 예술인 추상미술의 세계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된다.

1944년 화가 고회동의 주례로 김향안과 혼인한 이후 근원 김용준의 노시산방을 물려받아 수향산방으로 고쳐 부르며 신희살림을 하던 부부는 4년 후 종로구 원서동으로 이사했다가, 곧 다시 성북동으로 274-1로 돌아와 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머문다. 좋은 백자만 보면 외상으로라도 꼭 사야만 할 정도로 백자를 사랑한 수화의 성북동 집에는 늘 백자가 발에 채일만큼 쌓여 있었다. 한국전쟁 때 백자를 가지고 피난 갈 수가 없어서 모두 마당에 묻어 두고 피난을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모두 깨져 버려 무척이나 슬퍼했다는 대목이 그의 수필에 나온다. 이 시기에 서울대, 홍익대 등에서 교육자로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미술협회에서도 미술행정가로서의 자질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와 함께 홍익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이경성 선생은 “겉과 속 모두 멋쟁이였던 예술가 그 자체”로 기억했다. “하루는 수화가 내 연구실에 와보더니 미술이론을 가르치는 선생 방에 작품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그림을 하나 걸어주고 갔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 그림이 바로 유명한 ‘사슴’이다. 이경성 선생은 언젠가 급전이 필요해 이 그림을 친구에게 담보삼아 맡기고 돈을 꾸고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몇 십 년 후에 화랑의 강권으로 몇 억에 내다 팔고 자신에게 얼마간의 사례를 가지고 왔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그 그림은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에 대표작 중 하나로 걸려 있다. 1956년 파리로 떠났다가 돌아온 이후, 1963년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고 나서 뉴욕에 영구정착했다. 이후 그의 작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인간에 대한 연민 등의 감정을 순수한 추상의 세계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펼쳐진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는 그의 절친인 시인 김광섭의 시 ‘저녁에’를 작품화 한 것으로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운 각기 다른 점들은 시의 내용처럼 고국에 두고 온 그리운 이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려낸 역작이었다. 하나 하나의 점들은 은하수를 가득 채운 별들처럼 화면을 가득 메우면서 그리운 얼굴들이 되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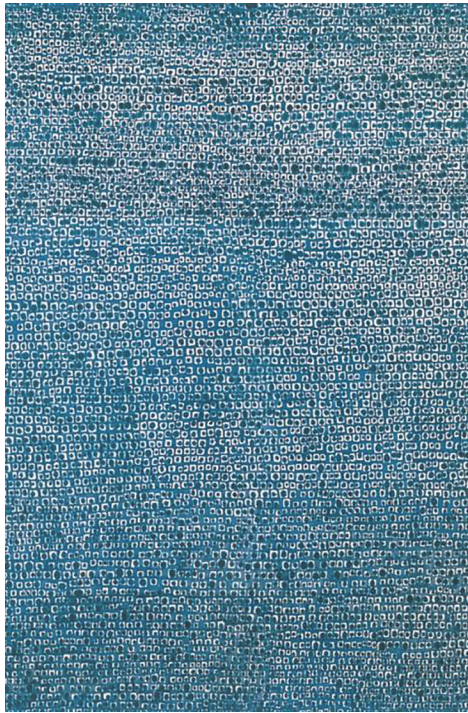
...저렇게 많은 중에서/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밤이 깊을수록/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이렇게 정다운/너 하나 나 하나는/어디서 무엇이 되어/다시 만나랴

이 작품은 뉴욕으로 떠난 수화가 한국화단에서 거의 잊혀질 무렵이던 1970년 한국일보 주최 제 1회 대한민국 미술전에 출품해 대상을 받았다. 그의 아내 김향안(1916~2004)은 수화의 부인이자 예술세계의 동반자로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신여성이자 그 자신이 수필가이기도 한 김향안은 수화의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그의 예술을 지지하고 오로지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 김향안은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환기 재단과 박물관을 세워 수화의 예술세계를 알리는데 남은 인생을 바쳤다.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환기미술관에는 그의 대표작들과 함께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그림76] 김환기, 〈향아리〉



[그림77]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1970

## 2. 변종하 (1926~2000)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 당시 대회의장 벽화 ‘영광과 평화’를 제작해 화제가 되었던 석은(石隱) 변종하 화백을 기념하는 ‘석은변종하 기념미술관’은 성북동의 꼭대기에 있어서 차 없이 처음 찾는 이는 조금 힘이 들 수도 있다. 1980년대 초 석은은 북악산 바위 절벽 사이에 꽃이 피고 소나무가 아름다운 이 성북동의 맨 꼭대기를 선택해 집을 지었다. 자연을 될 수 있는 대로 살리면서 집을 앉혀서 아직도 이곳에서는 북악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대구출신인 석은의 부친은 서예가 변성규 선생이다. 석은은 일제강점기에 징집을 피해 만주로 피신해 신경시립미술원(新京市立美術院)을 다니다가 해방이후 귀국했다. 1956년 제4회 국전에서 「포푸라」로 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1954부터 1957년까지 연속 특선을 하며 추천작가가 되어 미술계에서 입지를 다졌다. 홍익대와 수도사범대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1960년 프랑스로 건너가 작품 활동을 하며 유럽 미술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 시기의 대표적 작품은 일그러진 인물상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우화’와 ‘돈키호테’ 연작을 들 수 있으며, 추방된 문학적 요소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신형상주의’ 혹은 ‘설화적 상형주의’라고 불린다.

석은은 1965년 멕시코와 마야 유적지를 답사한 후 고국으로 귀국하면서 이전의 표현주의적인 경향을 탈피, 새로운 화풍을 모색한다. 판 위에 하드보드나 베니아판을 오려붙인 다음, 그 위에 삼베나 거즈를 덧씌우고 채색을 하는 이른바 요철회화(凹凸繪畵)라는 장르다. 1970년대 석은은 재료와 기법의 확장을 꾀하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현실비판적인 우화를 통해 한국사회를 풍자했다.

성북동으로 들어온 이후인 1980년대에는 주변의 환경 덕분에 작품의 성격이 ‘서정적 풍경’이라는 주제로 옮겨간다. 성북동 330-48번지 집의 2층에 화실을 두었고, 집을 둘러싼 담과 마당으로 올라오는 계단의 높이와 모양에까지 신경을 일일이 썼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꽃, 새, 나무, 달, 잠자리 등을 소재 삼아 간결하고 소박하게 묘사하여 주목을 받았다. 문학적 길은 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된 이 작품들에는 인간의 원초적 정감이 배어있어 ‘설화적 구상’이라 일컬어진다.

유화 외에도 분청과 청화로 만든 도자기 작품과 판화 등 여러 영역을 열정적으로 시도했다. 1987년 뇌경색으로 쓰러졌지만 2000년 세상을 뜰 때까지 굴하지 않고 작품 활동을 계속하며 자화상 시리즈 등 수차례에 걸쳐 작품을 발표했다.

청록파 시인 박두진이 피난시절 변종하의 대구집에 피난해 있었을 정도로 절친해서 1967년 박두진의 시집 〈하얀날개〉 초판본 1천권을 모두 석은이 표지그림을 그렸다. 해마다 보내는 연하장에도 받는 이의 띠를 상징하는

동물을 직접 그려 보내곤 한다.

온갖 꽃나무와 수목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에는 돌을 좋아하는 선생이 모은 석탑, 석등, 석상이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다. 그중에도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돌거북이다. 최순우 선생이 우리 석물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자 석은이 사 모은 것이라고 한다. 석은은 생전에 큰 돌거북이 있는 집이자 성북동 구석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구석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석은이 열정을 가지고 수집한 6세기 신라시대 금동관,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수준급 문화재들은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다.



[그림78] 방한했던 교황 요한바오로 2세에게 선물한 석은의 작품(왼쪽), 아들 변태호 성균관대 건축과 교수



[그림79] 변종하, 〈새 두 마리〉

## 3. 윤중식(1913~2012)

평양이 고향인 ‘석양의 화가’ 윤중식은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생을 하러 자주 평양 근교 감흥리 옥수수밭에 나가 석양을 바라보곤 했다.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를 따라 질게 깔리는 노을의 아름다움에 감격해 한참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습관이 어린시절 생긴 것이다. 옥수수 밭에 누워 따스한 햇볕을 쬔다가 밀려오는 졸음에 눈을 감으면 바람소리, 이름 모를 곤충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옥수수밭을 작가는 참으로 사랑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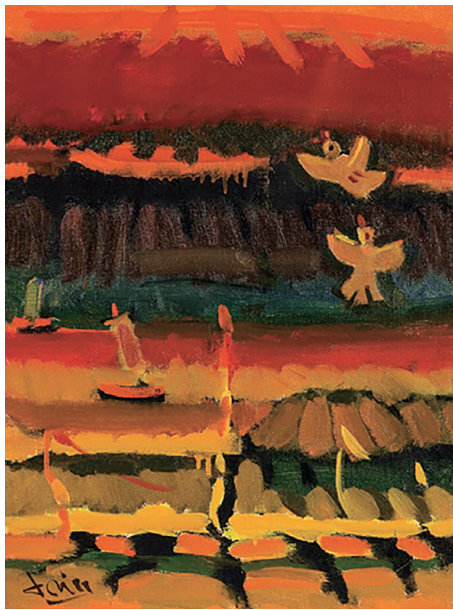
1931년 송실중학교 재학 당시 2회 녹향회 공무전과 제 10회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입선하면서 화단에 진출했다. 선전 서양화부 출품작 〈농촌풍경〉은 광선을 재미있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아마도 그가 평양 근교의 옥수수 밭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들이 그 답이 될 것이다. 11, 12회 연이어 입선하면서 유화실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평양에는 김관호 선생의 영향으로 어느 지역보다 서양화가 지망생이 많았다. 김관호 선생은 교회동과 함께 한국 서양화를 개척한 천재적 화가로서, 평양에서 ‘삭성 회화연구소’를 세우고 후진양성에 힘썼다. 종종 부



친을 만나러 집에 오곤 했던 김관호 선생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윤중식을 눈여겨 보았다. 학창시절 연극배우, 연출가, 지휘자를 꿈꿨을 정도로 예술적 재능이 풍부했던 작가는 그림으로 진로를 정하고 1935년 일본 도쿄제국미술학교(현재 무사시노미술대학)로 유학을 떠난다. 1941년 귀국 이후 평북 선천 보성 여고 미술교사로 일하면서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서 이듬해 21회 선전에서 〈석영(石映)〉으로 입선했다. 고향에서 해방을 맞았지만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으로 대구와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면서도 작품활동을 계속했다. 전쟁직후 1953년 열린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가을풍경〉으로 선을 수상하고 1954년 6월 첫 개인전을 열었다. 특히 전쟁으로 고향과 가족을 잃은 작가에게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작품의 주제가 되었다. 작가는 1.4후퇴 때 부인과 1남2녀를 데리고 피난하던 중 딸 하나를 데리고 오던 아내와 해주 근처에서 헤어졌고, 고생 끝에 두 아이와 한달만에 서울에 도착했지만 둘째 딸마저 부산에서 병으로 잃었다. 1959년 재혼 이후 두 딸을 낳고 나서야 서울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은 그의 작품에 흐르는 심상이다. 고향을 상징하는 소재이 저녁노을, 비둘기, 뚝단배, 시골풍경은 따뜻하고 포근한 어린 시절 고향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다. 특히 저녁노을은 작가가 변치 않고 애착을 가진 소재다. 대동강변에서 하염없이 바라보며 가슴 속에 새겨두었던 노을은 그의 화폭에 다양하게 변주되어 흐른다. 비둘기 또한 그가 추억하는 고향의 또 하나의 단편이다. 어렸을 때 비둘기를 관찰하고 각각의 성격을 구분하길 좋아했다고 한다. 생김새, 몸짓, 어느 하나 똑같지 않은 그림 속 비둘기들은 제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 때로는 평화, 때로는 고향집과 가족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윤중식의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체이자, 그 자신이기도 하다.

“평양에서 미곡상과 정미소를 하던 우리 집에는 비둘기가 1백여마리 살았다. 그놈들은 철저하게 1부1처제를 지키면서 인간세계처럼 부부간의 애정이 말도 못할 정도였다. 나는 비둘기 집을 여러 개 만들어 처마 밑에 달아주곤 했다. 나는 내 맘속에 살아 있는 그때의 비둘기들을 그리는 셈이다. 즐겨 그리는 저녁놀 역시 중학교 때 사생하러 들에 다녔다가 그 뒤로 계속 그리게 된 것이다” (작가의 말)

1963년 작가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우거진 숲이 아름다운 성북동으로 이사했다. 그의 집 화실에는 항상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성북동 풍경이 흰히 발아래 펼쳐진다. 홍익대 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길러내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작가는 100세가 되던 2012년 제2의 고향으로 여긴 성북동의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상수(上壽 · 100세)전을 열고 몇 달 후 세상을 등졌다. 미술평론가 오광수 씨는 “윤중식 화백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표현적인 묘사가 강하고 재야보다는 국전을 중심으로 한 정통파로 분류된다”고 평했다. 특히 풍경화는 빛의 묘사가 절묘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림80] 윤중식, 〈노을〉



[그림81] 윤중식, 〈봄〉

#### 4. 한묵 (1914~2016)

추상미술을 개척한 1세대 작가로서, 이중섭, 김환기, 유영국 등과 함께 현대미술 태동기에 서구 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개척한 한국 미술사의 산 증인이다. 현재까지도 프랑스에서 현역작가로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102세 현역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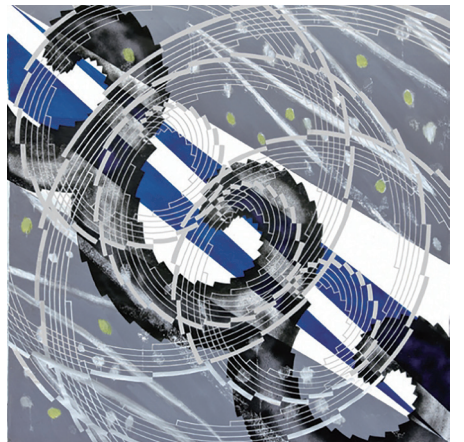
서울 출생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가와바타미술학교에 유학했고, 1952년 부산 피난 시절 동료화가 박고석, 황염수와 생사를 같이 하며 가족처럼 지냈다. 부산 피난시절 예술가들의 아지트 역할을 한 르네상스 다방에서 동인전으로 기조전(其潮展)을 개최하며 화단활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이들과 함께 정릉근처 하숙집에서 지내며 작품활동의 힘을 얻었다. 50년대 ‘전쟁의 단상’을 주제로 폐허와 빈궁 속에서 고난을 헤쳐 나갈 상징으로서 빛과 정신적 지지체로서의 가족에 대한 작가의 염원을 담아낸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모던아트협회 회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홍익대 교수로서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새로운 예술세계에 목말라 하다가 1961년 프랑스로 떠나 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60년대에는 파리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조형요소 탐구’를 중시한 작품들에 매달렸다. 해외 예술동향에 문을 닫고 있었던 60년대의 한국 미술계에 피가소를 처음 소개했다. 1969년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사건을 계기로 영감을 받아 기하학적 요소로 4차원의 공간감을 평면에 구현한 작품을 선보였다. 색채와 형태, 마티에르에 대한 관심으로 2차원의 평면을 평면으로서 인정한 작업이었다. 평면이라는 제약을 벗어나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4차원의 공간감을 구현하고자 한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은 ‘공간의 쏘노리테’ 군으로 분류된다.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우주적 공간으로서의 4차원 광활한 공간감을 화면에 담아낸 그림들은 한묵 예술의 결정체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원을 통해 리듬과 율동을 표현하려 했는데, 이는 또 다른 4차원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속도와 시간을 담으려는 작가의 노력은 평면에 방사성 문양과 사선을 집어넣게 됐고, 이를 지그재그로 표현해 우주와 속도의 공간을 표현했다. 평면 구성 안에 공간의 다이내미즘을 담은 한 화백의 작품은 캔버스라는 회화적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탐구를 제시하며 한국 기하 추상의 새 지평을 열었다. 미술계에서는 “우리나라 기하추상의 한 면을 완성한 대표자”로 평가한다.

4년 전인 2012년 10년만에 한국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가진 한묵 화백은 “이 세상 모든 가시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존립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각에 부딪칠 때가 많다”며 “들에 핀 한 송이 꽃만 하더라도 대기의 압력이 아니고는 피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닐까, 외형적인 모든 존재는 생명력이 발산하는 내부 미의 환영에 불과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라며 자신의 작품세계와 관련된 우주론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림82] 한묵, 〈상봉〉, 1991



[그림83] 한묵, 〈은색운의 원무〉, 1993

#### 5. 박고석(1917~2002)

박고석 화백은 ‘산의 화가’다. 화폭에 산을 많이 그리기도 했지만, 그린 작품 수보다 산행을 한 횟수가 수백, 수천 배 더 많다. 구수한 이북 사투리의 ‘산사나이’ 박고석 화백은 온 세상을 품을 것 같은 훌륭한 인품의 멋쟁이



로 미술계에 알려져 있다. 행려병자로 객사한 이중섭의 시신을 적십자병원에서 거두어 장례를 치른 것도 그다. 산과 더불어 박고석 화백의 동무, 또 하나를 꼽자면 커피다. 그의 화실엔 언제나 물처럼 마시는 원두커피가 담긴 큰 주전자가 있었다고 한다. 졸업배를 피우면서 늘 원두커피를 물처럼 마신 탓에 평생 속병을 달고 살았다. 평양의 기독교 목사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였고 공부도 곧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보통학교 졸업 때 70여명의 졸업생 중 최우등으로 졸업하며 답사를 했던 기억과 산과 들을 쏘다니던 어린 시절을 가끔씩 추억삼아 이야기하곤 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대동강을 끼고 자랐고 모란봉을 뒷집 드나들 듯 오르내린 탓인지, 성장해서도 산 밑 아니면 산등성이에서 살아온 탓인지 나는 산을 좋아하는 버릇이 생긴 모양이다. 젊었을 때 여름방학이면 절반은 강이나 바다에서 지냈고 일찍이 금강산을 원족하는 등 자연이 좋아서인지 원래의 방랑벽의 소치인지 산에 오르기를 좋아했다.” (1973. 12. ‘세대’지)

이후 부친의 상해 망명으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고 주변과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실망감으로 비뚤어진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미술에 대한 소질을 발견한 박화백은 마침내 일본대학 예술학부로 그림유학을 떠나기에 이른다. 1930년대 일본 유학 당시 일본 독립미술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본적 야수파 양식을 습득했다. 사토미 가즈조, 마기시 고타로의 영향이 작품에서 나타나 이중섭, 구본웅과 함께 그를 한국 표현주의 작가라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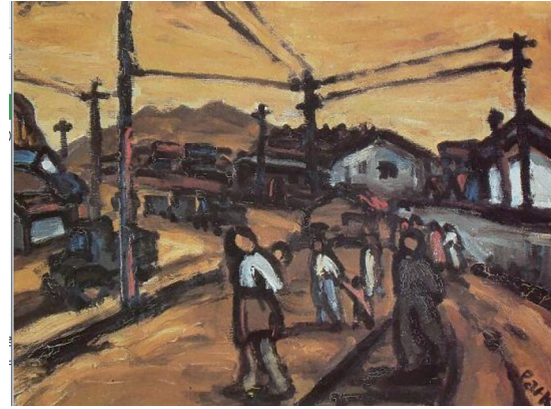
귀국 이후인 1950년대에 황염수, 이중섭, 한묵 등과 기조전, 모던아트협회, 구상전을 이끌며 순수회화 운동을 펼쳤다. 부산에서 피난해 이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지냈는데, 이때의 대표작이 〈범일동 풍경〉(1951)이다. 두꺼운 마피에르의 박고석 화백 특유의 표현주의적 기법이 엿보인다.

범일동은 이중섭 김환기 한묵 등 여러 화가들의 피난지였는데 이들은 모두 피난 생활 중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했다. 박화백은 생전에 피난시절 부산 국제시장을 오가며 보았던 시장풍경을 이렇게 회고했다. “시계장사라기보다 시계고물상이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 석유 귀짝 위에 비둘기장 같은 예쁘장한 유리장을 올려놓고 시계라야 고물딱지를 십여개쯤 늘어놓은 꼴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관에 속하는 것이었다” (신동아 70년 6월호)

서울로 돌아온 이후엔 신설동 초가집에 자리를 잡았다. 성북과의 인연은 1955년 정릉동에 자리잡으면서 부터다. 강의를 나가던 서라벌예대와 홍익대에 출강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강사 수입이 넉넉지 않았던 터라 박경리 천승세 등 작가들의 신문연재소설에 삽화를 그리는 일도 했다. 1957년 모던아트협회 동인으로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그는 1962년부터 6~7년간 붓을 놓았다. 한동안 내적 침잠의 기회를 갖던 박화백은 1967년 다시 붓을 들면서 늘 다니던 산을 평생의 주제로 천착한다. 돈암동 전차 종점 근처에 작업실을 두고 도봉, 수락, 지리, 설악산 등 전국의 명산을 두루 다니며 작품을 제작했다. 이 가운데서도 비교적 그림으로 많이 남아난 것이 백양산, 백암산, 외설악, 북한산 등이고 지리산 자락의 화개마을과 쌍계사 가는 벚꽃 길 등도 즐겨 그렸다.

박고석 화백은 산행 할 때, 여럿이 동행하기 보다는 주로 혼자 다니곤 했다고 한다. ‘산을 제대로 못 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화가에게는 그리는 것 보다는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가끔 그의 산행에 동행한 지인은 구수한 평안도 사투리로 “구릴 시간 이쑤문 더 봐야디. 볼 시간도 부족한데 구릴 시간이 업디…”라며 이리저리 눈으로 산을 살피듯 보면서 머리를 끄덕이던 박고석 화백의 생전 산행(山行) 철학에 대해 회고했다. 미술평론가 오광수 선생은 “자연의 존재감이 가슴으로 확인되어지는 경지, 마음으로 만나는 경지야말로 ‘감각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박고석의 산은 바로 오관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자연의 강도로서 감각의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림84] 박고석, 〈범일동 풍경〉, 1951



[그림85] 박고석, 〈산〉

## 6. 이중섭 (1916~1956)

평안남도 평원군의 대지주와 민족자본가 딸이었던 모친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가 다섯 살때 병으로 사망했지만 가장인 형과 모친의 보살핌으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오산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가 당시 미술교사였던 미국 예일대 출신의 임용연 선생의 지도를 받으면서 화가로서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임용연 선생은 이중섭의 그림을 급우들에게 보여주며 미래의 대가가 될 그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1937년 일본으로 그림유학을 떠나 분카학원(文化學院) 미술과에 입학했다. 재학 중에 독립전과 자유전 등에 출품했고 분카학원을 졸업하던 1940년 미술창작가협회전(자유전의 개칭)에서 수상했고, 1943년 같은 협회전에서 최고상인 태양상을 받아 신인으로서 크게 각광 받았다.

1945년 일본여성 야마모토(山本方子)와 원산에서 결혼했고 이듬해 원산사범학교 미술교사로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방이후 어지러웠던 국내정세는 이중섭에게 큰 시련을 안긴다. 이북 지역에 속했던 원산은 공산당 치하에 들어가게 되자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대지주의 아들이었던 이중섭은 설상가상으로 친구인 시인 구상(具常)의 시집 『응향(凝香)』의 표지화를 그린 일로 공산주의 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중섭은 자유를 찾아 원산을 탈출, 제주도를 거쳐 부산에 도착한다. 이 무렵 일본인 부인과 두 아들은 전쟁을 피해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중섭은 홀로 남아서 부산과 통영 등지에서 생활한다. 1953년 일본에 가서 가족들을 만났으나 며칠 만에 다시 귀국했는데, 가족과는 그것이 마지막이 됐다.

부산 피난 시절 박고석, 한묵 이봉상 등과 같이 만든 기조전(其潮展)과 신사실파에 참여했고, 통영·서울·대구에 서의 개인전을 가졌다. 작품의 소재는 소, 닭, 어린이, 가족 등이 가장 많고, 불상, 풍경 등도 몇 점 전한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호를 대향(大鄕)이라고 짓고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마음을 작품에 많이 담았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가난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1955년 1월 서울 미도파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다. 그러나 작품도 거의 팔리지 않았고 평단의 평가도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척 실망하여 더욱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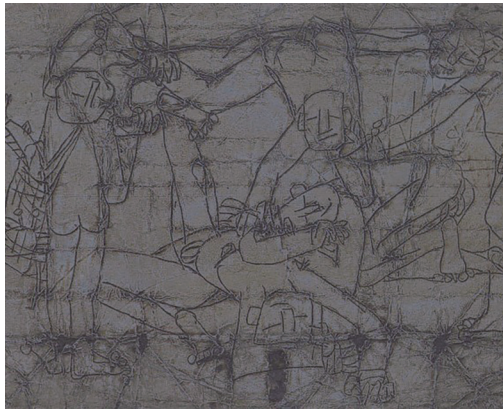
미술평론가 이경성은 그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955년 한 비평글을 통해 “우리 화단의 귀재”라면서 그의 작품 황소에 대해 “고구려의 기상과 민족혼이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경성 선생은 홍대박물관장 시절 그의 〈황소〉를 직접 구입해 홍대박물관 수집목록에 올려놓았다. 대표작으로는 「싸우는 소」, 「흰소」(이상 홍익대학교박물관 소장), 「움직이는 흰소」, 「소와 어린이」, 「황소」(이상 개인 소장), 「투게」(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등은 대표적인 회화 작품이다. 가난 탓에 캔버스와 물감을 살 수가 없어서 담뱃갑 속 은지에 날카로운 철필로 그린 은지화들도 이중섭의 대표적 작품들이다.

영양부족과 신경쇠약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 돈암동에 있던 성베드로병원에 옮겨졌다가 병원을 나와 잠시 근처 정릉동에 살던 한묵의 집에 머문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서대문 적십자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해 무연고자로 처리됐다가, 3일만에 박고석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시신이 인도되어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혔다.





[그림86] 이중섭, 〈소〉



[그림87] 이중섭, 〈아이들〉(은지화)

## 7. 황염수(1917~2008)

황염수 화백은 평양 출신으로 1934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고, 평양에서 이중섭, 한묵 등과 6인전을 열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박고석, 이중섭과 함께 동경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서 만났다. 부산 피난 시절 각 별하게 지낸 시인 김수영, 소설가 박연희와 계속 교류하며 김수영의 시에 삽화를 그려주기도 하였다. 1957년 한묵, 천경자, 박고석과 모던아트협회를 창립하고 창립동인전에 참여하였다.

손바닥 만한 작은 화폭에 장미 몇 송이가 아름답게 자리한 작가의 작품은 이미 미술컬렉션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래서 황염수 화백은 ‘장미의 화가’라는 애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장미를 그렸던 것은 아니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이후 20년 가량은 풍경을 그렸고, 특히 산의 웅장함에 매료되어 산을 소재로 한 작품에 몰두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장미의 아름다움에 빠져 웅장한 산 대신에 작고 아름다운 장미를 평생의 주제로 삼게 됐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음악하는 이기영이라는 친구의 동생이 하는 ‘장미원’이라는 화원에 갔다가 장미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것이다. 국내미술계 풍토에서는 꽃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사모님 취향’ 그림이라고 무시하는 풍토가 있는 상황에서 황화백의 장미그림 선회는 지금으로봐도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굵고 두터운 검은선으로 윤곽을 잡은 후에 강렬한 빨강, 노랑, 남색, 등을 써서 꽃잎을 표현한 황염수 화백의 장미는 봉오리가 뾰족하기도 하고 잎이 싱싱하게 펼쳐져있기도 하다. 1~4호 가량의 작은 화폭에 그려진 소품이 대부분으로 장미 이외에도 아네모네, 양귀비, 수선화, 해바라기 등도 소재로 가끔씩 등장한다. 장미원에서 느낀 환희를 잊지 못해 장미그림을 그릴 때마다 장미 꽃봉오리를 직접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알려진 이야기다.

황화백은 전쟁 이후부터 돈암동에 터를 잡고 계속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자택 뜰에 좋아하는 장미를 가꾸었다고 한다. 2000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도 88세에 대대적으로 미수전을 여는 등 작품활동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다.



[그림88] 황염수, 〈노란 장미〉

## 8. 김종하(1918~2011)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초현실주의 화풍을 개척한 화가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종하 화백은 1932년 15세의 나이에 최연소로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여 큰 주목을 받으며 미술계에 데뷔했다.

일본에 건너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와바타 미술학교와 동경제국미술대학을 연이어 졸업했다. 귀국이후에는 1942년 선전에서 특선을 했다.

1956년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화랑인 반도화랑이 개관할 당시 ‘김종하, 박수근’ 2인 전시를 개관전으로 연다. 당시엔 박수근이 오히려 김종하 화백의 명성에 덕을 본 케이스다. 같은 해 프랑스로 유학해 고전회화와 현대회화를 넘어서 초현실주의 화풍에 몰두하게 된다. 프랑스 ACADEMI DE GRANDE CHAUMIERE를 졸업(56년~59년)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동소문동과 보문동 일대에서 생활하며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1964년에는 삼선교에 휴아트연구실을 열어 생활미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직접 가봉한 옷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패션쇼를 열었고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그의 제자이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작품은 팔지 않았고, 금전을 이유로 한 예술행위는 하지 않는 구도자적 예술태도로 일관했다. 현실적 공간과 초현실적 공간이 겹치는 환상성이 작품에 담겨있으며 육감적 원형성과 원시성, 탐미적 향수가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성으로 일가를 이루었다.

1982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루벤스훈장을 받았고, 파리 보자르드전 금상을 수상했다. 2002년 생존화가로는 최초로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았다. 말년까지 자연과 여인을 소재로 한 환상적인 누드연작을 선보였다.



[그림89] 김종하, 〈봄의 향기〉



[그림90] 김종하, 〈빨간모자와 발레리나〉

## 9. 표승현(1929~2004)

격동의 20세기를 거친 민족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대표적인 추상표현주의 화가이다. 황해도 안악 출신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월남하여 춘천에 정착했고 춘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서구의 현대미술 사조가 한국 화단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1950년대 후반기인 1957년 국전에서 작품 ‘석교’가 특선함으로써 미술계에 등단했다. 1970년 국전에서 〈음양〉으로 국무총리상을, 1972년 국전에서는 작품 〈적(跡)〉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940년대 파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추상표현주의 흐름은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내에도 밀려들어와 화단의 젊은 작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흐름들은 순수추상, 비재현 회화의 출발 시점을 만든다.



1950년대 화단의 기대주였던 표화백은 자연의 형상에 내재된 본질적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하여 이를 재해석해 형상화시키기 시작한다. 60년대에는 구상적 표현에서는 멀리 떠나 새로운 추상의 조형 형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1970년대 중반 이후 사물의 형상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속에서 형상이라는 존재를 지워가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40여년간 성신여대에서 교수로서 제자들을 키워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며 투병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앙을 통한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구도를 하는 듯한 작품세계를 보인다. 표화백은 ‘도(道)’는 사람의 감각을 초월한 무색 무형 무성한 것으로 황홀한 만상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며 말년의 예술과 도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의 1999년작 <적송>을 보면 그의 이러한 사상이 잘 나타나있다. 수도생활 이후에 새로운 심안으로 대상을 바라보면서 존재의 세계를 주체와 대상의 세계로 보는 것이다. 주체는 하나님의 종교인 무형의 세계, 대상은 자연과 과학의 유형세계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처럼 서양의 추상과는 달리 인간과 영성에 대해 천착하면서 독특한 종교적 ‘도’의 작품세계를 추구해 나갔다.



[그림91] 표승현, <음양>



[그림92] 표승현, <적송>, 1999

## 10. 전성우(1934 ~)

우송(雨松) 전성우 화백은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장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간송미술관을 만들어 국보급 문화재가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사재를 털어 막아낸 간송의 장남인 전화백은 어릴 시절부터 문화재가 그득한 북단장(北壇莊)<sup>22)</sup>에 드나드는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예술적 분위기를 몸으로 습득했다. 그 시절 전화백의 집에는 위창 오세창 선생이 쓴 글씨와 심산 노수현 선생이 그린 그림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예술가들이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릴 때면 옆에서 먹을 갈기도 하고,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유명한 서양화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그림을 보는 안목과 풍류를 자연스레 익혔다.

부친인 간송 선생은 동기인 화가 이마동 선생보다 미술 성적이 좋을 만큼 미감이 뛰어났고, 외조부는 일본 우에노대 서양화와 졸업생이었으니 예술의 DNA는 타고난 것이었다. 주말이면 부친이 형제들을 불러 화제를 주고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우송에게는 일부러 가장 낮은 점수를 주어 실력을 키우게끔 했다고 한다. 중1 때부터 혼자 석고 덧생을 하면서 화가의 꿈을 키워나가다가 한국전쟁 중에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고, 1953년 미국 시애틀로 유학을 떠난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 현대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접하고 추상화의 세계를 만난다. 대학2학년 때, 학교 예술제에서 수상하고 교수의 추천으로 캘리포니아 미대에 입학한다.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황금시대인 1950년대의 예술적 분위기의 세례를 흠뻑 받은 셈이다. 1960년대부터 평생의 작품주제인 ‘만다라’를 발표한다. 이때 미국 예술계에는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추상표현주의가 유행의 중심에 떠오른 시기였다.

한창 작가로서 유명세를 타려던 무렵, 부친인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장남으로서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작품활동을 계속했다. 이화여대, 서울대 교수로 추상화를 가르치면서 1967

22) 간송 전형필이 사재를 들여 모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 터로 마련하였다. 위창 오세창 선생이 선잠단지 북쪽에 있는 땅이라는 뜻으로 북단장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곳에 1938년 건축가 박길룡의 설계로 보화각이 설립되었고, 1966년 간송미술관으로 개칭되었다.

년 우리나라 화단에 아크릴릭 물감을 소개한다. 또한 국립박물관에 자주 드나들면서 미술사학자 최순우 정양모 이흥우 이종석, 미술평론가 이경성 이구열 등과 미술당을 결성했고 문화재를 찾아 전국을 답사하는 한편, 혜곡 최순우 선생의 성북동 집 뜰에 모여서 예술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목을 다진다.

집안에서 맡아 경영하던 보성중고등학교의 이사장인 모친을 도와 교장으로도 일하면서 교육자로서의 또다른 일도 충실히 해 나간 전화백은 환갑이 되던 해에 퇴임하고 작가로서의 못이룬 꿈을 ‘청화만다라’ 연작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그림93] 전성우, <운경>, 1954



[그림94] 전성우, <색동만다라>, 1968

## 11. 오윤(1946~1986)

탈춤과 농악 등 한국의 전통적 민중예술을 바탕으로 한 목판화를 제작하기 시작하며 민중미술을 개척한 판화가이다. 1980년대 암울했던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불어닥친 민주화 요구와 목판화 중심의 민중미술이 맞아 떨어지면서 오윤은 민중미술의 핵으로 우뚝 선다. 이전까지 목판화는 우리 미술사에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한 적이 없었지만 오윤의 목판화 작업이후에는 민중미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화려하게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오윤은 ‘갯마을’을 쓴 유명소설가인 오영수의 장남으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현대문학’의 초대 편집장을 맡은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1957년 돈암동으로 이사했다. 당시 오윤의 집에는 조정래, 오탁번 등 여러 문인들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에 다니면서 김윤수, 김지하, 오경환 등과 사회 비판과 민중 운동에 대한 생각을 키웠다. 1965년 김윤수, 김지하, 오경환, 임세택과 함께 ‘현실동인전’을 준비했지만 교수들과 보안당국에 의해 제지당해 무산당하고 1년간 휴학하기도 했다.

군대를 다녀온 1972년부터 3년간 경기도 고양시 내유동과 일산, 그리고 경주에서 테라코타 작업을 하면서 전통미술을 연구했다. 이 시기 서울 상업은행 구의동 지점 실내 테라코타 부조벽화와 동대문 지점 외벽의 테라코타 부조벽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1976년에는 서울 수유동 가오리에 작업실을 열고 민담, 무속화, 탈춤, 굿 등 민중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과 함께 암울한 세태를 향한 저항적 메시지를 담은<탈춤>, <노동의 새벽>, <대지> 등의 작품을 만들었다. 이듬해인 1977년부터 선화예술학교에서 조소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다수의 책표지와 삽화를 제작하였다. 1979년 ‘현실과 발언’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1980년 서울의 동산방화랑에서 제1회 『현실과 발언 동인전』에 마케팅 연작을 발표하였다. 1981년에는 제2회 『현실과 발언 동인전-도시와 시각전-』에 가족연작을 출품하는 등 현실과 발언 동인전에 작품을 꾸준히 출품하며 민중미술 운동에 참여하였다.

1983년까지는 거의 흑백 목판화로 일관하였으나 1984년부터는 흑백 판화에서 벗어나 간결한 장식적 색상을 도입해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대형 걸개그림인 「통일대원도」를 제작하였다.

오윤의 대표적 판화 작품으로는 ‘낯을 든 사람’, ‘혈뺏은 사람’ 등의 초기 연작으로부터 1970년대의 ‘지리산’, ‘탈춤’, ‘할머니’, 1980년대의 ‘동학’, ‘농부와 아들’, ‘여공’, ‘지옥도’ 등 빈민 계층과 농민의 삶을 소재로 삼은



것이 많다. 민담과 설화에서 따온 민속적 소재의 작품들로는 ‘대지’, ‘봄의 소리’ 등이 있다. 김지하(金芝河)의 담시집(譚詩集) 『오적(五賊)』과 이원수(李元壽)의 전래 동화집 『땅속나라 도둑귀신』의 판화 삽화와 표지화를 비롯하여 정치적 민주화 운동 및 투쟁을 지원한 포스터와 대형 걸개그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지병인 간경화의 재발로 회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다. 1996년 10주기 추모전으로 대구의 맥향 화랑의 『오운 판화전』과 서울 학교재의 『오운-동네사람 세상사람-』이 열렸으며, 2006년 20주기 회고전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오운-낮도깨비 신명마당』과 서울 가나아트센터의 『오운/대지1965~1986』이 개최되었다. 2005년에는 정부로부터 옥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그림95]오운,〈애비〉

## 12. 김성환(1932~)

김성환 화백은 동아일보에 1955년부터 연재되던 4컷짜리 만화 ‘고바우’를 연재하면서 우리 신문에 4컷만화를 도입한 장본인으로 현대사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고바우 영감’ 4컷에 담아낸 현대사의 산 증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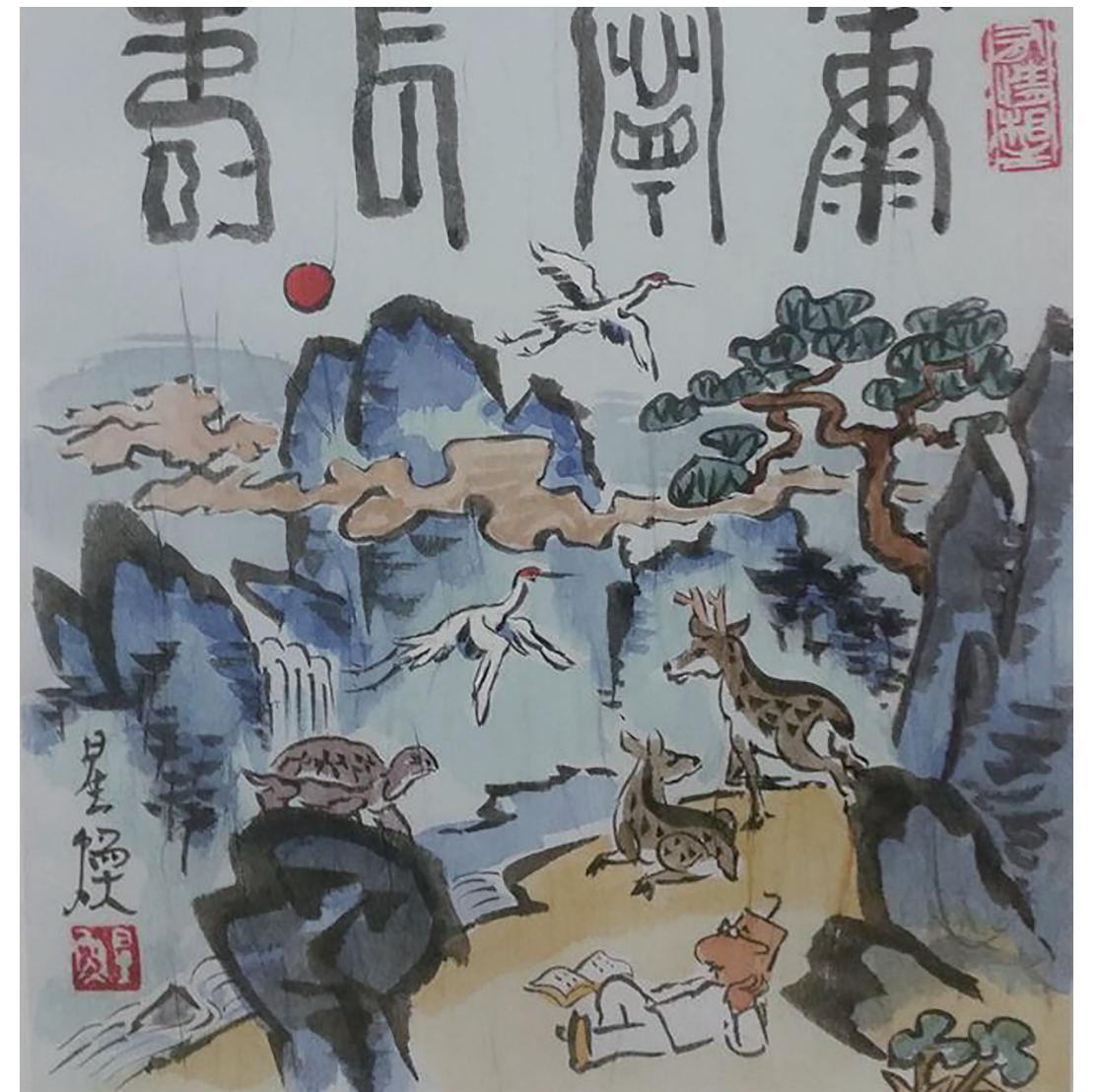
1932년 개성 출생으로 아버지 김동순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10여년간 수감됐던 독립투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만주에 거주하던 당시에 그 지역의 유지로 살면서 귀농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친일인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고 한다.

해방이후 귀국해 서울로 온 김성환 화백 일가는 혹독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당시 10대 초반이던 김화백은 만주에 있을 때부터 학교 미술부장을 맡는 등 그림에 소질을 보였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생계를 도울 생각에 ‘멍텅구리’라는 제목의 네 칸 만화를 그려서 〈연합신문〉에 보냈다. 신문사에서는 ‘학비를 대주겠다’며 만화를

계속 그려 달라고 요청했고, 1949년 주간 〈만화뉴스〉의 전속작가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다. 다른 잡지에서도 요청을 받아 17세 때부터 당시로서는 꽤 많은 월 1만원을 받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 하지만 곧 한 국전쟁이 터지게 되어 다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한국전쟁 때 정릉동 집 다락에 석달 가까이 숨어 지내며 전쟁의 참상을 스케치했고, 인물캐릭터 200여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총 1만4천139회 연재기록을 가진 ‘고바우영감’도 이때 탄생한 캐릭터다. ‘고바우 영감’은 1950년 12월30일 발행된 ‘사병만화’가 첫 시작이다. 초기에는 증절모를 쓴 모습이었으나 지면을 옮기면서 〈신태양〉, 〈희망〉 등의 잡지에도 실렸다. 고바우가 폭 넓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55년 2월 1일부터 동아일보에 ‘고바우’가 연재되면서 부터다. 만화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언론계에서는 고바우의 인기를 확인한 이후 잇달아 연재만화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에서 장기연재를 하다가 문화일보로 자리를 옮겨 2000년 9월 끝맺는다. 2013년 생존작가의 작품으로는 최초로 〈고바우영감〉 원화가 등록문화재 제538호로 지정됐다.

국방부 정훈국 미술대에서 국군홍보 만화를 그리다가 전쟁 후 정릉동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박수근 화백, 박고석 화백을 이웃으로 두고 명동 모나리자 다방에서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정릉 입구 오두막 선술집에서 들러 목을 축이곤 했다는 것이 그의 회상이다.



[그림96] 김성환, 〈장생도〉



## [ 33 ] 성북의 조각가

### 1. 김종영(1915~1982)

우리나라 1세대 조각가로 첫손 꼽히는 우성(又誠) 김종영은 경남 창원(창원)의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서울 휘문고 보에서 평생의 은사인 장발을 만나 조각을 시작하고, 1932년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한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람회에서 1등상을 받아 재능을 인정받았다. 스승 장발의 권유로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하였다. 1946년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 미술학부가 창설될 때 조소과 교수로 학생들을 맡아 가르치기 시작했고, 1948년 돈암동(현재 삼선동)에 30평쯤 되는 집을 구해 살다가 전쟁이후 서울대 공동관사로 옮겼다가 다시 삼선동에 집을 구해 이사를 했다. 언덕 위에 있는 양옥집으로 조각 작업을 하기 좋은 한적한 곳이었다. 1953년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조각전에 「무명 정치수인을 위한 모뉴먼트」를 출품해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공모전에 입상했다. 같은 서울대 미대 교수인 한국화가 장우성과 2인전을 열고, <3.1 독립선언기념탑>과 같은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작품의 재료인 나무, 돌의 본연의 물성을 드러내는 추상조각을 남겼다.



[그림97] 김종영, <자각상>



[그림98] 김종영, <가족>

### 2. 송영수(1930~1970)

‘철 조각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조각가로 서울대 미대 조소과에서 김종영에게 조각을 배웠다. 석고와 돌, 나무를 조각재료로 쓰는 다른 조각가들과 달리 철과 생활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새로운 추상조각을 선보였다. 삼촌이 가져다 준 헌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예술가의 꿈을 키워가던 송영수는 1950년 서울대미대 조소과에 입학해 대리석 조각을 시작으로 석고와 석조 인체상을 주로 제작했다. 대학 3학년이던 1953년 여인 입상으로 국전에서 특선한 이후 4년간 특선을 하며 27세의 젊은 나이로 최연소 국전 추천작가가 됐다. 1957년부터 시작한 철조각은 조각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고물들을 모아 융접하는 그의 작업방식을 두고 주변 지인들은 ‘고물장사’라고 놀리기도 했다. 1960년대에는 동판에 재료에 포함시켜 재질의 중후한 맛을 더욱 살려냈다. 지금은 별달리 특별할 것이 없어보이지만 당시엔 철조각은 파격적이었다. 선적인 공간구조와 추상적 철조각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당시의 시대분위기와도 맞아떨어져서 여러 가지 공공조각 주문도 폭주했다. 1961년 육군 사관학교 교정에 세운 국기게양대를 시작으로 통일상(1964·육군사관학교) 통일상(1964·육군사관학교) 성무대(1966·공군사관학교)등 그가 남긴 작품들은 공공조형물로는 드물게 추상적 형태로 주목받았다.

성북고등학교(현재 홍익대학교 부속중고등학교)와 모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같이 근무한 문학평론가 이어령과 가깝게 지냈고, 수학교사였던 미래의 아내를 이곳에서 만나기도 했다. 1965년 동숭동에 있던 학교와 가까운 성북동으로 이사를 했다. 주변으로 나무가 울창한 곳에 집을 짓고 마당 뒤편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1970년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때를 맞춰 서울, 추풍령, 부산, 세 군데에 추상조각을 세워 달라는 건설부 주문을 받아 작품을 제작하던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절친한 동료였던 이어령 비문에서 ‘피없는 돌에 생명을 주고 거친 쇠부치에 아름다운 영혼을 깃들이게 한 사람/마흔한살의 자기 나이 보다 더 많은 날들을 살며 그는 이곳에 잠들어있다’고 그를 추모했다.



[그림99] 송영수, <새>, 1969



[그림100] 송영수, <추풍령기념탑>, 1970

### 3. 권진규(1922~1973)

함남 함흥 출생. 테라코타와 건칠(乾漆) 작품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조각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조각가이다. 1949년 입학한 무사시노 미술학교에서 부르텔의 계보를 잇는 시미즈 다카시에게 사사했다. 이과전(二科展)에서 석조작품 <기사>, <마두>로 최우수상을 받는다. 1955년 무렵부터 테라코타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고도로 절제된 긴장감과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조각을 통해 영원을 향한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59년 귀국 후 동선동 집 옆에 2년에 걸쳐 시멘트와 목재로 천장을 높인 작업실을 짓고, 한쪽에 가마를 만들었다. 홍익대 조각과와 서울대 건축과,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수화랑과 명동화랑, 일본 니혼바시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러나 건강악화와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아틀리에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다. <지원의 얼굴>, <애자>, <땀은 머리> 등 테라코타 흉상을 남겼다. 그의 자취가 남은 아틀리에에는 유족이 기증해 시민문화유산으로 보전되고 있다.





[그림101] 권진규, 〈지원의 얼굴〉



[그림102] 권진규, 〈말〉

#### 4. 최만린(1935~)

다양한 ‘생명’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내는 조각가이다. 197년 경기중학교 재학시절 일본 동경미술대학을 나온 미술교사 박승구의 권유로 조각을 시작하게 됐다.

“미술실에서 소조를 하다가 바닥에 흙을 떨어뜨리지 조용히 다가와 손수 그것을 주워 박승구 선생은 ‘흙은 살이 거든, 살을 다루듯 하라’고 가르쳐주셨다. 이렇게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조각가로서의 꿈을 키워 나갔다”라고 조각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 회고했다.

1949년 열린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친구얼굴〉을 출품해 최연소 나이로 입선했다. 서울대 미술대학에서

김종영과 김세중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 모교에서 강사, 교수로 재직한다. 1973년 록펠러재단의 후원으로 미국 프랫대학에 유학하는 중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에서 영감을 받아 ‘생명’에 집중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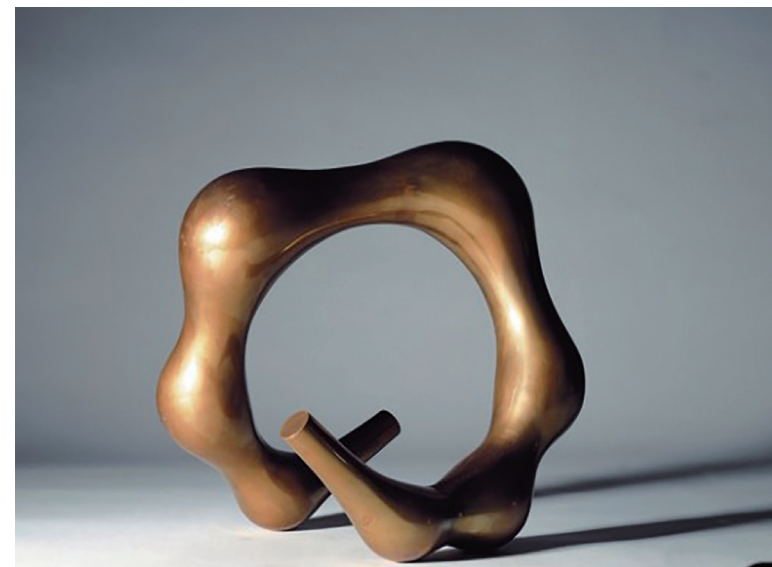
“2만여년 전 만들어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화집에서 봤는데 ‘이거다’ 몇 만년 전에 그 분이 이 상을 만드는 그 마음 오늘날 내가 이런 조각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생명의 원천, 생명을 거부하는 인간이 과연 있겠는가. 동서양을 건너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감이다”

그의 작품시기는 대개 습작기(1956~1960), 인체추상화 시기(1961~1965), 추상조각 모색기(1965~1970), 추상조각 제1기(1970~1987)와 제2기(1987~1996) 등 5시기로 나눌 수 있다. 불안한 시대의 인간 초상을 형상화한 ‘이브’ 시리즈에서 시작해 60년대에 한자의 획에서 드러나는 표상을 작품한 ‘천-지-현-황’ 시리즈, 장승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일-월’ 시리즈를 선보였다. 70~80년대의 생명 이미지를 조형화한 ‘태’ 시리즈, ‘점’ 시리즈에서는 자연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주제로 조각 세계를 확장했다. 최만린 조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인 생명주의는 어떤 특정한 자연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인간이 인식하기 이전에 우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력의 본질을 표현한 것이다.

돈암동 전셋집에서 1965년 정릉동에 하얀 담 위에 빨간 기와를 올린 이국적 스타일의 멋진 집을 짓고 옮겨 왔다. 택지개발로 인해 근처에 두 번째 집을 지어 이사하고, 집 옆으로 작업실을 따로 마련하였다. 1997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지내며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일하였다.



[그림103] 최만린, 〈태〉



[그림104] 최만린, 〈태〉, 1981



## [ 34 ] 성북의 서예가

### 1. 유치웅(1901~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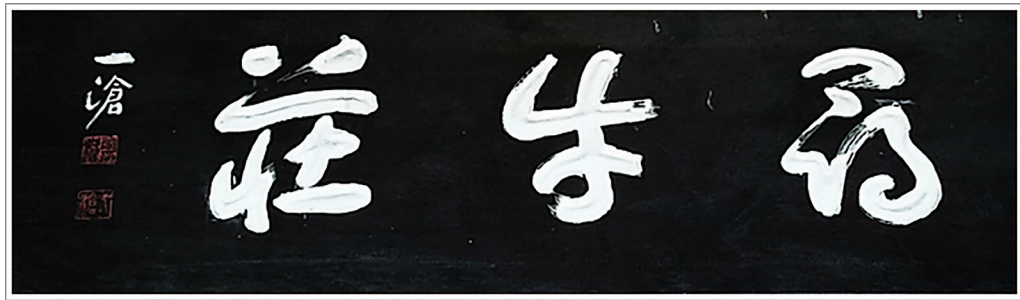
한용운이 말년을 보낸 심우장의 편액을 쓴 서예가이다. 한국 근대기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초서(草書)에 독보적인 경지를 이뤘다는 평을 듣는다.

1901년 충남 부여에서 독립운동가이자 명필로 손꼽혔던 우당 유창환의 차남으로 태어나 부친의 정신과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1945년부터 동성중 교사와 보인상업중학교 교원으로 재직하였고, 1948년에는 위당 정인보의 권유로 초대 감찰위원회 감찰관을 지냈다. 감찰관직을 맡았을 때 부정부패에 엄격했고, 공직에 몸담는 동안에는 관의 물품하나도 빌려쓰지 않았다. 20년동안 두차례 명지대 이사장을 지내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이듬해에는 부친이 부흥학교를 설립한 뜻일 이어받아 '부운장학회'를 설립했다.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해서 단 한번도 개인전을 열지 않았다. 일창은 생전에 “초서는 동글동글, 한 군데도 모가 나선 안 되오”라며 심우장의 편액에서 보듯이 모나지 않으면서도 기품있는 초서의 서체를 갖고 닦았다. 위창 오세창, 위당 정인보, 성재 김태석 등 일창과 교유한 서예가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1972년 부인과 사별한 이래 서울성곽과 맞닿은 성북동 집에서 여생을 보냈다. 마당 한편에는 작은 정원을 꾸며 장미와 국화를 가꾸었고, 사랑방에는 위당 정인보 선생이 선물한 매화를 키웠다 위창 오세창 선생이 써준 재호(齋號) 일쾌현(一快軒)이 걸려 있었다. 일창선생이 해방이 되어 위창 선생을 찾으니 바깥분위기를 물어 “일쾌이(一快已) 올씨다(일본세력이 한순간에 빠져나갔다)”고 하니 이 대답에 흡족해하며 써준 것이었다. 오세창이 만해 한용운의 집 ‘심우장’ 글씨를 써준 편액이 없어지자, 유치웅이 오세창과의 인연, 한용운을 기리는 마음을 함께 담아 글씨를 썼다.



[그림105] 유치웅, <심우장> 편액

### 2. 김충현(1921~2006)

호는 일중(一中). 한글서체를 개발하는데 힘을 쏟은 서예가이다. 138년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에서 서예부문 최고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가>와 같은 옛 글씨체를 참고하여 ‘훈민정음체’를 만들었다. 1956년에는 서예에 대한 연구와 신예를 발굴하기 위해 김응현, 김용진, 노수현, 민태식과 동방연서회를 창립했다. 독립기념관 현판, 유관순열사비 비문 등을 썼다. 소전 손재형과 함께 당대의 대가로 꼽혔으며, 반듯한 해서체를 토대로 한 ‘일중체’를 만들었다. 1978년 동선동에 집을 짓고 뜰에 사군자와 나무를 가꾸며 지냈다.



[그림106] 김충현, <독립기념관>

### 3. 정환섭(1926~2010)

전통서예의 현대화를 모색한 서예가이다. 소전 손재형에게 사사하였으며 추상에 가까운 파격적 서체를 선보였다. 1956년 한국미술가협회전에서 글씨와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을 시도하여 주목받았고, 이후 서예를 그림의 한 요소로 작품에 표현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1978년 국정교과서 <중학서예>를 발간하여 서예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서예를 대중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성북구 주최 성북장학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성북동 집에서 작고했다.



[그림107] 정환섭, 여수 진남관의 '통제문' 현판

## [ 35 ] 성북의 공예/건축가

### 1. 강창규(1906~1977)

우리나라 건칠공예의 전통을 이은 공예가이다. 16세에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 우에노도쿄 미술학교 공예분야에서 공부했다. 연구과를 수료하던 1935년 조선미술전람회와 일본제국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차지했고, 일본왕 접견실 실내장식가로 위촉받기도 했다. 우리나라 전통문양인 포도, 석류, 물고기 등을 자개를 사용해 표현했다. 2008년 등록문화재 제451호로 지정받은 ‘건칠반’은 활짝 핀 나팔꽃 모양의 팔각 소반에 짙은 밤색과 주칠을 교대로 사용하여 강렬한 색채 대비와 표면 광택이 화려하게 살아있는 공예품. 단절 위기에 있던 우리나라 건칠 공예를 홀로 고수하며 현대적으로 승화시킨 작가의 초기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월남해서 학생을 가르치고 작품활동을 하다가 한동안 안암동 집에서 칩거한다. 1973년 국전 초대작가로 재기했다.



[그림108] 강창규, <건칠반>



## 2. 김종업(1922~1988)

김수근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건축가로 호는 여천(如泉)이다. 군수를 지냈던 부친을 둔 김종업은 평양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1941년 요코하마 고등공업학교에서 건축학과에서 파리미술대학 출신 나카무라 교수로부터 건축교육을 받고 마쓰다 히라다 건축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를 익혔다.

1952년 9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UNESCO 주최 제1회 세계예술가회의에 한국건축가 대표로 참석했다. 이후 파리에 있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건축사무소에서 1952년 10월부터 3년 6개월간 건축 및 도시계획을 배웠다.

1956년 귀국해 홍익대 건축미술과 교수를 맡고 김종업합동건축연구소를 설립한다. 서울이 당면한 도시계획·건축 등의 문제에 대한 정부시책을 과감하게 비판하였다가 1971년 11월 출국하여 프랑스에 거주하게 되었고, 1972년 3월 르 코르뷔지에 재단이사로 선임되었다. 한때 대외적 활동을 접고 성북동에 칩거하며 작업에만 몰두했다. 이 시기에 시인 김광섭의 2층집을 설계해 주기도 했다. 1970년대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그의 건축물들은 한국문화 속의 사머니즘적인 체험과 내면에 분출된 원초적인 힘 등 보이지 않는 무한한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대표작으로 주한프랑스대사관, 서강대 본관, 삼일로빌딩 등이 있다. 1962년 서울특별시 문화상, 1965년 주한프랑스대사관 설계로 프랑스정부로부터 국가공로훈장과 슈발리에(Chevalier) 칭호를 받았고, 1985년 산업포장(건설유공 부문)을 받았다.



[그림109] 김종업, 주한 프랑스대사관

## 3. 김은영(1942~)

「와사등」을 쓴 시인 김광균의 딸인 송리(松里) 김은영 여사는 어릴 적 부친을 따라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들렀을 때, 아름다운 노리개에 푹 빠졌던 기억을 매듭과의 첫 만남으로 기억한다. 고운 색실을 꼬고 엮어서 만든 노리개의 술을 보면서 집에 와서 기억을 더듬어 만들어보곤 했다.

부친의 권유로 이화여자대학에 신설되는 장식미술학과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유학의 꿈을 키우던 중,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던 사촌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교수의 꿈을 접게 된다. 때마침 집안 고모의 소개로 간송 전형필의 장남 전성우 화백을 소개받아 몇 달 만에 약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1967년 결혼 이후 살게 된 성북동 집은 약혼 이후 짓기 시작해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사를 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던 송리는 당시 국립박물관 미술과장 최순우선생의 소개로 김희진 선생을 소개받아 매듭을 배운다. 큰 살림을 하는 결혼한 몸으로 사남매를 키우고 집안을 전사하면서 매듭을 하기 쉽지 않았지만 새벽시간을 쪼개가며 열심히 매듭장인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그 결과 전승공예대전 특별상(5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매듭예술가로서 이름을 조금씩 알려갔다. 1977년부터는 매듭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모아 집에서 수업을 했다. 46세에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졸업논문으로 ‘우리나라 매듭의 역사’를 발표하고 대학강단에도 서서 교수의 꿈도 뒤늦게 이루었다.

1996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3호 매듭장으로 지정받아 오랫동안 매듭 장인으로서 고군분투한 결실을 보게

됐다. 2002년부터 자신과 제자들의 작품을 모아 ‘김은영전승매듭연구회’회원전을 열고 있다. ‘매듭과 노리개’, ‘매듭과 주머니’, ‘매듭과 현대의상’ 같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매듭을 옛 것으로만 치부해버리는 요즘 사람들에게 다양한 현대적 쓰임과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전파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림110] 김은영, 대삼작 낙지발술 노리개



[그림111] 김은영, 궁 소교 대봉유소 1쌍

### 성북동 미술자원 집필에 참고한 자료

- 김윤수 외, 『한국미술 100년』,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한길사, 2006.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성북동 : 잊혀져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1~3권,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09~2011.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정릉동 :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13.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삼선동·동소문동 :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15.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성북, 100인을 만나다』, 성북구청 홍보전산과, 2015.
- 노형석, 『장승업은 생활인이었네』, 『한겨레21』 제712호, 2008.
- 이인숙, 『석재 서병오(石齋 徐丙五, 1862~1936)의 기명절지화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55집, 2013.



## 7. 성북동 건축 자원

### [ 36 ] 성북동의 형성과 변화

#### 1. 조선시대(18세기)

- 성북동에 대한 지명, 해화문, 한양도성, 활인서 등 외에 성북동은 도성 내부에 비해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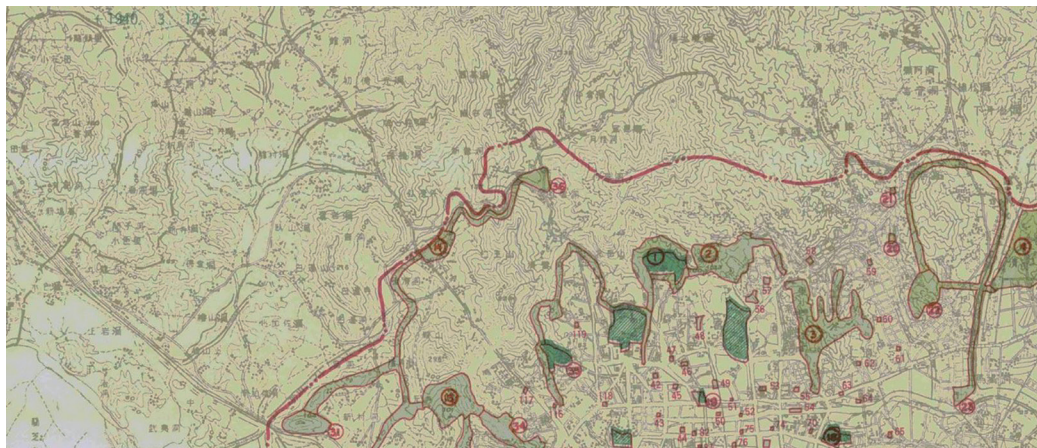
#### 2. 일제강점기

-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성북동의 변화는 서울시 연혁도(1977)의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
-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
- 성북동은 현재 한성대입구역에서 가까운 일부지역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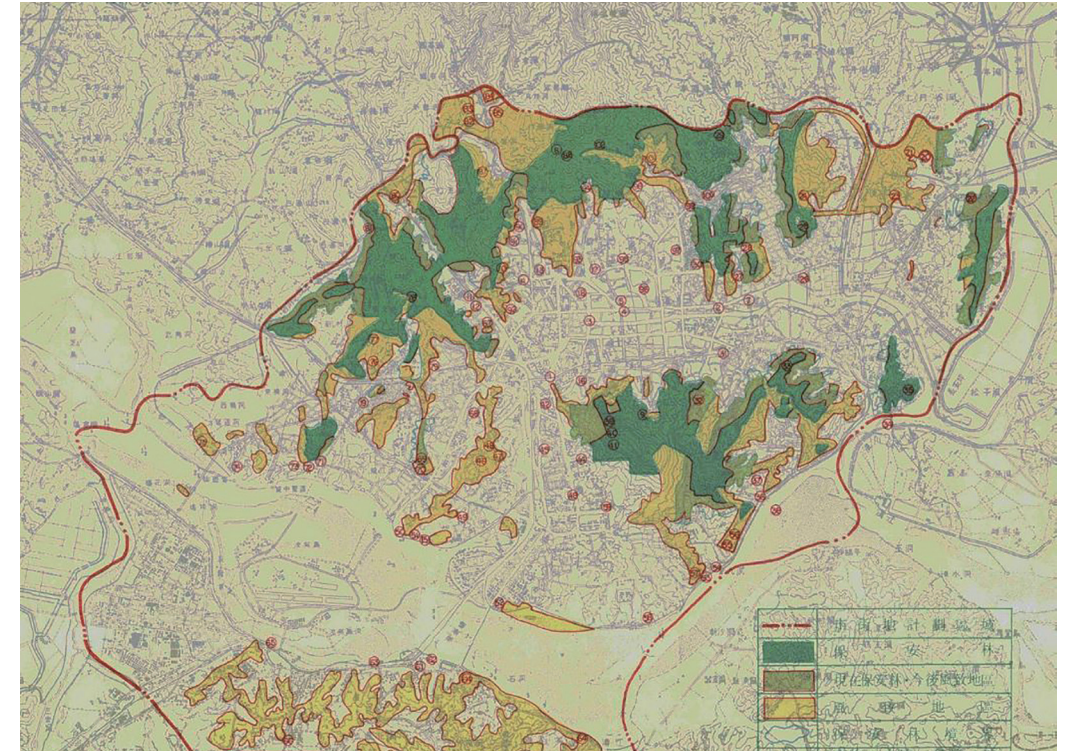
#### ○ 1940년 경성시가지계획공원

- 1940년 경성시가지계획공원도를 보면, 성북동은 대부분 풍치지구에 해당되어 있어, 시가지계획공원에는 크게 성곽을 중심으로한 일부 구역만 구획되어 있음.



#### ○ 1941년 풍치지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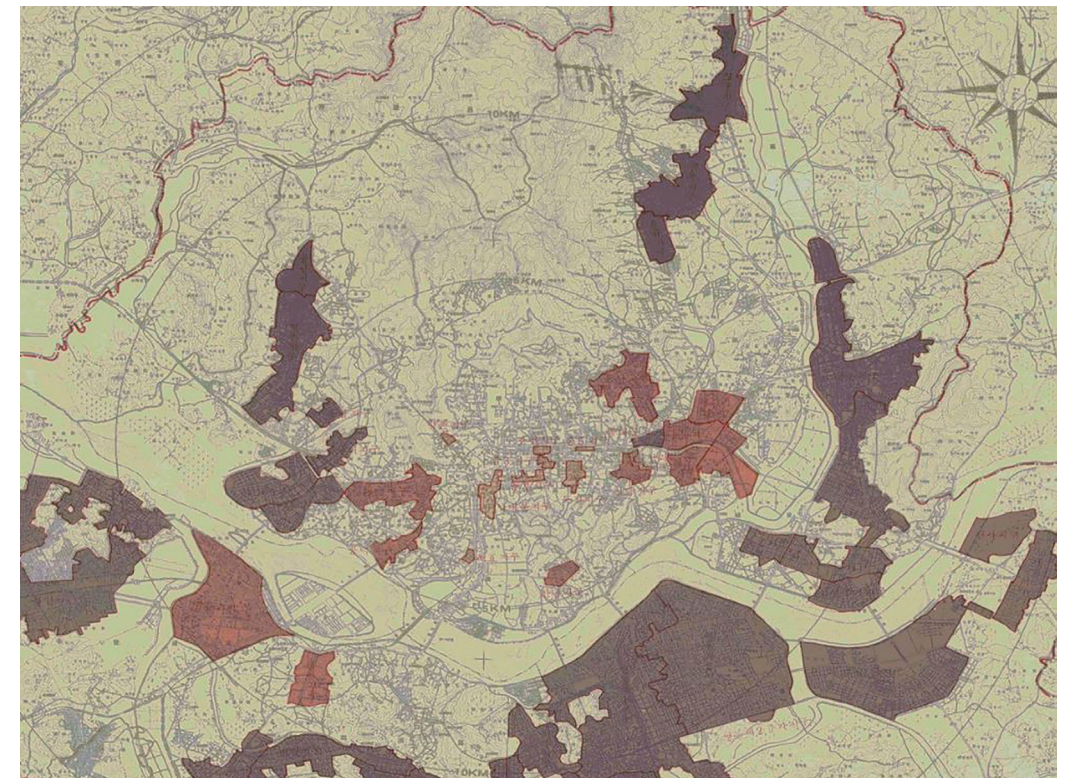
- 1941년의 풍치지구계획도에는 성북동 대부분이 풍치지구에 포함되어 있음.



#### 3. 해방 이후 국가재건기

##### ○ 1965년 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

- 1965년 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을 보면 일제강점기부터 계획되었던 돈암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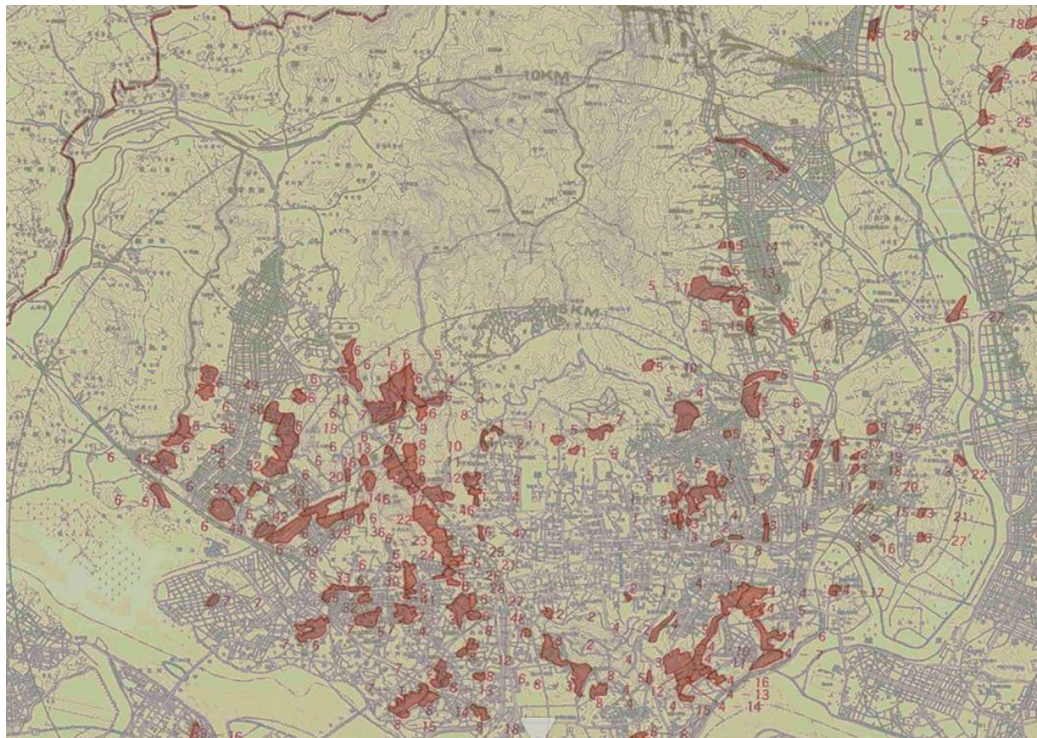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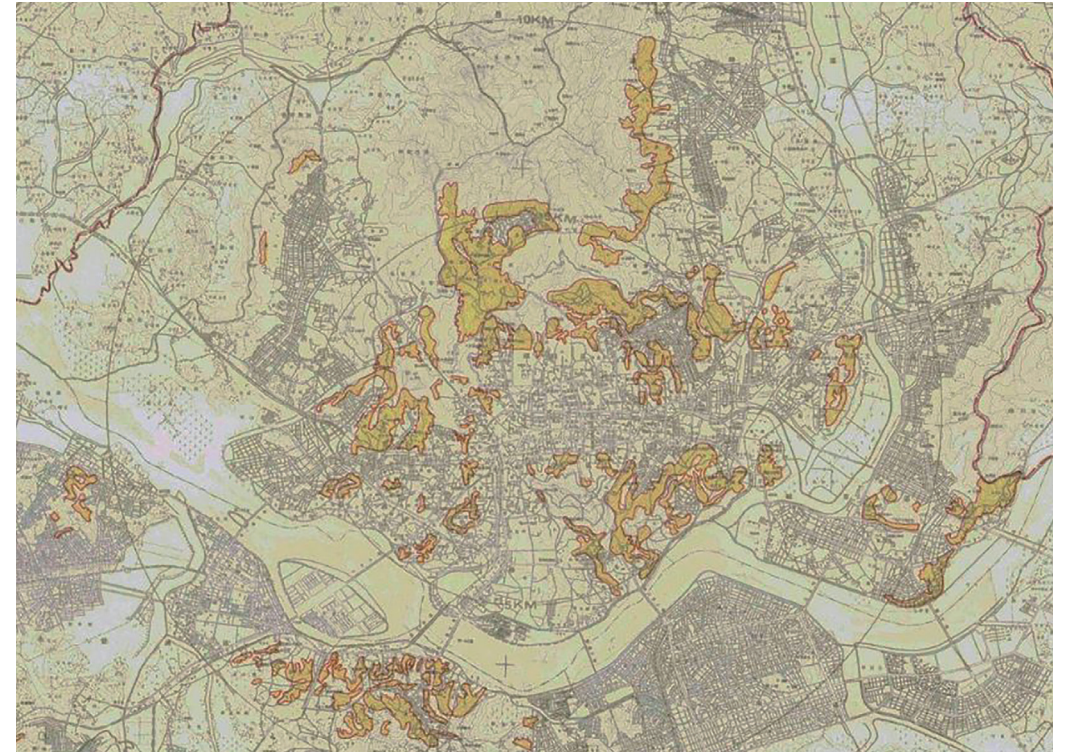
- 1968년 서울도시계획공원
  - 삼선교와 가까운 지역은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풍치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곳의 대부분은 서울 도시계획공원 구역으로 남아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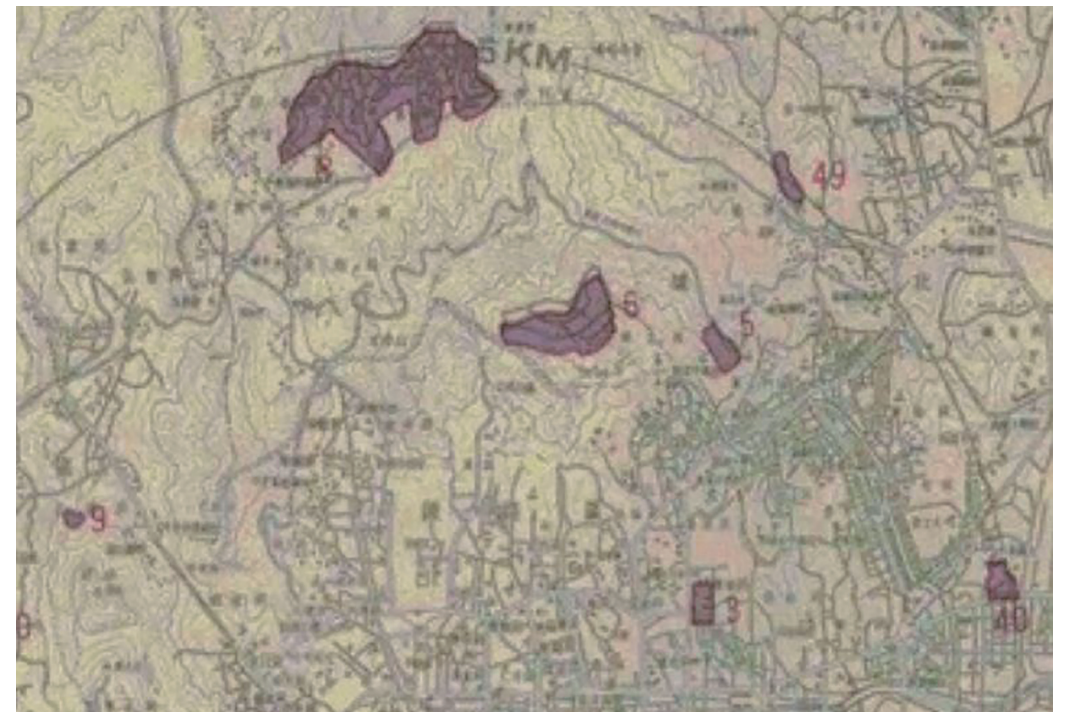
- 1976년 불량주택재개발구역현황
  - 1976년 불량주택재개발구역현황을 보면 성북동에서는 현 북정마을 인근 성곽부근에 불량주택재개발 구역이 표시되어 있음.



- 1976년 서울도시계획풍치지구
  - 1976년 개발시기에도 성북동은 삼선교와 가까운 길 주변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 도시계획풍치지구에 해당되고 있음.



- 1976년 주택지조성사업
  - 1976년의 주택지조성사업 계획도를 보면, 성북동의 위쪽도 주택지 조성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음.
  - 범례로 보면 지도의 위쪽 넓은 부분이 '6 성북단지(대교주택단지)'로 표시되어 있고, 현 선유골 주변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5 성북단지(조선일보단지)'로 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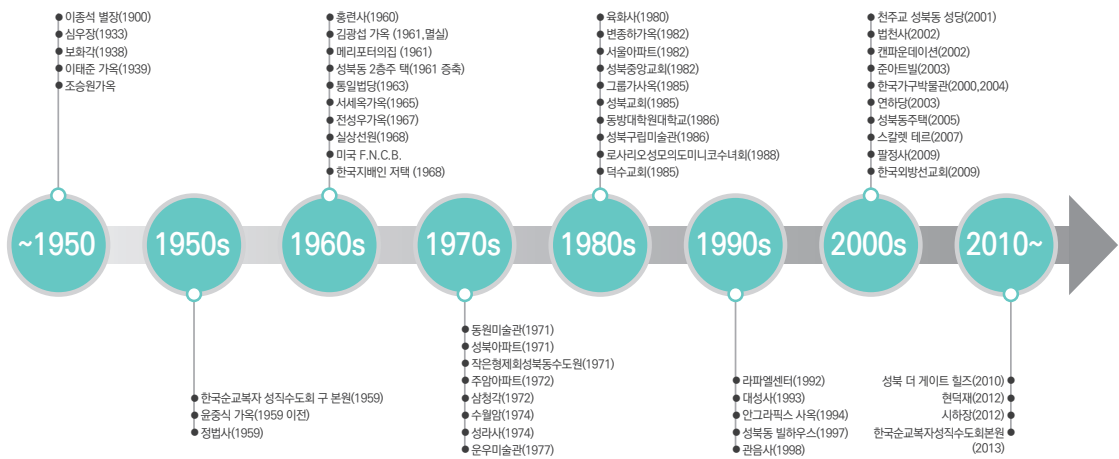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illegible]



## 2. 각 시기별 주요한 건축 문화 자산 정리



[그림115] 성북동 시기별 건축물

○ 성북동의 건축 문화 자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참고한 자료의 목록

- 문화재청 홈페이지
-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기초현황조사 도심권, 2013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목록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http://www.aurum.re.kr>
-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1~15), 건축사, (1987~1989)
- 박길룡, 한국 현대건축 평전, 2015
- 서울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2015년 2월 발표) 중 근현대건축자산 210건
-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서울특별시 자료집, 2013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계획, 서울특별시, 2010
- 성북문화원 발간 자료
- 미디어 자료
- 현장답사

## 3. 문화재

○ 사적(2곳)

- 사적의 주요 건축물로는 서울 한양도성의 성곽과 서울 선잠단지의 제단과 홍살문 등이 있음.
-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를 통하여 새로 복원된 곳 또한 사적 전체의 보존을 통해 후대에도 전체가 하나의 문화재로 인식될 것임.

○ 명승(1곳)

- 명승의 주요 건축물로는 성락원의 '송석정'이 있음.

○ 서울특별시 기념물(1개)

- 만해 한용운 심우장은 단출한 한옥과 함께 역사 인물인 만해 한용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음.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2개)

- 이종석 별장과 상허 이태준 가옥은 법인과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별장과 주거용 한옥으로 성북동에서도 다양성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함.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1개)

- 마포 최사영 고택은 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옮겨온 한옥이지만, 원래의 한옥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며 철저한 고증을 통해 다시 지었기 때문에 가치가 높음.

○ 등록문화재(2개)

- 최순우 가옥은 1930년대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한옥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2003년 보수정비를 통해 일부 형태가 바뀌었으나, 개방공간으로 의미가 높음.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은 가장 최근에 성북동에서 문화재가 된 건축물로, 건축과 의장, 미술 사적 가치가 높음.

## 4. 서울시 미래유산

○ 서울시는 미래유산을 선정하여 정치역사, 문화예술, 도시관리, 시민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건축물과 장소 등을 알리고 있으며, 법적인 보호는 받지 못하나, 시민들의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성북동 미래유산 목록

| 인증번호     | 미래유산명        | 소재지           | 소유주                                      |
|----------|--------------|---------------|------------------------------------------|
| 2013-036 | 길상사(구 대원각)   | 선잠로5길 68      | 대한불교조계종(길상사)                             |
| 2013-111 | 변종하 가옥       | 대사관로3길 41     | 재단법인석은미술재단                               |
| 2013-123 | 삼청각          | 대사관로 3        | 서울시                                      |
| 2013-207 | 윤중식 가옥       | 성북로14가길 13-14 | 윤대경                                      |
| 2013-273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성북로24길 3      | 천주교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 2014-023 | 복자사랑 피정의 집   | 성북로24길 3      | 천주교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 2014-026 | 서세옥 가옥 및 작업실 | 성북로28가길 7     | 서세옥                                      |
| 2015     | 성북동 국시집      | 창경궁로43길 9     | 1969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이어오고 있는 칼국수 전문 식당 |

[표17]2015년까지 지정된 성북동의 미래유산

## 5. 종교건축

○ 서울시 전통사찰

- 성북동 정법사는 서울시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으며, 불교 미술과 종교 건축의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곳임

○ 종교시설

- 성북동에는 지역적 특성상 수행을 위한 공간과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특정 종교가 아닌 다양한 종교의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종교시설은 기초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주요 통행도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 위주로 조사를 하여

- 누락된 부분이 많고, 건축자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건축적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성북동 종교시설 목록
  - 불교
    - 관음사, 구룡암, 금강사, 길상사, 대성사(문화재 보유), 법천사, 보덕사, 성라사, 수월암, 실상선원, 약사암, 연화사, 육화사, 전등사, 정법사, 청룡암(문화재 보유, 동소문동 소재), 칠보사, 통일법당, 팔정사, 홍련사
  - 기독교
    - 덕수교회, 성북교회, 성북제일교회, 성북중앙교회, 아름다운교회, 영광교회, 용광교회, 창성교회
  - 천주교
    - 그리스도왕선교수녀회, 로사리오성모의도미니코수녀회, 위로의성모수녀,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수녀회, 작은형제회성북동수도원, 천주교 성북동성당,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구 본원 등록문화재), 한국외방선교회

6. 건축상 수상 건축물

- 성북동에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며,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건축상을 받은 건축물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음.
- 현대 건축물이기는 하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축 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건축상 수상 건축물 목록 및 위치

| 명칭               | 주소          | 수상내역                                | 비고   |
|------------------|-------------|-------------------------------------|------|
| 구석당              | 성북동 330-484 | 한국건축가협회상, 본상, 1981                  | 신축   |
| 덕수교회             | 성북동 243-1,5 | 한국건축가협회상, 본상, 1984                  | 신축   |
| 성북동 빌하우스         | 성북동 330-21  | 한국건축가협회상, 본상, 1998                  | 신축   |
|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성북동 사택 | 성북동 산 14-32 | 서울특별시건축상, 장려, 2001한국건축가협회, 본상, 2001 | 신축   |
| 연하당(煙霞堂)         | 성북동 330-496 |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 본상, 2004              | 신축   |
| 스칼렛테르(하우스)       | 성북동 330-94  | 서울특별시건축상, 주거, 장려, 2007              | 신축   |
| 한국가구박물관          | 성북동 330-577 | 한국건축가협회상, 아천상, 특별상, 2009            | 신축   |
| 성북 더 게이트 힐즈      | 성북동 330-84  |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 우수, 2010              | 신축   |
| 현덕재              | 성북동 297-1   | (2012)제30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 일반건축 / 우수    | 신축   |
| 시하장              | 성북동 75-19   |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 건축부문 / 한옥상        | 신축   |
| 라파엘센터            | 성북동1가 8     | (2014)제3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 리모델링 / 최우수상  | 리모델링 |

[표18]성북동의 건축상 수상 건축물

7. 공동주택

- 성북동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으나, 1970년대 초기의 공동주택 또한 자리하고 있음.
- 저층 주거지역이 아닌 삼청터널로 올라가는 현 우정의 공원 북서쪽 방향으로 아파트 이름을 가진 건축물이 들어서 있음.
- 삼청터널 아래 급한 경사지가 시작하는 부분에 위치한 저층형 아파트들이 성북동의 지형에 어떻게 순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자료적 가치가 있음.

| 명칭    | 연도    | 비고                             |
|-------|-------|--------------------------------|
| 성북아파트 | 1971년 | 6층                             |
| 주암아파트 | 1972년 | 4층                             |
| 서울아파트 | 1982년 | 군속소(아파트) 5층<br>1동 5가구, 1동 10가구 |

[표19] 2016년 성북동의 공동주택

8. 현대건축

- 현대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신축되고 있으나, 개인주택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공동주택, 회사 사옥 등으로, 일반인이 접근하는 데에 제한이 있음.
- 다양한 건축물이 후대에는 가치있는 건축 문화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건축잡지를 포함한 미디어에 소개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해 나가야 함.

| 명칭      | 주소                 | 비고 |
|---------|--------------------|----|
| 준 아트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72-6   |    |
| 그룹-가 사옥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542 |    |
| 성북동 주택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45-124 |    |

[표20] 2016년 성북동의 주요 현대건축물

9. 문화시설

- 문화시설은 지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역사 인물이 직접 짓거나, 새롭게 지어진 건축물이 고루 섞여 있음.
- 건축물의 이력을 잘 관리하여, 시기에 따른 변화를 잘 파악하여야 함.

| 명칭       | 특징                                    | 비고 |
|----------|---------------------------------------|----|
| 간송미술관    | 한국인 최초의 건축가 박길룡의 설계로 알려진 근대식 미술관      |    |
| 동원미술관    |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미술관 건축물                  |    |
| 운우관화미술관  | 윤보 김기창이 지은 미술관으로 현재는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 |    |
| 동방대학원대학교 | 교육과 집회의 기능을 갖춘 건축물                    |    |
| 성북구립미술관  | 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                    |    |
| 캔파운데이션   | 조형성이 뛰어난 현대건축물                        |    |

[표21] 2016년 성북동의 주요 문화시설



10. 주택

○ 성북동의 주택은 다양성의 상징이며, 그 변화의 흔적을 잘 파악하고, 일부는 공공자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명칭       | 특징                                  | 비고 |
|----------|-------------------------------------|----|
| 구 조승원 댁  |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근대 한옥           |    |
| 2층 주택    | 한옥 밀집 지역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근대시기 2층 주택     |    |
| 전성우 가옥   |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주택             |    |
| 구 염상섭 가옥 | 염상섭 사후 개축이 되었으나, 원형의 흔적을 면밀히 파악해야 함 |    |

[표22] 2016년 성북동의 주요 주택

11. 시설

○ 물길, 도로의 변화로 생긴 시설물도, 성북동의 주요한 통행 기능을 담당했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삼청터널, 복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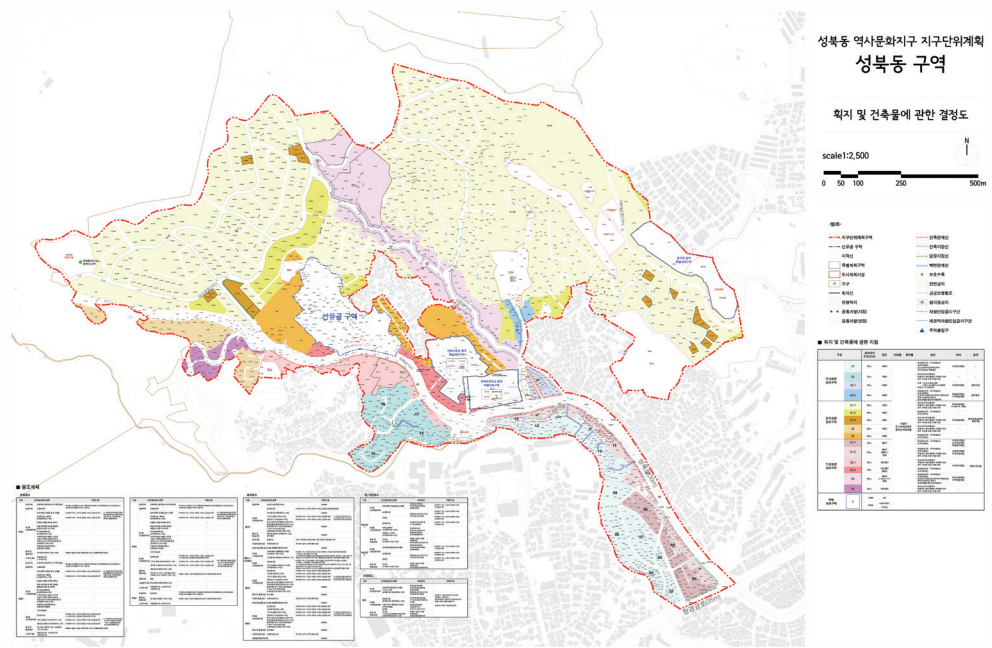
[ 39 ] 성북동의 건축 문화와 그 활용

1. 성북동의 도시적 접근

- 시기적 변화
  - 조선시대 말 근대기를 거치며, 성북동 초입의 삼선교를 횡단하는 전차가 다니고, 일제강점기 돈암지구가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계획된 필지에 대량의 한옥이 들어서기 시작.
  - 6.25 전쟁 전후 인구가 유입되며 성곽 아래쪽으로 판자촌이 등장, 성북천의 복개와 도로 확장, 삼청터널의 개통과 함께 성북동의 높은 언덕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기 시작.
  -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주거지역은 계속 확장되어 성북동길 양옆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됨.

- 재개발계획
  - 1970년대 이후 성곽에 인접한 지역이 노후주택지 등으로 분류되고, 일제강점기 말부터 형성된 대량 한옥 주거지역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1970년대 고급주택단지 이전에 형성된 주거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계획이 나타남.
  - 성곽 인접 일부 지역은 한옥단지로 조성될 계획안이 서울시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여러 가지 계획 여건상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임.

- 역사문화지구
  - 2013년 성북동 130만여 평방미터에 해당되는 구역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됨.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북악산과 한양도성에 둘러싸인 성곽도시 서울의 핵심공간인 성북동 전체 지역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지역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양호한 정주환경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하단 결정도)
  - 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택재개발 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주택재개발 구역의 정비가 어렵고 시기가 오래된 건축물의 멸실을 제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전에, 역사문화지구에 미포함구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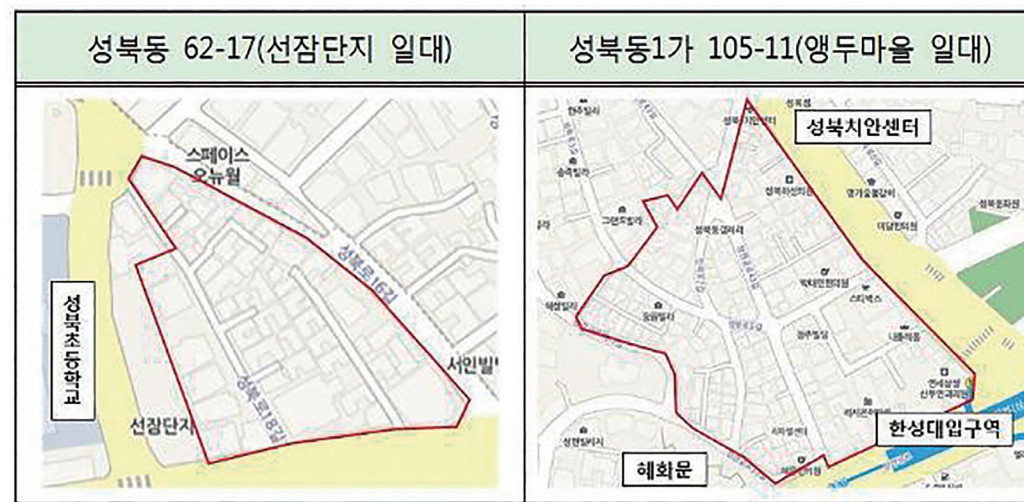


[그림116]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 ○ 한옥밀집지역

- 서울시가 북촌과 서촌을 중심으로 한옥의 보전과 확산을 위해 조례를 통하여 한옥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돌입.
- 성북구는 2013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한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북구 한옥조례를 통하여 관내의 한옥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
-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구 단위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2016년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성북구 한옥 전수조사와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근거로, 성북동의 두 개 지역을 서울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함.
- 한양도성 외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정된 성북동 내 두 지역은 한옥 밀집도가 높고 관리가 필요하나, 아직은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선잠단지 일대는 한옥건축지정구역으로 비한옥의 신축을 불허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개발구역 내의 한옥 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한옥밀집지역 내의 한옥도 멸실의 추세가 빨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그림117] 서울시가 지정한 성북동의 한옥밀집지역



[그림118]성북동1가 일대 한옥밀집지역



[그림119] 한옥 멸실 후의 모습

- 서울시 조례에 의해 기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한옥보전구역’으로 확대됨.
- 한옥보전구역에 있는 한옥은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개보수비용이 높아 성북동 내의 한옥이 밀집된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옥보전구역의 지정은,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관리계획이 들어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함.

## - 한옥 네트워크 구축

- 한옥소유자와 한옥장인 및 건축가와 정례적인 모임 및 상담의 자리 마련.
- 우수 활용 한옥 홍보를 통한 역사 및 경관자원으로 인식도를 높여야 함.
- 서울시는 북촌과 서촌에 국한되어 있던 한옥의 매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어, 서울시 한옥조성과 협력하여 한옥 매입, 지역 활용 자산으로 구축.

## 2. 건축 문화 자산의 보존과 활용

### ○ 문화재 가옥의 활용

- 성북동의 건축문화재 중 공공 소유의 문화재는 전문성 있는 관리단체에 위탁을 주어, 특성화 전략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 사유재산인 문화재는 공공화 전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공공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소유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대시민 인지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상허 이태준 가옥의 활용 방안
  - 이태준 가옥은 성북동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민간이 소유하고 있음.
  - 문화재 안내판과 표지석 등을 설치해놓고 있으나, 성북동 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본채 일부를 전시공간으로 재현하거나, 장기적으로 고증과 문화재위원회 협의를 통해 사라진 상심루 재현하여, 이태준 전시관을 운영하도록 함.
  - 상심루 관련 자료(정밀실측조사보고서)와 공간 활용계획

## 활용계획

### 상허 이태준 가옥

#### > 건물과 공간의 재현

- 옛 건축물 고증 재현
- 문화재 일부 공간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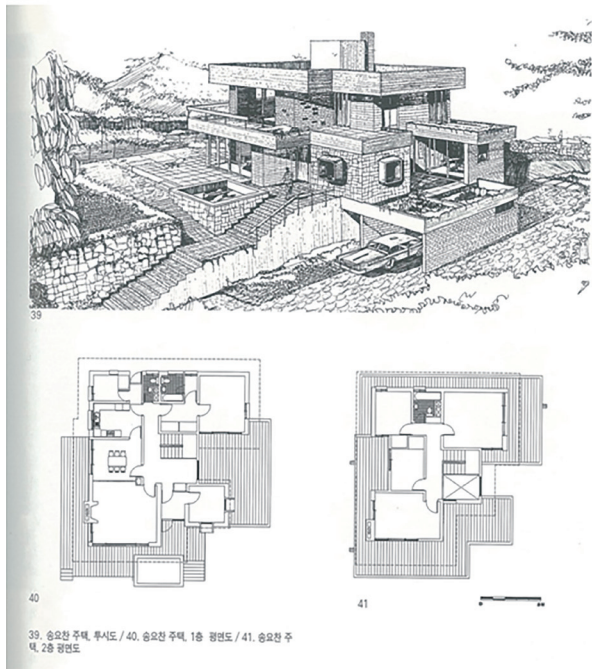


[그림120] 상허 이태준 가옥 활용계획

### ○ 서울시 미래유산 활용

- 서울시 미래유산은 법적인 보호 기능은 없으나, 지역 내 가치가 높은 건축물, 역사인물의 가옥, 생활유산 등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시 미래유산 중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되는 곳은 서울시가 매입, 공간조성, 관리단체와 운영 협의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미래유산도 성북구 성북동 소재의 우수한 관리단체가 있으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 관내의 문화자산으로 활용
- 윤중식 가옥 역사가옥재현 활용 제안
  - 윤중식 가옥은 성북구에서 중요한 활동을 한 윤중식 화백의 작업실과 거주공간이 함께 남아있으며, 변화의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후손들이 잘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 미래유산인 윤중식 가옥은 유족 협의를 통해 작가의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모두 서울시가 매입하도록 유도. (강북구 함석헌 미술관, 수유동 윤극영 가옥 등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문화시설로 조성한 사례가 있음.)





[그림123] 김중업, 송요찬 주택  
(1969) (출처 : 정인하, 『김중업 건축론 : 시적 올림의 세계』, 산업도서출판공사, 1998, 183쪽)



[그림124] (상) 김중업, 김광섭 가옥(1961) (별실) (하) 김중업의 자택 겸 사무실(1966~1967)이 있던 자리

#### - 건축가 김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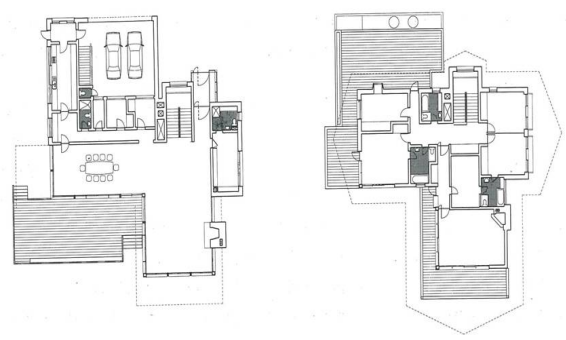
##### · 1세대 건축가

· 간송미술관 내 우송댁(1967), 미국 F.N.C.B. 한국지배인 저택(1968) 외 성북동 내의 자취를 추가로 찾아서 건축작품 투어 등의 활용 프로그램 시행.

· 김중업 선생이 잠시 살았던 곳의 흔적과, 건축작품의 흔적을 안양김중업박물관과 유족을 통하여 멸실과 현존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조사 사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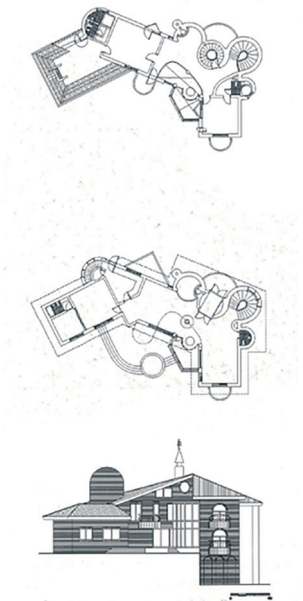
[그림125] 김종업, 전성우 가옥(1967) (출 처 :[중앙일보] 김서령의 이야기가 있는 집③ 간송 아들 우송 전성우의 성북동 집 (2011. 05.09) <http://news.joins.com/article/5461386>)



[그림126] 김종업, 미국 F.N.C.B 한국지배인 저택(1967) (출처:정인하, 『김종업 건축론:시적 올림의 세계』, 도서출판 시공문화사, 2003, 132쪽)



[그림127] 김종업, 이병목 주택(1982)과 도면 (출처 :정인하, 앞의 책, 163쪽)



-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대응
  - 서울시에서는 2016년 9월부터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과제를 수행

-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건축자산 현황 및 특성 분석
- 건축자산 진흥방안 수립
  - 진흥 과제 및 전략 설정
  -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
  - 한옥의 진흥 방안 수립
  - 건축자산 진흥 기반구축

- 성북동은 서울시 최초로 역사문화지구를 개념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설정된 지역으로, 관련 법제도의 계획이 수립되기 전, 성북동 건축문화자산을 등록하여 지원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성북동 건축문화자산의 다양한 가치 기준을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목록을 정리하도록 함.

- 성북동 건축문화자산 등록
  - 주요건축자산 목록화
    - 문화재 이외의 건축문화자산을 중심으로 목록화 및 이력관리 진행
    - 근현대건축물을 중심으로 등록문화재, 우수건축자산, 서울시 미래유산 등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목록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에 보존 및 활용사업 제안
  - 건축문화자산으로 적극 홍보
    - 건축물 이력을 표기한 안내동판 부착
    - 문화재 외 다양한 건축자산을 미리 보전하는 것을 구정 방침으로 홍보
    - 온라인으로 맵 기반 표지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통합 홍보 진행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성북동 건축문화자산의 목록화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계하여 지속 관리
- 데이터베이스 입력 예



| 항목        | 내용                                                                                                           |
|-----------|--------------------------------------------------------------------------------------------------------------|
| 명칭        | 성북동 주택                                                                                                       |
|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길 82 (지번: 성북동 1-36번지)                                                                         |
| 건립시기      | 1968년 6월 23일 (사용승인)                                                                                          |
| 설계자       | 미상                                                                                                           |
| 건축적 가치    | 1960년대 이후 조성되는 성북동의 고급 주택 단지 중, 공간의 분절과 기하학적 매스가 조합된 형태의 주택으로, 지붕 형태가 특이하다.                                  |
| 활용가치 및 제언 | 잘 알려지지 않은 성북동 주택 중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성북동 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공공적 가치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매입과 함께 건축자산 전시관 등으로 조성한다. |

[그림128] 성북동 건축문화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예

○ 건축문화자산의 스토리텔링

- 역사가옥의 개념

○ 역사가옥

- 2015.10.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 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

- 역사가옥의 정의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의 이야기가 남아있거나, 건축과 도시의 역사를 통해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근현대의 주거 뿐 아니라 복합적 용도의 건조물을 포함하고,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여 후세에게 물려줄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현존하는 건조물’

- 역사가옥의 범주

1. 역사인물가옥

역사적 인물이 주거/활동했던 주거용 일반주택  
(역사에 남을 예술가, 학자, 정치인, 과학자, 종교인 등)

2. 그 외 역사가옥

보존가치가 있는 가옥 \*주거용 주택이 아닌 건축물 일부 포함  
(예: 도시사적, 건축사적, 민족사적, 종교사적 가치 등)

- 역사가옥의 보전을 위한 진행과정



[그림129] 역사가옥 보전을 위한 진행과정

- 역사가옥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단계별 진행과정



[그림130] 역사가옥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단계별 진행과정

-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가회동 백인제 가옥’은 서울시 소유,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의 첫 역사가옥박물관 사례임.

- 역사가옥박물관은 인물과 이야기가 담긴 건축물의 활용으로 적합하므로, 성북구 소유 및 확보 대상 건축물을 구청 학예담당직원, 구립미술관이 함께 진행 가능

- 인물 관련 건축물의 발굴과 활용

- 성북동 건축문화자산 중, 인물과 관련된 건축물을 분류하여, 현재의 건축물이 터만 남아있는지, 건축물이 일부 존재하는지 정밀하게 확인하여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작업 진행
- 폐쇄대장, 거류계 등 행정의 적극 지원을 통해 정밀 작업 진행

## 8. 성북동의 주요 공간과 인물

### [ 40 ] 혜곡 최순우와 최순우 옛집

#### 1. 혜곡 최순우 연보

- 1916년 4월 27일 : 개성에서 출생 (본명은 희순)
- 1930년 :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송도고보)입학
  - 윤보 김기장은 개성 만월보통학교 2학년 무렵 최순우의 동네로 이사를 와 1년 반 정도 같이 학교를 다닌 친구
  - 1934년 개성 부립박물관장인 고유섭을 만나 고미술연구 권유 받음
- 1943년 : 개성부립박물관 입사
- 1945년 : 서울 국립박물관으로 전근
  - 국립박물관 학예관, 미술과장, 학예연구실장 등 역임
- 1950년 : 서울대, 고려대, 홍익대, 이대 등에서 미술사 강의
- 1967년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대표, 한국미술사학회대표 역임
- 1974년 : 국립중앙박물관장 취임
- 1976년 : 성북동 126-20 (현재 최순우 옛집)로 이사
- 1984년 12월 16일 :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

#### 2. 최순우 옛집



[그림131] 최순우 옛집의 뜰

- 관람 안내
  - 기간 : 4월 1일~11월 31일
  - 동절기 휴관(12월~3월)
  - 요일 : 매주 화요일~토요일
  - 오전 10시~오후 4시

※ 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시민문화유산 제1호

### [ 41 ] 한국 최초의 기업미술관 설립자 이흥근

#### 1. 동원미술관

- 개성 출신인 동원 이흥근 선생이 1967년 성북동 13-22호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기업미술관으로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통도사(연화사)의 소유로서 보존 및 활용의 가치가 있음.

#### 2. 동원 이흥근

- 1900년 개성 출생 사업가 1980년 12월 사망
  -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인 개성박물관장 고유섭 선생의 영향을 받아 문화재를 수집하며 동향 출신인 혜곡 최순우와 교류
- 한국 최초의 기업미술관 건립 : 성북동 13-22(동원미술관)
  - 1981년 4,941점의 소장 문화재 등을 국가에 기증
  - 거액의 개인재산 기부 사단법인 한국고고미술음
  - 국립중앙박물관 205호 (이흥근 기증실)

#### 3. 동원 미술관 현황

- 건축물 현황



[그림132] 동원미술관과 이흥근

- 주소 : 성북동 13-22
- 규모 : 473.6㎡
  - 1층 223.31㎡, 2층 223.31㎡
  - 지층 26.98㎡
- 용도 : 전시시설 (미술관)
- 소유자 현황 : 대한불교조계종제15교구본사통도사 (1998년)
  - 등기원인 : 1998년 1월 22일 (증여)
  - 증 여 자 : 김성필 전 성원토건그룹 회장
- 사용용도 : 연화사 (스님들의 기도처와 요사채, 불자 수행처)



## [ 42 ] 문화재 수장가 수정 박병래

### 1. 수정 박병래(1903~1974)

- 1903년 논산 출생, 의사이자 수장가 “조선 사람이 조선접시를 몰라서야 말이 되느냐?”는 일본교수의 말에 자극 1929년부터 수집, 1974년 362점의 조선자기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 돈암동 산 40번지 거주
- 성모병원 초대 병원장, 성루가병원 설립 (폐결핵 전문병원)
- 조선총독부 병원에서 일할 때 도자기에 관심 → 위창 오세창, 간송 전형필, 도상봉 등과 교류하며 안목을 키우고 백자를 수집
- 일제강점기부터 해방후 시기의 골동상과 수집가들 사이에 벌어진 일화를 모은 수필집 『도자여적』과 자서전 『백자에의 향수』를 남김



[그림133] 수정 박병래와 국립중앙박물관 박병래실에 전시 중인 도자기

## [ 43 ] 수연산방과 상허 이태준

### 1. 수연산방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1호)

- 1932년 10월 26일 성북동 248의 수연산방 부지 매입
- 1933년도 신축 추정
  - 이태준의 생질 서울대 김명렬 교수(영문과)의 “나의 외삼촌 상허 이태준”이라는 글에 따르면,
  - 고향 철원의 고가를 헐어 그 재목으로 성북동집을 지었으며, 상심루(賞心樓)라는 초당을 따로 짓고 집필하였다 함(상심루는 현재 수연산방의 좌측에 위치 추정)
- 1933년 8월 구인회 결성 후 구인회의 주요 활동무대 역할
  - 이종명, 김유영, 이효석, 이무영, 유치진, 이태준, 조용만, 김기림, 정지용(후에 박태원, 이상, 박팔양, 김유정, 김환태 보충)
- 현재는 이태준의 외종손녀가 당호인 수연산방을 내 고향 집으로 운영 중

### 2. 수연산방 현황



[그림134] 상심루 앞에서 찍은 이태준 가족사진(1942년경)

[그림135] 수연산방 (성북동 248)

### 3. 상허(尙虛) 이태준

- 1904.11. 4. 철원 출생, 사망연도 불분명
- 1925년 일본 도쿄에서 단편 「오몽녀」를 『조선문단』에 발표
  - 이태준은 「오몽녀」로 문단에 데뷔하였으며, 《오몽녀》는 나운규의 마지막 영화 작품이기도 함.
- 1933년 성북동으로 이사, 8월에 구인회 결성(참여)
- 1939년 2월 “문장”지의 편집자 겸 소설추천심사위원 활동
  - 『문장』지의 시 부문 추천심사위원은 정지용으로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등 청록파 시인들 또한 『문장』지로 등단
  - 시인 정지용은 1944년 김환기와 김향안의 결혼식 사회를 봄
- 1946년 10월 “방소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소련 방문
- 1974년 강원도 장동탄광노동자 지구로 추방(사망연도 불분명)

4. 구인회(九人會) : 1933년 8월 결성

| 회원                               | 탈퇴            | 가입           |
|----------------------------------|---------------|--------------|
| 이종명, 김유영, 이효석, 이무영, 유치진, 이태준,    |               |              |
| 조용만, 김기림, 정지용                    |               |              |
| 이무영, 유치진, 이태준, 조용만, 김기림, 정지용     | 이종명, 김유영, 이효석 | 박태원, 이상, 박팔양 |
| 이무영, 이태준, 김기림, 정지용, 박태원, 이상, 박팔양 | 조용만, 유치진      | 김유정, 김환태     |

[표23] 구인회의 회원 변화

5. 상허 이태준 관련 시설 등

| 인물  | 성북동 시설 | 타지자체 시설·행사 |                              | 비고                    |
|-----|--------|------------|------------------------------|-----------------------|
|     |        | 지역         | 시설·행사                        |                       |
| 이태준 | 수연산방   | 철원         | 이태준 문학제<br>이태준문학관 건립<br>모금 중 | 상허학회(1992년)<br>깊은샘출판사 |

[표24]전국 상허 이태준 관련 시설·행사 ·출판물

6. 관련 자료

○ [독서일기] 파초 그늘 아래 이태준의 조출한 행복(주간『뉴스메이커』770호, 2008. 4)

“소설만으로 전업을 못 삼는 것은 슬픈 일이다”라고 쓴 이태준(1904~1956)은 비운의 소설가다. 이태준은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다. 구한말 나라를 개혁하려고 개화당에 가담했던 아버지는 개혁에 실패하자 가족을 끌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간다. 몇 해 뒤 부모를 잃고 이태준은 일찍이 고아가 되었다.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 누이 둘과 함께 철원의 친척 집에 맡겨졌지만 친척 어른의 구박에 반발해 가출한다. 고학을 하며 어렵게 휘문고보 등을 거쳐 스물한 살 때 일본 도쿄로 건너가 조치대 문과에 입학하지만 곧 자퇴한다. 그 무렵 쓴 작품 ‘오몽녀’로 문단에 나온 뒤 ‘까마귀’와 같은 빼어난 단편소설을 내놓으며 탁월한 미문가로 이름을 날린다.

“상허(尙虛·이태준의 호)의 산문, 지용(芝溶·시인 정지용)의 운문”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의 문체가 뽐어내는 아취는 당대의 일급이었다. 이태준이 일제강점기에 대표적인 문예지 ‘문장’을 창간하고, 이효석·박태준 등과 ‘구인회’ 활동을 하고, 해방 후 좌익 문학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의 중앙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직에 있었다는 문단사적 이력은 그 자취가 뚜렷하나 여기서 그것들을 조목조목 주워섬길 필요는 없다.

그보다 이태준이 남긴 사진 한 장에 더 주목한다. 이태준 일가가 1943년 서울 성북동 한옥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태준은 갓난애인 삼녀 소현을 안고, 아내 이순옥 등과 함께 장녀 소명, 차녀 소남, 장남 유백, 차남 유진 등을 앞세우고 가족 사진을 박았다. 이태준과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다. 어린 시절은 박복했으나 단란한 일가를 이룬 성북동 시절은 이태준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을 터다. 비 갠 맑은 아침에는 새들이 꽃숲에서 지저귀고, 여름에는 들의 발육이 좋은 큰 파초가 절정에서 꽃을 피웠다. 파초 그늘 아래 의자를 놓고 남국의 정조를 명상하던 그 즈음의 조출한 행복을 드러내는 이 사진을 들여다볼 때마다 내 가슴은 아릿해진다. 이태준 일가의 뒤로 사철나무가 보인다. 얼마 전 이태준의 성북동 옛집을 다녀왔는데 지금도 이 사철나무는 그 푸름을 뽐낸다. 이 집은 ‘수연산방’이란 이름으로 이태준의 핏줄이 운영하는 찻집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소극적 처세에만 머문 제 행적을 내내 자책하며 자괴감을 떨쳐내지 못한 이태준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돌연 홍명희와 함께 월북하지만 1956년 무렵 친일 협

의가 짙고 우경적 경향의 작품을 썼다는 죄목으로 규탄당한 뒤 함흥으로 추방되어 콘크리트 블록공장의 노동자로 전락한다.

‘무서록’은 이태준의 수필집이다. 파초와 난을 키우고, 오래된 성벽을 바라보며 양치질을 하고, 책을 아끼고, 고완품(古甌品)의 그윽한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이태준의 청담고박한 생활과 서권향(書卷香) 그윽한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산문들이 실려 있다. 이태준의 성정은 다감하고 온화한 탓에 두루 깨끗한 고요함을 바라고, 고상한 덕과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청결한 취미를 아꼈다. 책과 난과 서화(書畵)와 도자(陶瓷)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불가피한 성정 탓이다. 허나 생활은 촌음의 여유도 없이 바투하기만 했던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여러 해 벌러 초려(草廬) 한 칸을 지어놓고 공부할 책권(冊卷)과 눈을 쉬일 서화 몇 폭을 걸어놓고 상심루(賞心樓)란 현판을 얻어 걸어놓은 지 이미 7, 8년. 그러나 하루를 누(累) 없이 상심낙사(賞心樂事)한 적이 별로 없다.”(‘난’) 한일(閑日)에 주린 각박한 생활에서 그가 누린 청복은 난을 돌보는 일이었다. 기르는 난들에 물을 주고 별을 쪼여주고 잎을 닦아주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과 소일의 보람을 찾았다.

책읽기에 지치거나 글쓰기가 막힐 때 난초 잎을 닦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한다. 하루 저녁의 부주의로 난들을 얼려 잃은 뒤 상실감이 얼마나 컸던지 마치 식구가 집 나가 돌아오지 않은 듯 허전해 견딜 수 없었다고 쓴다. 이태준은 파초를 사랑했다. 소 선지가 파초에 좋은 거름이란 소리를 듣고 소 선지와 생선 씻은 물, 깻묵물을 틸틈이 주며 정성스럽게 키운다. 마침내 파초는 성북동에서 제일 큰 파초로 우뚝 자란다. 늠름하게 잘 자란 파초에 대한 그의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은 파초를 팔아 집 수리비에라도 보태라는 이웃의 채근에도 꺾이지 않는 태세로 드러난다.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들은, 눈을 씻어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 안에 누웠으되 듣는 이의 마음에까지 비를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파초’) 장대하게 키운 파초가 폭염 속에 드리우는 그 싱그러운 그늘에 눈길을 주고, 비 내리는 날 넓은 파초 잎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청복으로 삼는 이의 여유가 손에 잡힐 듯하다.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긴 분원사기(分院沙器), 담청 바탕에 선홍 반점이 선연한 천도형(天桃形) 연적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어린 시절에 헤어져 아무 기억이 없는, 글씨를 좋아하셨다는 아버지의 기품과 교훈, 그리고 참먹 향기를 맡아보려는 그의 태도는 견결하다.(‘고완’) 이태준은 고완품에 마음을 뺏겨 완물상지(玩物喪志)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호고인(好古人)의 속되지 않고 고고하며 의젓한 취향이 심미적 자부심을 예찬한다. “그림 하나를 옮겨 걸고, 빈 접시 하나를 바꿔놓고도 그것으로 며칠을 간혀 넉넉히 즐길 수 있게 된다. 고요함과 가까움에 몰입되는 것이다. 호고인들의 성격상 극도의 근시적 일면이 생기기 쉬운 것도 이러한 연유다. 빈 접시요, 빈 병이다. 담긴 것은 떡이나 물이 아니라 정적과 허무다. 그것은 이미 그릇이라기보다 한 천지요 우주다. 남 보기에는 한낱 파기편명(破器片皿)에 불과하나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무궁한 산하요 장엄한 가람(伽藍)일 수 있다.”(‘고완품과 생활’)

‘무서록’은 아껴 음미하며 읽을 만한 책이다. 삶과 자연, 문학과 크고 작은 생명에까지 미친 날카로운 관찰과 그윽한 성찰은 잔잔한 감동을 가져온다. 몇 평 안 되는 마당에 앵두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모란, 백화, 파초를 심어 기르며 식구들 모두 떠받들어 귀히 여기는 범부의 행복을 실감할 수 있고, 고서와 옛 기물들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며 기쁨을 누리는 선비의 정신을 엿보고 그 청복의 고요함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 그는 “천재는 더 오래 산다고 더 나을 것이 없게 그 짧은 생애에서라도 자기 천분(天分)의 절정을 숙명적으로 빨리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한다.

“적어도 천명(天命)을 안다는 50에서부터 60, 70, 100에 이르기까지 그 총명, 고담(枯淡)의 노경(老境) 속에서 오래 살아보고 싶다.”(‘소죽’) 그가 품은 높은 뜻과 교양과 견결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선을 갓 넘기며 맞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한설야 등 극좌파와의 권력쟁투에서 밀려 변방으로 쫓겨나고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만난(萬難)에 맞닥뜨린 것을 이념의 현혹으로 잠시 저 북쪽을 이채찬연(異彩燦然)한 화원으로 착각한 어리석음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문학이 “더 넓은 삶,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는 여권”(수전 손택)이라면, 이태준은 그 여권을 들고 불운한 운명이 소용돌이치는 시간대(時間帶)를 잘못 찾아들어진 것이다. 운명의 생애는 어느 시대이나 누구에게나 불가지(不可知)한 것이다. 다만 반세기 뒤에 한 후학이 “고담의 노경”을 누리지 못하고 떠난 그의 비운을 쓸쓸하게 회고한다는 사실을 여기에 적어둔다.

<장석주\_시인·문학평론가>



## [ 44 ] 성북동 이종석 별장

### 1. 이종석

- 1875년 서울 장교동에서 태어난 이종석은 가문이 대대로 부유하였는데 형이 익사하면서 엄비<sup>23)</sup>가 하사한 땅을 그대로 받아 장안의 갑부가 되었으며, 성북동 가옥은 이종석의 여름 별장이었음. 재단법인 보인학원(現 보인중고, 송파구 오금동)의 설립자.

### 2. 이종석 별장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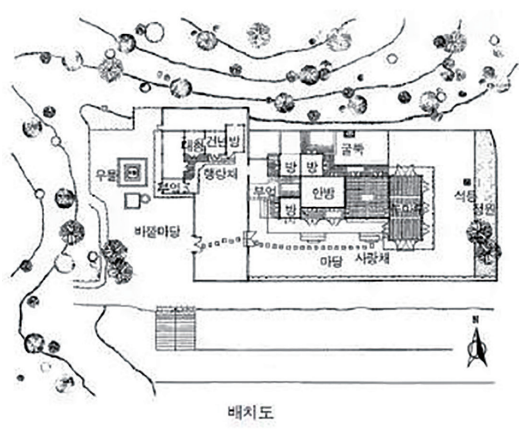
- 1900년 경 : 이종석 별장 건립
  - ※ 향간에 젓갈장사로 거부가 된 이종상의 별장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임
- 1960년 : 이재준(1917~1995) 대림산업 회장이 매입
- 1977년 03월 17일 : 〈성북동 이재준가〉라는 명칭으로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0호로 지정
- 1985년 11월 21일 : 덕수교회에서 매입, 목사 사택으로 사용
- 1989년 12월 13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덕수교회로 이전
- 2004년 10월 26일 : ‘영성수련원’으로 개원 교육 및 전시용도로 사용
- 2009년 02월 : 성북동 이종석 별장”으로 명칭 변경

### 3. 특이사항

- 일제강점기 이곳에서 이태준, 정지용, 이효석, 이은상의 회합이 있었다고 전함
  - ※『덕수교회 60년사』2008년, 246쪽.
  - 『성북동 이종석 별장』실측조사보고서, 2009년 10월, 29~34쪽.



[그림136] 이종석 별장(성북동 243-4)



[그림137] 이종석 별장 배치도

23) 1895년 명성왕후 시해 이후에 연금상태에 있는 고종의 아관파천을 도운 인물로, 후에 44살의 나이에 황태자를 출산하고 황귀비로 책정, 이 아기가 후에 순종 등극 후 마지막 황태자로 책봉된 영친왕.

## [ 45 ] 승설암과 승설암도

### 1. 승설암

- 승설암은 일제강점기 백양당출판사를 하던 배정국의 집으로 당시 이태준을 비롯한 구인회 회원과 김환기, 손재형 등 당대 예술인들의 아지트로 사용되던 장소(현재 국화정원 식당 자리)

### 2. 인곡 배정국과 박태원

- 배정국이 “약산과 의열단”의 인세 대신에 성북동의 집을 줌
- 돈암동 487-22(1940년 ~ )에서 성북동 230로 이사(1948년)
- 구보 박태원은 영화감독 봉준호의 외할아버지
  - ※ 박태원의 둘째 딸 “소영”씨의 아들 : 영화감독 봉준호

### 3. 승설암도

- 상허 이태준의 요청으로 소전 손재형이 즉석에서 그린 그림
  - 집주인 배정국을 비롯하여 소설가 이태준, 서양화가 김환기, 서예가 손재형, 동양화가 조중현, 치과의사 함석태 등 성북동을 중심으로 교류했던 소설가, 화가, 서예가들이 등장해 당시 승설암이 문화예술인들의 교류공간이었음을 증언
  - 화제(畫題)
    - 원문 : 乙酉 清明日夜 來遊於勝雪·閒庭 尙虛仁兄索余畫寫此 卽景圖以誌一時盛會同集者 土禪·仁谷·毛庵·心園·樹話·素荃
    - 국역 : 을유년(1945년) 청명날 밤에 승설암의 한가한 뜰에 와서 놀았다. 상허(이태준) 인형이 나에게 이를 그려 달라 하므로 즉시 눈앞의 광경을 그려 일시의 성회(盛會)에 함께 모인 자가 토선(함석태), 인곡(배정국), 모암, 심원(조중현), 수화(김환기), 소전(손재형)임을 기록하여 둔다.



[그림138] 손재형, 〈승설암도〉(1945)



[그림139] 국화정원 식당(옛 승설암 자리)



## [ 46 ] 근원 김용준과 노시산방

### 1. 노시산방

○ 노시산방은 근원 김용준이 1933년~1944년까지 살았던 집으로 상허 이태준이 “오래된 감나무가 있다”고 해서 ‘노시산방(老柿山房)’이라 지었으며, 1944년~1948년까지는 김환기와 김향안이 살며 “수향산방(樹鄕山房)”이라 불리웠음.

### 2. 근원 김용준과 노시산방

- 1904년 : 대구 출생 (1967 평양 사망)
- 1924년 :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유화 <동심자각>으로 입선
- 1931년 : 도쿄제국미술학교 서양학과 졸업
  - 서화협회 회원전에만 몇 번 참여, 화가로서의 활동은 거의 안함
- 1934년 : 성북동 274-1호(노시산방)에 이사
  - 김용준의 집을 상허 이태준이 ‘노시산방’이라 부름
- 1944년 : ‘노시산방’을 수화 김환기에게 팔고 의정부로 이사
  - 김환기는 ‘노시산방’을 ‘수향산방’이라고 바꿔 부름
  - 1948년 김환기와 김향안은 종로구 원서동으로 이사
  - 1949년 성북동 31-2호로 다시 이사 (현재 꽃담집)
- 김용준의 작품 : 근원수필, 노시산방기 등

### 3. 특이사항

- 성북동 수월암 아래 위치하며 현재 일반 가정집으로 사용.
- 김향안이 ‘환기미술관’ 건립 위해 매입하여 했으나 팔지 않음.
- 보존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그림140] 김용준의 가족과 노시산방(성북동 274-1)

## [ 47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1.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는 무아(無我) 방유룡 신부가 1953.10.30. 창설한 한국 최초의 가톨릭 자생 남자수도회로서, 피정의 집 2·3층 외벽에 한국 최초의 순교자상인 김대건 신부 등 12개의 성상이 있음.

### 2. 무아(無我)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 (1900~1986)

- 1946. 04. 21. : 한국 최초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설립(개성본당)
- 1953. 10. 30. : 한국 최초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설립(제기동 본당)
- 1955. 07. 26. : 성북동에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본원 신축 입주
- 1957. 05. 06.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에서 종신서원
- 1986. 01. 24. : 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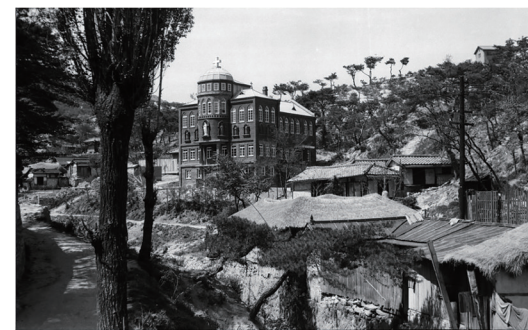
### 3. 한국 최초의 순교자상 개요

- 법정스님의 요청으로 종교간 화합의 의미를 담은 성모마리아를 닮은 관음보살상을 길상사에 봉안한 조각가 최종태(한국가톨릭미술협회장)가 2003년 발견(확인)하였으며,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피정의 집 3층 외벽과 2층의 베란다기둥에 좌우대칭으로 설치
- 아치 모양의 틀에 흙시멘트조로 조각된 성인들은 당시 79위 복자 중 12명의 성상을 조각
- 한국 최초의 순교자상 (내역)
  -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정하상 바오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정 샤스탕 신부, 유대철 베드로, 범 앵베르 주교, 현석문 가를로, 박희순 루치아, 나 모방 신부, 김효임 골롬바, 김효주 아네스 등 12명
- 순교자상 원본은 수도회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현재의 조각상은 사본임

### 4. 문화재 등록 추진 경과

- 2015. 03. 23. :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신청서 제출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피정의 집 건물과 12명 순교성상
- 2015. 04. 23.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현장 확인 (공정 의견)
- 2015. 12. 16. :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655호로 지정

### 5. 관련 사진



[그림141] 1955년 7월 준공 직후



[그림142] 1960~70년대 쌍다리 부근에서 찍은 사진 (부속 건물 증축)



[그림143] 1955년 7월 준공 직후



## [ 48 ] 길상사

### 1. 길상사 연혁

○ 1987. 2.14 : 김영한씨가 법정스님에게 대원각을 대원각을 청정한 불도량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청함

○ 1995. 6.13 : 법정스님께서 그 뜻을 받아들여 조계종 송광사 말사 ‘대법사’로 등록

○ 1997.12.14. : 〈맑고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로 등록

- 길상사 창건법회 (현문스님 주지 취임)
- 법정스님이 김영한씨에게 염주 하나와 ‘길상화’라는 법명을 줌

○ 1999.11.14. : 공덕주 김영한(길상화) 타계

- 김영한씨 타계 후 2001년 ‘시주 길상화 공덕비’를 세움

○ 2003. 3.11 : 법정스님 입적

- 법정스님의영정과 작품 등 유물은 길상사내 진영각에 모심
- 법정스님의 유골은 진영각 옆 화단과 송광사 불일암에 나누어 안치

### 2. 관련인물

○ 김영한 (진향, 자야, 김숙, 길상화)

- 1916년 출생 (1999년 타계)
- 1932년 16살 무렵 조선권변에 들어가 ‘진향’이라는 기명을 받음
  - 조선 권변에 들어가 정악계(正樂界)의 대부 금하 하규일<sup>24)</sup> 선생의 문하생 겸 양녀로 한국의 전통춤과 음악을 전승
  - ‘진수무향(眞水無香)’ 깨끗하고 청정한 물은 잡스러운 내음을 풍기지 않는다는 말에서 ‘진향(眞香)’이라는 기명을 받음
- 1933년 해관 신윤국 선생(조선어학회 회원)의 후원으로 일본 유학
  - 동경에 있는 문화학원(야간 여학교) 3학년 편입
- 1930년대 중반 파인 김동환이 발간하던 〈삼천리〉지를 통해 수필〈눈오는 밤〉으로 문단에 데뷔
  - 이후 문학기생으로 세인의 관심을 받음
- 1936년 가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관 신윤국 선생 수감
  -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해관 신윤국<sup>25)</sup> 선생 면회를 위하여 귀국
  - 스승의 면회를 위하여 함경남도 홍원 형무소 도착, 그 당시 민족주의자나 사상범은 면회가 불가능 하였다 함.
- 1936년 가을 백석과의 운명적인 만남 (백석 25세, 진향 21세)
  - 해관 선생의 면회를 위해 주변에 거주하기 위하여 그렇게도 싫어했던 기생의 복색을 다시 입고 함흥 권변으로 들어감
  - 함흥권변에 소속되어 함흥에서 가장 큰 함흥관으로 나갔던 첫날 영생고보의 교사가 이입하는 송별회 자리에 서 백석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음.
  - 1936년 늦가을 함흥 시내에서 〈자야오가〉라는 당시선집을 사움
  - 백석이 이를 보고 진향의 아호를 ‘자야’로 합시다 라고 제의

|            |                             |
|------------|-----------------------------|
| 자야오가(子夜吳歌) | 이백(李白)                      |
| 長安一片月      | 장안에 조각달 비추이는데               |
| 萬尺擣依聲      | 집집마다 잠 못 이루고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
| 秋風吹不盡      | 가을바람 하염없이 불어오니              |
| 總是玉關情      | 옥문관으로 치닫고 싶은 마음뿐이라네         |
| 何日平胡虜      | 어느 날에 오랑캐를 평정하고             |
| 良人罷遠征      | 우리 님이 먼 곳에서 돌아올까            |

24) 금하 하규일(1987~1937) 중년 이후 출사하여 한성재판소 판사를 거쳐 1910년 진안군수, 1911년 정악전습소 학감과 1926년 아악부 가곡강사로 가곡의 전통을 전수, 저서로는 〈악인필휴〉가 있음.

25) 해관 신윤국 :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 1936년 늦가을 ~ 1940년 2월 : 백석과의 만남 기간

- 이 기간 동안에 자야와 백석은 청진동에서 동거를 하며, 부모의 권유로 백석이 세 번의 결혼을 하지만 다시 자야에게로 돌아오게 됨. (백석의 부모는 기생을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함)

- 1942년 백석은 자야에게 함께 중국으로 떠나 살자고 했지만, 자야는 백석의 앞길을 막는 일이라 생각하여 거절. 2월 초에 백석 혼자 만주로 떠나고 이것이 둘의 마지막이 되었음

-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갈라지면서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영원한 이별을 맞음

- 이 무렵을 전후하여 김영한씨는 일본에서 영문학을 배운 백석을 이해하기위하여 중앙대 영문학과에 입학하여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악착같이 일해 재산을 모음

- 1955년 “김숙”으로 이름을 바꾸고 배밭골이라 불리우던 길상사 인근의 땅 2만평을 650만원에 매입

- 목조건물을 짓고 “대원각”이라는 이름의 한식당을 열음

- 무려 17년간 빛을 갠으며, 필요할 때마다 땅을 떼어 팔다보니 2만평 부지가 7천평 밖에 남지 않음.

- 1970년 삼청터널 개설되며 요정정치 대명사로 권력의 중심

- 권력가나 재력가가 아니면 문턱을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으며, 본격적으로 재산을 불리기 시작

- 1980년대 무렵 돌연 대원각 운영을 접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

- 1987년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다 심경의 변화를 맞이함

- 10여 년에 걸쳐 법정스님에게 대원각을 절로 만들어 줄 것을 청함. 법정스님이 그녀의 청을 받아 들어 대원각이 “길상사”로 변모

- 1997년 길상사 창건식에서 법정스님으로부터 〈길상화〉라는 법명을 받음

- 1999년 11월 14일 김영한 〈길상화〉 타계

※ 〈내가 모은 재산은 백석 시인이 남긴 시 한구절의 가치도 없다〉  
김영한씨는 백석의 생일(7월 1일)이 되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였다고 하며,  
1997년 2억원을 출연하여 창작과비평사에서 〈백석문학상〉 제정

○ 백석<sup>26)</sup> (본명 백기행) : 김영한의 연인

- 1912년 7월 1일 평북 정주 출생 (1996년 사망)

- 1924년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에 입학

- 백석이 2학년때 고당 조만식이 교장, 소설가 벽초 홍명희도 백석이 재학 중일 때 교장으로 잠깐 부임
- 6년 선배인 김소월을 동경하며 시인의 꿈을 키움

- 1929년 오산고보 졸업

- 나중에 화가가 되는 이중섭과 문학수, 소설가가 되는 황순원이 오산고보 입학

- 1930년 단편소설 〈그 모와 아들〉로 조선일보 신년현상문예에 당선

- 정주 출신 금광왕 방응모가 설립한 춘해장학회 장학생으로 뽑혀 일본 도쿄의 아오야마학원 영어사범과 입학

- 1934년 귀국하여 조선일보에 입사

- 1935년 8월 조선일보에 시 〈정주성〉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데뷔

- 「주막」, 「여우난굴族」 등의 시를 발표

- 1936년 1월 26일 첫시집 〈사슴〉을 100부 한정판으로 출판

- 시집 『사슴』에는 모두 33편의 시가 실림
- 가을, 동료의 송별식장에서 김영한씨와 운명적인 만남

- 1940년 2월 만주의 신경으로 감

- 1945년 해방이 되자 신의주를 거쳐 고향인 평북 정주로 돌아옴

- 조만식의 러시아어 통역을 맡음

- 1950년 한국전쟁

- 1996년 삼수군 관평리에서 타계

26) 시인 안도현이 쓴 『백석평전』 참조.

- 백석 시집 『사슴』은 우리시대 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품
  - 2005년 계간 『시인세계』에서 현역 시인 156명 설문조사
  - 또한 『시인세계』주관 2012년 문학평론가 75명이 뽑은 한국대표 시집
    - 1위 김소월의 <진달래꽃>, 2위 서정주의 <화사집>, 3위 백석의 <사슴>, 4위 한용운의 <님의 침묵>, 5위 윤동주의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6위 정지용의 <정지용시집>
- 노천명의 「사슴」: 1938년 시집 『산호림』에 삽입된 노천명의 대표적인 시
  - 최정희, 모운숙, 노천명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에 백석을 ‘사슴’이나 ‘사슴군’으로 호칭

[ 49 ] 심우장과 만해 한용운

1. 심우장 연혁

- 1933년 성북동 222-1에 심우장 건축
  - 벽산 김적음의 토지기증과, 방응모 등 지인의 도움을 받음
- 1981년 심우장 내 만해기념관 건립
- 1990년 만해기념관이 남한산성으로 옮겨가 개관(관장 : 전보삼)
- 1999. 2. 11. 성북구가 한용운의 외동딸 한영숙으로부터 매입
- 1999년 심우장 원형복원공사 진행
- 2016년 마당의 벽돌조 주택 철거 및 관리동 건



[그림144] 2016년 6월 심우장 정비 후 넓어진 마당

2. 만해 한용운

- 18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 출생
- 1905년 인제 백담사에서 승려로서 출가 (27세)
- 1907년 고성 건봉사에서 선(禪) 수행, 만화선사에게서 ‘용운(龍雲)’이라는 이름을 받음
-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
  - 3.1운동시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독립선언문 말미에 공약삼장(公約三章)을 추가함.
- 1925년 인제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탈고, 다음 해 회동서관에서 발행
  -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비롯한 「알 수 없어요」, 「나룻배와 행인」등 88편의 시가 실린 『님의 침묵』 탈고
- 1931년 청년승려비밀결사 ‘만당(卍黨)’의 영수로 취임
  - 한용운이 만당의 주요 거점인 사천 다솔사에 있을 때, 김동리가 만해와 범부의 대화에서 분신공양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소설 『등신불』을 지었다고 함.
- 1933년 심우장을 짓고 거주
  - 심우장에서 독립지사 김동삼의 장례를 치름(1937. 3.)

- 최범술, 박광과 단재 신채호의 비문을 짓고 단재의 유고 『조선상고사』와 『상고문화사』를 간행하려 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이루지 못함
- 창작뮤지컬 ‘심우’(극단 더듬, 2014년 제작)는 한용운이 심우장에서 독립지사 김동삼의 장례를 치루어 준 에피소드를 담음.

○ 1944년 6월 29일 심우장에서 입적

3. 만해 한용운 관련 시설 등

| 성북동 시설                           | 타지자체 시설·행사 |                                             | 비고                |
|----------------------------------|------------|---------------------------------------------|-------------------|
|                                  | 지역         | 시설·행사                                       |                   |
| 심우장<br>(뮤지컬 심우)<br>성라암<br>(공약삼장) | 홍성군        | 한용운 생가, 한용운 문학체험관<br>역사인물 축제, 만해사당, 민족시비공원, | 창작과비평사<br>(만해문학상) |
|                                  | 인제군        | 만해마을(축제), 만해기념관, 만해문학박물관,<br>백담사, 만해대상      |                   |
|                                  | 광주(경기)     | 만해기념관(남한산성)                                 |                   |
|                                  | 구리         | 만해 한용운 묘소(망우리)                              |                   |
|                                  | 종로구        | 중앙고등학교, 유심사, 보성사, 보성학교                      |                   |

[표25] 전국의 만해 한용운 관련 시설·행사

4. 관련 자료

- 심우장 시대(1933~1944)의 작품
  - 시
    - <심우장 산시(散詩)> 18편 : 산거(山居), 산골 물, 비바람, 강배, 산촌의 여름 저녁, 해촌(海村)의 석양, 반월(半月)과 소녀, 모순, 천일(淺日), 일출, 낙화, 일경초(一莖草), 심(心), 성탄, 세모(歲暮), 쥐, 파리, 모기
    - 시조 32편 : 심우장(尋牛莊), 남아(男兒), 무궁화 심고자, 우리 님, 사랑, 선경(禪境), 선우(禪友)에게, 직업부인(職業婦人), 표아(漂娥), 조춘(早春), 춘조(春朝), 춘주(春晝), 추야몽(秋夜夢), 추야단(秋夜短), 추화(秋花), 코스모스, 한강에서, 계어(溪漁), 성공(成功), 무제(無題)
    - 동시> 3편 : 달님, 농(籠)의 소조(小鳥), 산 넘어 언니
    - 한시 : 괘암 심우송을 차운하다, 회갑 날의 즉흥, 삼가 계초 선생의 생신을 축하함, 신문 폐간 등
  - 소설
    - 장편소설 : 흑풍, 후회, 철혈미인, 박명, 죽음
    - 번역소설 : 삼국지연의



## [ 50 ] 성라암과 김일엽

### 1. 김일엽(김원주)(1896~1971)

- 1896년 4월 28일 평안남도 용강군 출생
- 1907년 시「동생의 죽음」을 씀 (순 한글 국문체시)
- 1913년 이화학당 입학
- 1918년 이화학당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 도쿄의 일본 녀신여학교(日新女學敎)를 졸업
  - 일본유학 중 3·1운동 때 국내 잠입 만세운동 동참
- 1920년 2월 여성잡지 『신여자』 창간, 주간으로 활동
  - 나혜석, 박인덕, 김활란, 김명순, 차미리사, 이광수 등이 필진으로 활동
- 1920년 7월부터 순수문예지 『폐허』의 동인으로 활동
  - 오상순, 염상섭, 김억, 황석우, 나혜석 등과 함께 활동
- 1921년~1931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문단, 매일신보 등에 칼럼과 논설을 기고
- 1929년 8월 승려이자 송실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의 영문학 교사인 하운실과 재혼 후 1933년까지 성북동 양옥집에서 생활 (잠시 삼산학교 교사로 활동)
- 1933년 하운실과 이혼 후 1933년 예산 수덕사로 들어가 만공선사 밑에서 출가
  - “글 또한 망상의 근원”이라 가르친 만공선사의 뜻에 따라 20여년 간 절필
- 1962년 성북동 성라암(성북동 285번지)에서 회고록『청춘을 불사르고』 집필
  - 이 회고록은 당시 일대 파란을 일으켜 수많은 여성이 불가에 귀의하는 계기가 됨.
- 1971년 2월 1일 수덕사 견성암의 별실에서 사망 (향년 76세)
  - ※ 아들 김태신(일당스님, 화가이자 스님) 성라암에 거주, 2014년 사망

### 2. 관련 자료

- 김일엽, 「나의 정조관」(1927) :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육체의 정조를 부정하고 정신의 정조가 중요함을 강조

그러므로 과거에 몇 사람의 이성과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새 생활을 창조할 만한 건전한 정신을 가진 남녀로서 과거를 일체 자기 기억에서 씻어 버리고 단순하고 깨끗한 사랑을 새 상대자에게 바칠 수가 있다 하면 그 남녀야말로 이지러지지 않을 정조를 가진 남녀라 할 수 있습니다. …(중략)… 무한한 사랑이 즉 정조라 하면 정조관념만이 더럽힘을 받는 제한된 감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조는 결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사랑을 백열(白熱)화시키는 연애의식의 최고 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략)… 우리는 일생을 두고 이러한 연애의식의 최고 절정(대상이 바뀌고 아니 바뀌는 것은 상관없음)에서만 항상 살려고 하는 것이 정조관념이 굳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처녀성이라 함은 이성을 대할 때 낮을 숙이고 수줍어만 하는 어리석은 태도가 아니라 정조에 대한 무한한 권위, 다시 말하면 말한 바와 같이 자기는 언제든지 태도가 이지러지지 않은 새로운 영육의 소유자라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 나의 정조관, 『조선일보』 1927년 1월 8일

## [ 51 ] 김환기·김향안 부부의 집

### 1. 김환기와 변동림(김향안)

- 1943년 봄 김환기와 변동림은 일본인 시인 노리다게 가쓰오의 소개로 만나 1944년 5월 재혼
  - ※ 노리다게 가쓰오는 시인 백석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
- 변동림은 김환기와 결혼을 하며 이름을 김향안으로 바꿈
  - 변동림이 김환기의 아호인 ‘향안(香岸)’을 이름으로 쓰겠다며, 김향안으로 평생 김환기를 위해 살겠다고 함.
  - 김환기는 ‘수화(樹話)’로 아호를 바꿈
  - 결혼 주례는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 사회와 청첩인은 시인 정지용과 화가 길진섭

### 2. 노시산방의 다른 이름, 수향산방

- 1944년 김용준은 김환기·김향안 부부에게 노시산방을 팔고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
  - 김용준 수필, 「육장후기(鸛莊後記)」 참고
- 의정부로 이사한 후에도 김용준은 수시로 수향산방을 찾아 김환기와 미술을 논하곤 했음
  - 김용준의 그림 〈수향산방 전경〉(1944) : 산방의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환기·김향안 부부의 모습을 그린 그림
  - 김용준의 그림 〈수화소노인(樹話少老人)가부좌상〉(1947) : 김용준이 1947년 수향산방을 찾아가 김환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

### 3. 성북동에 두 번째로 마련한 집

- 1948년 시골에서 모셔온 김환기의 모친이 성북동이 시골 같다고 불평을 하므로 시내의 원서동으로 이사했다가 그해 여름 식구들이 알 수 없는 열병으로 신음하자 다시 성북동에 집을 구하여 이사
- 1956년 김환기가 프랑스 파리로 유학갈 때까지 성북동 31-2번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
  - 김환기의 수필, 「산방기(山房記)」에 이곳에서의 생활 정경이 잘 드러나 있음. 모습을 그린 그림



[그림145] 성북동 31-2(꽃담집)

#### 4. 관련 자료

○ 김용준 수필, 「육장후기(鷲莊後記)」(1944)

그좋은 친구 수화에게 노시산방을 맡긴 나는 그에게 화초들을 잘 가꾸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의정부에 새로 마련한 삼간두옥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웠다. 한 채 있던 집마저 팔아먹고 이렇다는 직업도 없이 훨훨 날 것처럼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천석고황이 되어서 자고 먹고 하다 보니 기껏해야 고인의 글이나 뒤적거리는 것이 나의 일과일 수밖에 없었다.

(중략)

지금 회상하면 허망타 할까 어이없다 할까, 한참 북새통을 치른 다음 소위 ‘해방’이라는 시기가 오자 나는 다시 새로운 감격과 희망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온 뒤로 한번은 노시산방의 새 주인 수화를 만났더니 그의 말이 ‘노시산방을 사만 원에 팔라는 작자가 생기고 보니’ 나에게 대해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 수화는 가끔 나에게 돈도 쓰라고 집어 주고 그가 사랑하는 좋은 골동품도 갖다 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후로 수화는 가끔 나에게 돈도 쓰라고 집어 주고 그가 사랑하는 좋은 골동품도 갖다 주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옛날 시인 송씨의 집을 산 사람을 연상하게 되고, 옛날 세상에만 그러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각박한 세상에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은 있구나 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오늘에도 가장 큰 보물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함을 느낀다.

(중략)

수화는 예술에 사는 사람이다. 예술에서 산다는 간판을 건 사람이 아니요, 예술을 먹고 예술을 입고 예술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노시산방이 지금쯤은 백만 원의 값이 갈지도 모른다. 천만원, 억만 원의 값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노시산방은 한 덩어리 환영에 불과하다. 노시산방이란 한 덩어리 환영을 인연삼아 까부라져 가는 예술심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현대가 가질 수 없는 한 사람의 예술가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다.

○ 김환기 수필, 「산방기(山房記)」(1953)

집을 구하는 친구에게 나는 성북동으로 오기를 권한다. 그러면 대개는 성북동은 안 좋아하는 모양이다. 심한 친구는 성북동은 못 살 곳으로만 안다. 교통이 불편한 것을 첫째 흠으로 잡는다. 실은 성북동이 좋다는 것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명동이나 종로 복판에 비하면 물론 살 만한 곳은 아니다. 교통이 불편한 성북동에 나와 보는 친구는 한다는 소리마다 “지프나 한 대 있으면 살기 좋겠다” 한다. 나도 실은 은근히 지프 한 대가 욕심나는 것이다. 차가 있고 전화가 있고. 이것은 생활의 사치는 아닐 것이다. 제트기가 나는 현대생활에는 자동차라든가 전화 같은 것은 응당 생활필수품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도 장작으로 불을 때고 밥을 짓고 솥을 쓰는 원시적인 생활을 한다. 인류 태초의 소박한 생활형식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부산 광주도 비행기로 가야 되고 더구나 외국여행이란 으레 공로다.

내가 전차 머리에까지 걸어 나가는 동안 지프는 의정부에서 달려 나와 종로 복판을 통과하고, 내가 전차를 타고 명동 다방에 들어서면 수원서 지프를 타로 달린 친구가 이내 뒤따라 들어선다. 명동을 왔다 갔다하다가 대포나 하는 동안 노랜드 의원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 보고 여러 차례 파티까지 하고, 그리고 워싱턴 의석에 까딱없이 앉아 있다.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뱅뱅 도는 세상이다.

현대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차 머리에까지 도보로 20분, 그렇게 멀지 않다는것, 성북동은 수도물이 아니라 우물물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꽃이 피고 숲이 있고 단풍이 들고 새가 운다.

달도 산협의 달은 월광이 다르다.

○ 김용준, 〈수향산방 전경〉(1944)



그림146] 김용준, 〈수향산방 전경〉(1944)



[그림147] 김용준, 〈수화소노인가부좌상〉(1947)



## 9. 구술자료

### [ 52 ] 김황용(성북동 주민자치위원장)

#### 1. 인터뷰 개요

- 피면담자
  - 성 명 : 김황용
  - 주소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직위(직업) : 성북동 주민자치위원장(식당 운영)
- 면담자 : 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 면담 일시 : 2016. 6. 16.
- 면담 장소 : 강촌쌈밥 식당

#### 2. 인터뷰 내용

김황용(이하 김) : 제가 전라북도 부안군 진선면이라는 시골 마을에 조금 어렸을 적에는 나름대로 유복했어요. 내소사 기슭에 집이 있었고… 지금도 고향은 자주 가요.

·박수진(이하 박) : 내소사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사찰 중에 한군데입니다만…

·김 : 내소사… 자랑스럽죠. 성북동에 오게 된 계기 같은 거는 사실 이 대원각 위에 삼청각이 있었어요. 삼청각에 저의 친척이 근무하게 됐어요.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처음엔 삼청각에 몸을 담게 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삼청각이랑 대원각하고는 경영자들이 서로 자매간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귀향해서 학교 좀 다니고 있다가 또 어떤 계기로 해서 친척이 이쪽으로 오라 해서 대원각에 오게 되었죠.

·박 : 선생님 처음 삼청각 올라오셨을 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었는데?

·김 : 제가 한 78년 정도? 그때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나고 그때 내려갔죠. 원래 대원각은 요정이었는데 80년대 들어서부터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전환되었죠.

·박 : 그럼 대원각은 12.12사태 이후에 대중음식점이 되었나요?

·김 : 그렇죠. 저는 거기서 중간 간부로 일을 하다가 지배인을 하고 또 대원각에서 평택에다가 큰 사업체를 운영해서 저는 그쪽에 가서 일도 했었고요. 대원각에는 하루에 보통 한 500명 정도 왔어요. 음… 손님은 그 정도고 정치인들도 꽤 왔었죠.

·박 : 정치인들이요?

·김 : 예 정치인들.

·박 : 요정이 대중음식점으로 바뀌어도 많이 오셨나요?

·김 : 대원각이 대중음식점으로 바뀐 이후에도 많이 왔죠.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여기서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고요.

·박 : 외국인은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김 : 그렇진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온 것은 80년대 이전에 요정할 때에 일본에 ‘기생관광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그리고 대중음식점으로 바뀌고 나서는… 어쨌든 우리 대원 갈비집이 강남에 대원 갈비집의 원조라고 보면 돼요. 삼원가든 데에서는 여기에서 나한테 교육 받은 아이들을 환영했지. 여기 출신이라고 하면….

·박 : 아… 여기서 배우고 나간 사람들이 많나요?

·김 : 여기서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거든. 일본식으로 하는 서비스 그거를. 여기서 제일 크게 했었죠. 그리고 이경자 씨라고 옛날 유명했었죠. 외화밀반출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여기 검찰도 들이닥치고 했습니다. 당시 대원각 경영자 이경자 씨는 임차인이었어요. 김영한 여사 그분 소유였고요.

·박 : 아, 소유는 김영한 여사, 운영은 이경자 씨가 하셨군요.

·김 : 그렇죠. 장기 임대로 했죠. 그리고 우리는 소유자 김영한 씨나, 경영자 이경자 씨를 통칭 ‘사모님’이라 했던 말이지요. 이경자 씨 남편은 뭐냐 옛날에 중정 고위 간부였었고.

·박 : 아, 중정간부…

·김 : 그래서 봐 주는 것도 많았죠. 김영한 씨는 생전에 여기서 많이 봤어요. 그분이 처음엔 대원각을 팔려고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경자 씨하고 다툼도 많았었고.

·박 : 아, 그것 때문에.

·김 : 그리고 그때 손님들이 유독 많았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 저도 북한에서 온 간부급들도 처음 접해 봤어요. 여기 와서 제일 큰 연회장에서 ‘아리랑’을 손잡고 같이 부르고 했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박 :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북한 손님들이가요?

·김 : 그렇죠. 저로서는. 그게 아마 88올림픽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박 : 그럼 북한 사람들이 몰래 초청되어서 온 건가요?

·김 : 몰래 오진 않았구요. 공식적인 루트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길상사에 남아 있는 건물 가운데 소개해 주고 싶은 건물은 그 거기 현재 지금 본당. 거기에서 내가 거기서 아이들(종업원들)을 가르쳤어요.

·박 : 아~ 거기서.

·김 : 예. 본당 거기서. 그리고 또 그 앞에 공터가 당시에 주차장이었지만 밖에서 조회 같은 걸 할 때에는 모여서 걷는 연습이라던가 라인 쳐 놓고 하곤 했었죠.

·박 : 운동장 같이 그렇게 활용했었나 보네요.

·김 : 그렇죠. 그렇게 거기서 족구도 하고 배드민턴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연병장 식으로 활용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오래된 기와 건물이 있어요. 계곡 옆에. 그게 그때 당시에 ‘난실’이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잠도 자고 그랬어요. 거기서 몇몇 아이들(종업원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때 그 자리는 주로 당시 동아일보 김상만 회장이 오면 그 방을 꼭 드렸었지. 또 본당 위에 옛날엔 연못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좌측으로 특실이 있었는데 거의 10여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VIP들 오면 그 방으로 모시고 했었습니다.

·박 : 그때에도 셔틀버스 같은 게 있었나요?

·김 : 아, 우리 셔틀은행 했었죠. 한동안은 칠순, 팔순 심지어는 회갑잔치까지도 한창 유행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연회를 하면 뭐 연예인이 와서 사회도 보고 뭐 우리가 좀 봐 주기도 했었죠. 여기서 가다보면 큰 길이라 해서 무슨 큰 연회장 150명 200명씩 들어가는 거기서 주로 행사가 있었죠.

·박 : 궁금한게 당시 음식값이 뭐 저렴하진 않았을 것 같고, 고급 음식점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 :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일반보다는 비싼건데, 한정식도 값이 이제 상증 정도라고 할까? 당시에는 두당 3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정도였고… 이 집안은 갈비, 등심 이런 것도 시중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었죠. 그래도 워낙 운치 있고 이러니까 주로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박 : 아, 접대 같은 거군요.

·김 : 응. 그렇지. 다 그런 거죠 뭐. 무역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외국인들 많이 데려오고. 여기가 최고였지 뭐. 시내 가깝고 특히 여기 현대 같은데 너무 가깝죠. 현대, 삼성이 많이 왔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성북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전적인 분위기가 있고 해서 손님들을 많이 데려왔죠.

·박 : 선생님, 자치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김 : 음… 계획했었던 것은 아니구요. 우연치않게 이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 권유가 있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동네에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뭔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주민자치위원을 하게 된 것이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다 싶어요. 땀가 없이 한 거니까. 잘했던 못했던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은 완전히 봉사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권위도 있단 말이지요. 당당하잖아요. 동네 대표로써,

주민 대표로써. 그래서 남들은 힘들다 지탄할 때마다 저는 즐거웠어요. 자치위원회 일이나 동네 일이 있을 때는 어차피 누군가 나서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다 봉사잖아요. 댓가 없이 하니 까 더 떳떳한 거야. 잘하든 못하든.

·박 : 주민자치위원회 일 하시면서 제일 뿌듯했던 일도 있으실 거구, 힘들었던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김 : 이 자치위원장 일이 끝이 없어요 이게. 저는 아직도 16년째 풀뿌리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봐요. 주민들이 자치위원장의 역할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 리더십 교육 이런 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요. 당시에 내가 자치위원장이 될 때는 비교적 젊은 편이었죠.

·박 : 선생님, 제가 또 계속 찾아보다보니깐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후원도 많이 하시고 이런 이들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는지...

·김 : 그거는 제가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눔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진중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고향을 떠나왔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겨울에는 손장갑이나 모자를 보내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일 년에 한 번씩 연하장을 꼭 써서 보내는 이런 걸 내가 참 좋아했어요. 대원각에 다닐 때도 내가 제일 먼저 간부들 모임 할 때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뭘 하자고 이야길 했지요. 그것이 성북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추천 받아서 돕는 일을 제가 주창하고 나섰어요. 내 역량만 되고 기회가 된다면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도 그런 DNA를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가진 인생 후반전에 사회에 대한 환원이라고 생각해요.

·박 : 맞습니다. 선생님 그 저 성북동에 오래 사셨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성북동의 가장 자랑 할만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 성북동은 개발은 낙후됐지만 보존의 의미는 어느 서울 장안에서 어디 못지 않다. 보존하는 것이 큰 장점이고. 그래서 역사문화지구라는 것도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자연 풍광이나 역사문화 이런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거라고 대외적으로 얘기 할 수 있겠고 우리 주민이나 관에서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에 이런 것들을 부수지 말아라. 조금 뭐 좀 수리해서, 리모델링해서 좀 일본식처럼 고고한 그런 멋이 좀 이것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말을 제가 써요. 가진 자들 앞에서.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뒤집힌다는 뜻이다. 내가 지금 6월달의 사자성어를 저기 써 놔지만, ‘선유선보(善有善報)’,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보답이 틀림없이 와요. 그게 선유선보예요. 그니까 자연을 훼손하면 벌 받습니다. 지켜야 해요.

·박 : 전 성북동 자치위원장으로서 구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김 : 오늘도 우리가 무슨 또 회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관에서 하는 거는 아직도 행정통제하는 게 많아요. 혈세가 투입되는 데는 정말 길게 봐야 해요, 길게. 이중으로 돈 들이면 낭비되기 쉽습니다. 다른 구에서 어떻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성북 주민,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 해요. 또 예산도 체계적으로 짜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바로 낭비로 빠지게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집행을 할 때 좀 생각, 생각을 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구요. 성북동은 수리, 보수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또 외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크게 막 뭐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거 보존을 하는 거에 강조점을 뒀으면 해요. 뭐를 한다 어쩐다 이런 걸로 괜히 주민들 갈등만 조장하지 말구요.

## [ 53 ] 김철우(성북동천 대표)

### 1. 인터뷰 개요

○ 피면담자

- 성 명 : 김철우

- 출생지 : 서울특별시 중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직 업 : 성북동천 대표(화가)

○ 면담자 : 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 면담 일시 : 2016. 6. 22.

○ 면담 장소 : 성북문화원

### 2. 인터뷰 내용

·박수진(이하 박) : 선생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성북동천’ 활동을 중심으로 많이 여쭙어 보려고 합니다.

·김철우(이하 김) : 그런 건 나보다 호진 씨나 김기민 씨가 더 잘 알 텐데. 나는 이름만 대표지.

·박 : 아 그래서, 최성수 선생님이 시인이시고 선생님은 화가시고 그렇긴 한데 성북동천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김 : 동네 분들인데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성북동에 거주하면서 자영업으로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박진하 편집장, 저번 편집장 했던 분은, 이 책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하신 분, 디미방 사장님이잖아. 그런 분도 있고. 또 뭐 옷가게, 한복하시는 분도 여기 회원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 : 그분들이 어떤 계기로 모이게 되신 거예요?

·김 : 예전에 희망제작소에서 한 번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때 다 모였던 거야. 그때 모였던 건데 그때는 동네 이슈가 뭐였나면은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커다란 이슈였는데 지금은 그 이슈가 깨졌잖아요. 근데 3구역은 아직도 그거 갖고 뭐 어찌구저찌구 하더라고. 근데 저도 여기 한신아파트 살다가 이리로 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제 벌써 세월이 한 15년이지.

·박 : 그러면 한신아파트 사신 것까지 합치면 이 쪽에 몇 년 정도 계셨는지요?

·김 : 이쪽에서 한 이십 몇 년 살았죠. 아파트가 편하기야 편한데 개인주택에서 살다보면 아파트와 다른 어떤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을 이제 나는 그림 그리니까 그림 그리는 시간, 학교 강의 나가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노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즐기는 거죠, 뭐. 그리고 나는 원래 이 도심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도심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가지지만, 나는 서울서 태어났고, 또 뭐 어디 강원도 가서 며칠 있으려면은 있지만 거기서 살라 그러면 못 살아. 뭐 네온사인도 좀 반짝거리고, 향수냄새도 좀 나고 여자 다리도 이렇게 보는 맛도 있고. 그건 이제 농담이지만. 그런 어떤, 난 아주 그냥 도시인이지, 도시인.

·박 : 서울 어디 출신이세요?

·김 : 충무로에서 태어났지.

·박 : 충무로에서? 그러면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신 거예요?

·김 : 계속 서울에서 살았고, 우리 친구는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고, 외가는 서울에서 3대째 있어서 서울 정도 600년 행사할 때 타임캡슐에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도 전쟁 전에 서울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나는 서울 생활을 이제 내 일상인 양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지.

·박 : 사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비슷합니다. 잠깐 시골로 가서 뭐 한 달 정도까지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유유자적하면서.... 근데 진짜 평생을 그렇게 살라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 김 : 그니까 나는 서울이 좋아. 오늘도 아침에 저기 성북천으로 해서 청계천, 대학로를 지나 집에 들어왔어요.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나폴레옹(과자점) 뒤편이예요.
- 박 : 어, 저도 그쪽 삽니다. 혜화문 밑에.
- 김 : 거기 요새 난리 났잖아. 뭐 짓고 뭐 편의점 생기고 뭐.
- 박 : 아 그쪽이세요?
- 김 : 거기야 거기. 바로 거기야. 빨간 벽돌집. 예전에 여기가 재개발이 되느니 어찌느니 그게 당시 테마였다고. 근데 이제 희망제작소에서 와서 동네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인지 한 번 보고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북동은 오래 산 사람도 많고, 나름 뭐 동네를 아끼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때 성북동에 대해서 분석을 막 했었다고. 그래서 우리도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 나쁜 점이 뭐냐 이렇게 해서 쪽 썼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서울 속 시골 같다는 거지. 사람들이 서로서로 어떤 관계가 다 되어 있고, 아주 또 너무너무 친하게 그 1988년처럼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데가 쌍문동뿐 아니라 여기도, 도심 한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 라는 거였어. 또 문제점은 뭐냐 했더니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 아랫녘은 그래도 보통 살잖아요. 못사는 편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위쪽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200번지 이상은 거의 그렇잖아요. 이 잘 사는 데하고 못 사는 데하고 사이에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주택)단지가 있어야 돼.
- 박 : 전혀 없죠.
- 김 : 근데 그게 이제 요즘 동사무소에서 하는 성북상인회? 이런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야. 또 소담출판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쪽하고 다리가 되어서 뭔가 이뤄지지만 하면 상당히 참 힘이, 크게 역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동네야. 여기가 별천지 아니야.
- 박 : 근데 사실은 서로 교류하기 위한 기회나 이슈가 많지 않은 게 아쉬워요.
- 김 : 근데 그쪽 사람들이 좀 문을 닫고 있는, 폐쇄적인 것도 있고, 이쪽 사람들은 그쪽을 너무, 어떻게 보면 “에이! 도둑놈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애. 서로 그런 게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언젠가는 깨져야 되지 않겠어요?
- 박 :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 사실 그 중간에 어떤 단체들…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여럿 있잖아요? 문화재단도 있고. 또 저기 구립미술관? 이런 데서 좀 역할을 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성당을 다녀요. 저도 영세 받은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가서 보면 그런 걸 확 느껴. 다 힘든 할머니들처럼 보이는 할머니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딱 외형적으로도 벌써 부(富)가… 어유, 확실히 보여요. 할머니들이야 뭐 돈 천원 내고 현금으로 그러시겠지.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역시 뭐, 누구라 그러면 누구일 정도의 사람들은 다 있어, 성당에. 근데 거기 보면 가끔 이렇게 쾌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현금 뒤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무명으로 해 갖고. 1억짜리도 넣고 뭐. 가끔 그래.
- 박 : 저희가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가끔하는데 성북동 성당이랑 길상사랑 덕수교회이랑 같이 잘 화합하는 게 이 동네가 부자들이 많아서 마음이 여유로워서 그런다고 해요.
- 김 : 거기 조직력은 또 덕수교회가 최고야. 종교단체가 사실은 그런 잘 사는 사람들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하고 중간에 교류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계속하면, 예전 희망제작소와 활동하면서 이 동네 살면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대체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바로 나오더라고. 나는 그때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냐면은 홍익고등학교 후문 쪽을 혹시 가보셨는지 몰라. 동구여상하고 홍익고 사이에 있는. 저희 가족이 여기 내려오기 전에는 거기에 살았거든요. 근데 겨울에 보면 거기가 완전 얼음, 빙판길이야. 빙판길인데 뒤에서 걸어오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저기 구민회관 버스종점 1164에서 내려서 그 길로 오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저쪽, 미아리나 그쪽에 사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서 이 길로 학교로 가는 거야. 요새 개네들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다니는데 학교를 추억의 길이 아니라, 완전 쓰레기통길과 그냥 낭떠러지 벼랑을 다녀야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강남 같으면 말이 되느냐 말이야.

- 강남 같으면 정말 부모들이 일어나서 난리가 날텐데. 강북은 그런 교육열도 없고 엄마 아빠들이 다 직장 나가고 바쁘니까 우리라도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나섰어요. 그래 갖고 여기 얘기를 좀 해서라도 계단을 좀 예쁘게 만들고 데크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구의원이 그런 얘길 들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 자세히 들어가보니까 그게 사유지야. 사유지니까 어떻게 구에서도 힘을 못 쓰는 거야. 뭐 구에서는 잘 됐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어른으로서 애들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희망제작소에서 와 갖고 마을 만들기 그 조직을 설명하고 그럴 때 우리도 거기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노인들이 많이 살아. 노인들이 보통 40년, 50년은 보통이야. 나는 거기서 명함도 못 내밀어. 근데 이제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맨날 소주 먹는 일로 소일을 하고 계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잘 되어 있냐면은 집집마다 결속이 잘 돼있어 갖고, 뭐 누구네 무슨 날이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잔치하고 오고. 또 끝나고 와서 절벽 있는데 거기 주차장 마당에서 술 파티하고 김장할 때는 같이 김장하고 이런 품앗이가 아직도 있더라구요. 어? 이거 봐라 서울시내에? 서울시내에 문 짱 단고 들어가면 끝인데. 그래서 이 사는 동네가 살아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또 이 밑에 동네는 지금 그 멤버들이 에이프런 그거 만든 멤버들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공방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특화시켜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젊은이들이지만 진취적이더라구요. 그중에서 저 17717 저기 그 갤러리 하는 친구, 우리 그 인쇄 맡아주는, 편집 디자인 해주는 친구 신문, 김선문. 그 친구도 이제 그 갤러리에 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몇몇이만 모이게 된 거예요. 동네에, 소위 얘기하는 활동가? 활동가도 아니지만은 조직하는 데는 희망제작소에 있던 분들이, 연구위원들이 몇 분 겠지. 장우현 선생이나 뭐, 몇 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껴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정하고 해서, 야 그럼 우리 이런 성북동 이런 그 자료가 무궁무진한데 이걸 그냥 날려버리는 건 너무 아깝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라도 하나해서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갖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7월 말까지 7호 나오고 하반기에 8호 나오고. 근데 또 동네 분들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운영회의도 해요. 운영회의도 하긴 하는데 뭐 운영회의 할 필요 뭐 있었어요. 뭐 술집 가면 한 두 명 꼬이는데. 동네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만나서 술먹다가 야 누구 좀 와라 해서 같이 또 얘기하고.
- 박 : 그게 사실 제일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 김 : 그래서 이제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씩 운영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요. 행정적으로 맡은 김기민 씨라고 있어. 그분이 이제 모든 행정적인 걸 다 해.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 박 : 지금 성북동천엔 총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 김 : 지금 한 20분 정도? 근데 거기 매번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5~7명? 편집위원들까지하면, 편집위원들은 한 10명 안팎? 20명인데 한 8명은 편집위원들이고. 동에 또 직접 막 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또 전체적인 것들을 핸들링하시는 분은 우리 나잇대고. 그러니까 최성수 선생님이 아마 여기 가장 주도적인, 활자매체하고 또 친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원고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그림이나 좀 그려주고 그랬었어요. 내가 할 일 없고 그러니까 대표 시켜놓은 거지.
- 박 : 그림이 너무 멋진데요, 선생님.
- 김 : 이거 우리 동네. 이런 거 하고. 이 표지도 이거 내가.
- 박 : 이것도 선생님이 그리신 거죠?
- 김 : 그렇지. 이것도 내가. 그리고 이제 거기 ‘오뉴월 스페이스’라는 갤러리 있잖아. 거기에서 한번 그 박영환 씨라고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분이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채집해서 그걸 방송을 하고 그걸 갖고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영상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도 아마 서준우 씨하고 많이 작업할 걸? 그래 갖고 그 분이 뭐 동네 방송국 그걸 만들었었어요. 그 오뉴월 전시장 앞에다가 이렇게 직접 방송하는 거. 방송이래봐야 동네사람들 모아놓고 떠드는 거지 뭐, 김밥 몇 줄 갖다 놓고. 근데 되게 재밌었나봐 동네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출연을, 아니 처음은 아니고 내가 두번쨰가 세번

- 젠가 출연을 했어요, 우리 부부가. 그랬더니 재밌어 죽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여기도 있더라고. 인터넷에.
- 박 :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근데 이제 저도 성북동천 이 책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구요. 재밌는 내용도 많고 정말 읽기에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 소소한 게 일상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뭐 대단한 일들이 일상 속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마을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은 참 의미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구요, 또 동천에서 활동하는 게 이거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 김 : ‘동네 한바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집을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처음에는 동네 분들과 연계된 사람들만 해서 이제 데리고 다녔는데, 요즘은 인터넷상에 올려요. 올려갖고 성원이 되면은 그분들을 데리고 성북동을 이렇게 돌아요. 돌아서 요새는 개인 집은 못가. 왜냐면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개인 집에 가서 그 집의 자랑 같은 것도 좀 내놓고, 주인장 꼬불쳐 놓은 술도 먹고 그런 것도 있고, 동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요즘은 조금 이제 모집하는 구성 인원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진 못해.
- 박 : 그게 참 좋은것 같은데.
- 김 : 집밥 모임같이... 그런 것 처음에 좀 했었구요. 이런 거는 성공사례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하다가 마을 아카데미를 몇 과목 개설을 했었어요. 동사무소에 빈 강의실을 이용해갖고. 그래서 그 내용 나온 것 중에 ‘이물’만들기. 이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물체’ 뭐 이런 거겠죠. 이물이 어떤 데 쓰는 거냐면 이게 의도가 참 좋았는데 뭔가 좀 서포트가 안되는 바람에... 도자기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보상을 만드는 거예요. 동네가 여기가 성북1동, 저기가 2동이고 하면 1동 사람들은 같은 주제로 예를 들어서 동물을 쪽 만드는거야. 크기를 좀 어느 정도 있게 해서 비 맞아도 괜찮게 해서 뭐 자기 집 대문 위라던가 지붕 위라던가 그런데 해서 하나씩 올려놓는 거야. 그러며는 딴 동네에서 볼 수 없는 것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뭐 외국에는 많이 있어요. 일본에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애들 글 쓰는 수업도 했었고, 미술 수업도 했었고. 근데 이게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분산이 되고 결국 이제 걸리지더라고. 그래서 이물 같은 거는 좀 더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물 말고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의논해 본 거는 공작실 운영하는 거.
- 박 : 공작실?
- 김 : 요즘 생활용품이 너무 쉽게 나왔다가 쉽게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여기 아파트만 한 번 돌아도 주어들 거 엄청 많아.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공 전문인 사람을 한번 캡틴으로 모셔다가, 뭐 공간이 크지 않아도 돼요. 지하 어떤 이런데 하나 이용해서 기계 몇 개 갖다 놓고, 소형 소품 같은 거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공작소를 한 번 운영을 해볼라고 했는데 그건 신청을 못했어. 그리고 또 요새 야생화 탐방...
- 박 : 아, 그거는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 김 : 보셨죠? 그거 하고 지금 집밥 모임 두 개는 살아있어.
- 박 : 제가 사실은 보니까 야생화 탐방이라는 주제는 되게 좋았던 주제인 거 같고, 예전에 최성수 선생님이 저 데리고 골목을 한번 쪽 간 적이 있는데, 그 골목도 되게 좋았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지만 않다면, 성북동 골목 골목에서 한옥도 남아있고 옛날 모습 남아있는 곳을 가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성북동천 일이 그렇게 힘들거나 하지 않나요?
- 김 : 우리는 안 힘들다고 하지. 그런데 이거 말고 있는 기민씨는 죽을라 그러지. 기민씨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 박 : 혹시 뭐 구청이나 서울시나 관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나요?
- 김 :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구에서 한 번 받은 거 있고 나머지는 서울미디어센터에서 다 받았죠. 미디어센터에서 지원 받은 건 액수는 그렇게 크진 않고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 박 : 그럼 운영에 대해서 지원 받은 건 없고 이런 책 발간 비용 정도만요?
- 김 : 우리가 회비 내요. 자비가 한 달에 6000원씩 해서 사무실 지금 여럿이 쓰고 있거든요? ‘탐’이라

- 는 건축회사하고 젊은 분들하고 쓰고 있는데 거기 월세 내는데 우리가 일부 좀 내고. 상근이 없으니까 판거는 없는데. 저번에 우리 MT 갔을 때 좀 쓰고. 또 갑자기 번개 모이면 집에서 하나씩 들고 와서 그냥 뒀.
- 박 : 20몇 년 사시면서 딴 데 비하면 덜 변했다고 하지만 성북동이... 그래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건 좀 아쉽다거나 변하더라도 이런 건 안 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 김 : 재개발이 안 되면서의 문제점이란 것이 뭐였나면... 위쪽에 올라가면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재개발이 안 됐다고해서 나몰라라 놔둘 게 아니라 구에서 좀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 사업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아직도 그런 집들이 많아. 이 사이 사이에 몇 집들 있어.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막 변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막 눈 뜨고 나면 한옥이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거를 성북동이라는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다만 형식이라도 이게 페인트 색깔을 뭐 일정하게 분위기에 맞춰서 칠한다던지 뭐 건축가 모임이라던지 이런데서... 이번에 우리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하나는 한옥을 두 채를 개조하셔갖고 건축사 사무실로 쓰시는 분인데 그 분이 이번에 회원으로 들어오셨어. 그분도 들어오게 된 동기가 일단 지리적으로 교통이 좋으니까 일 보기가 좋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물값이 비싸지 않다는 거, 아직은. 이제 자기네도 북촌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다가 이리로 왔다고 하더라고. 아직은 그런 데에서는 여기가 좋아서 왔는데 이런 건축을 할 때에도 최소한 외형적으로 좀 색깔이라도 좀 맞췄으면 좋겠어.
- 박 : 그리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선생님 이제 성북동천 활동하시고 또 사시면서 가장 좋은 부분이나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기는 꼭 추천하고 싶다 뭐 이런데... 뭐 가게도 좋고 풍경도 좋고 유적지도 좋고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 김 : 풍경은 이 동네가 제일 좋아. 168번지. 거기서 내려다보면 시내야. 그리고 그 위도 공원구역이래요. 근데 그거는 아직 조성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 공원으로 한다고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오히려 팔각정보다 더 좋은 뷰가 나올걸요? 가깝잖아.
- 박 : 저도 한번 가 봐야 되겠어요.
- 김 : 그제 동구여상하고 저쪽 홍익고등학교 사이야. 근데 거기 지금 데크도 깔아 놓고 운동기구도 놓고 뭘 좀 해놔어. 또 우리가 그때 처음에 마을 운동하고 교육받고 그럴 때 이 동네를 재개발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뭘을 하나 만들면 안 되겠냐, 뭘 하면 좋겠냐 홍콩처럼 미드레일을 만들자. 그러며는 여기 사람들도 편할 거고 거기 뭔가 형성이 되지 않겠냐 했어요.
- 박 : 유일하게 있으니까.
- 김 :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뭐 경사가 이렇게 켜으니까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까지해서 팔각정까지 가는 길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돈은 물론 들겠지만.
- 박 : 좋을 것 같은데요.
- 김 : 그니까 그런 기발한 게 있어야지, 뭐 맨날 도로 넓혀주세요.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이런것 보다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 박 : 지금 구에서는 ‘성북동 문학관’? 그런 것도 계획이 있나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너무 유명한 분들이 많으니까 한 명만 갖고는 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은 뭐 신동엽 갖고만 하고 어떤 지역은 누구만 갖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치면 인물이 너무 많잖아요. 성북동이 또 요새 고민이 뭐냐며는 구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반대로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 : 방법이 뭐 있겠어요? 서로 상생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불편한대로 또 지주들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속으로 흐뭇해 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젠트리피케이션이니 뭐니해서 난리잖아요.
- 박 : 임대료 올라가고 또 그러니까요..
- 김 : 그걸 어떻게 중간 점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외국 사례들도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요?



## [ 54 ] 김순희(협동조합 성아들 이사장)

### 1. 인터뷰 개요

- 피면담자
  - 성 명 : 김순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직 업 : 협동조합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
- 면담자 : 한동현(한국외대 글로벌콘텐츠연구소 연구원)
- 면담 일시 : 2016. 6. 22.
- 면담 장소 :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 사무실

### 2. 인터뷰 내용

- 한동현(이하 한) :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장님 뵈니까 얼굴이 굉장히 환하시고 강원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 김순희(이하 김) : 시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늘 바빠요. 염소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양봉도 해보고 싶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민박도 아래층에 하고 있고, 위층엔 식당도 하고 있고,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바빴는데 (강원도 평창으로) 가니까 더 바쁜 것 같아요.
- 한 : 그러면 서울에 계시는 동안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 김 :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성북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했고 서울시에서 하는 어머니 자전거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자전거 안전교육도 하러 다녔어요. 성북구 관 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녹색연합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봉사하다가 학교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받은 분들만 모여서 자전거협회를 만들었어요. 자전거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안전교육을 아이들도 시키고 어린이집, 노인정 다니며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를 줄어들게 하려고….
- 한 : 자녀분은 다 여기 성북구에서 출생했습니까?
- 김 : 그렇죠. 다 성북초등학교에 다녔어요.
- 한 : 몇 두셨나요?
- 김 : 3명이요. 딸 둘, 아들 하나
- 한 : 지금은 다 컸구요?
- 김 : 네. 막내아들은 대학교 1학년이구요. 딸들은 스물아홉, 서른?
- 한 : 다 키우셨네요. 이제 마음껏 바깥 활동 하셔도 되겠어요.
- 김 : 그렇지 않아도 계속 했습니다. 하하하.
- 남 : 이런 자전거 안전교육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성아들(성북동의 아름다운 사람들) 활동도 같이 하시게 되었나요?
- 김 : 성북 성아들 단체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제가 자전거협회 다닐 때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성북초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 같이 봉사를 자주하는 엄마들은 전교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알 정도였어요. 그것이 계속 봉사를 하면서 이어지다 보니까 성아들 활동사업을 시작할 무렵엔 제가 강원도 가있었어요. 전화로만 계속하고 조합원으로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사장 하시던 분이 못하시는 바람에 저보고 하라 해서 저는 간단하게 조금씩, 조금씩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협동조합에 대하여 몰랐던 거고, 그래서 그런지 일이 많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하하. 하지만 요즘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고 이사진들이 바뀌면서 각자의 맡은 역할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지금은 안정적으로 되었어요. 지금은 자주 안 올라와도 될 것 같고 지금은 거의 전화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전화나 특으로 다 되니까.

- 한 : 아. 그러면 이전에 성북구에 거주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시고 자녀분들 학교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시는 분들이 모여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성아들 같은 팀워크 좋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군요?
- 김 : 네. 그랬어요.
- 한 : 그러면 지금 성아들에서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성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자랑거리도 좋고, 아니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 김 :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길로밖에 못 가는데 초기에 모였을 때는 저희가 다양한 길로 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성북동에 있는 문화유적지만 투어를 다니고 있어요.
- 한 : 아, 성북동 투어에 집중하고 계시다?
- 김 : 네 지금은 그것밖에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모여서 이야기 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어 진 것인데 지금은 한가지 밖에 못하고 있어서 좀 약간 아쉬워요.
- 한 : 그런데 하나의 단체가 좋은 팀워크로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어떻게 성북구 투어에 집중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투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중요한가요?
- 김 : 그것은 대답이 정확할 줄은 몰라도,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고 다른 지역으로 해설사를 보냈어요. 지금 우리 해설하는 것과 같은 것이예요. 성북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제 봄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부터 알아야겠다 그래서 엄마들이 해설과정을 공부해서 우리들이 하자해서 해설자 양성과정을 하게 되었고, 그 분들이 처음에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분들 대신 또다른 전문가 분들만 활동하고 계세요. 조합원들은 다 남아 있는데 처음에 뭉쳤던 분들이 각자의 자리로 좀 찾아가시고 그랬죠.
- 한 :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이 우리 자녀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듯이 우리 지역도 공부하고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다 나서서 공부하시고 우리 지역을 소개해주는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이군요?
- 김 : 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도 제가 27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도 제가 심우장에 놀러갔었어요. 친구가 그쪽에서 살아가지구… 그렇게 중요한 곳인 줄도 모르고 계속 갔던거죠. 해설을 듣지 않았니까 그냥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오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나치고 말았던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 그렇게 의미 있는 곳인 줄 몰랐어요. 성북동 자체가 박물관이잖아요. 이제야 박물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예요. 예전엔 몰랐어요. 귀중한 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돌아만 다녔던 것이예요.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외부에 나가는 것 보다 우리 동네가 더 많고 좋은데?! 이렇게 되었어요.
- 한 : 항상 거주하신 곳을 둘러보실 때는 그냥 보통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을 듣고 나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르게 보이더라….
- 김 : 그쵸!, 완전히 박물관, 박물관이죠. 성북동 자체가.
- 한 : 그러면 해설을 듣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해설을 들어보자 해서 된 것인가요?
- 김 : 사실 처음에는 해설을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사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예전에 봉사하듯이 봉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설사 선생님들 몇 번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예요.
- 한 : 이사장직을 맡게 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 김 : 지금 2년? 딱 2년 되었어요.
- 한 : 이사장직 맡고서 지금 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바뀌서 성아들 활동을 해보고 싶다 던지 이러한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신가요?
- 김 : 계획이라면… 협동조합이 저 혼자서 계획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봉사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성북동도 그렇고 정릉도 그렇고 아이들이 참… 못 먹고 못 살고 부모 없이 살고 할머니와만 살고 너무 걱정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 도움도

주고 물건도 전달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만 다닐 수 있게,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끔… 학교에서 거의 다 해주고 있으니까 먹는 것만 걱정하지 않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방과후에 공부도 시키고 그런 것들을 해주었었어요. 도시락을 가져다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대하게 되면은 남는 부분은 할아버지 한 분을 또 후원해 드렸었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 성아들로 인해서 먹거리나 그런 것들을 나누어 드리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은 진짜 해보고 싶어요. 하다보면 할아버지 분들이 특히 덜 드세요. 같이 좀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예요.

·한 : 성아들이 어머니들이 주된 모임이다보니까. 어머니들의 마음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걸로 확장했으면 좋겠고, 독거노인이나 어린 학생들의 음식 이런 부분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김 : 그쵸. 제가 부자면은 그냥 헤드리겠는데 부자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일들을 같이 곁에서 할 때에는 얼마든지 이루어지거든요.

·한 :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같이 움직여야 하나까요.

·김 : 근데 요즘 우리 성아들 식구들 나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데, 요즘에 엄마들이더라도 제가 음식 같이하자고 하면은 싫어하고 설거지도 하지 않을라고 하고… 그런 일 자체를 자기 집에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별이지 말라’, ‘이사장님 일별이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게 축소가 되고… 저번 7월달엔 식사 하나 30분이 온다고 했는데 저 혼자 하래요. 저는 강원도에서 오고 이들을 소비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혼자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 조합원은 40명 정도 있지만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해설하시는 분들은 10명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해설만 하려고 하고 다른 일은 버거워하시고 본인들이 해설을 이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하니까 시간 조절이 안되는 것이예요. 아까도 말씀 드렸었지만 협동조합이 저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예요.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면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아니고 해설사 분들만 계시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죠

·한 : 오늘 말씀해주신 것에서 이사장님의 고민이나 성아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과 고민이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초기에 팀웍이 잘 짜져서 성북구 지역투어에 대하여 집중을 했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2단계에서는 조금 더 다른 활동을 곁들여 가면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성아들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성아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성북구나 아니면 성북구청 기관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라는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김 : 도시락 같은 것을 요청하는 두 기관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저 혼자서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유관 기관들과 연결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은 해보고 있어요.

·한 : 그런 푸드 사업에 대해서 주변 기관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 : 그렇죠.

·한 : 성아들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더 여쭙어볼게요. 조합원 분들은 총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김 : 조합원만 41명이요.

·한 : 전부 어머니들이신가요?

·김 : 아니예요. 활동하고 계시는 남자 분들은 현재 4분 정도는 꾸준히 하고 계세요.

·한 : 방금 3기라고 하셨는데…

·김 : 양성과정이 있으니까. 3번 있어요. 남자 분들도 배우고 싶어서 오시구요.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한 : 혹시 이사장님께서 성아들이 생길 때 첫 창립 멤버인가요?

·김 : 창립 멤버는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활동을 안 하고 시작할 때 시골에 있으면서 저하고 전화는 많이 했죠.

·한 : 그러면 혹시 처음에 몇 분이 창립 멤버로 시작한 것이예요?

·김 : 한, 10명? 우리가 처음부터 막 모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늘 모여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늘 모여 있던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하면서 한명, 한명 중간에 들어온 것이죠.

·한 : 아, 그렇군요. 초기는 10명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한 것이군요. 굉장히 참 좋은 조직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막 끌어 모으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머니들이 봉사활동 평소에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친분관계를 쌓으시고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우리 해볼까? 누구 엄마도 해 이런 식으로 퍼진 것이군요?

·김 : 맞아요. 성북동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7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성북초등학교에 우리 남편도 여기 다녔어, 우리 애들 할아버지도 여기 다녔어, 그리고 우리 아들도 여기 다녀 3대가 다니고… 거의 그래요 다. 그러다 보니 다 아는 사람들이예요 다. 선후배 관계 부모 친척 이렇게 다 연결이 되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이고 제가 녹색연합회장 할 때는 제가 무슨 다른 학교에서 활동할 때는 성북초등학교 엄마들이 다 와서 도와주고 외부에서 오면 학교 엄마들이 전부다 와서 해주고 녹색방이라고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매일 엄마들이 있어요. 아침 활동을 하면 늘 하나 가득 모여 있었어요. 제가 할 때는 저녁까지. 아이들 누가 등교 늦게 하면은 다 챙겨주고 또 학교에 늦게 남아있으면 이 아이는 왜 늦게 까지 학교에 남아있을까 조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재는 누구, 애는 누구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부탁해요. 저 아이가 학교도 잘 안나오고 그런데 한 번 알아봐 줄 수 있냐고… 그러다 집에 가 보면… 그런 아이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할머니 하고 사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거의 폐인같이 살고 방이 이 바닥이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없을 정도 망쳐(?) 놓고… 그리고 밥통도 열어보니까 곰팡이도 싹 피어 있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이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관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솔직히 이 사회가 거창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가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행복하지만 한두 명 때문에 티비 나오고 하잖아요. 더불어 잘 살아야지, 더불어 행복해야지. 저도 아이들 키우지만 아이들 자체가 순간적으로 이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정말 부부간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아이들도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전 그냥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는 것이 다 바쁘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을 못 쓰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예요. 그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좋은 조직을 가져다가 썼으면 좋겠지만… 성북초등학교 엄마들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활동할 때 봉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이지… 너무 하면은 내 주머니 꺼내놓다 보니까 엄마들이 지치는 거야. 그러다보니 이제 자신의 일을 하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아들이 이런 것이 있다 소리 듣고 양성과정을 와서 수업 듣고 공부하고 해설하게 되니까. 그 분들이 잘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한 : 그러면 그 전문가 분들은 여기 성북구에 사는 주민들은 아닌 것이예요?

·김 : 성북구에 살아요. 미아리에 사시는 분도 있고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래는 성북동 안에 있는 엄마들과만 하려고 한 것인데… 빗나간 것은 있어요… 약간.

·한 : 성북동 안에 있는 성북초등학교 녹색반 어머니들이 주된 멤버죠?

·김 : 그렇죠. 하다보니까 녹색반 엄마도 단체장들이랑 다 친해서 너무 친해서 같이 했는데 그렇게 모여서 같이 한 거예요.

·한 : 아하,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양성과정이 3기까지 끝이 났고 4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김 : 그쵸. 해야 하는데… 하긴 해야 하는데.

·한 : 어떤 고민이 있으신거예요?

·김 : 그럼요. 양성과정 하게 되면 비용이 400만원 이상 들게 되는데, 그걸 비용을 대야 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그거 돈 쓰면 안된다, 그러시니까. 하지만 좀 다양하게 움직일라면 솔



직히 양성과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일하고 있는 분들은 당신들이 일이 주어질 까봐 이사장님 그 일을 왜 하나고… 지금도 우리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고 그러지. 조합원들은 처음에는 아이고… 다 들통나네, 하하하하, 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부딪쳐요.

- 한 : 어떤 조직이든 활동이 오래될수록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 김 : 정말로 내가 공부해서 이 마을을 내가 알아가고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고, 약간의 봉사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한 : 이사장님께서서는 마을을 위하는 일이 꼭 투자를 위한 문화해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더 활동을 넓혀가자는 것이지요?
- 김 : 맞아요. 해설을 딱 하고 남으면 두 시간 정도 남거든요. 해설하면서 오지랖이라고 욕하긴 하는데 좀 어려운 애들도 도와주고 좀 그러는 것도 성북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서로 아니깐 재 누구다 재 많이 컸네 등등 이런 저런 애로사항들을 아니까…·김 : 보셨죠? 그거 하고 지금 집밥 모임 두 개는 살아있어.
- 박 : 제가 사실은 보니까 야생화 탐방이라는 주제는 되게 좋았던 주제인 거 같고, 예전에 최성수 선생님이 저 데리고 골목을 한번 쭉 간 적이 있는데, 그 골목도 되게 좋았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지만 없다면, 성북동 골목 골목에서 한옥도 남아있고 옛날 모습 남아있는 곳을 가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성북동천 일이 그렇게 힘들거나 하지 않나요?
- 김 : 우리는 안 힘들다고 하지. 그런데 이거 맡고 있는 기민씨는 죽을라 그러지. 기민씨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 박 : 혹시 뭐 구청이나 서울시나 관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나요?
- 김 :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구에서 한 번 받은 거 있고 나머지는 서울미디어센터에서 다 받았죠. 미디어센터에서 지원 받은 건 액수는 그렇게 크진 않고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 박 : 그럼 운영에 대해서 지원 받은 건 없고 이런 책 발간 비용 정도만요?

## [ 55 ] 최성수(시인)

### 1. 인터뷰 개요

○ 피면담자

- 성 명 : 최성수

- 주소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직 업 : 시인이며 청소년 문학작가. 시집 『장다리꽃 같은 우리 아이들』, 『작은 바람 하나로 시작된 우리 사랑은』, 『천 년 전 같은 하루』, 『꽃, 꽃잎』을 냈으며, 청소년 소설 『비에 젖은 종이비행기』, 『꽃비』, 『무지개 너머 1,230마일』을 내기도 함. 성북동에 50년 가까이 살며 ‘성북동천’ 등의 마을 단체에서 활동 중임

○ 면담자 : 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 면담 일시 : 2016년 4월 1일 오전 10시~12시

○ 면담 장소 : 성북동 거리(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수연산방까지)

### 2. 인터뷰 내용

- 박수진(이하 박) :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68년에 이사를 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성북동에 대해서 시도 많이 쓰시고 수필 같은 것도 쓰시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 성북동에 대한 애정은 어떻게 보면 살다가 자연스럽게 생긴 건가요?
- 최성수(이하 최) : 뭐 처음에는 제가 서울에 올라 올 때만 해도 성북동이라는 데가 딱 성북동이라서 온 건 아니고 아버지 따라서 그냥 초등학교 때 올라온 거니까 그런 생각이 없죠. 그냥 사는데죠. 사는데. 근데 여기서 오래 살다보니까 뭐 우리 애들도 성북동에서 태어나서 성북동에서 학교 졸업 다 하고 뭐 그런 과정이니까 여기가 삶에서 생긴 애착인거죠.
- 박 : 선생님 그런데 이거 약간 제가 전공이 역사이고,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만약 이 사 온 동네가 그 당시에 약간 강남이나 이런 동네였다면 이런 애정이 생기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 최 :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이동이 별로 없는 동네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죠. 뭐 제가 68년부터 살았으면 꽤 오래 살았는데도 뭐 이 어른들 보면 저보다 훨씬 오래 산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성 같은 게 있을거예요. 그런데 강남이라면 그런 게 없겠죠. 당연히. 거기야 뭐 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주된 것처럼 거기도 이주된 곳일 뿐이니까. 삶의 근거지가 되기는 힘들었겠죠. 그런 면에서 성북동이기에 때문에 그런 애착이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 박 : 그러면 선생님 68년에 이사 오셨으면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지금 여기도 한옥 3개가 헐리고 건물이 순식간에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데
- 최 : 서운하죠.
- 박 : 저도 서운합니다. 산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도 서운한데 선생님이 처음 이사 왔던 시절에 성북동의 모습은 어땠을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성북천도 아직 ?되기 전일 것이고 그때 모습은 조금 어땠나요?
- 최 : 그때는 여기는 그냥 시골 같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시골.
- 박 : 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시골?
- 최 : 그러니까 보통 시골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 여기는 더 많이 몰려있는 시골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책들도 다 나직나직하고 한옥집도 많은 집들은 왜 루핑집이라고 그러죠?
- 박 : 이렇게 생긴 집들이 많았던 거죠?
- 최 : 그렇죠. 이정도 골목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 골목이었죠. 옛날에는. 이 밑에는 이렇고 저 산동네는 가난한 루핑집이나 판잣집 같은 것들이 있었고.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다른 동네에서 겪었던 것보단 훨씬 덜 바뀐거예요. 저렇게 공사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성북동이 갑자기 저렇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쪽 재개발 추진됐던 한 십년전? 한 십몇년

전쯤에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투기꾼들이 모여들고 부동산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주변에 가게  
들이 많이 생긴 거죠.

·박 : 역시 재개발 문제가 가장 많이...

·최 : 그러니까 오히려 성북동의 정체성을 재개발이 없애버리게 된 거죠.

·박 : 저는 그러면 또 궁극한 게 요즘 서울시에서도 마을 만들기가 뭐다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또 하나 없어졌네.

·최 : 여기도 금방 없어졌어요. 무섭죠?

·박 : 와 진짜 무섭네요. 저 여기 없어진지도 몰랐어요. 저 여기 되게 자주 다니는 데인데. 저도 사실 성  
북동 살거든요. 산지 한 성북동에 산지가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막 없어지는 건  
아주 최근인 것 같습니다.

·최 : 최근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니까 한옥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게 집주인들이야 뭐 이렇게 집값 올려 받고 건물지어서 어쨌든 그 삶이니까, 생  
활이니까 뭐라 그릴 수 없는데 이런걸 보면 답답하죠.

·박 : 저 근데 너무 아쉽네요. 이게 이렇게 없어졌는지는 생각도 못해가지고.

·최 : 제가 제일 아쉬워했던 게 저 위에 전등사 옆에 전등사 들어가는 입구에 한옥이 정말 좋은 게 있었  
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싸 없어졌더라고요. 그 절에서 구청에 기부체납해가지고 그래가  
지고 거기다 보육원인가 뭔가 짓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근데 한옥을 뜯어내고 그런다는 게. 근데  
뭐 없어지는 건 아쉽지만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박 : 사유재산이라서.

·최 : 그러니까 한옥을 보존하려면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한옥이 아까  
우니까 뜯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한옥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집에 자부심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계속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박 : 아까 전에 없어져서 충격을 받아서 이야기가 좀 돌아갔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오셨을 때 사람이 많이 사는 시골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이  
많은 시골이라는 표현에는 시골 같은 마을공동체가 존재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최 : 했었죠. 뭐 음식하나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먹고 이웃집에 뭐있는지 다 알고 수시로 모여서 함께  
어울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박 : 저는 요새 최근에 생각하는 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할 일이 생  
겼는데 저한테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어떤 분이 여쭙보길래 젊은 사람들은 마을만들기 사업  
에 관심이 있는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는데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마을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 : 그렇죠.

·박 :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오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장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많  
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주거공동체가 아니고 직업공동체로서는 마을이 존재하진 않  
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최 : 그렇죠.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게 저는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  
로 일어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시기에만 해도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버지  
 혼자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다른 학교 다니고 하는 식구들인데 그러  
면 동네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거죠.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고.

·박 :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요새 다 친구들도 맞벌이를 하니까 집은 거의 자는 공간이고 하니까 교류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져서.

·최 : 그렇죠. 이 골목이 아마 성북동에서 거의 드물게 옛날 모습으로 있는 골목일거예요. 내가 일부러  
이쪽으로 오자고 했는데. 차도 못 들어오잖아요 여기요. 이 집이 예전에 숨틀집이었거든요. 숨  
틀고 이랬던 집이죠.

·박 : 이쪽 골목도 다 옛날 스타일인 집이죠?

·최 : 다 옛날 스타일. 도로 포장은 했지만, 보도블록을 깔긴 했지만 옛날 모습이죠 이게. 성북동이 특  
징이 이런 골목이 있는 것도 특징이지만, 이 집들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통 가옥은 아니라도  
근대 건축 양식이 하나인 양옥집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보존을 해  
야 하거든요.

·박 : 저도 문화원에서 일 하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쪽이 1936년, 7년쯤에 이제 도시구획정리사  
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 근대 한옥들이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벌써 그게 80여년, 90여년 지난 일이라서 벌써 이게 저희 생각에도 일종의 문화재로서의 일종의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성북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문동 뭐 돈암동 다 있  
었는데 지금 너무 다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최 : 성북동도 많이 없어진 거예요. 거의, 거의 뭐 별로 없죠. 그 한옥을 살리려면 한옥을 보존하는 데  
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되고 이제는 그냥 있는 한옥만 살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니까  
가령 이런 빌라라든가 다른 집들이 이 한옥으로 집을 개조하면, 다시 하면 어떤 보조를 해준단틴  
가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해야지. 뭐 한옥마을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만들어 지는 거는 아니잖아  
요.

·박 :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제일 궁극한 모습 중에 하나가 성북동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북천의 모습이거든요. 선생님 어린 시절에 성북천이 이렇게 흘렀을 텐데 그 때 성북천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최 : 그 조선시대나 뭐 이 일제시대쯤에는 안 그랬겠지만,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는 기록에는 보면 맑  
고 깨끗하고 저 선잠단지 있는데 사한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왔던 그  
무렵은 소위 그 전쟁 후에 애들 많이 낳고 그랬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그 무렵에 사람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니까 성북천이 있긴 했지만 완전히 쓰레기장이었죠.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성북천이거든요? 이 도로 이쪽이. 저 쪽이 인도 있는 가로수 있는 쪽이. 이걸 다 하  
천이었죠. 근데 뭐 연탄재 다 갖다버리고 쓰레기 갖다버리고. 저 삼선교 쪽 육교 있던 쪽에는 그  
밑에 쪽에는 염색했던 사람도 있었고. 닭 잡는 사람도 있었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성북  
천은 옛날이에요. 옛날.

·박 : 이미 이제 60년대 후반이면 이미 소위 말하는 산업화 시대에 들어왔던 시절이라 아무래도 인구  
도 많이 몰려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여름에는 막 악취도 나고 그랬겠네요?

·최 : 아니 그 시기는 어쨌냐면, 저 한강에 나가면 똥물이 똥똥 떠갈 땐데요 똥.

·박 : 아 지금 뭐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시절이 아니라서. 또 이쪽에 선생님이 제가 알기  
로 시인이기도 하시고 하니까 이쪽에 그러면 사시면서 문화가 같은 분들 있잖아요. 워낙 많은 문  
학가들이 사셨는데 그 문학가들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기신건가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건  
가요?

·최 : 뭐 성북동에 살아서 성북동에 사는 문학자들을 안건 아니고요. 제 전공이 문학이니까. 그리고 뭐  
시를 쓰니까 그 일반적인 공부를 하다가 성북동에 그런 게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뭐  
그때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누구 시인의 집이 있고, 누구 화가의 집이 있고 이런 것은 모르죠. 그  
냥 그 당시에 성북동에 살던 예술가들도 내가 성북동이라서 산다는 개념이 아니예요. 그냥 사는  
데였죠 똥.

·박 : 여기가 우연히 이사 온 지역이 뭐 이쪽일 수도 있는 거고.

·최 :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데 같아요. 성북동이. 운수 좋은 날에도 이쪽이 나오고 김훈의 소설에도 여  
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박 : 조정래 『한강』에도 나오더라고요.

·최 : 한강에 나오는 데는 저기 동천학사. 거기. 동천학사가 지금 저기 설령탕집 있는 도가니탕 있는 그  
쪽인데. 조정래 선생이 동구여상, 동구여중 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천학사가 전라도 학사였  
어요. 그래서 그랬고, 여기 뭐 이 사람들이 잔뜩 모여 사니까. 내가 똥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 박 : 아니 뭐 이쪽에 동천학사 아까 얘기 하시다가. 문인들 얘기하시다가.
- 최 : 아 문인들. 그 사회학적으로 문인들이 여기 많이 살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시 내는 아니잖아요. 성곽 밖이니까. 근데 시내가 제일 가까워요 여기가요. 근데 옛날에는 스카이웨이, 저 쪽으로 삼청터널도 없었고 길이 없었으니까 이리 삼선교쪽으로 해서만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신중고등학교 쪽으로 난 길도 옛날엔 무서워서 잘 안다녔어요.
- 박 : 무서웠구나. 그쪽도.
- 최 : 예, 거기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뭐 사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거의 이쪽으로만 다녔거든요. 그리고 마을이 지금처럼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있고. 그 사대문 안이 가깝고. 뭐 사대문이라고 그렇기까지는 뭐하지만 그 시기는 가깝고. 시내에서 가깝고 그리고 소문이 뿔로 났다면 그래도 여기는 서울답다. 서울 같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성북동에 저 산동네로 이사를 시골에서 오셨는데, 그 무렵에 누가 창동에 미다리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땅을 사라고 여기 사지 말고. 그럼 여기에 한 몇 십 배를 살 수 있었나 봐요. 그때는 허허벌판이니까 거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만 해도, 제가 신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가 완전히 벌판이었거든요. 집들도 별로 없는. 거기는 수유리인데도 그러는데 창동은 더했죠. 그러니까 거기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런 시골구석에 내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또 거기 가서 사냐고 땅을 안사셨대요. 그럴 정도니까 성북동은 비교적 시내하고 가깝고, 사람들 인식 속에 그 당시에는 성북동이 부자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서울에 가까운데다, 서울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서울 그러면 온갖 모순과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의 서울은 사람들의 꿈이었잖아요.
- 박 : 그렇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지금 저 한옥들이 예전에는 쪽 한옥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제 기억 속에는 없지만, 이쪽에 보면 조지훈 집터도 있고. 혹시 고런 댁들은 기억나는 풍경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 쪽까지 많이 올라 오셨었나요? 선생님 예전에 사셨을 때.
- 최 : 우리 집이 이 근처예요. 이 집은 헐리기 전에 아시죠?
- 박 :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 최 : 여기가 이 동네에서는 꽤 부자 터였는데, 여기가 담이었거든요? 여기가 담이고. 이게 이제 양옥 집인데 원래. 지금도 이게 양옥집 틀이에요 그대로.
- 박 : 그 틀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최 : 예. 1층, 그 다음에 2층 이렇게 돼 있고 뭐 난간도 있고 그런 틀이고. 요 건물이 있던 데는 여기는 밭이었어요. 그냥 밭이 아니고 집안에 있는 밭.
- 박 : 아 이 집의 밭같이?
- 최 : 이 하나가 다 하나의 터였어요.
- 박 : 엄청 컸네요.
- 최 : 네. 부자였죠. 그런데 집은 낡은 양옥집이었는데 그 잔디도 깔려있고 그랬었어요. 이게 평평하고. 지금은 돌구어 졌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헐더니 이쪽은 건물을 짓고 이쪽은 이렇게 바뀌어 버린거죠. 그래서 너무 아까워했어요. 제가.
- 박 : 이 댁은 지금 만약 건물을 본인들이 짓고 한 거 면 돈을 엄청 버시겠는데요.
- 최 : 그 원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국신씨라는 사람 집이었는데, 근데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기 아들들이 이렇게 나눠가졌대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그래가지고 저쪽에는 건물을 짓고.
- 박 : 이쪽은 이렇게 하고? 선생님 댁은 이쪽에서 어느 쪽이셨어요?
- 최 : 여기예요 여기. 이쪽이 가장 옛날모습이 있는 양옥집들인데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는 이쪽은 다 한옥이었고 옛날에. 이런 한옥들. 여기는 이제 좀 낡은 양옥이었고.
- 박 : 저는 돌아다니긴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쪽을. 옛날에 어땠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사진만 찍고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 최 : 길은 똑같아요. 옛날하고. 포장이 달라지긴 했지만 넓이는 똑같고. 다 여기는 한옥집들이었고 아니면 부르크집. ब्ल록집.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도 크게 바뀐 건 아니예요 이걸요.

- 박 : 그래도 이 동네는 여전히 쌀 상회도 있고, 서울 시내에는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 최 : 이게 바뀌어도 이제 이게 한옥이거든요? 앞을 요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놨잖아요. 여기 이민우씨라고 그 구체관절 인형하고 미술 하는 분이 사가지고 했는데 요렇게 바뀌면 오히려 옛날 모습하고 잘 현대화되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제가 아는 집이니까. 근데 막 뜯어부시는 거하고 확 다르잖아요. 이 정도면. 예쁘죠? 이게 다 하신거거든 민우씨가. 원래 이게 옛날 전형적인 한옥이에요. 조그만 한옥이었는데 요걸 요렇게. 원래 한옥이 이렇게 ㄱ자거나 ㄷ자거든요. 이렇게. 근데 큰 집은 아니고 그냥 이 시기에, 그 시기에 적절한 집. 그 정도인데 이렇게 현대화하니까 옛날 모습도 있고 깔끔하기도 하고.
- 이민우(이하 이) : 시멘트가 덮혀 있었는데 벽 같은 경우에는 다 까낸 거예요. 단열문제 때문에 중간에 여기다 그냥 보드 몇 개 더 대시고 그제 시멘트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못을 쳐서 못 위에 시멘트를 바르면 시멘트가 들러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못 자국이 남아 있는거예요. 그런 못 자국이. 여기 못 자국이 수 백 개가 박혀있어요. 바르려고, 어떻게든 붙이려고 시멘트를.
- 박 : 저 문화원에서 일하는데 이번에 책도 내고 해서 책도 들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요번에 성북동 역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나름대로 책을 한권을 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됐으니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북동 살아서요.
- 최 : 문화원 이런데서 성북동을 살려줘야 우리도 잘 살지. 여기도 원래 재개발 구역이에요. 포함 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애써서 예쁘게 가꾸놓은 것들을 살려주지 않고 부시겠다는 문제인거죠 이거는.
- 박 : 구청장하고 만나서 그 때 구청장이 기자간담회 할 때 기자들한테 성북동 좀 안내해주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장도 되게 답답해하더라고요. 사유재산이라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 최 :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법이.
- 박 :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줄 모르죠. 좀 있어봐야죠.
- 최 : 녹음이 돼서 내가 얘기를 못하겠네.
- 최 :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옛날 양옥, 그리고 조금, 조금 부자인, 많이 부자 아니고 조금 부자인 동네 쪽이죠. 이쪽이,
- 박 : 그럼, 더 높게는 많이 안 사셨나요? 저 위까지 많이 사셨나요?
- 최 : 아니요.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홍익 있는 데가 끝이고, 저쪽이 채석장이었고,
- 박 : 아, 저 위에가 채석장이구요
- 최 : 홍익 있는 데가 저쪽이, 홍익 고등학교가 그 둘 께가지고 마당 넓히고 그랬잖아요,
- 박 : 그럼 이제 요 정도까지가 있던 거예요? 요 정도까지?
- 최 : 아니 요기도 있었죠. 여기도, 지금. 한번 가보실래요? 이쪽으로 가죠, 뭐
- 박 :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봄이 돼서 며칠 사이에 꽃이 폈네요.
- 최 : 전형적인 양옥집 스타일인거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정도면 중산층 이상이었죠. 거의, 정원 있고, 이 빌라들도 옛날에 다 빌라 아니었어요.
- 박 : 이런 양옥같이..
- 최 : 예 아 요런 집들이죠.
- 박 : 아 딱 요런 집들이 비슷했겠구나, 아,
- 최 : 예에, 이어져있었죠. 아마 서울에서 요렇게 그, 전통 양옥집 스타일이 보존되고 있는 데는 요기 정도가 드물게 있는 걸걸요?
- 박 : 양옥은 한 6,70년대 대부분 만들어진 것은 7,80년대?
- 최 : 아니예요, 훨씬 전이죠.
- 박 : 아 훨씬 전에 만들어졌어요?
- 최 : 그니까, 한, 한, 뭐라 그래야 하나, 한 60년대겠다.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그 쯤 되죠. 이런 집들도 전형적인 옛날 양옥집이고.

·박 : 선생님, 조지훈 집터 앞에서 우리 직원 한 명 만나기로 해가지고, 카메라 가져온다고 해서  
·최 : 아, 그래요? 그럼 도로 내려가야되겠네. 여기 다 이런, 이런 쪽으로 쭉욱 저 위까지 올라가 있고, 저기 꼭대기에는 옛날에는 집이 없었죠.  
·박 : 아, 집이 없었구나.  
·최 : 그냥 산이고  
·박 : 저기, 저쪽은 어땠어요? 경신고 쪽은,  
·최 : 저기 저쪽도 비슷해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거기도 빌라들 들어선 거 말고는.  
·박 : 아, 한옥들 쭉 있고.  
·최 : 예예, 한옥에 양옥에 뭐 이런 블록 집에 뭐 이런 거 있죠. 한옥은 그 전에 일제시대나 요 무렵부터 계속 이어진 집들이고, 그다음에 그 양옥, 요런 집들. 양옥집 요런 것들은 고게 교체되는 시기에 지어진 집들이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집들은 블록 집을 지었고, 제일 많은 거는 블록 집이었을거예요. 여기가,  
·박 : 블록집은 남아있는 게 지금 없죠?  
·최 : 저기 3번지 일대에 가면 있죠,  
·박 : 3번지 일대?  
·최 : 예, 거기 많이 있어요.  
·박 : 선생님, 저쪽 안으로 들어가면 조지훈 집터 있죠?  
·최 : 예예, 알고 있습니다.  
·박 : 그 집도 기억이 나시겠네요?  
·최 : 그냥 한옥이었어요, (당시에는 누구 집인지는) 모르고 그냥 한옥이었죠.  
·박 : 한옥이었다... 아...  
·최 : 여기 최순우 옛집도 옛날에 최순우 선생 집이있는 걸 몰랐어요. 그냥  
·박 : 다들 그러시죠. 하하하  
·최 : 그냥 학자가 뭐 하나 있나보다 그랬을 뿐이지 최순우 선생님 뭐 그렇게 널리 알려지시지도 않았었으니까, 그 시기에 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골목을 그냥 두부골목이라고 불렀어요. 그니까 최순우 옛집 바로 앞에 옛날에 두부공장이 있었어요. 요쪽으로, 밑에 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를 두부골목이라고 그랬죠.  
·박 :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저희가 식당을 했는데 아침에 동네 두부가게 아저씨들이 두부 한판씩 주고 가시면 그거 잘라서, 이렇게 그런 게 다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아 여기도 저쪽에 있었구나. 두부골목이.  
·최 : 그니까 여기가 두부골목이야 여기 크리닉 있는 안쪽이, 아침마다 두부 사러 가기도 하고 두부 배달도 다니고  
·박 : 그, 이쪽으로 들어가면 조지훈 집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다 그냥 한옥 식으로 쭉 있던 거죠?  
·최 : 그렇죠, 이 집은 이거보다 한창 낮은 그냥 양옥이었고, 목욕탕, 목욕탕, 건물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옥이었어요. 이것도 다 속이. 한옥이었고  
·박 : 이것도 지금 속은 한옥인 것 같아요  
·최 : 예, 한옥일거예요. 앞에만 이렇게 해놨지. 여기 다 한옥이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긴 하천이었고,  
·박 : 아, 여기가  
·최 : 예, 여기가 하천이었어요.  
·박 : 이것도 여기 뿔이면서 같이 뿔인 건가요?  
·최 : 여기가 하천이었고, 여기 샘물도 있었고, 요기  
·박 : 아, 샘? 아~ 샘이 있었어요?  
·최 : 한옥집에 마당에 샘물이 있었고  
·박 : 샘은 되게 맑았겠네요. 그래도,  
·최 : 그렇죠.

·박 : 아, 이쪽 물은 비교적 깨끗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최 : 깨끗했죠,  
·박 : 저쪽 물은 좀 더러워도 이쪽은...  
·최 : 근데 여기도 이제 다 연탄재 갖다버리고, 뭐 쓰레기 갖다버리고 그러니까  
·박 : 아, 비교적?  
·최 : 옛날에는 쓰레기를 치워주지도 않았으니까,  
·박 : 그쵸, 요새나 치우는 거지. 아 그럼, 저 한옥도 그러면 지금 있는 저쪽이 저 뒤에 있는 한옥들이랑 비슷했겠네요.  
·최 : 저거는 그대로예요. 이것도 그대로고 이런 한옥들은 옛날 그대로예요.  
·박 : 요 자리가 조지훈 집터니까... 비슷했겠네요. 크게 모양이.  
·최 : 이것도 한옥이거든요. 여기도 한옥이 있었고.  
·박 : 여기 한옥이 다 없어졌네. 여기 두 개만, 이쪽에서, 지금 보니까.  
·최 : 예, 뒤에는 한옥이고 그랬어요. 다. 아직 안 왔으니까 한 바퀴 뒤로 보실래요?  
·박 : 네네.  
·최 : 그니까, 이쪽은 한옥이고 여기는 쭉 다.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지 일대인데, 요기가 소위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지금 멈췄한... 저기 다 블록 집이고.  
·박 : 아, 저런 집? 사진 좀 잠깐 찍을게요.  
·최 : 예예, 거기도 옛날에는 계단이 없었어요. 그냥 비탈길이었지.  
·박 : 아 그냥, 비탈길로 쭉욱.  
·최 : 예, 옛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지.  
·박 : 제가 선생님 인터뷰도 보고 글도 쓴 거 보다가 요즘 본 시 중에 성북동에 대한 시를 발견했어요. 되게 변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덜 변했다고 하더라도, 옛모습, 근데 어쩌면 길모습보다도 더 아쉬운 게, 사람들이 공동체가 없어졌다는 게 좀 제일 아쉽긴 아쉽네요. 이런 생각도 좀 들구요.  
·최 : 그... 그게 더 심하죠. 이게 사람들이 잘 어울리고 그, 재미있는 게 제가 작년 정월 보름 무렵인가 북정마을에 갔었는데, 우리 집이 옛날에 요 산꼭대기에 살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 북정마을 이면 저쪽이잖아요. 짐사람하고 산책을 하다가 그 날 거기 무슨 월월축제는 아니고 동네 사람들 끼리 떡 해먹고 노는 날이었나봐요 근데 지나가는데 떡 먹고 가라고 막 붙들더라고요? 국도 먹고 가라고, 그래서, 붙들려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절 보고 어 옛날에 저기 그 3번지에 살던 친구 아니냐고 그 아들 아니냐고 누구 아들 아니냐고...  
·박 : 아아, 기억하시는지나.  
·최 : 네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 그렇다고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왜 내가 댁에 가서 점심도 먹고 그 아마 이렇게 그 뭐 이고 팔러다니셨나봐요. 옛날에 뭐 야채 같은 거 뭐 호박 같은 거 팔고 이러니까 그게 우리집에 오시면 우리 어머니가 밥 차려주고 그러셨대요. 그게 기억난다고... 막 국도 갖다주고 떡도 갖다주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박 : 와, 엄청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최 : 근데, 그만큼 가까웠단 얘기죠. 거기서 여기도 다 돌아다니고 서로 친하고 그랬단 얘기죠.  
·박 : 한마을이네요. 지금은 마을별로 여기는 북정마을 뭐 이렇게 하지만..  
·최 : 또 하나는 여기에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없어지기 시작한 게, 그래도 남아있던 게 없어진 게 재개발 추진되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는 거죠.  
·박 : 찬성반대로 갈리면서요?  
·최 : 찬성반대로 갈렸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기 저 꼭대기들이 주로 찬성을 했거든요? 뭐 집 한 채 준다고 다 소문이 나니까는, 줄 리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니까는 원주민들은 이미 다 세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투기꾼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박 : 보통 그렇게 되죠,



·최 : 그니까 살던 원주민들은 없어진 거죠. 거기서 그냥 세 살고 있는 거죠.  
 ·최 : 요거는 여기까지가 옛날 한옥이었으니까 옛날 골목길이 요만한 거죠.  
 ·박 : 요기가, 딱 조지훈 집 딱 하나만 없어졌네요.  
 ·최 : 요 옆에가 저렇게 되고, 주차장도 생기고 요쪽은 그대로예요. 요쪽은 여기는 하나도 바뀐 거 없  
 이.  
 ·박 : 좀 낡아 보이기도 하고….  
 ·최 : 오와, 달래 나온 거봐 달래. 달래네 이거.  
 ·박 : 저기 뭐 치우시나 본데? 음, 선생님 오늘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최 : 아유, 뭘요,  
 ·박 : 아 근데 저희가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 뭐, 인터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거보다는 저희 역할은 만  
 데서 한 것들을 많이 취합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또 하나 선생님한테 여쭙보고 싶  
 은건 이제 이미 많이 변했고 많이 지금도 변하고 있고 하는데 혹시 그 뭐라해야하지 이것만은 안  
 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성북동에서. 이것만은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최 : 그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북동의 그 이, 라인. 기본적인 라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면 길가 쪽으로 나직나직한 가게들, 조그만 가게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녁  
 때 이렇게 성북동, 삼선교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저 쪽 능선으로 아직도 그계 있어요. 저 한신 아  
 파트가 훙물이긴 하지만 쪽 올라오다 보면 이 쪽이 산 능선이 보여요. 저녁 무렵에 그 능선, 이런  
 것들이 여기 아파트라던가 고층건물이 들어오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북동의 그 고  
 즈넉한 맛이 없어지는 거죠.  
 ·박 : 아, 그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 선생님 그럼 이제 선잠단지 얘기만 하고 찾집 들어가서 차 한 잔  
 드세요. 선잠단지는 선생님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여기는?  
 ·최 : 아, 뭐, 그냥 그 지금처럼 문화재는 아니고, 별로 돌보지 않은 공터. 나무는 있었어요. 뽕나무는,  
 근데 그냥 뽕나무가 있는 덴가 보다 정도?  
 ·박 : 아, 그냥 그런 정도?  
 ·최 : 그니까 이게 문화재다, 뭐 어찌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뭐 표지판도 없었고.  
 ·박 : 그럼 그 안의 모습은 또 지금 같진 않았겠네요?  
 ·최 : 그렇죠. 지금은 말끔하게 단장이 된 거죠. 뭐 오디 따먹으러 가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박 : 아, 오디가 있긴 있더라고요.  
 ·최 : 오디 많이 달려요. 그 뽕나무 이렇게 큰 것도 드물어요.  
 ·박 : 원래 뽕나무는 이제 좀 누예를 이렇게 해야 하니까 좀 작게 놔두는데 여기는 그냥 키워가지고….  
 ·최 : 예, 그래서 보존하는 데니까.  
 ·박 : 근데 이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최 : 있었어요.  
 ·박 : 원래도 있었어요?  
 ·최 : 예, 뭐 차가 이렇게 다니지 않았으니까 한적한 길이었죠. 옛날엔 이것도 없었어요. 이 문, 홍살문  
 도 없고 나무도 많이 큰 거죠 그때보다. 그래도 지금은 선잠단지라고 이쪽에 뽕나무를 심어놨잖  
 아요. 이쪽에 학교, 이게 다 선잠단지였대요.  
 ·박 : 네, 그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확  
 히 좀 그래서….  
 ·최 : 뭐 일선에는 이 성북초등학교가 바위에 빨래 말리던 마전터에서 그런 데라고 얘기를 하던데?  
 ·박 : 예, 저희가 찾은 사진만 보면 선잠단지가 이쪽에 있고, 이쪽으로도 말렸더라고요.  
 ·최 : 내가 보기에는 그럴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작아요. 그 바위라 그래도, 그리고 여기가 넓은  
 개울이었는데. 여기가 사한이거든요? 여기가 뭐 모래 턱이 좋고 어찌고저찌고 그러는데, 여기서  
 빨래하고 그 많은 장안의 빨래를 하면 저기 아까 그 사진 찍으신 그 계단 있던 꼭대기. 거기가 다  
 바위거든요. 그 아까 샘 있다면 거기서부터 다 바위예요. 그니까 바위에다 말렸겠죠. 당연히 그

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마전터에 빨래 말리던 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이 또 그리로 흘러 내려가  
 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락원측에서 나오는 물, 이쪽 물이 합쳐지니까.  
 ·박 : 선생님이 68년에 이사 오신, 그럼 선생님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최 : 아 그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박 : 그러면 이쪽에서 노시면 어디까지 가서 노셨어요? 성북동. 다 노셨겠지만.  
 ·최 : 제일 끝이 저기 스카이웨이까지 올라갔죠.  
 ·박 : 아, 글로까지 놀러가신거예요? 스카이웨이까지? 와,  
 ·최 : 옛날에 저기 저 간송미술관, 옛날에는 박물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간송 박물관인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다닐 때, 박물관이 있다고 선생님이 맨날 거기 넘어가면 큰 개가 있다. 문다. 이  
 랐거든요? 근데 맨날 몰래 넘어가서 도토리도 줌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놀이터였죠 뭐. 거  
 기가  
 ·박 : 도성도 저런 모습은 아니었죠?  
 ·최 : 아니었죠. 다 부서졌고, 돌들만 조금 있고.  
 ·박 : 어떻게 보면 저기는 정비가 잘된 축이네요. 도성 쪽은.  
 ·최 : 예, 그니까 저기가 옛날 돌이 밑에 있고 위애가 새로운 돌인 거죠.  
 ·박 : 예, 그죠.  
 ·최 : 여기 가보면 아직 멀었어요. 경신고등학교 저기 담이 한양도성인데, 그 밑애가 옛날 돌이잖아요.  
 저 위에는 아니잖아요.  
 ·박 :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계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도 있습니다.  
 ·최 : 그계 복원을 해야 하는데, 복원이 가능할까? 요 학교 때문에.  
 ·박 : 그러니까요. 학교 담벼락이라 이게 참 애매합니다.  
 ·최 : 작년인가 그런 소문이 있던데, 저거를 삼성에서 살라 그랬대요.  
 ·박 : 삼성에서?  
 ·최 : 예, 저 경신을. 사가지고 무슨 의학연구소로 끌려고 했는데. 결국 계약이 거의 다 가다가 저게 문  
 화재니까 뭘 못 짓잖아요.  
 ·박 : 도성이? 아, 그치그치.  
 ·최 : 예, 그래서 계약이 취소됐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온갖 소문이 다 들려요.  
 ·박 : 그리고 워낙 또 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약간, 이런 질문 사실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 안하는  
 데, 굳이 질문 드리자면 성북동에 여러 역사 인물들이 많습니까? 만해 선생님도 그렇고, 조지훈  
 선생님도 있고, 이태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성북동을 제일 잘 대  
 변하는,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 분의 개인적인 업적하고는 별개로, 성북동을 제일 잘 표현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  
 ·최 : 글썄, 그 뭐 문학적이냐 역사적 평가 말고? 그냥.  
 ·박 : 네, 그냥 성북동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역사나 독립운동하면 당연히 한용운일테고. 문화재하면  
 간송일텐데. 뭐 그런거 말고 성북동에서 그래도 잘 어울린다. 그냥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냥.  
 ·최 :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름난 사람 중에서는 성북동을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은 김광섭이죠  
 역시.  
 ·박 : 김광섭? 아, 예  
 ·최 : 예, 성북동 비둘기 하나만으로도 그 현재의 성북동 모습까지 포괄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채석정  
 에 돌 깨가지고, 이 파괴되는 자연이 파괴되는 얘기하듯이, 지금도 재개발하겠다 뭐하겠다. 그러  
 면 파괴시키는 거 아니예요. 그계 고대로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시인이 살아온 내력도 그 분도 뭐  
 민주화 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온갖, 성북동에 맞는 거죠.  
 ·박 :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솔직히 한용운, 성북동에서 한용운, 이태준은 몰라도  
 ‘성북동 비둘기’는 다 알거든요. 성북동 하면 비둘기니까.  
 ·최 : 그렇죠, 제가 아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지훈 선생이 성북동에 살았다는 건 별로 유명

안 해요. 최근에 이제 막 이렇게 해놔 가지고 그런 거지. 그런데 실제로 저기에 조지훈 산장인가  
그거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조형물.

·박 : 방우산장인가 뭐가, 예.

·최 : 예, 근데 나는 거기에 했으면 성북동 비둘기에 관련된 그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게 맞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공공미술하는 그 최용환씨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내가 그런 걸 맘대로  
할 수 있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그 친구하고 저하고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저런 게  
있어요. 그 햇볕이 비치면 그게 반사되가지고, 글씨가 새겨지는, 그래가지고 전에 그 작업은 서  
울시 문화재단인가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했던 건데.

·박 : 서울문화재단에서?

·최 : 예, 서울문화재단에서, 자기 집 위에 햇빛이 비치면 그 집 딸이 쓴 글. 딸이 뭐 3대가 이집에서 살  
았는데. 그게 짝 새겨지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든대요. 근데 되게 특별한 작업  
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북동 비둘기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어주  
면. 가장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는데, 저거는 흉물이에요. 지금.

·박 :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 나무도 다 죽었고.

·박 : 요기가 쌍다리지 않습니까 선생님, 여기 쌍다리는 다리가 어느 쪽에 있었나요?

·최 : 여기가 하천이에요. 여기가

·박 : 여기가 하천이고,

·최 : 이렇게 건너가는 다리죠.

·박 : 두 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최 : 하나는 돌다리였다고 그러고, 하나는 나무다리였다고 그러던가.

·박 : 그 그림에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도 하천이었다고,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하천이 있었다고,

·최 : 여기는 하천 아니었어요. 여기는 좁은 길, 좁은 골목길이었죠. 여기 하천 아니었는데,

·박 : 아 그래요?

·최 : 하천이었나? 아, 저기서 하천이 있었어요.

·박 : 아, 저위에서?

·최 : 하천이 있었으니 이쪽으로 내려왔나? 나도 정확히는 판단이 안 서는데, 하천이었던 거 같다. 그  
게 복개됐죠. 여기는 한옥들이 있던 동네는 아니고.

·박 : 이쪽은요? 아,

·최 : 여긴 집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긴

·박 :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좀 상류 쪽이니까.

·최 : 여기도 뭐 덕수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고,

·박 : 선생님 그럼 또 하나, 이쪽에는 그럼 이쪽 천변으로 옛날 초가집 같은 게 좀 보이는데, 이쪽에는  
초가집이나,

·최 : 초가집이 아니고 블록집.

·박 : 예, 블록집들이 이쪽에 있었던 거죠?

·최 : 예, 블록기어집. 그게 원래 있었던 거죠.

·박 : 이게, 이쪽에 천이 이쪽에 흘렀으니까 이쪽은 국유지예다가 그냥 천변예다가 막 지은 거죠?

·최 : 그렇죠. 하천부지죠.

·박 : 옛날에 여기 보신탕 집 있던 데 거기도 그럼 다 그 때 국유지예다가 이렇게 지었던 블록집, 그 형  
태죠 이게?

·최 : 예, 그 형태죠 이게.

·박 :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 여쭙볼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대표적인 인물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  
지로 대표적인 문화재나 건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또 선생님이 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최 :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성곽이겠죠. 뭐,

·박 : 성곽? 아, 성곽, 하긴 성북이란 이름도 뭐 그런데서 나왔으니까.

·최 : 성곽이고, 그 다음에 뭐 굳이 얘기한다면 애들이, 우리 또래가 제일 잘 좋아했던 놀기 좋았던 데  
는 성락원인데, 그, 막아버렸잖아요. 우리 때는 몰래 들어가서 놀고 그랬어요. 가재도 잡고, 그  
뒤에 계곡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가

재 잡고 그랬어요. 그 당시 뭐 들어간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았고.

·박 : 저희는 성락원을 또 화요일날쯤 한 번 가게 되거든요. 그쪽에 저희도 뭐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상  
황은 아니고 구청 통해서 언제 개방하나 계속 물어보는데 올 가을이 목표라고 했는데

·최 : 될까요?

·박 : 근데 제 생각에는 개방을 해도 입장료를 지금 가구박물관 하듯이 많이 받고 고급코스화해서 이  
렇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  
다.

·최 : 그건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박 : 그쵸, 좀 좋은 건 다 같이 보고 좀 즐겼으면 하는데.

·최 : 아니, 뭐 하루에 입장객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박 : 굳이 가격이 비싸지는 건 좀,,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그 성북동천 활동을 하시잖아요. 성북동에  
관한 글을 워낙 많이 쓰셨지만, 성북동천이라는 어떤 조직, 단체, 조직?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최 : 성북동천이 만들어질 무렵에 뭐, 직접적인 거는 서울 희망제작소에서 서울시에 하청을 받아가지  
고 마을학교를 열었던 게 직접적인 계기지만 실제로 내부적인 거는 고 무렵이 성북동에 그 토박  
이들 말고 성북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살거나, 혹은 여기  
에서 카페를 열거나 이랬던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하고 성북동의 토박이었던 사람들  
하고 토박이었던 사람들 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나이든 사람들이 우리 성북동  
천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니까 그 투기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너무 좋으  
니까 재개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돌아선 분이 있어요.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성북동에 대한 인식을 바꾼 사람들이 있으면서 아마 내재적으로는 그런 모임이 가능했던 것 같  
아요.

·박 : 선생님도 그럼 이런 취지에 동감해서,

·최 : 저는 이제 그 때, 학교를 명퇴했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데 희망 제작소 사람이 찾아왔더라구요. 시  
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성북동에 사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  
가게 됐죠.

·박 : 음, 토요일엔 자리가.

·최 : 예, 밖이 더 좋지 않나?

·박 : 밖에서 드실까요?

·최 : 예, 밖이 좋죠. 여기. 수수 꽃다리 그늘이 여기가 꽃 피면 참 좋은데. 여기서 제가 옛날에 술 많이  
마셨어요.

·박 : 술 드셨어요?

·최 : 여기서.

·박 : 아 여기 밖에서.

·최 : 내 아는 친구 중 한 사람은 여기가 좋아서 이 근처로 이사 온 사람도 있어요.

·박 : 아이고 이제 차드시죠.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10.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방안

## [ 56 ] 성북구 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정의

### 1. 문화자원의 개념

- 자원(資源)은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하는 원료'의 의미로 생산재의 역할을 담당
  - 과거의 자원은 재화와 용역, 사물과 행동에만 국한
  - 지식기반사회가 형성되면서 자원은 지식과 문화에도 적용
- 냉전 종식 후 탈 이념화와 함께 세계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가 됨
  - 현재 문화는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생산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문화가 생산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문화와 지역문화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줌

### 2.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 기존 아카이브라는 용어는 문서/음향/영상 기록물의 보관/보존을 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
  -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발굴, 수집하여 보관/보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보관소 혹은 보존소로 사용
  - 물리적 자료라는 특징 때문에 상태 보존이 중요하므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음
-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아카이브는 단순히 보관/보존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공개, 서비스까지 업무 영역 확대
  - 자료의 디지털화로 자료의 접근, 복사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
  - 지식기반사회로 들어서면서 일반인들이 여러 자료들을 접하면서,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 따라서 디지털 아카이브는 디지털화를 통하여 자료를 항구적으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재가공하여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시스템임

### 3. 지역 문화자원 아카이브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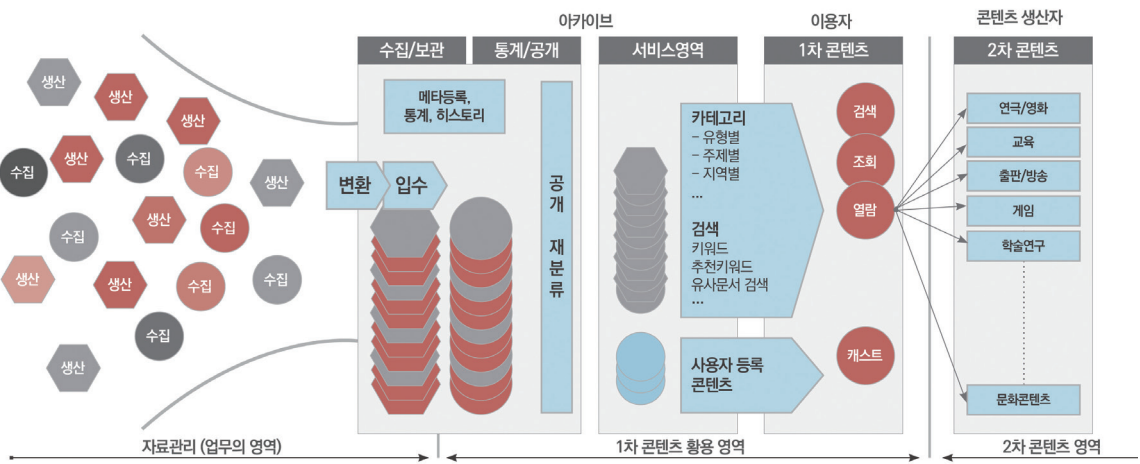
- 지역 문화자원 아카이브는 지역민의 참여와 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역민의 생활문화 기록
  - 개인기록물과 지역의 문화가치를 재조명
  - 지역 공동체의 커뮤니티 발전과 정체성 확보에 기여



[그림149] 지역 문화자원 아카이브의 특징

### 4.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의 개념 및 범위

- 성북구는 북서로는 북한산, 동서로는 정릉천과 성북천이라는 자연지리를 갖추고 있고, 서울성곽, 정릉, 간송미술관 등 다양한 유적지와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며, 새롭게 문화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문화를 재창조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음
- 성북문화원은 1996년 설립 이래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수행
  - 각종 연구 사업을 통한 성북구의 여러 문화자원 조사·연구
  - 문화 강좌를 통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장학 사업을 통한 인재 육성
  - 활발한 문화 교류 사업
-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는 성북문화원을 중심으로 발굴·수집·연구·생산·관리·활용하는 문화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를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On-Line 방식의 문화자원 관리 시스템을 의미
-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에서의 문화자원의 범위는 1차적으로 성북문화원에서 발굴, 수집, 연구, 생산, 관리, 활용하는 지역문화자원으로 규정하며, 2차적으로는 성북구 내의 다양한 문화 단체 및 기관이 소장한 문화자원들을 성북문화원이 조사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협약한 지역문화자원을 포함
-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성북구 내의 문화자원으로 한정
-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의 시간적 범위는 지역과 관련해서 과거에 남긴 문화유산 등의 지역문화자원을 포함하며, 현재 생산하고 있는 지역문화자원까지도 대상으로 함



[그림148] 디지털 아카이브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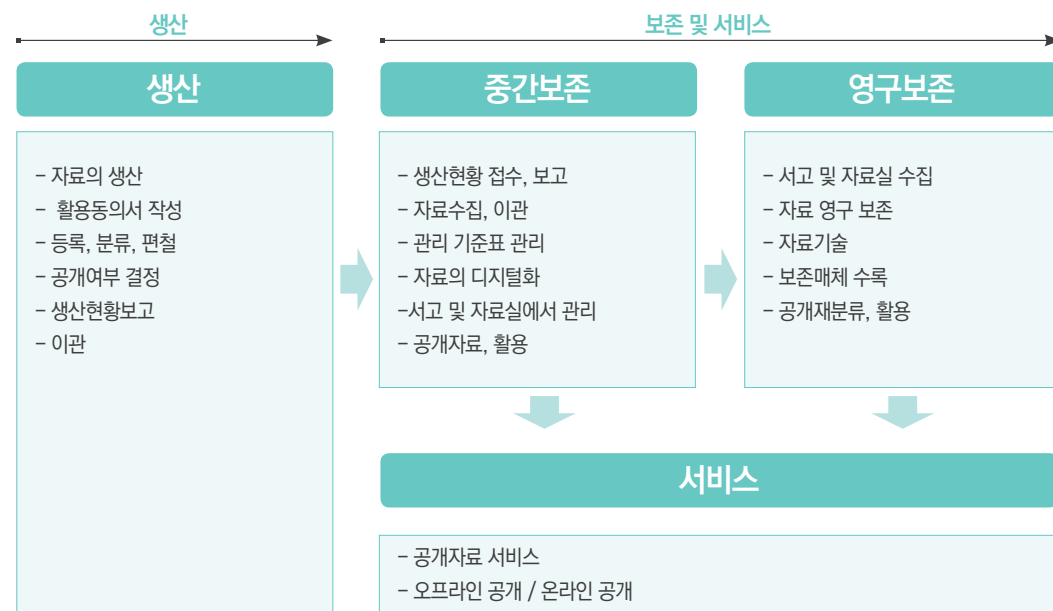


[그림150] 성북문화자원 아카이브에서의 문화자원의 범위

## [ 57 ]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방안

### 1. 성북구 문화자원 관리 체계 구축

- 일반적인 자료관리 절차는 생산, 중간보존, 영구보존 3단계를 거침
  - 생산 단계에서는 자료를 생산하고, 생산 시 활용 동의서를 받기도 하며, 생산된 자료의 등록·분류·편철이 이루어지며, 공개여부가 1차적으로 이루어 짐
  - 중간 단계에서는 생산현황을 접수·보고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관리 기준표를 관리하며, 자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후 공개를 위해 재분류 된 후 공개가 가능한 자료는 서고 및 자료실에서 관리되어 활용됨
  - 영구보존 단계에서는 중간 단계에서 관리되던 자료들을 수집하여 자료의 내용을 기술하고 보존 매체에 수록하여 영구보존하고, 공개가 가능한 자료는 재분류되어 활용됨
  - 서비스 단계는 중간보존과 영구보존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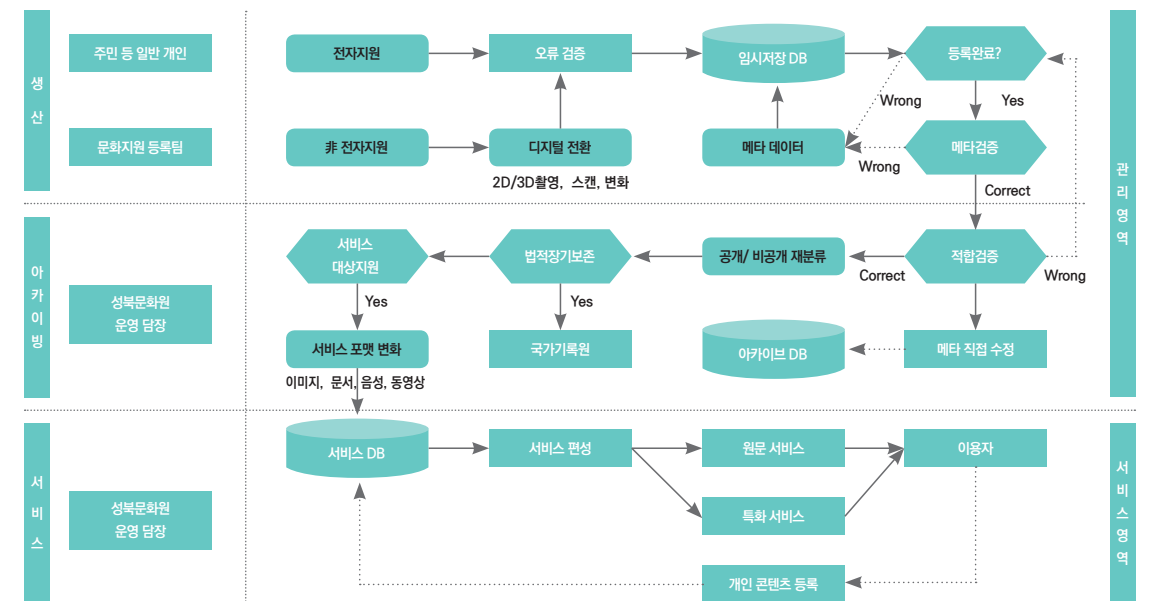


[그림151] 일반적인 자료관리 절차

-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료관리 절차를 따르면서 생산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을 고려
  - 지역민이 지역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장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시스템 내에서 주민 간 커뮤니티 형성
- 서비스 단계에서 수집된 문화자원들을 재가공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공
  - 수집된 자원들의 단순 열람이 아닌 지역민 및 타지역민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사용 환경 개발
  - VR, 문화지도, 역사지도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 2.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문화자원 디지털화
  - 성북문화원이나 문화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류류, 포스터, 일반 사진, 음원 등의 디지털화
- 문화자원 분류 체계 확립
  - 문화자원을 공간, 시간, 주제, 형태별로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검색 및 활용에 용이하도록 구축
- 문화자원 메타데이터 작성
  - 수집된 문화자원에 대한 상세한 메타데이터를 작성
  -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집 및 생성 시부터 관리표를 작성
- 관리자/서비스 시스템 구축
  - 관리자 시스템에는 등록자별로 권한을 부여하여, 성북구 주민들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아카이빙에 대한 최종 등록은 성북문화원 관리 담당자가 수행
- 서비스 콘텐츠 개발
  - 아카이브의 주요 사용자를 정의하여 이용자별로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
  - 향후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고려하여 UI 등을 구축



[그림152]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 Workflow



## [ 58 ] 문화 사업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1. 문화 사업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는 현용자료와 비현용자료 모두를 관리하기 때문에, 성북구나 성북문화원이 새로운 문화 사업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고 자료 제공
- 주민들과 소통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아이디어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가능
- 지역민이 주도하는 마을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 및 방식 제공 및 행사 홍보

### 2. 성북구 내 다양한 문화행사 및 문화자원 홍보

- 실시간으로 성북구 내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민들 및 타지역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며, 문화지도 및 지식맵을 통하여 성북구 내 다양한 문화자원을 알림으로써 관광객 및 문화행사 관람객 유치
- VR 및 AR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박물관을 구축함으로써 성북구의 다양한 문화자원 홍보

### 3. 학교 및 문화 강좌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

- 성북구 문화자원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원자료 및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자료로 활용
- 원자료 공개를 통하여 성북구 지역에 관한 전문 연구 활성화

### 4. 문화콘텐츠 기획자 및 스토리텔러 등에게 아이디어 제공

- 문화콘텐츠 기획자 및 스토리텔러 등에게 다양한 스토리를 제공함으로써, 출판, 영화, 연극, 음악 공연 기획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활성화



[그림153] 성북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뮤지컬 '심우'(2014~)

## 11. '성북동 박물관' 건립 방안

### [ 59 ] '성북동 박물관' 건립 방안

#### 1. '성북동 박물관'(가칭) 건립의 필요성

- 성북동의 역사, 문화, 예술 조명 및 각종 기록, 자료의 보존 관리
- 성북동의 역사문화 전통의 계승과 지역 정체성의 유지, 계발
- 시민, 학생, 어린이 대상 역사교육의 장 마련
- 성북구 내 역사문화공간의 확충
- 성북동 도보관광 관리·활성화를 위한 관문 또는 센터 역할

#### 2. 지역박물관 건립 및 운영 사례

- 일본
  - 지역 박물관
    - 후쿠이현 현립박물관, 시가현 현립박물관, 비와코 문화관 및 현립비와코박물관, 교토시 역사자료관, 우지시 역사자료관, 오사카 역사박물관
  - 건립 목적
    - 지방사 편찬 또는 역사문화자원 조사 정리 후 활용을 꾀하기 위한
      - 지방사 관련 전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지역에 소재한 유물, 사진, 생활자료의 분산을 방지
      - 단순히 수집된 자료의 보존 전시 활용에 머물지 않고 자료 수집 작업의 지속적인 중심으로서 기능
    - 지속적인 지역연구활동의 중심 기능 수행



[그림154] 오사카 역사박물관과 전시실 내부  
(큰 건물의 일부 층만을 활용하였으며 모형을 통한 19세기 오사카를 복원)

#### ○ 국내

- 지역 박물관(개관일)
  - 통영시립박물관(2013. 9.)
  - 경산시립박물관(2007. 2.)
  - 원주역사박물관(2000. 11.)
  - 정읍시립박물관(2012. 6.)

- 특성
  - 역사문화 전통에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통영, 원주)
  -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민속 자료의 수집이 시급한 지역(경산, 정읍)
  - 입지, 전시 수준에 따라 연 방문인원 격차가 많음

3. 성북동박물관의 개념과 내용

- 명칭 : 성북동박물관, 성북동뮤지움
  - ‘성북동’이라는 지명이 박물관 명칭에 명시되는 특성화 공간
- 내용 : 근·현대 진보적 문화와 예술의 사회사
  - 성북동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인 근·현대 역사, 문학, 예술 망라
  - 역사 :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성북동의 역사 및 비전 제시
  - 문학 : 근현대 성북동 관련 문학 작품, 작가, 문학인 그룹
  - 예술 : 근현대 성북동 관련 예술, 예술인, 예술인 단체
  - 성북동 탐방의 홍보관 및 공연공간, 휴게공간 기능
  - 글로컬학(국제지역학), 아카비움 공간으로서의 센터 기능
- 건립 추진 방향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식물박물관, 문학관 등은 서울시와 협의해 예산을 성북동박물관으로 통합해 나가야 할 것
  - 훈민정음 등의 부분은 현재 국립 한글박물관, 세종이야기 등이 용산 박물관 단지, 세종로 등에 집중 전시되고 있어 성북동이 훈민정음에 큰 가치를 부여하여 구현하는 것은 효용성 낮음
  - 간송미술관은 기존의 전통 미술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성북구립미술관은 현대미술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성북동박물관은 역사관, 홍보관, 문학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별도 정립
  - 향후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도 전시기획을 위해 역사, 문학, 예술 분야 학예사 채용 후에 추진되어야 바람직함
  - 시민들의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 규모,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부지 확보
  - 텍스트, 문서, 책 등의 자료 위주가 아니라 영상, 이미지, VR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입체적 전시공간 연출이 바람직함
  - 성북동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성북동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언어적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대효과

- 성북동의 역사, 문학, 예술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 → 성북동 대표적 상징 공간
- 전시, 연구, 홍보 등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중심센터 역할
- 식물박물관의 콘텐츠 빈약 문제 해소 → 역사 파트에 식물박물관 내용 포함
- 별도의 문학관, 식물박물관이 아닌 단일한 박물관 조성을 통한 예산, 인력의 집중화
- 성북동 방문자가 이용하는 성북동 탐방의 첫 공간, 만남의 공간

5. 전시·교육프로그램 스토리 라인(안)

- 성북동 역사
  - 조선시대의 성북동 (선잠단 및 식물관련 내용 포함)
  -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와 활동
  - 현대 진보적 지식인과 활동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달동네와 부유층
  - 고급음식점(요정) 한국 현대사
  - 역사문화지구로의 성북동의 변화, 비전
- 성북동 문학
  - 성북동 관련 문학작품(거주장소, 집필장소, 작품배경)
  - 성북동 문인
  - 성북동 문인의 교류

- 성북동 예술
  - 아방가르드 예술의 산실
  - 예술작품과 예술인
  - 예술인 그룹·커뮤니티



## [ 60] 성북동 도보 관광 코스 운영

### 1. 운영 방안

- 성북동의 역사문화 명소들을 지근 거리에 두고 있는 입지 조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도보 탐방을 박물관 상설 프로그램화 운영
- 도보 탐방 코스의 관리, 안내, 해설을 성북동박물관 내 담당팀을 설치하여 총괄·운영
- 과거 성북동의 주요 역사문화인물들이 평소 즐겨 찾던 길을 탐색하여 작은 이정표를 설치하고 도보 탐방 코스로 개발·활용

### 2. 성북동 도보 탐방로(안)

- 북둔 가는 길 ①
  - 코스 : 혜화문 - 경신고 담벼락 - 선잠단지
  - 근거 : 채제공, 「유북저동기」. 박제가, 「혜화문을 나와 성을 끼고 서쪽으로 2리를 가면 창고가 나오는데 성 북둔이라 한다」
- 만해의 지름길 ②
  - 코스 : 심우장 - 북정마을 - 와룡공원 - (안국동 선학원)
  - 근거 : 김삼웅, 『만해 한용운 평전』, 479쪽.
- 청년지사들의 골목 ③
  - 코스 : 평화의소녀상 - 옛날중국집 주변 한옥 골목
  - 근거 : 성북문화원,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심층조사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 이태준의 애움길 ④
  - 코스 : 성북동 쉼터 - 한양도성 암문 - 북정마을 - 심우장 - 수연산방
  - 근거 : 이태준, 「城」(수필)
- 김용준의 겨울산책길 ⑤
  - 코스 : 수월암(옛 노시산방 부근) - 삼청각(옛 청룡암 부근) - 숙정문
  - 근거 : 김용준, 「겨울 달밤 성북동」
- 김광섭의 봄길 ⑥
  - 코스 : 참나무답나라 ↔ 원익스카이빌(김광섭 집터)
  - 근거 : 김광섭, 「봄」(1965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회복기의 병상에서 처음 쓴 시)
- 조지훈의 풀잎길 ⑦
  - 코스 : 나폴레옹과자점 - 조지훈 집터
  - 근거 : 조지훈, 「돌의 미학」(수필)
- 윤중식의 노을길 ⑧
  - 코스 : 성북구립미술관 - 마전터 - 윤중식 가옥(성북로 14가길 13-14)
  - 근거 :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잊혀져 가는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 성북동2』
- 길상사 가는 길 ⑨
  - 코스 : 작은형제회수도원 - 성북동성당 - 길상사
- 근대 한옥 골목 ⑩
  - 코스 : 우리농산물직판장 - 하단 - 옛날중국집 - 한옥골목 - 최순우옛집
- 박물관 가는 길 ⑪
  - 코스 : 한국가구박물관 - 우리옛돌박물관 - 최순우옛집
  - 이동 : 마을버스 성북02번

### 3. 성북동 도보 탐방 코스별 지도



[그림155] 성북동 도보탐방 코스별 지도

# 5장.

## 결론과 제언

1. 결론
2.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할 키워드
3. 제언



1. 결론

○ 총괄

- 성북동의 공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변화, 항일독립운동과 신문화운동의 실상을 통시 적으로 규명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의 범주 확대와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목록』 작성을 통한 한국 근현대사의 축도이자 도 표로서 성북동의 위상 강화
- 성북동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맥락 적, 연계적,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시
- 성북동 아카이브 구축 및 박물관 설립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목록화 및 스토리라인 제안

○ 역사 분야

- 사적 및 관련 문헌의 심층 조사 및 도식화(성곽, 성문, 각자성석, 어영청, 성북둔)
- ‘북둔도화’ 관련 한문학 작품 전수조사(한시 480편, 산문 3편)
- 공간 변화의 성격 규명과 지도 자료의 정리
- 성북동 출신 및 거주 독립운동가 현황 추가 파악 및 집터 현장조사 (민족주의계열 13명, 사회주의계열 17 명) → 건국 포장 추서 요청 예정
- 근대 신문화운동의 산실로서 성북동 문화예술인의 작품활동 및 교류양상 관련 자료 정리
- 월·남북인사 현황 파악 및 종전평화운동 관련 자료 정리
- 인구증가 및 도시화 진전으로 인한 급속한 공간 변화의 실상을 연대순으로 정리

○ 문화예술 분야

- 성북동 관련 현대문학(인)의 범주 대폭 확대 및 관련 작품, 사례 발굴
- 『자유문학』 등 1950~60년대 문학잡지를 중심으로 성북동 내 문인교류의 실상 파악 및 인적 연결망 확대
- 성북동 미술인들의 작품활동의 성격 설정 및 관련 작품, 사례 발굴
- 박물관, 미술관 탐방 코스 제시
- 성북동의 주요 건축물을 목록화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건축 문화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규명
- 주요 건축 문화자산 정리 및 보존과 활용 방안 제시(面 단위 보존을 통한 역사문화의 보전)
- 성북동 주민 및 관련 인사 구술 인터뷰 진행 및 기 구술 자료의 수집, 정리(40건)

○ 활용 분야

- 역사문화자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방법론 설정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플로우 제시
- 성북동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제안
-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스토리 라인 제시

2.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할 키워드

○ “봄빛을 꿈꾸며”

- ‘봄빛’의 의미 : 생명, 배려, 희생, 화해, 공존, 평화
- 춥고 어두운 시대에 다가올 새 봄을 기다리며 살아간 성북동 사람들

○ “도전과 공존의 마을”

- 척박한 시대 속에서 도전적으로 추구한 삶과 예술
- 옛것과 새것이 하나의 울타리 속에 조화롭게 공존하는 마을

○ “근현대 진보적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성북동에 거주했던 위대한 문인, 화가 등 예술가들의 실험정신과 창조적 교류
-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사의 한 축도이자 도표로서의 성북동

3. 제언

○ 독립운동가 건국포장 신청

- 이번에 독립운동가 문석준 외 3명에 대하여 건국포장을 신청하고 성북동만이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굴한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들도 건국 포장 신청을 건의

○ 역사문화분야 협력 관계 구축

- 성북(동, 구) 인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역사문화 프로그램 개발
- 가능한 인물 : 한용운(충남 홍성, 강원 인제) 조소앙(경기 양주), 안재홍(경기 평택), 이태준(강원 철원), 윤 이상(경남 통영), 채동선(보성), 정지용(충북 옥천), 조지훈(경북 영양) 등
- 성북구에서 만든 뮤지컬 ‘심우’와 같은 작품은 인제의 만해축전이나 홍성의 만해기념제 등에소개하여 교류

○ 미술관 투어 프로그램 개발

- 성북동에 소재한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를 연결하는 미술 투어 프로그램 개발

○ 문학작품 원본 구입

- 성북동 문학 관련 단행본, 잡지, 원고, 기타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
- 성북동 박물관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건립 전에 반드시 꾸준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

○ 미래유산 지정 건의

- 성북동의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건축물이나 유무형 유산을 조사하여 보존 대책 마련 및 미래 유산 지정 건의

○ ‘성북동 박물관’(가칭) 건립

○ 성북 아카이브 구축

## 부록



1. 성북동의 문화재

○ 일반 현황

| 총계 | 국가지정문화재 |    |    |    |           |           |    | 서울시지정문화재 |            |            |            |         | 기타 |        |        |
|----|---------|----|----|----|-----------|-----------|----|----------|------------|------------|------------|---------|----|--------|--------|
|    | 소계      | 국보 | 보물 | 사적 | 중요 무형 문화재 | 중요 민속 문화재 | 명승 | 소계       | 서울시 유형 문화재 | 서울시 무형 문화재 | 서울시 민속 문화재 | 서울시 기념물 | 소계 | 문화재 자료 | 등록 문화재 |
| 40 | 26      | 12 | 10 | 2  | 0         | 0         | 2  | 9        | 5          | 1          | 2          | 1       | 5  | 1      | 4      |

○ 국보(12)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일      |
|----|------------|------------------|--------------------------------|----------|
| 1  | 국보 제65호    | 청자 기린형뚜껑 향로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2.12.20 |
| 2  | 국보 제66호    | 청자 상감연지원앙문 정병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2.12.20 |
| 3  | 국보 제68호    |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2.12.20 |
| 4  | 국보 제70호    | 훈민정음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2.12.20 |
| 5  | 국보 제71호    | 동국정운 권1,6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2.12.20 |
| 6  | 국보 제72호    |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2.12.20 |
| 7  | 국보 제73호    | 금동삼존불감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2.12.20 |
| 8  | 국보 제74호    | 청자 오리모양 연적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2.12.20 |
| 9  | 국보 제135호   |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70.12.30 |
| 10 | 국보 제149-1호 | 동래선생교정복사상절 권4, 5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73.7.10  |
| 11 | 국보 제270호   | 청자 모자원숭이모양 연적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92.4.20  |
| 12 | 국보 제294호   |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97.1.1   |

○ 보물(10)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일     |
|----|----------|------------------|--------------------------------|---------|
| 1  | 보물 제238호 | 백자 박산형뚜껑 향로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3.1.21 |
| 2  | 보물 제283호 | 금보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3.1.21 |
| 3  | 보물 제284호 | 금동여래입상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3.1.21 |
| 4  | 보물 제285호 | 금동보살입상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3.1.21 |
| 5  | 보물 제286호 | 청자 상감포도동자문 매병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3.1.21 |
| 6  | 보물 제287호 | 분청사기 박지철채화문 병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3.1.21 |
| 7  | 보물 제348호 |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반합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3.1.21 |
| 8  | 보물 제349호 | 청자 상감국화모란당초문 모자합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63.1.21 |
| 9  | 보물 제579호 | 과산 외사지 승탑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74.10.2 |
| 10 | 보물 제580호 | 문경 오층석탑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74.10.2 |

○ 사적(2)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일     |
|----|---------|---------|---------------------|---------|
| 1  | 사적 제10호 | 서울 한양도성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삼선동    | 63.1.21 |
| 2  | 사적 제83호 | 서울 선잠단지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7 (성북동) | 63.1.21 |

○ 명승(2)

| 명승(2)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일     |
|-------|---------|---------|---------------------|---------|
| 1     | 사적 제10호 | 서울 한양도성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삼선동    | 63.1.21 |
| 2     | 사적 제83호 | 서울 선잠단지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7 (성북동) | 63.1.21 |

○ 서울시 유형문화재(5)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일      |
|----|-----------------|------------|--------------------------------|----------|
| 1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8호  | 삼층석탑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74.05.12 |
| 2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호  | 석조팔각승탑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74.05.12 |
| 3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0호  | 석불입상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74.05.12 |
| 4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1호  | 석 비로자나불좌상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74.05.12 |
| 5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4호 | 팔정사 목 보살좌상 | 서울 성북구 성북로31가길 82 (성북동, 팔정사)   | 04.07.26 |

○ 서울시 무형문화재(1)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예능보유자 | 지정일      |
|----|----------------|-----|------------|-------|----------|
| 1  |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3호 | 매듭장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김은영   | 96.12.31 |

○ 서울시 민속문화재(2)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일      |
|----|----------------|------------|---------------------------------|----------|
| 1  |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0호 | 성북동 이종석 별장 | 서울 성북구 성북로 지하 131 (성북동, 덕수교회 내) | 77.03.17 |
| 2  |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1호 | 상허 이태준 가옥  | 서울 성북구 성북로26길 8 (성북동, 수연산방)     | 77.03.17 |

○ 서울시 기념물(1)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일      |
|----|-------------|------------|------------------------|----------|
| 1  | 서울시 기념물 제7호 | 만해 한용운 심우장 | 서울 성북구 성북로29길 24 (성북동) | 84.07.05 |

○ 문화재자료(1)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일      |
|----|----------------|-----------|------------------------|----------|
| 1  |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37호 | 마포 최사영 고택 | 서울 성북구 선잠로 68-20 (성북동) | 07.05-30 |

○ 등록문화재(4)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일      |
|----|---------------|--------------------------|------------------------------------------|----------|
| 1  | 등록문화재 제268호   | 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            | 서울 성북구 성북로15길 9, 128-18 (성북동, 혜곡 최순우기념관) | 06.09.19 |
| 2  | 등록문화재 제470-4호 |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 서울 성북구 성북로 49 (성북동, 화봉문고)                | 11.02.25 |
| 3  | 등록문화재 제544호   | 김선희 혼례복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13.08.27 |
| 4  | 등록문화재 제655호   |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 구 본원 | 서울 성북구 성북로24길 3 (성북동, 복자사랑피정의집)          | 15.12.16 |

2. 성북동의 문화시설 및 단체

|         |              |                                                                                                                                                                                                                                                                                  |
|---------|--------------|----------------------------------------------------------------------------------------------------------------------------------------------------------------------------------------------------------------------------------------------------------------------------------|
| 문화예술시설  | 구립문화예술시설     | 성북구민/여성화관, 성북문화원, 성북구립미술관, 성북예술창작터, 성북동갤러리, 성북동글로벌빌리지센터                                                                                                                                                                                                                          |
|         | 상업문화복합공간     | East4, ANDO, 문경래, 알로하공작소, 티티카카 등                                                                                                                                                                                                                                                 |
|         | 갤러리 및 전시장    | 스페이스 캔, 스페이스 오뉴월, 레지던스 스튜디오, 최순우 옛집, 한국서예관, 효재 등 다수                                                                                                                                                                                                                              |
|         | 극단           | 극단 현장, 극단 노릇바치, 창작극장, 극단 도마위 뱀, 일상지하 등 다수                                                                                                                                                                                                                                        |
| 인적 네트워크 | 비영리단체        | 녹색연합,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사)한국청년연합, (사)문화연구소 등                                                                                                                                                                                                                                   |
|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대지를 위한 바느질, 캔 파운데이션, 동네국수(마을기업) 등                                                                                                                                                                                                                                                |
|         | 마을만들기지원사업단체  | 오뉴월 신나는 문화놀이터 이랑, 성북동의 아름다운 사람들(성아들), 효자손 카페 동네 한해방, 성북동천                                                                                                                                                                                                                        |
|         | 마을 주민 모임     | 북정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북사모), 선잠마을 사람들,                                                                                                                                                                                                                                               |
| 종교시설    | 불교           | 길상사, 정법사, 약사암, 전등사, 연화사, 육화사, 금강사, 법천사, 칠보사, 보덕사, 수월암, 실상선원, 성라원, 흥련사, 팔정사, 대성사, 관음사, 구룡암, 청룡암, 통일법당 (※ 전통사찰 : 정법사)                                                                                                                                                              |
|         | 기독교          | 덕수교회, 성북제일교회, 아름다운교회, 성북교회, 성북중앙교회, 창성교회, 영광교회, 용광교회                                                                                                                                                                                                                             |
|         | 천주교          | 성북동 성당, 그리스도왕선교수녀회(한국본부), 글라렛선교수녀회(서울양성소), 글라렛선교수도회(티엠폰신성모성심의아들들의선교수도회), 느베르애덕수녀회, 로사리오 성모의도미니코수녀회, 마리아의작은자매회(양성소), 사랑의씨튼수녀회(마더씨튼집), 위로의성모수녀회(본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프라도사제회, 필리핀외방선교회,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서울본원),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복자사랑본원/피정 의집),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본원), 한국외방선교회(본부), 한국외방선교회(최요한 신학원) |
|         | 음식점          | 대표 음식점                                                                                                                                                                                                                                                                           |
|         |              | 삼청각, 선동보리밥, 성북동메밀수제비·누룽지백숙, 성북동돼지갈비집, 수연산방, 쌍다리식당, 안동할매청국장, 전통설령탕, 곰의집, 금왕돈까스, 서울돈까스, 슬로우가든, 씨리어스델리, 오박사네돈까스, 국시집, 성북동집, 우리밀국시, 섭지코지, 나폴레옹 (※ 출처 : 성북동지도)                                                                                                                        |

3. 일제강점기 성북동 기사(신문)

| 신문명  | 날짜         | 면수 | 단수 | 기사제목                                                                                                                        |
|------|------------|----|----|-----------------------------------------------------------------------------------------------------------------------------|
| 동아일보 | 1921-10-01 | 3  | 9  | 민립 피병원 건축 착수, 동소문밖 성북동에 방금 병실을 건축중                                                                                          |
| 동아일보 | 1921-10-06 | 3  | 4  | 성북동에 강도 8명, 어제 새벽에 8명의 강도가 단도를 들고 과부의 집을 침입//삼청동 송림에서 1명 체포, 동대문서 손에 한 명은 잡히어                                               |
| 동아일보 | 1921-10-08 | 3  | 4  | 城北洞 과부 장동옥 집의 강도 범인, 네명은 동대문서에 체포,한 명은 인천방면에 도주                                                                             |
| 동아일보 | 1921-10-10 | 3  | 4  | 종신징역의 전과자, 동대문서에 잡힌 성북동 강도 공범자는 분명히7~8명 가량                                                                                  |
| 동아일보 | 1921-11-26 | 3  | 7  | 성북동에 대시(大豺) 출현, 그저께 밤중에                                                                                                     |
| 동아일보 | 1922-12-28 | 3  | 2  | 무산자 동맹회의 간부 金翰氏를 돌연히 구인 취조, 성북동 장동옥의집도 수색                                                                                   |
| 동아일보 | 1923-02-15 | 3  | 8  | 폭약 폭발인부 두 명 부상, 성북동 채석장에서                                                                                                   |
| 동아일보 | 1923-03-21 | 3  | 8  | 성북리에 화재, 초가 한 채를 전소                                                                                                         |
| 시대일보 | 1924-05-04 | 1  | 1  | 성북동에 둔 의열단 근거, 즉시 침입할 준비로 목선 일척을 사들여                                                                                        |
| 시대일보 | 1924-06-11 | 1  | 9  | 희비극을 이룬 승려의 추행, 모친의 소상날에 남의 아내를 간통                                                                                          |
| 시대일보 | 1925-01-18 | 1  | 8  | 東署에 검속된 무전취식한 자,돈 없이음식까지 먹고 게다가 작부를 농락해                                                                                     |
| 동아일보 | 1926-08-25 | 2  | 8  | 종로고등계원 성북동 대수색, 형사 자동차대가 밤을새여, 범인은 내의채로 도주, 모종대사건으로                                                                         |
| 중외일보 | 1926-12-08 | 2  | 8  | 빨래 도적                                                                                                                       |
| 중외일보 | 1927-05-20 | 2  | 3  | 콜롬비아 대학의 킬교수 임경 강연, 중국 갔다 돌아오는 길에, 18일밤에 경성에 도착                                                                             |
| 동아일보 | 1927-12-08 | 2  | 4  | 종로서 자동차대 駱出일대 수색, 송삼송이 성북동 일대로, 경찰 수뇌 緊張擬議, 朴應七과 ML당 관계?                                                                    |
| 중외일보 | 1928-03-21 | 2  | 1  | 준혹무쌍한 검사구형 5년이상 사형까지, 변호사의 열렬한 변론과 항쟁, 고려혁명당 4회 공판                                                                          |
| 동아일보 | 1928-04-12 | 3  | 3  | 스케취:春日街上所見(一)오후의박석고개(성북동HS生)                                                                                                |
| 중외일보 | 1928-06-12 | 2  | 9  | 동모의 가진 돈을 뺏고 송림 속에서 난자하고 도주, 피해자 두부중상 생명위독, 16~7세 소년의 범행/ 자택잠복중에 범인은 다음날 체포, 과부인 어머니의 비통막심, 두사람은 보통학교 시대의 동창                |
| 중외일보 | 1928-06-17 | 2  | 3  | 성북,은평 양처의 세탁하천이 문제, 이모일 개인이 사용하게 된다고, 사용자간에 반대열 비등/ 개인점령 불가, 요관관계로 타격, 박승직 씨 담                                              |
| 중외일보 | 1928-06-20 | 2  | 6  | 세탁하천에 물결치는표백, 포목 양조합의 이해, 이모 개인이 독점하고자 운운은 악선전, 기실 포목상대 표백업자의 이해충돌, 고려할 표백법의 개선                                             |
| 중외일보 | 1928-07-05 | 2  | 6  | 李朝史의 卣을 말하는 혜화문의 훼손공사, 이조 중엽 이래 260년의 일생, 총독부의 손에 헐려지는 동소문, 훼손 이유는 보존 無要                                                    |
| 중외일보 | 1928-08-21 | 2  | 8  | 자살? 타살? 의문시체는 해부중 경찰에서는 엄중히 조사                                                                                              |
| 중외일보 | 1928-10-08 | 2  | 1  | 연기 거둬 7삭만에 공소공판근 개정, 법정내의 눈물겨운 극적 광경, 고려혁명당 사건                                                                              |
| 동아일보 | 1928-12-13 | 7  | 2  | 교실에 난로 없어 200생도 고경, 경비가 없어서 불을 못 피워 성북동 三山校의 비운                                                                             |
| 동아일보 | 1928-12-17 | 2  | 9  | 三山校에 曙光 李信龜氏 독지로, 시외 성북동                                                                                                    |
| 중외일보 | 1929-02-14 | 3  | 7  | 삼산교에서 신춘가극회, 금음 초5일                                                                                                         |
| 중외일보 | 1929-08-26 | 2  | 9  | 노공단 발기회                                                                                                                     |
| 동아일보 | 1929-10-04 | 2  | 5  | 추수에 잠긴 풍엽, 성북동에서[寫]                                                                                                         |
| 중외일보 | 1929-10-26 | 3  | 11 | 주택지 공매                                                                                                                      |
| 중외일보 | 1929-11-01 | 2  | 6  | 부호자제 유인하는 원산 불량배 검거, 돈을 꾸어주면서까지, 화류계에 散財시켜                                                                                  |
| 중외일보 | 1930-02-27 | 2  | 5  | 남편 죽음에 단지한 열부, 함남 영흥에서                                                                                                      |
| 중외일보 | 1930-04-09 | 2  | 7  | 신당리 토굴민 이주를 알선, 동대문경찰서장이,주인대리촉 태도 완강                                                                                        |
| 중외일보 | 1930-05-14 | 2  | 9  | 음독청년은 의외의인물? 동대문서의 신경과민, 자살미수자를 취조                                                                                          |
| 동아일보 | 1931-02-22 | 2  | 5  | 성북리 삼산교 보교로 승격 방금 인허수속중                                                                                                     |
| 동아일보 | 1931-06-20 | 7  | 8  | 성북리주민 단오원유회                                                                                                                 |
| 중앙일보 | 1932-01-05 | 2  | 4  | 대경성의 숫자행진(23), 町字든 洞里 50, 洞字 든 동리 85, 무슨동 무슨동 하고 부르는 동자든 곳이 30곳이라고, 문화도시 경성의 이 모양, 저 모양, 신구동명편                              |
| 중앙일보 | 1932-01-25 | 2  | 5  | 근래에 드문 6인조 절도단, 전후 범죄 30여건, 종로서에 일망타진                                                                                       |
| 동아일보 | 1932-06-08 | 7  | 4  | 성북동민 단오위안회                                                                                                                  |
| 동아일보 | 1933-02-08 | 2  | 1  | 성북동 화재 손해 500원                                                                                                              |
| 중앙일보 | 1933-02-09 | 2  | 5  | 성북동 화재, 7일밤에 발화, 2동 3호 전소                                                                                                   |
| 동아일보 | 1933-04-16 | 2  | 7  | 가세빈곤으로 낙제! 친위우인 작별하고 자살 19세를 일기로 목매어 죽은 시험지옥에 희생된 학생// 주의 없어 외투 입고 입장 질책 듣고 낙제까지 양복 잡혀서 형수에게 선사 자살 결심까지의 경로: 부외 성북동 金炳勳씨 5남 |



| 신문명    | 날짜         | 면수 | 단수 | 기사제목                                                                                                                                 |
|--------|------------|----|----|--------------------------------------------------------------------------------------------------------------------------------------|
| 동아일보   | 1933-04-16 | 2  | 5  | 청년엑사(縊死), 성북리에                                                                                                                       |
| 조선중앙일보 | 1933-08-02 | 2  | 1  | 형평 운동 비밀결사 사건, 41명 遂 송국, 광주서에서 7개월간에 취조하고, 광주지방법원검 사국으로 송치하여, 26명은 불구속으로/ 잠행 운동핵심체로 전위동맹을 조직, 각 지방에 세 포단체를 결성 활동, 비밀출판물도 간행/ 송국된 14명 |
| 동아일보   | 1933-08-31 | 3  | 3  | 취한 열차에 력사: 안변군 성북리 韓用漢씨                                                                                                              |
| 조선중앙일보 | 1933-10-06 | 2  | 1  | 동소문 돈암리간 버스운전수 실현, 금월말 일안으로 실현될 형세, 주민들의 진정 주효                                                                                       |
| 조선중앙일보 | 1933-10-06 | 2  | 7  | 추석날 술을 먹고 주정 끝에 경찰서                                                                                                                  |
| 조선중앙일보 | 1933-10-11 | 2  | 10 | 박씨 만기 출옥                                                                                                                             |
| 동아일보   | 1933-12-03 | 2  | 3  | 삼산학교 학예회, 시외 성북리 본교에서                                                                                                                |
| 동아일보   | 1934-01-18 | 2  | 7  | 궁민에 양미, 柳在善 氏가 고양군 성북리민 빈민에게                                                                                                         |
| 조선중앙일보 | 1934-02-21 | 2  | 1  | 최근 종로 부근 일대에 폭력단 跋扈 頻頻 까닭없이 통행인들을 난타 시민들의 불안 막심/ 19일 밤에도 3차에서 폭력소동 조선극장 부근 싸움패 등을 종로서 검거 취조/ 금후 일층 취 체 단연 엄벌할 방침.종로서 사법계 원담          |
| 동아일보   | 1934-05-30 | 2  | 10 | 연료경제되는 구공조 발명, 성북리 洪友松 노인[寫]                                                                                                         |
| 조선중앙일보 | 1934-07-09 | 2  | 8  | 피대에 걸려, 여직공이 참사, 7일 공창염직소에서                                                                                                          |
| 조선중앙일보 | 1934-07-13 | 2  | 8  | 암석이 전락, 석공이 중상                                                                                                                       |
| 조선중앙일보 | 1934-07-20 | 2  | 5  | 금은속 절취범 등문서에 피착                                                                                                                      |
| 조선중앙일보 | 1934-08-07 | 2  | 10 | 점원이 상점 돈 5백여원 횡령                                                                                                                     |
| 조선중앙일보 | 1934-08-10 | 2  | 7  | 자동차에 역상, 위험신호 안보고 네거리 횡단하다가                                                                                                          |
| 동아일보   | 1934-08-26 | 4  | 1  | 城北洞:네반으로 나뉘 17名을 敎授                                                                                                                  |
| 조선중앙일보 | 1934-09-01 | 2  | 7  | 주인 물건 훔쳐서 남의 전당까지 찾아 팔아먹으려다 잡힌 자                                                                                                     |
| 조선중앙일보 | 1934-09-18 | 2  | 9  | 마차바퀴가 떨어져, 소년 2명이 사상, 17일 저녁때 동소문외에 있는, 경사지에서 생긴 참사                                                                                  |
| 조선중앙일보 | 1934-09-22 | 2  | 10 | 空家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 도주, 전과자 2명이 공모하고                                                                                                     |
| 조선중앙일보 | 1934-10-27 | 2  | 10 | 사람의 잔인성, 아이 낳아서 죽인 처녀, 동료를 죽인 어부                                                                                                     |
| 동아일보   | 1934-12-14 | 2  | 8  | 경찰부 돌연 활동 성북동 일대 大搜索 金基鎭 金復鎭 等 다수 검거.사상 관계인 듯                                                                                        |
| 조선중앙일보 | 1935-02-01 | 2  | 8  | 애처를 빼앗긴 남자가 처형 걸어 위자료 청구                                                                                                             |
| 조선중앙일보 | 1935-02-15 | 2  | 8  | 양복점 전문의 7인단 철도 피체, 절취 물건 1500여원                                                                                                      |
| 동아일보   | 1935-03-14 | 2  | 11 | 간통 고소했다고 일가 독살로 위험, 시외 성북동 金光逵 氏가                                                                                                    |
| 동아일보   | 1935-04-11 | 2  | 4  | 소년이 출가: 성북리 徐長山 氏 아들                                                                                                                 |
| 조선중앙일보 | 1935-04-11 | 2  | 9  | 가정불화로 남자가 출가                                                                                                                         |
| 동아일보   | 1935-05-07 | 4  | 5  | 신동방(4월호): 경성부와 성북리 신인간사 발행                                                                                                           |
| 동아일보   | 1935-05-31 | 2  | 1  | 흰옷 입은 대지 [寫:성북동초원에서]                                                                                                                 |
| 동아일보   | 1935-06-07 | 3  | 7  | 신인문학(6월호): 경성부와 성북동 청조사 발행                                                                                                           |
| 조선중앙일보 | 1935-06-20 | 2  | 9  | 금광중개요금 만여원 청구소송, 경성지방법원에 제소                                                                                                          |
| 조선중앙일보 | 1935-06-20 | 2  | 5  | 부호의 애견이 통행인을 교상                                                                                                                      |
| 동아일보   | 1935-07-21 | 3  | 4  | 신인문학(8월호): 경성부와 성북동 청조사 발행                                                                                                           |
| 동아일보   | 1935-08-24 | 2  | 6  | 여자기청학생연합회 성북동에서 개최                                                                                                                   |
| 동아일보   | 1935-08-25 | 2  | 1  | 피신중 李載裕 조종? 모종비사 또 탄로, 신당리 金某 부부 여공 등과, 성북동에서 청년 검거                                                                                  |
| 조선중앙일보 | 1935-08-26 | 2  | 8  | 경찰부 의연 활동 청년을 속속 검거                                                                                                                  |
| 조선중앙일보 | 1935-09-22 | 2  | 5  | 성북동 세민부락에 대지문제로 분쟁, 주택지 매매에 말썽이 생겨서, 사건추이가 주목처                                                                                       |
| 조선중앙일보 | 1935-09-23 | 4  | 1  | 귀로, 내 마음의 가을                                                                                                                         |
| 조선중앙일보 | 1935-10-09 | 2  | 1  | 빈빈한 소녀 실종으로 유괴단 소굴 엿탐, 소녀 2명의 행방을 탐지한 동대문서 계속 활동 중                                                                                   |
| 조선중앙일보 | 1935-10-15 | 2  | 8  | 묘령인 처의 뒤를 따르는 치한, 유괴혐의로 취조 중                                                                                                         |
| 동아일보   | 1935-11-05 | 2  | 10 | 연료절약의 대왕「애림조」발명 시외 성북리 金邦燾 씨가, 연료시간25할 절약[尙]                                                                                         |
| 조선중앙일보 | 1935-11-10 | 2  | 6  | 청년음독, 성북동에서                                                                                                                          |
| 동아일보   | 1935-11-21 | 3  | 10 | 신인문학(11월호): 경성부와 성북동 청조사 발행                                                                                                          |
| 동아일보   | 1936-01-07 | 3  | 4  | 신인문학(신년호): 경성부와 성북동 청조사 발행                                                                                                           |
| 조선중앙일보 | 1936-01-11 | 2  | 9  | 저금통장 절취, 범인 발각 체포                                                                                                                    |

| 신문명    | 날짜         | 면수 | 단수 | 기사제목                                                                                                                                |
|--------|------------|----|----|-------------------------------------------------------------------------------------------------------------------------------------|
| 조선중앙일보 | 1936-03-05 | 3  | 6  | 신간 소개                                                                                                                               |
| 동아일보   | 1936-03-06 | 4  | 12 | 신동방(3월호): 경성부와 성북리 신동방사 발행                                                                                                          |
| 조선중앙일보 | 1936-03-08 | 2  | 8  | 부호를 술로 녹여 萬圓토지를 사기, 서울구경 못한 구두쇠영감을 요리점으로 유인하여                                                                                       |
| 조선중앙일보 | 1936-03-10 | 2  | 1  | 4월 1일부터 개경성될 신구역 타진 순례(2), 청량리 왕십리의 연락도로, 도로개수가 급선무                                                                                 |
| 조선중앙일보 | 1936-04-05 | 2  | 3  | 나무하던 소년 무참하게 燒死                                                                                                                     |
| 동아일보   | 1936-04-12 | 2  | 8  | 학령초과아동 위해 영명학교 신설, 성북정 유지의 발기                                                                                                       |
| 동아일보   | 1936-04-26 | 2  | 1  | 행화만발, 성북정의 춘장[寫]                                                                                                                    |
| 조선중앙일보 | 1936-05-22 | 2  | 7  | 성북정에 염병 창궐, 전정민에게 예방주사                                                                                                              |
| 동아일보   | 1936-05-24 | 2  | 1  | 연내,주민의 숙망이던 성북정 하천개수, 부민되면서 첫 번 입는 덕분, 금년내로 착공키로                                                                                    |
| 조선중앙일보 | 1936-05-24 | 2  | 8  | 성북정 하천 개수, 제방을 축조하고 교량도 가설, 도지방비로서 지출                                                                                               |
| 동아일보   | 1936-06-07 | 2  | 11 | 성북정 산불                                                                                                                              |
| 조선중앙일보 | 1936-06-07 | 2  | 1  | 성북정 뒤 국유림에 산불, 약 2백평 가량 燒燼                                                                                                          |
| 조선중앙일보 | 1936-06-09 | 2  | 1  | 그 외 각처에서 수도증설을 요구. 성북정·신당정·영등포정 등. 新編入區의 큰 문제                                                                                       |
| 조선중앙일보 | 1936-06-16 | 2  | 1  | 성북정에서 거짓문둥이 소동, 단도 가진 노걸인을 발현하고 군중위집, 신경과민한 주민들의 탈선, 사형 감행, 걸인 중상/ 매에 못이겨서 거짓자백했소, 중상한 金乞人談/ 파출소원談/ 칼을 가진 것이 불안한 일ियो, 주민중某談/ 張本小兒談 |
| 조선중앙일보 | 1936-06-23 | 1  | 1  | 사설. 경성부의 급수난. 新편입지의 식수                                                                                                              |
| 조선중앙일보 | 1936-07-04 | 2  | 1  | 16만원 예산으로 부내 수도확충공사, 오는 9월부터 착수할 예정, 신편입구역은 광장리 수원 지 완성후 착공                                                                         |
| 조선중앙일보 | 1936-07-19 | 2  | 4  | 믿지 못할 것은 여자마음인가, 돈만 뺏긴 이야기                                                                                                          |
| 동아일보   | 1936-07-26 | 3  | 8  | 진단학보(제5권), 경성부 성북정 진단학회 발행                                                                                                          |
| 동아일보   | 1936-08-09 | 2  | 2  | 성북정 요정춘화에 주민이 꺾기 진정, 기설된 음벽정에 7개조건 제출, 도로 개수 시간 준 수// 더 허가치 않는다 도로의 불편은 수리, 동대문서 보안주임담                                              |
| 조선중앙일보 | 1936-08-12 | 2  | 1  | 성북정 일대 인가피해와 돈암정 교량피해/ 중부 조선에는 명일도 강우 계속, 우량은 경성이 최다                                                                                |
| 동아일보   | 1937-06-05 | 2  | 1  | 경성부 수도확장 이번 가을에 착공 예정 성북정, 마포, 영등포 등 7개구, 신편입지에 시설 균 점// 미급한 지역은 정호를 착굴                                                             |
| 동아일보   | 1937-07-16 | 7  | 1  | 동해는 물이 맑아 좋고 총석정은 「남성적」 금년 여름은 성북동에서 籠城 [그 산 그 바다]                                                                                  |
| 동아일보   | 1937-09-19 | 6  | 4  | 蔡東鮮 독창곡, 경성부 성북정 공묵 재발행                                                                                                             |
| 동아일보   | 1937-10-19 | 2  | 10 | 성북정에 작은 불                                                                                                                           |
| 동아일보   | 1937-10-24 | 2  | 10 | 일요강화, 성북정교회; 경제의성화(金昌俊)                                                                                                             |
| 동아일보   | 1937-12-01 | 4  | 14 | 진단학보(제8권), 경성부 성북정 진단학회 발행                                                                                                          |
| 동아일보   | 1937-12-12 | 4  | 8  | 蔡東鮮 독창곡 제8번 경성부 성북정 공묵 재발행                                                                                                          |
| 동아일보   | 1938-02-05 | 2  | 9  | 성북동 강도피의 2명 체포, 동서에서 엄중 취조                                                                                                          |
| 동아일보   | 1938-02-08 | 2  | 1  | 성북동 검쟁이 강도전용인으로 판명 피착 누차 채금요구에 불응하므로 장난감 권총 들고 침 입[寫]                                                                               |
| 동아일보   | 1938-02-25 | 2  | 6  | 전염병 요양원 설치에 성북정 주민반대 하수도 설비 없어 보건상 위험 26일에 정회 개최                                                                                    |
| 동아일보   | 1938-02-28 | 2  | 5  | 전염병원 설치 중지를 경영자에게 교섭 불응시는 주민대회 열고 진정 성북정회에서 결의                                                                                      |
| 동아일보   | 1938-03-03 | 2  | 10 | 성북정 요양원 설치 6천정민이 반대 대표 관계당국에 진정                                                                                                     |
| 동아일보   | 1938-03-18 | 2  | 7  | 성북정 결핵요양소 통고도 없이 수리에 착수 설치반대하던 6천 주민이 분개 정회 열고 대책 강구                                                                                |
| 동아일보   | 1938-04-08 | 2  | 7  | 성북정민 재분기, 결핵요양원 설치 중지의 최후 권고, 연명설유원을제출                                                                                              |
| 동아일보   | 1938-04-20 | 2  | 9  | 폐병원의 설치 반대 성북정민 재진정, 동서의 태도 주목처                                                                                                     |
| 동아일보   | 1939-03-16 | 2  | 8  | 외국어학원의 약진, 성북정에 신교사 착공                                                                                                              |
| 동아일보   | 1939-07-01 | 2  | 8  | 성북정 순사 파출소 9월말에 준공                                                                                                                  |
| 동아일보   | 1939-12-14 | 4  | 8  | 진단학보(제11권); 경성 성북정 진단학회 발행                                                                                                          |
| 동아일보   | 1940-05-24 | 2  | 8  | 성북정 삼산교서 시국연설회                                                                                                                      |

4. 일제강점기 성북동 기사(잡지)

| 잡지명          | 발행일        | 기사제목                                                                     | 필자    | 기사형태  |
|--------------|------------|--------------------------------------------------------------------------|-------|-------|
| 기호흥학회월보 제3호  | 1908-10-25 | 학계휘문                                                                     | ·     | 소식    |
| 대동학회월보 제15호  | 1909-04-25 | 官報摘要                                                                     | ·     | 소식    |
| 개벽 제13호      | 1921-07-01 | 漢詩                                                                       | 默齋崔誠愚 | 시     |
| 별건곤 제9호      | 1927-10-01 | 무학대사 신경성 구경, 놀내지마래 500년 한양국도를 지정 한 무학대사가 500년후 오늘에 서울구경을 하고 갔다. 안내 는 天外君 | ·     | 문예기타  |
| 삼천리 제1호      | 1929-06-12 | 전 조선문사 공천신선 「반도팔경」 발표, 그 취지와 본사의 계획                                      | ·     | 설문    |
| 별건곤 제22호     | 1929-08-01 | 緣陰漫話                                                                     | ·     | 문예기타  |
| 별건곤 제23호     | 1929-09-27 | 경성 8대문과 5대궁문의 유래                                                         | 門內漢   | 논설    |
| 별건곤 제24호     | 1929-12-01 | 요새이 생각나는 사람                                                              | 多情生   | 소식    |
| 별건곤 제25호     | 1930-01-01 | 남자가 본 여자 개조점                                                             | ·     | 설문    |
| 삼천리 제6호      | 1930-05-01 | 오호,구십춘광!                                                                 | 金一葉   | 문예기타  |
| 별건곤 제31호     | 1930-08-01 | 인류감정의 다면상 실연소동기, -(성적갈등의 표본실)-                                           | ·     | 문예기타  |
| 삼천리 제8호      | 1930-09-01 | 명류부인과 산아제한                                                               | ·     | 설문    |
| 별건곤 제33호     | 1930-10-01 | 신랑후보자전람회(년센스·아이로니·유모어), 신랑자격 심사위원회 주최                                    | ·     | 잡저    |
| 별건곤 제35호     | 1930-12-01 | 신랑후보자전람회, 신랑자격 심사위원회 주최                                                  | ·     | 잡저    |
| 동광 제17호      | 1931-01-01 | 城北春懷                                                                     | 趙宗玄   | 시     |
| 별건곤 제37호     | 1931-02-01 | 풍문첩                                                                      | ·     | 소식    |
| 삼천리 제16호     | 1931-06-01 | 신여성총관(2) 백화란만의 기미녀인군                                                     | ·     | 회고·수기 |
| 별건곤 제41호     | 1931-07-01 | 靑燈涼話                                                                     | ·     | 잡저    |
| 삼천리 제17호     | 1931-07-01 | 신녀성들은 남편의 밥과 옷을 지어본 적 있는가? 없는가?                                          | ·     | 설문    |
| 삼천리 제3권 제10호 | 1931-10-01 | 無題錄                                                                      | 盧子泳   | 문예기타  |
| 별건곤 제46호     | 1931-12-01 | 문단풍문                                                                     | ·     | 소식    |
| 별건곤 제46호     | 1931-12-01 | 세계 인육시장 광무곡, 파리의 에로 만화경                                                  | 城北洞人  | 잡저    |
| 삼천리 제4권 제2호  | 1932-02-01 | 오대학부출의 인재언. 파렛드                                                          | ·     | 소식    |
| 삼천리 제4권 제4호  | 1932-04-01 | 조선푸로레타리아문화운동의 신전개, 현계단 문화운동의 신데쎬                                         | 洪曉民   | 논설    |
| 동광 제33호      | 1932-05-01 | 至急電報                                                                     | ·     | 잡저    |
| 동광 제35호      | 1932-07-03 | 한글학의 선구 周時經 선생                                                           | 金善琪   | 논설    |
| 삼천리 제4권 제8호  | 1932-08-01 | 嗚呼·曙海의死,曙海回想記                                                            | ·     | 문예기타  |
| 동광 제38호      | 1932-10-01 | 천도교경도관정 검 지도관정 李鍾麟                                                       | ·     | 소식    |
| 삼천리 제5권 제1호  | 1933-01-01 | 50전 은화                                                                   | 金一葉   | 소설    |
| 삼천리 제5권 제3호  | 1933-03-01 | 文人書翰集(1)                                                                 | ·     | 문예기타  |
| 삼천리 제5권 제3호  | 1933-03-01 | 신구 문인 언파레트...續                                                           | 安在左   | 문예평론  |
| 삼천리 제5권 제10호 | 1933-10-01 | 鍾閣雜記,續水標橋畔                                                               | 파인    | 문예기타  |
| 삼천리 제5권 제10호 | 1933-10-01 | 성북동의 문인촌                                                                 | ·     | 잡저    |
| 삼천리 제6권 제5호  | 1934-05-01 | 내 혼의 소낙원                                                                 | 盧春城   | 문예기타  |
| 삼천리 제6권 제7호  | 1934-06-01 | 은행장의 하루                                                                  | ·     | 잡저    |
| 삼천리 제6권 제7호  | 1934-06-01 | 文人奇話                                                                     | ·     | 소식    |
| 삼천리 제6권 제9호  | 1934-09-01 | 작가연구(1),『黑頭巾』과白南의예술,간등한일반적고찰                                             | 洪曉民   | 논설    |
| 삼천리 제6권 제11호 | 1934-11-01 | 文壇雜事                                                                     | ·     | 잡저    |
| 삼천리 제7권 제1호  | 1935-01-01 | 삭발 위승한 동정녀니 수십인이 참선, 수도하는 서울 안국 동의 남성금제, 안동 녀승방                          | ·     | 소식    |
| 삼천리 제7권 제1호  | 1935-01-01 | 미인박명애사, 눈물속에 진 꽃 崔香花                                                     | 紅衣童子  | 문예기타  |
| 삼천리 제7권 제1호  | 1935-01-01 | 作家硏究                                                                     | 金岸曙   | 문예평론  |
| 삼천리 제7권 제2호  | 1935-02-01 | 미인박명애사, 눈물속에 진 꽃 崔香花                                                     | 紅衣童子  | 문예기타  |
| 삼천리문학 제2집    | 1938-04-01 | 현대작가와 고독, 문학을 지망하는 동생에게                                                  | 崔載瑞   | 문예기타  |

5. 성북동 독립운동가 주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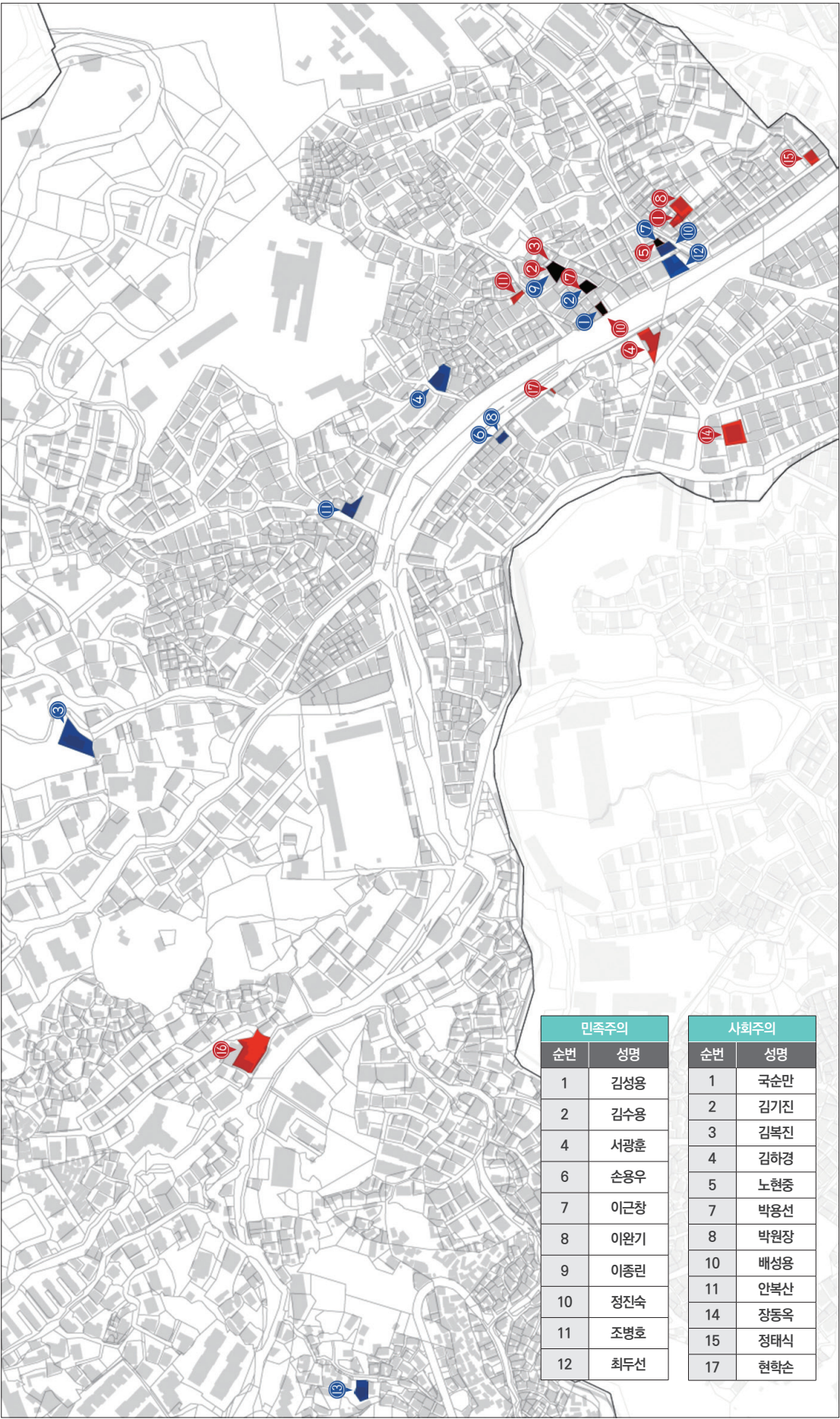
○ 민족주의 계열(13)

| 순번 | 이름  | 주소(당시)                | 주소(현재)            | 비고         |
|----|-----|-----------------------|-------------------|------------|
| 1  | 김성용 | 경성부 성북정 176-4번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6-4  | ·          |
| 2  | 김수용 | 경성부 성북정 175-8번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5-8  | ·          |
| 3  | 박홍식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5번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5-1    | ·          |
| 4  | 서광훈 | 고양군 송인면 성북동 173번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1  | 번지 이하 추정   |
| 5  | 노태진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 ·                 | 추정불가       |
| 6  | 손용우 | 성북 133번지-60호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3-60 | ·          |
| 7  | 이근창 | 경성부 성북정 177-25번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7-25 | ·          |
| 8  | 이완기 | 성북 133번지-60호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3-60 | 손용우와 같은 주소 |
| 9  | 이종린 |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75번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5-1  | 번지 이하 추정   |
| 10 | 정진숙 | 동대문구 성북정 177-40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7-42 | 예전지번 대비 추정 |
| 11 | 조병호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동 160번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59-6  | 예전지번 대비 추정 |
| 12 | 최두선 | 서울 성북 177-30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7-30 | ·          |
| 13 | 한용운 | ·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1  | ·          |

○ 사회주의 계열(17)

| 순번 | 이름  | 주소(당시)               | 주소(현재)             | 비고          |
|----|-----|----------------------|--------------------|-------------|
| 1  | 국순만 |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83-10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3-10  | ·           |
| 2  | 김기진 | 성북동 175번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5-1   | 번지이하 추정     |
| 3  | 김복진 | 성북동 175번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5-1   | 번지이하 추정     |
| 4  | 김하경 |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188-1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8-18  | 예전 지번 비교 추정 |
| 5  | 노현중 | 성북 177번지 25호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7-25  | ·           |
| 6  | 문석준 | 성북정 195-23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93-28  | 예전 지번 비교 추정 |
| 7  | 박용선 | 성북동 175-8번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5-8   | ·           |
| 8  | 박원장 |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83번지    | 성북구 성북동 183-17     | 예전 지번 비교 추정 |
| 9  | 방용모 |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195번지-28 | ·                  | 추정불가        |
| 10 | 배성용 | 경성부 성북정 176-4번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6-4   | ·           |
| 11 | 안복산 | 송인 성북 170-5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0-5   | ·           |
| 12 | 유진희 | 성북동에서 병원경영           | ·                  | 추정불가        |
| 13 | 李成學 | 성북동에서 체포             | ·                  | 추정불가        |
| 14 | 장동옥 | 성북동 191번지            | 성북구 성북동1가 106번지 주변 | 추정불가        |
| 15 | 정태식 | 경기도 경성부 성북리 184-32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1  | ·           |
| 16 | 최차옥 | 고양 송인 성북 88          | 서울 성부구 성북동 88      | ·           |
| 17 | 현학손 | 서울 성북 성북정 185-2      | 서울 성북 성북정 185-2    | ·           |





6. 성북동 문화예술인 주소지

| 이름  | 주소(현재)              | 분야                    | 비고            |
|-----|---------------------|-----------------------|---------------|
| 김경중 | 성북동 37-4            | 역사학                   |               |
| 김광균 | 성북동 330-365         | 문학(시)                 |               |
| 김광섭 | 성북동 168-34          | 문학(시)                 |               |
| 김기창 | 성북동 55-1            | 미술(동양화)               | 박래현의 남편       |
| 김내성 | 성북동 208-12          | 문학(소설)                |               |
| 김용준 | 성북동 274-1           | 미술(회화/평론), 문학(수필)     | 노시산방          |
| 김일엽 | 성북동 284-2           | 문학(소설, 수필)            | 하윤실의 아내       |
| 김중업 | 성북동                 | 건축                    |               |
| 김향안 | 성북동 274-1, 성북동 31-2 | 문학(수필)                | 수향산방, 김환기의 아내 |
| 김환기 | 성북동 274-1, 성북동 31-2 | 미술(서양화)               | 수향산방, 김향안의 남편 |
| 박래현 | 성북동 55-1            | 미술(동양화)               | 김기창의 아내       |
| 박태원 | 성북동 230             | 문학(소설)                |               |
| 변종하 | 성북동 330-484         | 미술(서양화)               |               |
| 서세옥 | 성북동 260-10          | 미술(동양화)               | 서세옥 가옥(무송재)   |
| 송영수 | 성북동                 | 미술(조각)                |               |
| 염상섭 | 성북동 145-52          | 문학(소설)                |               |
| 오세창 | 성북동 128-12          | 서예, 미술사, 수집가          |               |
| 유치웅 | 성북동 210-46          | 서예                    |               |
| 윤이상 | 성북동 128-13          | 음악(작곡)                |               |
| 윤중식 | 성북동 145-23          | 미술(서양화)               | 윤중식 가옥        |
| 이규선 | 성북동                 | 미술(서양화)               |               |
| 이길용 | 성북동 56-1            | 신문기자, 독립운동            |               |
| 이생강 | 성북동                 | 음악(대금산조)              | 대금산조 전수소      |
| 이태준 | 성북동 248             | 문학(소설)                | 수연산방          |
| 이흥근 | 성북동 13-22           | 문화재 수집가               |               |
| 임종국 | 성북동 58-19           | 역사학, 문학평론             |               |
| 전형필 | 성북동 102-11          | 문화재 수집가               |               |
| 전광용 | 성북동                 | 문학(소설)                |               |
| 정탁영 | 성북동                 | 미술(동양화)               |               |
| 정한숙 | 성북동                 | 문학(소설)                |               |
| 정한모 | 성북동                 | 문학(시, 국문학사)           |               |
| 조지훈 | 성북동 60-44           | 문학(시, 한국학)            | 조현영의 아들       |
| 조현영 | 성북동 60-44           | 한 의사, 민족운동가           | 조지훈의 아버지      |
| 채동선 | 성북동 183-17          | 음악(작곡)                | 이소란의 남편       |
| 이소란 | 성북동 183-17          | 음악(바이올리니스트)           | 채동선의 아내       |
| 최순우 | 성북동 126-10          | 문화재, 미술사, 문학          | 최순우옛집         |
| 한용운 | 성북동 222-1           | 문학(시, 소설), 독립운동, 불교승려 | 심우장           |
| 한운사 | 성북동 117-17 / 성북동 33 | 문학(소설, 시나리오)          |               |



7. 성북동 문학 관련 자료(신문/잡지/작품)

○ 신문

|                      |        |             |                     |
|----------------------|--------|-------------|---------------------|
| 『최초의 여류 시인 김일엽 씨(하)』 | 〈동아일보〉 | 1959.11.4.  |                     |
| 『문단에 핀 인정의 꽃』        | 〈동아일보〉 | 1961.12.30. | 염상섭 별세              |
| 『내가 겪은 20세기(22)』     | 〈경향신문〉 | 1972.6.2.   | 김광섭 및 성북 문인         |
| 『문단 반세기(32) 한용운』     | 〈동아일보〉 | 1973.5.31.  | 한용운                 |
| 『차범석 씨 한국극작가 협회장』    | 〈경향신문〉 | 1975.3.8.   | 이정환 종암동3-83<br>대영서점 |
| 『작가 안수길 씨 별세』        | 〈동아일보〉 | 1977.4.18.  | 자유문학 문인집단           |
| 『나래집은 성북동 비둘기』       | 〈경향신문〉 | 1977.5.24.  | 펜클럽, 자유문학           |
| 『간송 수장품 전』           | 〈매일경제〉 | 1979.5.12.  | ‘조선문인화전’            |
| 『필사본 오류 밝힐 귀중사료』     | 〈동아일보〉 | 1981.9.4.   | 윤석창(국어학) 장서         |
| 『조연현 씨 일 호텔에서 별세』    | 〈경향신문〉 | 1981.11.24. |                     |
| 『조연현씨 유해 도착 28일에 장례』 | 〈동아일보〉 | 1981.11.25. |                     |
| 『만해의 충절 살아숨쉬는 심우장』   | 〈경향신문〉 | 1983.2.28.  |                     |
| 『글쓰는 즐거움 여성 축제 장원』   | 〈동아일보〉 | 1984.6.8.   | 주부백일장 장원 이경애        |
| 『살아서 펴낸 천상병 유고시집』    | 〈동아일보〉 | 1990.11.23. |                     |
| 『문단이면사21』            | 〈경향신문〉 | 1983.6.25.  | 청록집                 |
| 『문단이면사31』            | 〈경향신문〉 | 1983. 9.3.  | 김영랑과 이태준            |
| 『인물동정』               | 〈매일경제〉 | 1995.6.29.  | 한국문인협회 심우장행사        |
| 『심우장에 만해 표징 세워』      | 〈경향신문〉 | 1995.7.2.   |                     |
| 『우리 문학 유산을 찾아(1)』    | 〈경향신문〉 | 1996.1.29.  | 심우장                 |
| 『동서남북』               | 〈동아일보〉 | 1938.7.16.  | 최재서『문학과지성』<br>출판기념회 |
| 『문학소년 음독자살』          | 〈동아일보〉 | 1958.8.24.  |                     |
| 『문학소녀 자살』            | 〈동아일보〉 | 1966.8.29.  |                     |
| 『아동문학가 마해송씨 별세』      | 〈동아일보〉 | 1966.11.7.  |                     |
| 『남정현 기소문』            | 〈경향신문〉 | 1966.7.13.  |                     |
| 『휴지통』                | 〈동아일보〉 | 1968.10.2.  | 고은 사칭범(성북동 활동)      |
| 『38세의 반작가 최남백씨』      | 〈동아일보〉 | 1970.12.28. | 최남백, 『식민지』          |
| 『시인 김종문 씨 별세』        | 〈동아일보〉 | 1981. 1.7.  | 성북동 자택              |
| 『수필집 처음 펴낸 정한모씨』     | 〈경향신문〉 | 1984.2.22.  | 성북동 뒷산 산책 언급        |
|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 전형필』    | 〈한겨레〉  | 1989.12.8.  | 간송미술관 터 역사          |
| 『3월은 만해 한용운의 달』      | 〈동아일보〉 | 1991.2.25.  |                     |
| 『심우장에 만해 문학표징 세워』    | 〈경향신문〉 | 1995.7.2.   |                     |
| 『월북작가 상허 이태준문학비 제막』  | 〈경향신문〉 | 1998.7.28.  |                     |
| 『이호철의 문단골 60년 이야기』   | 〈한국일보〉 | 2011.6.7.   | 김관식과 조지훈            |
| 『노주석 서울택리지 테마기행(21)』 | 〈서울신문〉 | 2015.2.1.   | 문학 작품 속 서울          |
| 『박완서의 문학 스타일』        | 〈한겨레〉  | 2013.2.3.   | 『그남자네집』의<br>성북동 기억  |
| 『이념에떠밀려도 문인들이 좋았다』   | 〈한겨레〉  | 209.2.18.   | 안수길 성북동 별관          |

|                    |        |              |             |
|--------------------|--------|--------------|-------------|
| 『나의 산하 나의 삶』151    | 〈경향신문〉 | 1995.14.30.  | 고은의 이태준 회고  |
| 『나의 산하 나의 삶』113    | 〈경상신문〉 | 1992.12.27.  | 이태준의 성북동 암자 |
| 『나의 산하 나의 삶』114    | 〈경향신문〉 | 1993.1.10.   | 조지훈의 성북동 집  |
| 『나의 산하 나의 삶』184    | 〈경향신문〉 | 1994.5.22.   | 조지훈과 김관식    |
| 『나의 산하 나의 삶』194    | 〈경향신문〉 | 1994. 12.25. | 고은 시와 성북동   |
| 『작가 회의 서울시 문학기행』   | 〈매일경제〉 | 1998.6.20.   | 성북동서 출발     |
| 『육탄으로 속물주의 극복』     | 〈경향신문〉 | 1969.12.30.  | 69년 문단평     |
| 『홀러간 만인의 사조 베스트셀러』 | 〈경향신문〉 | 1973.2.10.   | 김래성 『청춘극장』  |

○ 잡지

|                    |         |             |                        |
|--------------------|---------|-------------|------------------------|
| 『회원소식』             | 〈자유문학〉  | 1957.7.     |                        |
| 『회원동정』             | 〈자유문학〉  | 1957.9.     |                        |
| 『문단75인의 지상발언』      | 〈자유문학〉  | 1959.1.     |                        |
| 『현존 한국문학인 총람』,     | 『문화세계』, | 1953. 9.    |                        |
| 『한용운 유고에 비친 시세계』   | 〈동아일보〉  | 1970.10.5.  | 『성북영언』                 |
| 『우리문화유산을찾아(20)』    | 〈경향신문〉  | 1996.9.8.   | 김광섭 성북동 옛집             |
| 『우리문화유산을찾아(16)』    | 〈경향신문〉  | 1996.7.28.  | 염상섭 자택                 |
| 『단상의 가을』           | 〈동아일보〉  | 1933.9.20.  | 이효석의 성북동 회고            |
| 『산장일기』             | 〈동아일보〉  | 1934.11.3.  | 이무영의 성북동 회고            |
| 『저항의식과 새 인간관계』     | 〈경향신문〉  | 1956.12.13. | 『엄초네』성북동 묘사<br>비판      |
| 『북간도의 안수길 씨』       | 〈동아일보〉  | 1967.10.31. | 북간도 성북동 집필             |
| 『청록의 시혼 속에 짧은 인생』  | 〈경향신문〉  | 1968.5.18.  | 조지훈 별세                 |
| 『5월의 시단시평』         | 〈동아일보〉  | 1969.5.15.  | 강은교 『성북동』 비평           |
| 『감나무』              | 〈동아일보〉  | 1977.11.28. | 성북동의 감나무 풍경            |
| 『해금작가 박태원 아들 재영씨』  | 〈동아일보〉  | 1988.7.23.  | 박태원의 성북동 시절            |
| 『박경리씨 칠레 가브리엘라상』   | 〈동아일보〉  | 1996.4.5.   | 성북동 칠레 대사관             |
| 『나의 젊음 나의 사랑』1     | 〈경향신문〉  | 1997.9.1.   | 성북동 등 고서점              |
| 『백석과 자야』           | 〈한겨레〉   | 1999.11.2.  | 백석과 김영한<br>(성북동 요정 주인) |
| 『좌익문사도 속속 검거중』     | 〈동아일보〉  | 1934.12.15. | 김기진 형제 성북동 검거          |
| 『나의 아호 나의 이명』      | 〈동아일보〉  | 1934.4.11.  | ‘성북동인’은 홍효민의 필명        |
| 『산장일기』             | 〈동아일보〉  | 1934.11.3.  | 이무영의 성북동 회고            |
| 『성북 청룡암에서』         | 〈동아일보〉  | 1934.8.30.  | 이윤재의 성북동 회고            |
| 『문화소식』             | 〈동아일보〉  | 1947.9.2.   | ‘시인군’문예지               |
| 『야담계의 선구자 추강형을 애도』 | 〈경향신문〉  | 1956.1.15.  | 추강 애도                  |
| 『수주는 갔는가』          | 〈동아일보〉  | 1961.3.16.  | 변영로의 성북 에피소드           |
| 『여적』               | 〈경향신문〉  | 1964.8.19.  | 성북동 고서점촌 소개            |
| 『고인들을 추모하며』        | 〈경향신문〉  | 1964.2.3.   | 홍보, 공초, 소천 추모          |
| 『북간도와 안수길 씨』       | 〈동아일보〉  | 1967.10.31. |                        |
| 『저자와의 대화 - 김광섭』    | 〈경향신문〉  | 1974.12.18. |                        |



○ 작품

- 정한숙, 『성북동』, 1982.
- 김지하, 『오적』, 1969. 사상계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 최남백, 『식민지』, 1972. <동아일보>
- 이태준, 『달밤』
- 이태준, 『복덕방』(추정)
- 이태준, 『까마귀』(추정)
- 이태준, 『딸 삼형제』 1939. 동아일보 연재
- 박완서, 『그 남자네 집』
- 김내성, 『진주탑』(서문), 1947. 4.
- 김내성, 『애인』, 1955. 경향신문 연재
- 김내성, 『쌍무지개 뜨는 언덕』 1950. 소년 연재
- 김영석, 『비둘기의 유혹』, 1938. 동아일보 연재
- 오영수, 『염초네』, 1956. 현대문학
- 박화성, 『내일의 태양』, 1958. 경향신문 연재
- 강은교, 『성북동』, 1969. 5. 현대시학 발표
- 조지훈, 『지조론』
- 김동섭, 『성북의 향기』 1930. 4. 동아일보 연재
- 이무영, 『면동이 틀 때』 1935. 8. 동아일보 연재
- 윤백남, 『백연유전기』 1936. 동아일보 연재
- 전무길, 『적멸』 1937. 동아일보 연재
- 이규희, 『여화고사』 1939. 9. 동아일보 연재
- 김동리, 『지연기』, 1946. 동아일보 연재
- 김동리, 『해방』, 1949. 동아일보 연재
- 김희창, 『취』(수필), 1949. 4.16. 경향신문.
- 윤백남, 『야화』, 1952. 동아일보 연재
- 장덕조, 『격랑』, 1957 경향신문 연재
- 마해송, 『모래알 고금』, 1959. 경향신문 연재
- 변영로, 『명정40년』(수필집)
- 안수길, 『창을 남으로』, 동아일보, 1967년 연재
- 박기원, 『여자의 계단』, 경향신문 1978년 연재

○ 성북동 소재 출판사

- 청조사(경성시의 성북동 162) 『문인들과의 잡담집』
- 시인군사(성북동 180-8)
- 진단학회(성북정) (역사학자 이병도의 집)

8. 성북동 박물관 및 미술관(갤러리) 등 현황

○ 박물관

| 연번 | 명칭       | 주소          | 연락처      | 대표자               | 비고    |
|----|----------|-------------|----------|-------------------|-------|
| 1  | 한국가구박물관  | 성북동 330-577 | 745-0181 | 정미숙               | 등록박물관 |
| 2  | 해곡최순우기념관 | 성북동 126-20  | 765-0252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 등록박물관 |
| 3  | 우리옛돌박물관  | 성북동 330-1   |          | 천신일               |       |

○ 미술관

| 연번 | 명칭          | 주소          | 연락처       | 대표자      | 비고        |
|----|-------------|-------------|-----------|----------|-----------|
| 1  | 석은변종하 기념미술관 | 성북동 330-484 | 764-2591  | 석은미술재단   | 사립 등록미술관  |
| 2  | 간송미술관       | 성북동 97-1    |           | 간송미술문화재단 | 사립 미등록미술관 |
| 3  | 성부구립미술관     | 성북동 246     | 6295-5011 | 성북문화재단   |           |
| 4  | 성북예술창작터     | 성북동1가 74-1  | 2038-9989 | 성북문화재단   |           |

○ 갤러리

| 연번 | 명칭            | 주소               | 연락처           | 대표자 | 비고        |
|----|---------------|------------------|---------------|-----|-----------|
| 1  | 누브티스          | 성북동 26-4         | 765-0252      | 이경순 | 넥타이갤러리    |
| 2  | 스페이스 캔        | 성북동 46-26        | 762-7660      | 장문경 | 복합문화공간    |
|    | 오래된 집         | 성북동 62-10, 62-11 |               |     |           |
| 3  | 스페이스 오뉴월      | 성북동 52           | 070-4401-6741 | 서준호 | 복합문화공간    |
|    | 오뉴월 이주현       | 성북동 184-46       |               |     |           |
| 4  | 아트스페이스벤       | 성북동 132-3 3층     | 742-0788      | 박은숙 | 복합문화공간    |
| 5  | 17717         | 성북동 177-17       | 010-4211-1171 | 김선문 | 복합문화공간    |
| 6  | 갤러리 호감        | 성북동 330-220      | 762 - 3322    | 이영선 | 화랑        |
| 7  | 리홀            | 성북동 281-1        | 764-0707      | 리우식 | 음악감상실     |
| 8  | 세계 엔티크 부채 전시실 | 성북동 삼청각 후문       |               | 한은경 | 준비중       |
| 9  | 갤러리 시메이       | 성북동 330-478      |               |     | 개인 갤러리    |
| 10 | 아트스페이스 H      | 성북동 132-3        | 010-2437-8401 | 권도균 |           |
| 11 | 스페이스 이끼       | 성북동 217-70       | 722-4271      | 오진령 |           |
| 12 | 프로젝트 갤러리 정미소  | 성북동1가 110-12     | 764-8401      | 이은주 | 큐레이터      |
| 13 | 드로잉스페이스 살구    | 성북동 217-42       | 010-9130-4134 | 이순주 | 작가        |
| 14 | 비단애           | 성북동46-34         | 070-7783-8428 | 신금숙 | 염색, 한옥갤러리 |

○ 작가 스튜디오

| 연번 | 명칭            | 주소             | 연락처                    | 대표자 | 비고 |
|----|---------------|----------------|------------------------|-----|----|
| 1  | 김해진, 이리라 스튜디오 | 성북동 1가 103     | hyejinkimart@gmail.com |     |    |
| 2  | 602 스튜디오      | 성북동 1가 74-2    | syj4400@naver.com      |     |    |
| 3  | 잔피팀 스튜디오      | 성북로 12길 20     | 84178417@naver.com     |     |    |
| 4  | 김소담 스튜디오      | 성북로23길 109-110 | kunst71@hanmail.net    |     |    |
| 5  | 이순주 스튜디오      | 성북동 217-42     | yisoonjoo@gnail.com    |     |    |

○ 문화예술 거점가게

| 연번 | 명칭         | 주소            | 연락처           | 대표자 | 비고 |
|----|------------|---------------|---------------|-----|----|
| 1  | 느림보 거북이    | 창경궁로 319-1 1층 | 741-0015      |     |    |
| 2  | 아틀리에 무지개   | 성북동 177-17    | 070-7718-067  | 강민경 |    |
| 3  | 마미공방       | 성북동 183-28    | 070-9324-5643 | 김민경 |    |
| 4  | 대지를 위한 바느질 | 성북동 173-1     | 070-8840-8826 | 이경재 |    |
| 5  | 혜움 한복      | 성북동 133-53    | 070-8200-4768 | 김혜진 |    |

9. 성북동 소재(관련) 서울시 미래유산

| 분야   | 미래유산                             | 소재                         |
|------|----------------------------------|----------------------------|
| 문화예술 | 변종하 가옥                           | 성북구 대사관로3길 41              |
| 문화예술 | 서세옥 가옥 및 작업실                     | 성북구 성북로28가길 7              |
| 문화예술 | 윤중식 가옥                           | 성북구 성북로14가길 13-14          |
| 정치역사 | 길상사(구 대원각)                       | 성북구 선잠로5길 68               |
| 도시관리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br>(복자사랑 피정의 집) | 성북구 성북로24길 3               |
| 시민생활 | 북정마을                             | 성북구 성북로23길 일대              |
| 정치역사 | 삼청각                              | 성북구 대사관로 3                 |
| 시민생활 | 성북동 국시집                          | 성북구 창경궁로43길 9              |
| 시민생활 | 쌍다리 식당                           | 성북구 성북로23길 4               |
| 시민생활 | 선잠제향                             | 성북구 성북동 64-1               |
| 소설   | 『삼대』                             | 염상섭, 1931년 『조선일보』에 연재      |
| 소설   | 『달밤』                             | 이태준, 1933년 『중앙』에 발표        |
| 소설   | 『취우』                             | 염상섭, 1954년 을유문화사에서 출판      |
| 소설   | 『천변풍경』                           | 박태원, 1938년 박문서관에서 출판       |
| 시    | 「독방62호실의 겨울」                     | 김광섭 시집 『마음』(1949)에 수록      |
| 시    | 「봉황수」                            | 조지훈, 1940년 2월 『문장』13호에 발표  |
| 시    | 「성북동 비둘기」                        | 김광섭 시집 『성북동 비둘기』(1969)에 수록 |

10. 구술자료 목록

| 시기          | 출처             | 피면담자                                  | 주요 키워드                                                 |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 성북동 보존전승, 국제교류, 문화컨텐츠                                  |
| 2015.12.31  |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 계영선(영라인의원 원장)                         | 성북동 토박이, 요정, 성북천, 보성고등학교, 월남민, 기업인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김경동(성북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북정마을 주민으로서 삶, 북정마을, 마을기업 제안                            |
| 2015.12.31  |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 김경동·김현동(북정마을)                         | 북정마을의 예전모습, 성곽마을, 산신제, 월월축제, 복사모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김보라(성북구립미술관 관장)                       | 성북구립미술관 개선, 프랜차이즈 반대, 미술관의 역할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김성희(캠페운데이션 이사)                        | 예술가와 지역사회, 상업화반대 제안, 레지던시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김순기(한국서예관 관장)                         | 서예관 운영 동기와 목적 비전, 서예방송국, 문화보존을 위한 적절한 규제               |
| 2016. 6. 22 | 본 연구           | 김순희(협동조합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 대표)               | 성아들, 봉사활동, 성북동해설사 양성과정, 성북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
| 2016. 6. 22 | 본 연구           | 김철우(성북동천 대표, 마을활동가)                   | 성북동천, 희망제작소, 양극화, 동네한바퀴, 인터넷, 젠트리피케이션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김향규(금녕약국 약사)                          | 동천학사, 다양한 지역활동, 지역주민중심의 소통공간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김현동(전 성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북정마을 주민으로서 삶,북정마을, 골목개선                                |
| 2016. 6. 16 | 본 연구           | 김황용(강촌쌈밥 대표, 前 대원각 지배인, 前 성북동주민자치위원장) | 전북 부안, 대원각, 이경자, 김영한, 성북동 자치위원장, 개발보다 보존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나선화(문화재청장)                            | 어떻게 보존,소통할 것인가 - 성곽, 축제, 지역주민 윤택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박준희(EAST4 대표)                         | 프로젝트 소개, 개발 서서히, 건축가로서 성북동 - 성벽, 천편일률적 다세대주택, 차도 활용 개선 |
| 2015.7.31   | 성북동 마을잡지 5호    | 홍베이스마켓 배달원                            | 일과, 보람, 목표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서준호(오뉴월 대표)                           | 인프라에 비해 콘텐츠 활용 아쉬움, 스토리텔링 부재, 재개발 반대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손인웅(덕수교회 원로목사)                        | 빈부격차, 종교연합 바자회, 사회복지프로그램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최호진·송지영(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 문화유산 보존, 역사문화지구, 문화재 관리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안병노(성북동성당 사무장)                        | 성북동의 과거 모습, 종교연합 바자회, 지역 봉사활동                          |
| 2015.11.13  | 성북동 마을잡지 6호    | 유영봉(서울괴담 대표)                          | 연출가 주민으로서 성북동, 북정마을-지역네트워크                             |
| 2015.12.31  |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 이건자(중요무형문화재 제 19호,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     | 선소리산타령, 황용주, 경창대회                                      |



| 시기         | 출처             | 피면담자                                   | 주요 키워드                                            |
|------------|----------------|----------------------------------------|---------------------------------------------------|
| 2016.5.4   | 본 연구           | 이덕훈(이발사, 세이용원 대표)                      | 일기, 인물(이덕훈), 과거의 유산 보존                            |
| 2015.12.31 |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 이생강(중요무형문화재 제 2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 대금산조, 궁중음악과 민속악, 강선영, 퓨전, 크로스오버, 어린이 국악 교육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이선화·노승화(성아들 공동대표, 운영위원)                |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엄마들의 모임, 성·아·들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이은준(성북동 통장 친목회 회장)                     | 외국인 교류사업, 성북동의 풍수지리, 성북동 재개발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이준희(성북문화재단 행정지원팀 기획실장)                 | 문화기획, 지역예술단체, 협동조합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이혜경(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                   | 공공미술, 문화공동체, 예술교육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이효재(한복디자이너)                            | 인물(이효재), 도시건축, 전통문화 회복                            |
| 2015.12.31 |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 전보삼(경기도박물관장)                           |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심우장, 강석주 스님, 우정상 교수, 유치웅, 비로자나법신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정미숙(한국가구박물관 관장)                        | 한국의 주생활문화, 문화보존, 역사문화관광                           |
| 2015.12.31 |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 정탄(성라원 주지스님)                           | 일당스님(김태신), 자전소설, 김일엽, 오다 세이조, 한용운, 공약상장, 성라암, 나혜석 |
| 2016.4.1   | 본 연구           | 최성수(시인, 청소년 문학작가, '성북동천'마을활동가)         | 1968년 이사, 한옥, ब्ल록집, 선이 살아있는 마을, 재개발, 성북동 비둘기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최성수(시인)                                | 문화유산 보존, 역사문화지구, 문화재 관리                           |
| 2016.7.15  | 본 연구           | 세븐일레븐 성북한옥천점 파트타임, 성북동 15년여 거주한 20세 학생 | 성북동 산책로, 지역활성화, 성북동 재개발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현금동(성북동 선잠제보존위원회 위원장)                  | 문화유산 보존, 사회복지, 복지협의체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홍정근(성북구 관음사 주지 스님)                     | 빈부격차, 사회복지사업, 문화프로그램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해강(길상사 부설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             | 주민공간, 사회복지사업, 성북동 재개발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황선영(성북나눔연대 사무국장)                       | 저소득층 자녀, 역사교육, 협동조합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길상사 부설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                 | 주민공간, 사회복지사업, 성북동 재개발                             |
| 2013.12.30 |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성북 나눔연대 사무국장                           | 저소득층 자녀, 역사교육, 협동조합                               |

11. 참고문헌

○ 조선시대 문헌 자료

- 관찬 사료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비고』,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 문집·일기류

강이천(姜彝天), 『중암고(重菴稿)』

강준흠(姜浚欽), 『삼명시집(三溟詩集)』

강 진(姜 潛), 『대산집(對山集)』

김구주(金龜柱), 『가암유고(可庵遺稿)』

김 려(金 鎰), 『담정유고(潭庭遺藁)』

김정희(金正喜), 『완당전집(阮堂全集)』

김조순(金祖淳), 『풍고집(楓阜集)』

목만중(睦萬中), 『여와선생문집(餘窩先生文集)』

박시원(朴時源), 『일포집(逸圃集)』

박윤묵(朴允默), 『존재집(存齋集)』

박제가(朴齊家), 『정유각집(貞懿閣集)』

박준원(朴準源), 『금석집(錦石集)』

변중운(卞鍾運), 『소재집(蘇齋集)』

서형수(徐澄修), 『명고전집(明臯全集)』

성대중(成大中), 『청성집(靑城集)』

오재순(吳載純), 『순암집(醇庵集)』

유득공(柳得恭), 『영재집(冷齋集)』

유득공(柳得恭), 『경도잡지(京都雜誌)』

유만주(兪晩柱), 『흙영(欽英)』(김하라 편역, 『일기를 쓰다: 흙영 선집』, 돌베개, 2015)

유본예(柳本藝), 『한경지략(漢京識略)』

윤 기(尹 愔), 『무명자집(無名子集)』

윤정현(尹定鉉), 『침계유고(樸溪遺稿)』

이건창(李建昌), 『명미당집(明美堂集)』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이만수(李晩秀), 『극원유고(屨園遺稿)』

이복원(李福源), 『쌍계유고(雙溪遺稿)』

이상적(李尙迪), 『은송당집(恩誦堂集)』

이이순(李頤淳), 『후계집(後溪集)』

이지수(李趾秀), 『중산재집(重山齋集)』

장석룡(張錫龍), 『유헌집(遊軒集)』

장 혼(張 混), 『이이엄집(而已廣集)』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조극승(曹克承), 『구애집(龜厓集)』

조병현(趙秉鉉), 『성재집(成齋集)』

조수삼(趙秀三), 『추재집(秋齋集)』

채제공(蔡濟恭), 『번암집(樊巖集)』  
황수연(黃壽延), 『춘파유고(春坡遺稿)』

○ 일제강점기 문헌 자료

-조선총독부 간행 자료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편찬 자료

『한민족독립운동사』,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일제 감시대상인물카드』, 『왜정시대인물사료』,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 연구논문

강석훈, 『지역사회 문화유산의 재조명과 새로운 도시경관의 창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을 사례로』, 『민속학연구』26, 2010.

강영호·이천용·배영태, 『구한말 일제강점기 이후 서울의 풍치림조성 및 치산치수 역사』, 『산림공학기술』8-1, 2010.

강창우, 『일제강점기 민간필지개발에 의한 도시조직 변화과정 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고정옥, 『갈 곳 모르는 비둘기의 고장, 성북동』, 『도시문제』34, 1999.

구본현, 『한시문(漢詩文)에 나타난 한양성문(漢陽城門)의 성격과 의미』, 『서울학연구』47, 2012.

권영배, 『일제하 사립각종학교의 지정학교 승격에 관한 일연구』, 『조선사연구』13, 2004.

권 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 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권희란, 『혜곡 최순우 고택』, 『주택과 사람들』197, 2006.

김가은, 『성북동 커뮤니티 도서관 재계획: 열린 공간 구성 방식의 적용을 통한 지역 도서관 제안』,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관호, 『심우장 견문기』, 『한용운사상연구』2, 1981.

김균언, 『1960년대 서울 정릉동의 도시한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김대한, 『전차 개설에 의한 한양도성 문루 주변지역의 도시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김란기, 『역사적 문화예술자산을 통한 지역의 발전방안』, 『한국문화산업학회 학술대회』, 2011.

김민걸, 『돈암지구 소형필지의 도시한옥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김선옥, 『이태준, 김동리, 최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성북동, 낙산 일대의 공간 연구』, 『한성어문학』34, 2015.

김성연, 『1930년대 한용운의 불교 개혁론과 민족의식 고취』, 『불교문예연구』3, 2014.

김영미, 『일제시기 도시문제와 지역주민운동: 京城지역 성북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28, 2007.

김영수·송인호, 『동소문동 4가의 도시한옥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18-2, 1998.

김재원, 『소통을 위한 성북동 골목길 공동체 계획』,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논문집』9, 2005.

나각순, 『도성의 축조와 도성민의 생활상』, 『서울문화』10, 서울문화사학회, 2006.

\_\_\_\_\_, 『서울 한양도성의 기능과 방위체제』, 『향토서울』80,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문인식, 『한양도성의 각자성석에 대한 종합적 고찰』, 『서울학연구』55,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14.

박경은, 『스케이프(Scape)의 담론을 토대로 한 서울성곽과 북정마을의 상호개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박성창, 『이태준과 김용준에 나타난 문학과 회화의 상호작용』, 『비교문학』56, 2012.

박진동, 『일제강점하(1920년대) 보통학교 6년제 승격운동의 전개와 귀결』, 『역사교육』102, 2007.

배개화, 『문장지 시절의 박태원: 신체제 대응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44, 2008.

배경식, 『1930년대의 문화지형과 한용운의 삶』, 『불교문예연구』3, 2014.

배우리, 『서울 근처의 옛길과 땅이름』, 『사학』94, 2000.

백원기, 『심우장(尋牛莊)의 정체성 확립과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동방논집』2, 2008.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로와 자동차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연구』4집, 1989.

송미배, 『도시형한옥의 내외부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삼선동, 안암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송지영, 『지역특성을 고려한 한옥밀집지역의 활성화방안: 성북구 내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신치호, 『서울 한양도성의 축조 과정과 각자』, 『은향』9, 은평향토사학회, 2012.

심영선, 『한양도성 인접 노후주거지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통합적 재생방안 연구: 성북구 성북동 북정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심영선, 『한양도성 인접 노후주거지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통합적 재생방안 연구: 성북구 성북동 북정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연용·이원호·이세미, 『도심지 내 명승 주변지역 거주민의 의식 연구: 명승 제35호 성락원(城樂園)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31-1, 2013.

윤가진, 『지역 개인 미술관 사례를 통한 미술관 건립계획에 관한 연구: 윤중식과 성북지역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윤 정, 『세종3년 상왕 태종의 한양도성 개축의 정치사적 의미』, 『향토서울』8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윤지영, 『중학교 계발 활동을 통한 지역사 교육의 실제: 성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기훈, 『1920~30년대 보통학교와 지역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54, 2008.

이민정, 『1980년대 이후 성북동 주거지역 건축물의 용도변화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이원호·김재용, 『서울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주변경관의 시각적 특성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31-2, 2013.

이원호·이세미, 『성락원(명승 제35호) 주변지역 필지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성북동 문화재 주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31-2, 2013.

이정숙, 『한국 근현대소설에 나타난 성북동, 낙산 일대의 형상화 고찰』, 『한성어문학』33, 2014.

이중재, 『〈九人會〉연구: 李泰俊, 朴泰遠, 李箱의 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이지아, 『서울 한양도성 성곽마을 창출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성북구 북정마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임혜련, 『조선시대 선잠제(先蠶祭) 정비와 시행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77, 2015.

장영우, 『심우장 시절의 만해 문학』, 『한국문학연구』47, 2014.

정기환, 『“전통문화지구 보존(재생)정책”의 장소산업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시 인사동, 북촌, 돈암



동, 서촌의 '장소', '공공성'담론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42, 2011.

정승교, 『대한제국기 지방학교의 설립주체와 재정』, 『한국문화』22, 1998.

정은경, 『1950년대 서울의 공영주택 사업으로 본 대한원조사업의 특징』, 『서울학연구』5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5.

조병상, 『서울시 북악산 일원 암각문화 연구』, 상명대학교 환경자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조수연, 『체험 학습을 통한 역사 수업 지도 방안 (성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채수영, 『한용운의 시정신: 심우장산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39, 1984.

최완수, 『간송 선생 평전』, 『간송문화』41, 1991.

한광식·강석훈, 『근대인물 문화재 가치창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법: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268호 최순우 옛집을 사례로』, 『서울도시연구』, 12-1, 2011.

현순영, 『구인회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홍운주, 『도시 경계의 비공식 건축: 서울의 하천·철도·문화재 주변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2013.

○ 단행본

- 성북구청·성북문화원 편찬 도서

손정목 외, 『성북구지』, 성북구, 1983.

성북구, 『성북의 옛터와 명소』, 성북구, 1988.

성북구, 『내고향 성북』, 성북구, 1990.

성북구청 문화공보실, 『성북의 옛터와 명소』, 성북구, 1994.

박경룡 외, 『성북의 문화재』, 성북문화원, 1997.

양보경,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장철수·김혜숙, 『선잠제의 역사와 의례』, 성북문화원, 2002.

성북구청 문화체육홍보과, 『내 고향 성북 내 사랑 성북』, 성북구, 2004.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성북100경』, 성북구청, 2006.

류성룡, 『성북동, 성락원, 장빙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09.

여성문화유산연구회,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성북문화원, 2010.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잊혀져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성북동』 1~3권,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09~2011.

(재)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성북구청, 2013.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성북동 예찬』(안내 팸플렛), 2014.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역사문화지구 가이드북 - 역사문화 숨결, 그 아름다운 전통을 품다. 성북동』, 성북구청, 2014.

송지영·심지혜, 『성북, 100인을 만나다』, 성북구청, 2015.

박수진 외,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성북구 문화재지역 구술자료집』, 성북문화원, 2015.

박수진 외, 『성북동-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성북문화원, 2015.

- 서울역사편찬원(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찬 도서

『(국역) 경성부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4.

『서울육백년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77.

『동명연혁고8: 성북구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8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저, 『서울 2천년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3.

『서울의 산』,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97.

『서울의 고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98.

『서울의 하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0.

『서울의 성곽』,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4.

『서울의 시장』,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7.

『서울의 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9.

『서울의 능묘』,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0.

『서울의 누정』,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서울행정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97.

『서울건축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99.

『서울교통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0.

『서울상공업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3.

『서울인구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5.

『서울재정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7.

『서울항일독립운동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9.

『서울공연예술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1.

『서울재해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민태운 외, 『서울 사람이 겪은 해방과 전쟁』,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1.

박종천, 『서울의 제사, 감사와 기원의 몸짓』,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 전집류

한용운, 『한용운 문학전집』 1~6권, 태학사, 2011.

김용준, 『근원 김용준 전집』 1~6권, 열화당, 2007.

이태준, 『이태준 전집』 1~7권, 소명출판, 2015.

김광섭, 『이산 김광섭 시전집』, 문학과지성사, 2005.

조지훈, 『조지훈 전집』 1~9권, 나남, 1996.

김광균, 『김광균 문학전집』, 소명출판, 2014.

- 기타

강은교, 『허무집』, 서정시학, 2006.

견기여행취재팀, 『(뚜벅이들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여행: 서울』, 김영사, 2008.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1940년, 경성의 풍경,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 민속원, 2010.

국토교통부,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1』, 진한엠앤비, 2015.

권영성, 『나는 골목에 탐닉한다』, 갈리온 웅진씽크빅, 2009.

김광섭, 『시와 인생에 대하여-김광섭 자서전, 나의 이력서』, 한국기록연구소, 2014.

김광식, 『우리가 만난 한용운』, 참글세상, 2010.

\_\_\_\_\_, 『한용운: 전인적인 독립운동가』, 역사공간, 2015.

김도형, 『순성(巡城)의 즐거움: 서울성곽 600년을 걷다』, 효형, 2010.

김두식, 『육망해도 괜찮아』, 창비, 2012.

김병중, 『화첩기행2: 예인의 혼을 찾아 옛 거리를 거닐다』, 문학동네, 2014.

김삼웅, 『만해 한용운 평전』, 시대의창, 2011.

김수근문화재단 편, 『당신이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입니까?』, 공간사, 2006.

김영미, 『동원과 저항: 해방 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 푸른역사, 2009.

김영배, 『동네 안에 국가 있다: ‘공공성의 정치, 마을정치, 생활정치’를 향하여』, 백산출판사, 2013.

\_\_\_\_\_, 『작은 민주주의 사람의 마을 - 동네 안에 국가 있다, 그 두 번째 이야기』, 너울북, 2014.

김용관, 『서울, 한양의 기억을 걷다: 서울에서 한양까지 다시 찾은 수도 육백년사』, 인물과사상사, 2012.

김유경, 『서울 북촌에서: 골목길에서 만난 삶, 사람』, 민음인, 2009.

김재관, 『문학 속의 서울』, 생각의나무, 2007.

김학동, 『김광균 평전』, 새문사, 2015.

김형국, 『우리 미학의 거리를 걷다: 전승미술 사랑의 토막 현대사』, 나남, 2015.

김환기, 『수화 김환기 화집』, 일지사, 1984.

도시재생사업단,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이야기: 지역 자력형 도시재생 우수 사례집』, 도시재생사업단, 2011.

류성룡, 『성북동: 성벽, 개천, 산길(따라)···성곽마을의 풍경』, 서울특별시, 2013.

문재원, 『(잡지로 보는)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 국학자료원, 2013.

박경룡, 『역사문화의 도시, 서울』, 수서원, 2015.

박일영, 『소설가 구보씨의 일생 - 경성 모던보이 박태원의 사생활』, 문학과지성사, 2016.

박헌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소설의 성격』, 소명출판, 1999.

뿌리깊은나무 편, 『한국의 발견: 서울』, 뿌리깊은나무, 1983.

상허문화회, 『근대문학과 구인회』, 깊은샘, 1996.

서울문화재단, 『오늘 어디 갈까?: 서울문화예술탐방 따라잡기』, 인물과사상, 2010.

서울역사문화포럼, 『서울역사문화 답사안내』, 수서원, 2010.

서정일, 『그림일기: 정기용의 건축 드로잉』, 현실문화, 2013.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1996.

손인용, 『풀밭이 있는 잔잔한 냇가』, 종로서적, 2000.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_\_\_\_\_,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 한울, 2003.

송지영·심지혜, 『성북동, 길에서 예술을 만나다』, 연두와파랑, 2015.

여운자, 『무아 방용룡 레오 안드레아 신부: 탄생 100주년 기념 화보집』, 한국순교복자수녀회, 2001.

오마이뉴스 편, 『마을의 귀환: 대안적 삶을 꿈꾸는 도시공동체 현장에 가다』, 오마이북, 2013.

오영옥 외, 『어떤 외출: 낯선 공간이 나에게 말을 걸다』, 이상미디어, 2012.

유영호, 『한양도성 걸어서 한바퀴: 서울성곽길 따라 6백 년 역사 속으로!』, 창해, 2015.

이동미, 『골목이 있는 서울, 문화가 있는 서울』, 경향신문사, 2005.

이문구, 『이문구의 문인기행』, 에르디아, 2011.

이신철, 『북한 민족주의 운동연구: 1948~1961, 월북·남북인들과 통일운동』, 역사비평사, 2008.

이영근, 『서울 올레길: 육백년 도성길』, 중앙북스, 2010.

이중재·최연진, 『사람은 따뜻한 시선으로 자란다』, 메디치미디어, 2009.

이충렬, 『혜곡 최순우 - 한국미의 순례자』, 김영사, 2012.

이현군, 『옛 지도를 들고 서울을 걷다: 역사지리학자의 서울 걷기 여행 특강』, 청어람미디어, 2009.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 프리미엄북스, 1997.

임석재,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 인물과사상사, 2010.

임중빈, 『만해 한용운: 그 생애와 정신』, 명지사, 1993.

장석주,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 시공사, 2007.

장용동, 『(르포) 한국의 부촌』,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장태동, 『서울문학기행: 서울 곳곳에 숨겨진 문인들의 흔적을 찾아서』, 미래M&B, 2001.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전보삼, 『푸른 산빛을 깨치고: 만해의 불교사상』, 민족사, 1992.

정규용, 『글 속 풍경 풍경 속 사람들』, 이가서, 2010.

정한모, 『바람과 함께 살아온 세월』, 문음사, 1983.

정한숙, 『금당벽화』,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조광렬, 『승무의 긴 여운, 지조의 큰 울림: 아버지 조지훈-삶과 문학과 정신』, 나남, 2007.

조영복, 『월북 예술가 오래 잊혀진 그들』, 돌베개, 2002.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123편 잡지 창간사로 읽는 한국 현대 문화사』, 마음산책, 2014.

\_\_\_\_\_, 『조선의 사나이거든 꽃뿔을 차라: 스포츠 민족주의와 식민지 근대』, 푸른역사, 2010.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5.

최병택·예지숙, 『경성리포트』, 시공사, 2009.

최 열, 『옛 그림 따라 걷는 서울길: 풍경, 그림, 시 그리고 사람 이야기』, 서해문집, 2012.

홍기돈, 『근대를 넘어서려는 모험들: 일제 말기의 문학사상 연구』, 소명출판, 2007.

홍기원, 『성곽을 거닐며 역사를 읽다: 문화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서울 성곽 역사 기행』, 살림, 2010.

홍순민, 『서울 풍광』, 청년사, 2009.

○ 보고서·전시도록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성북동 이종석 별장: [민속자료 제10호]』, 서울특별시, 2009.

성북구, 『성북동 이종석 별장: 실측조사 보고서』, 성북구, 2009.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마포 최사영 가옥: [문화재자료 제37호]』, 서울특별시, 2009.

서울역사박물관 편, 『한양도성 각자성석 조사결과 보고: 도성발굴의 기록 II』, 서울역사박물관, 2012.

성북구립미술관 편, 『위대한 유산 展』, 성북구립미술관, 2013.

박상빈 외, 『동소문별곡』, 서울역사박물관, 2014.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성 베네딕도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소장 서울사진』, 서울역사박물관, 2014.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편, 『2014년 한양도성 마을 특별전: 도성과 마을 1』, 서울역사박물관, 2014.

○ 연속간행물

- 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 잡지

『기호학회월보』, 『삼천리』, 『별건곤』, 『동광』, 『사해공론』, 『문장』,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

- 사전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2.



JEáh¿ f Ê: ~à´Ž%±D 2KzŽy• 9X—:£Ž

ÂÔ<sup>1</sup> ~à´™ß Žy• <sup>2</sup> ß@yx

Jýû û ~<sup>2</sup> ÑzŽy• <sup>2</sup> `ù& &Žž2\$ %

~LKzŽyž2\$ % ~~LKzŽy• <sup>1'</sup>™•Ě<sup>3</sup>x

Ñ(

z(¿—μ™ ...Ñ({ ÑbÈuî ...!°

zç2Ñ({ ñ!°™<sup>2</sup> ĩb?

zŸÈ({ 8°<sup>2</sup> ĩb?

zm(f¿y({ `nLbö° f DN<sup>2</sup> ÉŽĂ,™

z f¿ Ñx ({ '¶h) 7Ñ'Ž

z Ñã<sup>3</sup>&Q f¿•({ f¿

K " ŽI\_

¿ 2™™Ÿ •IÑ ¿<sup>3</sup>R @XXX TFPOHCVL HP LS UPVS NBJO

¿™;2Ž™:Ý@UPVS JTCDD PS LS

´Žž2\$ % à´Ž I ìl @EC IJTUPSZ HP LS

´>Ýp @XXX BSDIJWFT HP LS

™dR@XXX DIB HP LS

<sup>2</sup> ÉŽž2 W \*@IJTUPSZMJC TFPVM HP LS

à´Šy™ă%#@EC JULD PS LS

<sup>2</sup> .Đ,'@GVUVSFIFSJUBHF TFPVM HP LS

ã<sup>2</sup> Ñ(@HJT TFPVM HP LS

´> 3J •3yWŽ™@F HPOHIVO NQWB HP LS

´@°"Ă,™×b '¶h) Ă,™,;dx@ESZQMBUF NVTFVN HP LS

à´®-ßŸ•, &3\*4 @XXX SJTT LS

à<sup>1'</sup> 3333 à´™Ÿ•Ž @LPSFBO WJTJULPSFB PS LS

dw(&•<• Ă ‡ 4@XXX BVSVN SF LS

¿ 2L@CSVODI DP LS !TFPOHCVLTUPSZ

- ĂŖ; ÀÚá

ÁŕĂĬĬ, ĭ° ±ēĂŖ÷°ÇĂàĐ: ½ĂŰ¿ĭ,<sup>2</sup> ÀÇ¼¼%ēĭ», »ē¼¼μ¼¼ĂăEQ»ç, 1998.

[ĂŖĂĬ°, ] ±ē¼¼-ÉĂÇÀì¼Ăă°ĭ ÀŎĂ Áý"é °E¼¼Ŭ¼¼Ēē¿ì¼¼Ŭ¼¼¿ĭÀÇ¼¼ĉĭ μ¿ Áý(2011.05.09)

<http://news.join.com/article/5461386>

ÁŕĂĬĬ, ĭ° ±ēĂŖ÷°ÇĂàĐ: ½ĂŰ¿ĭ,<sup>2</sup> ÀÇ¼¼%ēĭ», μ¼¼ĂăEQ½Ăŕ®È-»ç, 2003.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원

2016. 8. 20.



